



통계분석

2022 범죄예방정책

발간사

데이터는 현상을 이해하는 토대, 혁신적 변화의 추진력...

데이터는 현상을 이해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토대이자 혁신적 변화를 위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이에 2020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정책의 통계 데이터를 선별, 구성하여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을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올해는 그 세 번째로 「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에 담긴 300여 종의 통계지표는 범죄인 처우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 실증적 데이터로서 증거에 기반한 범죄예방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성장시키는 일은 부단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지난한 일입니다. 특히 범죄인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정책의 현장은 끊임없는 위기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지난 2년간 범죄예방정책국의 실무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코로나19였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방역 조치 가운데에도 처우의 방법을 다변화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창의적 적응을 이루어왔을 뿐 아니라 소년원생 개별 처우의 강화,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 전자보석제도의 시행,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의 신설 등 새로운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이라는 목표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현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평가, 혁신을 통해 이어질 것이며, 범죄예방의 실천적 노력이 데이터에 오롯이 반영되도록 계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책’으로서의 ‘범죄예방’을 체화(體化)하여 실천하는 범죄예방정책국 구성원 한분 한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지지를 보내주시는 지원자분들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9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원 우 장



일러두기

01

「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수행한 정책실무의 결과이며, 증거기반의 범죄예방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02

본 통계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보호관찰 정보시스템(보호관찰, 전자감독, 치료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통합지원시스템(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조사), 소년보호 교육종합관리시스템(소년보호, 청소년비행예방), 통합의료정보시스템(치료감호)을 토대로,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과,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의 자료를 통합·분석하였습니다.

03

본 통계분석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소관 업무에 따라 총 9장으로 구성하였고,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은 범죄예방정책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개관으로, 보호관찰·소년보호·청소년비행예방·치료감호 등의 개요와 민간자원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제2장부터 제9장은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 등의 업무를 세분하여, **제2장**은 보호관찰기관의 보호관찰, 치료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 조사 등의 업무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장은 보호관찰기관의 전자감독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을, **제4장**은 보호관찰기관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 집행업무를 담고 있습니다.

제5장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교육·사회정착지원·분류심사 등 소년보호 업무를,

제6장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청소년비행 예방교육과 비행 진단 업무를, **제7장**은 정신질환 범죄자 등에 대한 국립법무병원의 주요 업무를 담고 있습니다.

제8장과 제9장은 범죄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갇혀보호사업과 시민 대상의 다양한 법교육 현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04

본 통계분석의 각 표는 시계열 분석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의 통계를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몇몇 지표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년간의 통계 또는 2021년의 통계가 제공되고 있으니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7

본 통계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의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재범률의 경우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각 지표의 백분율도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나, 총계가 100이 되지 않는 경우 일부 반올림의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통계표의 부호 '-'는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05

본 통계의 단위는 지표 유형에 따라 '건'(사건) 또는 '명'(인원)입니다.

08

본 통계분석은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s://www.cppb.go.kr>



06

본 통계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각 지표의 작성기준, 산출공식 등은 지표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장 범죄예방정책 개관

제1절 보호관찰 개요	4
1. 접수사건 현황	4
2. 기관별 접수사건 현황	7
3.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	9
4. 종료 현황	3
제2절 소년보호 개요	3
1. 신수용 현황	3
2. 일일 평균 수용 현황	6
3. 보호소년 출원 현황	8
제3절 청소년비행예방 개요	0
1. 비행예방교육	0
2. 비행진단	2
제4절 치료감호 개요	4
1. 입원 현황	4
2. 수용 현황	7
3. 연평균 수용 현황	9
4. 출원 현황	5
5. 의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을	3
제5절 민간 자원	5
1. 보호관찰위원 현황	6

1) 위촉 현황	6
2) 활동 현황	7
2. 소년보호위원 현황	9
3. 법무보호위원 현황	10
1) 위촉 현황	6
2) 활동 현황	8

제2장 보호관찰

제1절 보호관찰	6
1. 접수사건 현황	6
1) 사범별 현황	6
2) 근거 법률별 현황	11
3) 처분유형별 현황	31
4) 연령별 현황	57
5)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 중 학생 현황	6
6) 성별 현황	8
7) 보호관찰처분 전력	0
8) 내외국인 현황	38
9) 외출제한명령(특별준수사항) 부과 현황	4
2. 실지사건 현황	49
1) 사범별 현황	4
2) 근거 법률별 현황	61
3) 처분유형별 현황	71

목 차

4) 연령별 현황	7
3. 현재원 현황	10
1) 연령별 현황	10
2) 사범별 현황	10
3) 분류등급별 현황	11
4) 사범별 분류등급 현황	18
4. 보호관찰 지도감독	1
1) 지도감독 유형	1
2) 지도감독 대상	11
3)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현황	71
5. 원호	119
1) 전체 보호관찰	119
2) 소년 보호관찰	119
3) 성인 보호관찰	121
6. 보호관찰 성적 양호자 조치	121
1) 개요	122
2) 근거 법률별 보호관찰 임시해제 현황	131
3) 근거 법률별 보호관찰명령 가해제 현황	131
7. 제재	125
1) 서면경고 현황	125
2) 지명수배 활용 현황	128
3) 구인 및 유치 현황	131
4) 처분취소 및 변경 현황	131
5)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및 인용 현황	132
8.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133

1) 소년 보호관찰사건	3
2) 성인 보호관찰사건	3
9. 종료 현황	135
제2절 치료명령	136
1. 접수사건 현황	137
1) 개요	137
2) 문제유형별 현황	1
3) 사범별 현황	10
4) 연령 및 성별 현황	1
5) 치료명령 기간별 현황	4
2. 집행사건 현황	135
1) 치료명령	135
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6
3. 현재원 현황	147
1) 문제유형별 현황	1
2) 사범별 현황	10
4. 치료기관 현황	11
제3절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21
1. 집행 현황	133
2. 치료기관 현황	14
제4절 보호관찰조사	155
1. 개요	156

목 차

1) 종류별 접수 현황	1
2) 기관별 접수 현황	1
2. 판결전조사	11
1) 사범별 접수 현황	1
2)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2
3. 결정전조사	15
1) 종류별 접수 현황	1
2) 사범별 접수 현황	1
3)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8
4)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9
5)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0
6)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1
4. 청구전조사	12
1) 종류별 접수 현황	1
2)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3
3) 죄명별 접수 현황	1
5. 검사 결정전조사	5
1) 종류별 접수 현황	1
2) 사범별 접수 현황	1
3)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6
6. 환경조사	18
1) 사범별 접수 현황	1
2)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9

제3장 전자감독

제1절 전자감독	14
1. 접수 현황	15
1) 범죄유형별 현황	1
2) 처분유형별 현황	1
3) 처분유형 및 범죄유형에 따른 현황	9
4) 전자장치 부착기간별 현황	9
5) 성별 현황	11
6) 성별에 따른 범죄유형 현황	13
7) 성별에 따른 처분유형 현황	22
2. 현재원 현황	13
3. 처우 프로그램 및 원호 현황	21
1) 처우 프로그램 실시 현황	21
2) 원호 실시 현황	29
4. 전자감독기간 중 재범	30
1) 특정범죄 재범 현황	30
2)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재범 현황	11
5.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현황	21
제2절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30
1. 신규 등록 및 누적등록사건 현황	31
2. 등록 관리사건의 유형별 현황	31
3. 신규 등록사건의 죄명별 현황	21
4. 재등록사건 현황	33
5. 등록 종료 현황	20

목 차

제4장	제1절 사회봉사명령	1
사회봉사명령 및	1. 접수사건 현황	21
수강명령	1) 근거 법률별 현황	2
	2) 연령별 현황	27
	3) 사범별 현황	28
	4) 명령시간별 현황	2
	5) 내외국인 현황	27
	2. 실지사건 현황	28
	1) 근거 법률별 현황	2
	2) 연령별 현황	29
	3) 부과 형태별 현황	2
	3. 집행 현황	222
	1) 개요	222
	2) 집행 형태별 현황	2
	3) 집행 분야별 현황	2
	4) 집행 형태별 집행 분야 현황	8
	4. 협력기관 현황	21
	5. 종료 현황	243
	1) 개요	243
	2)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종료 현황	5
	3) 벌금미납 사회봉사 종료 현황	6
	4)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처분변경 등 세부 현황	7

제2절 수강명령	29
1. 접수사건 현황	29
1) 개요	29
2) 처분유형별 현황	2
3) 근거 법률별 현황	2
4) 연령별 현황	5
5) 성별 현황	29
6)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	1
7) 내외국인 현황	4
8) 사범별 현황	5
9) 명령시간별 현황	2
2. 실시 및 집행사건 현황	0
1) 실시사건 현황	0
2) 집행 분야별 현황	2
3) 집행 형태별 현황	2
4) 집행 분야별 집행 형태 현황	6
3. 협력기관 현황	28
4. 종료 현황	29

제5장 소년보호

제1절 수용 세부 현황	8
1. 신수용 보호소년 현황	8

목 차

1) 연령별 현황	24
2) 처분별 현황	25
3) 연령별 처분 현황	26
4) 사범별 현황	28
5) 성별 현황	20
6) 정신질환 현황	9
2. 신수용 위탁소년 현황	9
1) 연령별 현황	23
2) 사범별 현황	24
3) 성별 현황	25
제2절 출원 세부 현황	9
1. 보호소년 처분별 출원 현황	9
1) 7호 처분	23
2) 8호 처분	30
3) 9호 처분	31
4) 10호 처분	32
2.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	3
3.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출원 현황	5
제3절 교육 실시 현황	7
1. 보호소년 교육 수료 현황	7
2. 보호소년 교과교육 세부 현황	11
3.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	11
4. 보호소년 경시대회 입상 현황	31

제4절 사회정착지원 현황	33
1. 개방처우 현황	35
2. 가족관계 회복지원 프로그램	71
3. 취업 지원 현황	39
4. 자립 지원 현황	31
제5절 분류심사 및 보호자교육 현황	32
1. 분류심사 실시 현황	3
2.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	3
제6절 재입원을 현황	37

제6장	제1절 비행예방교육	3
청소년비행예방	1. 대안교육	332
	1) 의뢰기관별 현황	3
	2) 교육기간별 현황	3
	3) 의뢰기관에 따른 교육기간별 현황	5
	4) 비행유형별 현황	3
	5) 기관별 대안교육 실시 현황	8
	2. 보호자교육	30
	1) 개요	340

목 차

2) 보호자교육(의무교육) 교육시간별 현황	1
3) 기관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	2
제2절 비행진단	33
1. 상담조사	33
1) 개요	33
2) 기관별 상담조사 실시 현황	51
2. 청소년 심리상담	66
1)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	66
2) 검사종류별 실시 현황	88
3) 기관별 청소년 심리상담 실시 현황	94
제3절 자립지원기관 현황	95
1. 개요	350
2.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현황	6
3.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현황	2

제7장 치료감호

제1절 피치료감호자 특성	6
1. 치료감호 유형별 현황	6
2. 병명별 현황	38
3. 죄명별 현황	30
4. 범죄 횟수별 현황	32
5. 치료감호 집행기간별 현황	35
6. 연령별 현황	35
7. 학력별 현황	36
8. 직업별 현황	37
9. 피치료감호자(2호) 중독물질별 현황	8
제2절 치료감호 처우 프로그램	36
1.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	36
2. 직업훈련 세부 현황	37
3. 피치료감호자(2호) 중독치료 프로그램 현황	2
4. 진단검사 현황	34
5. 치료감호 출원자 무상 외래진료 현황	51
제3절 치료감호 종료·가중료 현황	77
1. 치료감호 기간별 현황	7
2. 죄명별 현황	38
3. 병명별 현황	39

목 차

	제4절 피치료감호자 재입원 현황	08
	1. 총 출원자 대비 재입원 현황	08
	2. 출원자의 3년 내 재입원 현황	08
	3. 피치료감호 유형별 3년 내 재입원 현황	20
	4. 죄명별 재입원 현황	3
	5. 병명별 재입원 현황	8
	6. 감호집행정지 현황	3
	제5절 정신감정 유치	3
	1. 정신감정 유치자 입·출원 현황	08
	2. 정신감정 의뢰기관별 현황	78
	3.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현황	80
제8장	제1절 개요	32
갱생보호	1. 갱생보호사업 연혁	9
	2. 갱생보호의 방법 및 지원 절차	20
	제2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	3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혁 및 임직원 현황	3
	2. 공단 갱생보호사업 개요	4
	3. 공단 갱생보호사업 분야별 현황	5
	1) 생활지원	35

2) 취업지원	38
3) 가족지원	41
4) 상담지원	44

제3절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66

1.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개요	66
2. 분야별 현황	47
1) 생활지원	47
2) 취업지원	49
3) 주거지원	40
4) 심리상담	41

제9장 법교육

제1절 법교육 프로그램	4
1. 개요	416
2.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74
3. 법교육 프로그램별 세부 실시 현황	81
1)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실시 현황	81
2) ‘어린이로스쿨’ 실시 현황	94
3) ‘탈북청소년 법교육’ 실시 현황	102
4) ‘시민법교육’ 실시 현황	114
5) ‘이민자 법교육’ 실시 현황	122
6) ‘모두가 행복한 교실’ 및 ‘학생 자치 법교육’ 실시 현황	3

목 차

제2절 법교육 출장강연	4
1. 개요	425
2.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현황	52
제3절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72
1. 솔로몬로파크 개요	72
2.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76
3. 솔로몬로파크 방문 인원 현황	92

부록

부록 1. 범죄예방정책국 정원 및 인력 증원 현황	2
1.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정원 현황	4
2. 보호관찰기관 업무별 보호직 정원 현황	5
3. 제도 도입 관련 인력증원 현황	5
부록 2.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6
1.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8
2. 검찰 처분 현황	41
3. 형사공판사건 처리 현황	4
4.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등 처분 현황	8
5. 소년보호사건 처분 현황	9
6. 가정보호사건 처분 현황	5
7. 성매매보호사건 처분 현황	6
8. 아동보호사건 처분 현황	7
9. 가석방 현황	48



Chapter 1

범죄예방정책 개관

제1절 보호관찰 개요

제2절 소년보호 개요

제3절 청소년비행예방 개요

제4절 치료감호 개요

제5절 민간 자원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보호관찰 개요

1 접수사건 현황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 사건)
- 보호관찰 등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포함), 수강명령(이수명령, 기소유예교육 등 포함), 보호관찰조사, 전자감독(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 포함), 치료명령(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 2021년에 접수된 보호관찰 등의 사건은 총 175,473건으로, 보호관찰 43,992건(25.1%), 사회봉사명령 43,161건(24.6%), 수강명령 58,696건(33.4%), 보호관찰조사 23,175건(13.2%), 전자감독 5,983건(3.4%), 치료명령 453건(0.3%),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13건(0.0%) 등이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10.6%, 전년에 비해 4.3% 감소한 것이다.
- 최근 5년간의 접수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에 196,19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연간 175,000~183,000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2020년(전년 대비 2.8% 증가)을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 대비 2.7~6.6% 감소하였다.
- 분야별 접수사건의 경우, 보호관찰은 전체 접수사건의 24~27%를 차지하였고, 매년 전년 대비 5% 내외에서 사건 수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봉사명령도 전체 사건의 24~27%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 사건 수가 감소하다 2020년에는 전년보다 7%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보다 15.4% 감소하였다. 보호관찰조사의 사건 수는 2019년 이후 전년 대비 7% 내외에서 감소하다 2021년에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 수강명령은 사건 수의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19년까지 31% 내외였다가 2020년부터 33%를 상회하였다. 또한, 전자감독은 2019년까지 사건 수와 비율이 감소하다가 2020년 가석방 대상이 확대되고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가 도입되면서 2020년과 2021년의 사건 수는 각각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1-1-1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2017~2021)

분야 연도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보호관찰조사	전자감독	치료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2017	196,193	53,419	52,668	62,315	26,024	1,154	606	7
	100%	27.2%	26.8%	31.8%	13.3%	0.6%	0.3%	0.0%
2018	183,274	49,073	49,873	56,291	26,528	929	572	8
	100%	26.8%	27.2%	30.7%	14.5%	0.5%	0.3%	0.0%
2019	178,417	48,508	47,692	55,761	24,858	830	750	18
	100%	27.2%	26.7%	31.3%	13.9%	0.5%	0.4%	0.0%
2020	183,390	45,592	51,043	60,474	23,176	2,527	572	6
	100%	24.9%	27.8%	33.0%	12.6%	1.4%	0.3%	0.0%
2021	175,473	43,992	43,161	58,696	23,175	5,983	453	13
	100%	25.1%	24.6%	33.4%	13.2%	3.4%	0.3%	0.0%



그림 1-1-1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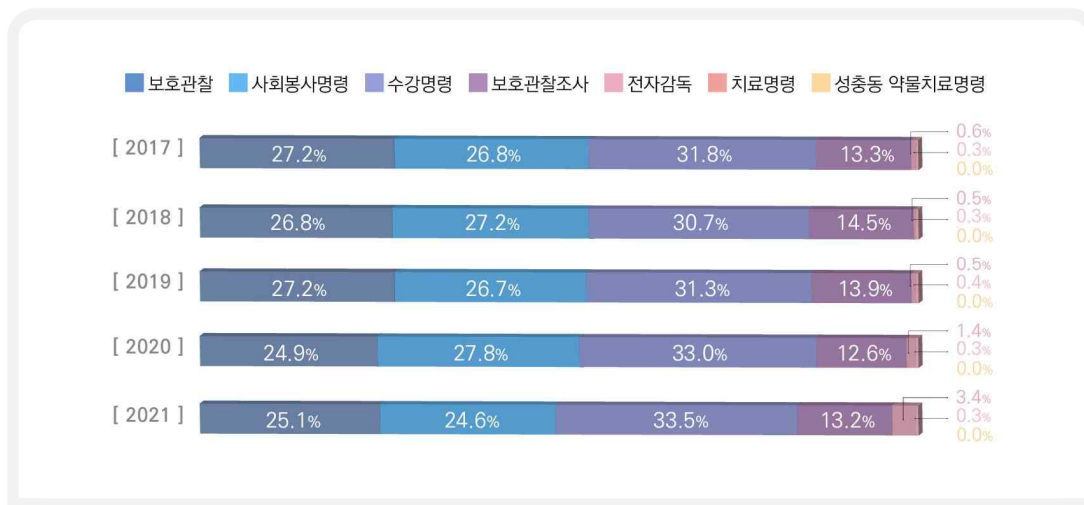


그림 1-1-2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의 분야별 점유율 현황(2017~2021)

➡ 최근 5년간(2016~2020)의 검찰 기소·송치 사건 현황과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을 비교하면, 대체로 유사한 증감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소·송치 사건 현황 및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2016~2020)]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검찰의 기소·송치 사건*	817,335	845,279	751,132	701,047	704,729
전년 대비 증감률	9.3%	3.4%	-11.1%	-6.7%	0.5%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193,131	196,191	183,274	178,417	180,285
전년 대비 증감률	14.8%	1.5%	-6.6%	-2.8%	1.1%

* 구공판(구속, 불구속), 구약식,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아동보호송치 사건 등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2021년

➡ 한편,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소·송치 사건 대비 보호관찰 등의 처분율은 2016년 23.6%에서 2018년 24.4%, 2019년 25.5%, 2020년 25.6%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기소·송치 사건 대비 보호관찰 등 처분율(2016~2020)]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소·송치 사건 대비 보호관찰 등 처분율	23.6%	23.2%	24.4%	25.5%	25.6%

2 기관별 접수사건 현황

개요

- 각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 사건)
- 보호관찰 등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포함), 수강명령(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 포함), 보호관찰조사

- 2021년의 기관별 접수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보호관찰소가 9,0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보호관찰소(8,259건), 의정부보호관찰소(6,859건), 대전보호관찰소(6,720건), 인천보호관찰소(6,717건) 등이었다. 그 외 6,000건 이상 접수기관은 서울남부보호관찰소(6,541건), 창원보호관찰소(6,388건), 대구보호관찰소(6,044건) 등이었다.

표 1-1-2 보호관찰기관별 보호관찰 접수사건 현황(2021)

기관	분야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조사*
계		169,024	43,992	43,161	58,696	23,175
서울		8,259	2,006	1,945	2,753	1,555
서울동부		4,478	1,035	986	1,597	860
서울남부		6,541	1,648	1,582	1,896	1,415
서울북부		4,409	1,126	1,003	1,520	760
서울서부		3,775	894	888	1,243	750
의정부		6,859	2,022	1,432	2,422	983
고양		4,763	1,269	1,213	1,378	903
인천		6,717	1,736	1,934	2,479	568
인천서부		2,894	779	834	1,058	223
부천		4,115	931	1,056	1,551	577
수원		9,011	2,006	2,516	3,667	822
성남		4,958	1,015	1,253	1,728	962
여주		1,555	424	461	574	96
안산		4,926	1,307	1,292	1,899	428
평택		3,080	725	736	1,387	232
안양		2,322	489	721	975	137
춘천		1,484	421	382	505	176
강릉		1,458	387	316	613	142
원주		1,321	464	340	430	87
속초		671	220	219	188	44

기관	분야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보호관찰조사*
영월		452	125	155	158	14
대전		6,720	1,923	1,702	2,067	1,028
홍성		1,096	339	201	273	283
공주		592	219	172	144	57
논산		614	250	99	202	63
서산		1,818	415	503	545	355
천안		3,346	854	815	1,182	495
청주		3,902	1,110	909	1,315	568
충주		912	268	213	293	138
제천		566	202	162	147	55
영동		385	112	94	104	75
대구		6,044	1,981	1,435	2,178	450
대구서부		3,601	984	1,158	1,179	280
안동		994	194	272	287	241
경주		881	224	275	353	29
포항		1,703	556	353	682	112
구미		2,207	545	501	910	251
상주		559	161	163	200	35
영덕		499	99	154	154	92
부산		4,157	966	1,021	1,290	880
부산동부		3,897	949	925	1,295	728
부산서부		3,201	821	744	978	658
울산		4,900	1,168	1,261	2,069	402
창원		6,388	1,515	1,879	2,266	728
진주		2,319	615	626	852	226
통영		1,870	401	539	729	201
밀양		539	165	136	219	19
거창		420	146	106	133	35
광주		5,446	1,552	1,379	1,892	623
목포		2,278	619	598	688	373
순천		3,096	838	774	1,082	402
해남		990	232	271	209	278
전주		3,336	751	834	1,152	599
군산		1,876	564	569	513	230
정읍		906	356	222	203	125
남원		603	201	156	153	93
제주		2,304	668	676	726	234

* 보호관찰조사는 제2장 제4절 보호관찰조사에 사실조회 접수사건 추가

※ 보호관찰과 병과된 전자감독, 치료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등은 하나의 보호관찰 사건으로 산정

3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

지표정의

- 현재원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보호관찰 등을 집행 중인 사건
- 보호관찰 등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포함), 수강명령(이수명령, 기소유예교육 등 포함), 보호관찰조사, 전자감독(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 포함), 치료명령(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보호관찰 등의 현재원은 총 127,613건으로, 보호관찰 47,921건(37.5%), 사회봉사명령 30,690건(24.0%), 수강명령 41,178건(32.3%), 보호관찰조사 2,630건(2.1%), 전자감독 4,316건(3.4%), 치료명령 844건(0.7%),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34건(0.0%) 등이었다.

표 1-1-3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조사	전자감독	치료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2017	86,520	55,784	10,549	14,383	2,300	2,981	509	14
	100%	64.5%	12.2%	16.6%	2.7%	3.4%	0.6%	0.0%
2018	83,801	52,580	10,726	13,686	2,875	3,126	785	23
	100%	62.8%	12.8%	16.3%	3.4%	3.7%	1.0%	0.0%
2019	82,340	50,269	11,264	14,311	2,340	3,111	1,013	32
	100%	61.1%	13.7%	17.4%	2.8%	3.8%	1.2%	0.0%
2020	127,899	49,560	33,778	37,430	2,026	4,052	1,027	26
	100%	38.7%	26.4%	29.3%	1.6%	3.2%	0.8%	0.0%
2021	127,613	47,921	30,690	41,178	2,630	4,316	844	34
	100%	37.5%	24.0%	32.3%	2.1%	3.4%	0.7%	0.0%



그림 1-1-3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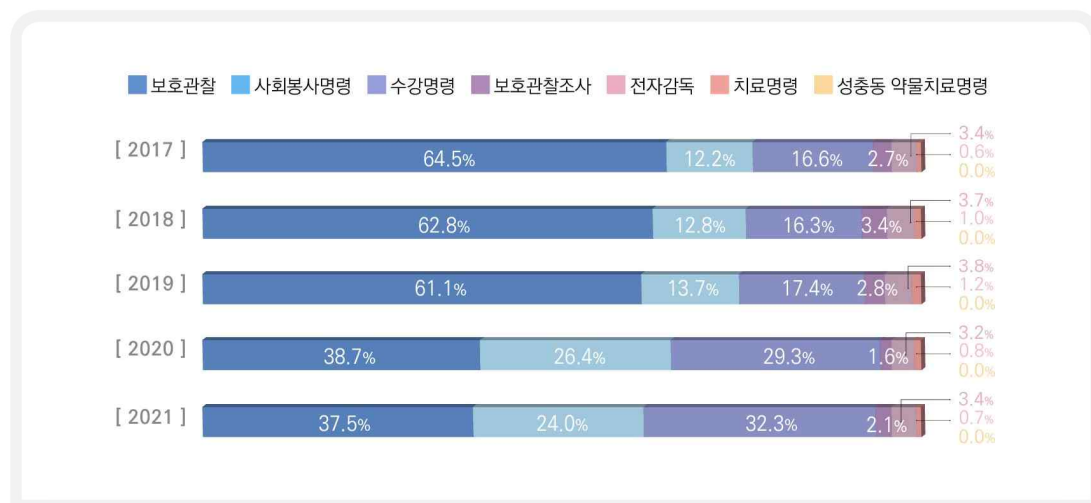


그림 1-1-4 보호관찰 등 현재원의 분야별 점유율 현황(2017~2021)

4 종료 현황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등 사건 종료 현황

지표정의

- 보호관찰 등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포함), 수강명령(이수명령, 기소유예교육 등 포함), 보호관찰조사, 전자감독(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 포함), 치료명령(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 종료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료사건으로, 기간만료 종료(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호처분변경 등 종료(보호처분자의 최초 보호처분이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이송 종료(보호관찰 관할기관 변경에 따른 이송) 등을 모두 포함

- 2021년의 보호관찰 등 종료사건은 총 161,341건으로, 보호관찰 종료가 45,733건(28.4%), 사회봉사명령 종료가 46,094건(28.6%), 수강명령 종료가 44,236건(27.4%), 보호관찰조사 종료가 22,474건(13.9%), 전자감독 종료가 2,144건(1.3%), 치료명령 종료가 654건(0.4%),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종료가 6건(0.0%) 이었다.

표 1-1-4 보호관찰 등 종료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조사	전자감독	치료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2017		171,484	49,921	52,501	41,693	25,883	1,370	113	3
		100%	29.1%	30.6%	24.3%	15.1%	0.8%	0.1%	0.0%
2018		169,707	52,270	49,560	40,604	25,601	1,369	302	1
		100%	30.8%	29.2%	23.9%	15.1%	0.8%	0.2%	0.0%
2019		164,920	50,820	47,233	39,796	25,017	1,542	504	8
		100%	30.8%	28.7%	24.1%	15.2%	0.9%	0.3%	0.0%
2020		127,833	46,301	28,231	28,115	23,175	1,452	552	7
		100%	36.2%	22.1%	22.0%	18.1%	1.2%	0.4%	0.0%
2021		161,341	45,733	46,094	44,236	22,474	2,144	654	6
		100%	28.4%	28.6%	27.4%	13.9%	1.3%	0.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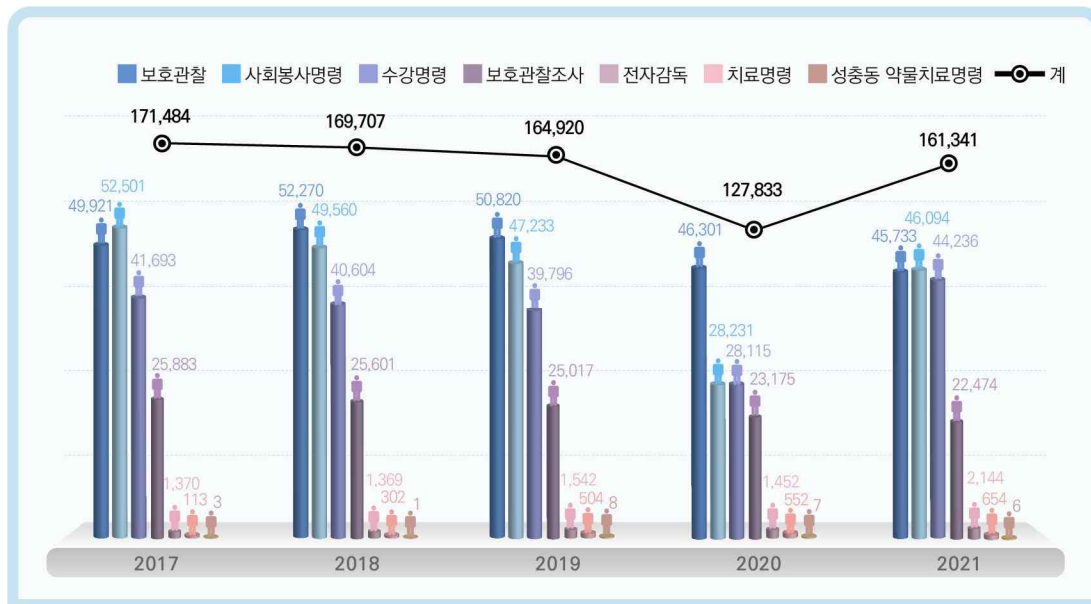


그림 1-1-5 보호관찰 종료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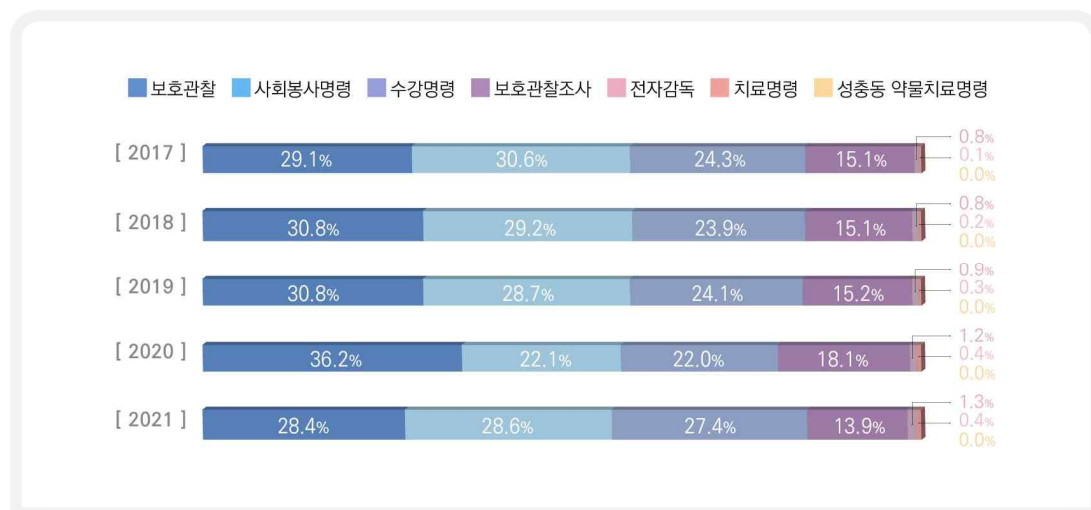


그림 1-1-6 보호관찰 종료사건의 분야별 점유율 현황(2017~2021)

소년보호 개요

1 신수용 현황

개요

-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신규로 입원한 인원 현황

지표정의

- 신수용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신규로 입원한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 보호소년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7·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 위탁소년 : 「소년법」 제18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 위탁 또는 유치된 소년

- 2021년 전국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신수용된 인원은 총 5,237명으로, 보호소년이 1,361명(26.0%), 위탁소년이 3,876명(74.0%)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신수용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8,359명에서 매년 감소하였는데,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5.5%, 2019년에는 11%, 2020년에는 15.6%, 2021년에는 11.7%이었다. 또한, 위탁소년이 매년 전체 신수용 인원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1-2-1 소년보호기관의 신수용 현황(2017~2021)

연도 \ 구분	계	보호소년	위탁소년
2017	8,359	2,450	5,909
	100%	29.3%	70.7%
2018	7,902	2,199	5,703
	100%	27.8%	72.2%
2019	7,032	2,077	4,955
	100%	29.5%	70.5%
2020	5,934	1,637	4,297
	100%	27.6%	72.4%
2021	5,237	1,361	3,876
	100%	26.0%	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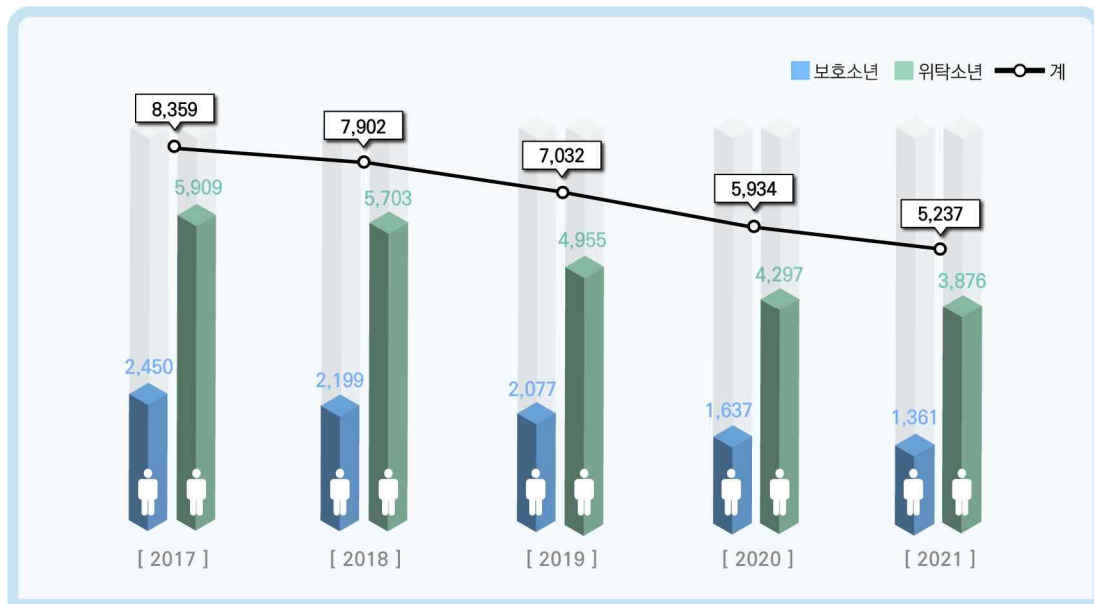


그림 1-2-1 소년보호기관의 신수용 현황(2017~2021)

➡ 소년 인구 및 소년범죄 발생 현황

»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주민등록연앙인구, 10~18세 기준)에 따르면, 10~18세 소년 인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소년범죄 발생사건도 2016년 76,000건, 2017년 72,759건, 2018년 66,142건, 2019년 66,247건, 2020년 64,480건으로 감소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범죄발생비(해당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수)의 경우, 2016년(1,547.9)부터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2,747.0이었다.

※ 소년 인구 및 소년범죄 발생사건 등 현황

연도	구분	소년 인구*	소년범죄**	전체범죄 중 18세 이하 비율**	소년범죄발생비***	성인범죄발생비***
2016		4,909,983명	76,000명	3.9	1,547.9	4,373.5
2017		4,727,024명	72,759명	4.0	1,559.7	4,089.8
2018		4,578,719명	66,142명	3.9	2,486.0	3,808.2
2019		4,407,203명	66,247명	3.8	2,696.1	3,821.9
2020		4,269,294명	64,480명	4.0	2,747.0	3,511.8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연앙인구, 10~18세 기준)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2021년(2018년부터 소년범죄 집계시 14세 미만 소년을 제외)

*** 법무부, 「범죄백서」, 2021

➡ 소년보호처분 송치사건 현황

» 소년보호처분 송치사건은 2016년 33,142건, 2017년 34,474건, 2018년 34,276건, 2019년 34,890건, 2020년 38,293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소년보호처분 송치인원 대비 7·8·9·10호 처분율은 2016년 8.0%, 2017년 8.8%, 2018년 8.9%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8.4%, 2020년에는 7.2% 등으로 감소하였다.

※ 소년보호처분 송치 인원 등 현황

연도	구분 소년보호처분 송치	보호처분					7·8·9·10호 처분율
		소계	7호	8호	9호	10호	
2016	33,142	2,660	105	1,015	770	770	8.0%
2017	34,474	3,025	198	1,099	972	756	8.8%
2018	34,276	3,054	230	1,203	842	779	8.9%
2019	34,890	2,931	269	1,061	821	780	8.4%
2020	38,293	2,773	189	1,011	750	823	7.2%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 ➔ 2020년과 2021년의 신수용 인원 감소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큰데, 특히 월별 신수용 인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발생, 확산, 안정화 양상에 따른 증감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 ➔ 소년보호기관 신수용 인원의 감소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도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월별 감소 추세가 현저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되었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신수용된 보호소년은 월 1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2021년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였고, 12월에는 전년 수준을 넘겼으나,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 소년보호기관 보호소년의 월별 신수용 현황(2018~2021)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2,199	197	151	147	125	209	187	204	216	170	204	212	177
2019	2,077	218	161	124	144	131	188	176	179	189	172	200	195
2020	1,637	165	157	92	92	96	187	153	132	159	139	154	111
2021	1,361	77	111	101	129	105	102	141	93	110	124	129	139

- ➔ 소년보호기관에 신수용된 위탁소년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에는 전년 동월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가 2020년 4월 이후 대체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2020년 11월 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21년 4월 이후 월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 소년보호기관 위탁소년의 월별 신수용 현황(2018~2021)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5,703	512	347	433	457	566	491	496	526	379	506	578	412
2019	4,955	526	263	349	454	454	429	466	389	371	457	431	366
2020	4,297	401	255	170	390	445	445	448	311	375	411	362	284
2021	3,876	277	211	292	313	363	369	329	323	350	362	384	303

2 일일 평균 수용 현황

개요

-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일일 평균 수용인원 현황

지표정의

- 일일 평균 수용 인원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일 수용인원의 합) / (각 연도의 일수)
- 보호소년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7·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 위탁소년 : 「소년법」 제18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 위탁 또는 유치된 소년

- 2021년 전국 소년보호기관의 일일 평균 수용인원은 1,066명으로, 보호소년이 782명(73.4%), 위탁소년이 284명(26.6%)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일일 평균 수용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연간 1,500명 이상이었지만, 2019년 1,342명, 2020년 1,261명 등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도 전년 대비 15.5% 감소하였다. 또한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비율은 매년 소폭의 변화는 있지만 대략 70~74%와 26~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2-3 소년보호기관의 일일평균 수용 현황(2017~2021)

연도 \ 구분	계	보호소년	위탁소년
2017	1,612	1,168	444
	100%	72.5%	27.5%
2018	1,510	1,079	431
	100%	71.5%	28.5%
2019	1,342	946	396
	100%	70.5%	29.5%
2020	1,261	927	334
	100%	73.5%	26.5%
2021	1,066	782	284
	100%	73.4%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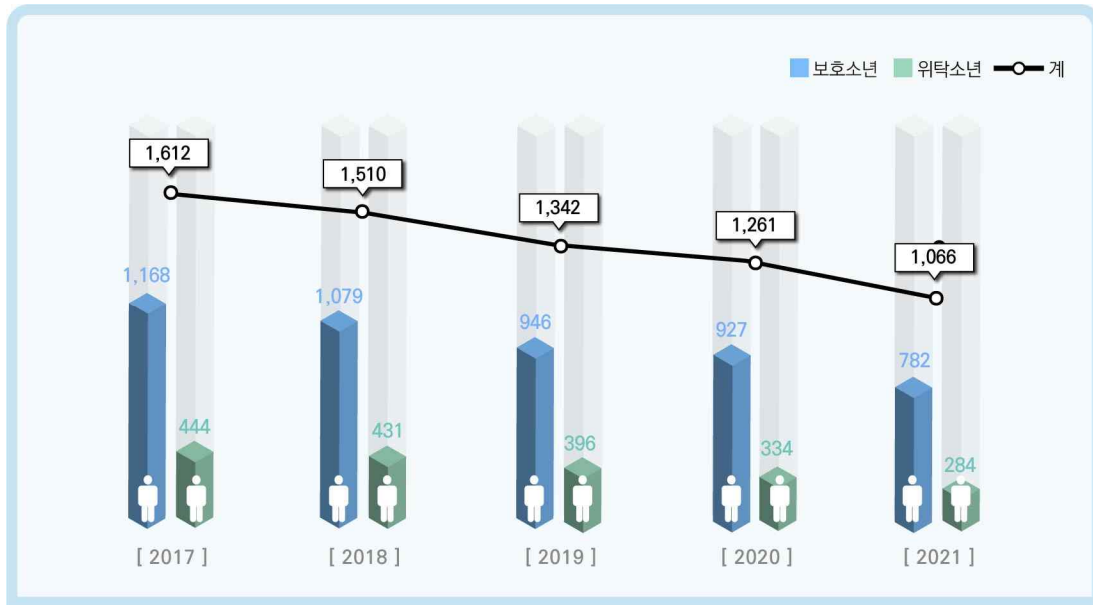


그림 1-2-2 소년보호기관의 일일평균 수용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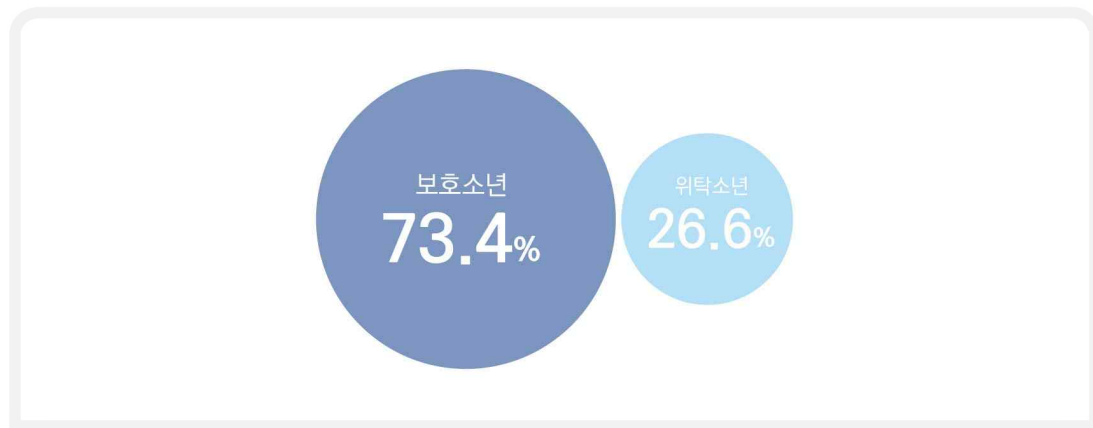


그림 1-2-3 소년보호기관 일일평균 수용인원의 유형별 점유율(2021)

3 보호소년 출원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년원에서 퇴원(임시퇴원) 등으로 출원한 보호소년 현황

지표정의

- 퇴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출원
- 임시퇴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출원
- 기타 : 처분변경, 처분취소, 구속 등으로 출원
- 퇴원 연기 :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확정되었으나 검정고시 응시, 직업훈련 자격 응시 등으로 출원 연기

- 2021년 소년원에서 출원한 보호소년은 총 1,524명으로, 퇴원에 의한 출원이 561명(36.8%), 임시퇴원에 의한 출원이 835명(54.8%), 처분변경 또는 취소 등 기타 사유에 의한 출원이 128명(8.4%)이었다. 한편,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결정되었음에도 검정고시 또는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 등을 위해 출원을 연기한 보호소년은 10명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출원 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41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 2,058명, 2020년 1,67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8%와 18.6% 감소하였고, 2021년에도 전년 대비 9.0% 감소하였다.
- 또한, 출원 유형 중 퇴원에 의한 출원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여 2017년 56.5%에서 2020년 이후 40% 내외에 머무는 반면 임시퇴원에 의한 출원은 2017년 40.3%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0년 이후 51%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1-2-4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출원 유형				퇴원연기
		계	퇴원	임시퇴원	기타	
2017		2,349	1,329	946	74	13
		100%	56.5%	40.3%	3.2%	
2018		2,416	1,259	1,069	88	33
		100%	52.2%	44.2%	3.6%	
2019		2,058	1,060	884	114	26
		100%	51.5%	43.0%	5.5%	
2020		1,675	687	859	129	7
		100%	41.0%	51.3%	7.7%	
2021		1,524	561	835	128	10
		100%	36.8%	54.8%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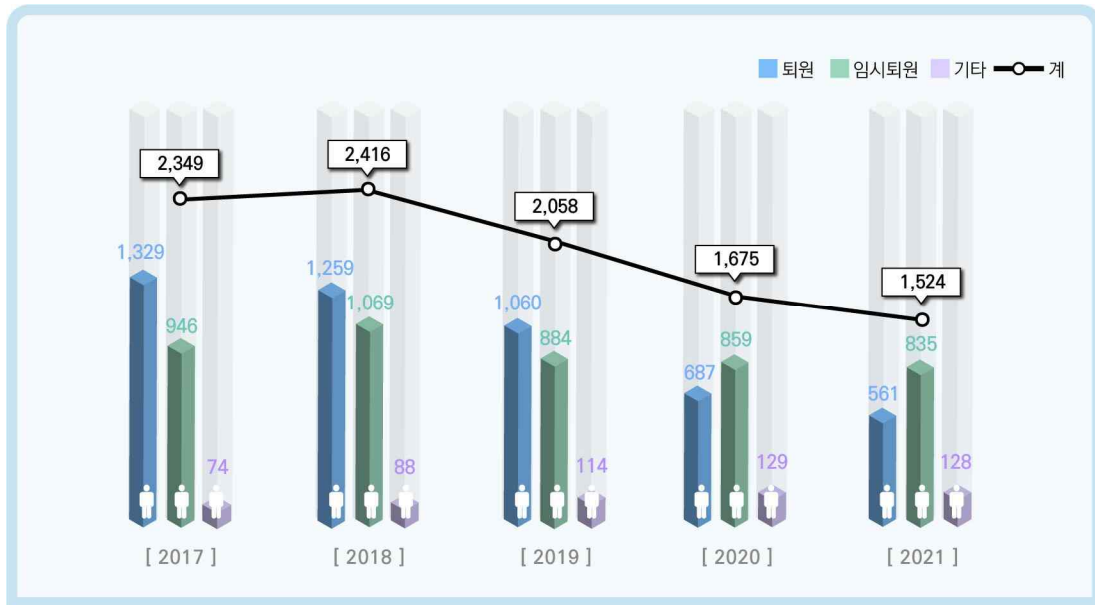


그림 1-2-4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청소년비행예방 개요

1 비행예방교육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비행예방교육 인원 현황

지표정의

- 비행예방교육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등에 따라 의뢰된 대상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서 의뢰한 대상자 등에게 실시하는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을 통칭
- 대안교육 : 학교 부적응 학생,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등에서 의뢰한 비행초기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및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 법교육 : 초·중·고 학생, 아동·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법정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 법체험 : 초·중·고 학생 및 교사, 아동·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다양한 법체험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법무공무원 직업체험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
- 회복캠프 : 청소년, 보호자, 교사 자원 봉사자 등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소통과 공감의 활동
- 직무연수 : 초·중·고교 교사, 교육전문직, 청소년시설 지도자 등의 학교폭력예방·대처능력 향상 및 청소년 지도기법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연수
- 보호자교육 : 학교, 법원, 검찰청에서 의뢰한 보호자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교육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훈육·양육 태도 개선 및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 지원을 위한 교육

- 2021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예방교육 실시 인원은 총 169,511명이었다. 그 중 법교육이 145,620명(8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법체험 13,047명(7.7%), 대안교육 5,809명(3.4%), 보호자교육 4,071명(2.4%)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의 비행예방교육 실시인원은 2017년(389,580명)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8년 299,338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는 321,029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4.1% 감소한 115,270명이었고, 2021년에는 전년보다 47.1%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표 1-3-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예방교육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계	대안교육	법교육	법체험	회복캠프	직무연수	보호자교육
2017	389,580	13,578	328,584	28,568	10,521	1,352	6,977
	100%	3.5%	84.3%	7.3%	2.7%	0.3%	1.8%
2018	299,338	13,801	241,657	29,065	6,323	1,446	7,046
	100%	4.6%	80.7%	9.7%	2.1%	0.5%	2.4%
2019	321,029	13,002	265,011	28,028	5,695	1,973	7,320
	100%	4.1%	82.6%	8.7%	1.8%	0.6%	2.3%
2020	115,270	5,491	94,750	10,724	407	557	3,341
	100%	4.8%	82.2%	9.3%	0.4%	0.5%	2.9%
2021	169,511	5,809	145,620	13,047	490	474	4,071
	100%	3.4%	85.9%	7.7%	0.3%	0.3%	2.4%



그림 1-3-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예방교육 현황(2017~2021)

2 비행진단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비행진단 인원 현황

지표정의

- 비행진단 : 「소년법」 제12조에 의하여 법원 등에서 의뢰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교육과 인성교육 등에 더하여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심리검사, 청소년 상담 등을 실시하는데, 그중 상담조사와 청소년 심리상담을 의미
- 상담조사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의뢰하여 실시하는 소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 청소년심리상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

- 최근 5년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진단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17,112명에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7.6% 감소한 14,092명이었고 2019년(14,743명)에는 4.6%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의 절반 이하 수준인 6,460명이었고, 2021년에는 7,456명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 2021년의 비행진단 중 상담조사가 2,968명(39.8%), 청소년 심리상담이 4,488명(60.2%)으로, 전년에 비해 상담조사는 14.6%, 청소년 심리상담은 15.9% 증가하였다.

표 1-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진단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상담조사	청소년 심리상담
2017	17,112	4,179	12,933
	100%	24.4%	75.6%
2018	14,092	3,224	10,868
	100%	22.9%	77.1%
2019	14,743	2,421	12,322
	100%	16.4%	83.6%
2020	6,460	2,589	3,871
	100%	40.1%	59.9%
2021	7,456	2,968	4,488
	100%	39.8%	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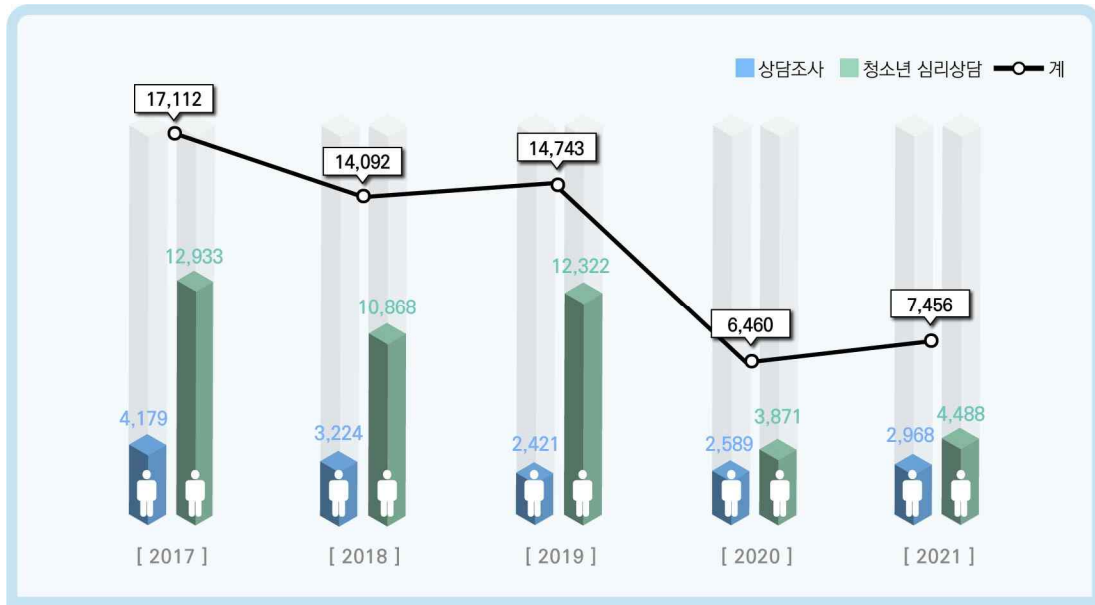


그림 1-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진단 현황(2017~2021)

치료감호 개요

1 입원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한 인원 현황

지표정의

- 피치료감호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치료감호대상자
- 감정유치자 : 법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형사정신감정이 의뢰된 사람
-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 :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대상자
- 치료위탁자 :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가 위탁된 사람
- 보호구금자(미결수용자) :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치료감호영장에 의해 보호구금된 사람
- 기타 :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

- 2021년 국립법무병원의 입원 인원은 총 226명으로, 피치료감호자가 124명(54.9%), 감정유치자가 98명(43.3%),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집행 대상자가 2명(0.9%)이었고, 치료위탁자와 보호구금자는 없었다.
- 최근 5년간의 국립법무병원 입원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705명) 이후 감소하여 2018년 670명, 2019년 600명, 2020년 321명 등이었고, 2021년에도 전년 대비 29.6% 감소하였다.
- 한편, 입소 인원의 유형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치료감호자가 전체의 33~39%를, 감정유치자가 60~66%를 차지하였지만 2020년 이후 감정유치자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피치료감호자가 55~60%를, 감정유치자가 40~44%를 차지하였다.

표 1-4-1 국립법무병원의 입원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피치료감호자	감정유치자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	치료위탁자	보호구금자 (미결수용자)	기타
2017	705	240	464	1	0	0	0
	100%	34.0%	65.8%	0.1%	0.0%	0.0%	0.0%
2018	670	224	444	2	0	0	0
	100%	33.4%	66.3%	0.3%	0.0%	0.0%	0.0%
2019	600	233	362	4	0	0	1
	100%	38.8%	60.3%	0.7%	0.0%	0.0%	0.2%
2020	321	192	129	0	0	0	0
	100%	59.8%	40.2%	0.0%	0.0%	0.0%	0.0%
2021	226	124	98	2	0	0	2
	100%	54.9%	43.3%	0.9%	0.0%	0.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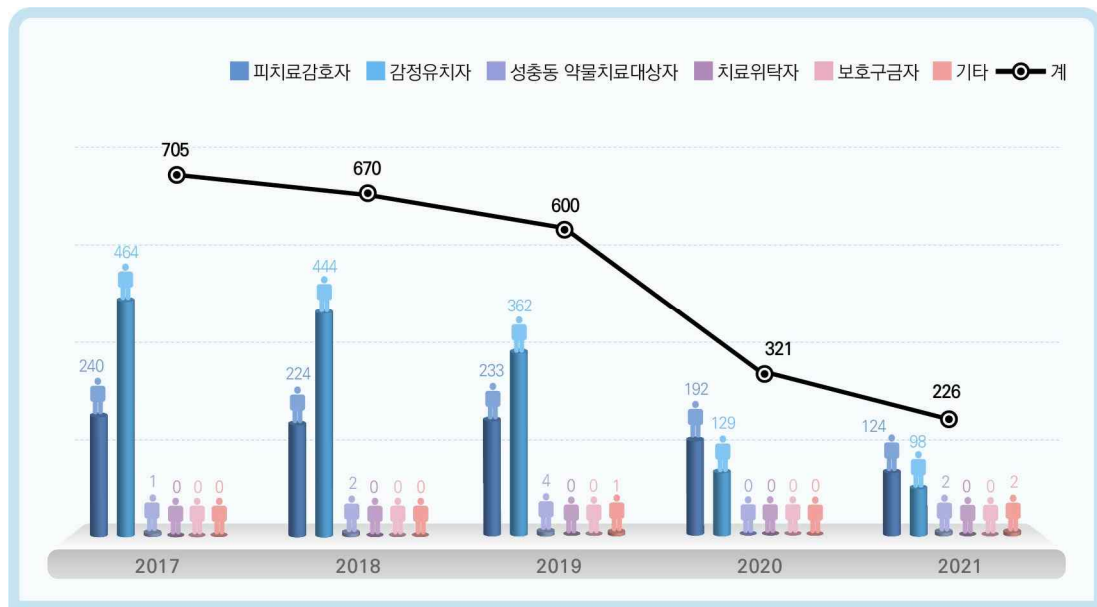


그림 1-4-1 국립법무병원의 입원 현황(2017~2021)

➡ 국립법무병원 입원자의 성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립법무병원 입원자의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피치료감호자		감정유치자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		기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687	18	222	18	464	0	1	0	0	0
		97.4%	2.6%	31.5%	2.6%	65.8%	0.0%	0.1%	0.0%	0.0%	0.0%
2018		659	11	213	11	444	0	2	0	0	0
		98.4%	1.6%	31.8%	1.6%	66.3%	0.0%	0.3%	0.0%	0.3%	0.0%
2019		577	23	210	23	362	0	4	0	1	0
		96.2%	3.8%	35.0%	3.8%	60.3%	0.0%	0.7%	0.0%	0.2%	0.0%
2020		299	22	170	22	129	0	0	0	0	0
		93.2%	6.8%	53.0%	6.8%	40.2%	0.0%	0.0%	0.0%	0.0%	0.0%
2021		214	12	112	12	98	0	2	0	1	1
		94.7%	5.3%	49.6%	5.3%	43.4%	0.0%	0.9%	0.0%	0.4%	0.4%

2 수용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인원 현황

지표정의

- 피치료감호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치료감호대상자
- 감정유치자 : 법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형사정신감정이 의뢰된 사람
-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 :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대상자
- 치료위탁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가 위탁된 사람
- 보호구금자(미결수용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치료감호영장에 의해 보호구금된 사람
- 기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수용인원은 총 871명으로, 피치료감호자가 863명(99.1%), 감정유치자가 8명(0.9%)이었고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와 감호위탁자, 치료위탁자는 없었다.
- 전체 수용인원은 2017년 1,130명, 2018년 1,082명, 2019년 1,034명, 2020년 1,024명으로 매년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4.9% 감소하였다. 또한, 수용자 중 피치료감호자의 비율이 매년 95% 이상이었는데, 2020년 이후 감정유치자의 감소로 그 비율이 더 상승하였다.

표 1-4-2 국립법무병원의 수용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피치료감호자	감정유치자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	치료위탁자	보호구금자 (미결수용자)
2017	1,130	1,096	33	1	0	0
	100%	97.0%	2.9%	0.1%	0.0%	0.0%
2018	1,082	1,038	43	1	0	0
	100%	95.9%	4.0%	0.1%	0.0%	0.0%
2019	1,034	1,012	22	0	0	0
	100%	97.9%	2.1%	0.0%	0.0%	0.0%
2020	1,024	1,016	8	0	0	0
	100%	99.2%	0.8%	0.0%	0.0%	0.0%
2021	871	863	8	0	0	0
	100%	99.1%	0.9%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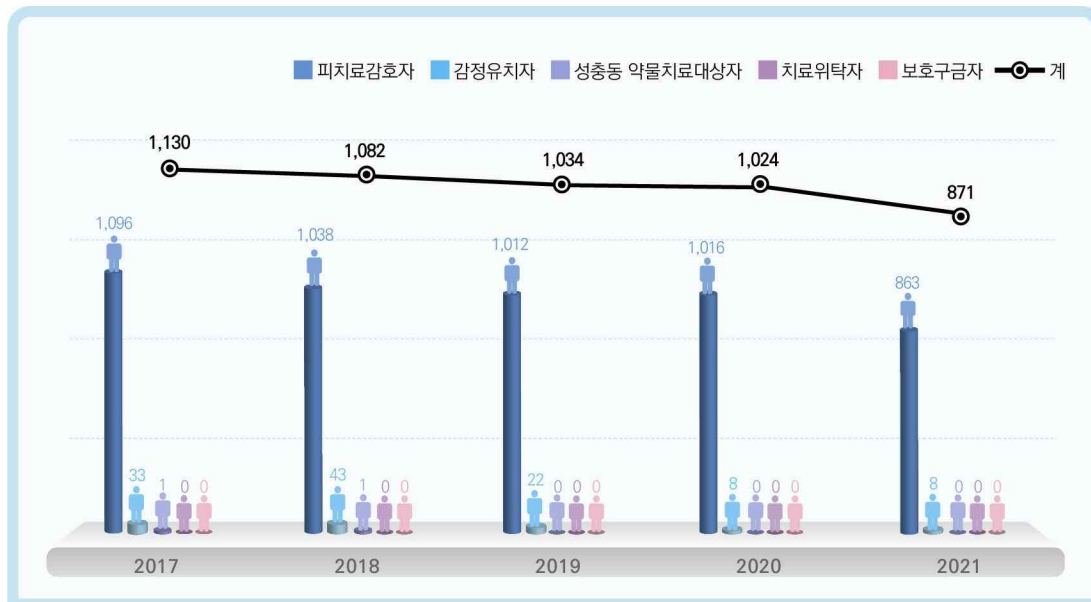


그림 1-4-2 국립법무병원의 수용 현황(2017~2021)

➡ 국립법무병원 수용자의 성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립법무병원 수용자의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피치료감호자		감정유치자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1,004	126	970	126	33	0	1	0		
	88.8%	11.2%	85.8%	11.2%	2.9%	0.0%	0.1%	0.0%		
2018	972	110	928	110	43	0	1	0		
	89.9%	10.1%	85.8%	10.1%	4.0%	0.0%	0.1%	0.0%		
2019	919	115	897	115	22	0	0	0		
	88.9%	11.1%	86.8%	11.1%	2.1%	0.0%	0.0%	0.0%		
2020	915	109	907	109	8	0	0	0		
	89.4%	10.6%	88.6%	10.6%	0.8%	0.0%	0.0%	0.0%		
2021	785	86	777	86	8	0	0	0		
	90.1%	9.9%	89.2%	9.9%	0.9%	0.0%	0.0%	0.0%		

3 연평균 수용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법무병원의 평균 수용인원 현황

지표정의

- 연평균 수용인원 = 당해 연도 일일 수용인원의 합 / 당해 연도 일수
- 피치료감호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치료감호대상자
- 감정유치자 : 법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형사정신감정이 의뢰된 사람
-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 :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대상자
- 치료위탁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가 위탁된 사람
- 보호구금자(미결수용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치료감호영장에 의해 보호구금된 사람
- 기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

- 2021년 국립법무병원의 연평균 수용인원 총 935명 중 피치료감호자가 926명으로 99.0%를 차지하였고, 그 외 감정유치자 8명(0.9%),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대상자 1명(0.1%)이었다.
- 국립법무병원의 연평균 수용인원은 2017년 1,138명, 2018년 1,087명, 2019년 1,023명, 2020년 1,038명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2021년에도 전년 대비 9.9% 감소하였는데, 피치료감호자와 감정유치자 모두 감소하였다.

표 1-4-3 국립법무병원의 연평균 수용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피치료감호자	감정유치자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	치료위탁자	보호구금자 (미결수용)
2017	1,138	1,101	36	1	0	0
	100%	96.7%	3.2%	0.1%	0.0%	0.0%
2018	1,087	1,051	35	1	0	0
	100%	96.7%	3.2%	0.1%	0.0%	0.0%
2019	1,023	992	30	1	0	0
	100%	97.0%	2.9%	0.1%	0.0%	0.0%
2020	1,038	1,027	11	0	0	0
	100%	98.9%	1.1%	0.0%	0.0%	0.0%
2021	935	926	8	1	0	0
	100%	99.0%	0.9%	0.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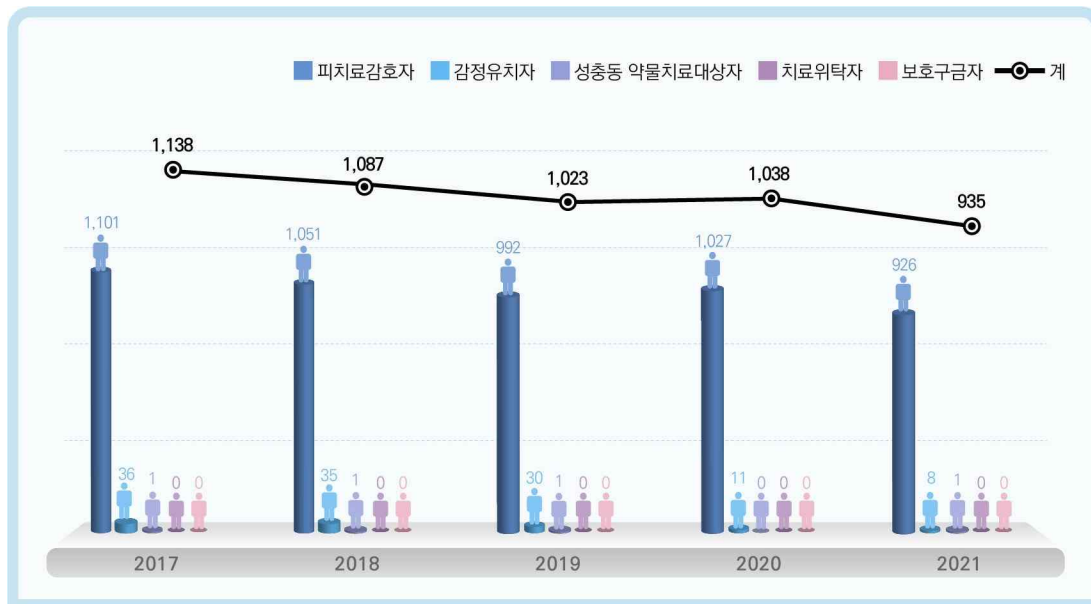


그림 1-4-3 국립법무병원의 연평균 수용 현황(2017~2021)

➡ 국립법무병원 연평균 수용인원의 성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립법무병원 연평균 수용 인원의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피치료감호자		감정유치자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1,014	124	977	124	36	0	1	0		
	89.1%	10.9%	85.8%	10.9%	3.2%	0.0%	0.1%	0.0%		
2018	970	117	934	117	35	0	1	0		
	89.2%	10.8%	85.9%	10.8%	3.2%	0.0%	0.1%	0.0%		
2019	915	108	984	8	30	0	1	0		
	99.2%	0.8%	96.2%	0.8%	2.9%	0.0%	0.1%	0.0%		
2020	926	112	915	112	11	0	0	0		
	89.2%	10.8%	88.1%	10.8%	1.1%	0.0%	0.0%	0.0%		
2021	840	95	831	95	8	0	1	0		
	89.9%	10.2%	88.9%	10.2%	0.9%	0.0%	0.1%	0.0%		

4 출원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법무병원에서 출원한 피치료감호자 현황

지표정의

- 피치료감호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치료감호대상자
- 종료 : 「치료감호법」 제22조에 의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종료가 결정되어 출원
- 가종료 : 「치료감호법」 제22조에 의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가 결정되어 출원
- 집행정지 : 「치료감호법」 제24조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원
- 기간만료 : 「치료감호법」 제16조에 의하여 부과된 기간이 만료되어 출원
- 위탁해제 : 「치료감호법」 제23조에 의하여 치료 위탁된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위탁해제되어 출원
- 기타 : 사망 등

- 2021년 국립법무병원에서 출원한 피치료감호자는 총 278명으로, 가종료로 인한 출원이 263명(94.6%), 치료감호기간 만료로 인한 출원이 12명(4.3%), 종료가 2명(0.7%), 기타 사유로 인한 출원이 1명(0.4%) 등이었고, 치료감호 집행정지와 위탁해제는 없었다.
- 최근 5년간의 출원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40~280명의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에는 188명으로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7.9% 증가하였다. 또한 출원 세부 사유로는 가종료로 인한 출원이 매년 전체의 89~95%를 차지하였다.

표 1-4-4 국립법무병원의 출원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종료	가종료	집행정지	기간만료	위탁해제	기타
2017		238	3	226	0	6	0	3
		100%	1.3%	95.0%	0.0%	2.4%	0.0%	1.3%
2018		282	0	252	0	22	0	8
		100%	0.0%	89.4%	0.0%	7.8%	0.0%	2.8%
2019		259	0	235	0	22	0	2
		100%	0.0%	90.7%	0.0%	8.5%	0.0%	0.8%
2020		188	0	172	1	13	0	2
		100%	0.0%	91.5%	0.5%	6.9%	0.0%	1.1%
2021		278	2	263	0	12	0	1
		100%	0.7%	94.6%	0.0%	4.3%	0.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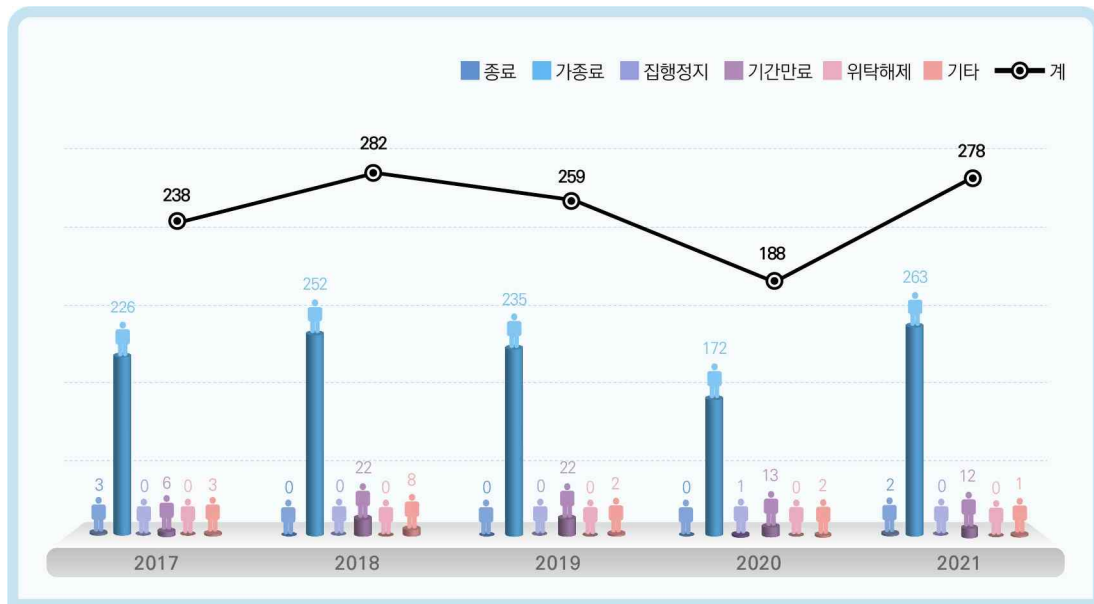


그림 1-4-4 국립법무병원의 출원 현황(2017~2021)

5 의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

개요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 의사(정신건강전문의 포함) 정원 대비 근무 인원 비율

지표정의

- 충원율 : 국립법무병원의 전문의(정신건강전문의 포함) 정원 대비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근무 인원
(현원 / 정원 × 100)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전체 의사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9명으로, 의사 충원율은 45.0%였다. 최근 5년간의 국립법무병원 의사 충원율은 2017년 82.3%를 기록한 이후 2018년 40%로 떨어졌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55% 이상이었던 2021년에는 다시 40%대로 낮아졌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국립법무병원 의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5.5명으로 충원율은 36.6%였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충원율 역시 의사 충원율과 유사한 추이를 보여, 2017년 85.7%를 기록한 이후 2018년에는 42.9%로 떨어졌고, 2019년과 2020년에는 55%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에는 40% 이하로 낮아졌다.

표 1-4-5 국립법무병원 의사 충원율(2017~2021)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사	정원	17	20	20	20	20
	현원	14	8	11	11.5	9
	충원율	82.3%	40.0%	55.0%	57.5%	45.0%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	14	14	15	15	15
	현원	12	6	8	8.5	5.5
	충원율	85.7%	42.9%	53.3%	56.6%	36.6%

※ 해당연도 연말기준 인원, 0.5는 시간임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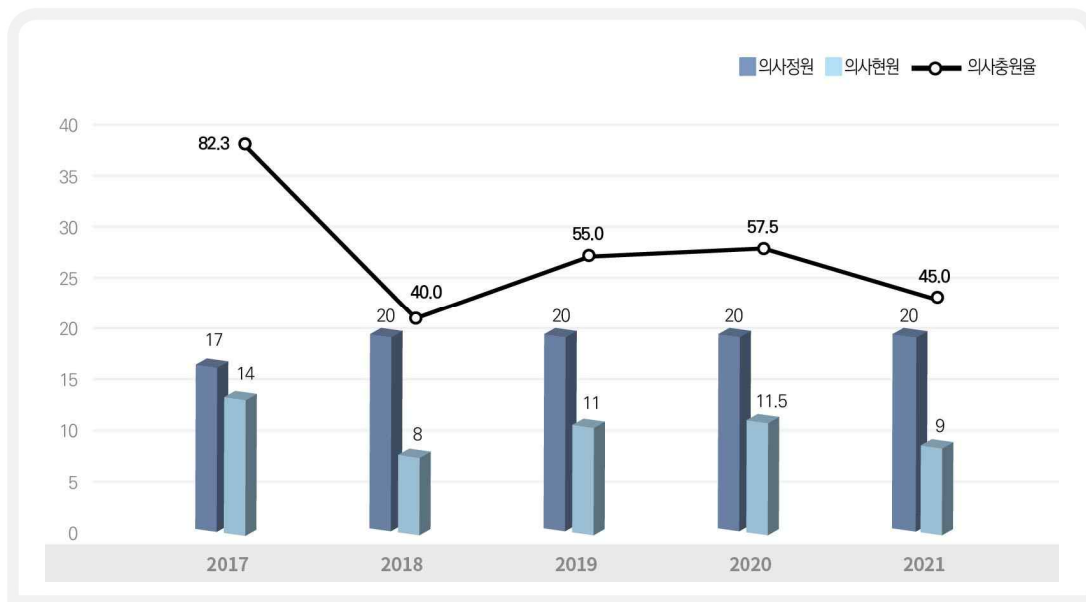


그림 1-4-5 국립법무병원 의사 총원율(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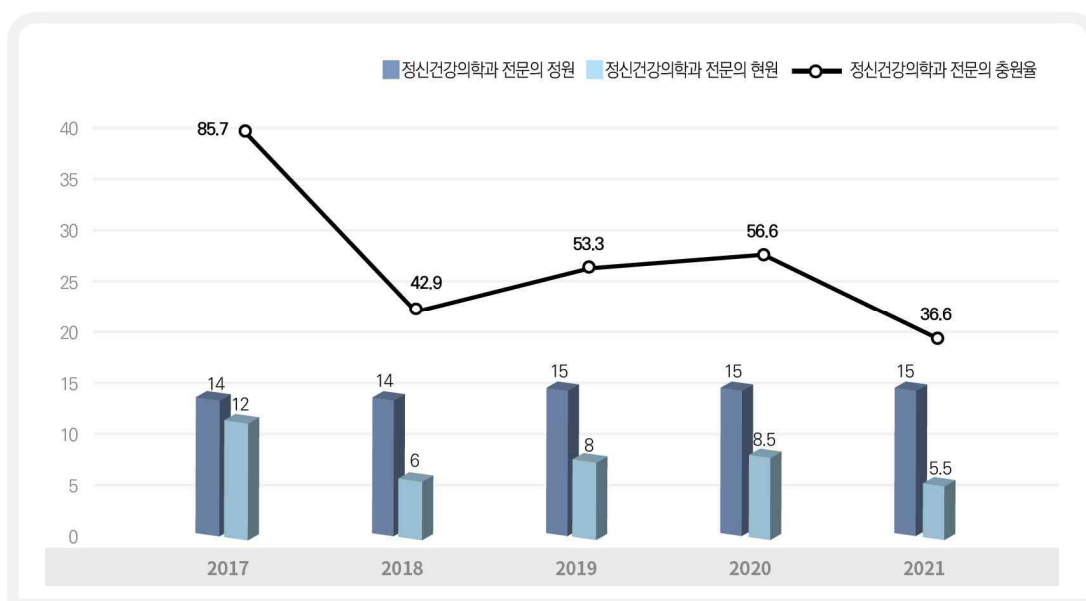


그림 1-4-6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총원율(2017~2021)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적정 환자 부담 비율을 정신건강전문의 1인당 환자 6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법무병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103.8명(전공의 포함시) 또는 170명 수준(전공의 미포함시)
- ※ 산출식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 = 국립법무병원 연평균 수용인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전공의 포함하는 경우 : 2021년 연평균 수용인원(935)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9명) = 103.8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9명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5명 + 3.5명(전공의 7명 × 0.5)>
 - 전공의 미포함하는 경우 : 2021년 연평균 수용인원(935)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5.5명) = 170명
- ➡ 주요 국가의 의사 1인당 환자 현황은 일본 14명, 영국 22명, 독일 13명 등이다.

민간 자원

1 보호관찰위원 현황

1) 위촉 현황

- 보호관찰위원제도는 2018년까지 법사랑위원과 통합 운영되었는데¹⁾, 법사랑위원 중 보호관찰 활동을 하는 보호관찰위원은 2017년 5,441명, 2018년 5,420명이었다.
- 2019년 법사랑위원 제도가 개편되어 보호관찰위원 조직이 신설,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보호관찰위원 6,769명이 새로 위촉되었고, 2020년에는 6,418명, 2021년에는 6,146명 등이 위촉되었다.
- 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된 보호관찰위원 수는 2017년 1,791명, 2018년 1,655명이었다가 2019년에는 4,735명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8.6% 감소한 1,485명이었고, 2021년에는 9.9% 증가한 1,632명이었다. 한편, 대상자 지정 비율은 2019년 70%였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30%대를, 2020년과 2021년에는 20%대를 보였다.

표 1-5-1 보호관찰위원 위촉 현황(2017~2021)

연도	위촉 현황	보호관찰위원	대상자 지정 보호관찰위원	대상자 지정 비율
2017		5,441	1,791	32.9%
2018		5,420	1,655	30.5%
2019		6,769	4,735	70.0%
2020		6,418	1,485	23.1%
2021		6,146	1,632	26.6%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역별 보호관찰위원 현황은 수도권이 2,365명(38.4%), 강원권이 281(4.6%), 충청권이 817(13.3%), 경상권이 1,892(30.8%), 전라권이 791(12.9%) 등이었다

1) 지역별 법사랑위원 협의회에 보호관찰분과가 구성된 경우에는 보호관찰분과 위원을 의미하며, 보호관찰분과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보호관찰 관련 활동 중인 법사랑위원 또는 특별법사랑위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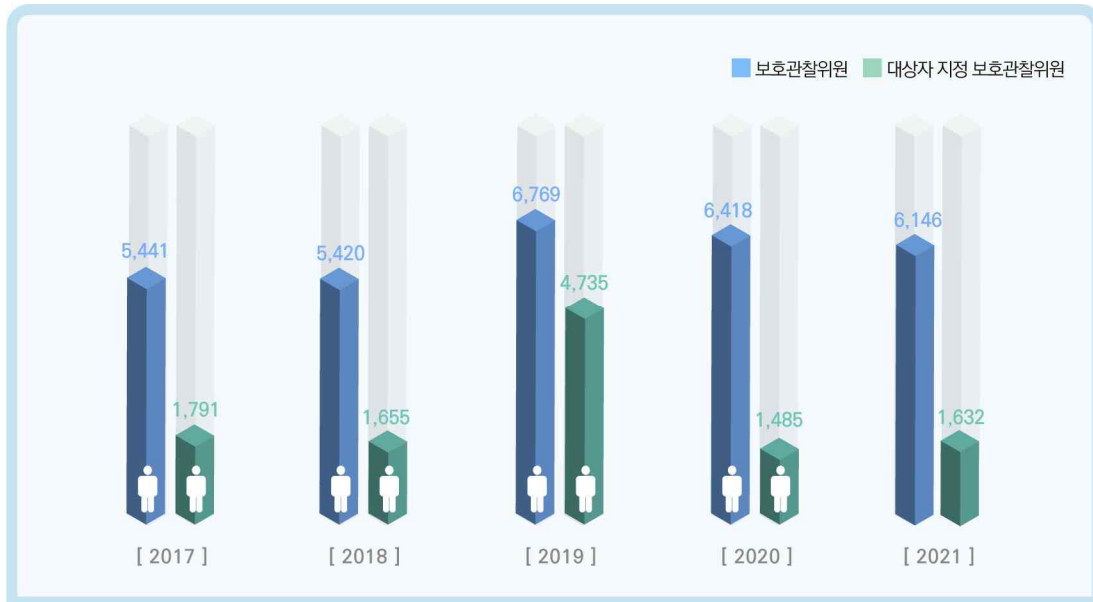


그림 1-5-1 보호관찰위원 위축 현황(2017~2021)

2) 활동 현황

- 보호관찰위원의 활동 건수는 2017년 19,899건, 2018년 19,820건이었다가 보호관찰위원 조직의 신설과 독립적 운영이 시작된 2019년에는 36,391건으로 전년 대비 83.6%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2.9% 감소한 24,405건이었고 2021년에는 23,426건을 기록하였다.
- 세부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지원과 보호관찰 상담이 전체의 93% 이상이었고, 특히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지원이 60% 내외였으나 2020년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 상담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였다.

-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이 감소하면서 보호관찰위원의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지원이 급감하였고,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원호지원 역시 감소하였다. 그러나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의 경우 접촉방식을 기존의 대면접촉에서 비대면 접촉으로 전환하면서 총 실시건수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 ➔ 2021년에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재개되면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원호 지원 역시 증가하였다. 다만 보호관찰상담은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표 1-5-2 보호관찰위원 활동 현황(2017~2021)

연도\활동내역	계	보호관찰 상담 (경과통보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지원	원호 지원
2017	19,899	7,049	12,229	621
	100%	35.4%	61.5%	3.1%
2018	19,820	5,518	13,066	1,236
	100%	27.8%	65.9%	6.2%
2019	36,391	13,317	20,666	2,408
	100%	36.6%	56.8%	6.6%
2020	24,405	18,386	5,343	676
	100%	75.3%	21.9%	2.8%
2021	23,426	7,156	14,610	1,660
	100%	30.5%	62.4%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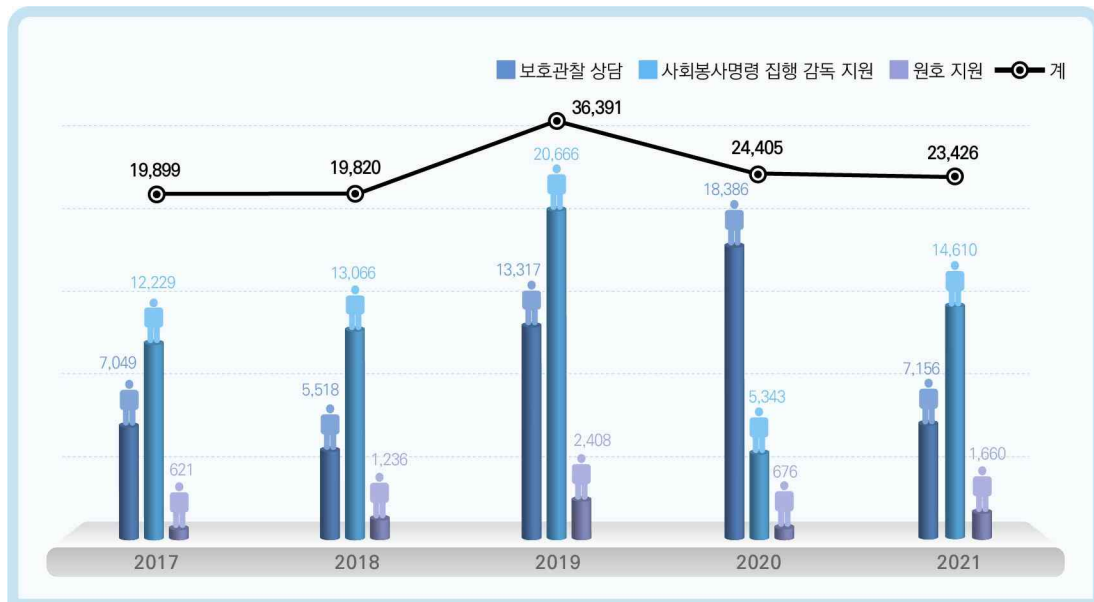


그림 1-5-2 보호관찰위원 활동 현황(2017~2021)

2 소년보호위원 현황

지표정의

- 교육위원 : 강연, 상담 등 교육활동 지원
- 종교위원 : 종교지도 등 종교활동 지원
- 어머니위원 : 결연 등 소년원생의 심성순화를 도움
- 사회정착지원위원 : 장학금, 취업, 멘토활동 등 소년원 출원 후 사회정착을 지원

- 2021년에 활동한 소년보호위원은 총 1,190명으로, 교육위원 637명(53.5%), 종교위원 292명(24.5%), 어머니위원 122명(10.3%), 사회정착지원위원 139명(11.7%)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소년보호위원의 수는 2017년(1,521명)부터 2019년(1,174명)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1,237명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 분야별로는 교육위원과 종교위원이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21년 다시 감소하였다. 어머니위원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였고, 사회정착지원위원은 2017년 이후 매년 145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1-5-3 소년보호위원 위촉 현황(2017~2021)

연도 \ 구분	계	교육위원	종교위원	어머니위원	사회정착지원위원
2017	1,521	740	440	193	148
	100%	48.7%	28.9%	12.7%	9.7%
2018	1,450	724	403	174	149
	100%	49.9%	27.8%	12.0%	10.3%
2019	1,174	586	299	144	145
	100%	49.9%	25.5%	12.3%	12.3%
2020	1,237	655	309	128	145
	100%	53.0%	25.0%	10.3%	11.7%
2021	1,190	637	292	122	139
	100%	53.5%	24.5%	10.3%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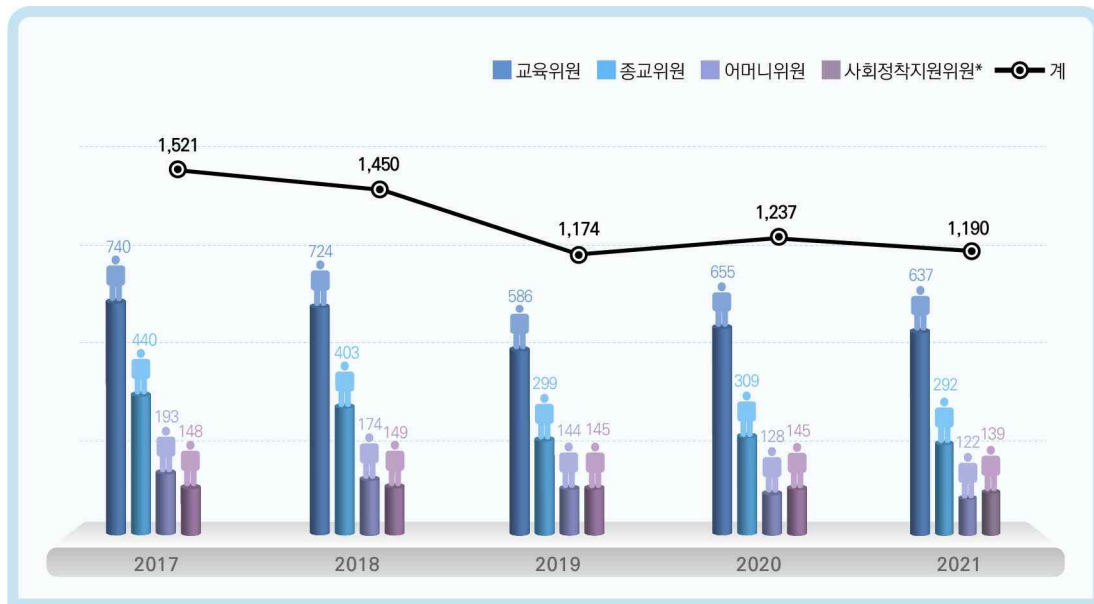


그림 1-5-3 소년보호위원 위촉 현황(2017~2021)

3 법무보호위원 현황

1) 위촉 현황

- 법무보호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주요 활동으로는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재정지원, 상담 등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은 2018년까지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2019년부터 법무부장관이 하고 있다.
- 2021년에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은 총 7,495명으로, 운영위원 38명, 취업지원 829명, 재정지원 643명, 주거지원 635명, 종교교화 187명, 사전상담 611명, 직업훈련·사회성 향상·홍보 등을 담당하는 기타 유형이 4,552명이었다. 한편, 2021년의 전체 법무보호위원은 전년에 비해 13.3% 증가하였는데 분야별 증감양상이 달라, 기타 분야가 17.9%, 취업지원이 11%, 사전상담이 11.3% 늘어난 반면 재정지원 분야는 8.1% 감소하였다.

표 1-5-4 법무보호위원 위촉 현황(2017~2021)

연도 \ 활동인원	계	운영위원	취업지원	재정지원	주거지원	종교교화	사전상담	기타
2017	6,018	270	761	550	388	151	547	3,351
	100%	4.5%	12.6%	9.1%	6.5%	2.5%	9.1%	55.7%
2018	6,198	304	727	527	406	184	481	3,569
	100%	4.9%	11.7%	8.5%	6.5%	3.0%	7.8%	57.6%
2019	6,671	95	805	583	554	195	561	3,878
	100%	1.4%	12.1%	8.8%	8.3%	2.9%	8.4%	58.1%
2020	6,616	42	747	700	543	174	549	3,861
	100%	0.6%	11.3%	10.6%	8.2%	2.6%	8.3%	58.4%
2021	7,495	38	829	643	635	187	611	4,552
	100%	0.5%	11.1%	8.6%	8.5%	2.5%	8.1%	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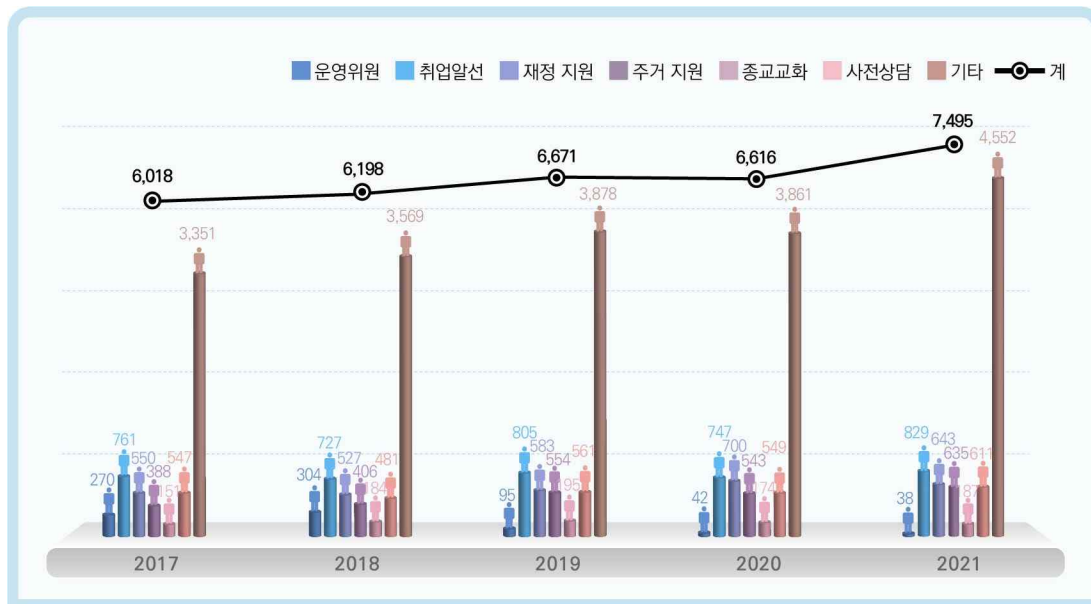


그림 1-5-4 법무보호위원 위촉 현황(2017~2021)

2) 활동 현황

- 2021년의 법무보호위원 활동건수는 총 35,146건으로, 그중 위원회 자체 활동이 15,143건 (4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호사업 참여 9,708건(27.6%), 경제적 지원 7,941건(22.6%), 외부자원 연계 1,288건(3.7%), 기타 1,066건(3.0%)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의 법무보호위원의 활동 추이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자 수가 증가하고 자원봉사자 관리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활동 건수가 늘어나 2017년 29,801건, 2018년 38,037건, 2019년 40,246건이었다.
-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5.0% 감소한 30,216건이었고, 2021년에는 전년보다 16.3% 증가하였는데, 특히 외부자원 연계가 66.4%, 보호사업 참여가 44.9% 증가하였다.

표 1-5-5 법무보호위원 활동 현황(2017~2021)

연도	활동내역	계	보호사업 참여	경제적 지원	외부자원연계	위원회 자체활동	기타
2017		29,801	8,440	3,097	351	17,880	33
		100%	28.3%	10.4%	1.2%	60.0%	0.1%
2018		38,037	11,983	4,019	760	20,781	494
		100%	31.5%	10.6%	2.0%	54.6%	1.3%
2019		40,246	11,596	4,615	1,083	22,195	757
		100%	28.8%	11.5%	2.7%	55.1%	1.9%
2020		30,216	6,698	7,135	774	14,684	925
		100%	22.2%	23.6%	2.6%	48.6%	3.0%
2021		35,146	9,708	7,941	1,288	15,143	1,066
		100%	27.6%	22.6%	3.7%	43.1%	3.0%

* 위원회 자체활동 : 전문화교육, 회의, 언론홍보, 강연 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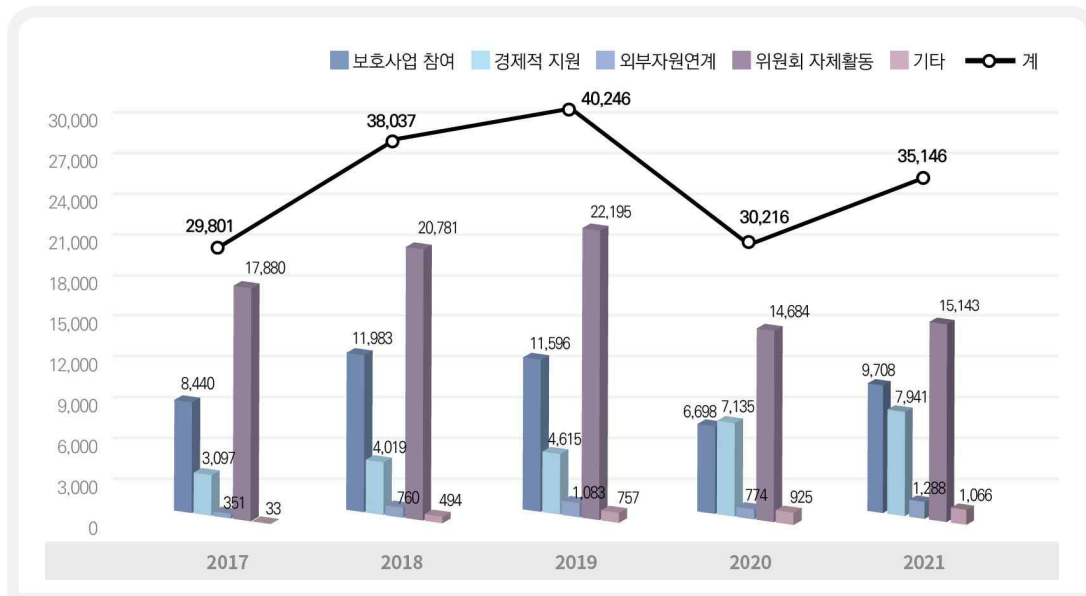


그림 1-5-5 법무보호위원 활동 현황(2017~2021)



Chapter 2

보호관찰

제1절 보호관찰

제2절 치료명령

제3절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제4절 보호관찰조사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제 1 절 보호관찰

1 접수사건 현황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접수한 보호관찰 사건 현황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 사건)
- 보호관찰 : 보호관찰처분이 부과된 사건만 포함
- 사범 :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의 10개로 구분
- 근거 법률 : 형법, 소년법, 보호관찰법(임시퇴원), 치료감호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보호관찰 선도위탁규정(선도위탁),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성충동약물치료법의 12개로 구분
- 처분 유형 :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 소년보호처분(단기보호관찰과 장기보호관찰), 기타(가정보호처분, 아동보호처분, 성보호처분, 선도위탁, 가중료, 가출소,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등)
- 연령 : 소년과 성인으로 구분. 성인은 판결정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경우이며, 소년은 판결정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19세 미만자와 소년법 대상자

1) 사범별 현황

(1) 전체 보호관찰 사건

- 2021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폭력사범 9,624건(21.9%), 교통사범 8,169건(18.6%), 기타사범 7,551건(17.2%), 사기횡령사범 7,384건(16.8%)으로, 폭력·교통·기타·사기횡령사범이 전체의 74.5%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절도사범이 4,061건(9.2%), 성폭력사범이 2,772건(6.3%), 마약사범이 1,594건(3.6%), 강력사범이 1,232건(2.8%)이었고, 풍속사범과 경제사범은 각각 1,000건 미만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주요 사범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폭력사범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까지 12,500건 이상을 유지하던 사건 수가 2020년부터 10,000건 내외로 감소하였고,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이전에는 25% 이상이었다가 2020년부터 22% 내외를 기록하였다.

- 교통사범의 경우, 사건 수에서는 증감을 반복하였지만 2019년부터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15%대에서 19% 내외로 상승하였다. 사기횡령사범은 사건 수의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사범 중 비율도 2017년 12.5%에서 2021년 16.8%로 계속 상승하였다. 절도사범은 사건 수와 비율이 매년 감소하였고, 성폭력사범은 사건 수는 감소하였지만 전체 사건 중 6~7% 비율을 유지하였다.
- 기타사범은 2017년 8,33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0년까지 소폭의 감소세를 이어오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강력사범은 매년 3% 내외의 비율을 유지하였지만 사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풍속사범은 사건 수의 감소와 함께 비율도 축소되어 2017년 4.5%에서 2019년 이후 2%대에 머무르고 있다.

표 2-1-1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연도\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53,419	13,499	8,499	6,706	6,670	1,559	1,702	2,400	3,353	697	8,334
	100%	25.3%	15.9%	12.5%	12.5%	2.9%	3.2%	4.5%	6.3%	1.3%	15.6%
2018	49,073	12,547	7,714	5,829	6,433	1,531	1,455	1,495	3,427	687	7,955
	100%	25.6%	15.7%	11.9%	13.1%	3.1%	3.0%	3.0%	7.0%	1.4%	16.2%
2019	48,508	12,625	8,140	5,087	6,988	1,315	1,608	1,325	3,108	763	7,549
	100%	26.0%	16.8%	10.5%	14.4%	2.7%	3.3%	2.7%	6.4%	1.6%	15.6%
2020	45,592	10,396	9,013	4,924	6,694	1,220	1,349	1,080	2,785	737	7,394
	100%	22.8%	19.8%	10.8%	14.7%	2.7%	2.9%	2.4%	6.1%	1.6%	16.2%
2021	43,992	9,624	8,169	4,061	7,384	1,232	1,594	950	2,772	655	7,551
	100%	21.9%	18.6%	9.2%	16.8%	2.8%	3.6%	2.1%	6.3%	1.5%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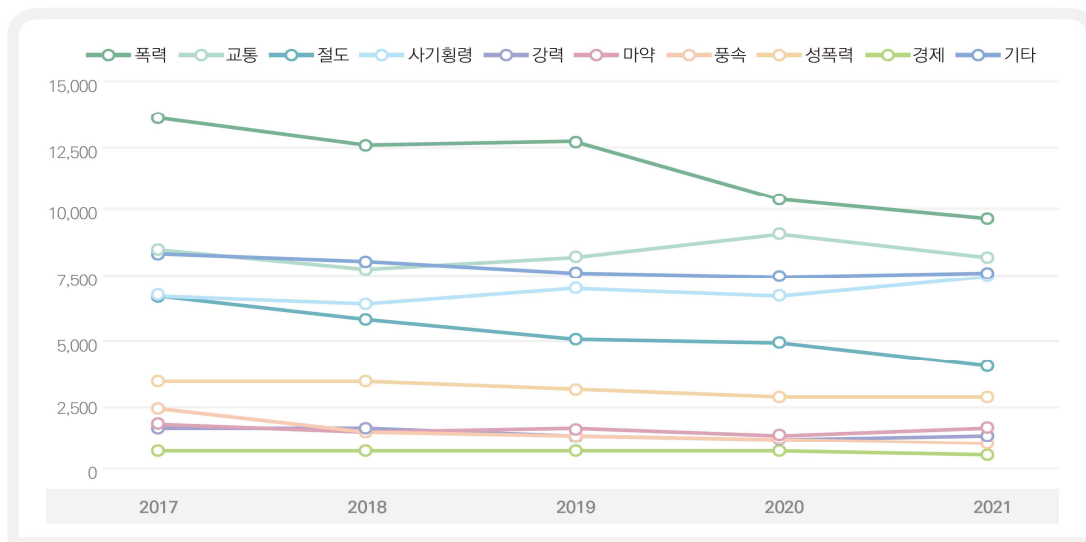


그림 2-1-1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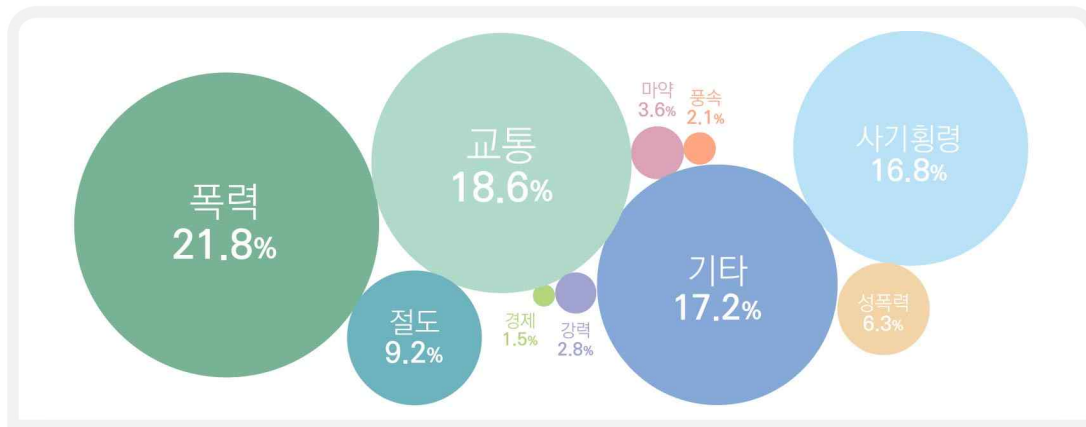


그림 2-1-2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1)

(2) 소년 보호관찰 사건

- 2021년의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기타사범이 3,303건(27.9%), 폭력사범 2,517건(21.2%), 절도사범 2,462건(20.8%), 교통사범 1,343건(11.3%)으로, 기타·폭력·절도·교통사범이 전체의 81.2%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사기횡령사범 938건(7.9%), 성폭력사범 879건(7.4%), 풍속사범 201건(1.7%), 강력사범 146건(1.2%), 경제사범 35건(0.3%), 마약사범 29건(0.3%) 등이었다.
- 최근 5년간 매년 기타·폭력·절도·교통사범이 전체 접수사건의 81~84%를 차지하였는데, 2017년에는 절도사범이, 2018년과 2019년에는 폭력사범이, 2020년부터는 기타사범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표 2-1-2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연도\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17,799	4,406	1,886	4,632	1,208	202	94	187	1,095	56	4,033
	100%	24.8%	10.6%	26.0%	6.8%	1.1%	0.5%	1.0%	6.2%	0.3%	22.7%
2018	16,659	4,431	1,701	3,902	1,176	170	71	178	1,078	70	3,882
	100%	26.6%	10.2%	23.4%	7.1%	1.0%	0.4%	1.1%	6.5%	0.4%	23.3%
2019	14,439	3,742	1,387	3,229	1,113	143	52	187	1,032	87	3,467
	100%	25.9%	9.6%	22.4%	7.7%	1.0%	0.4%	1.3%	7.1%	0.6%	24.0%
2020	13,489	2,970	1,472	3,160	1,089	198	31	149	915	61	3,444
	100%	22.0%	10.9%	23.4%	8.1%	1.5%	0.2%	1.1%	6.8%	0.5%	25.5%
2021	11,853	2,517	1,343	2,462	938	146	29	201	879	35	3,303
	100%	21.2%	11.3%	20.8%	7.9%	1.2%	0.3%	1.7%	7.4%	0.3%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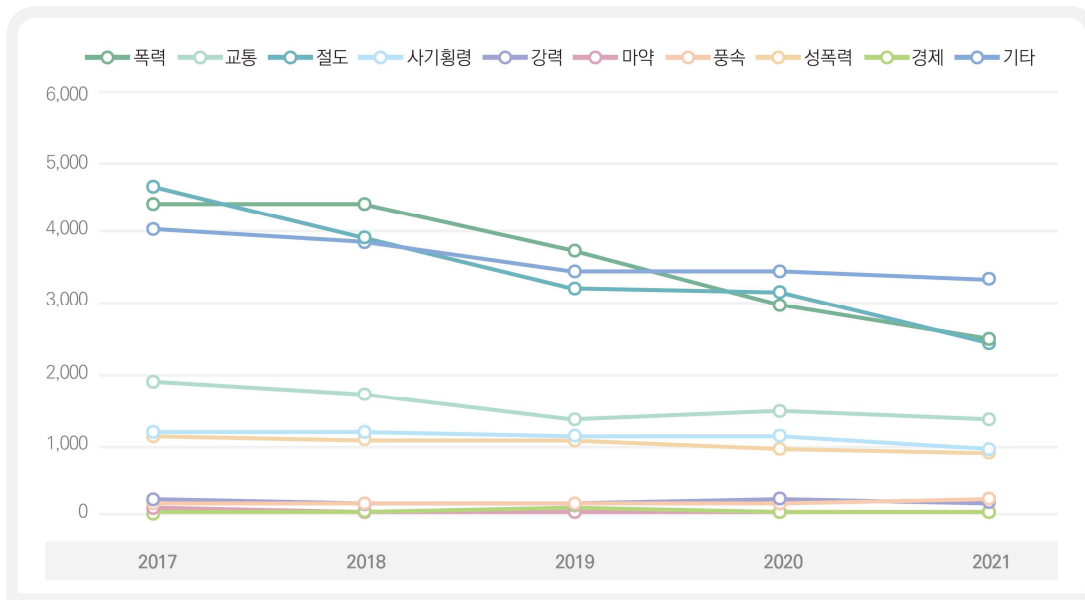


그림 2-1-3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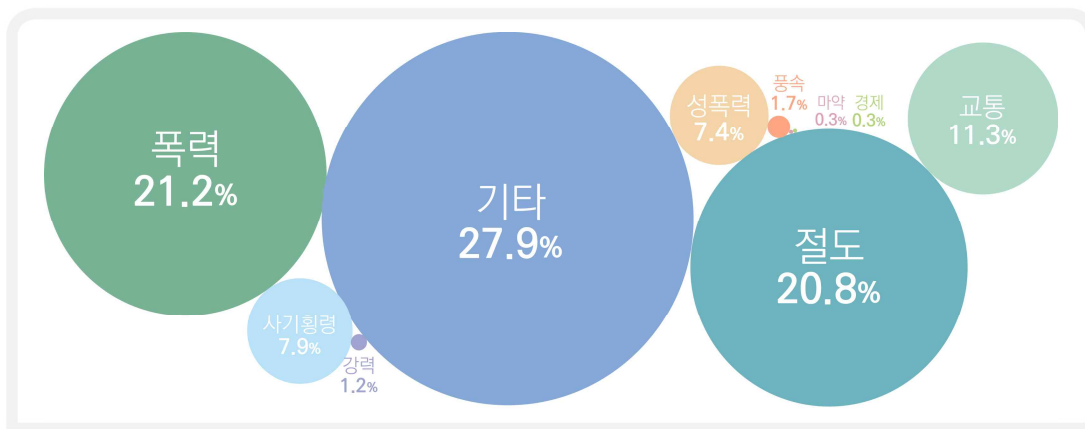


그림 2-1-4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1)

(3) 성인 보호관찰 사건

- 2021년의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폭력사범 7,107건(22.1%), 교통사범 6,826건(21.2%), 사기횡령사범 6,446건(20.1%), 기타사범 4,248건(13.2%)으로, 폭력·교통·사기횡령·기타사범이 전체의 76.6%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성폭력사범 1,893건(5.9%), 절도사범 1,599건(5.0%), 마약사범 1,565건(4.9%), 강력사범 1,086건(3.4%), 풍속사범 749건(2.3%), 경제사범 620건(1.9%) 등이었다.

- 최근 5년간 매년 기타·폭력·절도·교통사범이 전체 접수사건의 71~77%를 차지하였는데, 2020년에 교통사범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폭력사범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표 2-1-3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 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35,620	9,093	6,613	2,074	5,462	1,357	1,608	2,213	2,258	641	4,301
	100%	25.5%	18.6%	5.8%	15.3%	3.8%	4.5%	6.2%	6.4%	1.8%	12.1%
2018	32,414	8,116	6,013	1,927	5,257	1,361	1,384	1,317	2,349	617	4,073
	100%	25.0%	18.6%	5.9%	16.2%	4.2%	4.3%	4.1%	7.2%	1.9%	12.6%
2019	34,069	8,883	6,753	1,858	5,875	1,172	1,556	1,138	2,076	676	4,082
	100%	26.1%	19.8%	5.5%	17.2%	3.4%	4.6%	3.3%	6.1%	2.0%	12.0%
2020	32,103	7,426	7,541	1,764	5,605	1,022	1,318	931	1,870	676	3,950
	100%	23.1%	23.5%	5.5%	17.5%	3.2%	4.1%	2.9%	5.8%	2.1%	12.3%
2021	32,139	7,107	6,826	1,599	6,446	1,086	1,565	749	1,893	620	4,248
	100%	22.1%	21.2%	5.0%	20.1%	3.4%	4.9%	2.3%	5.9%	1.9%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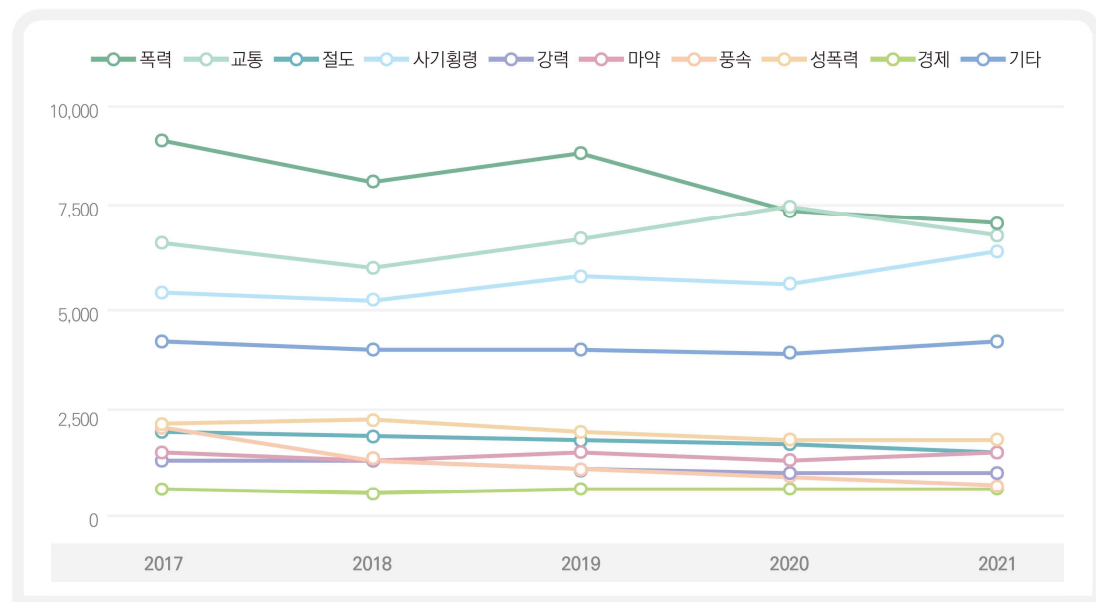


그림 2-1-5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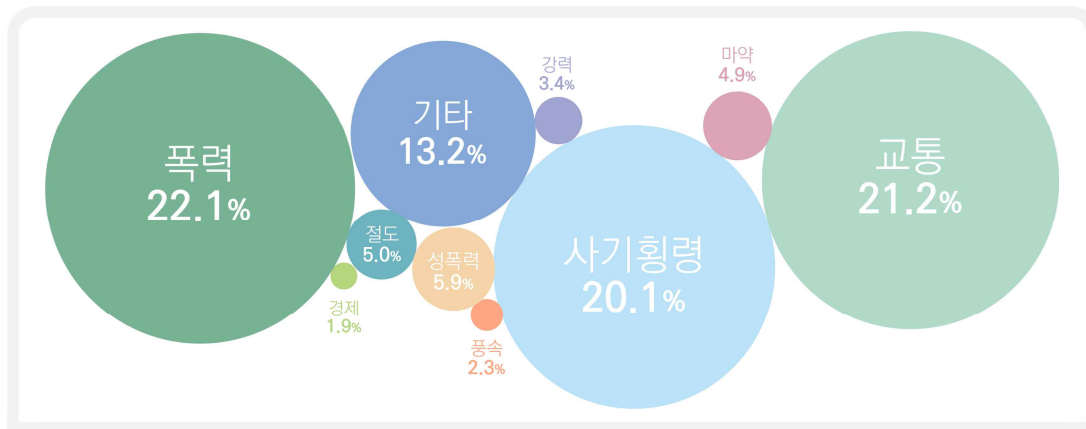


그림 2-1-6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1)

2) 근거 법률별 현황

- 2021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을 근거 법률에 따라 구분한 결과, 형법이 24,154건(5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년법 10,305건(23.4%), 가정폭력처벌법 3,177건(7.2%), 전자장치부착법 1,257건(2.9%), 아동학대처벌법 1,227건(2.8%),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선도위탁) 949건(2.2%), 보호관찰법(임시퇴원) 944건(2.1%)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형법 사건이 가장 많았는데, 연간 25,000건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2019년 이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도 점점 상승하고 있다, 소년법은 2017년(13,621건) 이후 사건 수가 계속 감소하였는데, 전체 사건의 감소에 따라 비율은 25%를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 보호관찰법에 따른 임시퇴원은 2019년까지 연간 1,000~1,300건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는 950건 내외를 보였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은 매년 사건수와 비율이 감소하여 2017년 3,452건(6.5%)에서 2021년에는 949건(2.2%)이었고, 가정폭력처벌법도 2019년(4,355건) 이후 계속 감소하였다.
- 반면, 아동학대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추세 또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1.4%, 1.5%)에 비해 2021년(2.8%, 2.9%)에 약 2배 상승하였다.

표 2-1-4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근거 법률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53,419 100%	49,073 100%	48,508 100%	45,592 100%	43,992 100%
형법	26,386 49.4%	24,299 49.5%	25,283 52.1%	24,770 54.3%	24,154 54.9%
소년법	13,621 25.5%	13,516 27.6%	12,074 24.9%	11,608 25.5%	10,305 23.4%
보호관찰법 (임시퇴원)	1,192 2.2%	1,296 2.6%	1,058 2.2%	962 2.1%	944 2.1%
치료감호법	944 1.8%	1,044 2.1%	1,044 2.2%	827 1.8%	866 2.0%
성폭력처벌법	914 1.7%	898 1.8%	806 1.7%	785 1.7%	732 1.7%
가정폭력처벌법	3,930 7.4%	3,523 7.2%	4,355 9.0%	3,497 7.7%	3,177 7.2%
성매매처벌법	1,192 2.2%	539 1.1%	321 0.7%	262 0.6%	191 0.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선도위탁)	3,452 6.5%	2,106 4.3%	1,873 3.9%	1,113 2.4%	949 2.2%
청소년성보호법	225 0.4%	221 0.5%	169 0.4%	137 0.3%	188 0.4%
아동학대처벌법	768 1.4%	740 1.5%	732 1.5%	810 1.8%	1,227 2.8%
전자장치부착법	795 1.5%	891 1.8%	793 1.6%	821 1.8%	1,257 2.9%
성충동약물치료법	0 0.0%	0 0.0%	0 0.0%	0 0.0%	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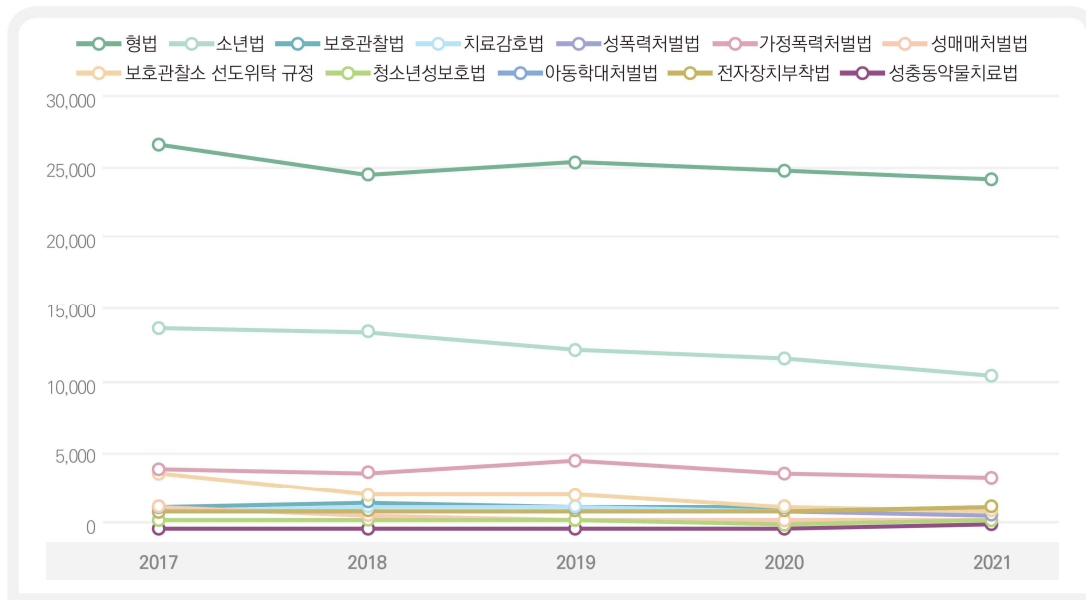


그림 2-1-7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3) 처분유형별 현황

- 2021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을 처분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 집행유예 처분이 16,094건 (3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년보호처분 10,305건(23.5%), 가석방 9,653건(21.9%), 기타 6,972건(15.8%), 선고유예 24건(0.1%)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처분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집행유예는 매년 전체 접수사건 중 40%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가석방은 2017년 12.7%였다가 2021년에는 21.9%로 상승하였다. 소년보호처분은 사건 수의 감소에도 전체 사건 중 비율은 2020년까지 2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23%대를 보였고, 임시퇴원은 사건 수의 증감에도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2%대를 유지하였다.

표 2-1-5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연도	유형	계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	소년보호처분			기타
							소계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2017		53,419	33	21,359	6,796	1,192	13,621	7,175	6,446	10,418
		100%	0.1%	40.0%	12.7%	2.2%	25.5%	13.4%	12.1%	19.5%
2018		49,073	28	18,603	7,148	1,296	13,516	7,055	6,461	8,482
		100%	0.1%	37.9%	14.6%	2.6%	27.6%	14.4%	13.2%	17.3%
2019		48,508	15	18,065	8,441	1,058	12,074	5,913	6,161	8,855
		100%	0.0%	37.2%	17.4%	2.2%	24.9%	12.2%	12.7%	18.3%

연도	유형	계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	소년보호처분			기타
							소계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2020		45,592	19	18,656	7,828	962	11,608	5,884	5,724	6,519
		100%	0.0%	40.9%	17.2%	2.1%	25.5%	12.9%	12.6%	14.3%
2021		43,992	24	16,094	9,653	944	10,305	5,088	5,217	6,972
		100%	0.1%	36.6%	21.9%	2.1%	23.5%	11.6%	11.9%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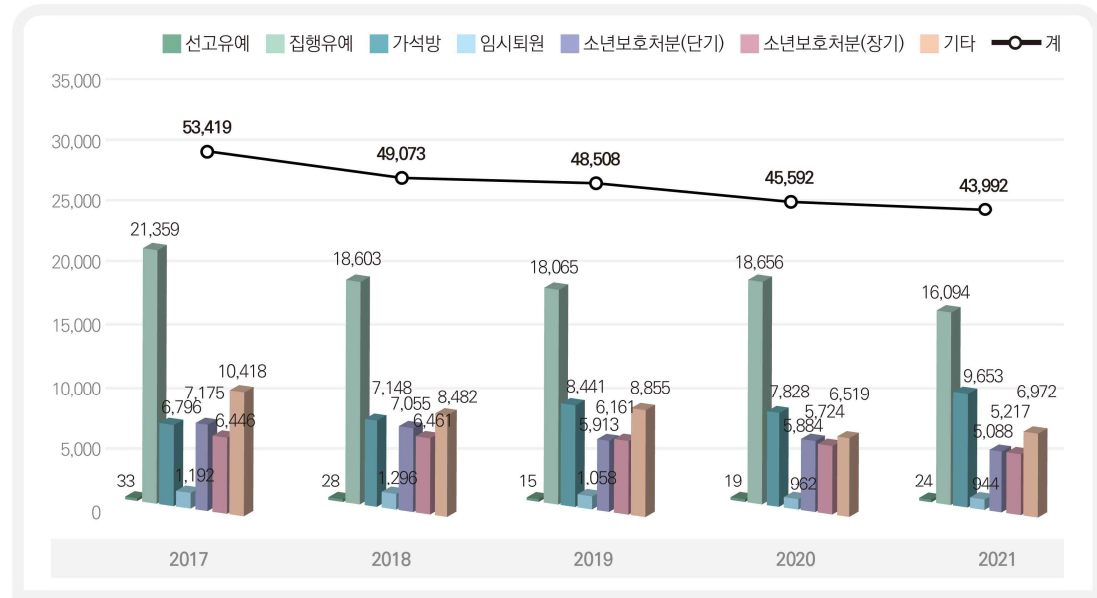


그림 2-1-8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건의 보호관찰 기간 현황

2021년에 접수된 보호관찰사건 중 집행유예 사건* 16,086건에 대해 보호관찰기간을 살펴본 결과, 1년 초과~2년 이하가 10,433건(64.8%), 2년 초과~3년 이하가 3,542건(22.0%), 1년 이하가 1,462건(9.1%)이었고, 3년 초과~4년 이하가 444건(2.8%), 5년 이하가 205건(1.3%)이었다.

❖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건의 보호관찰기간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계	6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2017	21,784	14	2,538	16,510	2,361	255	106
	100%	0.1%	11.6%	75.8%	10.8%	1.2%	0.5%
2018	19,124	15	2,064	14,242	2,376	300	127
	100%	0.1%	10.8%	74.5%	12.4%	1.6%	0.6%
2019	18,729	21	1,826	14,066	2,387	296	133
	100%	0.1%	9.8%	75.1%	12.7%	1.6%	0.7%
2020	18,656	30	1,915	12,980	3,217	380	134
	100%	0.2%	10.3%	69.6%	17.2%	2.0%	0.7%
2021	16,086	2	1,460	10,433	3,542	444	205
	100%	0.0%	9.1%	64.8%	22.0%	2.8%	1.3%

* 처분법 :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치료감호법, 성매매처벌법

4) 연령별 현황

- 2021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을 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면, 소년이 11,853건(26.9%), 성인이 32,139건(73.1%)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성인 사건은 2017년(35,620건)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부터 32,000여 건을 유지하였지만,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소년사건의 감소에 따라 2017년 66.7%에서 2019년 이후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2-1-6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연령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53,419 100%	49,073 100%	48,508 100%	45,592 100%	43,992 100%
소년	17,799 33.3%	16,659 33.9%	14,439 29.8%	13,489 29.6%	11,853 26.9%
성인	35,620 66.7%	32,414 66.1%	34,069 70.2%	32,103 70.4%	32,139 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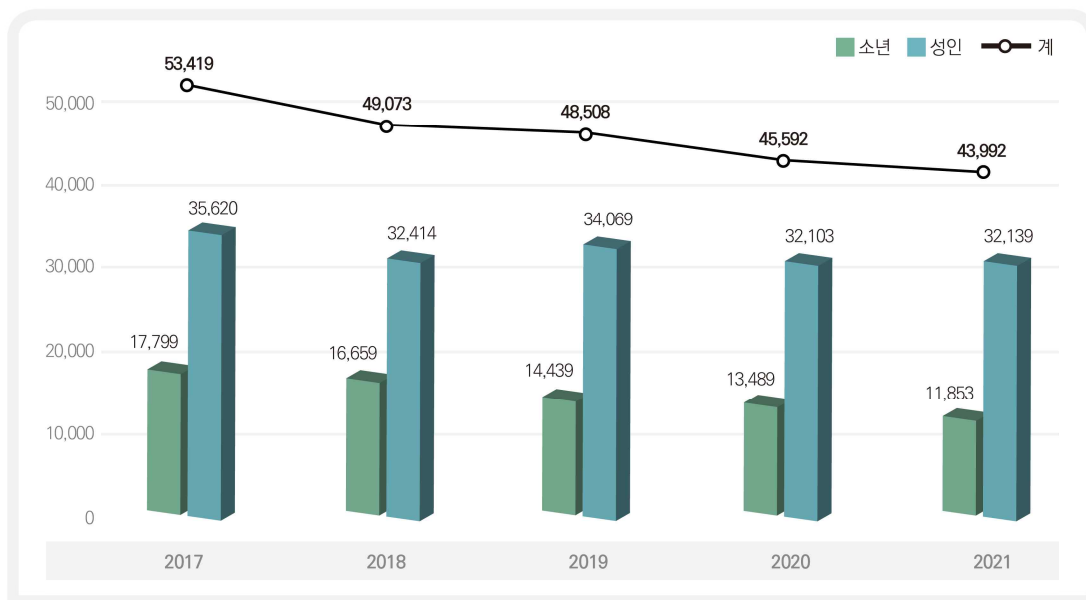


그림 2-1-9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세부 현황

➤ 2021년에 접수한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연령별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세가 2,559건(2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6세 2,358건(19.9%), 18세 2,322건(19.6%), 15세 2,010건(17.0%) 등의 순이었다. 그 외에 14세가 1,410건(11.9%), 19세 이상이 383건(3.2%)이었고, 14세 미만이 811건(6.8%)이었다.

*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20~2021)

연도\구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세 이상
2017	17,799	6	17	79	471	1,467	2,608	4,012	4,685	3,956	498
	100%	0.0%	0.1%	0.4%	2.7%	8.3%	14.7%	22.5%	26.3%	22.2%	2.8%
2018	16,659	6	32	81	595	1,547	2,520	3,393	4,139	3,746	600
	100%	0.0%	0.2%	0.5%	3.6%	9.3%	15.1%	20.4%	24.8%	22.5%	3.6%
2019	14,439	1	15	91	661	1,503	2,294	2,904	3,321	3,149	500
	100%	0.0%	0.1%	0.6%	4.6%	10.4%	15.9%	20.1%	23.0%	21.8%	3.5%
2020	13,489	2	14	98	590	1,505	2,257	2,769	3,095	2,736	423
	100%	0.0%	0.1%	0.7%	4.4%	11.2%	16.7%	20.5%	23.0%	20.3%	3.1%
2021	11,853	6	28	116	661	1,410	2,010	2,358	2,559	2,322	383
	100%	0.0%	0.2%	1.0%	5.6%	11.9%	17.0%	19.9%	21.6%	19.6%	3.2%

➡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세부 현황

➤ 2021년에 접수한 성인 보호관찰사건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40대가 7,739건(24.1%), 50대가 7,729건(24.1%), 30대가 5,993건(18.6%)으로 30~50대가 전체의 66.8%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20대가 5,942건(18.5%), 60대가 3,872건(12.0%), 70대가 744건(2.3%)이었고, 80대 이상은 120건(0.4%)이었다.

*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20~2021)

연도\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2017	35,620	6,217	7,863	9,484	8,598	2,925	469	64
	100%	17.5%	22.1%	26.6%	24.1%	8.2%	1.3%	0.2%
2018	32,414	6,016	6,730	8,235	7,983	2,849	536	65
	100%	18.6%	20.8%	25.4%	24.6%	8.8%	1.6%	0.2%
2019	34,069	6,299	6,956	8,316	8,307	3,450	638	103
	100%	18.5%	20.4%	24.4%	24.4%	10.1%	1.9%	0.3%
2020	32,103	6,003	6,436	7,790	7,627	3,429	736	82
	100%	18.7%	20.0%	24.3%	23.8%	10.7%	2.3%	0.2%
2021	32,139	5,942	5,993	7,739	7,729	3,872	744	120
	100%	18.5%	18.6%	24.1%	24.1%	12.0%	2.3%	0.4%

5)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 중 학생 현황

- 2021년에 접수된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학생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학생이 7,535건(63.6%), 비학생이 4,318건(36.4%)이었고, 비학생인 경우 무직이 3,704건(31.2%), 기타가 374건(3.2%),

근로자가 240건(2.0%)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을 제외하고는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 중 학생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2017년 54.8%에서 2020년 이후로는 60% 이상을 기록하였다.

표 2-1-7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학생 등 현황(2017~2021)

연도	직업	계	학생	비학생			
				소계	무직	근로자	기타
2017		17,799	9,756	8,043	6,879	454	710
		100%	54.8%	45.2%	38.6%	2.6%	4.0%
2018		16,659	9,119	7,540	6,609	395	536
		100%	54.7%	45.3%	39.7%	2.4%	3.2%
2019		14,439	7,620	6,819	5,781	399	639
		100%	52.8%	47.2%	40.0%	2.8%	4.4%
2020		13,489	8,159	5,330	4,686	239	405
		100%	60.5%	39.5%	34.7%	1.8%	3.0%
2021		11,853	7,535	4,318	3,704	240	374
		100%	63.6%	36.4%	31.2%	2.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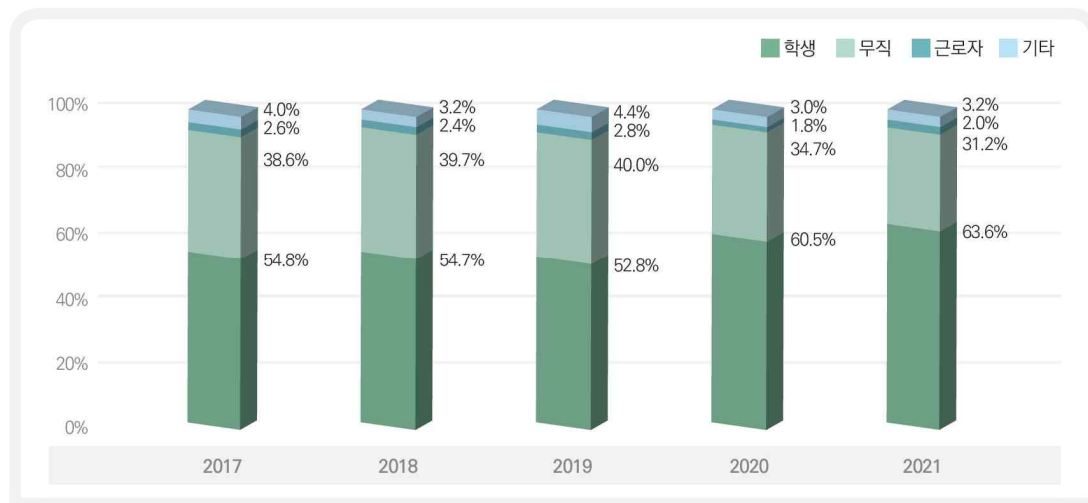


그림 2-1-10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학생 등 현황(2017~2021)

6) 성별 현황

- 2021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 중 남성이 37,259건(84.7%), 여성이 6,733건(15.3%)으로 남성 사건이 여성 사건보다 약 5.5배 많았다.
- 최근 5년간 남녀 사건의 비율을 살펴보면, 매년 남성이 전체의 85% 내외를 유지하였다. 다만, 여성사건의 비율이 2017년 14.4%, 2018년 14.7%,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5.0%, 2021년에는 15.3% 등으로, 꾸준히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표 2-1-8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성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53,419 100%	49,073 100%	48,508 100%	45,592 100%	43,992 100%
남성	45,720 85.6%	41,852 85.3%	41,225 85.0%	38,766 85.0%	37,259 84.7%
여성	7,699 14.4%	7,221 14.7%	7,283 15.0%	6,826 15.0%	6,733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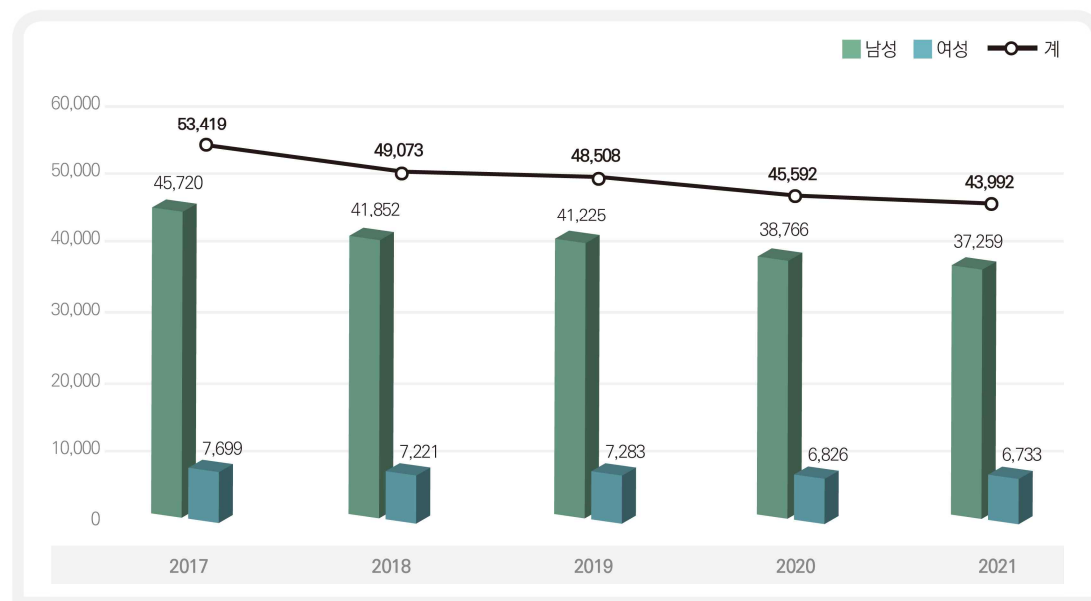


그림 2-1-11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7~2021)

- 2021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을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년사건에서는 남성이 9,181건(77.5%), 여성이 2,672건(22.5%)이었고, 성인사건에서는 남성이 28,078건(87.4%), 여성이 4,061건(12.6%)이었다. 소년과 성인사건 모두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특히 성인사건에서의 남성 비율이 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2-1-9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연령 연도	소년			성인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17	17,799	14,341	3,458	35,620	31,379	4,241
	100%	80.6%	19.4%	100%	88.1%	11.9%
2018	16,659	13,111	3,548	32,414	28,741	3,673
	100%	78.7%	21.3%	100%	88.7%	11.3%
2019	14,439	11,118	3,321	34,069	30,107	3,962
	100%	77.0%	23.0%	100%	88.4%	11.6%
2020	13,489	10,488	3,001	32,103	28,278	3,825
	100%	77.8%	22.2%	100%	88.1%	11.9%
2021	11,853	9,181	2,672	32,139	28,078	4,061
	100%	77.5%	22.5%	100%	87.4%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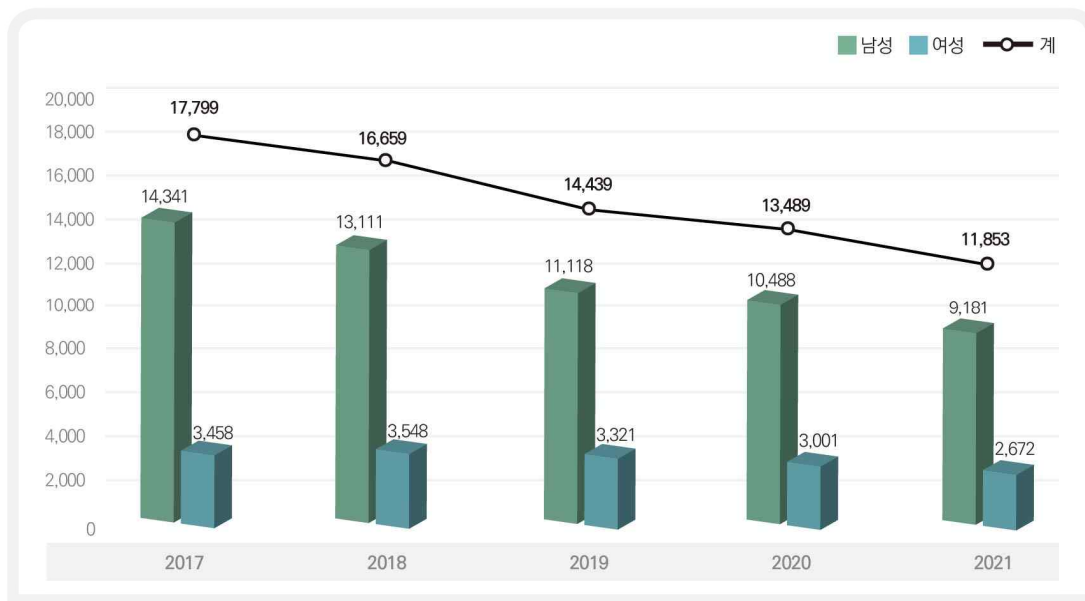


그림 2-1-12 보호관찰 접수사건(소년)의 성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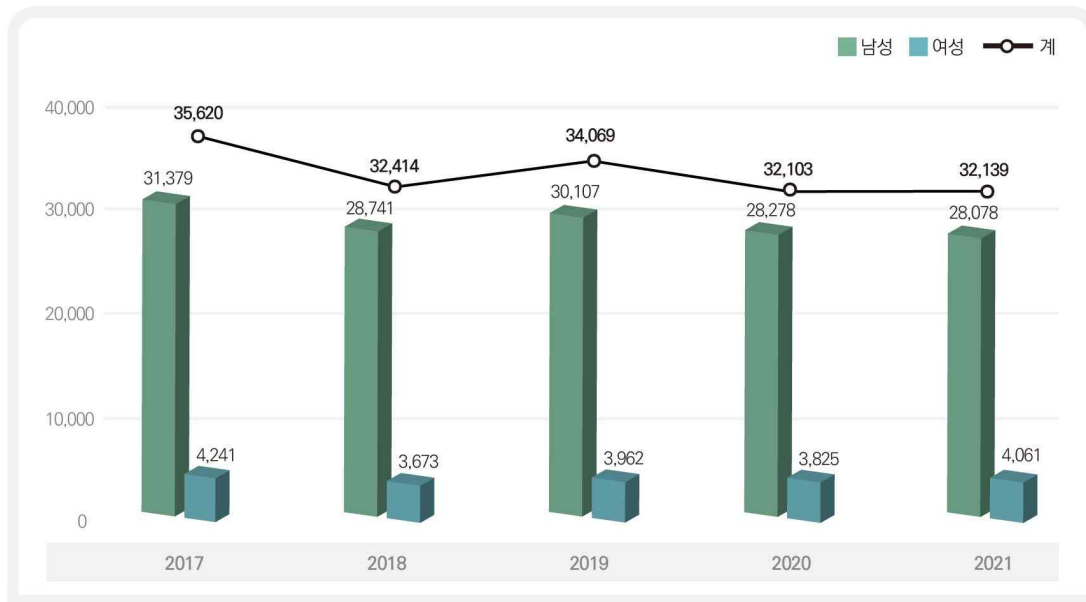


그림 2-1-13 보호관찰 접수사건(성인)의 성별 현황(2017~2021)

7) 보호관찰처분 전력

- 2021년 보호관찰 접수사건 총 43,992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사건이 최초 보호관찰처분인 경우가 22,388건(50.9%), 처분전력이 있는 경우가 21,604건(49.1%)이었고, 보호관찰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중 1회가 11,751건(26.7%), 2회가 5,298건(12.0%), 3회가 2,542건(5.8%), 4회 이상이 2,013건(4.6%)이었다.
- 또한, 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보호관찰처분 전력을 살펴보면, 소년의 경우 최초 처분자가 5,157건(43.5%), 처분전력자가 6,696건(56.5%)이고, 성인의 경우 최초 처분자가 17,231건(53.7%), 처분전력자가 14,908건(46.3%)으로, 소년사건의 처분전력자 비율이 성인보다 높았다.
- 최근 5년간, 소년사건에서는 최초 보호관찰처분의 비율이 2018년(41.7%)을 제외하고는 매년 43~44%를 유지하였고, 1회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3회 및 4회 이상의 비율이 2017년(13.1%) 이후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성인에서는 보호관찰 전력이 없는 경우가 2017년(58.9%) 이후 매년 감소하였고, 3회 및 4회 이상의 비율은 2017년(7.5%) 이후 소폭 증가하였다.

표 2-1-10 전체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7~2021)

연도	처분전력	계	전력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2017		53,419	28,651	13,488	6,274	2,807	2,199
		100%	53.6%	25.2%	11.7%	5.3%	4.1%
2018		49,071	25,394	12,505	6,184	2,758	2,230
		100%	51.8%	25.5%	12.6%	5.6%	4.5%
2019		48,508	25,499	12,351	5,866	2,673	2,119
		100%	52.6%	25.5%	12.1%	5.5%	4.4%
2020		45,592	23,926	11,867	5,388	2,415	1,996
		100%	52.5%	26.0%	11.8%	5.3%	4.4%
2021		43,992	22,388	11,751	5,298	2,542	2,013
		100%	50.9%	26.7%	12.0%	5.8%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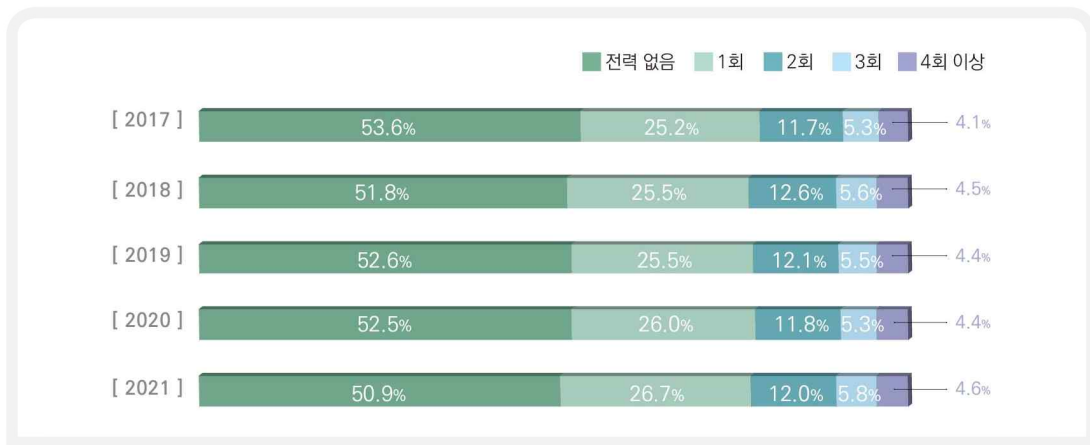


그림 2-1-14 전체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7~2021)

표 2-1-11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7~2021)

연도	처분전력	계	전력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2017		17,799	7,672	4,912	2,877	1,396	942
		100%	43.1%	27.6%	16.2%	7.8%	5.3%
2018		16,659	6,949	4,809	2,779	1,272	850
		100%	41.7%	28.9%	16.7%	7.6%	5.1%
2019		14,439	6,244	4,089	2,285	1,098	723
		100%	43.3%	28.3%	15.8%	7.6%	5.0%
2020		13,489	6,041	3,986	2,020	890	552
		100%	44.8%	29.6%	15.0%	6.6%	4.1%
2021		11,853	5,157	3,563	1,821	856	456
		100%	43.5%	30.1%	15.4%	7.2%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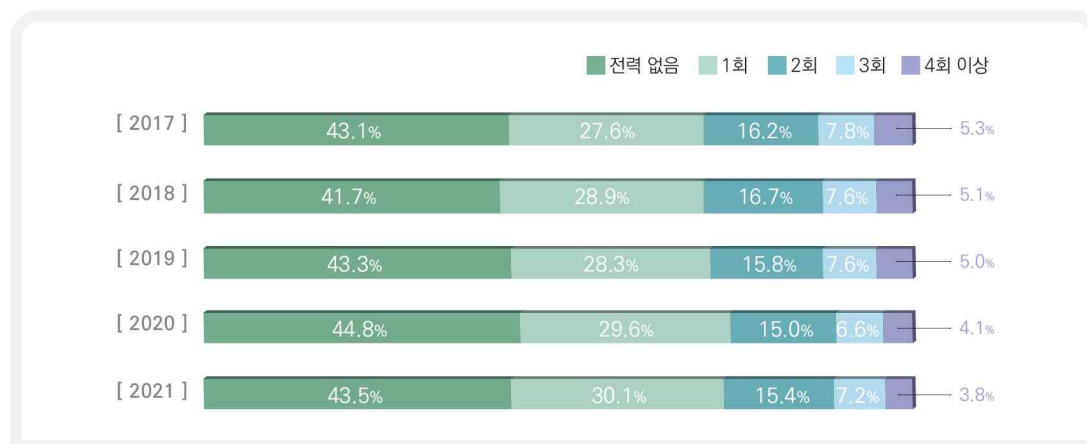


그림 2-1-15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7~2021)

표 2-1-12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7~2021)

연도	처분 전력	계	전력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2017		35,620	20,979	8,576	3,397	1,411	1,257
		100%	58.9%	24.1%	9.5%	4.0%	3.5%
2018		32,414	18,447	7,696	3,405	1,486	1,380
		100%	56.9%	23.7%	10.5%	4.6%	4.3%
2019		34,069	19,255	8,262	3,581	1,575	1,396
		100%	56.5%	24.3%	10.5%	4.6%	4.1%
2020		32,103	17,885	7,881	3,368	1,525	1,444
		100%	55.7%	24.6%	10.5%	4.8%	4.5%
2021		32,139	17,231	8,188	3,477	1,686	1,557
		100%	53.7%	25.5%	10.8%	5.2%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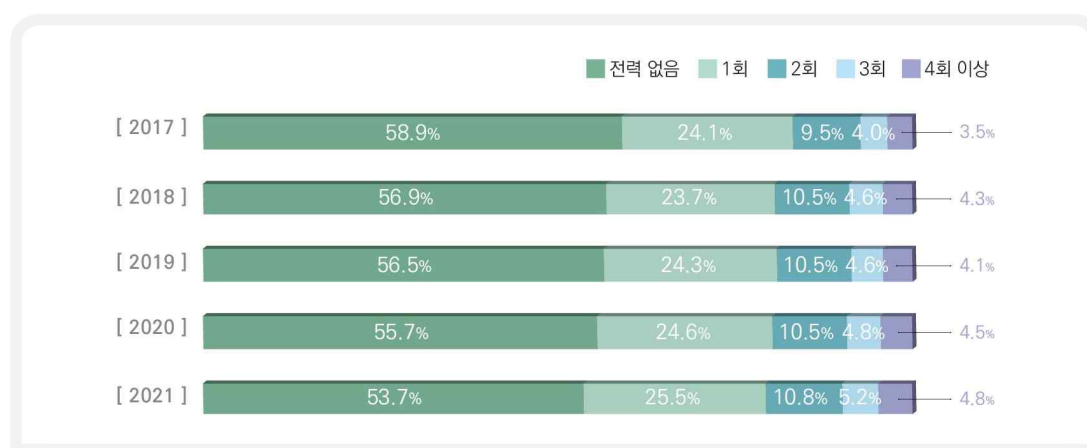


그림 2-1-16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7~2021)

8) 내외국인 현황

- 2021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43,992건) 중 내국인이 43,543건(99.0%), 외국인이 449건(1.0%)이었다. 또한 소년과 성인 사건을 구분하여 내외국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소년사건에서는 내국인이 99.4%, 외국인이 0.6%이었고, 성인사건에서는 내국인이 98.8%, 외국인이 1.2%로, 연령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1-13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전체		소년		성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7	53,161	258	17,754	45	35,407	213
	99.5%	0.5%	99.7%	0.3%	99.4%	0.6%
2018	48,840	233	16,607	52	32,233	181
	99.5%	0.5%	99.7%	0.3%	99.4%	0.6%
2019	48,207	301	14,374	65	33,833	236
	99.4%	0.6%	99.5%	0.5%	99.3%	0.7%
2020	45,257	335	13,419	70	31,838	265
	99.3%	0.7%	99.5%	0.5%	99.2%	0.8%
2021	43,543	449	11,782	71	31,761	378
	99.0%	1.0%	99.4%	0.6%	98.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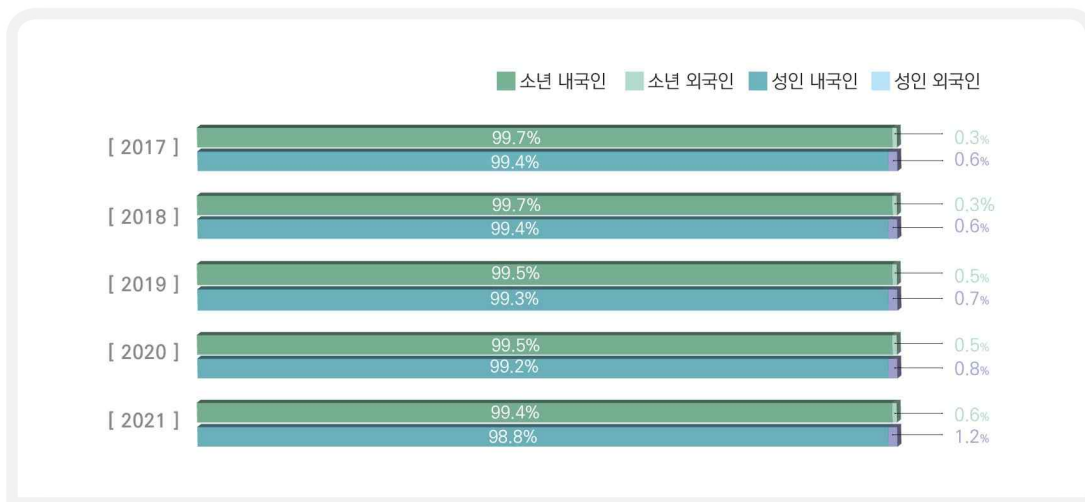


그림 2-1-17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17~2021)

9) 외출제한명령(특별준수사항) 부과 현황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접수사건 중 특정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사건 현황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사건)
- 외출제한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제1호의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 사범 :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의 10개로 구분

- 특별준수사항으로 특정시간대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성별, 사범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령별 부과 현황

- 2021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 43,992건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사건은 총 6,900건이며, 그중 소년사건이 6,705건(97.2%), 성인사건이 195건(2.8%)이었다.
- 최근 5년간 외출제한명령 부과사건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전체 보호관찰 접수사건 대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은 2017년 16.2%, 2018년 17.0%, 2019년 15.3%, 2020년 16.3%, 2021년 15.7%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 그러나 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전체 보호관찰 접수사건 대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을 살펴보면, 소년사건에서는 2017년 46.9%에서 계속 상승하여 2021년에는 56.6%를 기록하였고, 성인은 매년 1% 미만의 부과율을 나타냈다.

표 2-1-14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성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8,653	8,319	7,425	7,435	6,900
	100%	100%	100%	100%	100%
소년	8,350	8,095	7,255	7,258	6,705
	96.5%	97.3%	97.7%	97.6%	97.2%
성인	303	224	170	177	195
	3.5%	2.7%	2.3%	2.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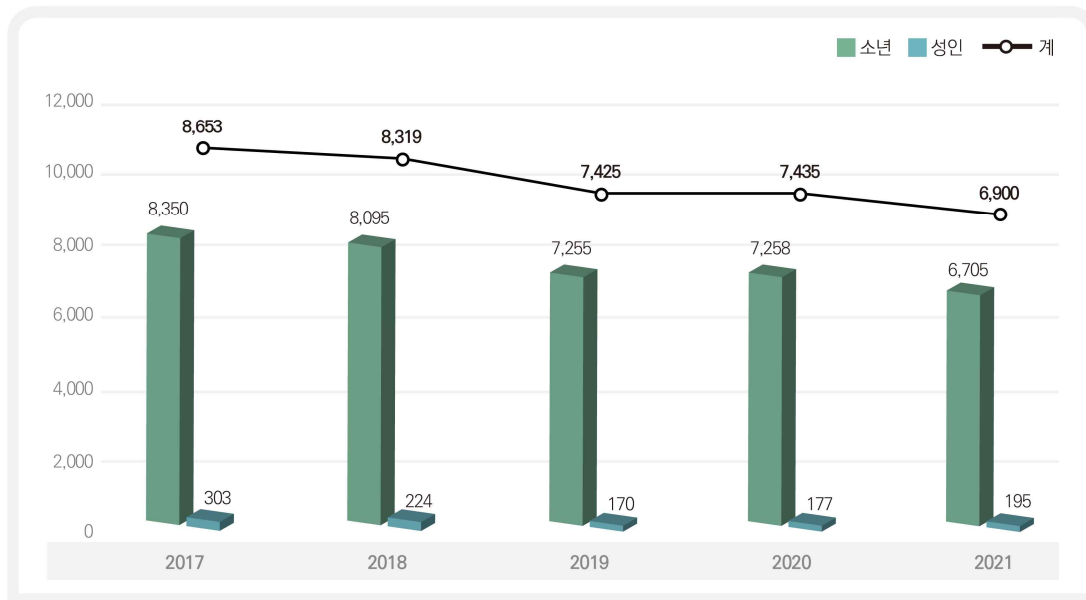


그림 2-1-18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표 2-1-15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접수사건	53,419	49,073	48,508	45,592	43,992
	부과사건	8,653	8,319	7,425	7,435	6,900
	부과율	16.2%	17.0%	15.3%	16.3%	15.7%
소년	접수사건	17,799	16,659	14,439	13,489	11,853
	부과사건	8,350	8,095	7,255	7,258	6,705
	부과율	46.9%	48.6%	50.2%	53.8%	56.6%
성인	접수사건	35,620	32,414	34,069	32,103	32,139
	부과사건	303	224	170	177	195
	부과율	0.9%	0.7%	0.5%	0.6%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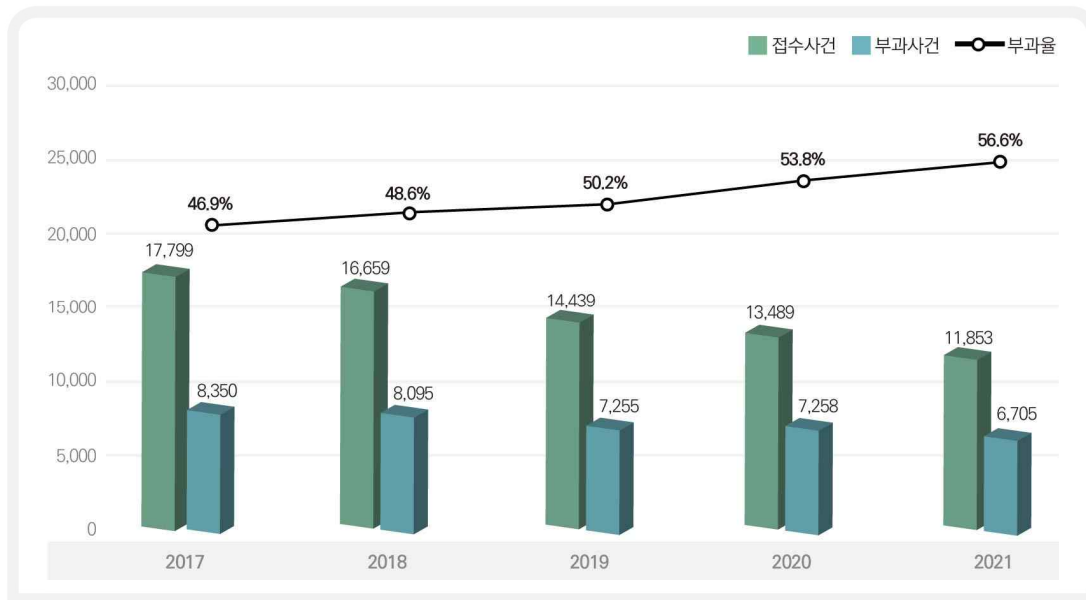


그림 2-1-19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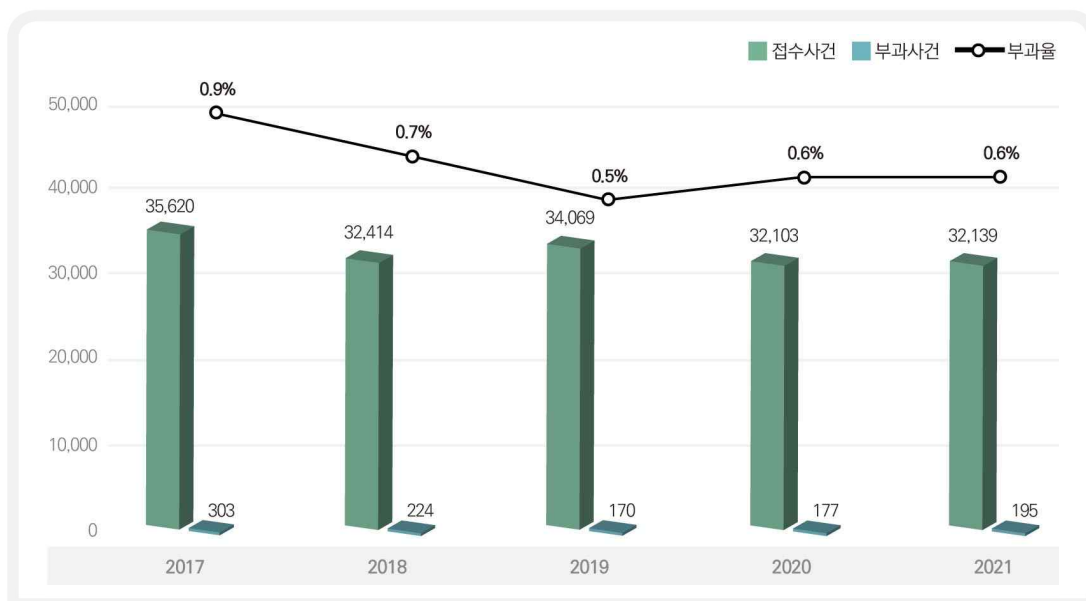


그림 2-1-20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2) 연령에 따른 성별 부과 현황

- 2021년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사건(6,900건)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소년사건의 경우 남성이 5,014건(74.8%), 여성이 1,691건(25.2%)이었고, 성인사건의 경우 남성이 183건(93.8%), 여성이 12건(6.2%)이었다.

표 2-1-16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소년			성인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2017		8,350	6,580	1,770	303	280	23
		100%	78.8%	21.2%	100%	92.4%	7.6%
2018		8,095	6,205	1,890	224	213	11
		100%	76.7%	23.3%	100%	95.1%	4.9%
2019		7,255	5,383	1,872	170	157	13
		100%	74.2%	25.8%	100%	92.4%	7.6%
2020		7,258	5,375	1,883	177	166	11
		100%	74.1%	25.9%	100%	93.8%	6.2%
2021		6,705	5,014	1,691	195	183	12
		100%	74.8%	25.2%	100%	93.8%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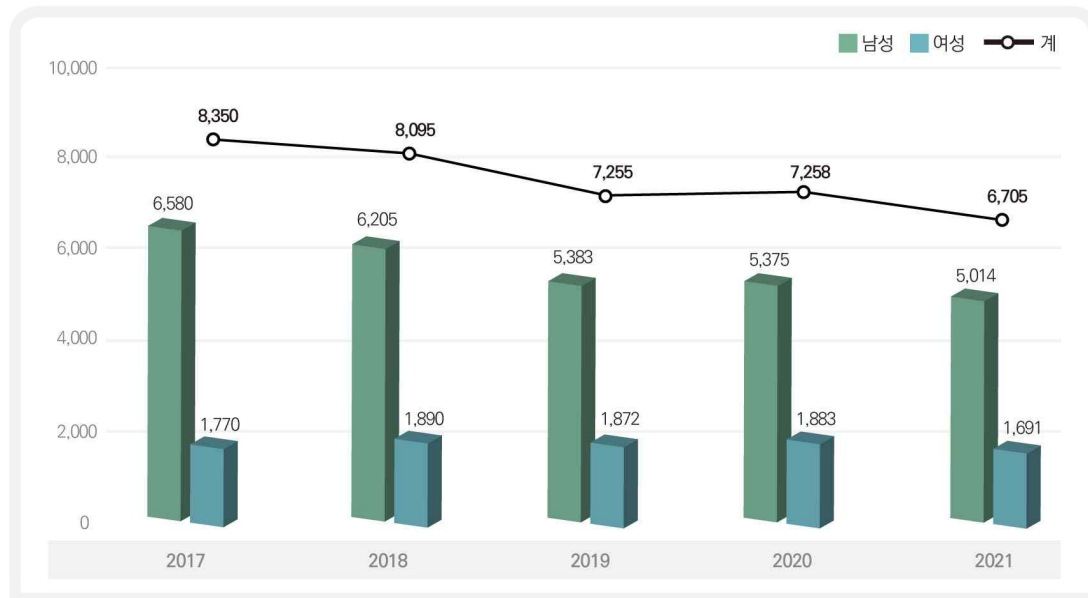


그림 2-1-21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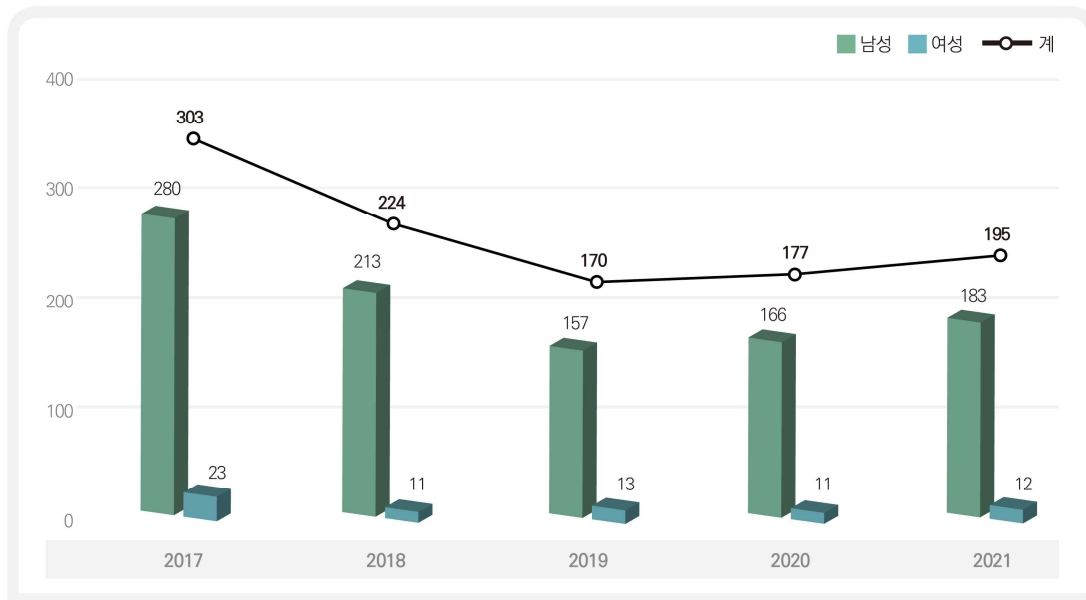


그림 2-1-22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3) 사범별 부과 현황

① 전체 보호관찰

- 2021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 접수사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기타사범이 2,319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절도사범 1,696건(24.6%), 폭력사범 1,389건(20.1%), 교통사범 715건(10.4%), 사기횡령사범 406건(5.9%), 성폭력사범 177건(2.6%) 등의 순이었다.
- 2021년의 사범별 접수사건 대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은 절도사범이 4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사범 30.7%, 폭력사범 14.4%, 강력사범 9.7%, 성폭력사범 6.4%, 사기횡령사범 5.5%, 풍속사범 5.2%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주요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 추이를 살펴보면, 절도사범과 강력사범은 매년 계속 증가하였고, 폭력사범과 교통사범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 정체되는 양상이며, 마약사범과 성폭력사범은 계속 감소하여 2017년에는 각각 4.1%와 12.0%였다가 2021년에는 0.8%와 6.4%를 나타냈다.

표 2-1-17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8,653	2,069	824	2,275	469	96	69	103	401	19	2,328
	100%	23.9%	9.5%	26.3%	5.4%	1.1%	0.8%	1.2%	4.6%	0.2%	26.9%
2018	8,319	2,076	741	2,130	460	81	44	83	310	25	2,369
	100%	25.0%	8.9%	25.6%	5.5%	1.0%	0.5%	1.0%	3.7%	0.3%	28.5%
2019	7,425	1,834	606	1,944	486	94	32	43	239	30	2,117
	100%	24.7%	8.2%	26.2%	6.6%	1.3%	0.4%	0.6%	3.2%	0.4%	28.5%
2020	7,435	1,487	730	2,016	459	117	14	53	214	22	2,323
	100%	20.0%	9.8%	27.1%	6.2%	1.6%	0.2%	0.7%	2.9%	0.3%	31.2%
2021	6,900	1,389	715	1,696	406	120	12	49	177	17	2,319
	100%	20.1%	10.4%	24.6%	5.9%	1.7%	0.2%	0.7%	2.6%	0.2%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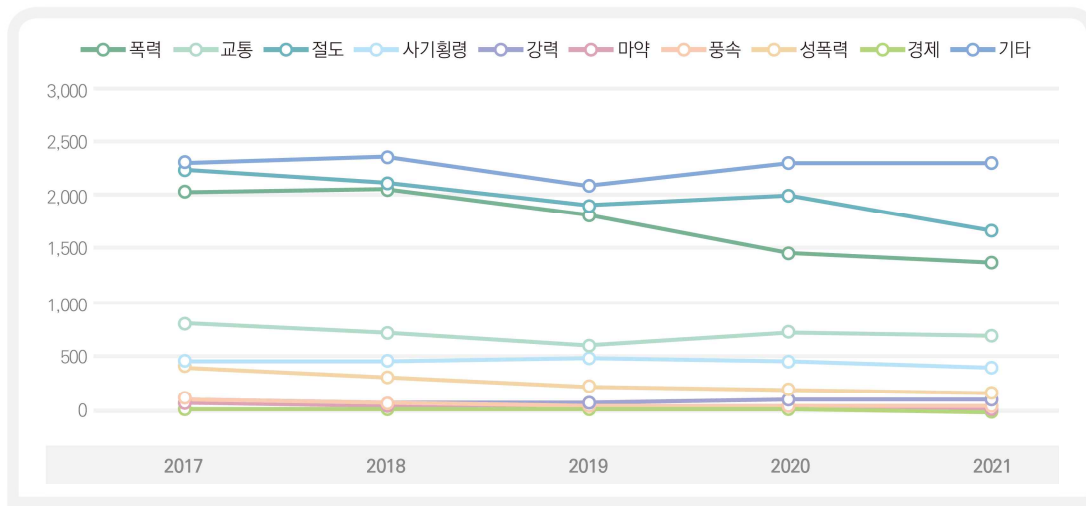


그림 2-1-23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표 2-1-18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16.2%	15.3%	9.7%	33.9%	7.0%	6.2%	4.1%	4.3%	12.0%	2.7%	27.9%
2018	17.0%	16.5%	9.6%	36.5%	7.2%	5.3%	3.0%	5.6%	9.0%	3.6%	29.8%
2019	15.3%	14.5%	7.4%	38.2%	7.0%	7.1%	2.0%	3.2%	7.7%	3.9%	28.0%
2020	16.3%	14.3%	8.1%	40.9%	6.9%	9.6%	1.0%	4.9%	7.7%	3.0%	31.4%
2021	15.7%	14.4%	8.8%	41.8%	5.5%	9.7%	0.8%	5.2%	6.4%	2.6%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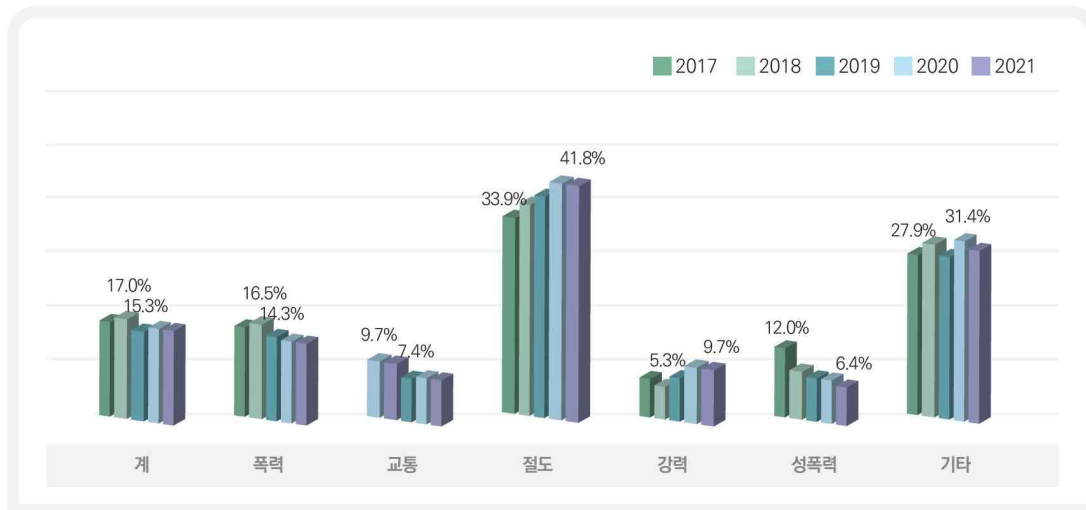


그림 2-1-24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주요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2) 소년 보호관찰

- 2021년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에서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사범이 2,284건(3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절도사범 1,647건(24.6%), 폭력사범 1,347건(20.1%), 교통사범 695건(10.4%), 사기횡령 399건(5.9%) 등의 순이었다.
- 이를 각 사범의 접수사건을 고려한 부과율로 환산하면, 강력사범이 71.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기타사범이 69.1%, 절도사범이 66.9%였으며, 교통사범이 51.7%, 폭력사범 53.5%, 경제사범 48.6%, 사기횡령사범 42.5% 등이었다. 그 외 마약·풍속·성폭력 사범은 각각 20.7%, 23.9%, 17.9%이었다.

표 2-1-19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8,350	1,993	791	2,209	444	76	61	97	370	18	2,291
	100%	23.9%	9.5%	26.5%	5.3%	0.9%	0.7%	1.2%	4.4%	0.2%	27.4%
2018	8,095	2,020	723	2,051	456	77	41	76	281	23	2,347
	100%	25.0%	8.9%	25.3%	5.6%	1.0%	0.5%	0.9%	3.5%	0.3%	29.0%
2019	7,255	1,796	596	1,869	477	89	27	42	225	29	2,105
	100%	24.7%	8.2%	25.8%	6.6%	1.2%	0.4%	0.6%	3.1%	0.4%	29.0%
2020	7,258	1,445	718	1,958	450	115	7	48	198	21	2,298
	100%	19.9%	9.9%	27.0%	6.2%	1.6%	0.1%	0.6%	2.7%	0.3%	31.7%
2021	6,705	1,347	695	1,647	399	105	6	48	157	17	2,284
	100%	20.1%	10.4%	24.6%	5.9%	1.6%	0.1%	0.7%	2.3%	0.2%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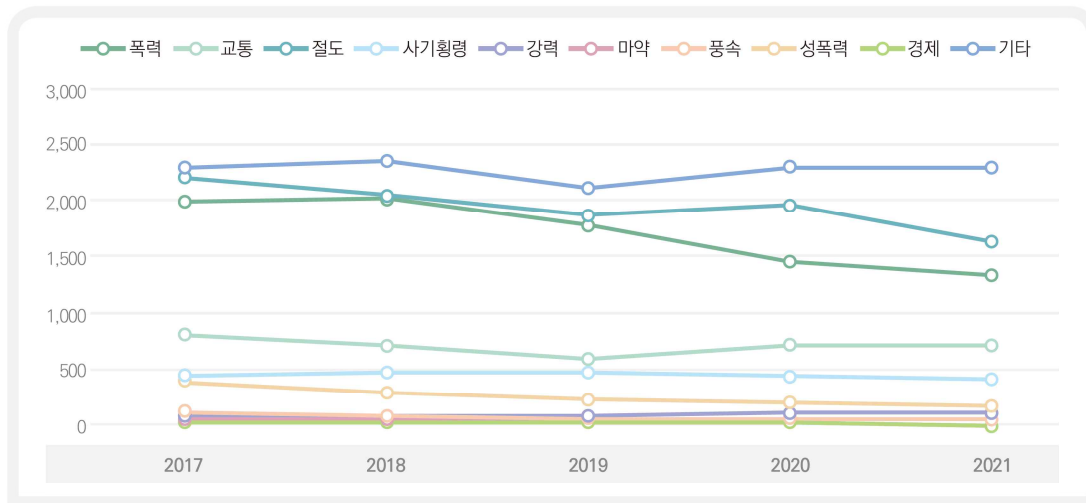


그림 2-1-25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표 2-1-20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46.9%	45.2%	41.9%	47.7%	36.8%	37.6%	64.9%	51.9%	33.8%	32.1%	56.8%
2018	48.6%	45.6%	42.5%	52.6%	38.8%	45.3%	57.7%	42.7%	26.1%	32.9%	60.5%
2019	50.2%	48.0%	43.0%	57.9%	42.9%	62.2%	51.9%	22.5%	21.8%	33.3%	60.7%
2020	53.8%	48.7%	48.8%	62.0%	41.3%	58.1%	22.6%	32.2%	21.6%	34.4%	66.7%
2021	56.6%	53.5%	51.7%	66.9%	42.5%	71.9%	20.7%	23.9%	17.9%	48.6%	69.1%



그림 2-1-26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주요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3) 성인 보호관찰

- 2021년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에서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절도사범이 49건(25.1%), 폭력사범이 42건(21.5%), 기타사범이 35건(17.9%)이었고, 교통사범과 성폭력사범이 각 20건(10.3%), 강력사범 15건(7.7%), 사기횡령사범 7건(3.6%), 마약사범 6건(3.1%), 풍속사범 1건(0.5%), 경제사범 0건 등이었다.
- 이를 각 사범의 접수사건을 고려한 부과율로 환산하면, 절도사범이 3.1%, 강력사범과 성폭력사범이 각각 1.4%와 1.1%이었고, 그 외 사범은 모두 1% 미만을 나타냈다.

표 2-1-21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연도\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303	76	33	66	25	20	8	6	31	1	37
	100%	25.1%	10.9%	21.8%	8.3%	6.6%	2.6%	2.0%	10.2%	0.3%	12.2%
2018	224	56	18	79	4	4	3	7	29	2	22
	100%	25.0%	8.0%	35.3%	1.8%	1.8%	1.3%	3.1%	13.0%	0.9%	9.8%
2019	170	38	10	75	9	5	5	1	14	1	12
	100%	22.4%	5.9%	44.1%	5.3%	2.9%	2.9%	0.6%	8.2%	0.6%	7.1%
2020	177	42	12	58	9	2	7	5	16	1	25
	100%	23.7%	6.8%	32.8%	5.1%	1.1%	4.0%	2.8%	9.0%	0.6%	14.1%
2021	195	42	20	49	7	15	6	1	20	0	35
	100%	21.5%	10.3%	25.1%	3.6%	7.7%	3.1%	0.5%	10.3%	0.0%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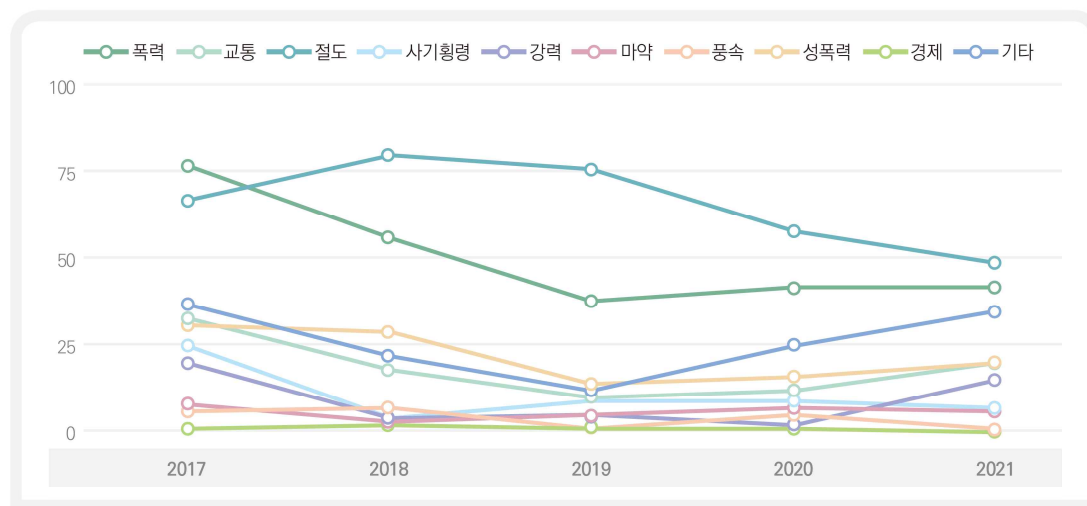


그림 2-1-27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표 2-1-22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0.9%	0.8%	0.5%	3.2%	0.5%	1.5%	0.5%	0.3%	1.4%	0.2%	0.9%
2018	0.7%	0.7%	0.3%	4.1%	0.1%	0.3%	0.2%	0.5%	1.2%	0.3%	0.5%
2019	0.5%	0.4%	0.1%	4.0%	0.2%	0.4%	0.3%	0.1%	0.7%	0.1%	0.3%
2020	0.6%	0.6%	0.2%	3.3%	0.2%	0.2%	0.5%	0.5%	0.9%	0.1%	0.6%
2021	0.6%	0.6%	0.3%	3.1%	0.1%	1.4%	0.4%	0.1%	1.1%	0.0%	0.8%



그림 2-1-28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주요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2 실시사건 현황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보호관찰 사건의 사범, 근거법률, 처분유형, 연령 등 현황

지표정의

- 실시사건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 사건)
- 보호관찰 : 보호관찰처분이 부과된 사건만 포함
- 사범 :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의 10개로 구분
- 근거 법률 : 형법, 소년법, 보호관찰법(임시회원), 치료감호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 처벌법, 보호관찰 선도위탁규정(선도위탁),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12개로 구분
- 처분 유형 :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 소년보호처분(단기보호관찰과 장기보호관찰), 기타(가정보호처분, 아동보호처분, 성보호처분, 선도위탁, 가종료, 가출소,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등)
- 연령 : 소년(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미만이거나, 소년법 대상자)과 성인(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이상)으로 구분

1) 사범별 현황

- 2021년의 보호관찰 실시사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폭력사범 19,781건(21.1%), 교통사범 19,649건(21.0%), 기타사범 14,922건(15.9%), 사기횡령사범 11,740건(12.5%)으로, 폭력·교통·기타·사기횡령사범이 전체의 70.5%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절도사범 8,806건(9.4%), 성폭력사범 8,525건(9.1%), 마약사범 3,675건(3.9%) 등이었고, 강력·마약·풍속·경제사범은 각 3,000건 미만 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사범별 실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폭력사범이 전체의 21%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2019년까지 24%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였고, 절도사범은 2017년 12.6%에서 2018년 11.2%, 2020년 10.1%, 2021년 9.4% 등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교통사범은 2017년 16.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20% 이상을 기록하였고, 사기횡령사범도 2017년 10.2%에서 2021년 12.5%로 증가하였다.
- 그 밖에 강력사범은 매년 2.9~3.2%를, 마약사범은 3.7~3.9%를, 경제사범은 1.3~1.5%를 유지하였고, 풍속사범은 2017년 4.4%에서 2019년 3.4%, 2021년 2.6%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표 2-1-23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105,705	26,130	17,356	13,312	10,825	3,337	3,871	4,614	9,004	1,350	15,906
	100%	24.7%	16.4%	12.6%	10.2%	3.2%	3.7%	4.4%	8.5%	1.3%	15.0%
2018	104,850	25,371	18,344	11,775	11,186	3,315	3,909	4,119	9,340	1,453	16,038
	100%	24.2%	17.5%	11.2%	10.7%	3.2%	3.7%	3.9%	8.9%	1.4%	15.3%
2019	101,089	24,841	18,175	10,295	11,755	3,069	3,918	3,434	8,897	1,525	15,180
	100%	24.6%	18.0%	10.2%	11.6%	3.0%	3.9%	3.4%	8.8%	1.5%	15.0%
2020	95,861	22,110	19,015	9,671	11,329	2,826	3,591	2,671	8,627	1,449	14,572
	100%	23.1%	19.8%	10.1%	11.8%	2.9%	3.8%	2.8%	9.0%	1.5%	15.2%
2021	93,654	19,781	19,649	8,806	11,740	2,810	3,675	2,389	8,525	1,357	14,922
	100%	21.1%	21.0%	9.4%	12.5%	3.0%	3.9%	2.6%	9.1%	1.4%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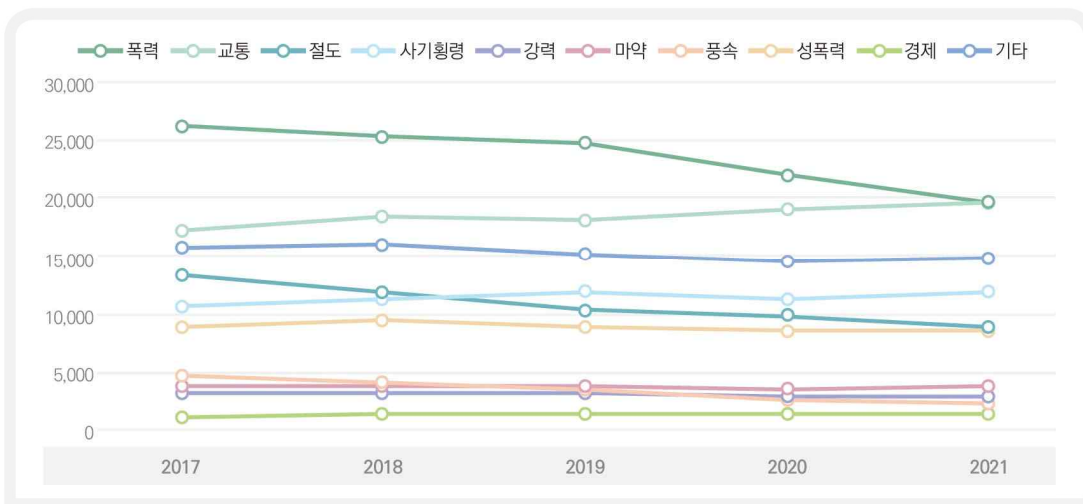


그림 2-1-29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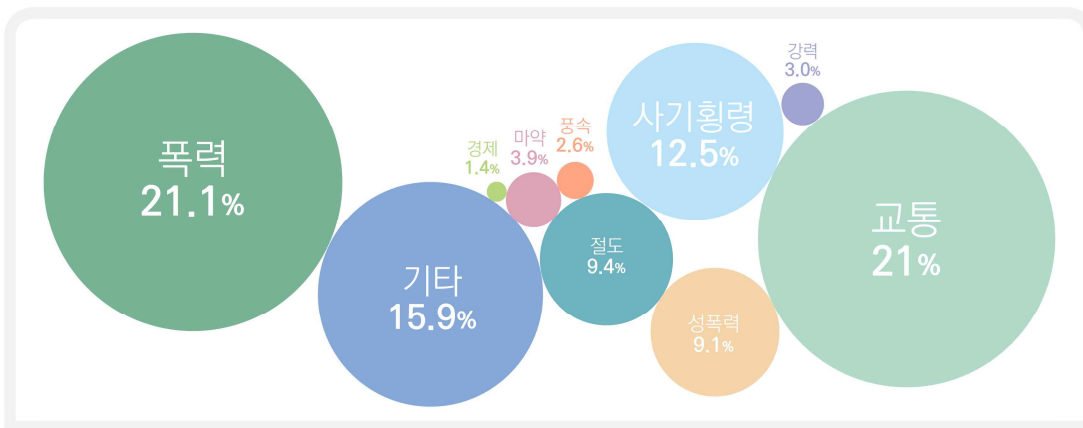


그림 2-1-30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1)

2) 근거 법률별 현황

- 2021년의 보호관찰 실시사건을 근거 법률에 따라 구분하면, 형법이 53,374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년법이 21,014건(22.4%)이었다. 그 외의 법률은 각각 5,000건 미만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이 4,663건(5.0%), 전자장치부착법이 4,005건(4.3%), 치료감호법이 2,490건(2.7%), 성폭력처벌법이 2,254건(2.4%), 아동학대처벌법이 1,835건(2.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선도위탁)이 1,502건(1.6%), 보호관찰법(임시퇴원)이 1,491건(1.6%)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주요 법률별 실시 현황은 대부분 접수사건과 유사하여, 형법은 매년 55,000건 내외를 유지하며 전체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비율이 계속 상승하였다.
- 최근 5년간 증가세가 가장 뚜렷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이었으며, 가정폭력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은 매년 사건 수의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 내외와 2.3% 내외를 유지하였다. 치료감호법도 2017년 1,814건(1.7%)에서 2021년 2,490건(2.7%)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 반면, 소년법과 보호관찰법(임시퇴원)은 사건 수와 비율이 매년 감소하였고, 성매매처벌법도 사건수가 계속 감소하여 2021년에는 2017년의 25% 수준을 나타냈다.

표 2-1-24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근거 법률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5,705 100%	104,850 100%	101,089 100%	95,861 100%	93,654 100%
형법	55,950 52.9%	56,841 54.2%	55,323 54.7%	53,472 55.8%	53,374 57.0%
소년법	25,713 24.3%	25,637 24.4%	23,948 23.7%	22,516 23.5%	21,014 22.4%
보호관찰법 (임시퇴원)	1,807 1.7%	1,963 1.9%	1,787 1.8%	1,582 1.6%	1,491 1.6%
치료감호법	1,814 1.7%	2,336 2.2%	2,637 2.6%	2,493 2.6%	2,490 2.7%
성폭력처벌법	2,323 2.2%	2,430 2.3%	2,309 2.3%	2,311 2.4%	2,254 2.4%
가정폭력처벌법	5,956 5.6%	5,155 4.9%	6,210 6.1%	5,673 5.9%	4,663 5.0%
성매매처벌법	2,112 2.0%	1,615 1.5%	1,056 1.0%	634 0.7%	524 0.6%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선도위탁)	5,340 5.1%	3,740 3.6%	2,796 2.8%	2,023 2.1%	1,502 1.6%

근거 법률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청소년성보호법	596 0.6%	596 0.6%	551 0.5%	481 0.5%	498 0.5%
아동학대처벌법	1,186 1.1%	1,316 1.3%	1,287 1.3%	1,356 1.4%	1,835 2.0%
전자장치부착법	2,907 2.8%	3,220 3.1%	3,183 3.2%	3,319 3.5%	4,005 4.3%
성충동약물치료법	1 0.0%	1 0.0%	2 0.0%	1 0.0%	4 0.0%

3) 처분유형별 현황

- 2021년의 보호관찰 실시사건을 처분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집행유예처분이 45,181건(48.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년보호처분 21,014건(22.4%), 가석방 11,536건(12.3%), 임시퇴원 1,491건(1.6%), 선고유예 41건(0.0%)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처분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집행유예의 경우 사건 수의 감소추세 속에서도 전체의 50% 수준을 유지하였고, 가석방은 사건 수의 증가와 함께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7.9%에서 2019년 10.8%, 2020년 10.6%, 2021년 12.3% 등으로 상승하였다. 그 외 소년보호처분, 임시퇴원, 기타 처분 등은 사건수의 감소와 함께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정체되거나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표 2-1-25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유형 연도	계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	소년보호처분			기타
						소계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2017	105,705	58	51,828	8,385	1,807	25,713	12,940	12,773	17,914
	100%	0.1%	49.0%	7.9%	1.7%	24.3%	12.2%	12.1%	17.0%
2018	104,850	58	51,812	9,252	1,963	25,637	12,842	12,795	16,128
	100%	0.1%	49.4%	8.8%	1.9%	24.4%	12.2%	12.2%	15.4%
2019	101,089	36	48,214	10,911	1,787	23,948	11,386	12,562	16,193
	100%	0.0%	47.7%	10.8%	1.8%	23.7%	11.3%	12.4%	16.0%
2020	95,861	34	48,242	10,172	1,582	22,516	10,658	11,858	13,315
	100%	0.0%	50.3%	10.6%	1.7%	23.5%	11.1%	12.4%	13.9%
2021	93,654	41	45,181	11,536	1,491	21,014	9,960	11,054	14,391
	100%	0.0%	48.3%	12.3%	1.6%	22.4%	10.6%	11.8%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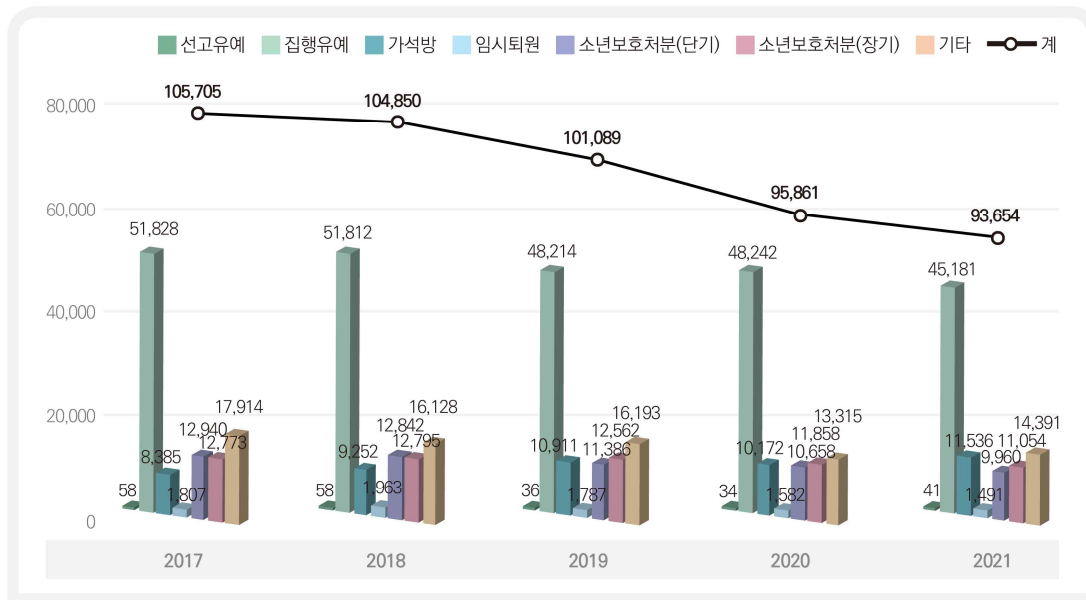


그림 2-1-31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4) 연령별 현황

- 최근 5년간의 보호관찰 실시사건을 소년과 성인 사건으로 구분하면, 소년사건은 2017년에 전체의 30.7%(32,449건)에서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여 2020년 27.0%(25,874건), 2021년 25.4%(23,830건)이었고, 성인사건은 2017년 69.3%(73,256건)에서 매년 비율이 증가하여 2020년 73.0%(69,987건), 2021년 74.6%(69,824건)이었다.

표 2-1-26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연령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5,705 100%	104,850 100%	101,089 100%	95,861 100%	93,654 100%
소년	32,449 30.7%	31,065 29.6%	28,062 27.8%	25,874 27.0%	23,830 25.4%
성인	73,256 69.3%	73,785 70.4%	73,027 72.2%	69,987 73.0%	69,824 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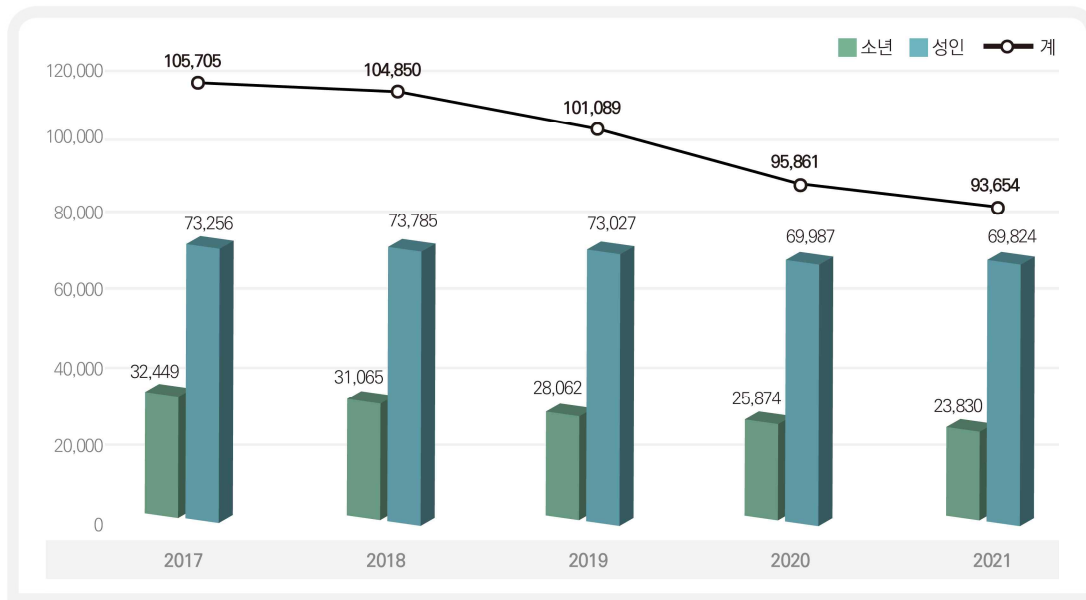


그림 2-1-32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3 현재원 현황

개요

- 전국 보호관찰 현재원의 연령, 사범, 분류등급에 따른 현황

지표정의

- 현재원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보호관찰 집행 중인 사건
- 사범 :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의 10개로 구분
- 분류등급 : 일반, 주요, 집중, 수용자, 기타(추적조사대상자, 임시해제, 군법피적용자, 단독명령대상자, 미분류, 구인영장소재추적, 8호 집행중, 위치추적실형집행중, 위치추적, 강제퇴거, 전담관리 피부착자, 가해제 피부착자) 등으로 분류

1) 연령별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보호관찰 현재원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성인이 37,137건(77.5%), 소년이 10,784건(22.5%)으로 성인사건이 소년사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표 2-1-27 보호관찰 현재원의 연령별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소년	성인
2017	55,784	14,412	41,372
	100%	25.8%	74.2%
2018	52,580	13,625	38,955
	100%	25.9%	74.1%
2019	50,269	12,387	37,882
	100%	24.6%	75.4%
2020	49,560	11,973	37,587
	100%	24.2%	75.8%
2021	47,921	10,784	37,137
	100%	22.5%	77.5%

2) 사범별 현황

(1) 전체 보호관찰

-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을 사범별로 구분하면, 교통사범이 11,076건(2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폭력사범 9,372건(19.6%), 기타사범 7,208건(15.0%), 성폭력사범 5,709건(11.9%), 사기횡령사범 4,813건(10.0%), 절도사범 4,117건(8.6%), 마약사범

2,092건(4.4%)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강력사범(1,628건, 3.4%), 풍속사범(1,282건, 2.7%), 경제사범(624건, 1.3%) 등은 각각 2,000건 미만이었다.

표 2-1-28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구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 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55,784	12,901	10,632	5,946	4,752	1,778	2,453	2,616	5,864	768	8,074
	100%	23.1%	19.1%	10.6%	8.5%	3.2%	4.4%	4.7%	10.5%	1.4%	14.5%
2018	52,580	12,241	10,036	5,207	4,767	1,752	2,310	2,114	5,773	762	7,618
	100%	23.3%	19.1%	9.9%	9.1%	3.3%	4.4%	4.0%	11.0%	1.4%	14.5%
2019	50,269	11,712	9,996	4,748	4,633	1,609	2,240	1,593	5,852	712	7,174
	100%	23.3%	19.9%	9.4%	9.2%	3.2%	4.5%	3.2%	11.6%	1.4%	14.3%
2020	49,560	10,156	11,475	4,735	4,316	1,580	2,070	1,441	5,742	688	7,357
	100%	20.5%	23.1%	9.6%	8.7%	3.2%	4.2%	2.9%	11.6%	1.4%	14.8%
2021	47,921	9,372	11,076	4,117	4,813	1,628	2,092	1,282	5,709	624	7,208
	100%	19.6%	23.1%	8.6%	10.0%	3.4%	4.4%	2.7%	11.9%	1.3%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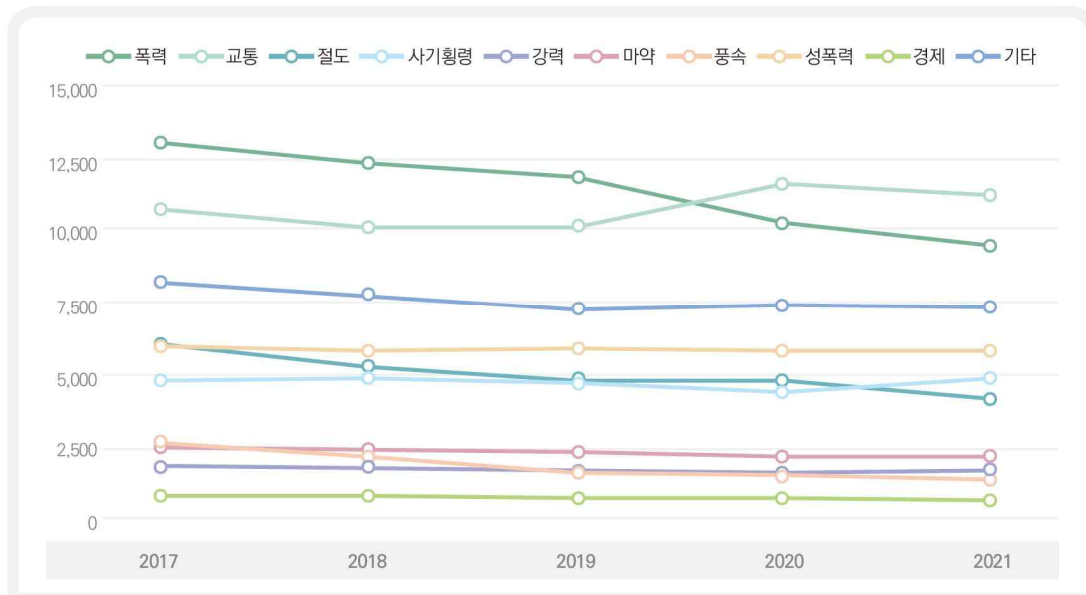


그림 2-1-33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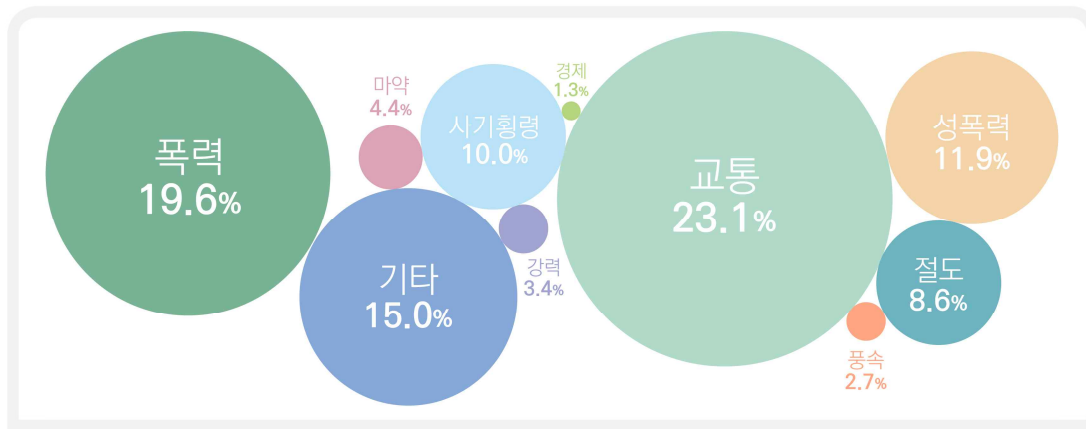


그림 2-1-34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점유율(2021)

(2) 소년 보호관찰

-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을 사범별로 구분한 결과, 기타사범이 2,572건 (23.9%), 폭력사범이 2,435건(22.6%), 절도사범이 2,214건(20.5%)으로 폭력·절도·기타사범이 전체의 67.0%를 차지하였다.
- 그 외에 교통사범이 1,242건(11.5%), 성폭력 957건(8.9%), 사기·횡령사범 903건(8.4%), 풍속사범 219건(2.0%)이었고, 강력사범(186건, 1.7%), 경제사범(34건, 0.3%), 마약사범(22건, 0.2%) 등은 각각 200건 미만이었다.

표 2-1-29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구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 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14,412	3,705	1,582	3,504	919	175	78	159	1,137	50	3,103
	100%	25.7%	11.0%	24.3%	6.4%	1.2%	0.5%	1.1%	7.9%	0.4%	21.5%
2018	13,625	3,816	1,446	3,058	920	145	62	169	1,077	55	2,877
	100%	28.0%	10.6%	22.4%	6.8%	1.1%	0.5%	1.2%	7.9%	0.4%	21.1%
2019	12,387	3,346	1,279	2,683	949	138	45	172	1,058	79	2,638
	100%	27.0%	10.3%	21.7%	7.7%	1.1%	0.4%	1.4%	8.5%	0.6%	21.3%
2020	11,973	2,846	1,356	2,660	969	202	34	156	999	54	2,697
	100%	23.8%	11.3%	22.2%	8.1%	1.7%	0.3%	1.3%	8.3%	0.5%	22.5%
2021	10,784	2,435	1,242	2,214	903	186	22	219	957	34	2,572
	100%	22.6%	11.5%	20.5%	8.4%	1.7%	0.2%	2.0%	8.9%	0.3%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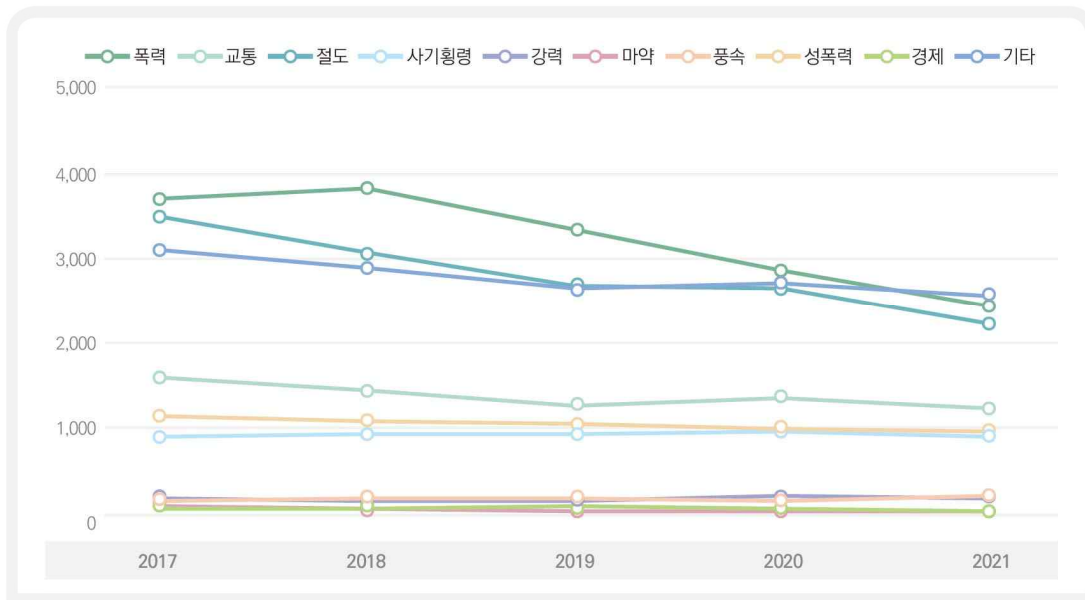


그림 2-1-35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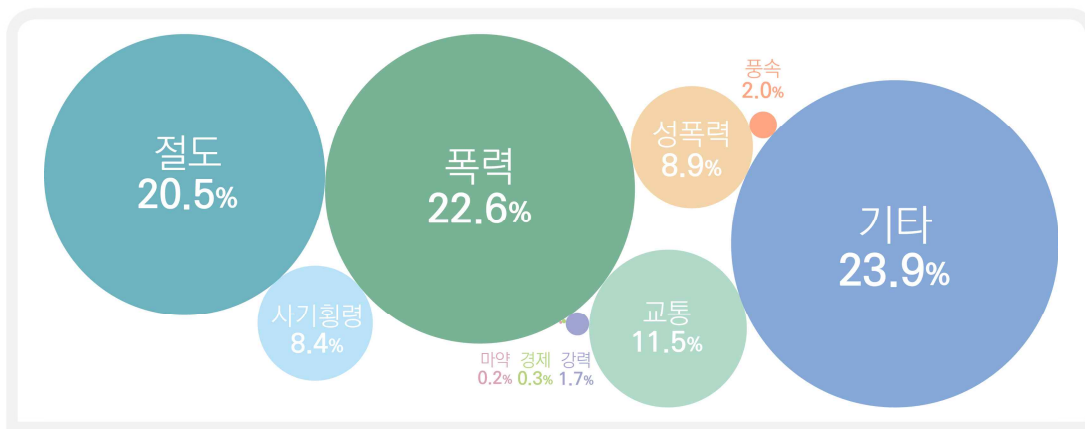


그림 2-1-36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점유율(2021)

(3) 성인 보호관찰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성인 보호관찰사건 현재원의 경우, 교통사범이 9,834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폭력사범 6,937건(18.6%), 성폭력사범 4,752건(12.8%), 기타사범 4,636건(12.5%), 사기횡령사범 3,910건(10.5%), 마약사범 2,070건(5.6%) 등의 순이었다. 그외 강력사범 1,442건(3.9%), 풍속사범 1,063건(2.9%), 경제사범 590건(1.6%)이었다.

표 2-1-30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구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 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41,372	9,196	9,050	2,442	3,833	1,603	2,375	2,457	4,727	718	4,971
	100%	22.2%	21.9%	5.9%	9.3%	3.9%	5.8%	5.9%	11.4%	1.7%	12.0%
2018	38,955	8,425	8,590	2,149	3,847	1,607	2,248	1,945	4,696	707	4,741
	100%	21.6%	22.0%	5.5%	9.9%	4.1%	5.8%	5.0%	12.1%	1.8%	12.2%
2019	37,882	8,366	8,717	2,065	3,684	1,471	2,195	1,421	4,794	633	4,536
	100%	22.1%	23.0%	5.4%	9.7%	3.9%	5.8%	3.7%	12.7%	1.7%	12.0%
2020	37,587	7,310	10,119	2,075	3,347	1,378	2,036	1,285	4,743	634	4,660
	100%	19.5%	26.9%	5.5%	8.9%	3.7%	5.4%	3.4%	12.6%	1.7%	12.4%
2021	37,137	6,937	9,834	1,903	3,910	1,442	2,070	1,063	4,752	590	4,636
	100%	18.6%	26.5%	5.1%	10.5%	3.9%	5.6%	2.9%	12.8%	1.6%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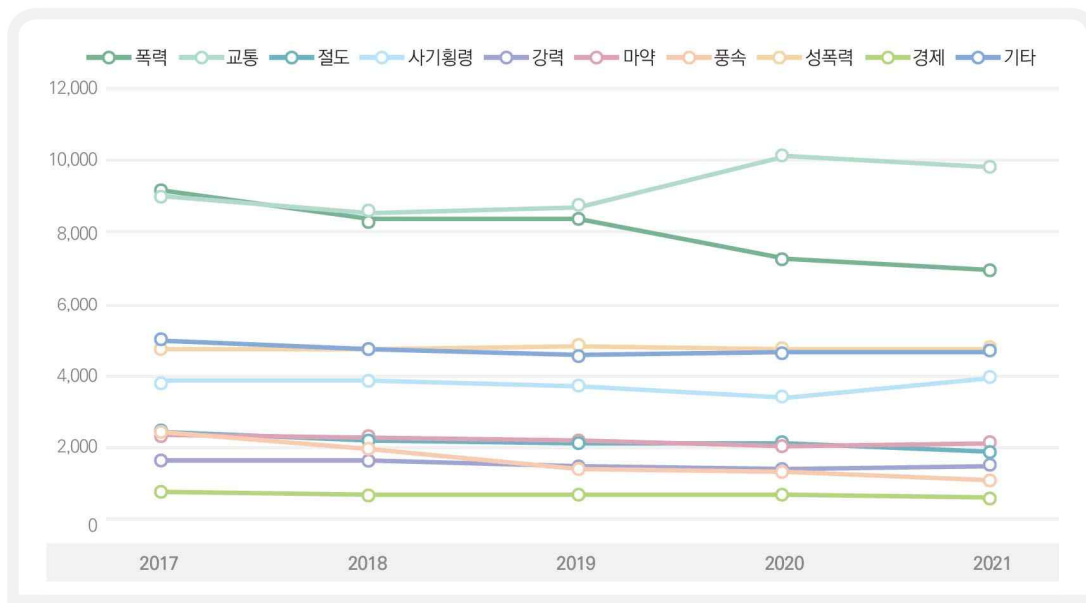


그림 2-1-37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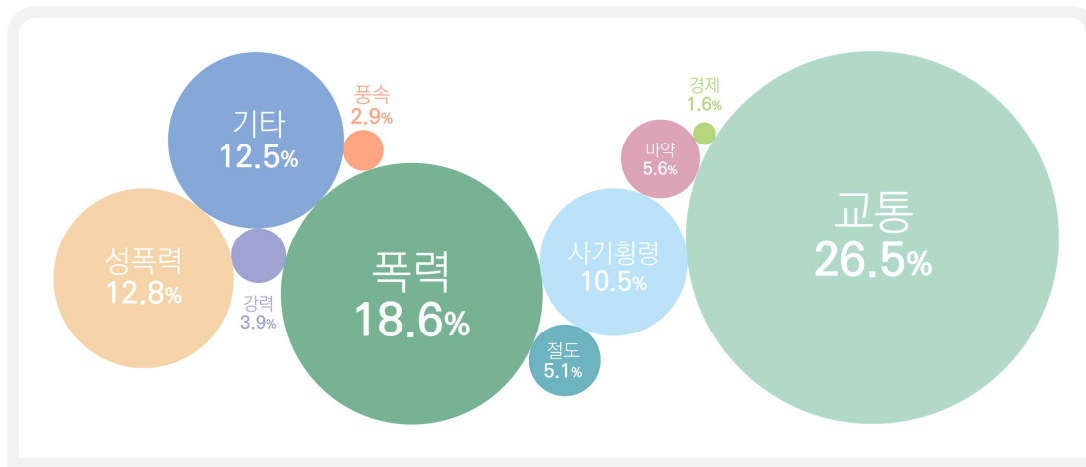


그림 2-1-38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점유율(2021)

- 현재원의 사범별 비율이 연령별로 상이하, 소년 보호관찰의 경우 성인보다 폭력·절도·기타 사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성인 보호관찰에서는 교통·마약·성폭력·강력사범의 비율이 높았다.

3) 분류등급별 현황

(1) 전체 보호관찰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 등급이 19,525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주요 등급 14,673건(30.6%), 집중 등급 7,579건(15.8%) 등의 순이었다.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등급이 전체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일반이 30% 미만, 집중이 10% 내외였다가 2020년 이후 주요 등급이 3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일반 등급이 40% 수준, 집중 등급이 약 16% 등으로 증가하였다.

표 2-1-31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현황((2017~2021))

구분	계	집중	주요	일반	수용자	기타
2017	55,784	5,426	27,460	14,977	2,200	5,721
	100%	9.7%	49.2%	26.9%	3.9%	10.3%
2018	52,580	6,184	25,433	14,602	2,010	4,351
	100%	11.7%	48.4%	27.8%	3.8%	8.3%
2019	50,269	5,837	25,908	12,503	2,000	4,021
	100%	11.6%	51.5%	24.9%	4.0%	8.0%

구분	계	집중	주요	일반	수용자	기타
2020	49,560	7,942	15,635	21,017	1,857	3,109
	100%	16.0%	31.6%	42.4%	3.7%	6.3%
2021	47,921	7,579	14,673	19,525	1,835	4,309
	100%	15.8%	30.6%	40.8%	3.8%	9.0%



그림 2-1-39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점유율(2017~2021)

(2) 소년 보호관찰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등급이 3,220건(29.9%), 일반 등급이 3,064건(28.4%), 집중 등급이 3,057건(28.3%)으로, 주요 등급이 가장 많았지만, 주요·일반·집중 등급 간의 사건 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외에 기타 1,096건(10.2%), 수용자 347건(3.2%) 등이었다.

표 2-1-32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현황((2017~2021))

구분	계	집중	주요	일반	수용자	기타
2017	14,412	1,942	8,529	1,649	529	1,763
	100%	13.5%	59.2%	11.4%	3.7%	12.2%
2018	13,625	1,959	8,183	1,795	497	1,191
	100%	14.4%	60.1%	13.2%	3.6%	8.7%
2019	12,387	1,800	7,680	1,415	469	1,023
	100%	14.5%	62.0%	11.4%	3.8%	8.3%
2020	11,973	3,229	3,807	3,443	398	1,096
	100%	27.0%	31.8%	28.8%	3.3%	9.1%
2021	10,784	3,057	3,220	3,064	347	1,096
	100%	28.3%	29.9%	28.4%	3.2%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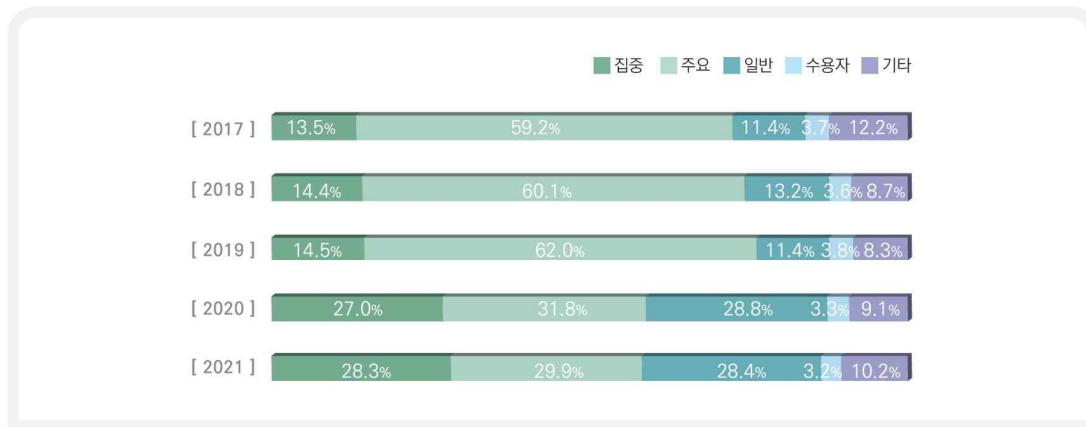


그림 2-1-40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점유율(2017~2021)

(3) 성인 보호관찰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 등급이 16,461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주요 등급이 11,453건(30.8%), 집중 등급이 4,522건(12.2%)이었다. 그 외, 기타 등급이 3,213건(8.7%), 수용자 1,488건(4.0%) 이었다.

표 2-1-33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현황((2017~2021)

구분	계	집중	주요	일반	수용자	기타
2017	41,372	3,484	18,931	13,328	1,671	3,958
	100%	8.4%	45.8%	32.2%	4.0%	9.6%
2018	38,955	4,225	17,250	12,807	1,513	3,160
	100%	10.8%	44.3%	32.9%	3.9%	8.1%
2019	37,882	4,037	18,228	11,088	1,531	2,998
	100%	10.7%	48.1%	29.3%	4.0%	7.9%
2020	37,587	4,713	11,828	17,574	1,459	2,013
	100%	12.5%	31.5%	46.8%	3.9%	5.3%
2021	37,137	4,522	11,453	16,461	1,488	3,213
	100%	12.2%	30.8%	44.3%	4.0%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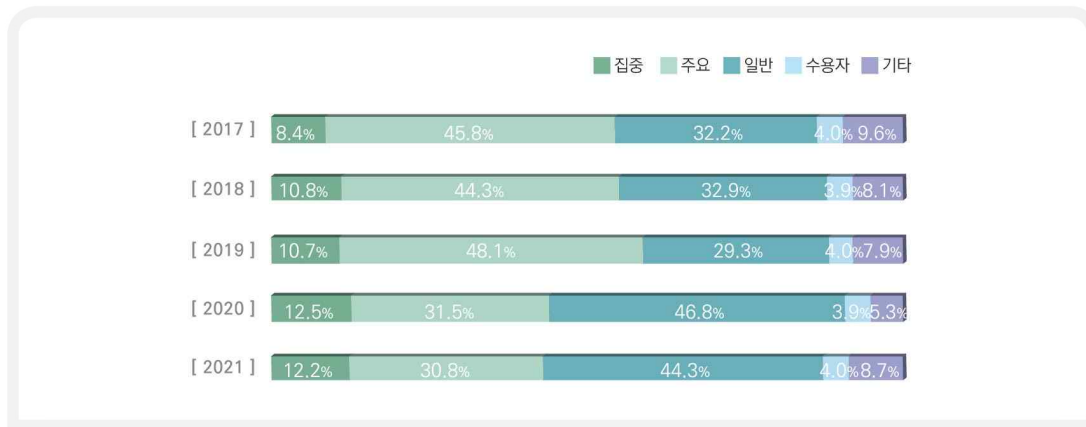


그림 2-1-41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점유율(2017~2021)

4) 사범별 분류등급 현황

(1) 전체 보호관찰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을 사범별로 분석한 결과, 폭력·마약·기타사범은 주요 등급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일반, 집중 등급의 순서였으며, 교통·사기·횡령·풍속·경제사범 등은 일반 등급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주요, 집중 등급 등의 순서였다. 강력과 성폭력사범의 경우 집중 등급이 각각 40.4%와 35.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반과 주요 등급의 순서였다.

표 2-1-34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분류등급 현황(2021)

사범 \ 등급	계	집중	주요	일반	수용자	기타
계	47,921	7,579	14,673	19,525	1,835	4,309
	100%	15.8%	30.6%	40.8%	3.8%	9.0%
폭력	9,372	1,316	3,922	3,098	298	738
	100%	14.0%	41.8%	33.1%	3.2%	7.9%
교통	11,076	770	2,846	6,865	164	431
	100%	6.9%	25.7%	62.0%	1.5%	3.9%
절도	4,117	899	1,333	1,360	213	312
	100%	21.8%	32.4%	33.0%	5.2%	7.6%
사기·횡령	4,813	408	1,160	2,252	189	804
	100%	8.5%	24.1%	46.8%	3.9%	16.7%
강력	1,628	658	326	430	47	167
	100%	40.4%	20.0%	26.4%	2.9%	10.3%
마약	2,092	222	839	716	130	185
	100%	10.6%	40.1%	34.2%	6.2%	8.9%

사범 \ 등급	계	집중	주요	일반	수용자	기타
풍속	1,282	57	327	791	14	93
	100%	4.4%	25.5%	61.7%	1.1%	7.3%
성폭력	5,709	2,003	1,140	1,311	551	704
	100%	35.1%	20.0%	23.0%	9.6%	12.3%
경제	624	39	127	355	17	86
	100%	6.3%	20.3%	56.9%	2.7%	13.8%
기타	7,208	1,207	2,653	2,347	212	789
	100%	16.8%	36.8%	32.6%	2.9%	10.9%

(2) 소년 보호관찰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을 사범별로 분석한 결과, 교통사범, 절도사범, 경제사범은 집중과 주요 등급의 비율이 각각 60% 이상이었고, 폭력사범, 사기횡령사범, 강력사범, 마약사범, 풍속사범, 성폭력사범 등은 주요와 일반 등급의 비율이 60% 이상이었다. 반면 풍속사범은 일반 등급이 50% 이상이었고, 사기횡령사범은 각 분류 등급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1-35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분류등급 현황(2021)

사범 \ 등급	계	집중	주요	일반	수용자	기타
계	10,784	3,057	3,220	3,064	347	1,096
	100%	28.3%	29.9%	28.4%	3.2%	10.2%
폭력	2,435	664	767	736	71	197
	100%	27.3%	31.5%	30.2%	2.9%	8.1%
교통	1,242	419	411	296	19	97
	100%	33.8%	33.1%	23.8%	1.5%	7.8%
절도	2,214	679	685	571	86	193
	100%	30.7%	30.9%	25.8%	3.9%	8.7%
사기횡령	903	243	278	264	49	69
	100%	26.9%	30.8%	29.2%	5.4%	7.7%
강력	186	49	45	74	7	11
	100%	26.3%	24.2%	39.8%	3.8%	5.9%
마약	22	3	8	7	0	4
	100%	13.6%	36.4%	31.8%	0.0%	18.2%
풍속	219	26	67	112	2	12
	100%	11.9%	30.6%	51.1%	0.9%	5.5%
성폭력	957	108	311	471	13	54
	100%	11.3%	32.5%	49.2%	1.4%	5.6%

사범 \ 등급	계	집중	주요	일반	수용자	기타
경제	34	12	9	9	0	4
	100%	35.3%	26.5%	26.5%	0.0%	11.7%
기타	2,572	854	639	524	100	455
	100%	33.2%	24.8%	20.4%	3.9%	17.7%

(3) 성인 보호관찰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을 사범별로 분석한 결과, 폭력·마약·기타사범은 주요 등급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일반, 집중 등급의 순서였으며, 교통·사기횡령·풍속·경제사범 등은 일반 등급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주요, 집중 등급 등의 순서였다. 강력과 성폭력사범의 경우 집중 등급이 각각 42.2%와 39.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반과 주요 등급의 순서였다.

표 2-1-36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분류등급 현황(2021)

사범 \ 등급	계	집중	주요	일반	수용자	기타
계	37,137	4,522	11,453	16,461	1,488	3,213
	100%	12.2%	30.8%	44.3%	4.0%	8.7%
폭력	6,937	652	3,155	2,362	227	541
	100%	9.4%	45.5%	34.0%	3.3%	7.8%
교통	9,834	351	2,435	6,569	145	334
	100%	3.6%	24.7%	66.8%	1.5%	3.4%
절도	1,903	220	648	789	127	119
	100%	11.6%	34.0%	41.5%	6.7%	6.2%
사기횡령	3,910	165	882	1,988	140	735
	100%	4.2%	22.6%	50.8%	3.6%	18.8%
강력	1,442	609	281	356	40	156
	100%	42.2%	19.5%	24.7%	2.8%	10.8%
마약	2,070	219	831	709	130	181
	100%	10.6%	40.1%	34.3%	6.3%	8.7%
풍속	1,063	31	260	679	12	81
	100%	2.9%	24.5%	63.9%	1.1%	7.6%
성폭력	4,752	1,895	829	840	538	650
	100%	39.9%	17.4%	17.7%	11.3%	13.7%
경제	590	27	118	346	17	82
	100%	4.6%	20.0%	58.6%	2.9%	13.9%
기타	4,636	353	2,014	1,823	112	334
	100%	7.6%	43.5%	39.3%	2.4%	7.2%

4 보호관찰 지도감독

1) 지도감독 유형

(1) 개요

- 2021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건수는 총 1,118,879건이며, 이를 대면과 비대면 지도감독으로 구분하면, 대면 지도감독이 599,868건(53.6%), 비대면 지도감독이 519,011건(46.4%)이었다. 대면 지도감독을 다시 보호관찰소 출석 지도감독과 대상자 주거지 등에 대한 출장 지도감독으로 세분하면, 출석 지도감독이 339,098건(30.3%), 출장 지도감독이 260,770건(23.3%)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지도감독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1,103,233건)부터 2019년(1,150,764건)까지 지도감독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2.1% 감소하였다. 2021년에도 전년에 비해 0.7% 감소하였으나, 2017년과 비교하면 1.4% 증가한 수준이다.
- 지도감독의 세부 유형으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면 지도감독이 약 66%, 비대면 지도감독이 약 34%였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지도감독이 감소하고 비대면 지도감독이 증가하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대면 지도감독이 약 53%, 비대면 지도감독이 약 47%를 나타냈다.

➡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상자와의 직접 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대면 지도감독의 실시횟수가 2019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지만, 비대면 지도감독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지도감독 실시횟수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2-1-37 보호관찰의 지도감독 유형(2017~2021)

연도	지도유형	계	대면지도			비대면지도
			소계	출석	출장	
2017		1,103,233	736,214	499,853	236,361	367,019
		100%	66.7%	45.3%	21.4%	33.3%
2018		1,145,575	756,222	520,960	235,262	389,353
		100%	66.0%	45.5%	20.5%	34.0%
2019		1,150,764	762,774	499,726	263,048	387,990
		100%	66.3%	43.4%	22.9%	33.7%
2020		1,126,931	579,188	336,757	242,431	547,743
		100%	51.4%	29.9%	21.5%	48.6%
2021		1,118,879	599,868	339,098	260,770	519,011
		100%	53.6%	30.3%	23.3%	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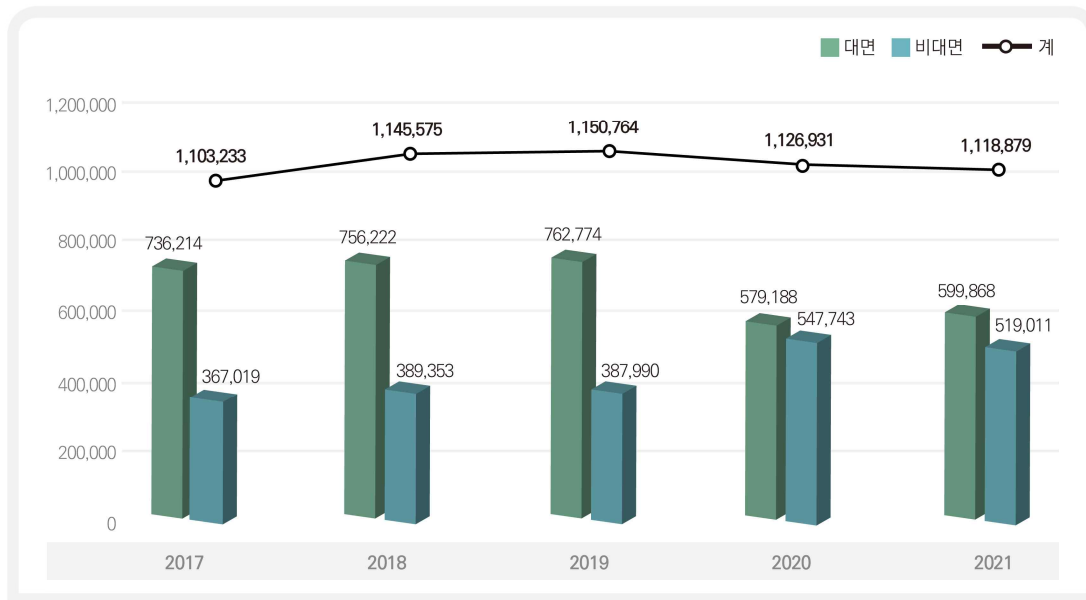


그림 2-1-42 보호관찰의 지도감독 유형(2017~2021)

(2) 연령별 지도감독 실시 현황

- 2021년 보호관찰 지도감독 실시 유형을 연령에 따라 구분한 결과, 소년사건에서의 지도감독 횟수는 총 366,690건이며, 그중 출석 지도감독이 114,958건(31.3%), 출장 지도감독이 60,429건(16.5%), 비대면 지도감독이 191,303건(52.2%)이었다. 성인사건에서의 지도감독 횟수는 총 752,189건이며, 그중 출석 지도감독이 224,140건(29.8%), 출장 지도감독이 200,341건(26.6%), 비대면 지도감독이 327,708건(43.6%)이었다.

표 2-1-38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연령별 유형(2017~2021)

연령 연도	소년				성인			
	계	대면		비대면	계	대면		비대면
		출석	출장			출석	출장	
2017	372,351	176,880	76,262	119,209	730,882	322,973	160,099	247,810
	100%	47.5%	20.5%	32.0%	100%	44.2%	21.9%	33.9%
2018	384,170	188,417	67,785	127,968	761,405	332,543	167,477	261,385
	100%	49.0%	17.6%	33.3%	100%	43.7%	22.0%	34.3%
2019	379,346	176,762	66,823	135,761	771,418	322,964	196,225	252,229
	100%	46.6%	17.6%	35.8%	100%	41.9%	25.4%	32.7%
2020	384,216	122,751	61,388	200,077	742,715	214,006	181,043	347,666
	100%	31.9%	16.0%	52.1%	100%	28.8%	24.4%	46.8%
2021	366,690	114,958	60,429	191,303	752,189	224,140	200,341	327,708
	100%	31.3%	16.5%	52.2%	100%	29.8%	26.6%	43.6%

(3) 분류등급별 유형

①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지도감독 유형을 살펴보면, 집중과 주요 등급은 대면 지도감독의 비율이 각각 60.1%와 57.7%로 비대면 지도감독보다 많았고, 대면 지도감독의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즉, 집중 등급의 경우 출장 지도감독(34.6%)이 출석 지도감독(25.5%)보다 많았고, 주요 등급의 경우 출석 지도감독(41.1%)이 출장 지도감독(16.6%)보다 많았다. 일반 등급에서는 비대면 지도감독이 59.2%로 비대면 지도감독보다 많았고, 대면 지도감독 중 출석 지도감독(30.0%)이 출장 지도감독(10.8%)보다 3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9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지도감독 유형(2021)

지도유형 분류등급	계	대면지도			비대면지도
		소계	출석	출장	
집중	341,335	205,201	87,202	117,999	136,134
	100%	60.1%	25.5%	34.6%	39.9%
주요	338,872	195,369	139,230	56,139	143,503
	100%	57.7%	41.1%	16.6%	42.3%
일반	317,012	129,268	95,203	34,065	187,744
	100%	40.8%	30.0%	10.8%	59.2%
수용자	3,004	1,118	363	755	1,886
	100%	37.2%	12.1%	25.1%	62.8%
기타	118,656	68,912	17,100	51,812	49,744
	100%	58.1%	14.4%	43.7%	41.9%

②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지도감독 유형을 분석한 결과, 주요·집중·일반 등급 모두 비대면 지도감독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동일하였고, 집중 등급은 주요와 일반 등급에 비해 출장 지도감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1-40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지도감독 유형(2021)

지도유형 분류등급	계	대면지도			비대면지도
		소계	출석	출장	
집중	169,549	81,791	50,655	31,136	87,758
	100%	48.2%	29.9%	18.3%	51.8%
주요	117,397	56,846	41,870	14,976	60,551
	100%	48.4%	35.7%	12.7%	51.6%

지도유형 분류등급	계	대면지도			비대면지도
		소계	출석	출장	
일반	56,609	25,427	18,519	6,908	31,182
	100%	44.9%	32.7%	12.2%	55.1%
수용자	971	171	72	99	800
	100%	17.6%	7.4%	10.2%	82.4%
기타	22,164	11,152	3,842	7,310	11,012
	100%	50.3%	17.3%	33.0%	49.7%

③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지도감독 유형을 분류등급에 따라 분석한 결과, 대면 지도감독 비율은 집중 71.8%, 주요 62.5%, 일반 39.9%로, 고위험으로 분류될수록 대면 지도감독의 비율이 높았다.
- 또한 집중 등급의 경우, 대면 지도감독 중 출장(50.5%)이 출석(21.3%)보다 더 많았고, 주요 등급의 경우 출석(43.9%)이 출장(18.6%)보다 더 많아, 분류등급별로 대면 지도감독의 세부 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표 2-1-41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지도감독 유형(2021)

지도유형 분류등급	계	대면지도			비대면지도
		소계	출석	출장	
집중	171,786	123,410	36,547	86,863	48,376
	100%	71.8%	21.3%	50.5%	28.2%
주요	221,475	138,523	97,360	41,163	82,952
	100%	62.5%	43.9%	18.6%	37.5%
일반	260,403	103,841	76,684	27,157	156,562
	100%	39.9%	29.5%	10.4%	60.1%
수용자	2,033	947	291	656	1,086
	100%	46.6%	14.3%	32.3%	53.4%
기타	96,492	57,760	13,258	44,502	38,732
	100%	59.9%	13.8%	46.1%	40.1%

2) 지도감독 대상

(1) 출장 지도감독 대상 현황

- 2021년 보호관찰 출장 지도감독의 지도 대상을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 대상자 본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198,680건(76.2%)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관계인이 48,325건(18.5%), 가족이 13,765건(5.3%)이었다.

- 소년사건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 본인이 65.6%, 가족이 11.4%, 기타 관계인이 23.0%이었고, 성인사건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본인이 79.4%, 가족이 3.4%, 기타 관계인이 17.2%로, 소년사건에서 출장지도 시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과 접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1-42 보호관찰 출장 지도감독의 지도대상 현황(2017~2021)

대상 연도	전체				소년				성인			
	계	본인	가족	기타	계	본인	가족	기타	계	본인	가족	기타
2017	236,361	161,348	16,783	58,230	76,262	43,584	9,867	22,811	160,099	117,764	6,916	35,419
	100%	68.3%	7.1%	24.6%	100%	57.2%	12.9%	29.9%	100%	73.6%	4.3%	22.1%
2018	235,262	165,346	15,079	54,837	67,785	39,246	8,739	19,800	167,477	126,100	6,340	35,037
	100%	70.3%	6.4%	23.3%	100%	57.9%	12.9%	29.2%	100%	75.3%	3.8%	20.9%
2019	263,169	188,515	16,305	58,349	66,941	40,517	8,418	18,006	196,228	147,998	7,887	40,343
	100%	71.6%	6.2%	22.2%	100%	60.5%	12.6%	26.9%	100%	75.4%	4.0%	20.6%
2020	242,431	178,530	14,077	49,824	61,388	39,912	7,074	14,402	181,043	138,618	7,003	35,422
	100%	73.6%	5.8%	20.6%	100%	65.0%	11.5%	23.5%	100%	76.6%	3.8%	19.6%
2021	260,770	198,680	13,765	48,325	60,429	39,623	6,875	13,931	200,341	159,057	6,890	34,394
	100%	76.2%	5.3%	18.5%	100%	65.6%	11.4%	23.0%	100%	79.4%	3.4%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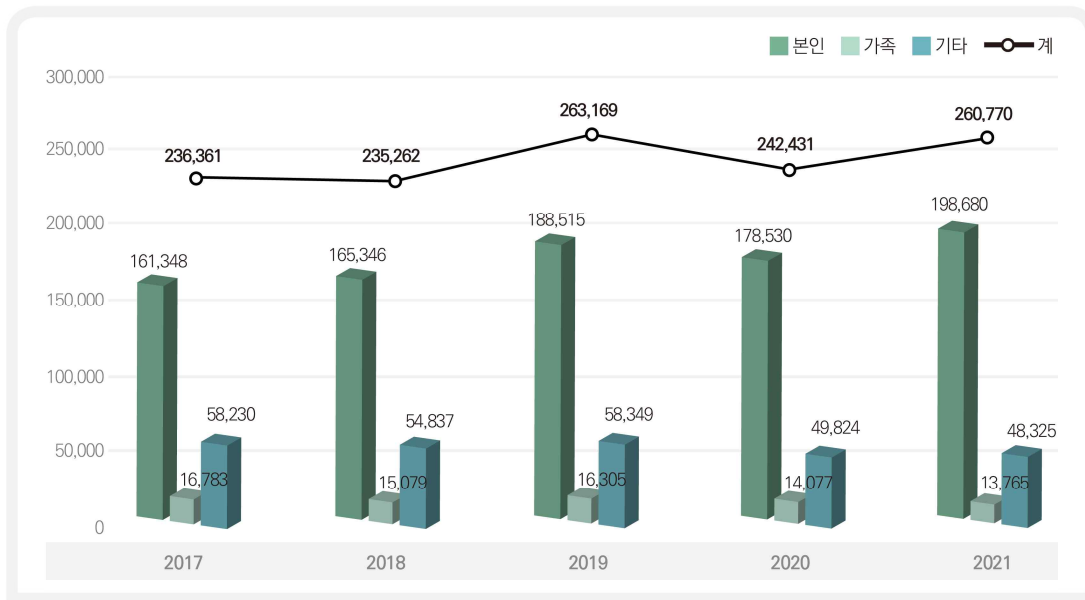


그림 2-1-43 보호관찰 출장 지도감독의 지도대상 현황(2017~2021)

(2) 비대면 지도감독 대상 현황

- 2021년 비대면 지도감독의 지도 대상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523,011건 중 지도감독 대상이 보호관찰 대상자 본인인 경우가 385,984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 51,294건(9.8%), 기타 관계인이 85,733건(16.4%)이었다.
- 소년사건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 본인이 63.9%, 가족이 21.0%, 기타 관계인이 15.1%이었고, 성인사건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 본인 79.7%, 가족 3.1%, 기타 관계인 17.2%로, 비대면 지도감독에서도 소년사건에서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과 접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1-43 비대면 지도감독의 지도 대상 현황(2017~2021)

대상 연도	전체				소년				성인			
	계	본인	가족	기타	계	본인	가족	기타	계	본인	가족	기타
2017	367,019	283,662	34,860	48,497	119,209	76,892	26,481	15,836	247,810	206,770	8,379	32,661
	100%	77.3%	9.5%	13.2%	100%	64.5%	22.2%	13.3%	100%	83.4%	3.4%	13.2%
2018	389,353	289,634	39,507	60,212	127,968	77,602	30,228	20,138	261,385	212,032	9,279	40,074
	100%	74.4%	10.1%	15.5%	100%	60.6%	23.6%	15.7%	100%	81.1%	3.5%	15.3%
2019	387,990	277,646	39,962	70,382	135,761	81,521	31,133	23,107	252,229	196,125	8,829	47,275
	100%	71.6%	10.3%	18.1%	100%	60.0%	22.9%	17.0%	100%	77.8%	3.5%	18.7%
2020	547,743	418,871	49,259	79,613	200,077	133,867	39,051	27,159	347,666	285,004	10,208	52,454
	100%	76.5%	9.0%	14.5%	100%	66.9%	19.5%	13.6%	100%	82.0%	2.9%	15.1%
2021	523,011	385,984	51,294	85,733	195,303	124,794	41,031	29,478	327,708	261,190	10,263	56,255
	100%	73.8%	9.8%	16.4%	100%	63.9%	21.0%	15.1%	100%	79.7%	3.1%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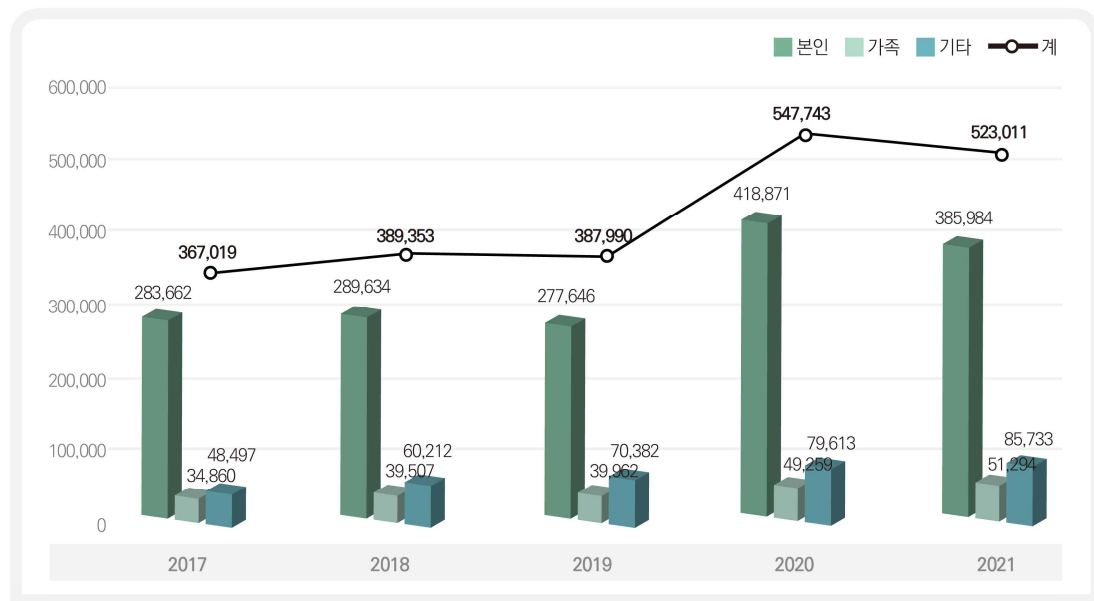


그림 2-1-44 비대면 지도감독의 지도 대상 현황 :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2017~2021)

3)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현황

- 2021년 보호관찰 실시사건 중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이 신청된 경우는 총 1,280건으로, 소년이 779건(60.9%), 성인이 501건(39.1%)이었다.

➔ 2021년의 성인 보호관찰 실시사건(69,824건) 대비 추가·변경 신청률은 0.7%인 반면,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23,830건) 대비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률은 3.3%로, 소년사건에서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률이 높았다.

-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신청사건의 89.5%인 1,167건이 인용되었고, 7.4%인 97건이 기각되었다.
- 연령에 따른 인용률과 기각률을 살펴보면, 소년의 경우 신청사건의 96.6%가 인용되었고, 기각률은 2.4%에 불과하였다. 반면, 성인에서는 신청사건의 78.6%가 인용되었고 기각률은 15.0%이었다.

표 2-1-44 전체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및 인용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신청		인용				기각	심리중
	전년	이월	당해	신청	계	추가	변경	추가변경	삭제	
2017	25		2,467		2,266	2,151	62	53	—	28
			100%		90.9%	86.3%	2.5%	2.1%	—	1.1%
2018	22		1,980		1,768	1,661	68	39	—	49
			100%		88.4%	83.0%	3.4%	2.0%	—	2.4%
2019	24		1,400		1,276	1,101	129	16	30	41
			100%		89.6%	77.3%	9.1%	1.1%	2.1%	2.9%
2020	20		1,032		967	847	81	—	39	31
			100%		91.9%	80.5%	7.7%	—	3.7%	3.0%
2021	25		1,280		1,167	980	107	19	61	41
			100%		89.5%	75.1%	8.2%	1.5%	4.7%	3.1%

표 2-1-45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및 인용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신청		인용				기각	심리중
	전년	이월	당해	신청	계	추가	변경	추가변경	삭제	
2017	3		1,217		1,180	1,121	31	28	—	3
			100%		96.7%	91.9%	2.5%	2.3%	—	0.3%
2018	5		1,036		988	952	16	20	—	30
			100%		94.9%	91.5%	1.5%	1.9%	—	2.9%
2019	6		776		747	706	22	10	9	11
			100%		95.5%	90.3%	2.8%	1.3%	1.1%	1.4%

연도	구분	신청		인용				기각	심리중
		전년 이월	당해 신청	계	추가	변경	추가변경	삭제	
2020		4	674	649	607	29	—	13	12
		100%		95.7%	89.5%	4.3%	—	1.9%	1.8%
2021		7	779	759	713	30	0	16	8
		100%		96.6%	90.8%	3.8%	0.0%	2.0%	1.0%

표 2-1-46 성인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및 인용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신청		인용				기각	심리중
		전년 이월	당해 신청	계	추가	변경	추가변경	삭제	
2017		22	1,250	1,086	1,030	31	25	—	25
		100%		85.4%	81.0%	2.4%	2.0%	—	2.0%
2018		17	944	780	709	52	19	—	19
		100%		81.2%	73.8%	5.4%	2.0%	—	2.0%
2019		18	624	529	395	107	6	21	30
		100%		82.4%	61.5%	16.7%	0.9%	3.3%	4.7%
2020		16	358	318	240	52	—	26	19
		100%		85.0%	64.2%	13.9%	—	6.9%	5.1%
2021		18	501	408	267	77	19	45	33
		100%		78.6%	51.4%	14.8%	3.7%	8.7%	6.4%

5 원호

1) 전체 보호관찰

- 2021년 보호관찰 실시사건에 대해 총 55,535건의 원호가 실시되었다. 이중 경제구호가 50,182건으로 90.4%를 차지하였고, 그밖에 치료지원이 1,497건(2.7%), 기타 원호지원이 1,444건(2.6%), 검정고시지원이 1,233건(2.2%), 직업훈련이 737건(1.3%)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원호 현황을 살펴보면, 총 실시건수가 2017년 30,697건, 2019년 37,682건, 2020년 42,535 등이었고 2021년에는 55,500건을 넘겨 전년에 비해 30.6%, 2017년에 비해 80% 이상 증가하였다.
- 특히 경제구호의 실시건수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여 2017년 74.2%에서 2021년에는 90%를 넘겼다. 반면 숙소알선·취업알선·직업훈련·검정고시 지원 등은 2018년과 2019년에 증가하였다가 2020년 이후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하였고, 복학 주선, 문신 제거, 기타 지원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총 원호 실시건수는 증가하였다. 이는 비대면으로 실시가능한 경제구호가 22% 이상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그 외의 분야는 전년에 비해 실시건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도 경제구호가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 그 밖에도 취업알선, 직업훈련, 치료지원 건수 등도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였다.

표 2-1-47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 현황(2017~2021)

유형 연도	계	경제구호	숙소알선	취업알선	직업훈련	복학주선	검정고시지원	문신제거	치료지원	기타*
2017	30,697	22,776	193	124	558	1,089	1,042	562	1,389	2,964
	100%	74.2%	0.6%	0.4%	1.8%	3.5%	3.4%	1.8%	4.5%	9.7%
2018	31,360	24,188	315	184	1,054	340	2,152	355	940	1,832
	100%	77.1%	1.0%	0.6%	3.4%	1.1%	6.9%	1.1%	3.0%	5.8%
2019	37,682	30,121	305	168	1,356	281	2,084	189	1,622	1,556
	100%	79.9%	0.8%	0.4%	3.6%	0.7%	5.5%	0.5%	4.3%	4.1%
2020	42,535	36,779	188	110	627	111	1,598	54	1,393	1,675
	100%	86.5%	0.4%	0.3%	1.5%	0.3%	3.7%	0.1%	3.3%	3.9%
2021	55,535	50,182	154	165	737	50	1,233	73	1,497	1,444
	100%	90.4%	0.3%	0.3%	1.3%	0.1%	2.2%	0.1%	2.7%	2.6%

* 기타 : 기초생활수급권 지정, 주거환경개선, 응급구호, 기타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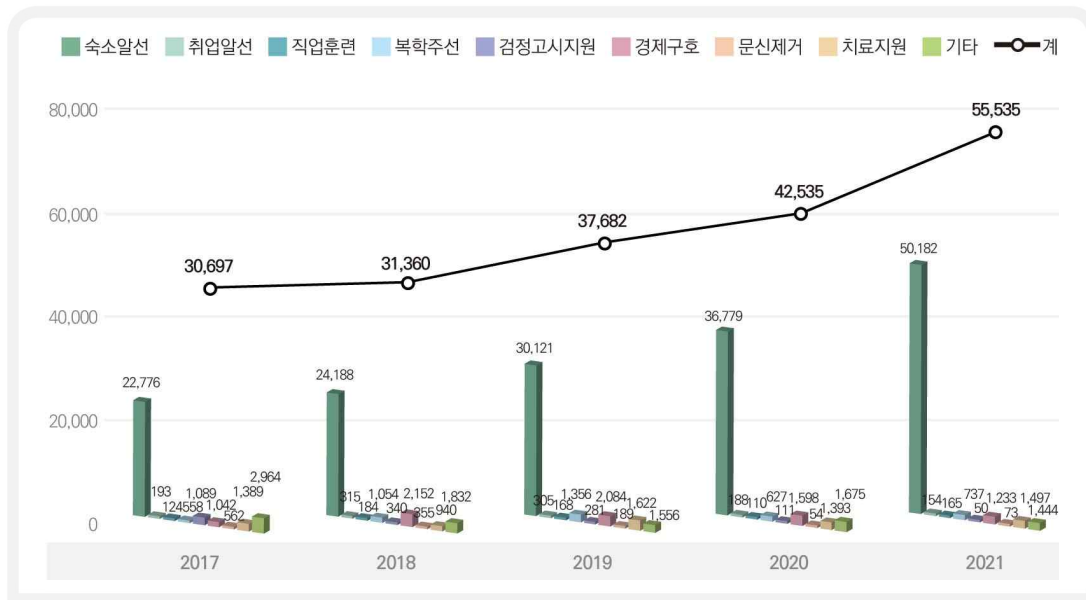


그림 2-1-45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 현황(2017~2021)

2) 소년 보호관찰

- 2021년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에 대한 원호로는 경제구호가 12,436건(8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검정고시지원 1,225건(8.3%), 기타 원호지원 345건(2.3%)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소년에 대한 원호 실시건수는 2020년까지 매년 1,000건 이상씩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3.5% 증가하였다. 원호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제구호는 2020년까지 실시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보다 42.5% 증가하였다.
- 복학주선은 2017년 1,083건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2017년 대비 95.4% 감소하였고, 문신제거도 2021년에 2017년 대비 87.3% 감소하였다. 검정고시 지원은 2018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후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고, 직업훈련은 2019년에 전년 대비 2배 가량하여 610건을 기록한 후 2020년부터 250건 내외를 보였다.

➡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에 대한 원호 중 복학 주선의 지속적인 감소와 검정고시 지원의 감소는 소년사건 중 학생의 비율이 증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48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 현황(2017~2021)

연도 \ 유형	계	경제구호	숙소알선	취업알선	직업훈련	복학주선	검정고시 지원	문신제거	치료지원	기타
2017	16,724	11,245	51	31	216	1,083	1,036	550	894	1,618
	100%	67.2%	0.3%	0.2%	1.3%	6.5%	6.2%	3.3%	5.3%	9.7%
2018	15,115	10,733	141	43	361	339	2,134	349	582	433
	100%	71.0%	0.9%	0.3%	2.4%	2.2%	14.1%	2.3%	3.9%	2.9%
2019	13,701	9,584	142	91	610	281	2,076	189	543	185
	100%	70.0%	1.0%	0.7%	4.5%	2.1%	15.2%	1.4%	4.0%	1.4%
2020	11,941	8,727	63	33	223	111	1,592	52	226	914
	100%	73.1%	0.5%	0.3%	1.9%	0.9%	13.3%	0.4%	1.9%	7.7%
2021	14,724	12,436	35	19	257	50	1,225	70	287	345
	100%	84.5%	0.2%	0.1%	1.7%	0.3%	8.3%	0.5%	1.9%	2.3%

3) 성인 보호관찰

- 2021년 성인 보호관찰 실시사건에 대한 원호로는 경제구호가 37,746건으로 92.5%를 차지하였고, 그 외 치료지원이 1,210건(3.0%), 기초수급자 지원 등 기타 원호가 1,099건(2.7%), 직업훈련이 480건(1.2%) 등이었다.
- 최근 5년간 전체 원호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2017년(13,973건)에 비해 192.1% 증가한 수준이었다. 원호 유형별로는, 경제구호가 매년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2017년의 82.5%에서 2020년 이후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치료지원은 2018년까지 500건 미만이었으나, 2019년에 1,079건으로 급증한 후 1,2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2-1-49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 현황(2017~2021)

연도 \ 유형	계	경제구호	숙소알선	취업알선	직업훈련	복학주선	검정고시 지원	문신제거	치료지원	기타
2017	13,973	11,531	142	93	342	6	6	12	495	1,346
	100%	82.5%	1.0%	0.7%	2.4%	0.0%	0.0%	0.1%	3.5%	9.6%
2018	16,245	13,455	174	141	693	1	18	6	358	1,399
	100%	82.8%	1.1%	0.9%	4.3%	0.0%	0.1%	0.0%	2.2%	8.6%
2019	23,981	20,537	163	77	746	0	8	0	1,079	1,371
	100%	85.6%	0.7%	0.3%	3.1%	0.0%	0.0%	0.0%	4.5%	5.7%
2020	30,594	28,052	125	77	404	0	6	2	1,167	761
	100%	91.7%	0.4%	0.3%	1.3%	0.0%	0.0%	0.0%	3.8%	2.5%
2021	40,811	37,746	119	146	480	0	8	3	1,210	1,099
	100%	92.5%	0.3%	0.4%	1.2%	0.0%	0.0%	0.0%	3.0%	2.7%

6 보호관찰 성적 양호자 조치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보호관찰 사건 중 성적 양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지표정의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임시해제 또는 가해제 사건 수
- 성적 양호자에 대한 조치는 임시해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임시해제), 가해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가해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가해제) 등으로 구분

1) 개요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상황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낮을 경우 보호관찰 임시해제 또는 보호관찰명령 가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2021년에는 보호관찰 임시해제 497건, 보호관찰명령 가해제 530건 등 총 1,027건의 성적 양호자 조치가 있었다.
- 성적 양호자 조치는 2017년 2,978건에서 2020년 587건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5.0%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보호관찰명령 가해제 급증의 영향이 컸다.
- 보호관찰 실시사건 대비 성적 양호자 조치 비율은 2017년과 2018년에는 2%대였으나, 2019년 1%, 2020년 0.6%, 2021년 1.1%를 기록하였다.

표 2-1-50 보호관찰 성적양호자 조치 현황(2017~2021)

유형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978	2,325	999	587	1,027
보호관찰 임시해제	2,811	2,165	854	454	497
보호관찰명령 가해제	167	160	145	133	530

표 2-1-51 보호관찰 실시사건 대비 성적양호자 조치율(2017~2021)

유형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성적양호자 조치	2,978	2,325	999	587	1,027
보호관찰 실시사건	105,705	104,850	101,089	95,861	93,654
실시사건 대비 조치율	2.8%	2.2%	1.0%	0.6%	1.1%

2) 근거 법률별 보호관찰 임시해제 현황

- 2021년에 임시해제된 보호관찰 실시사건 497건을 근거 법률에 따라 구분하면, 형법이 296건(59.6%)으로 가장 많았고, 소년법이 196건(39.4%), 성폭력처벌법이 5건(1.0%) 이었다.
- 최근 5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형법이 가장 많았지만 사건 수는 점차 감소하여 2021년에는 2017년(2,090건) 대비 85.5% 감소하였다. 소년법은 2018년까지 600건 내외를 보였지만 2019년 이후 연간 200건 미만이었다.

표 2-1-52 근거 법률별 보호관찰 임시해제 현황(2017~2021)

연도	근거법률	계	형법	소년법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2017		2,811	2,090	596	42	74	4	5
		100%	74.4%	21.2%	1.5%	2.6%	0.1%	0.2%
2018		2,165	1,469	608	19	57	4	8
		100%	67.8%	28.1%	0.9%	2.6%	0.2%	0.4%
2019		854	605	194	16	32	5	2
		100%	70.8%	22.7%	1.9%	3.7%	0.6%	0.2%
2020		454	280	154	13	6	1	0
		100%	61.7%	33.9%	2.9%	1.3%	0.2%	0.0%
2021		497	296	196	5	0	0	0
		100%	59.6%	39.4%	1.0%	0.0%	0.0%	0.0%

3) 근거 법률별 보호관찰명령 가해제 현황

- 2021년의 보호관찰명령 가해제 사건 530건을 근거 법률별로 구분하면, 형법이 508건으로 95.8%를 차지하였고, 전자장치 부착법이 18건(3.4%), 치료감호법이 3건(0.6%)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형법에 따른 가해제는 2017년에 84.4%를 차지한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의 70% 내외를 보이다가, 2021년 가해제 건수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였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가해제는 2018년(35건)과 2019년(34건)에 비해 감소하여 2020년에는 28건, 2021년에는 20건 미만을 기록하였다.

표 2-1-53 근거 법률별 보호관찰명령 가해제 현황(2017~2021)

연도 \ 근거법률	계	형법	치료감호법	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2017	167	141	4	22	0	0
	100%	84.4%	2.4%	13.2%	0.0%	0.0%
2018	160	111	13	35	1	0
	100%	69.4%	8.1%	21.9%	0.6%	0.0%
2019	145	104	6	34	0	1
	100%	71.7%	4.1%	23.4%	0.0%	0.7%
2020	133	95	10	28	0	0
	100%	71.4%	7.5%	21.1%	0.0%	0.0%
2021	530	508	3	18	1	0
	100%	95.8%	0.6%	3.4%	0.2%	0.0%

7 제재

1) 서면경고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사건에 대한 서면경고 현황

지표정의

- 서면경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면경고 횟수가 계속 감소하면서도 연간 33,000건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실사사건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면경고 횟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다. 2021년의 경우, 사건수의 증가(10.5%)에 서면경고 횟수의 증가(4.0%)가 미치지 못함에 따라 실사사건 대비 평균 횟수는 최근 5년 중 최저치인 0.09를 기록하였다.

표 2-1-54 서면경고 현황(2017~2021)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서면경고 횟수	38,752	35,479	33,849	26,413	27,472
보호관찰 등 실사사건	281,046	269,958	262,243	263,988	291,635
보호관찰 등 실사사건 대비 평균 횟수	0.14	0.13	0.13	0.10	0.09

2) 지명수배 활용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의뢰한 지명수배 사건 현황

지표정의

- 의뢰, 해제(검거, 기간만료, 기타), 수배중의 5개의 분류로 구분

- 2021년에 지명수배가 의뢰된 사건은 총 1,743건으로, 그중 성인이 1,036건(59.4%), 소년이 707건(40.6%)이었고, 검거사건은 829건(47.6%), 수배 중인 사건은 470건(27.0%)이었다.

→ 2021년의 보호관찰 실시사건(93,654건) 대비 지명수배 의뢰율은 1.9%이었다. 이를 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면, 소년 실시사건(23,830건) 대비 지명수배 의뢰율은 3.0%, 성인 실시사건(69,824건) 대비 지명수배 의뢰율은 1.5%이었다.

표 2-1-55 지명수배 활용 현황(2017~2021)

지명수배 연도	의뢰	해 제				수배중
		계	검거	기간만료	기타	
2017	3,196	2,315	1,682	220	413	881
	100%	72.4%	52.6%	6.9%	12.9%	27.6%
2018	2,887	2,089	1,430	222	437	798
	100%	72.3%	49.5%	7.7%	15.1%	27.7%
2019	2,457	1,812	1,233	214	365	645
	100%	73.8%	50.2%	8.7%	14.9%	26.2%
2020	1,968	1,369	959	167	243	599
	100%	69.6%	48.7%	8.5%	12.3%	30.4%
2021	1,743	1,273	829	175	269	470
	100%	73.0%	47.6%	10.0%	15.4%	27.0%

표 2-1-56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지명수배 활용 현황(2017~2021)

지명수배 연도	의뢰	해 제				수배중
		계	검거	기간만료	기타	
2017	1,479	1,181	997	51	133	298
	100%	79.9%	67.4%	3.5%	9.0%	20.1%
2018	1,267	1,018	828	54	136	249
	100%	80.4%	65.4%	4.3%	10.7%	19.6%
2019	1,422	990	558	172	260	432
	100%	69.6%	39.2%	12.1%	18.3%	30.4%
2020	1,108	703	409	129	165	405
	100%	63.4%	36.9%	11.6%	14.9%	36.6%
2021	707	539	442	31	66	168
	100%	76.2%	62.5%	4.4%	9.3%	23.8%

표 2-1-57 성인 보호관찰사건의 지명수배 활용 현황(2017~2021)

지명수배 연도	의뢰	해제				수배중
		계	검거	기간만료	기타	
2017	1,717	1,134	685	169	280	583
	100%	66.0%	39.9%	9.8%	16.3%	34.0%
2018	1,620	1,071	602	168	301	549
	100%	66.1%	37.1%	10.4%	18.6%	33.9%
2019	1,035	822	675	42	105	213
	100%	79.4%	65.2%	4.1%	10.1%	20.6%
2020	860	666	550	38	78	194
	100%	77.4%	64.0%	4.4%	9.1%	22.6%
2021	1,036	734	387	144	203	302
	100%	70.9%	37.4%	13.9%	19.6%	29.1%

3) 구인 및 유치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실시사건 중 구인 및 유치 현황

지표정의

- 구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구인
- 긴급구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긴급구인
- 유치 : 성적불량자에 대한 교도소 등 유치

-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1,737건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814건을 기록하였다. 보호관찰 실시사건 대비 구인율 역시 감소하여 2017년의 0.6%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0.5%, 2020년 0.4%, 2021년 0.3%를 나타냈다.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건수도 2017년 1,594건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705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며, 보호관찰 실시사건 대비 유치율도 감소하여 2017년 0.6%에서 2021년에는 0.2%를 기록하였다.

- ➔ 구인 및 유치 건수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로는, 첫째 재범 및 재재조치에서의 비중이 높은 소년사건의 감소, 둘째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강화, 셋째 특별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등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전조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표 2-1-58 보호관찰 사건 구인 및 유치 현황(2017~2021)

연령	구분	구인			실시사건 대비 구인율	유치	실시사건 대비 유치율
		소계	긴급구인	구인			
2017		1,737	24	1,713	0.6%	1,594	0.6%
2018		1,431	14	1,417	0.5%	1,350	0.5%
2019		1,240	9	1,231	0.5%	1,125	0.4%
2020		970	9	961	0.4%	824	0.3%
2021		814	7	807	0.3%	705	0.2%

4) 처분취소 및 변경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실시사건 중 처분취소 및 변경 현황

지표정의

- 집행유예 취소, 보호처분 변경, 임시퇴원 취소, 가석방 취소, 기간연장, 선도위탁취소, 보호관찰정지, 가정보호가출소취소, 사회봉사허가취소의 9개로 구분

- 2021년의 처분취소 및 변경 사건 총 3,171건 중 사회봉사허가 취소가 1,288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호처분 변경이 909건(28.7%), 집행유예 취소가 541건(17.1%) 순이었다. 그밖에 선도위탁 취소 143건(4.5%), 가정보호처분·가출소 취소 123건(3.9%), 임시퇴원 취소 77건(2.4%)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보호관찰 준수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건이 2017년(4,228건) 이후 2020년(2,859건)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다.

표 2-1-59 처분취소 및 변경 현황(2017~2021)

유형 연도	계	집행유예 취소	보호처분 변경	임시퇴원 취소	가석방 취소	기간 연장	선도위탁 취소	보호관찰 정지	가정보호· 가출소 취소	사회봉사 허가 취소
2017	4,228	791	1,576	118	7	49	535	70	194	888
	100%	18.7%	37.3%	2.8%	0.2%	1.1%	12.6%	1.7%	4.6%	21.0%
2018	3,666	749	1,217	128	14	35	402	76	219	826
	100%	20.4%	33.2%	3.5%	0.4%	0.9%	11.0%	2.1%	6.0%	22.5%
2019	3,190	694	982	122	20	36	280	65	201	790
	100%	21.8%	30.8%	3.8%	0.6%	1.1%	8.8%	2.0%	6.3%	24.8%

유형 연도	계	집행유예 취소	보호처분 변경	임시퇴원 취소	가석방 취소	기간 연장	선도위탁 취소	보호관찰 정지	가정보호· 가출소 취소	사회봉사 허가 취소
2020	2,859	506	965	85	16	25	224	56	184	798
	100%	17.7%	33.7%	3.0%	0.6%	0.9%	7.8%	2.0%	6.4%	27.9%
2021	3,171	541	909	77	20	34	143	36	123	1,288
	100%	17.1%	28.7%	2.4%	0.6%	1.1%	4.5%	1.1%	3.9%	40.6%

5)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및 인용 현황

개 요

-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보호관찰 실시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및 신청 결과 현황

지표정의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사건 중 집행유예 취소 신청 사건 수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사건 중 집행유예 취소 신청 결과 인용 및 기각 사건 수

-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보호관찰 사건(실시사건 기준)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²⁾ 신청 건수는 2017년 1,404건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0년에는 851건을 기록하였지만 2021년에는 909건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다. 실시사건 대비 취소 신청률도 2017년 2.7%에서 2020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1년에는 2.0%를 나타냈다.

- ➔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 대상자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통해, 집행유예 취소 이전에 보호관찰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1-60 집행유예 취소 신청 현황(2017~2021)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집행유예 취소신청	1,404	1,313	1,206	851	909
집행유예 보호관찰 실시사건	51,828	51,812	48,214	48,242	45,181
집행유예 보호관찰 실시사건 대비 신청률	2.7%	2.5%	2.5%	1.8%	2.0%

- 2021년 집행유예 취소신청의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심리 중인 사건이 161건(신청사건의 17.7%), 심리 종결사건이 748건(신청사건의 82.3%)이었다. 심리 종결사건 중 72.3%가 인용되었고,

2) 형법 제64조

27.7%가 기각되었다. 최근 5년간 취소신청 인용률이 점차 높아져 2017년의 64.8%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67.4%, 2020년 이후로는 72%를 상회하였다.

표 2-1-61 집행유예 취소 신청 결과 현황(2017~2021)

연도	취소신청 결과	심리 종결			심리 중
		계	인용	기각	
2017		1,226	794	432	178
		100%	64.8%	35.2%	
2018		1,114	751	363	199
		100%	67.4%	32.6%	
2019		1,030	694	336	176
		100%	67.4%	32.6%	
2020		701	506	195	150
		100%	72.2%	27.8%	
2021		748	541	207	161
		100%	72.3%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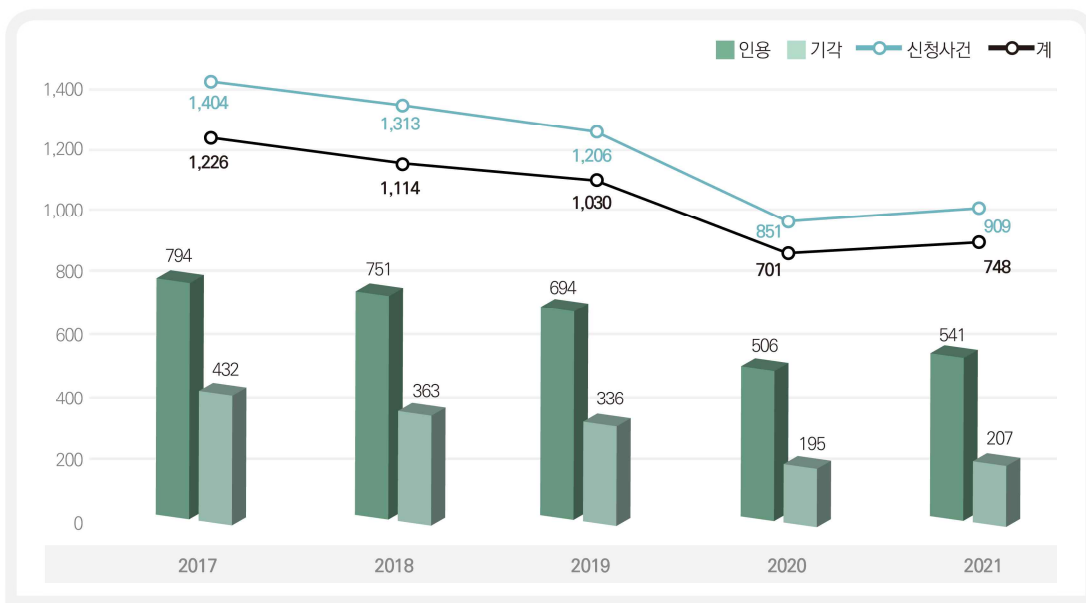


그림 2-1-46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및 결과 현황(2017~2021)

8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사건 중 재범사건의 비율 추이

지표정의

- 재범률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범자/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 실시 사건수)×100
- 재범 판단 기준은 구속, 불구속에 상관없이 검사의 중국처분(구공판, 소년부송치, 가정법원 송치 사건을 포함하되 불기소 처분 및 구약식 사건은 제외)

1) 소년 보호관찰사건

(1)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

- 2021년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은 12.0%이었다. 이를 근거 법률(처분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보호관찰법(임시퇴원)이 16.0%로 가장 높았고, 소년법 12.2%(단기보호관찰 9.9%, 장기보호관찰 14.2%), 형법 9.5% 순이었으며, 가정폭력처벌법,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1급 및 2급)은 3%대의 재범률을 보였다.
- 최근 5년간의 소년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2%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13.5%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5%포인트 감소하였다.

표 2-1-62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률(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근거법률(처분유형)						
계		12.8	12.3	12.8	13.5	12.0
형법		14.0	13.2	16.0	13.7	9.5
소년법	소계	13.9	13.1	13.3	13.9	12.2
	단기보호관찰	12.2	11.2	11.0	11.9	9.9
	장기보호관찰	15.4	14.7	14.9	15.2	14.2
보호관찰법(임시퇴원)		15.0	14.7	16.1	17.1	16.0
성폭력처벌법		3.4	6.0	3.5	0.0	0.0
가정폭력처벌법		3.3	8.0	4.9	0.0	3.6
성매매처벌법		—	—	14.3	50.0	0.0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규정	소계	6.2	5.4	6.1	5.8	3.4
	선도위탁 1급	13.0	3.1	5.8	9.1	3.5
	선도위탁 2급	6.1	5.5	6.1	5.6	3.4
청소년성보호법		6.2	7.5	3.6	13.5	2.5

(2)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사건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

- 2021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범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866명에 대해 보호관찰 개시 이후 재범 발생 시까지의 경과기간을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범한 경우가 전체 재범사건의 36.4%이었고,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에 재범한 경우가 23.3%, 6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가 27.5% 등이었다.

➡ 재범없이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된 사건은 제외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한 사건에 한정하여 재범 발생 시까지의 보호관찰 경과 기간을 분석한 것이다.

➡ 그동안 보호관찰 초기에 발생하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개입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음에도 보호관찰 개시 후 3개월 이내의 재범이 3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관과의 라포 형성, 보호관찰 청소년의 개별 정보 파악 및 상담형 면담 등 보호관찰 처우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다.

➡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 범죄 발생 이후부터 보호관찰이 부과되기 전까지의 기간, 즉 기존의 비행 네트워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간에 대해 신속히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1-63 소년 보호관찰사건 중 재범자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2017~2021)

연도	경과기간	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2017		4,163	643	994	1,111	1,016	395	3	1
		100%	15.4%	23.9%	26.7%	24.4%	9.5%	0.1%	0.0%
2018		3,830	600	924	897	1,012	391	6	0
		100%	15.7%	24.1%	23.4%	26.4%	10.2%	0.2%	0.0%
2019		3,596	519	881	853	894	445	3	1
		100%	14.4%	24.5%	23.7%	24.9%	12.4%	0.1%	0.0%
2020		3,484	476	796	872	942	392	6	0
		100%	13.7%	22.8%	25.0%	27.0%	11.3%	0.2%	0.0%
2021		2,866	386	655	669	787	362	7	0
		100%	13.5%	22.9%	23.3%	27.5%	12.6%	0.2%	0.0%

2) 성인 보호관찰사건

(1)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

- 2021년 성인 보호관찰사건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은 4.5%이었다. 이를 근거 법률(처분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명령의 재범률이 7.8%로 가장 높았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급 6.8%, 치료감호법에 의한 가중료 5.4% 등 이었다. 이외에 형법, 가정폭력처벌법은 각각 4%대의 재범률을 보였다.

- 최근 5년간 성인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은 2017년에 5.6%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20년까지 5.0~5.1%를 나타내다가 2021년에는 4.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 근거 법률(처분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형법의 재범률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 수준을 유지하다 2021년 4.4%였고, 가정폭력처벌법은 2017년 3.4%에서 2019년 이후 4%대로 높아졌다. 아동학대처벌법은 2019년 이후 2%대를 유지하였고, 치료감호법 중 가중료는 2017년 9.1%에서 2021년 5.4%로 감소하였고 치료명령은 7.6~8.1%를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연도별 상승과 하락은 있었지만 2017년 5.2%에서 2021년 2.9%로 낮아졌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에 9.1%까지 증가하였지만 2021년에는 3.4%를 기록하였다.

표 2-1-64 성인 보호관찰 사건의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률(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근거법률(처분유형)						
계		5.6	5.1	5.0	5.0	4.5
형법		5.8	5.2	5.0	4.8	4.4
치료감호법(가중료)		9.1	7.6	7.8	6.7	5.4
치료감호법(치료명령)		7.6	8.1	7.8	7.9	7.8
성폭력처벌법		5.2	4.0	4.5	4.1	2.9
가정폭력처벌법		3.4	3.9	4.2	4.8	4.6
성매매처벌법		3.1	2.2	1.7	1.0	1.9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소계	1.9	1.2	1.0	1.3	1.8
	선도위탁 1급	4.4	3.5	0.9	1.1	6.8
	선도위탁 2급	1.8	1.0	1.0	1.3	1.4
성충동약물치료법		0.0	0.0	0.0	0.0	0.0
청소년성보호법		6.2	4.5	6.4	9.1	3.4
아동학대처벌법		0.1	0.5	2.8	2.1	2.2

(2)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사건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

- 2021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범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3,142명에 대해 보호관찰 개시 이후 재범 시까지의 보호관찰 경과기간을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범한 경우가 전체 재범사건의 23.0%이었고,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에 재범한 경우가 16.0%, 6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가 22.6% 등이었다.

➡ 재범없이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된 사건은 제외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한 사건에 한정하여 재범 발생 시까지의 보호관찰 경과 기간을 분석한 것이다.

표 2-1-65 성인 보호관찰사건 중 재범자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2017~2021)

연도 \ 경과기간	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2017	4,083	331	613	806	996	1,049	168	120
	100%	8.1%	15.0%	19.7%	24.4%	25.7%	4.1%	2.9%
2018	3,768	353	522	642	928	1,067	133	123
	100%	9.4%	13.9%	17.0%	24.6%	28.3%	3.5%	3.3%
2019	3,671	323	538	625	812	1,069	163	141
	100%	8.8%	14.7%	17.0%	22.1%	29.1%	4.4%	3.8%
2020	3,481	322	521	606	820	921	149	142
	100%	9.2%	15.0%	17.4%	23.5%	26.5%	4.3%	4.1%
2021	3,142	267	454	504	710	957	126	124
	100%	8.5%	14.5%	16.0%	22.6%	30.5%	4.0%	3.9%

9 종료 현황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사건 종료 현황

지표정의

- 종료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종료된 사건
- 기간 만료 :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된 경우
- 보호처분변경 등 : 보호처분자의 최초 보호처분이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 이송 : 보호관찰 관할기관 변경에 따른 이송

- 2021년의 보호관찰 종료사건은 총 45,733건으로,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가 32,971건(72.1%), 기관 간 이송에 의한 종료가 6,844건(15.0%), 처분변경 등에 의한 종료가 4,830건(10.5%), 기타 종료가 1,088건(2.4%)이었다.
- 최근 5년간의 보호관찰 종료사건은 2017년 49,921건에서 2018년에는 52,270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8%, 2020년에는 전년 대비 8.9%,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2% 각각 감소하였다.
- 한편, 종료 유형 중 처분변경 등의 제재 조치 없이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사건이 2017년 34,165건, 2018년 34,924건, 2019년 36,498건 등으로 증가하였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3,315건과 32,971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종료사건의 감소로 인해 기간만료 종료사건의 비율은 2020년 이후 72%를 넘겼다. 처분변경 등에 의한 종료는 2018년까지 전체의 14%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12%대로, 2021년에는 10% 수준으로 줄었다.

표 2-1-66 보호관찰 종료 현황(2017~2021)

연도 \ 종료유형	계	기간만료	처분변경 등	이송	기타
2017	49,921	34,165	7,244	7,794	718
	100%	68.4%	14.5%	15.6%	1.4%
2018	52,270	34,924	7,785	8,799	762
	100%	66.8%	14.9%	16.8%	1.5%
2019	50,820	36,498	6,394	7,165	763
	100%	71.8%	12.6%	14.1%	1.5%
2020	46,301	33,315	5,578	6,670	738
	100%	72.0%	12.0%	14.4%	1.6%
2021	45,733	32,971	4,830	6,844	1,088
	100%	72.1%	10.5%	15.0%	2.4%

치료명령

➔ 개요

- » 치료명령제도는 주취·마약·정신질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받을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 » 통원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의 경우 1년 이내, 집행유예의 경우 5년 이내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하고 보호관찰을 병과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은 보호관찰관이 약물 투여, 상담 등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다.

➔ 치료명령 외국의 입법례 및 운영 현황

- » 미국은 정신건강법정(Mental Health Court)을 두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선별하고 사회내 적절한 자원을 활용하여 치료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1997년 플로리다에서 처음 만들어진 후 대부분의 주에서 300여개의 정신건강법정이 운영중에 있다.³⁾
- » 영국은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 2003 Section 177)에 근거하여 12가지 사회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⁴⁾, 정신보건치료(Mental Health Treatment Requirements)는 지역사회명령(Community Order) 중 하나에 해당하며, 정신과의사나 정신치료자의 치료처우와 보호관찰관의 감독이 병행되도록 하고 있다.⁵⁾
- » 일본은 2005년부터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 행위를 행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의료관찰법)」에 근거해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⁶⁾ 2005년 「의료관찰법」 시행 이후 2015년까지 대상자 총 3,800명 중 강제입원 65.8%(2,501명), 통원결정 13.9%(528명)로 나타났다. 입원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후생노동성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통원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보호관찰소, 지정 통원의료기관, 정신보건복지기관이 연계하여 처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일관된 처우계획을 마련하고 있다.⁷⁾

3) 박은영,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 『보호관찰』 제16권 1호, 2016. 19면.

4) 윤웅장,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보호관찰』 제6호, 2006. 45면.

5) 박은영,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 『보호관찰』 제16권 1호, 2016. 24면.

6) 박은영,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 『보호관찰』 제16권 1호, 2016. 26면.

7) 최민영·유진, 『형사사법에서 정신감정의 신뢰성 제고 및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 2017. 75-77면.

1 접수사건 현황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접수사건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접수 현황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원에서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 치료명령 : 「치료감호법」 제2조3에 따라 주취·마약·정신질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 받을 것을 명령
-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대검예규 제873호)에 따라 상담·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된 사건

1) 개요

- 2021년에 접수한 치료명령사건은 총 347건으로, 집행유예사건이 339건, 선고유예사건이 8건이었다. 최근 5년간의 치료명령 접수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422건, 2018년 451건, 2019년 590건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473건으로 전년 대비 19.8% 감소하였고 2021년에도 전년 대비 26.6% 감소하였다.
-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은 2017년 184건, 2018년 121건, 2019년 160건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 이후 연간 100건 내외가 접수되어 2020년에는 99건, 2021년에는 107건을 기록하였다.

- ➔ 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시행되어, 시행 첫해에 5건이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누적하여 총 2,288건이 접수되었다. 이중 집행유예사건이 2,262건, 선고유예가 26건이었다.
- ➔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사건은 2016년에 11건이 접수된 이후 2021년까지 누적하여 총 682건이 접수되었다.

표 2-2-1 치료명령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접수사건 현황(2017~2021)

연도	유형	치료명령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계	집행유예	선고유예	
2017		422	415	7	184
2018		451	446	5	121
2019		590	584	6	160
2020		473	473	0	99
2021		347	339	8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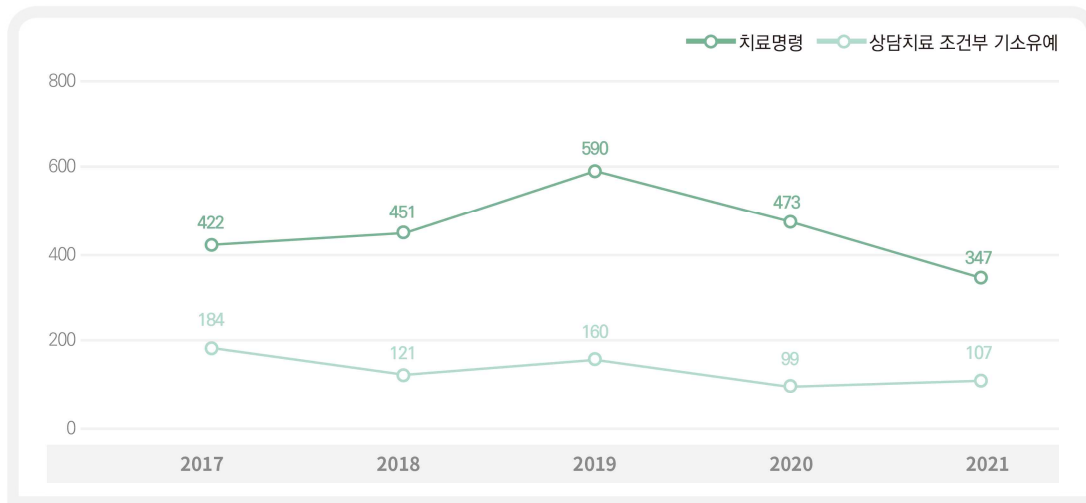


그림 2-2-1 치료명령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접수사건 현황(2017~2021)

2) 문제유형별 현황

(1) 치료명령

- 2021년에 접수된 치료명령사건(347건)을 대상자의 문제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 정신질환이 253건(72.9%), 알코올중독이 65건(18.7%), 마약중독⁸⁾이 29건(8.4%)이었다.
- 최근 5년간 문제유형별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정신질환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2020년 이전에는 전체의 54~59%를 차지하다가 2021년에는 7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알코올중독과 마약중독사건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알코올중독은 2019년까지 연간 170~180건 수준에서 2020년에는 133건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도 전년의 절반 이하 수준을 보였다. 마약중독도 2018년 최초 시행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는 80건 내외가 접수되었으나 2021년에는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하였다.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 개정되어 2018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마약중독자도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2-2-2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문제유형 연도	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소계	집행 유예	선고 유예	소계	집행 유예	선고 유예	소계	집행 유예	선고 유예
2017	422	252	245	7	170	170	0	—	—	—
	100%	59.7%	58.0%	1.7%	40.3%	40.3%	0.0%	—	—	—
2018	451	263	259	4	180	179	1	8	8	0
	100%	58.3%	57.4%	0.9%	39.9%	39.7%	0.2%	1.8%	1.8%	0.0%
2019	590	323	317	6	184	184	0	83	83	0
	100%	54.7%	53.7%	1.0%	31.2%	31.2%	0.0%	14.1%	14.1%	0.0%
2020	473	265	265	0	133	133	0	75	75	0
	100%	56.0%	56.0%	0.0%	28.1%	28.1%	0.0%	15.9%	15.9%	0.0%
2021	347	253	245	8	65	65	0	29	29	0
	100%	72.9%	70.6%	2.3%	18.7%	18.7%	0.0%	8.4%	8.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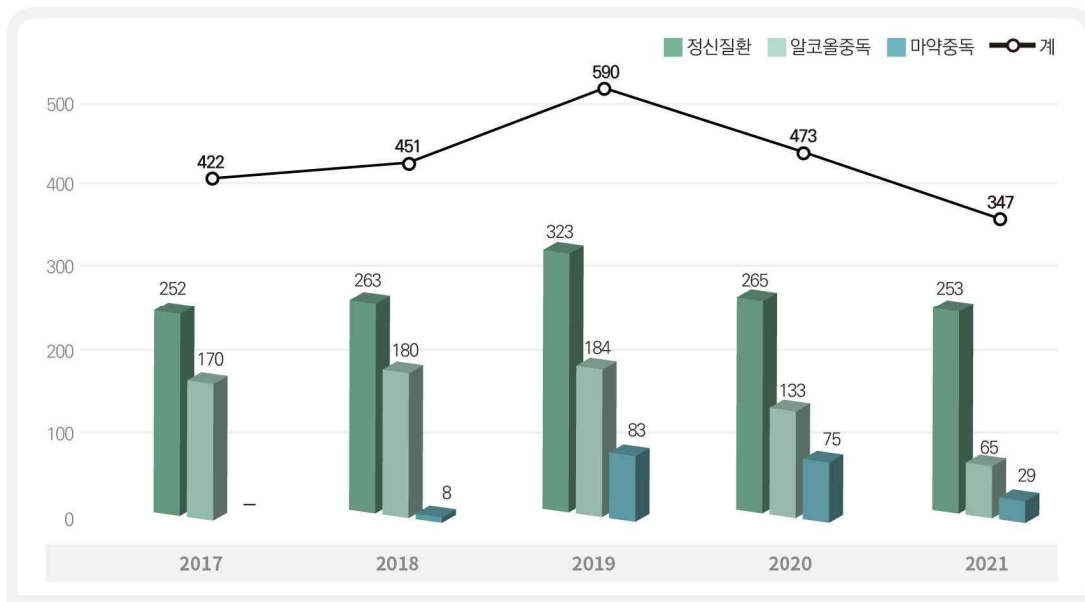


그림 2-2-2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2021년의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107건)을 대상자 문제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 정신질환이 104건(97.2%), 알코올중독이 3건(2.8%)이었고, 마약중독⁹⁾은 없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신질환사건이 전체의 84~89%, 알코올중독이 9~15%이었는데, 2020년부터 알코올중독사건이 감소하면서 정신질환이 97% 이상을 차지하였다.

9) 2019년부터 마약중독자가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2-2-3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연도\문제유형	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2017	184	156	28	—
	100%	84.8%	15.2%	—
2018	121	106	15	—
	100%	87.6%	12.4%	—
2019	160	142	15	3
	100%	88.7%	9.4%	1.9%
2020	99	96	3	0
	100%	97.0%	3.0%	0.0%
2021	107	104	3	0
	100%	97.2%	2.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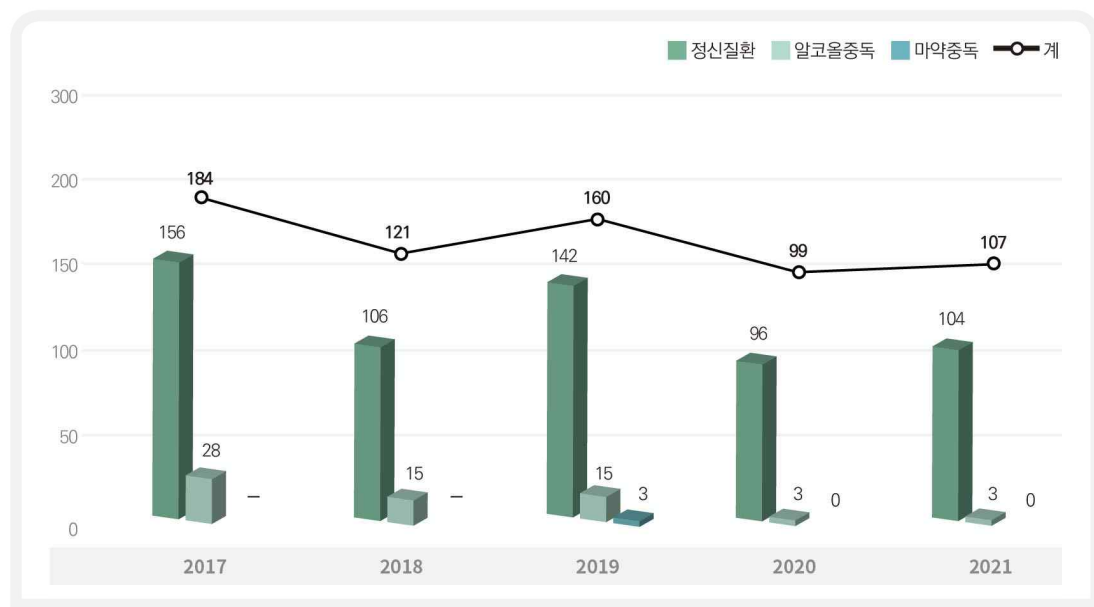


그림 2-2-3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3) 사범별 현황

(1) 치료명령

- 2021년의 치료명령 접수사건(347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폭력사범이 110건(3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사범 90건(25.9%), 성폭력사범 38건(11.0%), 절도사범 31건(8.9%), 마약사범 29건(8.4%), 강력사범 23건(6.6%), 교통사범 12건(3.5%) 등의 순이었다. 그 외 풍속사범, 사기횡령사범, 경제사범 등은 각각 10건 미만이었다.

- 치료명령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7년 이후, 폭력사범이 매년 전체의 35% 내외를 차지하다가 2020년에는 25.6%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사건 수의 감소에도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약사범은 2018년 치료명령 대상에 마약중독이 포함된 후 2019년에 최고치(84건, 14.2%)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에는 사건 수와 비율 모두 감소하였다.

표 2-2-4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연도	사범	계	강력	교통	폭력	절도	성폭력	풍속*	사기횡령	마약	경제	기타**
2017		422	31	22	150	44	29	16	11	1	0	118
		100%	7.4%	5.2%	35.5%	10.4%	6.9%	3.8%	2.6%	0.2%	0.0%	28.0%
2018		451	29	18	150	26	58	12	22	10	1	125
		100%	6.4%	4.0%	33.2%	5.8%	12.9%	2.7%	4.9%	2.2%	0.2%	27.7%
2019		590	39	9	214	45	50	11	16	84	0	122
		100%	6.6%	1.5%	36.3%	7.6%	8.5%	1.9%	2.7%	14.2%	0.0%	20.7%
2020		473	35	29	121	46	43	6	11	76	2	104
		100%	7.4%	6.1%	25.6%	9.7%	9.1%	1.3%	2.3%	16.1%	0.4%	22.0%
2021		347	23	12	110	31	38	8	5	29	1	90
		100%	6.6%	3.5%	31.7%	8.9%	11.0%	2.3%	1.4%	8.4%	0.3%	25.9%

* 풍속 : 공연음란, 도박 등

** 기타 :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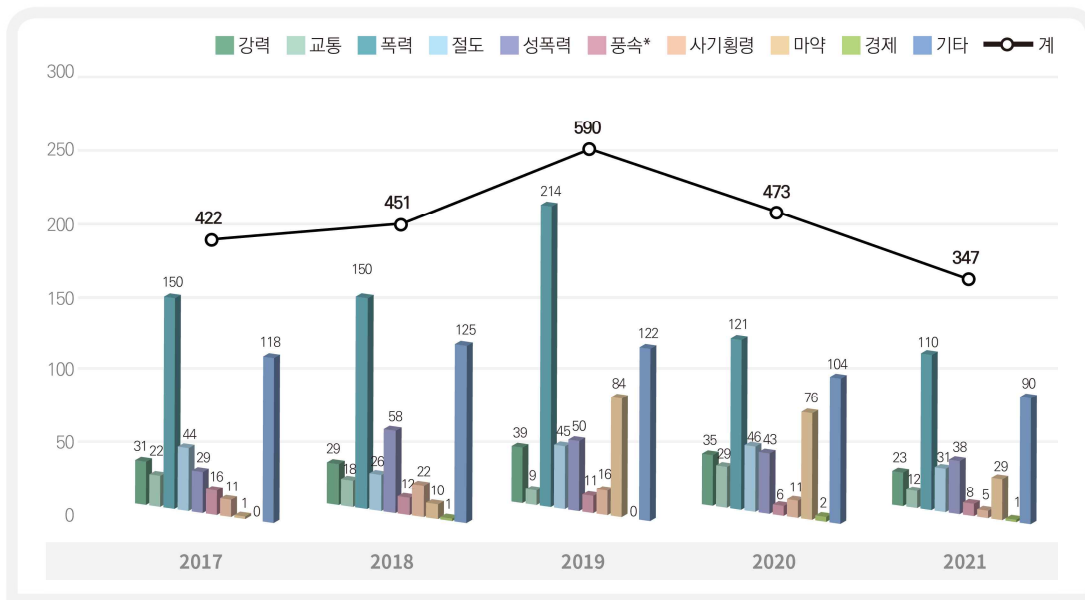


그림 2-2-4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2021년의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107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하면, 폭력사범이 43건(40.2%), 기타사범이 35건(32.7%), 절도사범이 22건(20.6%)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하였고, 성폭력사범과 강력사범은 각각 4건(3.7%)과 3건(2.8%)이었다.
- 최근 5년간, 폭력사범은 사건 수의 감소 추세에도 매년 전체의 40% 내외를 유지하였고, 기타사범은 2019년까지 20%대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 35% 내외로 증가하였다. 절도사범은 연간 14~25건이 꾸준히 접수된 반면 강력사범과 성폭력사범은 2020년부터 사건 수가 감소하여 2019년까지 각각 전체의 10% 내외를 차지하다가 2020년부터 3% 내외로 감소하였다.

표 2-2-5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연도\사범	계	강력	교통	폭력	절도	성폭력	풍속*	사기횡령	마약	경제	기타**
2017	184	17	0	74	25	16	5	3	0	0	44
	100%	9.2%	0.0%	40.3%	13.6%	8.7%	2.7%	1.6%	0.0%	0.0%	23.9%
2018	121	10	0	49	14	18	5	0	0	0	25
	100%	8.3%	0.0%	40.4%	11.6%	14.9%	4.1%	0.0%	0.0%	0.0%	20.7%
2019	160	19	2	62	19	12	2	1	3	1	39
	100%	11.8%	1.3%	38.8%	11.8%	7.5%	1.3%	0.6%	1.9%	0.6%	24.4%
2020	99	3	0	35	15	1	4	2	0	0	39
	100%	3.0%	0.0%	35.4%	15.2%	1.0%	4.0%	2.0%	0.0%	0.0%	39.4%
2021	107	3	0	43	22	4	0	0	0	0	35
	100%	2.8%	0.0%	40.2%	20.6%	3.7%	0.0%	0.0%	0.0%	0.0%	32.7%

* 풍속 : 공연음란, 도박

** 기타 :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4) 연령 및 성별 현황

(1) 치료명령

- 2021년의 치료명령 접수사건(347건)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결과, 소년사건은 여성 1건(0.3%)이었고, 성인사건은 346건(99.7%)으로 남성 264건(76.1%), 여성 82건(23.6%)이었다.

표 2-2-6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연령 연도	계	소년			성인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2017	422	2	2	0	420	335	85
	100%	0.5%	0.5%	0.0%	99.5%	79.4%	20.1%
2018	451	0	0	0	451	362	89
	100%	0.0%	0.0%	0.0%	100%	80.3%	19.7%
2019	590	1	1	0	589	456	133
	100%	0.2%	0.2%	0.0%	99.8%	77.3%	22.5%
2020	473	0	0	0	473	357	116
	100%	0.0%	0.0%	0.0%	100%	75.5%	24.5%
2021	347	1	0	1	346	264	82
	100%	0.3%	0.0%	0.3%	99.7%	76.1%	23.6%

(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2021년의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107건)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결과, 소년이 2건(1.8%)으로 남성과 여성이 각 1건이었고, 성인은 105건(98.2%)으로 남성 60건(56.1%), 여성 45건(42.1%)이었다.

표 2-2-7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연령 연도	계	소년			성인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2017	184	6	6	0	178	124	54
	100%	3.3%	3.3%	0.0%	96.7%	67.4%	29.3%
2018	121	9	8	1	112	92	20
	100%	7.4%	6.6%	0.8%	92.6%	76.0%	16.5%
2019	160	8	5	3	152	109	43
	100%	5.0%	3.1%	1.9%	95.0%	68.1%	26.9%
2020	99	1	1	0	98	78	20
	100%	1.0%	1.0%	0.0%	99.0%	78.8%	20.2%
2021	107	2	1	1	105	60	45
	100%	1.8%	0.9%	0.9%	98.2%	56.1%	42.1%

5) 치료명령 기간별 현황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누적 접수사건을 치료명령 기간에 따라 구분한 결과, 2년 이상~3년 미만이 1,596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4년 미만이 321건(14.1%), 1년 이상~2년 미만이 308건(13.5%)이었다. 그밖에 4년 이상~5년 미만이 26건(1.1%), 5년 이상이 17건(0.8%), 6월 이하가 14건(0.6%), 6월 초과~1년 미만이 1건(0.0%) 등이었다.

표 2-2-8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기간별 현황(2017~2021)

연도	치료명령기간	계	6월 이하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총계		2,283	14	1	308	1,596	321	26	17
		100%	0.6%	0.0%	13.5%	69.9%	14.1%	1.1%	0.8%
2017	계	422	9	1	68	305	33	4	2
	선고유예	7	0	0	7	0	0	0	0
	집행유예	415	9	1	61	305	33	4	2
2018	계	451	2	0	62	329	49	5	4
	선고유예	5	0	0	5	0	0	0	0
	집행유예	446	2	0	57	329	49	5	4
2019	계	590	3	0	73	422	85	2	5
	선고유예	6	0	0	6	0	0	0	0
	집행유예	584	3	0	67	422	85	2	5
2020	계	473	0	0	61	309	94	5	4
	선고유예	0	0	0	0	0	0	0	0
	집행유예	473	0	0	61	309	94	5	4
2021	계	347	0	0	44	231	60	10	2
	선고유예	8	0	0	8	0	0	0	0
	집행유예	339	0	0	36	231	60	10	2

2 집행사건 현황

개요

- 치료명령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집행 현황

지표정의

- 집행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 사건)

1) 치료명령

- 치료명령 집행사건은 2017년 427건, 2018년 867건, 2019년 1,313건, 2020년 1,419건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폭은 각각 103%, 51.4%, 8.1% 등으로 매년 감소하였다. 2021년의 집행사건은 총 1,324건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하였다.

표 2-2-9 치료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7~2021)

연도	처분유형	계	집행유예	선고유예
2017		427	420	7
		100%	98.4%	1.6%
2018		867	855	12
		100%	98.6%	1.4%
2019		1,313	1,302	11
		100%	99.2%	0.8%
2020		1,419	1,414	5
		100%	99.6%	0.4%
2021		1,324	1,316	8
		100%	99.4%	0.6%



그림 2-2-5 치료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7~2021)

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2021년의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집행사건은 총 174건이며, 그 중 정신질환이 169건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하였고, 알코올중독이 5건(2.9%)이었다.

표 2-2-10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집행사건 현황(2017~2021)

연도	문제유형	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2017		195	166	29	—
		100%	85.1%	14.9%	—
2018		214	188	26	—
		100%	87.9%	12.1%	—
2019		215	191	21	3
		100%	88.8%	9.8%	1.4%
2020		176	166	10	0
		100%	94.3%	5.7%	0.0%
2021		174	169	5	0
		100%	97.1%	2.9%	0.0%

3 현재원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집행 중인 치료명령 사건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현황

지표정의

- 현재원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치료명령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집행 중인 사건
- 처분유형 : 치료명령이 부과되는 원처분의 형태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구분
- 문제유형 :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의 원인이 된 문제유형에 따라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으로 구분

1) 문제유형별 현황

(1) 치료명령

-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치료명령 현재원은 총 805건이었다. 이를 문제유형별로 구분하면, 정신질환이 495건(61.5%), 알코올중독이 192건(23.8%), 마약중독이 118건(14.7%)이었다.

표 2-2-11 치료명령 현재원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연도	문제유형	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2017		416	250	166	—
		100%	60.1%	39.9%	—
2018		729	435	286	8
		100%	59.7%	39.2%	1.1%
2019		934	526	318	90
		100%	56.3%	34.1%	9.6%
2020		978	543	287	148
		100%	55.5%	29.4%	15.1%
2021		805	495	192	118
		100%	61.5%	23.8%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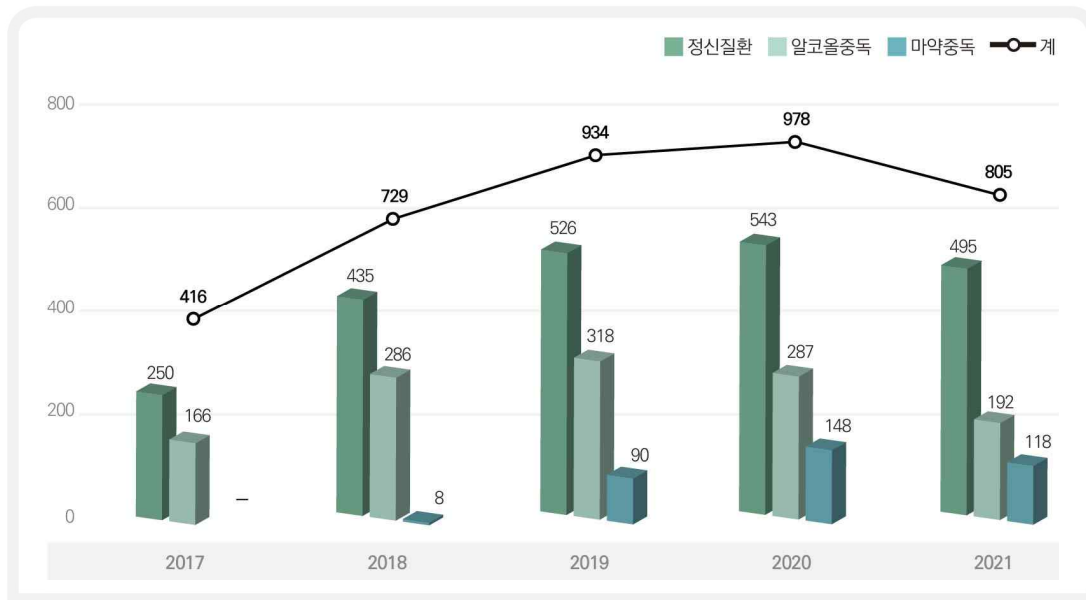


그림 2-2-6 치료명령 현재원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현재원은 총 42건으로, 정신질환이 41건(97.6%), 알코올중독이 1건(2.4%)이었고, 마약중독 사건은 없었다.

표 2-2-1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재원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연도	문제유형	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2017		93	82	11	—
		100%	88.2%	11.8%	—
2018		56	50	6	—
		100%	89.3%	10.7%	—
2019		79	72	7	0
		100%	91.1%	8.9%	0.0%
2020		68	66	2	0
		100%	97.1%	2.9%	0.0%
2021		42	41	1	0
		100%	97.6%	2.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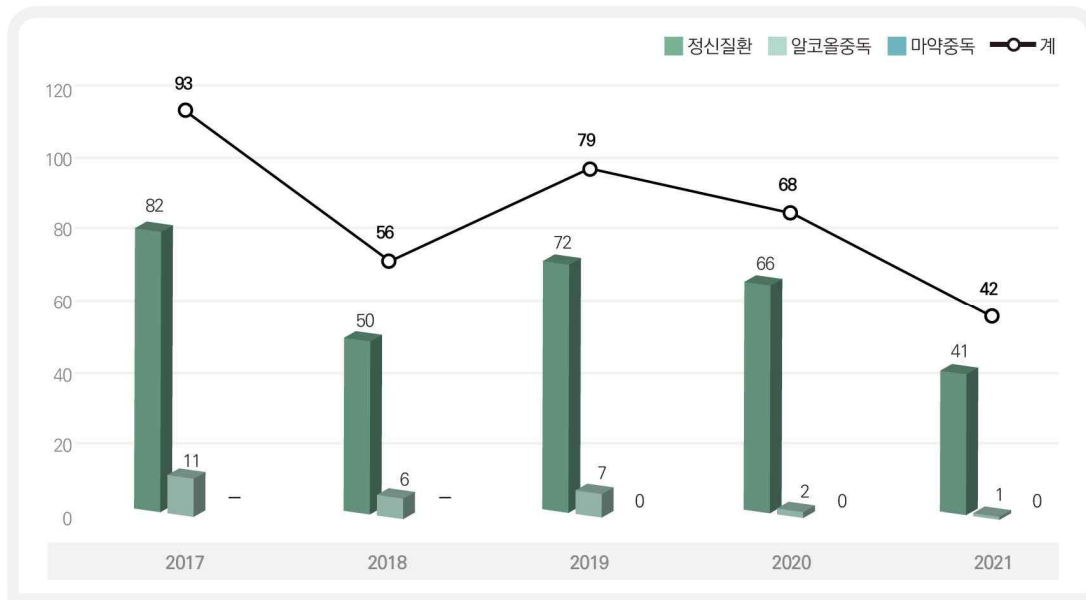


그림 2-2-7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재원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2) 사범별 현황

(1) 치료명령

-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치료명령 현재원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폭력사범이 217건(27.0%), 기타사범이 175건(21.7%), 마약사범이 119건(14.8%) 등으로 폭력·기타·마약사범이 전체의 63.5%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성폭력사범 89건(11.0%), 강력사범 78건(9.7%), 절도사범 59건(7.3%), 교통사범 37건(4.6%)이었고, 풍속·경제·사기횡령 사범 등은 각각 20건 미만이었다,

표 2-2-13 치료명령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연도 \ 사범	합계	강력	교통	경제	폭력	절도	성폭력	풍속*	사기횡령	마약	기타**
2017	416	32	21	0	150	42	30	16	10	0	115
	100%	7.7%	5.1%	0.0%	36.1%	10.1%	7.2%	3.8%	2.4%	0.0%	27.6%
2018	729	54	37	1	256	49	78	26	24	8	196
	100%	7.4%	5.1%	0.1%	35.1%	6.7%	10.7%	3.6%	3.3%	1.1%	26.9%
2019	934	77	21	0	328	67	91	22	23	91	214
	100%	8.2%	2.3%	0.0%	35.1%	7.2%	9.7%	2.4%	2.5%	9.7%	22.9%
2020	978	83	36	3	291	80	104	15	21	150	195
	100%	8.5%	3.7%	0.3%	29.8%	8.2%	10.6%	1.5%	2.2%	15.3%	19.9%
2021	805	78	37	3	217	59	89	16	12	119	175
	100%	9.7%	4.6%	0.4%	27.0%	7.3%	11.0%	2.0%	1.5%	14.8%	21.7%

* 풍속 : 공연음란, 도박 등

** 기타 :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재원을 사범별로 구분하면, 폭력사범이 2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사범 13건(31.0%), 절도사범 8건(19.0%), 강력사범 1건(2.4%) 등이었다.

표 2-2-14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연도\사범	계	강력	교통	경제	폭력	절도	성폭력	풍속*	사기횡령	마약	기타**
2017	93	12	0	0	38	14	8	2	1	0	18
	100%	12.9%	0.0%	0.0%	40.9%	15.1%	8.6%	2.1%	1.1%	0.0%	19.3%
2018	56	2	0	0	21	6	13	2	0	0	12
	100%	3.6%	0.0%	0.0%	37.5%	10.7%	23.2%	3.6%	0.0%	0.0%	21.4%
2019	79	8	1	0	35	8	6	1	0	0	20
	100%	10.1%	1.3%	0.0%	44.3%	10.1%	7.6%	1.3%	0.0%	0.0%	25.3%
2020	68	2	0	0	22	9	1	4	2	0	28
	100%	2.9%	0.0%	0.0%	32.4%	13.2%	1.5%	5.9%	2.9%	0.0%	41.2%
2021	42	1	0	0	20	8	0	0	0	0	13
	100%	2.4%	0.0%	0.0%	47.6%	19.0%	0.0%	0.0%	0.0%	0.0%	31.0%

* 풍속 : 공연음란, 도박

** 기타 :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4 치료기관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치료명령을 위한 치료기관 지정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치료기관은 총 251개로, 정신의료기관이 198개(78.9%), 중독관리통합센터가 24개(9.6%), 정신건강증진센터가 20개(8.0%) 등이었다.

표 2-2-15 치료명령의 치료기관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 증진센터	중독관리 통합센터	기타
			소계	병원	의원			
2017		169	142	106	36	10	13	4
		100%	84.0%	62.7%	21.3%	5.9%	7.7%	2.4%
2018		245	204	163	41	14	21	6
		100%	83.3%	66.5%	16.7%	5.7%	8.6%	2.4%
2019		247	204	162	42	15	22	6
		100%	82.6%	65.6%	17.0%	6.1%	8.9%	2.4%
2020		261	208	155	53	20	24	9
		100%	79.7%	59.4%	20.3%	7.7%	9.2%	3.4%
2021		251	198	149	49	20	24	9
		100%	78.9%	59.4%	19.5%	8.0%	9.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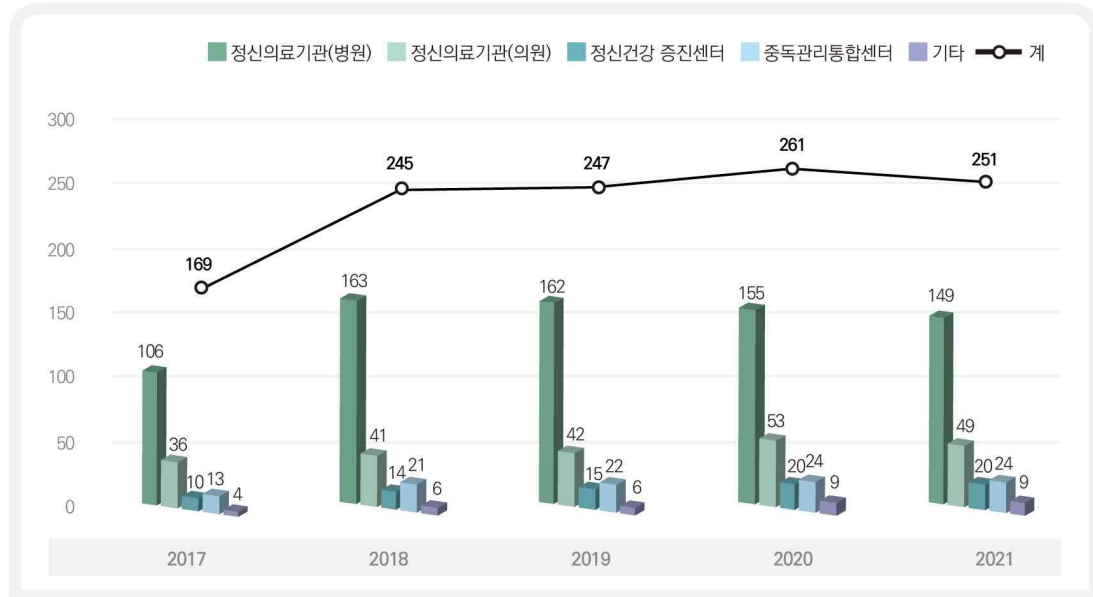


그림 2-2-8 치료명령의 치료기관 현황(2017~202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 개요

» 성도착증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출소 이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성도착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지행동치료를 비롯한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행동 개선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도소 출소 후인 형 집행 종료 후 단계에서의 치료적 행위를 통해 국가의 성범죄자 관리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 집행 방법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를 비롯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심리치료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인지행동치료 등)의 실시, 전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또한, 보호관찰관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집행을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기관의 의사, 심리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집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집행협의체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치료 대상자의 안전과 치료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등 전문적·통합적 처우 모델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 성충동 약물치료 약물[시행 2020. 7. 1.] [법무부고시 제2020-211호, 2020. 6. 22., 일부개정.]

구 분	약 물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MPA, Medroxyprogesterone acetate)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Leuprolide acetate)
	고세렐린 아세테이트(Goserelin acetate)
	트립토텔린 아세테이트(Triptorelin acetate)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성폭력범죄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CPA, Cyproterone acetate)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외국 입법례 및 운영 현황

» ‘성충동 약물치료’는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정 이후 최초 실시되어 1997년 몬타나주, 루이지애나주, 플로리다주, 1998년 아이오와주, 1999년 위스콘신주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조지아주와 오레곤주는 제도를 폐지하였다.¹⁰⁾

» 미국은 주법률에 따라 결정재량권이 다른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아이오와 주 등은 초범인 경우 법원이 재량권을 가지나 재범인 경우 필요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며, 유럽의 경우 폴란드와 체코를 제외하고 대부분 피치료자의 동의하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있다.¹¹⁾

10) 박성훈·유진,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2018. 14면.

-
- 11) 박성훈·유진,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2018. 89면.

» 유럽에서는 20세기 초반 덴마크(1929)를 시작으로 독일(1933), 노르웨이(1934), 핀란드(1935), 에스토니아 (1937), 아이슬란드(1938), 라트비아(1938), 스웨덴(1944), 체코(1966) 등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도입 하였다. 스웨덴은 법제를 폐지한 가운데 현재 폴란드(2009), 체코(2009), 몰도바(2012), 마케도니아(2017)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¹²⁾

1 집행 현황

지표정의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집행 및 종료, 대기 중인 사건 수(기관 간 이송 불포함)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행 중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은 총 34건이며,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집행 종료된 사건은 6건(누적 29건), 집행 대기 중인 사건은 23건이었다.

표 2-3-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등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계	집행 중			집행 종료(누적)			집행 대기		
		소계	형기종료	가종료	소계	형기종료	가종료	소계	형기종료	가종료
2017	41	13	2	11	7	0	7	21	20	1
2018	49	22	5	17	8	0	8	19	18	1
2019	67	31	2	29	16	2	14	20	20	0
2020	73	26	1	25	23	4	19	24	22	2
2021	86	34	2	32	29	4	25	23	2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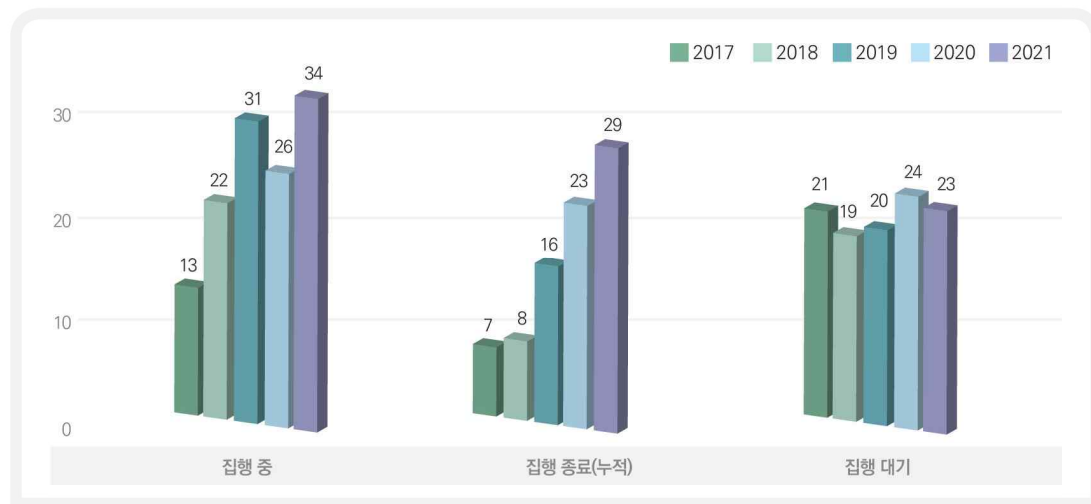


그림 2-3-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등 현황(2017~2021)

12) 한민경,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EU국 법제 연구”, 『2013 세계법제 연구보고서』, 2013. 8-14면.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선고 현황

보호관찰기관에 판결정문이 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2014년 이후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선고 사건은 2019년 (18건)과 2021년(13건)을 제외하고는 매년 10건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선고 현황(2014~2021)]

연도 처분기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법원	6	5	5	0	1	2	2	1
치료감호심의위원회	5	0	5	6	7	16	4	12
합계	11	5	10	6	8	18	6	13

2 치료기관 현황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 20개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기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표 2-3-2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기관 현황(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관 수	13	15	18	1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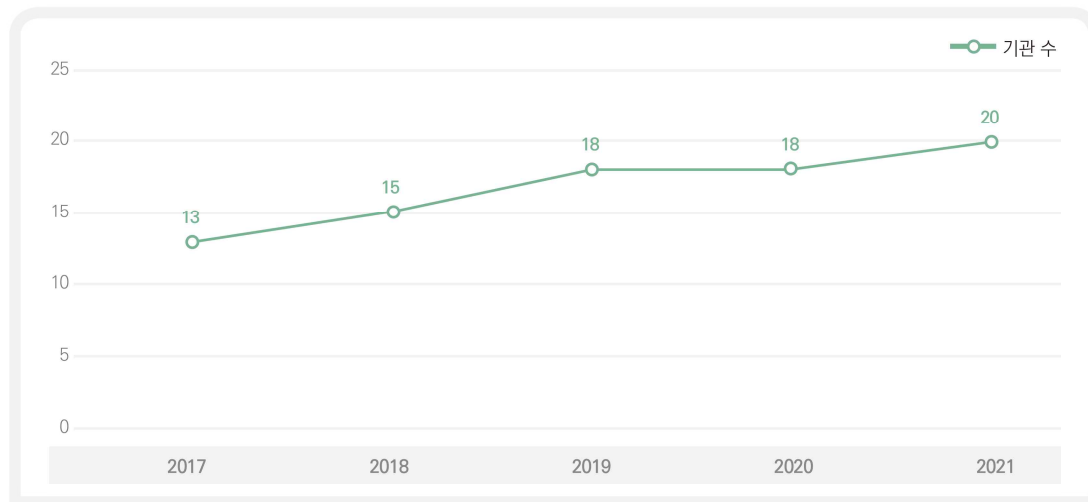


그림 2-3-2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기관 현황(2017~2021)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효과성

① 재범 예방 효과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의한 치료대상자와 청구기각자를 비교한 연구결과, 청구기각자의 동종(성범죄) 재범은 50.0%이었던 반면 치료대상자의 동종재범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또한, 과거 성범죄전력이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대상자의 경우, 치료가 실시되기 전에는 동종재범을 저질렀을 기간에도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등 이전보다 재범까지의 간격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치료적 효과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남성호르몬 수치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일정기준 이하로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후 성범죄자의 성적환상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 성충동 약물치료는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정신의학적 개입도 필요함을 보여주었다.¹⁵⁾

13) 박성훈·유진,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2018. 51면.

14) 박성훈·유진,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2018. 59면.

15) 안진형 외, “성충동 약물 치료가 성범죄자의 성적 환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예비 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제37호, 2013.

보호관찰조사

1 개요

1) 종류별 접수 현황

- 2021년에 접수된 보호관찰조사 총 22,999건 중 결정전조사가 18,096건(7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판결전조사 1,442건(6.3%), 청구전조사 1,344건(5.8%), 환경조사 1,185건(5.2%), 검사 결정전조사 932건(4.1%)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전체 보호관찰조사 접수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연간 26,000건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 이후 소폭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조사 종류별로는, 매년 결정전조사가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상승하여 2017년 63.8%에서 2019년 이후에는 76% 이상이였다, 판결전조사는 접수사건 수의 감소와 함께 비율도 줄어 2017년 7.7%에서 2020년 이후 6%대에 머물고 있다. 청구전조사와 검사 결정전조사는 2017년 이후 감소추세이다. 특히 검사 결정전조사는 2021년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지만, 2017년 3,626건에서 2020년부터 900건 대에 머무는 등 감소 폭이 컸다. 환경조사는 2017년(7.4%)을 제외하고는 연간 5~6%를 유지하고 있다,

표 2-4-1 보호관찰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7~2021)

연도 \ 유형	계	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환경조사
2017	26,024	2,003	16,606	3,626	1,869	1,920
	100%	7.7%	63.8%	13.9%	7.2%	7.4%
2018	26,528	2,053	19,662	1,678	1,639	1,496
	100%	7.7%	74.1%	6.3%	6.2%	5.6%
2019	24,858	1,797	19,007	1,092	1,520	1,442
	100%	7.2%	76.5%	4.4%	6.1%	5.8%
2020	23,176	1,596	17,813	909	1,493	1,365
	100%	6.9%	76.9%	3.9%	6.4%	5.9%
2021	22,999	1,442	18,096	932	1,344	1,185
	100%	6.3%	78.7%	4.1%	5.8%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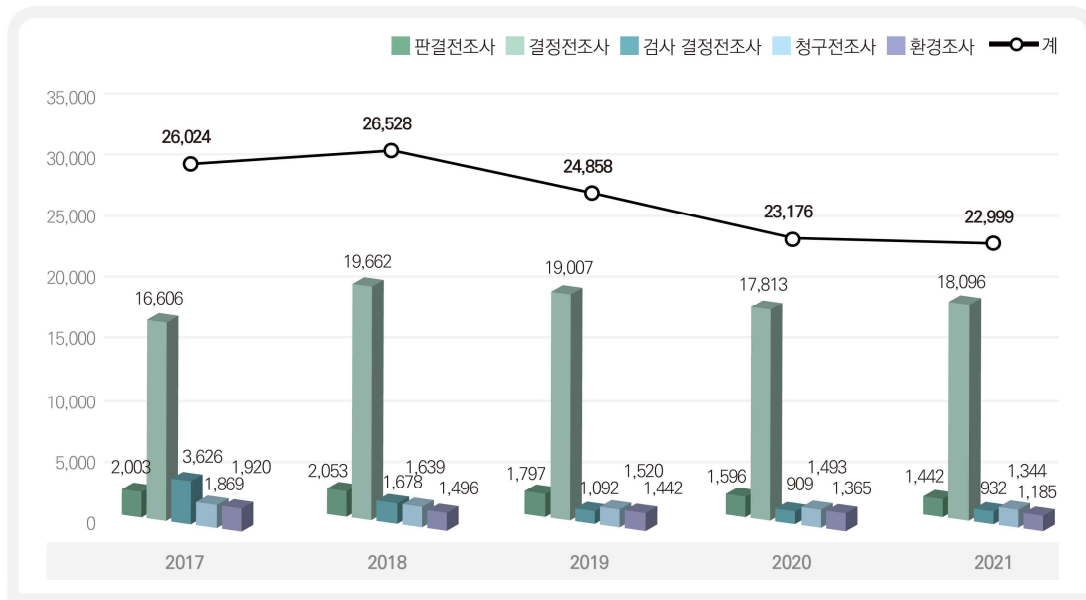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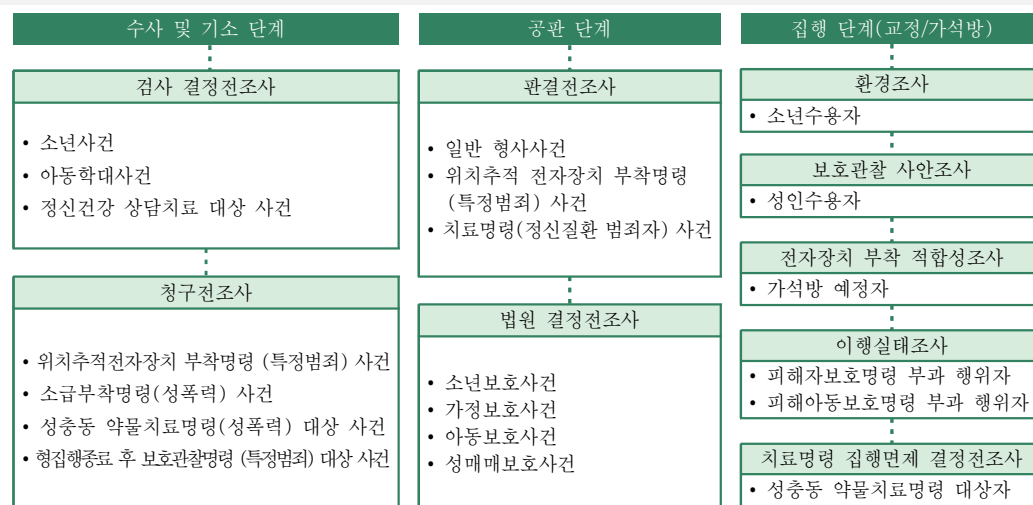


그림 2-4-1 보호관찰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7~2021)

→ 형사소송단계별 보호관찰조사 종류와 대상



➔ 보호관찰조사 종류별 대상, 목적 및 적용법조

구분	종류		조사대상	목적	적용법조
수사 및 기소 단계 (검찰)	검사 결정전조사		소년	기소 여부 등	• 「소년법」 제49조의2
			아동학대 행위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정신질환자	정신질환 여부와 상담·치료 필요성 판단	•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처리지침」
	청구 전 조사	부작 명령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판단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1조의8
		보호관찰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필요성 판단	
		소급 부작	성폭력	재범위험성 등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판단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제9112호)」 부칙 제2조
		약물치료명령	성폭력 (성도착자)	성도착 여부, 재범위험성 등 성충동 약물치료 필요성 판단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관한 법률」 제5조
공판 단계 (법원)	판 결 전 조 사	일반	성인, 소년	양형인자 등 조사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7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
		부작명령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집행유예 시 전자장치부착 필요성 판단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치료명령	주취, 약물 및 정신장애범죄	정신질환, 재범위험성, 치료 필요성 판단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결정전조사		소년사건	보호처분(또는 보호명령) 결정자료	• 「소년법」 제12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
			성매매사건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5조의7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 청구 피고인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 판단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집행 단계	환경조사 (소년원등)	소년원 등에 수용된 자	교정교육자료 활용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호관찰 사안조사	교도소 등에 수용된 자	석방 후 적응 가능성 등 가석방 심사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	가석방 예정자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의 조사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이행실태조사	가정폭력, 아동학대행위자	보호명령의 이행실태 파악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치료명령 집행 면제 결정전조사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집행 면제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관한 법률」 제8조의2

2) 기관별 접수 현황

- 2021년의 기관별 보호관찰조사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보호관찰소가 1,5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남부보호관찰소(1,412건), 대전보호관찰소(1,012건), 의정부보호관찰소(983건), 성남보호관찰소(953건), 고양보호관찰소(897건), 부산보호관찰소(880건) 등의 순이었다.

표 2-4-2 보호관찰기관별 보호관찰조사 접수사건 현황(2021)

기관	유형	계	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환경조사
전국		22,999	1,442	18,096	932	1,344	1,185
서울		1,551	31	1,200	85	193	42
서울동부		856	28	773	39	0	16
서울남부		1,412	38	1,213	20	96	45
서울북부		760	17	663	63	0	17
서울서부		750	7	721	3	0	19
의정부		983	10	869	3	55	46
고양		897	45	810	6	0	36
인천		565	17	441	0	59	48
인천서부		223	1	200	0	0	22
부천		577	4	534	19	0	20
수원		813	18	683	6	43	63
성남		953	4	894	8	16	31
여주		96	2	78	5	0	11
안산		425	24	293	9	61	38
평택		232	26	179	4	0	23
안양		136	35	75	12	0	14
춘천		174	4	141	9	15	5
강릉		141	3	33	98	4	3
원주		87	9	45	12	15	6
속초		36	4	13	17	0	2
영월		14	1	13	0	0	0
대전		1,012	269	574	8	115	46
홍성		282	14	220	6	34	8
공주		57	6	33	15	0	3
논산		63	8	39	10	0	6
서산		350	3	330	5	0	12
천안		495	44	324	84	0	43
청주		566	88	414	7	29	28
충주		138	29	108	0	0	1

기관 \ 유형	계	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환경조사
제천	55	0	53	1	0	1
영동	75	4	65	5	0	1
대구	450	43	290	7	79	31
대구서부	276	19	189	9	40	19
안동	238	0	221	11	0	6
경주	28	10	13	0	0	5
포항	112	9	84	9	0	10
구미	242	12	210	3	0	17
상주	35	9	18	4	0	4
영덕	90	0	70	16	0	4
부산	880	32	702	10	121	15
부산동부	724	21	648	6	0	49
부산서부	656	23	600	2	0	31
울산	399	54	143	106	52	44
창원	690	101	430	3	91	65
진주	217	19	161	13	0	24
통영	199	13	164	9	0	13
밀양	19	0	15	4	0	0
거창	35	2	26	2	0	5
광주	619	68	410	2	88	51
목포	373	89	232	41	0	11
순천	401	41	278	1	69	12
해남	278	44	217	13	0	4
전주	591	5	462	70	24	30
군산	230	15	176	5	0	34
정읍	116	0	99	8	0	9
남원	93	0	75	13	0	5
제주	234	20	132	6	45	31

2 판결전조사

1) 사범별 접수 현황

- 2021년의 판결전조사 접수사건(1,442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폭력사범이 280건(1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폭력사범 263건(18.2%), 사기횡령사범 224건(15.5%), 교통사범 151건(10.5%), 절도사범 141건(9.8%), 강력사범 134건(9.3%), 기타사범 128건(8.9%), 마약사범 65건(4.5%) 등의 순이었으며, 경제사범과 풍속사범은 50건 미만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사범별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폭력사범이 전체의 20% 내외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성폭력사범은 2018년(297건)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비율은 2017년 13.5%에서 계속 상승하여 2021년에는 18%를 넘겼다. 사기횡령사범은 2018년(271건)을 제외하고는 대개 220~230건을 유지하며 전체의 13~15%를 차지하였고, 교통사범은 2017년의 246건(12.3%) 이후 2018년과 2019년에는 180건 내외, 2020년과 2021년에는 150건 내외를 보이며 전체의 8~10%를 차지하였다.
- 절도사범은 2019년까지 300건 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251건으로 감소하였지만, 전체의 15~16%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150건 미만에 10% 미만을 기록하였다.
- 강력사범의 접수사건은 매년 감소하였으나 8~9%의 비율을 유지하였고, 마약사범은 2017년 20건에서 2019년 87건으로 증가하였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60건 대를 보이며 전체의 4% 내외를 차지하였다.

표 2-4-3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2,003	418	246	323	231	177	20	38	270	20	260
	100%	20.9%	12.3%	16.1%	11.5%	8.8%	1.0%	1.9%	13.5%	1.0%	13.0%
2018	2,053	429	180	313	271	172	57	56	297	37	241
	100%	20.9%	8.8%	15.2%	13.2%	8.4%	2.8%	2.7%	14.5%	1.8%	11.7%
2019	1,797	343	179	300	233	151	87	30	289	36	149
	100%	19.1%	10.0%	16.7%	13.0%	8.4%	4.8%	1.7%	16.1%	2.0%	8.3%
2020	1,596	324	148	251	213	141	60	35	271	14	139
	100%	20.3%	9.3%	15.7%	13.3%	8.8%	3.8%	2.2%	17.0%	0.9%	8.7%
2021	1,442	280	151	141	224	134	65	42	263	14	128
	100%	19.4%	10.5%	9.8%	15.5%	9.3%	4.5%	2.9%	18.2%	1.0%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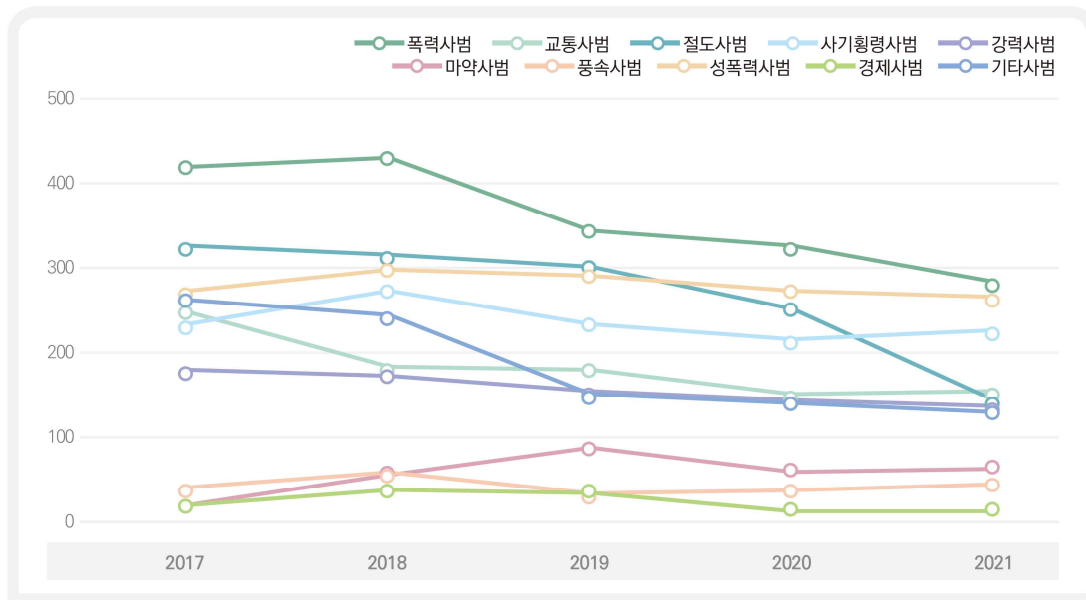


그림 2-4-2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2)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1년 판결전조사 접수사건(1,442건)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성인 1,176건(81.6%), 소년 266건(18.4%)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1,257건(87.2%), 여성 185건(12.8%)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성인과 소년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성인사건이 전체의 69~76%를 차지하다가 2021년에는 80%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성별에서는 매년 남성이 87%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2-4-4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계	연령별		성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2017	2,003	476	1,527	1,753	250
	100%	23.8%	76.2%	87.5%	12.5%
2018	2,053	513	1,540	1,846	207
	100%	25.0%	75.0%	89.9%	10.1%
2019	1,797	557	1,240	1,574	223
	100%	31.0%	69.0%	87.6%	12.4%
2020	1,596	384	1,212	1,418	178
	100%	24.1%	75.9%	88.8%	11.2%
2021	1,442	266	1,176	1,257	185
	100%	18.4%	81.6%	87.2%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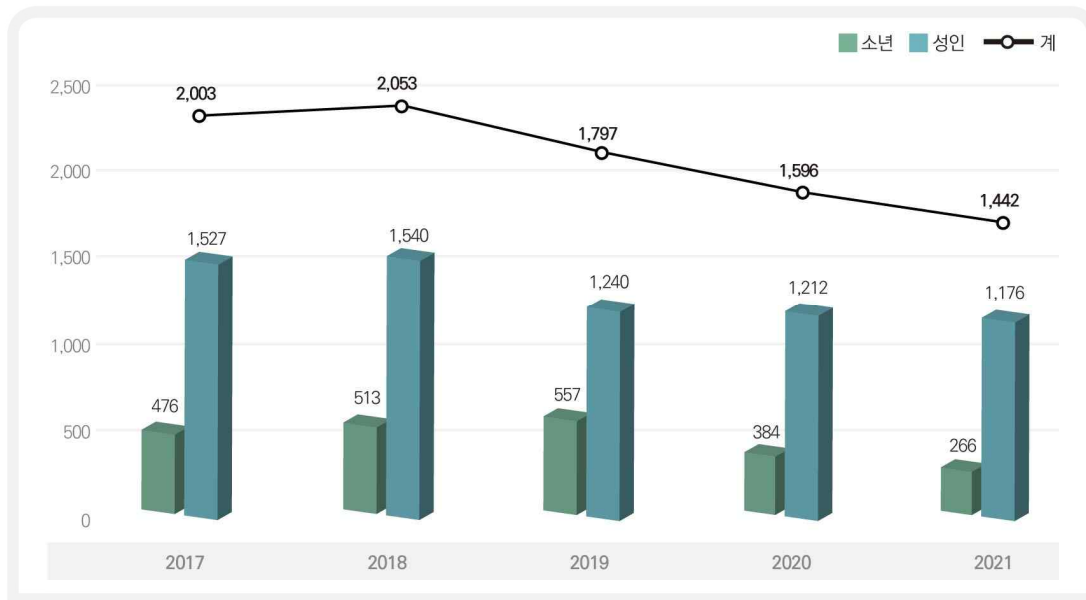


그림 2-4-3 판결전조사 연령별 접수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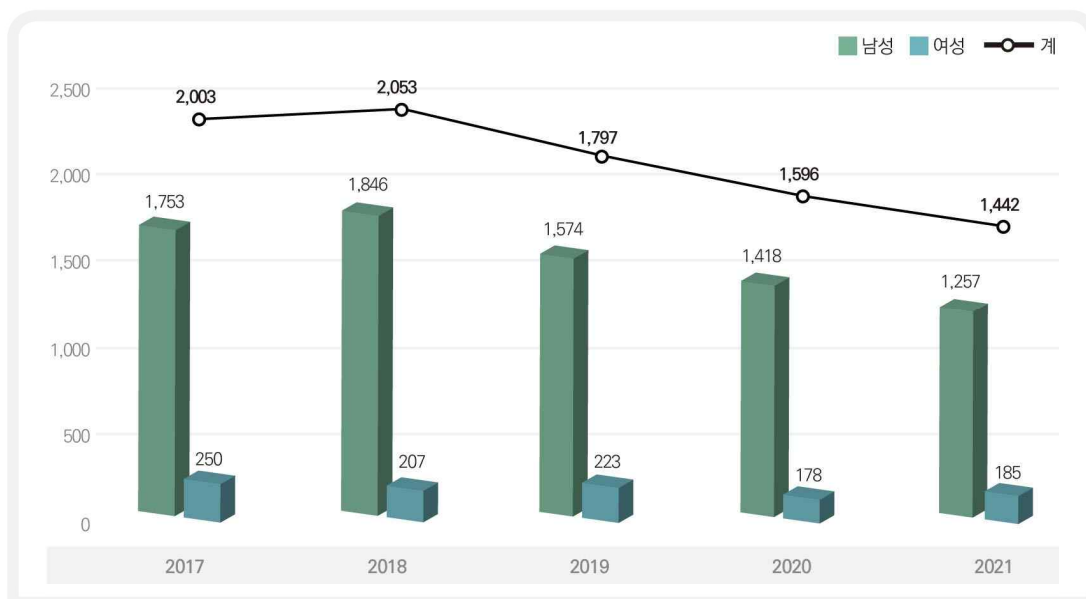


그림 2-4-4 판결전조사 성별 접수 현황(2017~2021)

- 최근 5년간 접수된 판결전조사를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한 후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5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2,003	431	45	1,322	205
	100%	90.5%	9.5%	86.6%	13.4%
2018	2,053	465	48	1,381	159
	100%	90.6%	9.4%	89.7%	10.3%
2019	1,797	510	47	1,065	175
	100%	91.6%	8.4%	85.9%	14.1%
2020	1,596	337	47	1,081	131
	100%	87.8%	12.2%	89.2%	10.8%
2021	1,442	232	34	1,025	151
	100%	87.2%	12.8%	87.2%	12.8%

3 결정전조사

1) 종류별 접수 현황

- 2021년에 접수된 결정전조사(18,096건) 중 가정보호사건¹⁶⁾이 8,491건(46.9%), 소년보호사건이 6,888건(38.1%)으로 가정보호사건과 소년보호사건 조사가 전체의 85.0%를 차지하였고, 아동보호사건¹⁷⁾이 2,660건(14.7%), 성매매보호사건이 49건(0.3%), 기타가 8건 등이었다.
- 최근 5년간 전체 결정전조사의 접수건수는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2017년(16,606건)에 비해 2021년에는 9.0% 증가하였다. 종류별 접수 현황에서는 아동보호사건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2021년의 접수사건이 2017년에 비해 262.9% 증가하였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에 8,60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연간 7,500~7,700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는 7,000건 미만이 접수되었다.
- 가정보호사건은 2017년 7,750건에서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10,260건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 이후 8,5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성매매보호사건은 2017년 327건, 2018년 163건, 2019년 52건 등으로 각각 직전 년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2020년부터 50건 내외를 유지하였고, 전체 조사 중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었다.

표 2-4-6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7~2021)

연도 \ 유형	계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 보호사건	기타
2017	16,606	7,795	7,750	733	327	1
	100%	46.9%	46.7%	4.4%	2.0%	0.0%
2018	19,597	8,601	9,842	986	163	5
	100%	43.9%	50.2%	5.1%	0.8%	0.0%
2019	19,007	7,578	10,260	1,115	52	2
	100%	39.9%	54.0%	5.9%	0.3%	0.0%
2020	17,813	7,644	8,685	1,426	51	7
	100%	42.9%	48.8%	8.0%	0.3%	0.0%
2021	18,096	6,888	8,491	2,660	49	8
	100%	38.1%	46.9%	14.7%	0.3%	0.0%

※ 기타 : 전자장치부착법,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결정전조사

16)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조사 포함

17)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조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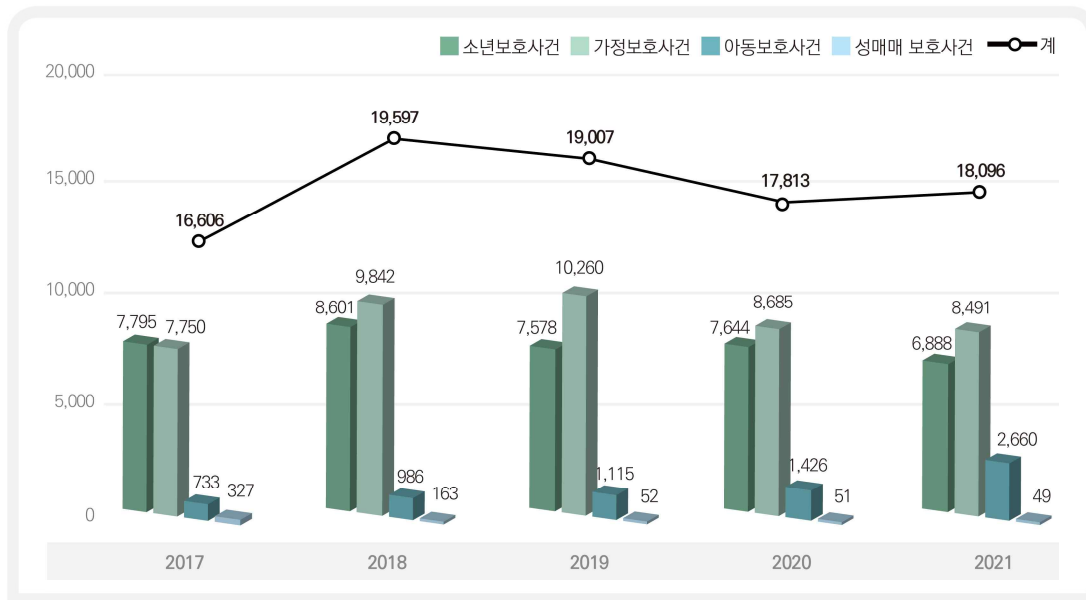


그림 2-4-5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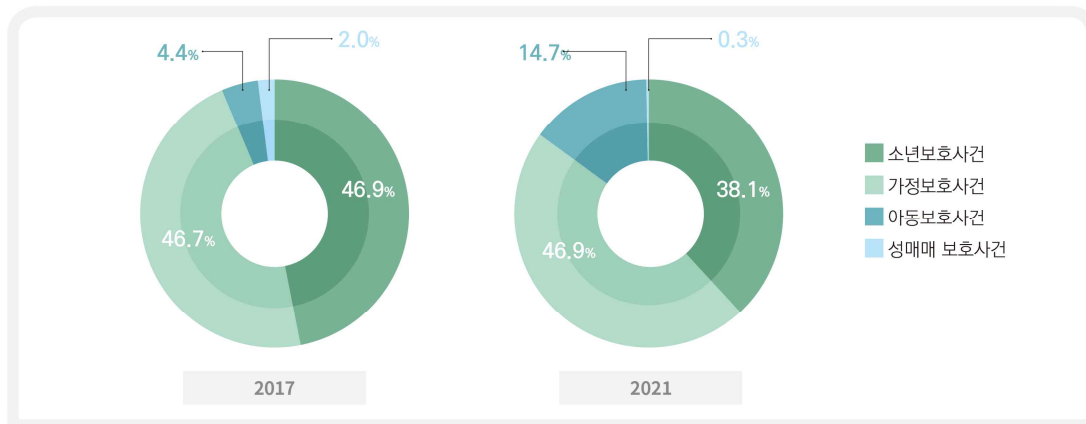


그림 2-4-6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17, 2021)

2) 사범별 접수 현황

- 2021년에 접수된 결정전조사를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폭력사범이 11,260건(6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사범 2,812건(15.5%), 절도사범 1,503건(8.3%), 교통사범 990건(5.5%), 성폭력사범 739건(4.1%), 사기횡령사범 555건(3.1%), 풍속사범 152건(0.8%) 등이었다. 그 외 강력·경제·마약 사범 등은 각각 50건 미만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사범별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폭력사범이 가장 많아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접수건수는 2017년(9,960건)부터 2019년(12,613건)까지 증가하다 2020년과

2021년에는 11,000건 수준을 유지하였다.

- 기타사범은 2017년(1,969건)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2017년 대비 42.8% 늘었고, 절도사범은 2017년(1,962건)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 내외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3.5% 감소하였다. 성폭력사범은 2018년 이후 연간 700건 내외가 접수되며 전체의 3~4%를 차지하였고, 강력·마약·경제 사범 등은 매년 각각 1% 미만이었다.

표 2-4-7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16,606	9,960	1,096	1,962	567	62	43	382	522	43	1,969
	100%	60.0%	6.6%	11.8%	3.4%	0.4%	0.3%	2.3%	3.1%	0.3%	11.9%
2018	19,662	12,353	1,058	2,194	701	92	26	220	737	48	2,233
	100%	62.8%	5.4%	11.2%	3.6%	0.5%	0.1%	1.1%	3.7%	0.2%	11.4%
2019	19,007	12,613	812	1,771	643	42	11	110	700	39	2,266
	100%	66.4%	4.3%	9.3%	3.4%	0.2%	0.1%	0.6%	3.7%	0.2%	11.9%
2020	17,813	10,923	1,024	1,964	662	55	2	139	612	53	2,379
	100%	61.3%	5.8%	11.0%	3.7%	0.3%	0.0%	0.8%	3.4%	0.3%	13.4%
2021	18,096	11,260	990	1,503	555	45	5	152	739	35	2,812
	100%	62.2%	5.5%	8.3%	3.1%	0.3%	0.0%	0.8%	4.1%	0.2%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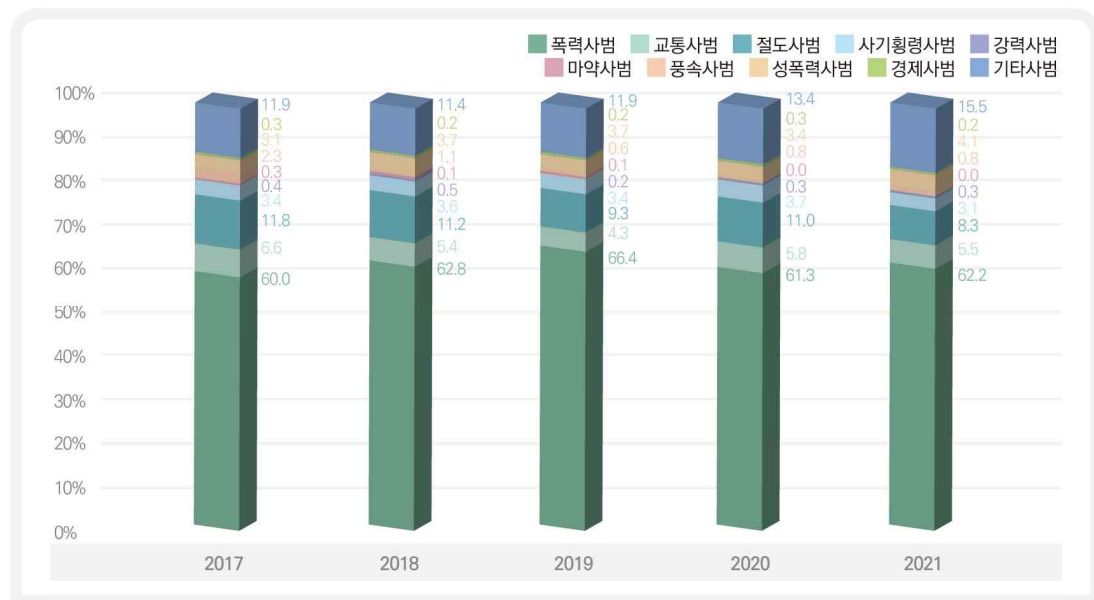


그림 2-4-7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 현황(2017~2021)

3)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1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각각 구분한 결과, 남성이 5,620건(81.6%), 여성이 1,268건(18.4%)이었고, 14세 이상이 6,320건(91.8%), 14세 미만이 568건(8.2%)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남성사건이 전체의 81% 내외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14세 이상이 91% 이상이었다. 다만, 14세 미만 사건의 비율이 2017년 6.1%(473건)에서 2021년 8.2%(568건)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2-4-8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계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4세 미만	14세 이상
2017	7,795	6,371	1,424	473	7,322
	100%	81.7%	18.3%	6.1%	93.9%
2018	8,601	6,983	1,618	647	7,954
	100%	81.2%	18.8%	7.5%	92.5%
2019	7,578	6,061	1,517	640	6,938
	100%	80.0%	20.0%	8.4%	91.6%
2020	7,644	6,124	1,520	576	7,068
	100%	80.1%	19.9%	7.5%	92.5%
2021	6,888	5,620	1,268	568	6,320
	100%	81.6%	18.4%	8.2%	91.8%

- 최근 5년간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를 14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성별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9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7,795	399	74	5,972	1,350
	100%	5.1%	0.9%	76.6%	17.3%
2018	8,601	516	131	6,467	1,487
	100%	6.0%	1.5%	75.2%	17.3%
2019	7,578	512	128	5,549	1,389
	100%	6.8%	1.7%	73.2%	18.3%
2020	7,644	434	142	5,690	1,378
	100%	5.7%	1.9%	74.4%	18.0%
2021	6,888	442	126	5,166	1,154
	100%	6.4%	1.8%	75.0%	16.8%

4)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1년에 접수한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각각 구분한 결과, 남성(6,919건, 81.5%)이 여성(1,572건, 18.5%)보다 약 4.4배 많았고, 대부분 성인사건(8,417건, 99.1%)으로 소년사건은 74건(0.9%)에 불과하였다.
- 최근 5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남성사건이 전체의 80% 이상이지만 여성사건의 비율이 2017년 15.5%에서 2021년 18.5%로 상승하였고, 성인사건이 전체의 9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4-10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소년	성인
2017	7,750	6,549	1,201	92	7,658
	100%	84.5%	15.5%	1.2%	98.8%
2018	9,842	8,289	1,553	136	9,706
	100%	84.2%	15.8%	1.4%	98.6%
2019	10,260	8,566	1,694	106	10,154
	100%	83.5%	16.5%	1.0%	99.0%
2020	8,685	7,236	1,449	50	8,635
	100%	83.3%	16.7%	0.6%	99.4%
2021	8,491	6,919	1,572	74	8,417
	100%	81.5%	18.5%	0.9%	99.1%

- 최근 5년간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를 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성별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11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7,750	75	17	6,474	1,184
	100%	81.5%	18.5%	84.5%	15.5%
2018	9,842	104	32	8,185	1,521
	100%	76.5%	23.5%	84.3%	15.7%
2019	10,260	81	25	8,485	1,669
	100%	76.4%	23.6%	83.6%	16.4%
2020	8,685	43	7	7,193	1,442
	100%	86.0%	14.0%	83.3%	16.7%
2021	8,491	53	21	6,866	1,551
	100%	71.6%	28.4%	81.6%	18.4%

5)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1년에 접수한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각각 분석한 결과, 남성이 1,651건(62.1%), 여성이 1,009건(37.9%)이었고, 성인이 2,659건(100%), 소년은 1건(0.0%)이었다. 최근 5년간 매년 남성이 전체의 62~66%, 성인이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2-4-12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소년	성인
2017	733	457	276	5	728
	100%	62.3%	37.7%	0.7%	99.3%
2018	986	650	336	3	983
	100%	65.9%	34.1%	0.3%	99.7%
2019	1,115	715	400	8	1,107
	100%	64.1%	35.9%	0.7%	99.3%
2020	1,426	886	540	3	1,423
	100%	62.1%	37.9%	0.2%	99.8%
2021	2,660	1,651	1,009	1	2,659
	100%	62.1%	37.9%	0.0%	100%

- 최근 5년간 접수된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를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13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733	3	2	454	274
	100%	60.0%	40.0%	62.4%	37.6%
2018	986	1	2	649	334
	100%	33.3%	66.7%	66.0%	34.0%
2019	1,115	6	2	709	398
	100%	75.0%	25.0%	64.0%	36.0%
2020	1,426	1	2	885	538
	100%	33.3%	66.7%	62.2%	37.8%
2021	2,660	0	1	1,651	1,008
	100%	0.0%	100%	62.1%	37.9%

6)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1년에 접수한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를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결과, 여성(39건, 79.6%)이 남성(10건, 20.4%)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성인(48건, 98.0%)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5년간의 접수사건에서도 대부분 성인, 여성이었다.

표 2-4-14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소년	성인
2017	327	26	301	27	300
	100%	8.0%	92.0%	8.3%	91.7%
2018	163	11	152	15	148
	100%	6.7%	93.3%	9.2%	90.8%
2019	52	12	40	1	51
	100%	23.1%	76.9%	1.9%	98.1%
2020	51	6	45	1	50
	100%	11.8%	88.2%	2.0%	98.0%
2021	49	10	39	1	48
	100%	20.4%	79.6%	2.0%	98.0%

- 최근 5년간 접수된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를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15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327	2	25	24	276
	100%	7.4%	92.6%	8.0%	92.0%
2018	163	1	14	10	138
	100%	6.7%	93.3%	6.8%	93.2%
2019	52	1	0	11	40
	100%	100%	0.0%	21.6%	78.4%
2020	51	0	1	6	44
	100%	0.0%	100%	12.0%	88.0%
2021	49	1	0	9	39
	100%	100%	0.0%	18.8%	81.3%

4 청구전조사

1) 종류별 접수 현황

- 2021년에 접수한 청구전조사(1,344건)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가 1,279건(95.1%),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가 60건(4.5%),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전조사가 5건(0.4%)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는 2017년 1,869건을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이지만, 2019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청구전조사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는 2018년 56건을 기록한 후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104건이었고, 2020년 이후 60건대를 유지하였다¹⁸⁾.

표 2-4-16 청구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7~2021)

연도	유형	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형집행 종료후 보호관찰명령
			소계	일반	소급		
2017		1,869	1,869	1,783	86	0	—
		100%	100%	95.4%	4.6%	0.0%	—
2018		1,638	1,580	1,543	37	2	56
		100%	96.5%	94.2%	2.3%	0.1%	3.4%
2019		1,520	1,410	1,362	48	6	104
		100%	92.8%	89.6%	3.2%	0.4%	6.8%
2020		1,493	1,425	1,388	37	3	65
		100%	95.5%	93.0%	2.5%	0.2%	4.3%
2021		1,344	1,279	1,246	33	5	60
		100%	95.1%	92.7%	2.4%	0.4%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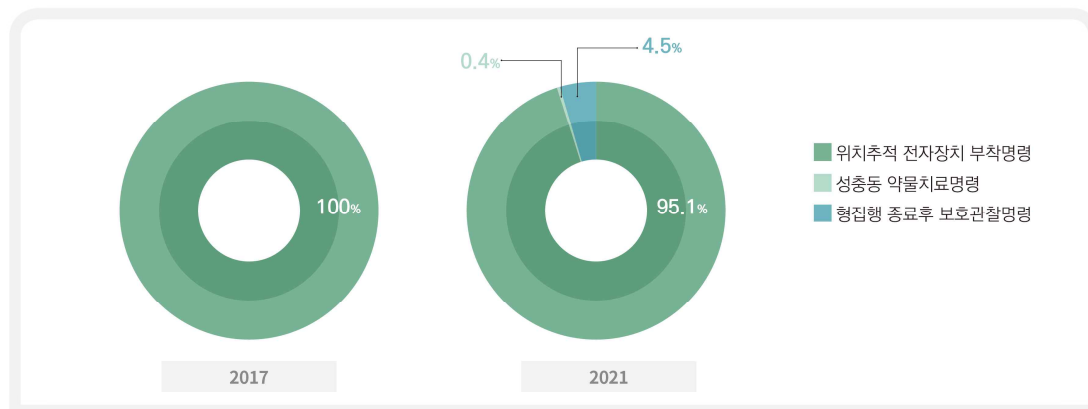


그림 2-4-8 청구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점유율(2017, 2021)

18)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는 2012년 12월 18일 시행되었으나, 공식통계 집계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에서의 구분은 2018년부터 이루어졌다.

2)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1년에 접수된 일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각 구분하면, 성인이 1,212건(97.3%), 소년이 34건(2.7%)이었고, 남성이 1,217건(97.7%), 여성이 29건(2.3%)이었다.

표 2-4-1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7~2021)

연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소년	성인
2017	1,783	1,745	38	141	1,642
	100%	97.9%	2.1%	7.9%	92.1%
2018	1,543	1,519	24	67	1,476
	100%	98.4%	1.6%	4.3%	95.7%
2019	1,362	1,337	25	76	1,286
	100%	98.2%	1.8%	5.6%	94.4%
2020	1,388	1,355	33	69	1,319
	100%	97.6%	2.4%	5.0%	95.0%
2021	1,246	1,217	29	34	1,212
	100%	97.7%	2.3%	2.7%	97.3%

- 최근 5년간 접수된 일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를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1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의 연령에 따른 성별 접수 현황(2017~2021)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1,783	134	7	1,611	31
	100%	95.0%	5.0%	98.1%	1.9%
2018	1,543	67	0	1,452	24
	100%	100%	0.0%	98.4%	1.6%
2019	1,362	75	1	1,262	24
	100%	98.7%	1.3%	98.1%	1.9%
2020	1,388	66	3	1,287	32
	100%	95.7%	4.3%	97.6%	2.4%
2021	1,246	34	0	1,183	29
	100%	100%	0.0%	97.6%	2.4%

3) 죄명별 접수 현황

- 2021년에 접수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일반) 1,246건을 죄명에 따라 구분하면, 성폭력이 997건(80.0%), 살인이 226건(18.1%), 강도가 20건(1.6%), 미성년자 유괴가 3건(0.3%)이었다. 이러한 죄명별 분포 양상은 최근 4년간 유지되고 있다.

표 2-4-19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일반) 접수사건의 범죄유형별 현황(2018~2021)

연도\범죄유형	계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2018	1,543	1,264	3	244	32
	100%	81.9%	0.2%	15.8%	2.1%
2019	1,362	1,106	4	221	31
	100%	81.2%	0.3%	16.2%	2.3%
2020	1,388	1,137	2	233	16
	100%	81.9%	0.1%	16.8%	1.2%
2021	1,246	997	3	226	20
	100%	80.0%	0.3%	18.1%	1.6%

5 검사 결정전조사

1) 종류별 접수 현황¹⁹⁾

- 2021년에 접수된 검사 결정전조사(932건)를 근거법률 등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한 결과, 소년법에 따른 조사가 474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사 455건(48.8%),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조사 3건(0.3%) 등이었다.
- 최근 4년간의 조사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20년에는 소년법에 따른 조사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사가 27% 내외였으나, 2019년과 2021년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사가 49% 수준으로 증가하고 소년법에 따른 조사는 5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2-4-20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8~2021)

연도	실시 근거	계	소년법	아동학대처벌법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처리 지침
2018		1,678	1,216	442	20
		100%	72.5%	26.3%	1.2%
2019		1,092	522	539	31
		100%	47.8%	49.4%	2.8%
2020		909	636	254	19
		100%	70.0%	27.9%	2.1%
2021		932	474	455	3
		100%	50.9%	48.8%	0.3%

2) 사범별 접수 현황

- 2021년에 접수된 검사에 의한 결정전조사를 사범별로 구분한 결과, 기타사범이 352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폭력사범 268건(28.8%), 성폭력사범 137건(14.7%), 절도사범 75건(8.0%)이었으며, 그 외 사범은 각각 40건 이하였다.

19) 「소년법」에 따른 검사 결정전조사는 2008년 6월 22일 시행되었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검사 결정전 조사는 2014년 9월 29일,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검사 결정전조사는 2016년 11월 28일 시행되었으나, 공식통계 집계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에서의 구분은 2018년부터 이루어졌다.

표 2-4-21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연도\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3,626	1,172	294	957	164	42	14	20	183	15	765
	100%	32.3%	8.1%	26.4%	4.5%	1.2%	0.4%	0.6%	5.0%	0.4%	21.1%
2018	1,678	613	72	315	68	21	0	11	148	7	423
	100%	36.5%	4.3%	18.8%	4.1%	1.3%	0.0%	0.7%	8.8%	0.4%	25.2%
2019	1,092	446	40	92	27	1	0	8	92	5	381
	100%	40.8%	3.7%	8.4%	2.5%	0.1%	0.0%	0.7%	8.4%	0.5%	34.9%
2020	909	261	69	165	29	7	1	17	145	1	214
	100%	28.7%	7.6%	18.1%	3.2%	0.8%	0.1%	1.9%	16.0%	0.1%	23.5%
2021	932	268	26	75	40	19	1	11	137	3	352
	100%	28.8%	2.8%	8.0%	4.3%	2.0%	0.1%	1.2%	14.7%	0.3%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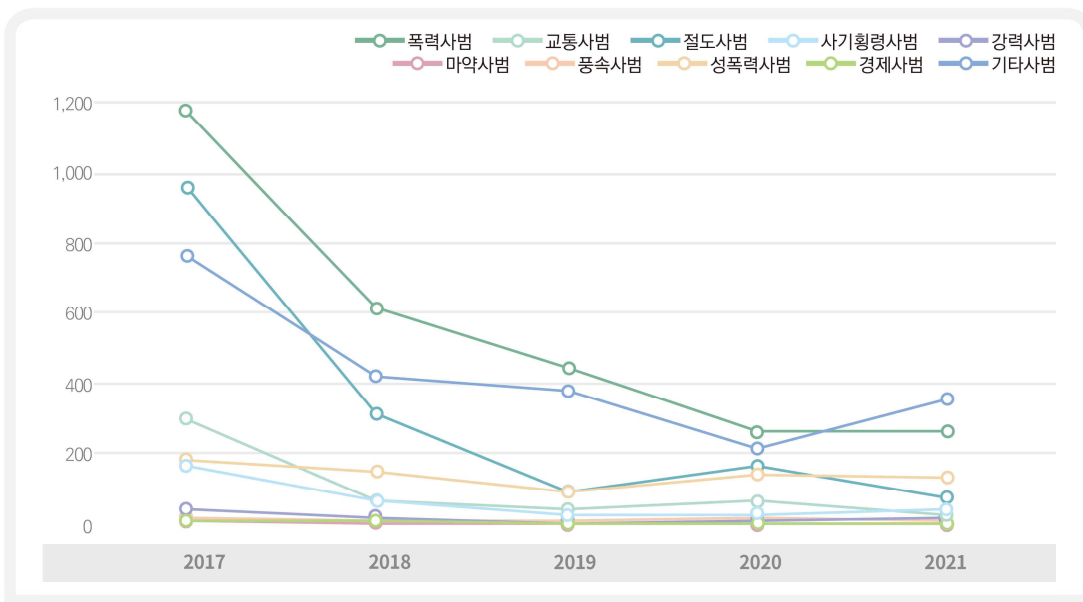


그림 2-4-9 검사 결정전조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7~2021)

3)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1년에 접수된 검사 결정전조사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각각 구분하면, 남성이 654건(70.2%)으로 여성(278건, 29.8%)보다 2.4배 이상 많았고, 소년이 408건(43.8%), 성인 524건(56.2%)으로 성인이 많았다.
- 최근 5년간의 접수사건 중 매년 남성이 70%대를 차지하였다. 연령에 따른 비율에서는 대체로 소년사건의 비율이 70~80%대로 성인보다 많지만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검사 결정전조사의

접수건수가 증가한 2019년과 2021년에는 성인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면서 소년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2-4-22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소년	성인
2017	3,626	2,768	858	2,967	659
	100%	76.3%	23.7%	81.8%	18.2%
2018	1,678	1,253	425	1,225	453
	100%	74.7%	25.3%	73.0%	27.0%
2019	1,092	747	345	528	564
	100%	68.4%	31.6%	48.4%	51.6%
2020	909	717	192	642	267
	100%	78.9%	21.1%	70.6%	29.4%
2021	932	654	278	408	524
	100%	70.2%	29.8%	43.8%	56.2%

- 최근 5년간 접수된 검사 결정전조사를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별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23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3,626	2,387	580	381	278
	100%	80.5%	19.5%	57.8%	42.2%
2018	1,678	972	253	281	172
	100%	79.3%	20.7%	62.0%	38.0%
2019	1,092	422	106	325	239
	100%	79.9%	20.1%	57.6%	42.4%
2020	909	562	80	155	112
	100%	87.5%	12.5%	58.1%	41.9%
2021	932	352	56	302	222
	100%	86.3%	13.7%	57.6%	42.4%

6 환경조사

1) 사범별 접수 현황

- 2021년의 환경조사 접수사건을 사범별로 구분하면, 기타사범이 695건(5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사범 129건(10.9%), 절도사범 122건(10.3%), 성폭력사범 99건(8.4%)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사범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기타사범이 가장 많았고,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여 2017년에는 45.4%였다가 2019년부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절도사범은 2017년 18.9%에서 2018년 이후 13% 이하로 감소하였고, 폭력사범은 매년 사건 수의 증감은 보였지만 꾸준히 10% 이상을 차지하였다. 성폭력사범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1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1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표 2-4-24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1,920	193	81	362	97	72	6	12	221	5	871
	100%	10.1%	4.2%	18.9%	5.1%	3.8%	0.3%	0.6%	11.5%	0.3%	45.4%
2018	1,496	170	58	186	101	39	5	3	165	5	764
	100%	11.4%	3.9%	12.4%	6.8%	2.6%	0.3%	0.2%	11.0%	0.3%	51.1%
2019	1,442	149	65	177	74	37	4	2	149	5	780
	100%	10.3%	4.5%	12.3%	5.1%	2.6%	0.3%	0.1%	10.3%	0.3%	54.1%
2020	1,365	171	60	177	65	38	1	1	90	3	759
	100%	12.5%	4.4%	13.0%	4.7%	2.8%	0.1%	0.1%	6.6%	0.2%	55.6%
2021	1,185	129	62	122	48	25	2	2	99	1	695
	100%	10.9%	5.2%	10.3%	4.1%	2.1%	0.2%	0.2%	8.4%	0.1%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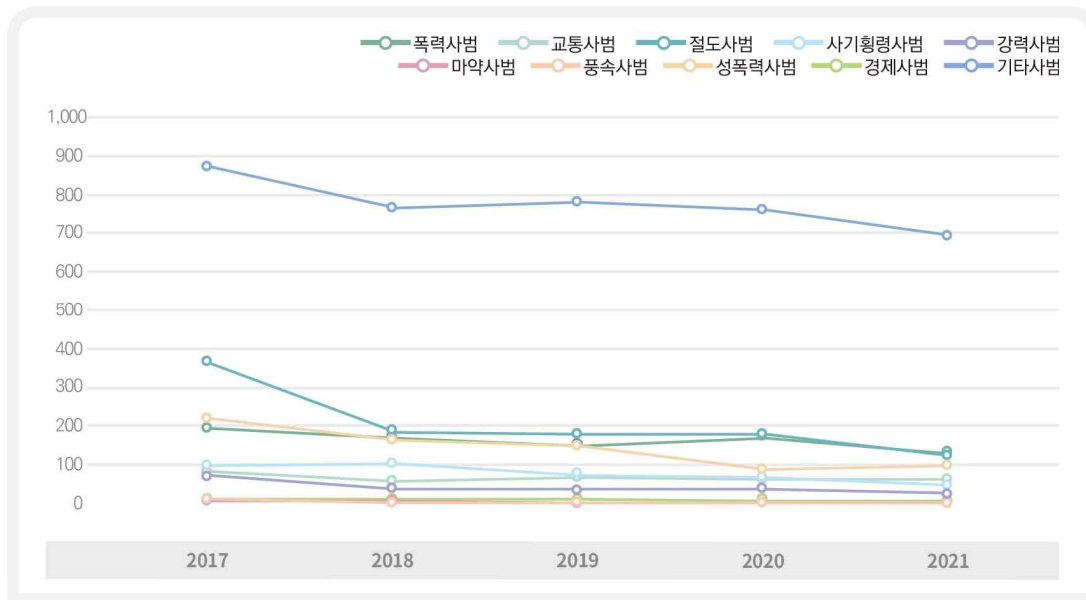


그림 2-4-10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2)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1년에 접수된 환경조사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각각 구분한 결과, 남성이 943건(79.6%)으로 여성(242건, 20.4%)보다 약 3.9배 많았고, 소년이 1,174건으로 99.1%를 차지하였다.
- 최근 5년간의 성별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매년 80% 내외를 차지하지만 여성의 비율이 2017년 13.0%에서 2020년 20.4%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소년이 매년 전체의 96% 이상을 차지하는데, 성인의 감소추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2-4-25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소년	성인
2017	1,920	1,670	250	1,851	69
	100%	87.0%	13.0%	96.4%	3.6%
2018	1,496	1,239	257	1,472	24
	100%	82.8%	17.2%	98.4%	1.6%
2019	1,442	1,185	257	1,430	12
	100%	82.2%	17.8%	99.2%	0.8%
2020	1,365	1,117	248	1,351	14
	100%	81.8%	18.2%	99.0%	1.0%
2021	1,185	943	242	1,174	11
	100%	79.6%	20.4%	99.1%	0.9%

- 최근 5년간 접수된 환경조사를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26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1,920	1,602	249	68	1
	100%	86.5%	13.5%	98.6%	1.4%
2018	1,496	1,215	257	24	0
	100%	82.5%	17.5%	100%	0.0%
2019	1,442	1,173	257	12	0
	100%	82.0%	18.0%	100%	0.0%
2020	1,365	1,105	246	12	2
	100%	81.8%	18.2%	85.7%	14.3%
2021	1,185	958	216	10	1
	100%	80.9%	18.2%	0.8%	0.1%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numerous concentric, dotted arcs that form a circular shape, centered behind the title text.

통계분석

2022 범죄예방정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Chapter 3

전자감독

제1절 전자감독

제2절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전자감독

➔ 전자감독제도란?

- »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및 가석방되는 모든 범죄자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이동경로 확인 및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

➔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및 확대

- » 성폭력·살인사건의 연이은 발생*으로 성폭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민 불안감 해소와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 유영철 사건('03.~'04.), 정남규 사건('04.~'06.), 용산 초등학교 성폭력살인사건('06.2.) 등



-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대상 범죄는 2008년 제도 도입 초기 성폭력범죄로 한정되었다가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죄, 2010년 살인범죄, 2014년 강도범죄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의 범위가 기존의 특정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고, 형사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제도도 시행되었다.

| 법률 변천 |



- » 미국 등 주요국은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와 국가예산 절감 등을 위해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1983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 실시되었고, 현재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1 접수 현황²⁰⁾

1) 범죄유형별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접수한 전자감독 사건의 범죄유형별 현황

지표정의

- 특정범죄 :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범죄
- 일반범죄 : 특정범죄를 제외한 범죄

- 2021년의 전자감독 접수사건을 범죄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 일반범죄가 4,757건(85.0%), 특정범죄가 842건(15.0%)이었고, 특정범죄로는 성폭력범죄 321건(5.7%), 살인범죄 373건(6.7%), 강도범죄 147건(2.6%),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1건(0.0%)이었다.
- 최근 5년간 전체 접수사건은 2017년 1,154건에서 2018년 929건, 2019년 830건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가석방 대상이 일반범죄로까지 확대되면서 추세가 반전되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87.1%, 2021년에는 135.0% 등이 폭증하였다.
- 특정범죄의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는 2017년 504건, 2018년 392건, 2019년 368건 등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3.3%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3.0% 감소하였다. 살인 범죄는 2017년(417건)부터 2019년(302건)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강도 범죄는 2017년에 228건을 기록한 후 매년 150건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가석방자 전자감독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하다가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범죄에 대해 가석방 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2020년부터 전자감독 접수사건에 일반범죄가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사건 수가 특정범죄를 넘어섰다.

20)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 제외

표 3-1-1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범죄유형별 현황(2017~2021)

연도	범죄유형	계	일반범죄	특정범죄			
				소계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2017		1,154	—	1,154	504	5	417
		100%	—	100%	43.7%	0.4%	36.1%
2018		929	—	929	392	2	397
		100%	—	100%	42.2%	0.2%	42.7%
2019		830	—	830	368	2	302
		100%	—	100%	44.3%	0.2%	36.4%
2020		2,383	1,525	858	417	2	311
		100%	64.0%	36.0%	17.5%	0.1%	13.0%
2021		5,599	4,757	842	321	1	373
		100%	85.0%	15.0%	5.7%	0.0%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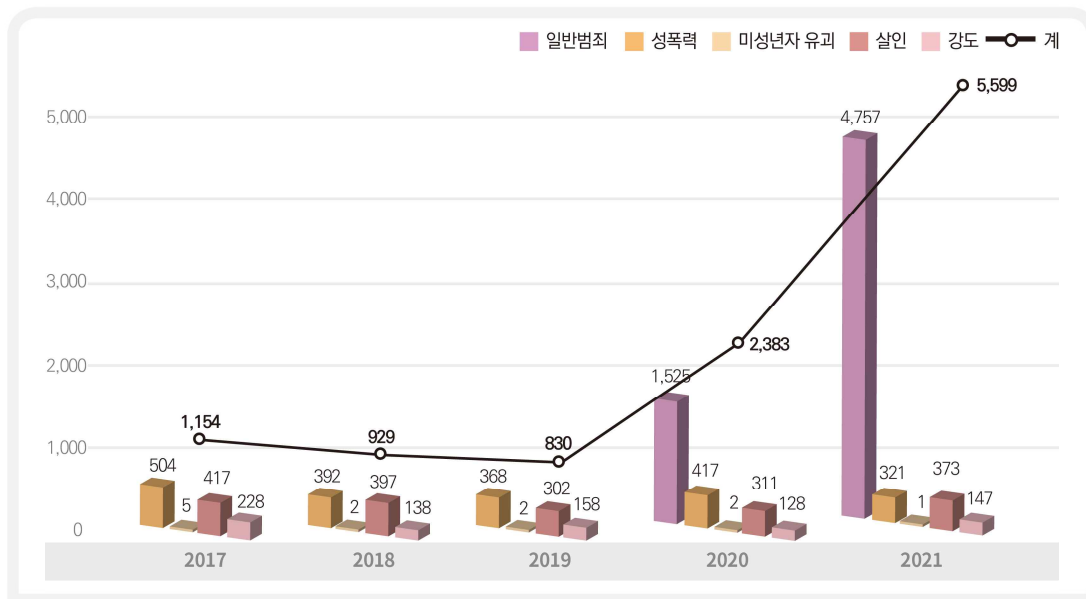


그림 3-1-1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범죄유형별 현황(2017~2021)

2) 처분유형별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접수한 전자감독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

지표정의

- 가석방 : 「형집행법」 제122조에 의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전자장치 부착 가석방이 결정된 사건
- 가중료 : 「치료감호법」 제22조에 의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전자장치 부착 가중료가 결정된 사건
- 가출소 : 구 「사회보호법」 제5조에 의한 보호감호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전자장치 부착 가출소가 결정된 사건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 및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사건
- 형기종료 :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에 의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사건

- 2021년 전자감독 접수사건을 처분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가석방이 5,186건으로 92.6%를 차지하였고, 형기종료 365건(6.5%), 가중료 40건(0.7%), 집행유예 6건(0.1%), 가출소 2건(0.1%)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처분유형별 현황에서, 가석방 사건 수는 2019년까지 감소하였으나 가석방 전자감독의 대상이 일반범죄로까지 확대되면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62.2% 폭증하였고 2021년에도 전년 대비 173.7% 급증하였다.
- 가중료는 2018년 41건으로 전년 대비 54.9% 감소한 후 연간 40건 대를 유지하였고, 가출소는 2017년(30건)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9년부터 10건 미만을 기록하였다, 일반 형기종료는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매년 300건을 상회하였으며, 소급 형기종료는 2020년에 전년보다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3-1-2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연도	처분유형	계	가석방	가중료	가출소	집행유예	형기종료		
							소계	일반	소급
2017		1,154	560	91	30	12	461	382	79
		100%	48.5%	7.9%	2.6%	1.0%	40.0%	33.1%	6.8%
2018		929	535	41	13	9	331	301	30
		100%	57.6%	4.4%	1.4%	1.0%	35.6%	32.4%	3.2%
2019		830	410	41	7	11	361	340	21
		100%	49.4%	4.9%	0.9%	1.3%	43.5%	41.0%	2.5%
2020		2,383	1,895	49	5	6	428	392	36
		100%	79.5%	2.1%	0.2%	0.3%	17.9%	16.4%	1.5%
2021		5,599	5,186	40	2	6	365	349	16
		100%	92.6%	0.7%	0.1%	0.1%	6.5%	6.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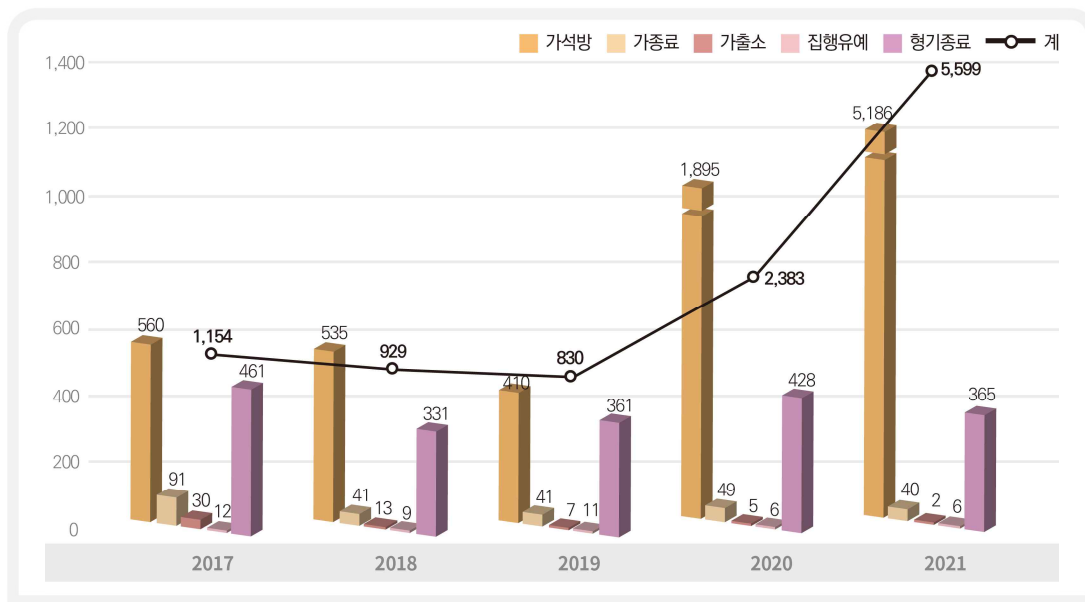


그림 3-1-2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3) 처분유형 및 범죄유형에 따른 현황

- 최근 5년간의 전자감독 접수사건을 처분유형 및 범죄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3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처분유형 및 범죄유형 현황(2017~2021)

연도	총계	범죄유형	처분유형							
			계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집행유예	형기종료		
								소계	일반	소급
2017	1,154	성폭력	504	3	37	15	11	438	359	79
		미성년자 유괴	5	1	0	0	0	4	4	-
		살인	417	362	38	4	1	12	12	-
		강도	228	194	16	11	0	7	7	-
2018	929	성폭력	392	46	17	7	7	315	285	30
		미성년자 유괴	2	1	0	0	0	1	1	-
		살인	397	359	21	1	2	14	14	-
		강도	138	129	3	5	0	1	1	-
2019	830	성폭력	368	0	14	2	9	343	322	21
		미성년자 유괴	2	1	0	0	1	0	0	-
		살인	302	272	15	1	1	13	13	-
		강도	158	137	12	4	0	5	5	-
2020	2,383	성폭력	417	1	12	1	6	397	361	36
		미성년자 유괴	2	0	0	0	0	2	2	-
		살인	311	262	32	0	0	17	17	-
		강도	128	107	5	4	0	12	12	-
		일반범죄	1,525	1,525	0	0	0	0	0	-
2021	5,599	성폭력	321	4	16	0	6	295	279	16
		미성년자 유괴	1	0	0	0	0	1	1	-
		살인	373	302	17	0	0	54	54	-
		강도	147	123	7	2	0	15	15	-
		일반범죄	4,757	4,757	0	0	0	0	0	-

4) 전자장치 부착기간별 현황

- 2021년의 전자감독 접수사건을 부착기간에 따라 구분한 결과, 3월 미만인 2,763건(49.4%), 3월 이상~6월 미만인 1,361건(24.3%), 6월 이상~1년 미만인 792건(14.1%), 1년 이상~5년 미만인 322건(5.8%), 10년 이상~20년 미만인 221건(3.9%), 5년 이상~10년 미만인 107건(1.9%), 20년 이상~30년 미만인 33건(0.6%)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3월 미만 사건 수는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에 전년 대비 187.1%, 2021년에도 전년 대비 135% 증가하였고, 부착기간이 5년 이상인 모든 사건은

3월 미만 사건의 증가에 따라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부터 크게 낮아졌지만 사건 수는 연간 330~390건 범위 안에서 증감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1-4 전자장치 접수사건의 부착기간별 현황(2017~2021)

기간 연도	계	3월 미만	3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2017	1,154	84	181	151	345	176	194	23	0
	100%	7.3%	15.7%	13.1%	29.9%	15.2%	16.8%	2.0%	0.0%
2018	929	60	140	159	243	90	216	21	0
	100%	6.5%	15.1%	17.1%	26.2%	9.7%	23.2%	2.2%	0.0%
2019	830	42	93	138	219	133	181	24	0
	100%	5.1%	11.2%	16.6%	26.4%	16.0%	21.8%	2.9%	0.0%
2020	2,383	1,137	422	218	218	107	247	34	0
	100%	47.7%	17.7%	9.1%	9.1%	4.5%	10.4%	1.5%	0.0%
2021	5,599	2,763	1,361	792	322	107	221	33	0
	100%	49.4%	24.3%	14.1%	5.8%	1.9%	3.9%	0.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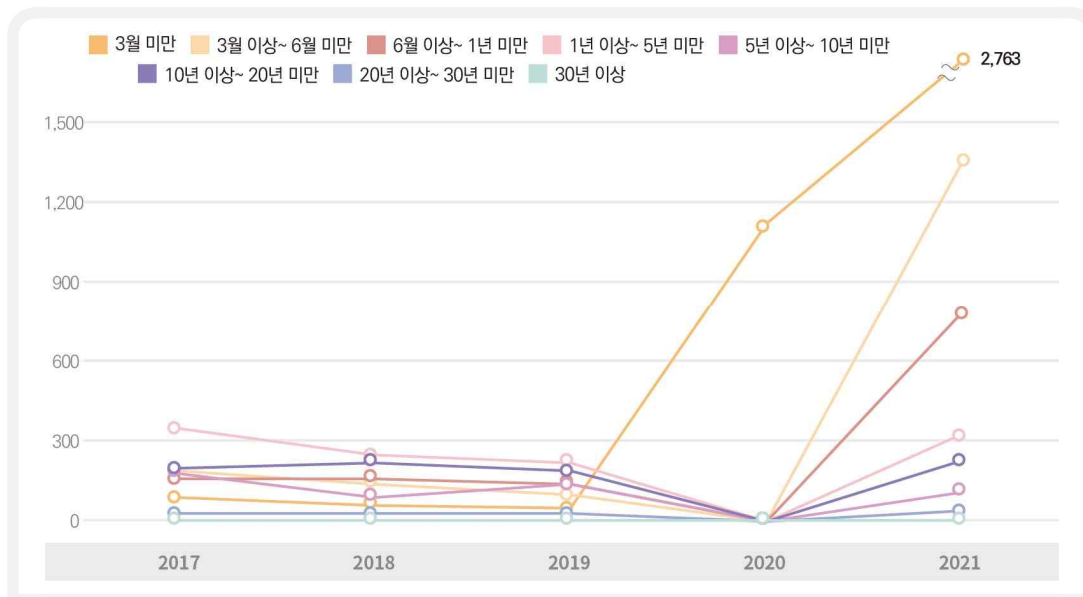


그림 3-1-3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부착기간별 현황(2017~2021)

5) 성별 현황

- 2021년에 접수된 전자감독 사건 중 남성이 5,191건(92.7%), 여성이 408건(7.3%)이었다. 최근 5년간 남성의 비율은 2019년까지 96% 내외였고 2020년 이후로는 94% 이하를 보였다.

표 3-1-5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성별	계	여성	남성
2017		1,154	38	1,116
		100%	3.3%	96.7%
2018		929	40	889
		100%	4.3%	95.7%
2019		830	24	806
		100%	2.9%	97.1%
2020		2,383	144	2,239
		100%	6.0%	94.0%
2021		5,599	408	5,191
		100%	7.3%	92.7%

6) 성별에 따른 범죄유형 현황

- 2021년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범죄유형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여성은 일반범죄가 90.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살인 8.1%, 강도가 0.7%이었으며 성폭력은 없었다. 남성사건에서도 일반범죄가 84.0%로 가장 많았지만 성폭력 7.4%, 살인 5.9%, 강도 2.7% 등으로, 여성에 비해 성폭력과 강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6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범죄유형별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성별	일반범죄	특정범죄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2017	여성		—	1	0	32	5
			—	2.6%	0.0%	84.2%	13.2%
	남성		—	503	5	385	223
			—	45.1%	0.4%	34.5%	20.0%
2018	여성		—	0	0	36	4
			—	0.0%	0.0%	90.0%	10.0%
	남성		—	392	2	361	134
			—	44.1%	0.2%	40.6%	15.1%
2019	여성		—	0	0	22	2
			—	0.0%	0.0%	91.7%	8.3%
	남성		—	368	2	280	156
			—	45.7%	0.2%	34.7%	19.4%

연도	구분	성별	일반범죄	특정범죄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2020	여성		101	0	0	39	4
			70.1%	0.0%	0.0%	27.1%	2.8%
	남성		1,424	417	2	272	124
			63.6%	18.6%	0.1%	12.2%	5.5%
2021	여성		371	0	1	33	3
			90.9%	0.0%	0.3%	8.1%	0.7%
	남성		4,360	384	3	304	140
			84.0%	7.4%	0.1%	5.8%	2.7%

7) 성별에 따른 처분유형 현황

- 2021년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처분유형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성사건은 가석방이 396건(97.1%)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가중료가 10건(2.5%), 형기종료가 2건(0.5%)이었다. 남성사건에서도 가석방이 4,792건(92.3%)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외로 형기종료가 361건(7.0%), 가중료 30건(0.6%), 집행유예 6건(0.1%)으로, 형기종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7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성별	가중료	가출소	가석방	형기종료	집행유예
2017	여성		5	0	32	1	0
			13.2%	0.0%	84.2%	2.6%	0.0%
	남성		86	30	528	460	12
			7.7%	2.7%	47.3%	41.2%	1.1%
2018	여성		6	0	34	0	0
			15.0%	0.0%	85.0%	0.0%	0.0%
	남성		35	13	456	376	9
			3.9%	1.5%	51.3%	42.3%	1.0%
2019	여성		1	0	23	0	0
			4.2%	0.0%	95.8%	0.0%	0.0%
	남성		40	7	387	361	11
			4.9%	0.9%	48.0%	44.8%	1.4%
2020	여성		10	0	133	1	0
			6.9%	0.0%	92.4%	0.7%	0.0%
	남성		39	5	1,762	427	6
			1.7%	0.2%	78.7%	19.1%	0.3%
2021	여성		10	0	396	2	0
			2.5%	0.0%	97.1%	0.5%	0.0%
	남성		30	2	4,792	361	6
			0.6%	0.0%	92.3%	7.0%	0.1%

2 현재원 현황²¹⁾

개 요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집행 중인 전자감독사건(전자보석 포함)의 범죄유형별, 연령별 현황

지표정의

- 현재원 :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전자감독을 집행 중인 사건
- 범죄유형 : 특정범죄(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와 일반범죄(특정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구분

(1) 개요

-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전자감독 현재원은 총 4,316건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다. 전자감독 현재원은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였는데, 특히 가석방 대상 범죄가 일반범죄로 확대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0.2% 증가하였다,

표 3-1-8 전자감독 현재원의 전년 대비 증감률(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현재원(명)	2,981	3,126	3,111	4,052	4,316
전년 대비 증감률	10.6%	4.9%	-0.5%	30.2%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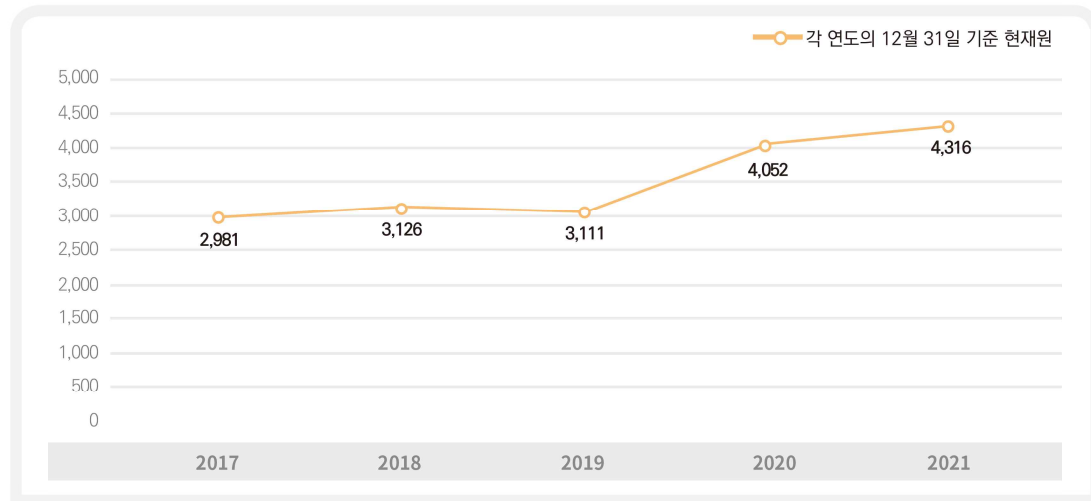


그림 3-1-4 전자감독 현재원의 전년 대비 증감률(2017~2021)

21)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 포함

(2) 범죄유형별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전자감독 현재원(4,316건) 중 성폭력범죄가 2,597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반범죄 1,081건(25.0%), 살인 508건(11.8%), 강도 115건(2.7%), 미성년자 유괴 15건(0.3%) 등이었다.

표 3-1-9 전자감독 현재원 현황(2017~2021)

연도	사범	계	일반범죄	특정범죄			
				소계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2017		2,981	—	2,981	2,373	11	464
		100%	—	100%	79.6%	0.4%	15.6%
2018		3,126	—	3,126	2,423	12	562
		100%	—	100%	77.5%	0.4%	18.0%
2019		3,111	6	3,105	2,501	16	473
		100%	0.2%	100%	80.4%	0.5%	15.2%
2020		4,052	910	3,142	2,571	14	452
		100%	22.5%	77.5%	63.4%	0.3%	11.2%
2021		4,316	1,081	3,235	2,597	15	508
		100%	25.0%	75.0%	60.2%	0.3%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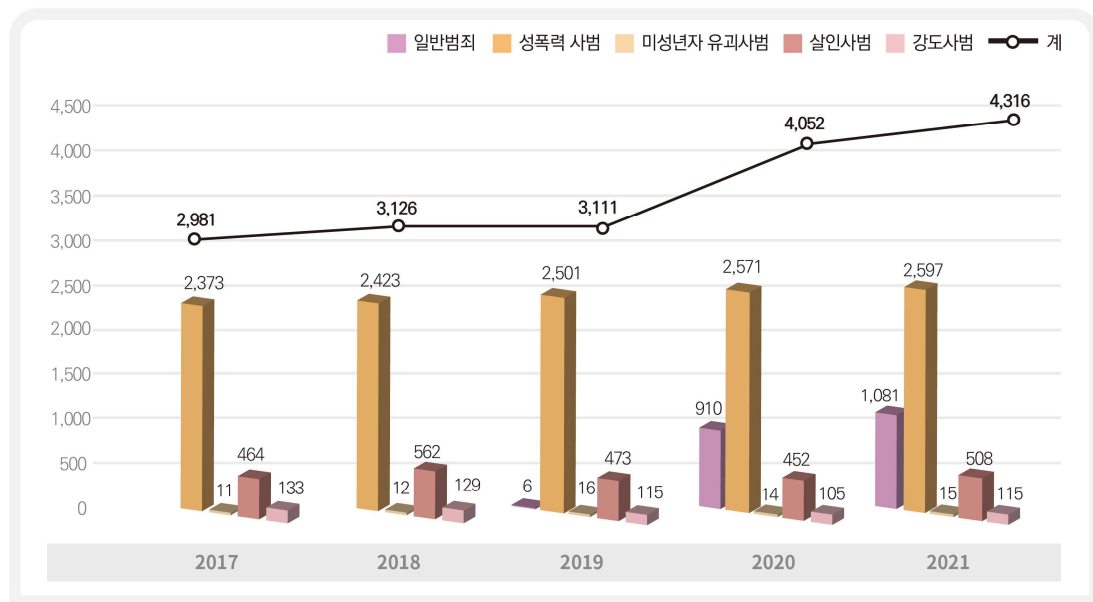


그림 3-1-5 전자감독 현재원 현황(2017~2021)

(3) 연령별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전자감독 현재원을 연령에 따라 구분한 결과, 50대가 1,294건(30.0%), 40대가 1,231건(28.5%)으로 40대와 50대가 전체의 58.5%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30대가 796건(18.4%), 20대가 247건(5.7%)이었다. 또한, 60대가 638건(14.8%), 70대가 97건(2.2%), 80세 이상 17건(0.4%) 등으로, 60대 이상이 총 17.4%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는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1년에는 50대의 비율이 40대를 추월하였다. 60대도 50대와 함께 2020년부터 사건수가 급증하여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09.5%, 2021년에도 전년 대비 20.8% 증가하였다.
- 30대는 2017년 816건(27.4%)에서 2018년 749건(23.9%), 2019년 633건(20.3%) 등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 795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 미만을 보였다. 20대의 사건 수는 2017년(365건)부터 2019년(186건)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315건) 증가하였지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1.6% 감소하였다.

표 3-1-10 전자감독 현재원의 연령별 현황(2017~2021)

연도\연령	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2017	2,981	22	365	816	976	592	162	42	6
	100%	0.7%	12.3%	27.4%	32.7%	19.9%	5.4%	1.4%	0.2%
2018	3,126	2	212	749	966	853	265	70	9
	100%	0.1%	6.8%	23.9%	30.9%	27.3%	8.5%	2.2%	0.3%
2019	3,111	0	186	633	958	891	356	77	10
	100%	0.0%	6.0%	20.4%	30.8%	28.6%	11.4%	2.5%	0.3%
2020	4,052	0	315	796	1,176	1,129	528	94	14
	100%	0.0%	7.8%	19.6%	29.0%	27.9%	13.0%	2.3%	0.4%
2021	4,316	0	247	792	1,231	1,294	638	97	17
	100%	0.0%	5.7%	18.4%	28.5%	30.0%	14.8%	2.2%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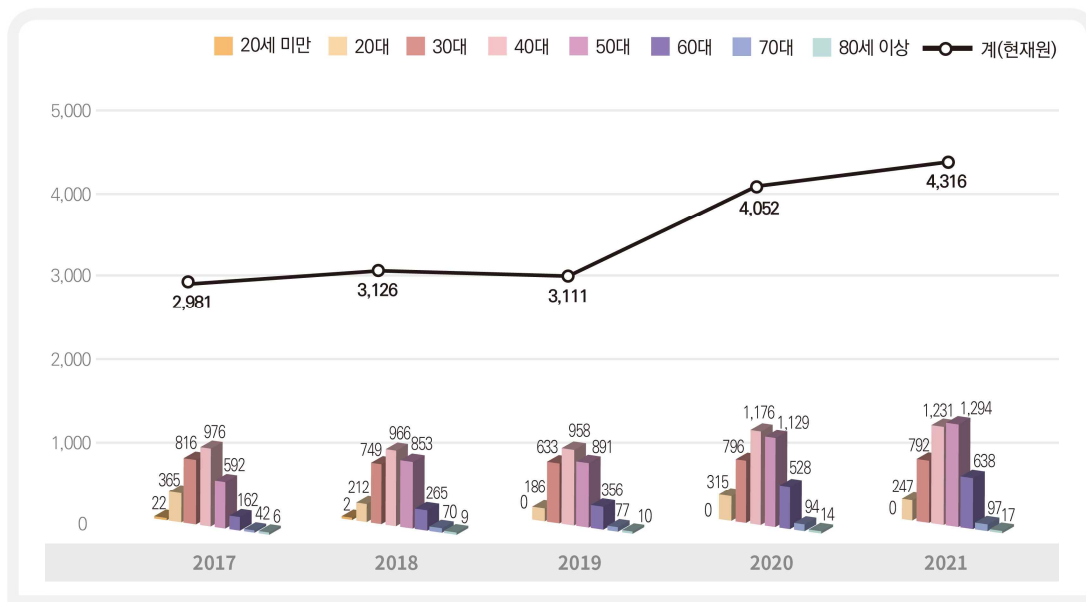


그림 3-1-6 전자감독 현재원의 연령별 현황(2017~2021)

3 처우 프로그램 및 원호 현황

1) 처우 프로그램 실시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 중인 대상자에게 실시한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위한 처우프로그램 현황

지표정의

- 심리치료 프로그램 : 심리치료전문가의 일대일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 체험형 심신안정 프로그램 : 산행 및 숲체험, 영화 및 공연 감상, 스포츠 활동, 가족과 외출, 기념일 챙겨주기 등

-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위한 처우 프로그램은 2017년 총 11,241회 실시된 이후 2018년 총 13,756회, 2019년 총 14,427회 등 꾸준히 증가하던 중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32.5% 감소한 9,740회에 그쳤다. 그러나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총 14,381회가 실시되었다.
- 최근 5년간의 프로그램 처우내용별 동향을 살펴보면, 매년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체험형 프로그램의 실수 횟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2017년에 17.1%였던 체험형 프로그램의 비율이 2021년에는 39.9%를 기록하였다.

표 3-1-11 전자감독 대상자의 처우프로그램 실시 현황(2017~2021)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241	13,756	14,427	9,740	14,381
	100%	100%	100%	100%	100%
심리치료 프로그램	9,316	10,620	10,144	6,763	8,640
	82.9%	77.2%	70.3%	69.4%	60.1%
체험형 프로그램	1,925	3,136	4,283	2,977	5,741
	17.1%	22.8%	29.7%	30.6%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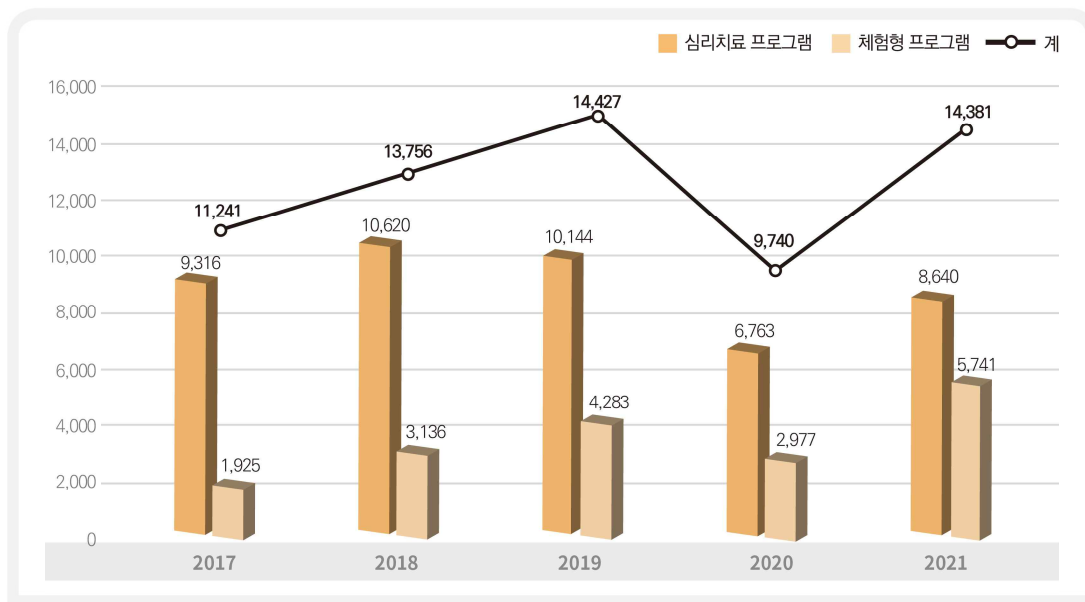


그림 3-1-7 전자감독 대상자의 치우프로그램 실시 현황(2017~2021)

2) 원호 실시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실시한 자립지원 및 원호 실시 현황

지표정의

- 경제구호 : 물품지원 등 경제적 자립 지원
- 숙소알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숙소연계 등 자립을 위한 숙소알선
- 취업알선 : 직업능력(적성)을 고려한 취업체 알선
- 직업훈련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훈련 및 자격 취득 지원
- 복학주선 : 학업연계를 위한 학교 복학 주선
- 문신제거 : 사회복귀를 위한 문신제거 지원
- 수급권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센터와 연계한 수급권지원
- 기타 : 그 밖에 자립지원 및 원호

- 2021년 전자감독 대상자의 개선과 자립을 위해 총 21,353건의 원호지원이 이루어졌다. 원호의 방법으로 경제구호가 20,801건(97.4%)으로 가장 많았고, 구호금액은 658,052,000원이었다. 그 밖에 기타 원호 313건(1.5%), 직업훈련 112건(0.5%), 수급권 지원 48건(0.2%), 숙소알선 52건(0.3%), 취업알선 26건(0.1%), 문신제거 1건(0.0%) 등이 실시되었다.
- 최근 5년간의 원호 종류별 특징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경제구호는 매년 지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구호 금액은 2019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고 있다. 직업훈련은 2017년 49건에서 2018년에는 1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100건 미만을, 2021년에는 11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매년 편차가 큰 편이며, 수급권 지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90건 내외에서 변화하다가 2020년 61건, 2021년 48건 등으로 감소하였다.

표 3-1-12 전자감독 대상자의 원호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경제구호	숙소알선	취업알선	직업훈련	복학주선	문신제거	수급권지원	기타
2017		6,613	6,079	71	23	49	0	2	90	299
		100%	91.9%	1.1%	0.4%	0.7%	0.0%	0.0%	1.4%	4.5%
2018		7,601	7,062	68	47	128	1	1	83	211
		100%	92.9%	0.9%	0.6%	1.7%	0.0%	0.0%	1.1%	2.8%
2019		13,121	12,582	59	28	99	0	0	99	254
		100%	95.9%	0.4%	0.2%	0.8%	0.0%	0.0%	0.8%	1.9%
2020		17,873	17,320	60	19	71	0	1	61	341
		100%	96.9%	0.3%	0.1%	0.4%	0.0%	0.0%	0.4%	1.9%
2021		21,353	20,801	52	26	112	0	1	48	313
		100%	97.4%	0.3%	0.1%	0.5%	0.0%	0.0%	0.2%	1.5%

표 3-1-13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제구호 금액 현황(2017~2021)

(단위 : 천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구호금액	376,481	515,269	700,963	694,668	658,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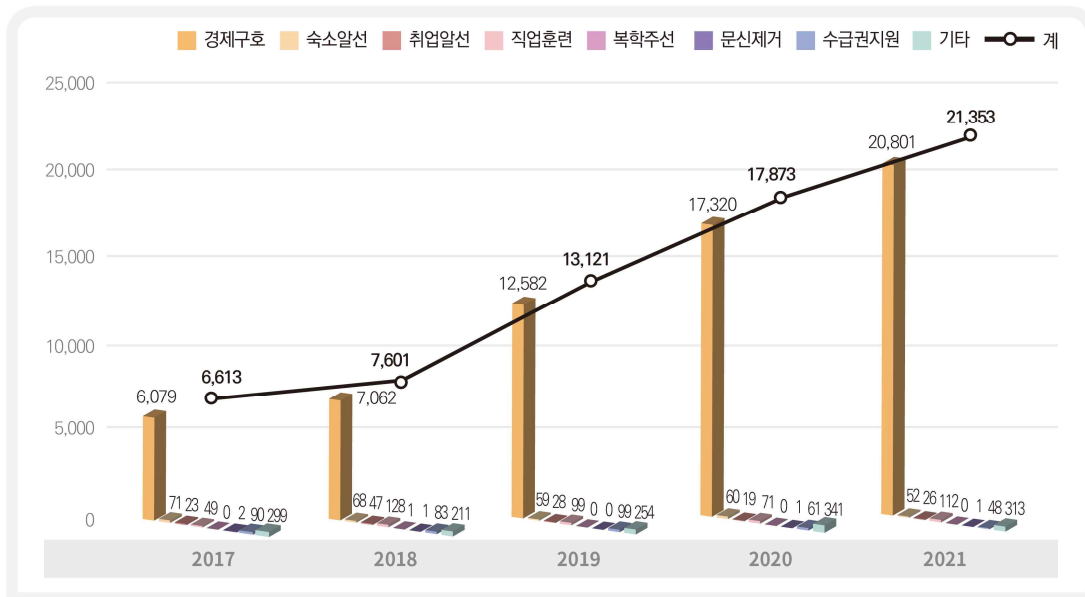


그림 3-1-8 전자감독 대상자의 원호 실시 현황(2017~2021)

4 전자감독기간 중 재범

1) 특정범죄 재범 현황

-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감독기간 중 특정범죄로 재범한 비율은 2017년 1.77%, 2018년 2.01%, 2019년 1.97%, 2020년 1.68%, 2021년 1.65% 등으로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1%대에서 억제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더욱 낮아지고 있다.

표 3-1-14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재범률 현황(2017~2021)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특정범죄 재범률	1.77%	2.01%	1.97%	1.68%	1.65%
특정범죄 재범건수	77	94	90	74	74
전자감독 특정범죄 실시사건	4,350	4,668	4,563	4,399	4,482

2)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재범 현황

-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감독기간 중 동종범죄로 재범한 비율은 2017년 2.17%, 2018년 2.53%였다가 2019년 1.70%, 2020년 1.27%, 2021년 1.40% 등으로 최근 3년간 1%대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15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재범 현황(2017~2021)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동종 재범률	2.17%	2.53%	1.70%	1.27%	1.40%
동종재범사건	66	83	55	41	46
성폭력 실시사건	3,046	3,270	3,239	3,239	3,279

5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현황

-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사건의 경우, 2020년 144건, 2021년 384건이 접수되었고, 실시사건은 2020년 144건, 2021년 477건이었다. 2020년과 2021년의 종료사건은 각각 51건과 257건이었고, 현재원은 93건과 220건이었다

➔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재판 확대, 미결구금 부작용 해소 및 교정시설 과밀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9년 8월부터 시범 실시되었고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다

표 3-1-16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현황(2020~2021)

연도	접수사건	실시사건	종료	현재원
2020	144*	144	51	93
2021	384	477	257	220

* 2020년 3분기 이전의 시범 실시 기간의 33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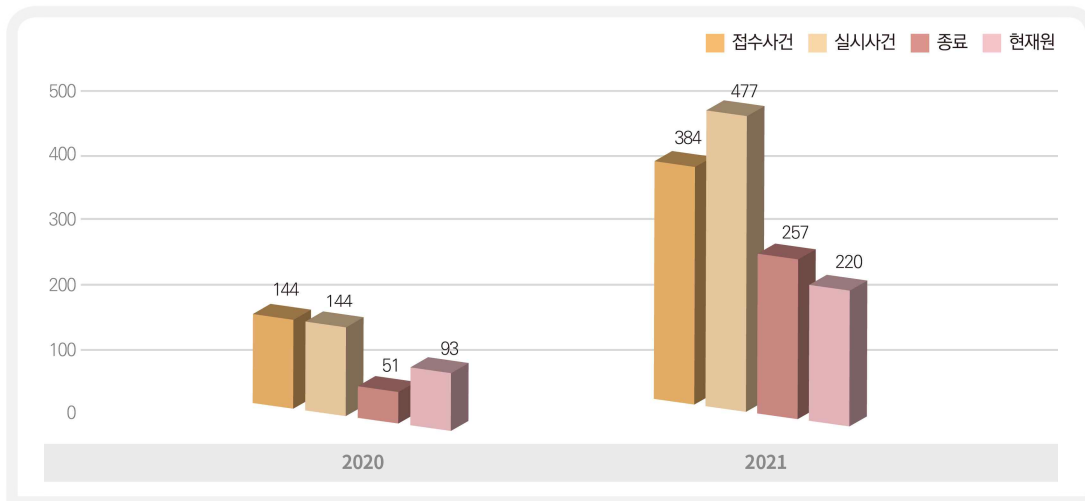


그림 3-1-9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현황(2020~2021)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²²⁾

1 신규 등록 및 누적등록사건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등록되는 신규등록사건 및 종료사건, 연도말 기준 관리 중인 사건, 누적등록사건 등 현황

지표정의

- 전년 이월 : 이전연도 12월 31일 기준 관리 사건
- 신규 등록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등록사건
- 등록 종료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료사건
- 실시사건 : 해당 연도에 관리된 모든 사건(전년 이월사건 + 신규 등록사건)
- 관리사건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관리 중인 사건(실시사건 - 등록 종료사건)
- 누적등록사건 : 제도시행 이후 누적 신규등록사건 수

- 2021년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사건이 13,485건, 전년에서 이월된 등록사건이 94,160건, 등록 종료사건이 2,200건으로, 실시사건 107,645건, 관리사건 105,445건, 누적 등록사건 총 114,420건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신규등록 사건을 살펴보면, 2018년에 14,05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7년과 2019년에는 12,900건 내외를, 2020년부터 13,000건 이상을 기록하였다. 매년 종료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년 이월사건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신규등록 사건이 종료사건보다 많아 실시사건과 관리사건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2)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업무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표 3-2-1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 및 누적등록사건 등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전년 이월	신규 등록	등록 종료	실시사건	관리 사건	누적등록사건
2017		46,415	12,614	976	59,029	58,053	60,903
2018		58,053	14,053	1,094	72,106	71,012	74,956
2019		71,012	12,908	1,273	83,920	82,647	87,864
2020		82,647	13,071	1,558	95,718	94,160	100,935
2021		94,160	13,485	2,200	107,645	105,445	114,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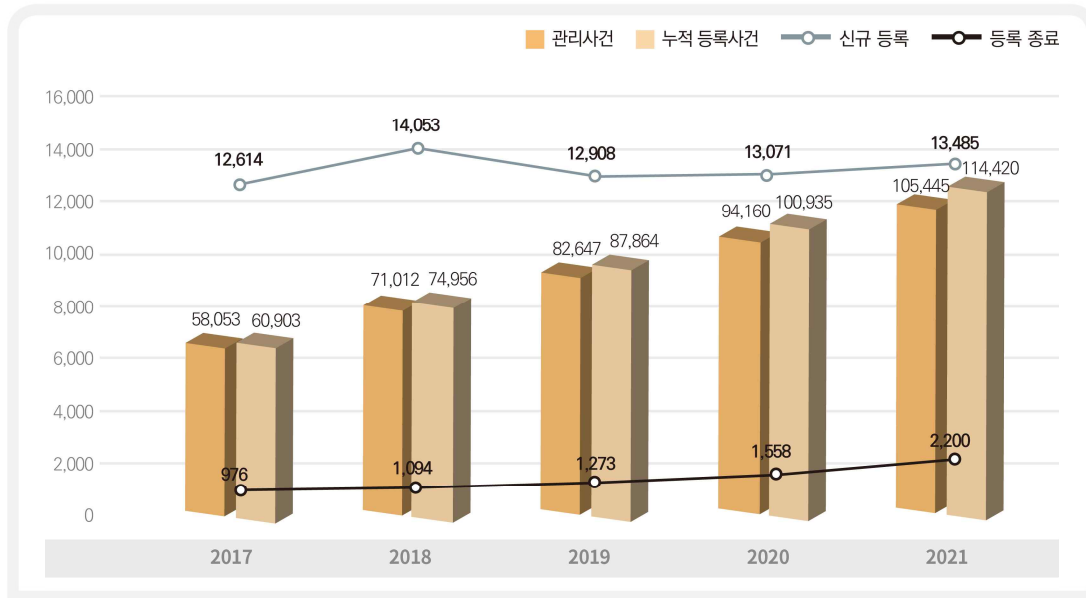


그림 3-2-1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 및 누적 등록사건 등 현황(2017~2021)

2 등록 관리사건의 유형별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실시사건의 유형 및 현황

지표정의

- 등록 : 단독등록사건
- 등록·공개 : 등록 및 공개명령을 받은 사건
- 등록·공개·고지 :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모두 받은 사건
- ※ 공개 및 고지는 등록을 전제로 함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관리사건 총 105,445건을 등록 유형별로 구분하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가 없는 단순 등록사건이 98,831건(93.8%), 신상정보의 등록·공개 사건이 259건(0.2%), 등록·공개·고지 사건이 6,355건(6.0%) 등이었다.
- 최근 5년간 등록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등록과 함께 공개 또는 공개·고지가 이루어지는 사건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사건의 유형별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등록	등록·공개	등록·공개·고지
2017		58,053	49,568	536	7,949
		100%	85.4%	0.9%	13.7%
2018		71,012	62,935	408	7,669
		100%	88.6%	0.6%	10.8%
2019		82,647	75,048	338	7,261
		100%	90.8%	0.4%	8.8%
2020		94,160	87,083	287	6,790
		100%	92.5%	0.3%	7.2%
2021		105,445	98,831	259	6,355
		100%	93.8%	0.2%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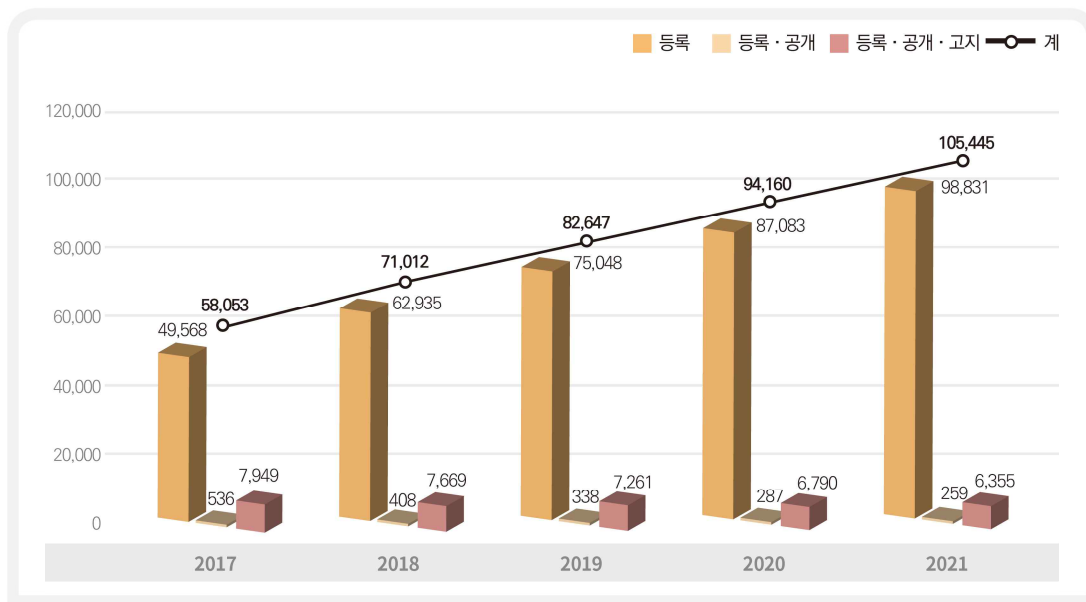


그림 3-2-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사건의 유형별 현황(2017~2021)

3 신규 등록사건의 죄명별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규등록사건의 죄명별 현황

지표정의

-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신규등록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죄명별로 분류

- 2021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신규 등록사건을 죄명에 따라 구분한 결과, 강제추행이 6,599건으로 48.9%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강간 등이 2,356건(17.5%), 카메라등이용촬영이 2,279건(16.9%), 음란물 제작·배포가 635건(4.7%), 성착취물 소지 등이 371건(2.8%),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355건(2.6%) 등의 순이었다. 그 외 성매수 202건(1.5%), 아동성학대 174건(1.3%), 성적목적침입이 119건(0.9%), 통신매체이용음란이 124건(0.9%)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신규 등록사건의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강제추행의 사건 수가 가장 많았고 전체 사건 중 비율도 제일 높아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2017년 이후 사건 수와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연간 2,200건, 전체의 17% 내외를 유지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적목적침입, 음란물 배포 등은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음란물 제작·배포와 성착취물 소지 등 디지털 성범죄사건의 급증 양상이 두드러졌다.

표 3-2-3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사건의 죄명별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계	강간 등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중 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침입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 성행위	아동성 학대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영업	성착취물 소지 등
2017	12,614	2,424	6,338	2,067	772	88	50	76	71	105	358	90	175	-
	100%	19.2%	50.2%	16.4%	6.1%	0.7%	0.4%	0.6%	0.6%	0.8%	2.8%	0.7%	1.4%	-
2018	14,053	2,470	7,496	2,388	770	105	58	57	90	113	278	88	140	-
	100%	17.6%	53.3%	17.0%	5.5%	0.7%	0.4%	0.4%	0.6%	0.8%	2.0%	0.6%	1.0%	-
2019	12,908	2,306	6,869	2,252	603	101	104	109	107	132	183	48	94	-
	100%	17.9%	53.2%	17.4%	4.7%	0.8%	0.8%	0.8%	0.8%	1.0%	1.4%	0.4%	0.7%	-
2020	13,071	2,340	7,032	2,179	514	117	132	169	91	156	188	38	111	4
	100%	17.9%	53.8%	16.7%	3.9%	0.9%	1.0%	1.3%	0.7%	1.2%	1.4%	0.3%	0.9%	0.0%
2021	13,485	2,356	6,599	2,279	355	124	119	635	104	174	202	66	101	371
	100%	17.5%	48.9%	16.9%	2.6%	0.9%	0.9%	4.7%	0.8%	1.3%	1.5%	0.5%	0.7%	2.8%

4 재등록사건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최초 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 현황

지표정의

- 최초 등록사건 : 해당연도 신규 등록된 사건 수
- 재등록사건 : 신상정보등록 관리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

- 2021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사건을 최초 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으로 구분하면, 최초 등록사건이 12,379건(91.8%), 재등록사건이 1,106건(8.2%)이었다.
- 최근 5년간 신규 등록사건 중 최초 등록사건은 2018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반면, 재등록사건 수는 2020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2.4% 감소하였다.

표 3-2-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사건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최초 등록사건	재등록사건
2017		12,614	11,876	738
		100%	94.1%	5.9%
2018		14,053	13,086	967
		100%	93.1%	6.9%
2019		12,908	11,814	1,094
		100%	91.5%	8.5%
2020		13,071	11,808	1,263
		100%	90.3%	9.7%
2021		13,485	12,379	1,106
		100%	91.8%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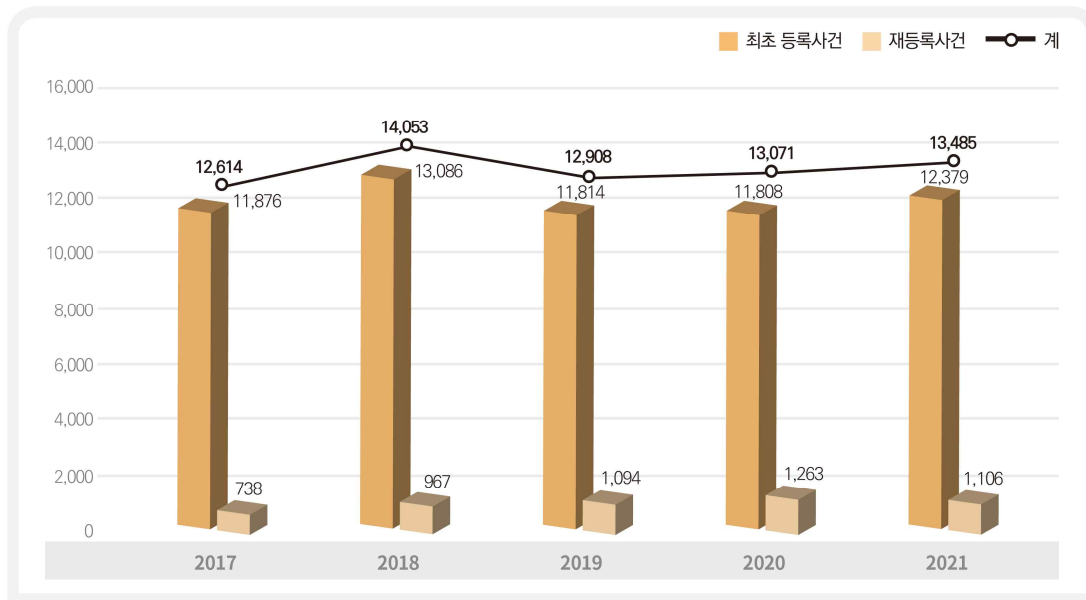


그림 3-2-3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사건 현황(2017~2021)

5 등록 종료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된 신상정보 등록사건의 세부 현황

지표정의

- 등록기간경과 : 해당연도 신상정보등록기간이 경과하여 종료
- 등록면제 : 신상정보등록기간 중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면제 요건에 해당하여 대상자의 신청으로 면제종료되는 경우
- 사망 : 사망으로 종료
- 선고유예면소 : 법원 판결 시 선고를 유예하여 2년 경과 후 면소 및 종료된 경우
- 상소권회복 : 상소권이 회복되어 종료된 경우
- 정식재판청구 : 벌금 등의 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되었으나 대상자의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 2021년의 신상정보등록 종료사건 총 2,200건의 종료 사유로는 등록면제 872건(39.6%), 사망 639건(29.0%), 등록기간경과 515건(23.4%), 선고유예 면소 141건(6.4%)이었고, 그 외 정식재판청구 6건(0.3%), 상소권 회복 21건(1.0%), 기타 6건(0.3%)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종료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기간경과에 의한 종료는 2017년에는 11건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0년에 354건이었고, 2021년에는 500건을 넘겼다. 등록면제에 의한 종료는 2019년까지 감소하여 2019년 100건 미만이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3배 증가하였고, 사망 종료도 계속 증가하였다. 반면 선고유예 면소 종료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표 3-2-5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종료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등록기간경과	등록면제	사망	선고유예면소	상소권 회복	정식재판청구	기타
2017	976	11	239	262	438	19	5	2
	100%	1.1%	24.5%	26.8%	44.9%	1.9%	0.5%	0.2%
2018	1,094	98	154	439	353	16	33	1
	100%	9.0%	14.1%	40.1%	32.3%	1.5%	3.0%	0.1%
2019	1,273	328	97	477	316	21	31	3
	100%	25.8%	7.6%	37.5%	24.8%	1.6%	2.4%	0.2%
2020	1,558	354	319	598	233	26	27	1
	100%	22.7%	20.5%	38.4%	14.9%	1.7%	1.7%	0.1%
2021	2,200	515	872	639	141	21	6	6
	100%	23.4%	39.6%	29.0%	6.4%	1.0%	0.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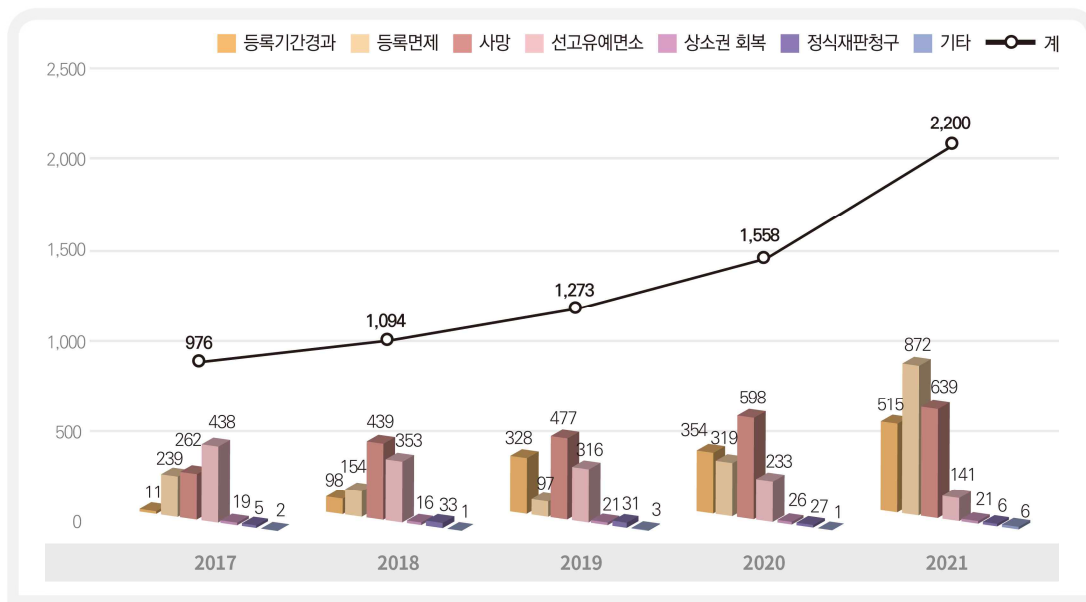


그림 3-2-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종료 현황(2017~2021)



Chapter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1절 사회봉사명령

제2절 수강 · 이수명령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사회봉사명령²³⁾

- ➔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원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 ➔ 1989년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1996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다. 1997년 「형법」상 형의 집행유예 조건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 벌금미납자도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 보호관찰소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협력 집행 및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복지 지원, 영세농가 일손 돕기 등 농촌지원, 태풍·폭우·폭설로 인한 재난복구 등 대민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1 접수사건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현황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원에서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 사건)
- 연령 : 소년(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미만인 경우이지만 소년법 대상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년으로 분류), 성인(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
- 근거법률 : 형법, 소년법,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기타 법률(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벌금미납자법으로 구분
- 사범 :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경제, 기타의 9개로 구분

1) 근거 법률별 현황

- 2021년의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43,161건)을 근거 법률에 따라 구분한 결과, 형법이 29,349건(68.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벌금미납자법²⁴⁾이 7,207건(16.7%), 소년법이 3,774건(8.8%),

23) 일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에 따라 「형법」, 「소년법」,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등에 의해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과 「벌금미납자법」에 의한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통칭한다. 따라서 별도 개념 규정이 없는 한 사회봉사명령은 「벌금미납자법」에 의한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포함한다.

24) 2009년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에 한해 시행되었고 2020년부터 벌금형의 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포함한 기타법률이 2,644건(6.1%),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이 187건(0.4%)이었다.

- 최근 5년간의 근거 법률별 현황을 살펴보면, 형법은 2020년까지 연간 33,000건 내외가 접수되다가 2021년에는 30,000건 이하를 기록하였지만, 매년 전체의 64~68%를 차지하였다. 벌금미납자법은 2017년(8,282건) 이후 2019년(7,413건)까지 사건 수의 감소에도 약 15%의 비율을 유지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사건 수의 변동 폭은 컸지만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17% 내외를 유지하였다.
- 소년법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는데, 소년법은 2017년(5,923건) 대비 2021년에 36.3% 감소하면서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11.3%에서 8.8%로 낮아졌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도 2017년(1,237건) 대비 2021년에 84.9% 감소하여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2.3%에서 0.4%가 되었다.

표 4-1-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처분법 연도	계	형법	소년법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기타 법률	벌금미납자법
2017	52,668	33,956	5,923	1,237	3,270	8,282
	100%	64.5%	11.3%	2.3%	6.2%	15.7%
2018	49,873	32,964	5,650	973	2,662	7,624
	100%	66.1%	11.3%	2.0%	5.3%	15.3%
2019	47,692	32,288	4,805	733	2,453	7,413
	100%	67.7%	10.1%	1.5%	5.2%	15.5%
2020	51,043	34,175	4,746	339	2,686	9,097
	100%	67.0%	9.3%	0.7%	5.3%	17.8%
2021	43,161	29,349	3,774	187	2,644	7,207
	100%	68.0%	8.8%	0.4%	6.1%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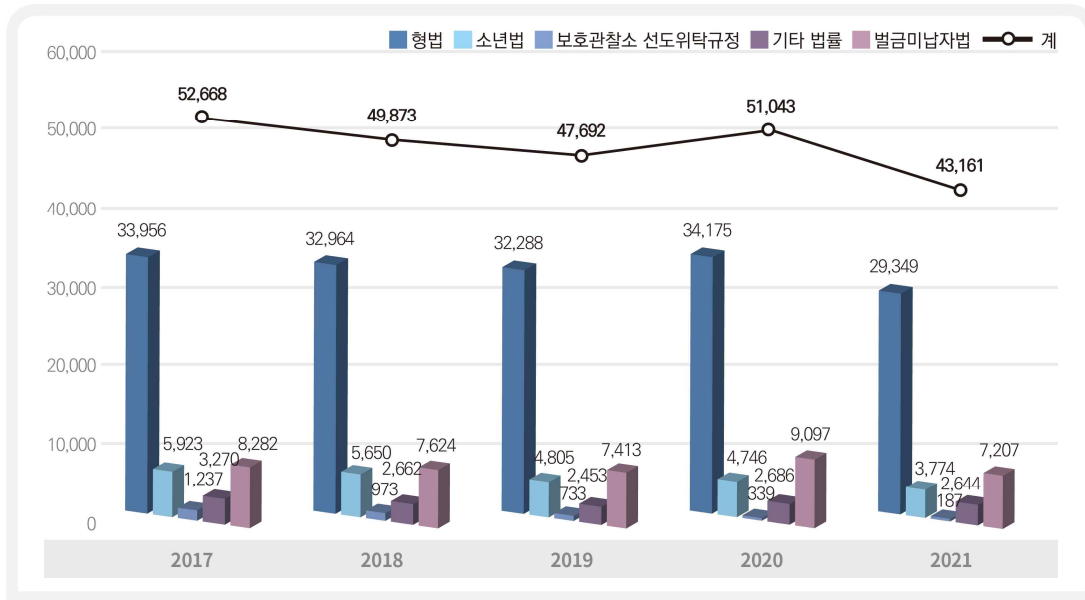


그림 4-1-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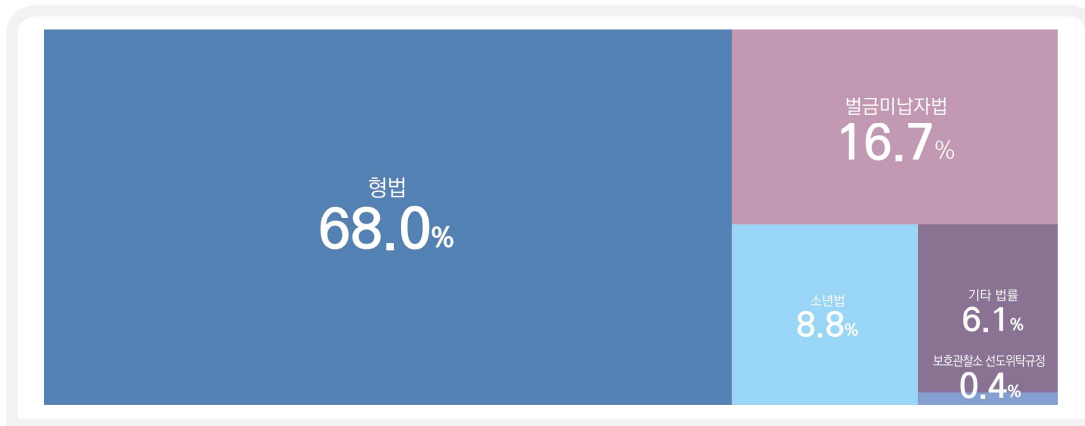


그림 4-1-2 사회봉사명령의 근거 법률별 점유율(2021)

2) 연령별 현황

- 2021년의 전체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을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한 결과, 성인이 39,085건(90.6%), 소년이 4,076건(9.4%)으로 성인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벌금미납법 포함 여부에 따른 성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제외한 사회봉사명령에서는 88.7%, 벌금미납 사회봉사에서는 99.8%로, 벌금미납 사회봉사에서 성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 최근 5년간 전체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에서 성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벌금미납법에 따른 사회봉사와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제외한 사회봉사명령에서 모두 동일하였다.

표 4-1-2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연도	전체			사회봉사명령			벌금미납 사회봉사		
	계	소년	성인	계	소년	성인	계	소년	성인
2017	52,668	7,159	45,509	44,386	7,102	37,284	8,282	57	8,225
	100%	13.6%	86.4%	100%	16.0%	84.0%	100%	0.7%	99.3%
2018	49,873	6,597	43,276	42,249	6,559	35,690	7,624	38	7,586
	100%	13.2%	86.8%	100%	15.5%	84.5%	100%	0.5%	99.5%
2019	47,692	5,565	42,127	40,279	5,535	34,744	7,413	30	7,383
	100%	11.7%	88.3%	100%	13.7%	86.3%	100%	0.4%	99.6%
2020	51,043	5,234	45,809	41,946	5,213	36,733	9,097	21	9,076
	100%	10.3%	89.7%	100%	12.4%	87.6%	100%	0.2%	99.8%
2021	43,161	4,076	39,085	35,954	4,063	31,891	7,207	13	7,194
	100%	9.4%	90.6%	100%	11.3%	88.7%	100%	0.2%	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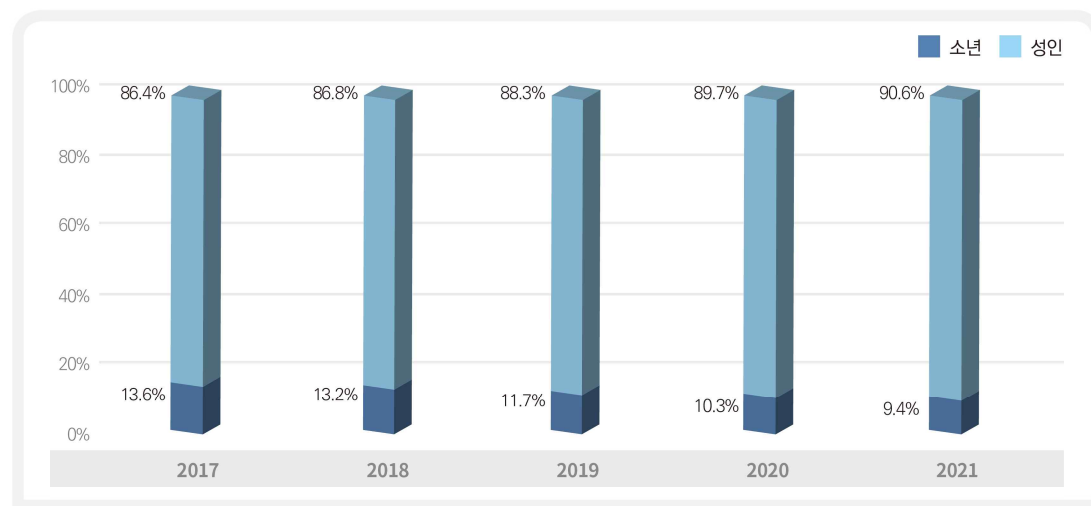


그림 4-1-3 전체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 ➡ 2021년 소년의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18세가 1,302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7세 1,031건(25.3%), 16세 822건(20.2%), 15세 586건(14.4%), 14세 283건(6.9%) 등의 순이었다.

* 소년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21)

계	14	15	16	17	18	19세 이상
4,076	283	586	822	1,031	1,302	52
100%	6.9%	14.4%	20.2%	25.3%	31.9%	1.3%

- ➡ 2021년 성인의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50대가 9,181건(23.5%), 40대가 8,841건(22.6%)으로 40~50대가 전체의 46.1%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20대가 7,947건(20.3%), 30대가 7,483건(19.2%), 60대가 4,820건(12.3%), 70대가 740건(1.9%), 80대 이상이 73건(0.2%) 등이었다.

* 성인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21)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39,085	7,947	7,483	8,841	9,181	4,820	740	73
100%	20.3%	19.2%	22.6%	23.5%	12.3%	1.9%	0.2%

3) 사범별 현황²⁵⁾

(1) 사회봉사명령

- 2021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비율을 살펴보면, 교통사범이 39.6%(14,234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기타사범 20.6%(7,403건), 폭력사범 14.7%(5,297건), 사기횡령사범 13.3%(4,763건), 절도사범 4.3%(1,530건)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풍속사범, 경제사범, 마약사범, 강력사범 등은 각각 4% 미만을 차지하였다.
- 최근 5년간 교통사범이 최고의 사건 수와 비율을 유지하였는데, 특히 비율은 2017년 29.0%에서 계속 상승하여 2020년 이후 39%를 상회하였다. 기타사범은 2019년까지 연간 9,000건 이상을 기록하다 2020년 이후로는 9,000건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 내외를 보였다.
- 폭력사범과 절도사범은 매년 사건 수와 비율이 감소하였고, 사기횡령사범은 사건 수의 감소에도 비율은 증감이 반복되었다. 마약사범은 매년 전체의 1% 수준을 차지하는데, 2017년 618건에서 2018년 433건으로 감소한 이후 400건 대를 유지하였다.

-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25일 시행되었다. 2020년 교통사범 접수사건 수가 전년 대비 29.2% 증가한 것은 이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25) 사범별 현황은 사회봉사명령과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4-1-3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경제	기타
2017	44,386	8,420	12,881	3,017	5,809	337	618	2,436	1,444	9,424
	100%	19.0%	29.0%	6.8%	13.1%	0.8%	1.4%	5.5%	3.2%	21.2%
2018	42,249	7,907	13,390	2,534	5,460	270	433	1,545	1,646	9,064
	100%	18.7%	31.7%	6.0%	12.9%	0.6%	1.0%	3.7%	3.9%	21.5%
2019	40,279	6,935	12,706	2,192	5,436	339	419	1,490	1,642	9,120
	100%	17.2%	31.6%	5.4%	13.5%	0.8%	1.0%	3.7%	4.1%	22.7%
2020	41,946	6,332	16,413	2,071	5,191	255	400	1,426	1,268	8,590
	100%	15.1%	39.1%	4.9%	12.4%	0.6%	1.0%	3.4%	3.0%	20.5%
2021	35,954	5,297	14,234	1,530	4,763	208	484	1,228	807	7,403
	100%	14.7%	39.6%	4.3%	13.3%	0.6%	1.3%	3.4%	2.2%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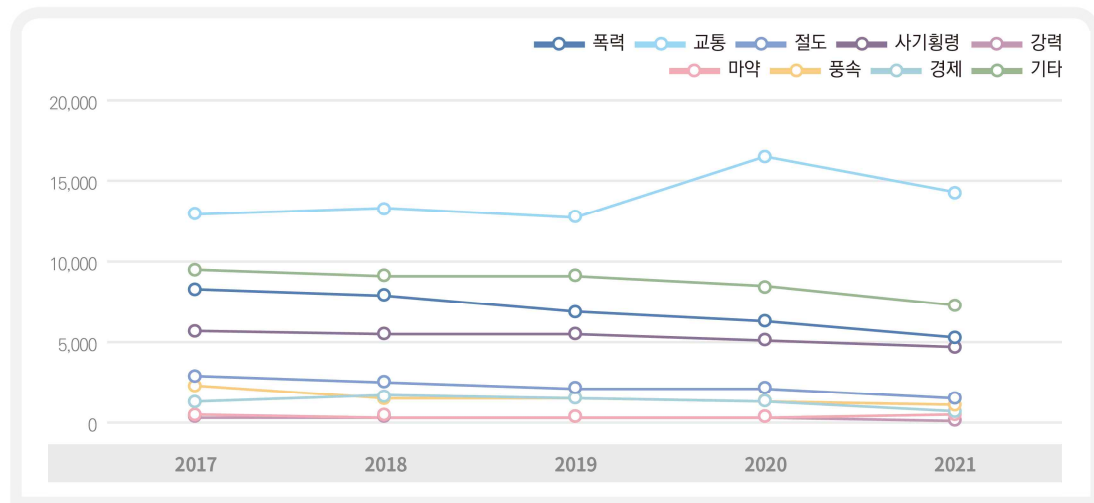


그림 4-1-4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 2021년 소년의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을 사범별로 구분하면, 폭력사범이 27.9%(1,13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사범이 26.0%(1,058건), 절도사범이 16.7% (678건), 교통사범이 13.2%(538건), 사기횡령사범이 11.7%(475건)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폭력사범이 최고 사건 수와 비율을 유지하였지만, 2018년(2,226건, 33.9%) 이후 사건 수와 비율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사범은 사건 수의 감소에도 전체 사건 중의 비율은 상승하였고, 절도사범은 2017년(1,812건, 25.5%)에는 폭력사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건 수와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2018년부터 사건 수와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부터는 기타사범에 이어 세 번째의 사건 수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교통사범의 경우, 사건 수가 2020년에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추세이나,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11.5%)에 비해 2020년(12.6%)과 2021년(13.2%)에 소폭 상승하였다.

표 4-1-4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연도\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경제	기타
2017	7,102	2,260	813	1,812	563	75	20	58	37	1,464
	100%	31.8%	11.5%	25.5%	7.9%	1.1%	0.3%	0.8%	0.5%	20.6%
2018	6,559	2,226	775	1,403	561	43	21	69	41	1,420
	100%	33.9%	11.8%	21.4%	8.6%	0.7%	0.3%	1.1%	0.6%	21.6%
2019	5,535	1,735	623	1,124	579	70	11	41	42	1,310
	100%	31.3%	11.3%	20.3%	10.5%	1.3%	0.2%	0.7%	0.7%	23.7%
2020	5,213	1,468	656	1,038	600	69	6	56	28	1,292
	100%	28.2%	12.6%	19.9%	11.5%	1.3%	0.1%	1.1%	0.5%	24.8%
2021	4,063	1,132	538	678	475	48	4	115	15	1,058
	100%	27.9%	13.2%	16.7%	11.7%	1.2%	0.1%	2.8%	0.4%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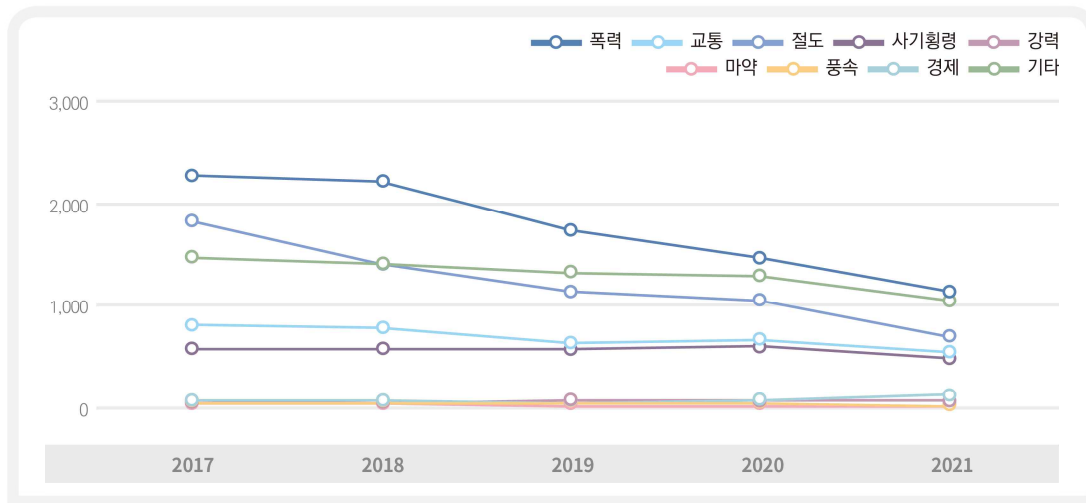


그림 4-1-5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 2021년 성인사건의 경우, 소년과 달리 교통사범이 42.9%(13,69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사범 19.9%(6,345건), 폭력사범 13.1%(4,165건), 사기횡령사범 13.4%(4,288건)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사범별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교통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그 비율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였다. 기타사범은 2019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체의 22.5%까지 차지하였으나 2020년부터 20% 미만을 나타냈다. 폭력사범과 절도사범은 꾸준히 소폭의 감소추세를 이어왔고, 경제사범은 2019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표 4-1-5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연도\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경제	기타
2017	37,284	6,160	12,068	1,205	5,246	262	598	2,378	1,407	7,960
	100%	16.5%	32.4%	3.2%	14.1%	0.7%	1.6%	6.4%	3.8%	21.3%
2018	35,690	5,681	12,615	1,131	4,899	227	412	1,476	1,605	7,644
	100%	15.9%	35.4%	3.2%	13.7%	0.6%	1.2%	4.1%	4.5%	21.4%
2019	34,744	5,200	12,083	1,068	4,857	269	408	1,449	1,600	7,810
	100%	14.9%	34.8%	3.0%	14.0%	0.8%	1.2%	4.2%	4.6%	22.5%
2020	36,733	4,864	15,757	1,033	4,591	186	394	1,370	1,240	7,298
	100%	13.2%	42.9%	2.8%	12.5%	0.5%	1.1%	3.7%	3.4%	19.9%
2021	31,891	4,165	13,696	852	4,288	160	480	1,113	792	6,345
	100%	13.1%	42.9%	2.7%	13.4%	0.5%	1.5%	3.5%	2.5%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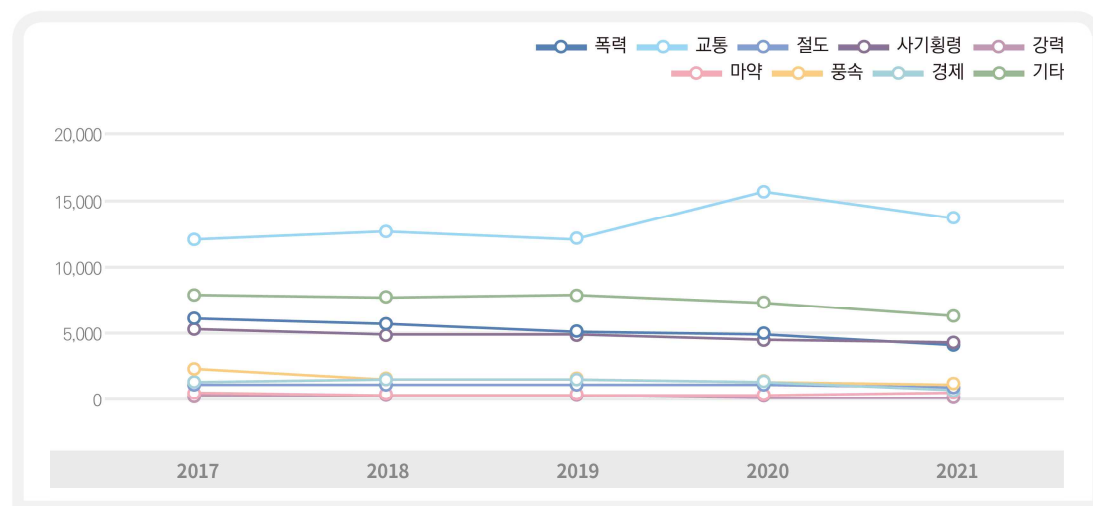


그림 4-1-6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2) 벌금미납 사회봉사

- 2021년의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 중 기타사범이 32.6%(2,35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폭력사범 22.4%(1,617건), 교통사범 16.4%(1,179건), 사기횡령사범 12.7%(914건), 절도사범 8.6%(618건), 경제사범 4.3%(311건)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사범별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기타사범이 매년 30% 안팎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폭력사범의 비율은 2017년 17.9%에서 2019년 22.1%,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22.4% 등으로 상승하였다. 교통사범은 2017년(28.7%) 이후 감소하여 2020년에는 15.8%, 2021년에는 16.4%를 기록하였다, 한편, 사기횡령사범은 사건 수의 증감을 반복하였지만, 비율은 2017년(9.8%)보다 2020년(13.2%)과 2021년(12.7%)에 상승하였다.

표 4-1-6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연도\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경제	기타
2017	8,282	1,484	2,378	500	810	1	19	338	374	2,378
	100%	17.9%	28.7%	6.1%	9.8%	0.0%	0.2%	4.1%	4.5%	28.7%
2018	7,624	1,572	1,800	560	761	2	9	251	435	2,234
	100%	20.6%	23.6%	7.4%	10.0%	0.0%	0.1%	3.3%	5.7%	29.3%
2019	7,413	1,636	1,438	580	784	6	8	181	516	2,264
	100%	22.1%	19.4%	7.8%	10.6%	0.1%	0.1%	2.4%	7.0%	30.5%
2020	9,097	2,031	1,433	683	1,204	6	11	231	650	2,848
	100%	22.4%	15.8%	7.5%	13.2%	0.1%	0.1%	2.5%	7.1%	31.3%
2021	7,207	1,617	1,179	618	914	5	16	194	311	2,353
	100%	22.4%	16.4%	8.6%	12.7%	0.1%	0.2%	2.7%	4.3%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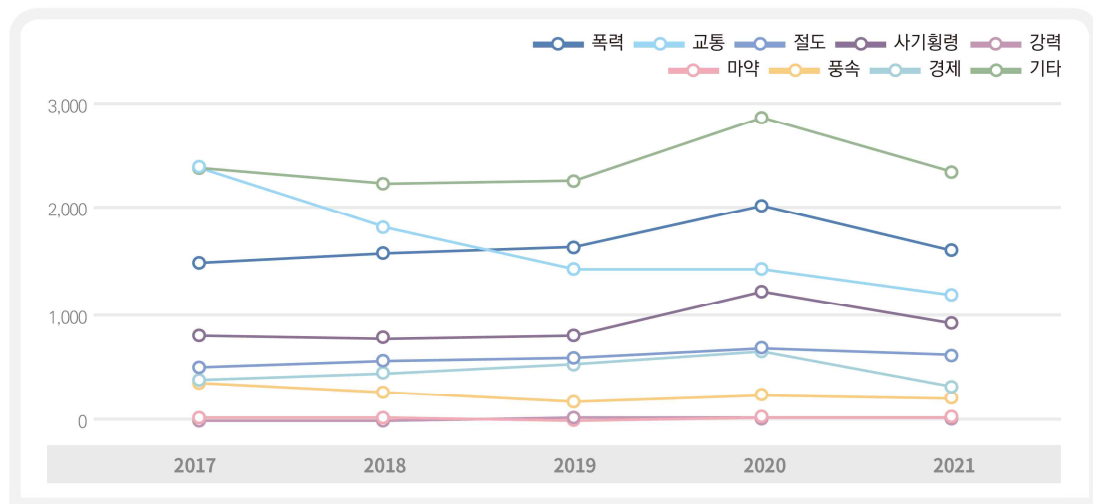


그림 4-1-7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4) 명령시간별 현황²⁶⁾

(1)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 2021년의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을 명령시간에 따라 구분하면, 101~200시간이 14,752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1~100시간이 13,843건(38.5%), 50시간 이하가 6,379건(17.8%), 200시간 초과가 2.7%이었다. 최근 5년간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분포는 매년 소폭의 변화는 있지만 추세의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표 4-1-7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7~2021)

연도\시간	계	50시간 이하	51~100시간	101~200시간	201~300시간	301~400시간	401~500시간
2017	44,386	9,259	16,594	17,581	823	124	5
	100%	20.9%	37.4%	39.6%	1.8%	0.3%	0.0%
2018	42,249	7,728	15,419	17,866	1,002	221	13
	100%	18.3%	36.5%	42.3%	2.4%	0.5%	0.0%
2019	40,279	6,198	14,890	18,061	920	189	21
	100%	15.4%	37.0%	44.8%	2.3%	0.5%	0.0%
2020	41,946	6,893	15,527	18,234	1,029	228	35
	100%	16.4%	37.0%	43.5%	2.5%	0.5%	0.1%
2021	35,954	6,379	13,843	14,752	769	198	13
	100%	17.8%	38.5%	41.0%	2.1%	0.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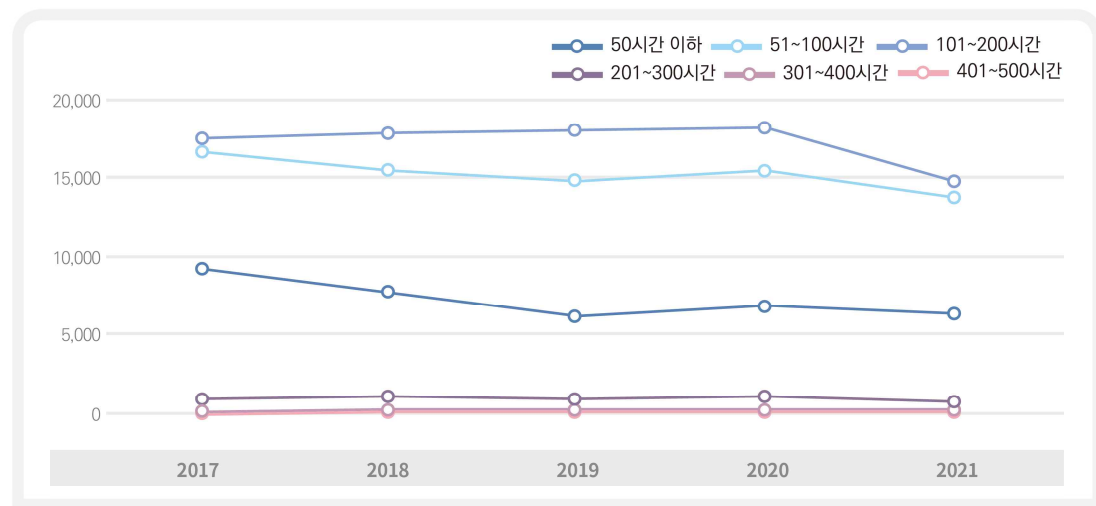


그림 4-1-8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7~2021)

26) 명령시간별 현황은 사회봉사명령과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2021년의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을 명령시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 50시간 이하가 2,928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51~100시간이 923건(22.7%), 100시간 초과 사건이 총 212건(5.2%)이었다. 최근 5년간의 명령시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50시간 이하와 50시간 초과의 비율이 각각 64.1%와 35.9%였으나, 2020년에는 67.3%와 32.7%, 2021년에는 72.1%와 27.9%로, 2020년부터 50시간 이하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2021년의 성인사건에서는 101~200시간이 14,542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1~100시간이 12,920건(40.5%), 50시간 이하가 3,451건(10.8%), 200시간 초과 사건은 총 978건(3.1%)이었다. 최근 5년간의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분포는 매년 소폭의 증감은 있으나 큰 변화 없이 유사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4-1-8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7~2021)

연도\시간	계	50시간 이하	51~100시간	101~200시간	201~300시간	301~400시간	401~500시간
2017	7,102	4,554	1,914	629	4	1	0
	100%	64.1%	26.9%	8.9%	0.1%	0.0%	0.0%
2018	6,559	3,941	1,967	638	9	4	0
	100%	60.1%	30.0%	9.7%	0.1%	0.1%	0.0%
2019	5,535	3,366	1,668	494	6	1	0
	100%	60.8%	30.2%	8.9%	0.1%	0.0%	0.0%
2020	5,213	3,507	1,407	289	9	1	0
	100%	67.3%	27.0%	5.5%	0.2%	0.0%	0.0%
2021	4,063	2,928	923	210	1	1	0
	100%	72.1%	22.7%	5.2%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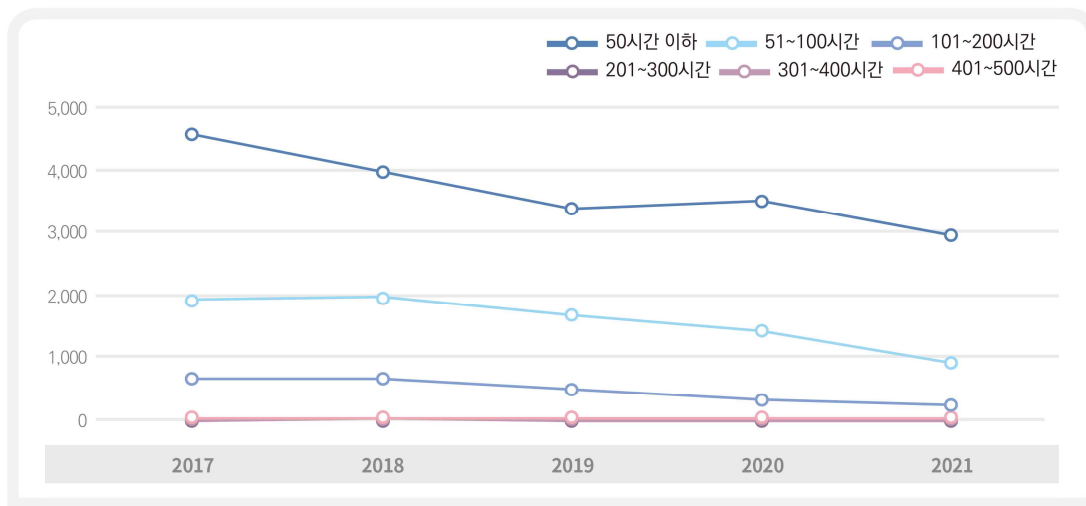


그림 4-1-9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7~2021)

표 4-1-9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7~2021)

연도\시간	계	50시간 이하	51~100시간	101~200시간	201~300시간	301~400시간	401~500시간
2017	37,284	4,705	14,680	16,952	819	123	5
	100%	12.6%	39.4%	45.5%	2.2%	0.3%	0.0%
2018	35,690	3,787	13,452	17,228	993	217	13
	100%	10.6%	37.7%	48.3%	2.8%	0.6%	0.0%
2019	34,744	2,832	13,222	17,567	914	188	21
	100%	8.1%	38.1%	50.6%	2.6%	0.5%	0.1%
2020	36,733	3,386	14,120	17,945	1,020	227	35
	100%	9.2%	38.4%	48.9%	2.8%	0.6%	0.1%
2021	31,891	3,451	12,920	14,542	768	197	13
	100%	10.8%	40.5%	45.6%	2.4%	0.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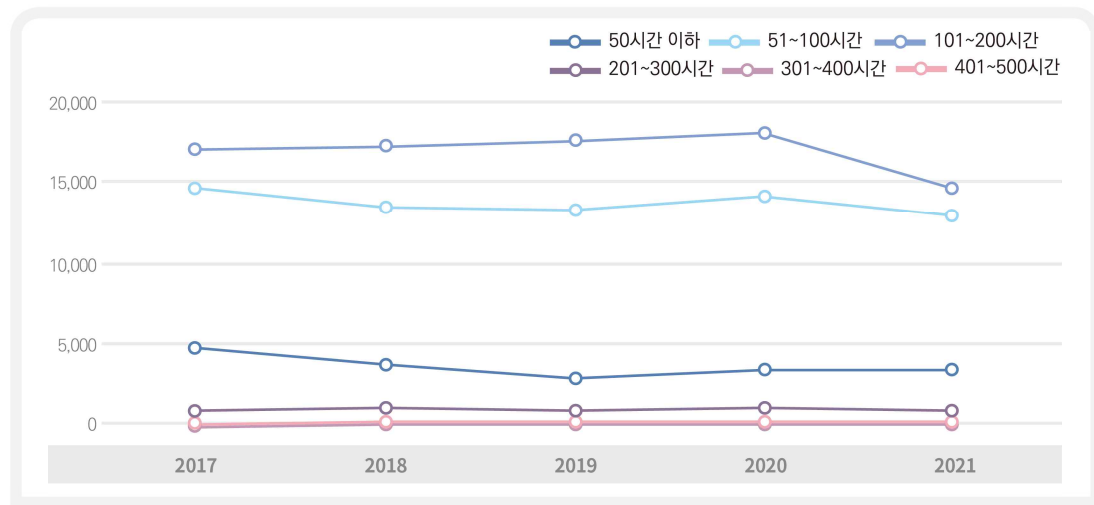


그림 4-1-10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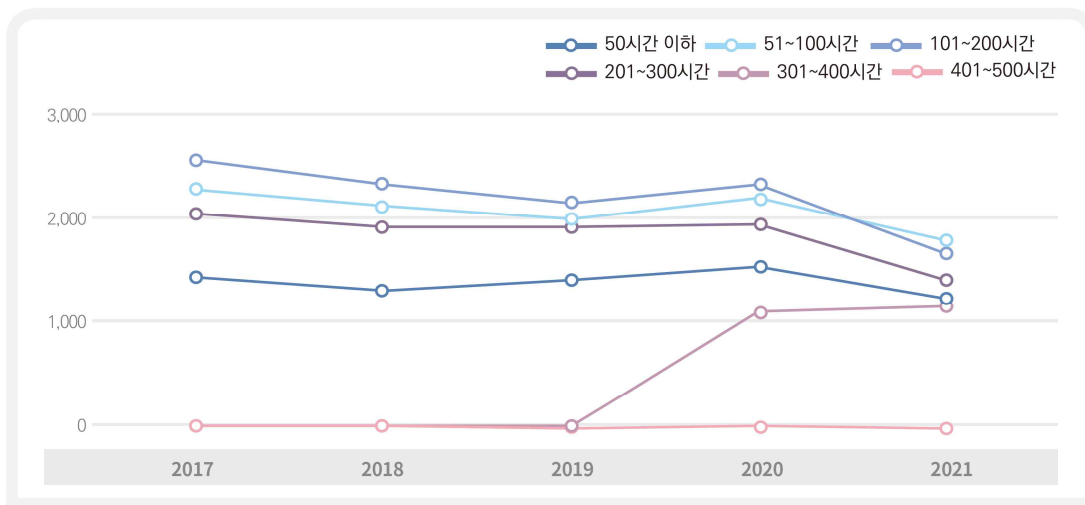
(2) 벌금미납 사회봉사

-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시간은 벌금 환산액으로 결정되는데, 2021년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51~100시간이 1,780건(24.7%), 101~200시간이 1,650건(22.9%), 201~300시간이 1,403건(19.5%), 50시간 이하가 1,226건(17.0%), 301~400시간이 1,148건(15.9%)이었다. 사회봉사명령 사건과 비교할 때, 201~300시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최근 5년간의 추이에서 특징적인 점은, 300시간 초과 사건이 2019년까지 매년 1건이었다가 2020년에 1,108건으로 전년 대비 1,000% 이상 급증하였고 2021년에도 1,148건을 나타낸 것이다.

➡ 2020년부터 300시간 초과 사건이 급증한 것은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액이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4-1-10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7~2021)

시간 연도	계	50시간 이하	51~100시간	101~200시간	201~300시간	301~400시간	401~500시간
2017	8,282	1,429	2,262	2,556	2,033	1	1
	100%	17.3%	27.3%	30.9%	24.5%	0.0%	0.0%
2018	7,624	1,290	2,126	2,307	1,898	1	2
	100%	16.9%	27.9%	30.3%	24.9%	0.0%	0.0%
2019	7,413	1,388	1,979	2,129	1,916	1	0
	100%	18.7%	26.7%	28.7%	25.8%	0.0%	0.0%
2020	9,097	1,539	2,194	2,310	1,946	1,107	1
	100%	16.9%	24.1%	25.4%	21.4%	12.2%	0.0%
2021	7,207	1,226	1,780	1,650	1,403	1,148	0
	100%	17.0%	24.7%	22.9%	19.5%	15.9%	0.0%



그래프 4-1-11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7~2021)

5) 내외국인 현황

- 2021년의 전체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중 내국인이 99.3%, 외국인이 0.7%이었다. 이를 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년사건에서는 내국인이 99.6%, 외국인 0.4%이었고, 성인사건에서는 내국인이 99.3%, 외국인이 0.7%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4-1-1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전체			소년			성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2017		52,668	52,442	226	7,159	7,137	22	45,509	45,305	204
		100%	99.6%	0.4%	100%	99.7%	0.3%	100%	99.6%	0.4%
2018		49,873	49,672	201	6,597	6,580	17	43,276	43,092	184
		100%	99.6%	0.4%	100%	99.7%	0.3%	100%	99.6%	0.4%
2019		47,692	47,462	230	5,565	5,552	13	42,127	41,910	217
		100%	99.5%	0.5%	100%	99.8%	0.2%	100%	99.5%	0.5%
2020		51,043	50,745	298	5,234	5,207	27	45,809	45,538	271
		100%	99.4%	0.6%	100%	99.5%	0.5%	100%	99.4%	0.6%
2021		43,161	42,861	300	4,076	4,059	17	39,085	38,802	283
		100%	99.3%	0.7%	100%	99.6%	0.4%	100%	99.3%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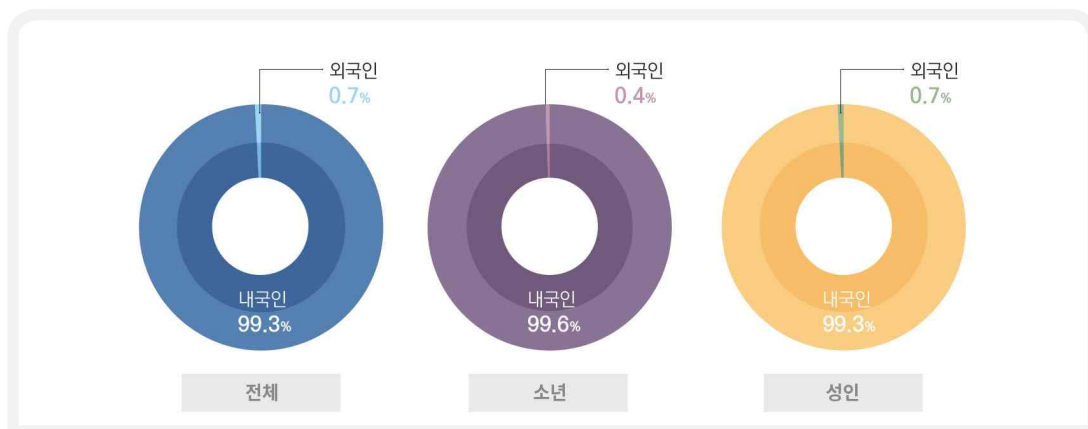


그림 4-1-12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21)

2 실시사건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 현황

지표정의

- 실시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사건)
- 근거 법률 : 형법, 소년법,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기타 법률(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벌금미납자법으로 구분
- 연령 : 소년(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미만 또는 소년법 대상자)과 성인(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분류
- 부과형태 : 보호관찰 부과(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 병과)와 단독명령(사회봉사명령만을 부과)으로 분류

1) 근거 법률별 현황

- 2021년의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을 근거 법률에 따라 구분하면, 형법이 54,778건(7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벌금미납자법 11,091건(14.5%), 소년법 6,301건(8.2%), 기타 법률 4,389건(5.7%) 등의 순이었다.

표 4-1-12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연도\처분법	계	형법	소년법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기타법률	벌금미납자법
2017	63,050	41,097	6,981	1,354	3,799	9,819
	100%	65.2%	11.1%	2.1%	6.0%	15.6%
2018	60,286	40,153	6,714	1,181	3,176	9,062
	100%	66.6%	11.1%	2.0%	5.3%	15.0%
2019	58,497	40,002	5,905	838	3,043	8,709
	100%	68.4%	10.1%	1.4%	5.2%	14.9%
2020	62,009	42,031	5,655	448	3,314	10,561
	100%	67.8%	9.1%	0.7%	5.4%	17.0%
2021	76,784	54,778	6,301	225	4,389	11,091
	100%	71.3%	8.2%	0.3%	5.7%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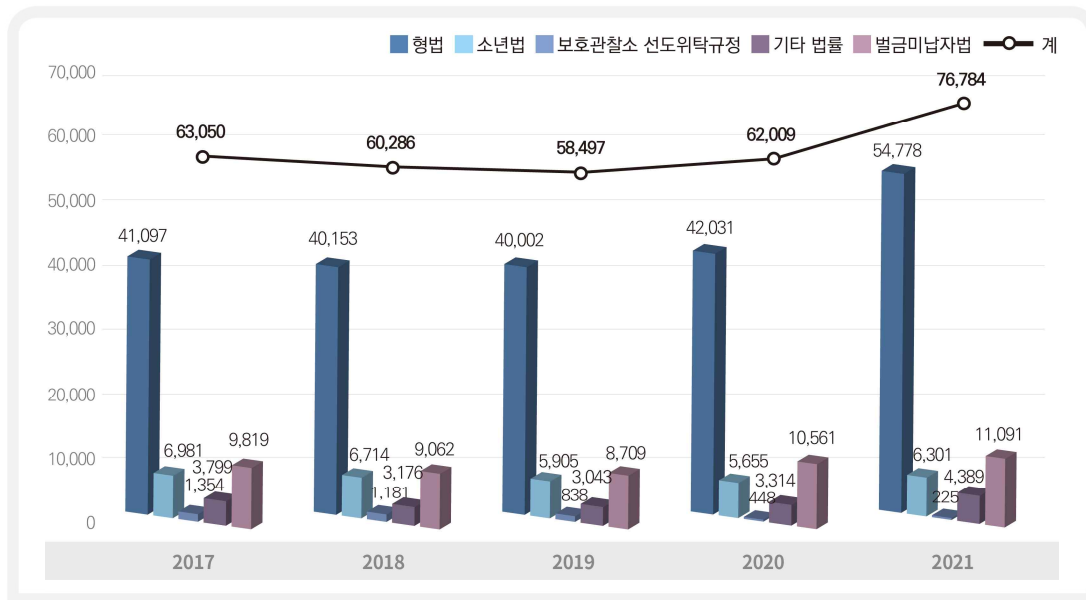


그림 4-1-13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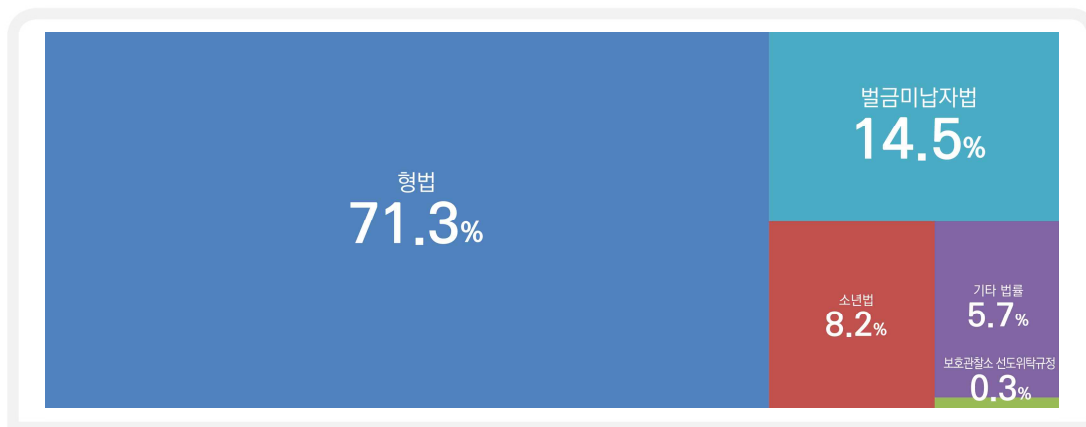


그림 4-1-14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근거법률별 점유율(2021)

2) 연령별 현황

- 2021년의 전체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을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한 결과, 성인이 69,999건(91.2%), 소년이 6,785건(8.8%)으로, 성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편, 벌금미납자법에 따른 사회봉사에서의 성인 비율은 99.8%로, 전체 사회봉사명령보다 성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4-1-13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전체			사회봉사명령			벌금미납 사회봉사		
		계	소년	성인	계	소년	성인	계	소년	성인
2017		63,050	8,389	54,661	53,231	8,321	44,910	9,819	68	9,751
		100%	13.3%	86.7%	100%	15.6%	84.4%	100%	0.7%	99.3%
2018		60,286	7,901	52,385	51,224	7,845	43,379	9,062	56	9,006
		100%	13.1%	86.9%	100%	15.3%	84.7%	100%	0.6%	99.4%
2019		58,497	6,824	51,673	49,788	6,787	43,001	8,709	37	8,672
		100%	11.7%	88.3%	100%	13.6%	86.4%	100%	0.4%	99.6%
2020		62,009	6,318	55,691	51,448	6,292	45,156	10,561	26	10,535
		100%	10.2%	89.8%	100%	12.2%	87.8%	100%	0.2%	99.8%
2021		76,784	6,785	69,999	65,693	6,763	58,930	11,091	22	11,069
		100%	8.8%	91.2%	100%	10.3%	89.7%	100%	0.2%	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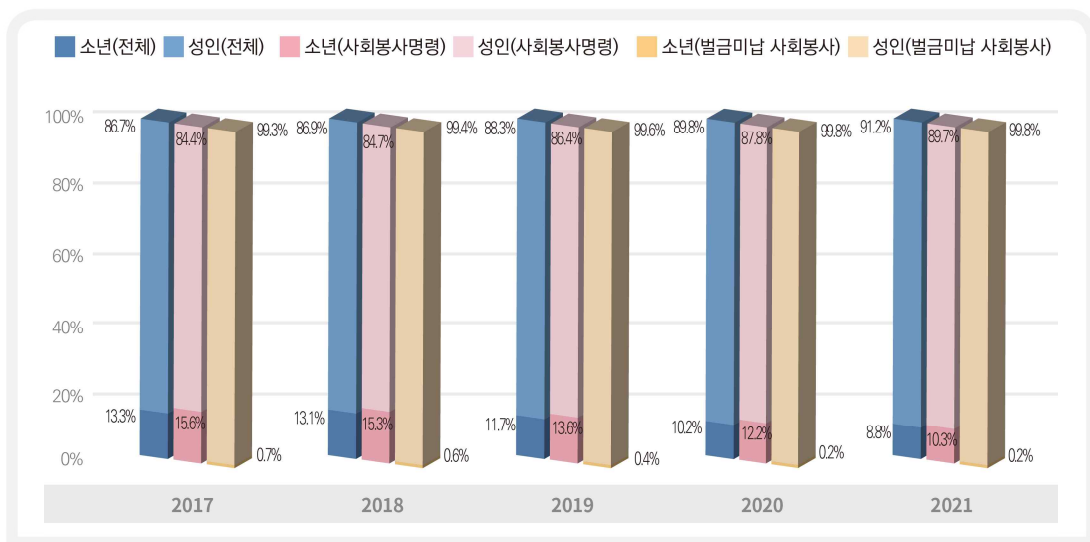


그림 4-1-15 전체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3) 부과 형태별 현황

-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을 보호관찰 병과사건과 단독 명령사건으로 구분한 결과, 2021년의 보호관찰 병과사건은 19,210건(29.2%), 단독 명령사건은 46,483건(70.8%)으로 단독 명령사건이 보호관찰 병과사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 한편 부과 형태별 양상이 연령에 따라 상이하여, 성인의 경우 단독명령 사건이 2~3배 많지만, 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병과사건이 약 2배 많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최근 5년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표 4-1-14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실시사건의 부과형태별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전체			소년			성인		
	계	보호관찰 부과	단독명령	계	보호관찰 부과	단독명령	계	보호관찰 부과	단독명령
2017	53,231	19,351	33,880	8,321	5,465	2,856	44,910	13,886	31,024
	100%	36.4%	63.6%	100%	65.7%	34.3%	100%	30.9%	69.1%
2018	51,224	17,470	33,754	7,845	5,111	2,734	43,379	12,359	31,020
	100%	34.1%	65.9%	100%	65.1%	34.9%	100%	28.5%	71.5%
2019	49,788	16,133	33,655	6,787	4,359	2,428	43,001	11,774	31,227
	100%	32.4%	67.6%	100%	64.2%	35.8%	100%	27.4%	72.6%
2020	51,448	16,238	35,210	6,292	4,004	2,288	45,156	12,234	32,922
	100%	31.6%	68.4%	100%	63.6%	36.4%	100%	27.1%	72.9%
2021	65,693	19,210	46,483	6,763	4,220	2,543	58,930	14,990	43,940
	100%	29.2%	70.8%	100%	62.4%	37.6%	100%	25.4%	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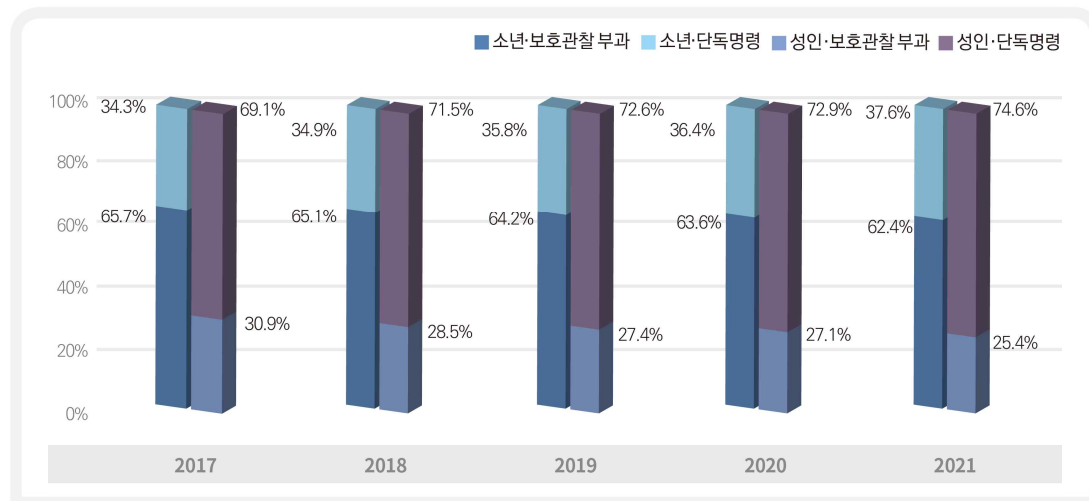


그림 4-1-16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실시사건의 부과형태별 현황(2017~2021)

3 집행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사건의 집행형태, 집행 분야별 현황

지표정의

- 집행사건 : 사회봉사명령시간을 이행 또는 부분 이행하여 종료된 사건
- 집행형태 : 직접집행과 협력집행으로 구분

1) 개요

-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사건은 2017년(48,403건) 이후 매년 소폭 감소하면서도 연간 43,000건 이상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23,486건으로 전년 대비 46.1% 급감하였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69.1% 증가한 39,709건이었지만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표 4-1-15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7~2021)

연도	유형	계	사회봉사명령	벌금미납사회봉사
2017		48,403	41,259	7,144
		100%	85.2%	14.8%
2018		45,475	39,007	6,468
		100%	85.8%	14.2%
2019		43,612	37,453	6,159
		100%	85.9%	14.1%
2020		23,486	18,450	5,036
		100%	78.6%	21.4%
2021		39,709	32,661	7,048
		100%	82.3%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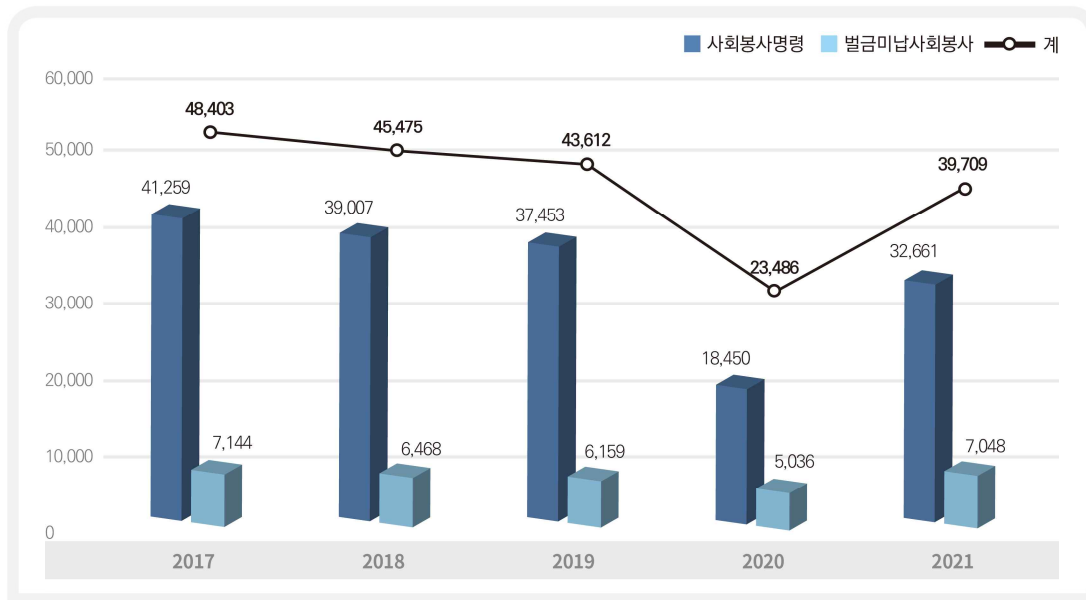


그림 4-1-17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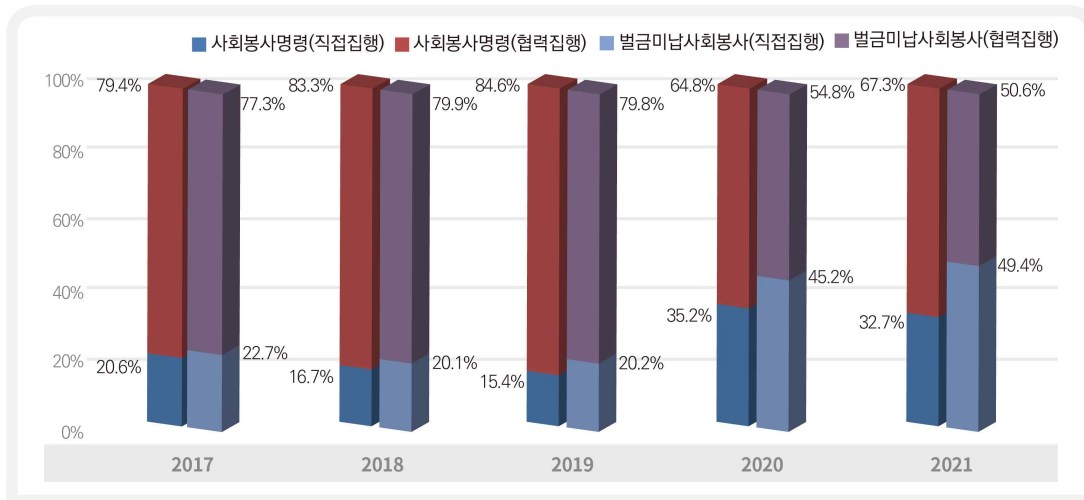
2) 집행 형태별 현황

- 사회봉사명령은 집행형태에 따라 직접집행과 협력집행으로 구분하는데, 사회봉사명령의 특성상 협력기관을 통한 협력집행 위주로 집행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협력집행의 비율이 79.1%에서 83.9%까지 상승하였고 직접집행의 비율은 20.9%에서 16.1%로 낮아졌다.
- 2020년의 경우 협력집행의 비율(62.6%)이 직접집행(37.4%)보다 높았지만, 협력집행 사건의 급감과 직접집행 사건의 증가로 인해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2021년에는 협력집행이 64.3%, 직접집행이 35.7%로 협력집행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 2019년에 비해 2020년과 2021년에 직접집행 비율이 증가하고 협력집행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문제 등으로 인해 복지시설 등 협력기관을 통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직접집행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4-1-16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형태별 현황(2017~2021)

연도	유형	전체			사회봉사명령			벌금미납사회봉사		
		계	직접집행	협력집행	계	직접집행	협력집행	계	직접집행	협력집행
2017		48,403	10,123	38,280	41,259	8,500	32,759	7,144	1,623	5,521
		100%	20.9%	79.1%	100%	20.6%	79.4%	100%	22.7%	77.3%
2018		45,475	7,822	37,653	39,007	6,521	32,486	6,468	1,301	5,167
		100%	17.2%	82.8%	100%	16.7%	83.3%	100%	20.1%	79.9%
2019		43,612	7,017	36,595	37,453	5,775	31,678	6,159	1,242	4,917
		100%	16.1%	83.9%	100%	15.4%	84.6%	100%	20.2%	79.8%
2020		23,486	8,779	14,707	18,450	6,501	11,949	5,036	2,278	2,758
		100%	37.4%	62.6%	100%	35.2%	64.8%	100%	45.2%	54.8%
2021		39,709	14,172	25,537	32,661	10,690	21,971	7,048	3,482	3,566
		100%	35.7%	64.3%	100%	32.7%	67.3%	100%	49.4%	50.6%



그래프 4-1-18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집행형태별 현황(2017~2021)

3) 집행 분야별 현황

지표정의

- 자연보호 : 환경정비 등 자연보호 관련 분야
- 복지 분야 :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 등 복지 관련 분야
- 공공시설 : 공공시설에서 업무 수행 등 공공시설 관련 분야
- 대민지원 : 농촌봉사 등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분야
- 기타 : 기타 사회봉사 집행 분야

- 2021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민지원 분야가 15,755건(39.7%), 복지 분야가 13,586건(34.2%)으로 대민지원과 복지 분야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밖에 기타 분야가 6,759건(17.0%), 공공시설 지원 분야가 3,405건(8.6%)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집행 분야별 현황에서 복지 분야는 2017년 74.5%에서 비율이 높아져 2019년에는 80%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복지시설에서의 집행이 곤란해짐에 따라 사건 수가 급감하였고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54.3%로 낮아졌다. 2021년에는 복지시설의 집행사건이 전년보다 6.6% 증가하였지만 전체 사건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여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34.2%에 그쳤다.
- 반면, 대민지원 분야는 2017년에는 전체 사건 중 19.9%를 차지하다가 2019년에는 15.2%로 떨어졌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시설에서 집행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대민지원 분야에서의 집행이 증가하며 집행사건이 전년보다 9.8% 증가하였고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30.9%로 높아졌다.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촌지원을 확대하면서 사건 수가 전년보다 다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비율도 40%에 육박하였다.
- 기타 분야의 집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 내외를 차지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집행사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4-1-17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연도 \ 유형	계	자연보호	복지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7	48,403	89	36,064	1,113	9,646	1,491
	100%	0.2%	74.5%	2.3%	19.9%	3.1%
2018	45,475	59	35,217	1,282	7,682	1,235
	100%	0.1%	77.4%	2.8%	16.9%	2.7%
2019	43,612	59	34,612	1,020	6,610	1,311
	100%	0.1%	79.4%	2.3%	15.2%	3.0%

연도 \ 유형	계	자연보호	복지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20	23,486	26	12,749	1,247	7,255	2,209
	100%	0.1%	54.3%	5.3%	30.9%	9.4%
2021	39,709	204	13,586	3,405	15,755	6,759
	100%	0.5%	34.2%	8.6%	39.7%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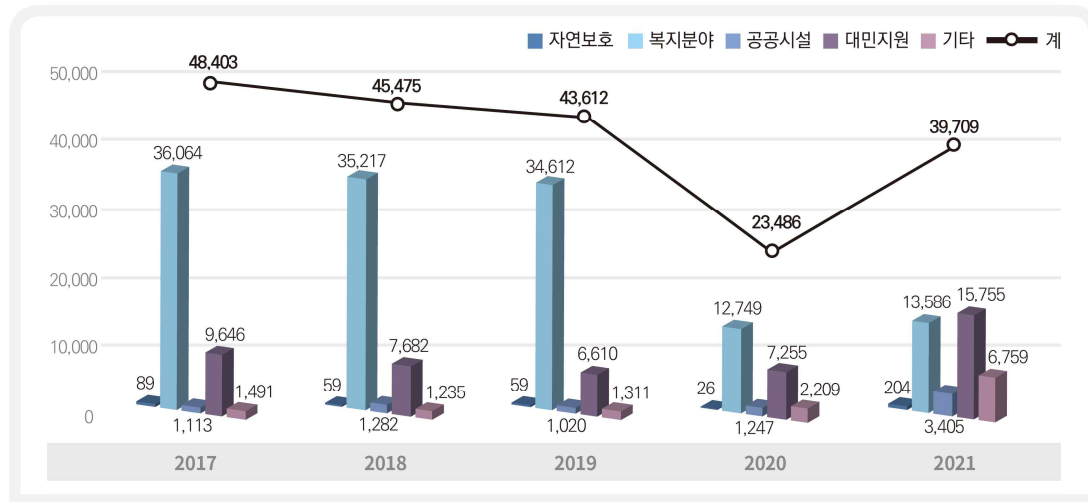


그림 4-1-19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 2021년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사건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과 벌금미납 사회봉사로 구분하여 집행 분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사회봉사명령과 동일하게 모두 대민지원 분야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복지 분야, 기타 지원, 공공시설 지원 등의 순이었다,

표 4-1-18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연도 \ 유형	계	자연보호	복지 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7	41,259	81	30,847	953	8,301	1,077
	100%	0.2%	74.8%	2.3%	20.1%	2.6%
2018	39,007	52	30,391	1,096	6,605	863
	100%	0.2%	77.9%	2.8%	16.9%	2.2%
2019	37,453	56	29,900	899	5,684	914
	100%	0.2%	79.8%	2.4%	15.2%	2.4%
2020	18,450	26	10,337	1,010	5,586	1,491
	100%	0.1%	56.0%	5.5%	30.3%	8.1%
2021	32,661	154	11,227	2,955	13,339	4,986
	100%	0.5%	34.4%	9.0%	40.8%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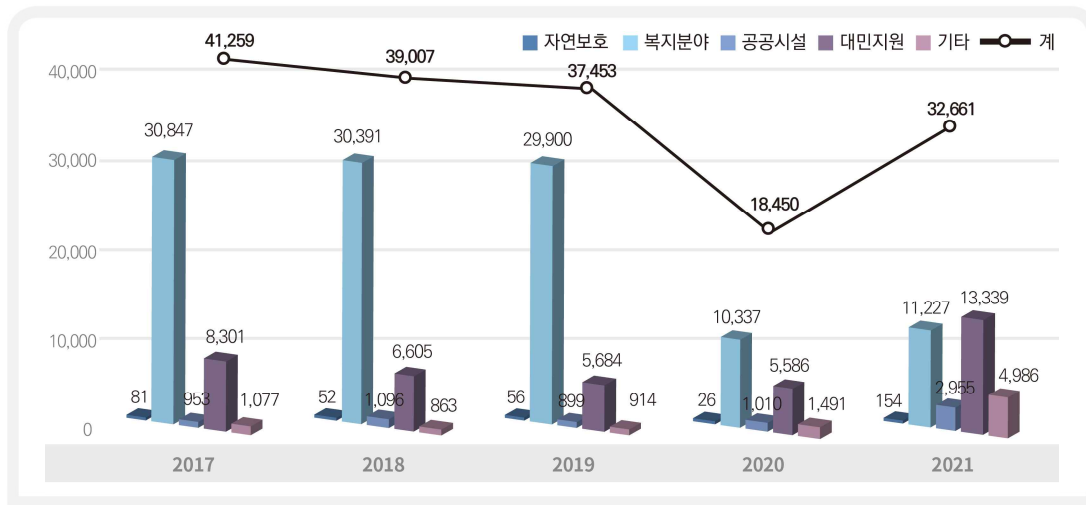


그림 4-1-20 사회봉사단체명(별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표 4-1-19 별금미납 사회봉사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자연보호	복지 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7	7,144	8	5,217	160	1,345	414
	100%	0.1%	73.0%	2.3%	18.8%	5.8%
2018	6,468	7	4,826	186	1,077	372
	100%	0.1%	74.6%	2.9%	16.6%	5.8%
2019	6,159	3	4,712	121	926	397
	100%	0.1%	76.5%	2.0%	15.0%	6.4%
2020	5,036	0	2,412	237	1,669	718
	100%	0.0%	47.9%	4.7%	33.1%	14.3%
2021	7,048	50	2,359	450	2,416	1,773
	100%	0.7%	33.5%	6.4%	34.3%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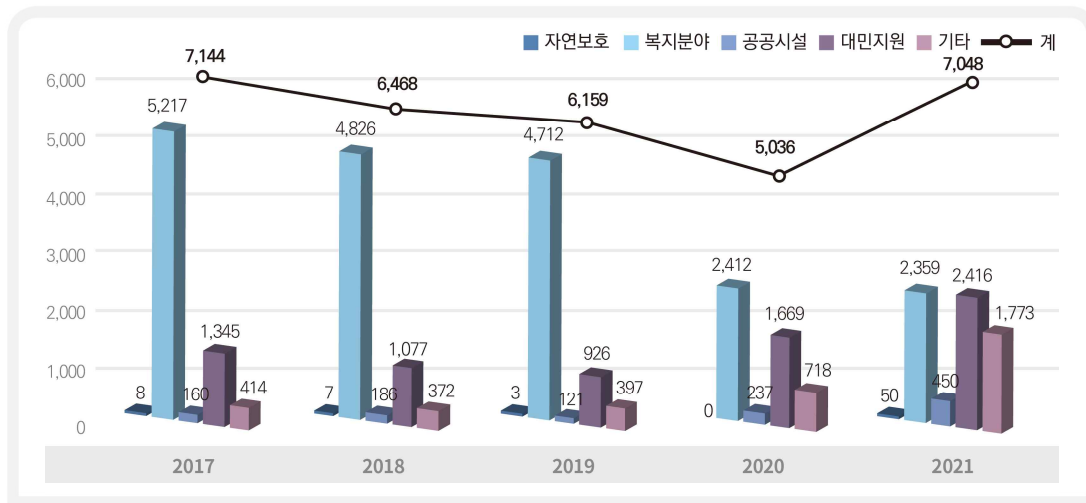


그림 4-1-21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4) 집행 형태별 집행 분야 현황

(1) 직접집행

- 2021년 직접집행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분야를 살펴보면, 대민지원이 7,323건(51.7%), 기타 지원이 5,143건(36.3%)으로 두 분야가 전체의 88.0%를 차지하였고, 복지 분야는 1,618건으로 11.4%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공공시설 지원(58건, 0.4%), 자연보호 분야(30건, 0.2%) 등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 최근 5년간 직접집행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대민지원 분야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였는데, 2019년까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부터 복지 분야와 기타 분야의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72.7%, 2021년에는 51.7%로 감소하였다.
- 기타 분야는 2019년까지 최대 13.9%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2.2%, 2021년에는 36.3%로 늘었고, 복지 분야 역시 2017년 1.2%에서 2021년에는 11.4%로 증가하였다.

표 4-1-20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연도	유형	계	자연보호	복지 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7		10,123	2	125	2	8,793	1,201
		100%	0.0%	1.2%	0.0%	86.9%	11.9%
2018		7,822	4	69	9	6,802	938
		100%	0.1%	0.9%	0.1%	87.0%	12.0%
2019		7,017	4	250	0	5,786	977
		100%	0.1%	3.6%	0.0%	82.5%	13.9%
2020		8,779	19	406	25	6,380	1,949
		100%	0.2%	4.6%	0.3%	72.7%	22.2%
2021		14,172	30	1,618	58	7,323	5,143
		100%	0.2%	11.4%	0.4%	51.7%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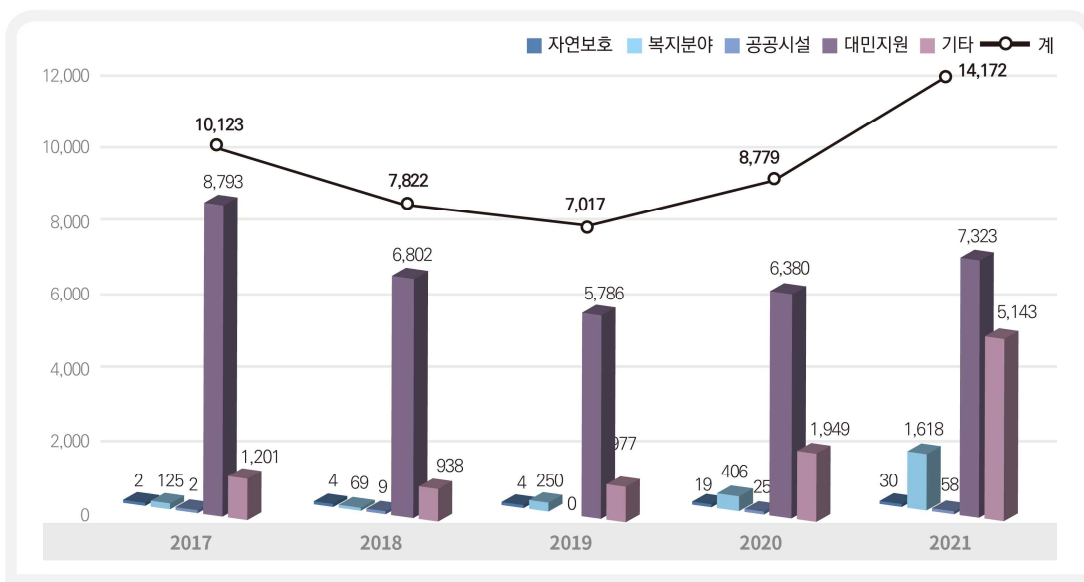


그림 4-1-22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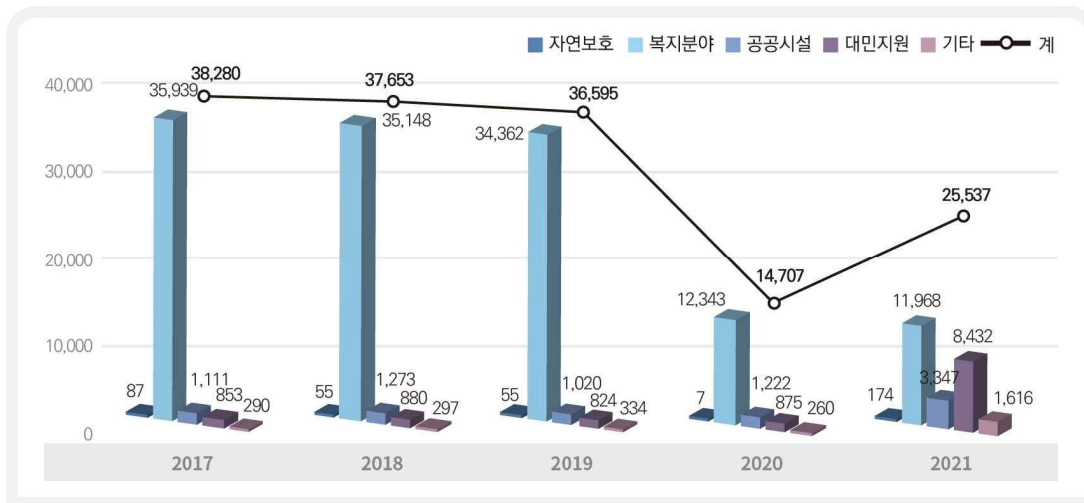
(2) 협력집행

- 2021년 협력집행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분야로는 복지 분야가 11,968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민지원 8,432건(33.0%), 공공시설이 3,347건(13.1%), 기타 지원 1,616건(6.3%)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복지 분야의 집행이 전체의 92~94%를 차지하다가 2020년에 80%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47% 미만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집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반면 대민지원 분야는 2020년까지 연간 800건 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농협을 협력 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촌지원을 실시하면서 전년보다 약 10배 급증하였고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30%를 넘겼다.

표 4-1-21 사회봉사명령 협력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연도	유형	계	자연보호	복지 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7		38,280	87	35,939	1,111	853	290
		100%	0.2%	93.9%	2.9%	2.2%	0.8%
2018		37,653	55	35,148	1,273	880	297
		100%	0.1%	93.3%	3.4%	2.3%	0.8%
2019		36,595	55	34,362	1,020	824	334
		100%	0.1%	93.9%	2.8%	2.3%	0.9%
2020		14,707	7	12,343	1,222	875	260
		100%	0.0%	83.9%	8.3%	5.9%	1.8%
2021		25,537	174	11,968	3,347	8,432	1,616
		100%	0.7%	46.9%	13.1%	33.0%	6.3%



그래프 4-1-23 사회봉사명령 협력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4 협력기관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협력집행 기관 지정·운영 현황

지표정의

- 복지기관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기관
- 공익기관 :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농협 등)
- 의료기관 : 병원 등 의료기관
- 행정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 기타기관 : 복지, 공익, 의료, 행정기관 이외의 기타기관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지정한 협력기관은 총 1,779개로, 복지기관이 1,299개(73.0%), 공익기관이 478개(26.9%), 기타기관이 2개(0.1%) 등이었다.
- 2017년 이후 매년 1,200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지정·운영되었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0.6% 증가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협력기관이 지정·운영되었다.

➡ 2020년 일부 보호관찰기관에서 관할지역 내 농협을 협력기관(공익기관으로 분류)으로 지정·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21년에는 이를 전국 보호관찰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협력기관 수가 증가하였다.

표 4-1-22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복지	공익	의료	행정	기타
2017		1,170	1,109	58	0	0	3
		100%	94.8%	5.0%	0.0%	0.0%	0.3%
2018		1,212	1,142	68	0	0	2
		100%	94.2%	5.6%	0.0%	0.0%	0.2%
2019		1,208	1,142	64	0	0	2
		100%	94.5%	5.3%	0.0%	0.0%	0.2%
2020		1,265	1,174	89	0	0	2
		100%	92.8%	7.0%	0.0%	0.0%	0.2%
2021		1,779	1,299	478	0	0	2
		100%	73.0%	26.9%	0.0%	0.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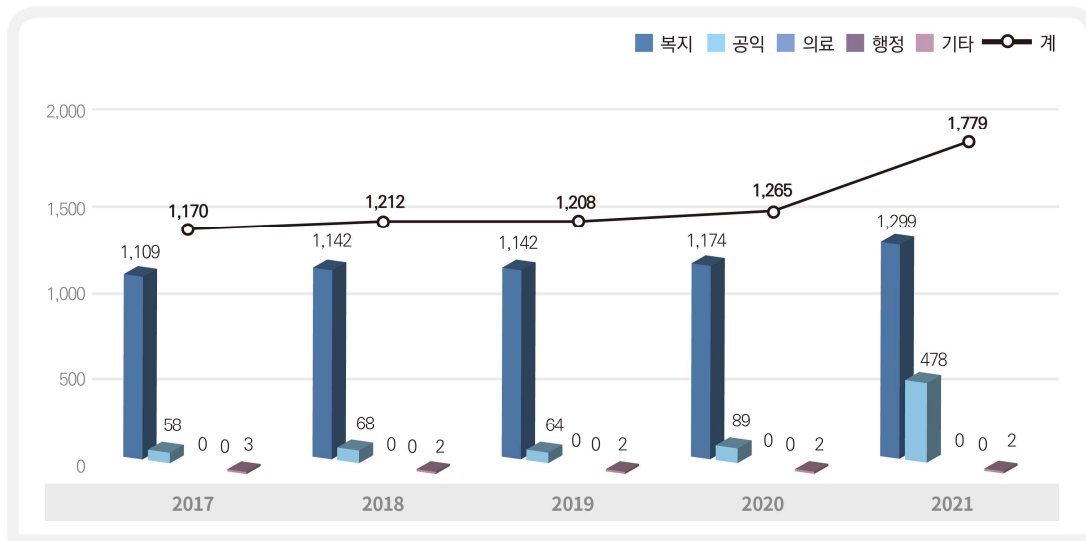


그림 4-1-24 사회봉사명령의 협력기관 현황(2017~2021)

5 종료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의 전체 사회봉사명령 종료 사건 현황

지표정의

- 집행완료 : 부과된 시간을 모두 집행 후 종료
- 부분집행 : 부과된 시간의 일부를 집행 후 종료
- 이송 :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어 종료
- 처분변경 등 기타 : 처분변경 등으로 종료

1) 개요

- 전체 사회봉사명령 종료사건은 2017년 52,501건에서 2018년 49,560건, 2019년 47,233건 등으로 각각 전년 대비 5% 내외에서 감소하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8,231건)에는 전년 대비 40.2%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63.3% 증가한 46,094건이었다.
- 2021년의 사회봉사명령 종료 사유별 비율을 살펴보면, 집행완료에 의한 종료가 79.1%(36,489건), 부분집행에 의한 종료가 7.0%(3,220건), 처분변경에 의한 종료가 6.3%(2,899건) 등으로, 2020년에 비해 집행완료에 의한 종료의 비율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 사회봉사명령 종료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도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상황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면서 증가하였다.
- ➡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명령시간을 모두 이행하지 못한 채 종료하는 경우와 처분변경 등에 따른 종료가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사회봉사명령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표 4-1-23 사회봉사명령 종료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집행완료	부분집행	이송	처분변경 등 기타
2017	52,501	46,484	1,957	2,187	1,873
	100%	88.5%	3.7%	4.2%	3.6%
2018	49,560	43,563	1,961	2,197	1,839
	100%	87.9%	4.0%	4.4%	3.7%
2019	47,233	41,790	1,894	2,057	1,492
	100%	88.5%	4.0%	4.4%	3.2%
2020	28,231	21,400	2,086	2,689	2,056
	100%	75.8%	7.4%	9.5%	7.3%

연도\구분	계	집행완료	부분집행	이송	처분변경 등 기타
2021	46,094	36,489	3,220	3,486	2,899
	100%	79.1%	7.0%	7.6%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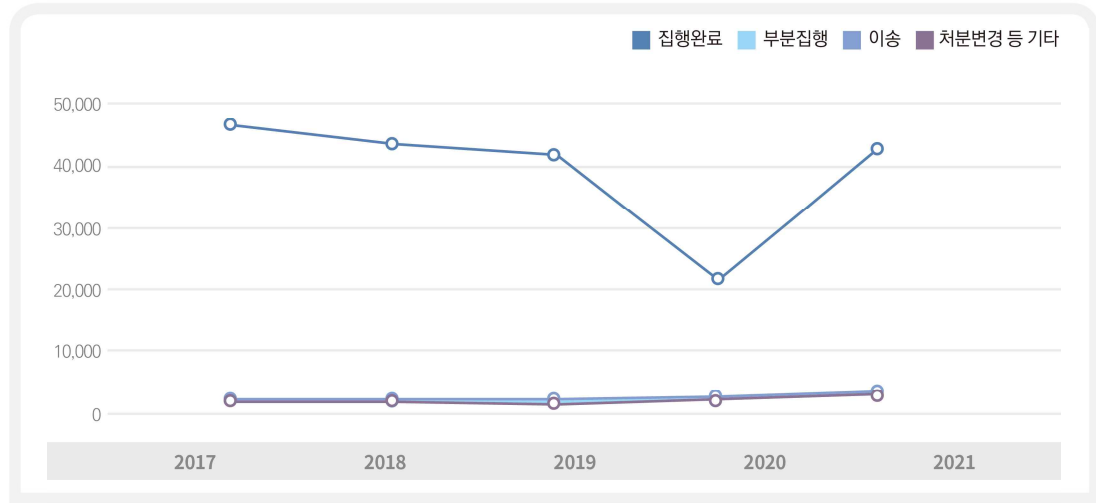


그림 4-1-25 사회봉사명령 종료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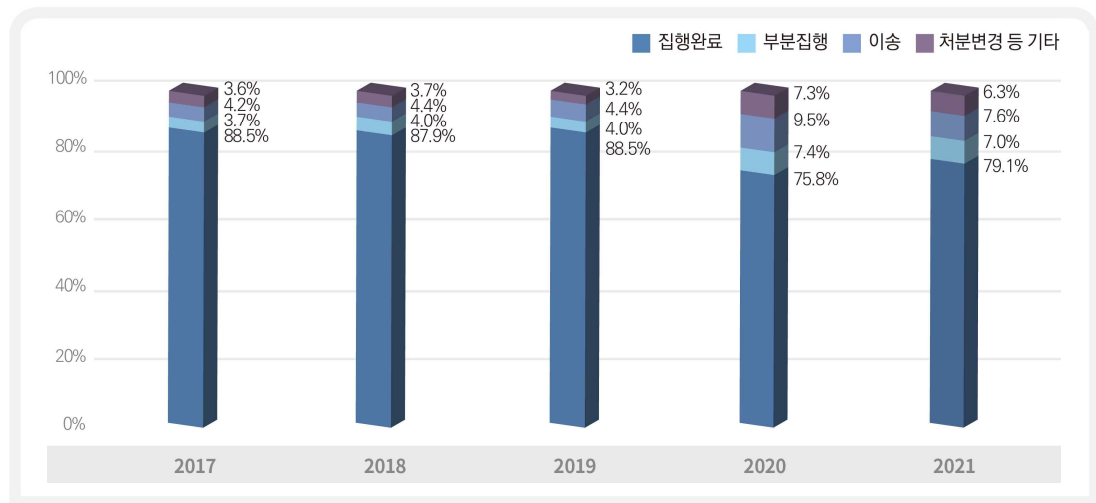


그림 4-1-26 사회봉사명령 종료 현황(2017~2021)

2)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종료 현황

- 2021년의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종료사건은 총 36,995건으로, 전년 대비 71.2% 증가하였다. 종료사건 중 집행완료에 의한 종료가 31,831건(86.0%)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보다 78.6% 증가한 것이다.

표 4-1-24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종료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집행완료	부분집행	이송	처분변경 등 기타
2017		44,157	40,653	644	2,061	799
		100%	92.0%	1.5%	4.7%	1.8%
2018		41,853	38,447	609	2,023	774
		100%	91.9%	1.5%	4.8%	1.8%
2019		40,043	36,918	607	1,930	588
		100%	92.2%	1.5%	4.8%	1.5%
2020		21,609	17,821	629	2,484	675
		100%	82.5%	2.9%	11.5%	3.1%
2021		36,995	31,831	830	3,283	1,051
		100%	86.0%	2.3%	8.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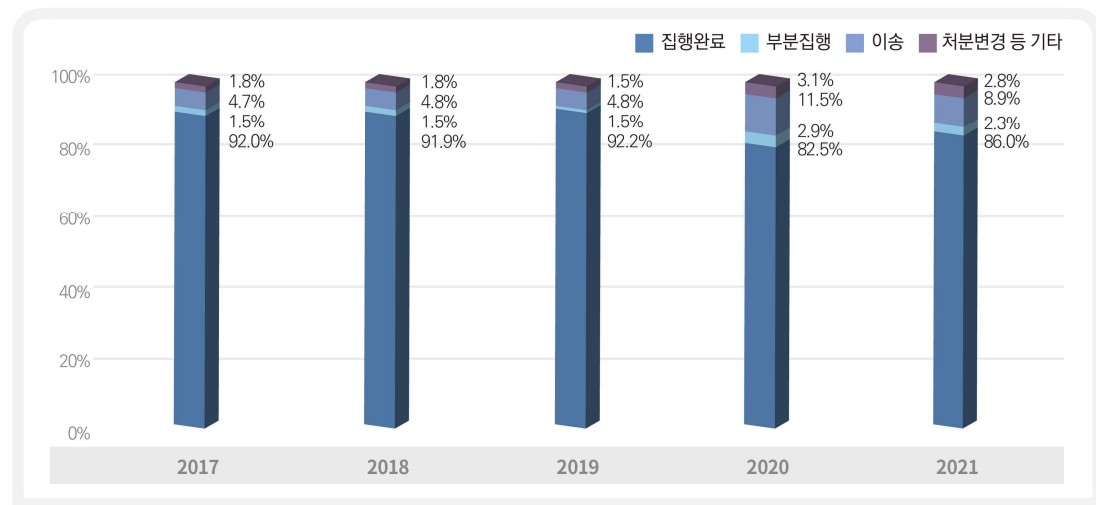


그림 4-1-27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종료 현황(2017~2021)

3) 벌금미납 사회봉사 종료 현황

- 2021년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종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집행완료가 4,658건(51.2%), 부분집행이 2,390건(26.3%), 처분변경 등에 의한 종료가 1,848건(20.3%) 등으로, 전체 사회봉사명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행완료 종료의 비율이 낮고 부분집행 종료와 처분변경 등에 의한 종료를의 비율이 높았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집행완료에 의한 종료 비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6%~70% 수준이었다가 2020년에는 54.0%, 2021년에는 51.2% 등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봉사의 집행이 곤란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1-25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종료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집행완료	부분집행	이송	처분변경 등 기타
2017		8,344	5,831	1,313	126	1,074
		100%	69.9%	15.7%	1.5%	12.9%
2018		7,707	5,116	1,352	174	1,065
		100%	66.4%	17.5%	2.3%	13.8%
2019		7,190	4,872	1,287	127	904
		100%	67.7%	17.9%	1.8%	12.6%
2020		6,622	3,579	1,457	205	1,381
		100%	54.0%	22.0%	3.1%	20.9%
2021		9,099	4,658	2,390	203	1,848
		100%	51.2%	26.3%	2.2%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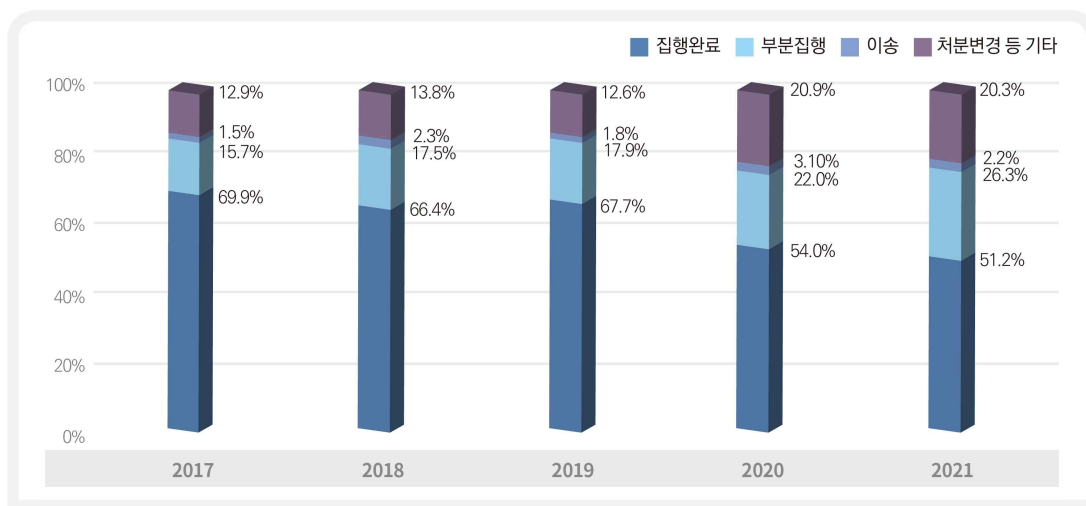


그림 4-1-28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종료 현황(2017~2021)

4)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처분변경 등 세부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의 벌금미납 사회봉사 종료사건 중 부분집행과 처분변경 등에 의한 종료의 세부 현황

지표정의

- 벌금완납 : 벌금을 완납하여 종료한 경우
- 사회봉사허가취소 : 미신고, 기간만료, 준수사항위반, 구금 등의 사유로 사회봉사허가취소되어 종료한 경우
- 기타 : 사망 등의 사유로 종료한 경우

- 2021년에 부분집행 또는 처분변경으로 종료된 벌금미납 사회봉사 사건(총 4,238건)의 세부 종료 사유를 살펴보면, 벌금 완납에 따른 종료가 1,269건(29.9%), 벌금미납 사회봉사 허가취소에 의한 종료가 2,849건(67.3%), 기타 종료가 93건(2.2%) 등이었다.
- 또한,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허가취소 사유 중 준수사항 위반이 1,287건(30.4%), 기간만료가 866건(20.4%), 기타 사유 333건(7.9%), 미신고가 232건(5.5%), 구금이 131건(3.1%) 등이었는데, 특히 기간만료에 따른 허가취소 사건이 전년보다 257.9%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벌금완납에 의한 종료사건 수가 2019년까지 연간 900건 내외였다가 2020년부터 1,10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사회봉사 허가취소 사건 수는 2018년까지 증가하다 2019년에 감소하였지만 2020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1-26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부분집행 및 처분변경 종료 세부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계	벌금 완납	사회봉사허가취소						사망	기타
			소계	미신고	기간 만료	준수사항위반	구금	기타 허가취소		
2017	2,387	937	1,391	238	112	882	65	94	13	46
	100%	39.3%	58.3%	10.0%	4.7%	37.0%	2.7%	3.9%	0.5%	1.9%
2018	2,417	931	1,435	235	156	818	69	157	20	31
	100%	38.5%	59.4%	9.7%	6.5%	33.8%	2.9%	6.5%	0.8%	1.3%
2019	2,191	860	1,283	187	77	768	62	189	4	44
	100%	39.3%	58.6%	8.5%	3.5%	35.1%	2.8%	8.6%	0.2%	2.0%
2020	2,838	1,181	1,573	181	242	786	119	245	22	62
	100%	41.6%	55.4%	6.4%	8.5%	27.7%	4.2%	8.6%	0.8%	2.2%
2021	4,238	1,269	2,849	232	866	1,287	131	333	27	93
	100%	29.9%	67.3%	5.5%	20.4%	30.4%	3.1%	7.9%	0.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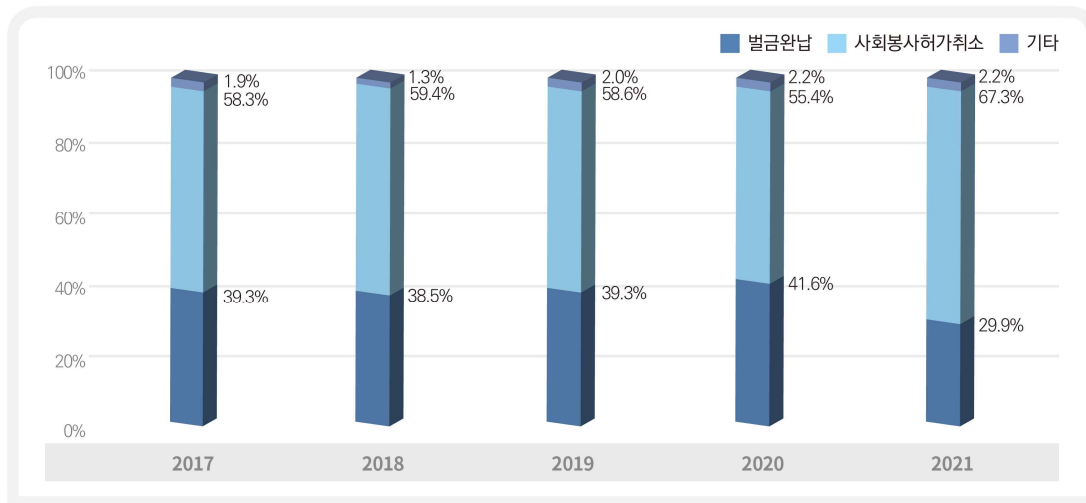


그림 4-1-29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부분집행 및 처분변경 종료 세부 현황(2017~2021)

제 2 절

수강명령

- ➔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교화 개선하고자 일정 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치료활동에 참여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청소년 비행성 교정과 심성순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의 하나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되었다. 이후 1995년 12월 형법의 개정과 연이은 특별법들의 제·개정으로 대상이 지속적으로 추가확대되어, 현재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범죄인에게 적용하고 있다.
- ➔ 이수명령은 범죄인의 재범 예방에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0년 도입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최초 시행된 이후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마약류관리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에서 순차적으로 법제화하였다. 기존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에 더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할 경우에도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 ➔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외에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자특별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의 유형에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가정폭력 재범방지교육,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음란물소지자 재범방지교육, 아동학대 재범방지교육, 인터넷댓글 재범방지교육, 정신건강상담 등이 있다.

1 접수사건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접수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 사건 현황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원에서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사건)

1) 개요

- 2021년에 접수된 수강명령·이수명령·기소유예 교육 등의 사건 총 58,696건 중 수강명령이 40,453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교육 등이 11,492건(19.6%), 이수명령이 6,751건(11.5%)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수강명령의 경우 매년 사건 수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2017년 대비 10.4% 증가하였고, 전체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상승하여 왔다.

이수명령의 사건 수는 2018년(6,578건) 이후 6,500건 내외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소유예 교육 등은 매년 사건 수가 감소하여 2021년에는 2017년 대비 43.4% 감소하였다.

표 4-2-1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의 접수사건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수강명령	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
2017	62,315	36,657	5,362	20,296
	100%	58.8%	8.6%	32.6%
2018	56,291	33,306	6,578	16,407
	100%	59.2%	11.7%	29.1%
2019	55,761	34,518	6,403	14,840
	100%	61.9%	11.5%	26.6%
2020	60,474	41,672	6,647	12,155
	100%	68.9%	11.0%	20.1%
2021	58,696	40,453	6,751	11,492
	100%	68.9%	11.5%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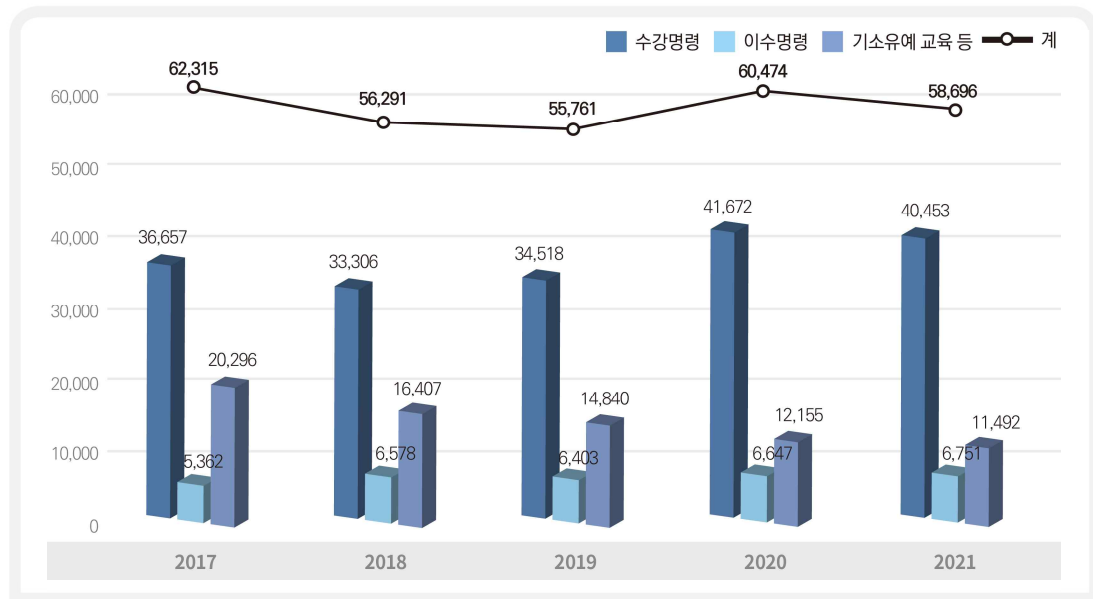


그림 4-2-1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의 접수사건 현황(2017~2021)

2) 처분유형별 현황

(1) 수강명령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보호관찰 병과, 단독명령) 현황

지표정의

- 보호관찰 병과 : 수강명령이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부과된 경우
- 단독명령 : 보호관찰 처분의 부과 없이 수강명령이 부과된 경우

- 2021년의 수강명령 접수사건을 처분유형별로 구분하면, 보호관찰 병과가 9,842건(24.3%), 단독 수강명령이 30,611건(75.7%)으로, 단독명령 사건이 보호관찰 병과사건의 3배 이상이었다.
- 한편, 처분유형별 현황은 연령에 따라 달라, 소년사건에서는 보호관찰 병과가 57.0%, 단독 명령이 43.0%인데 비해 성인사건에서는 보호관찰 병과가 20.2%, 단독명령이 79.8%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처분유형별 현황은, 소년사건의 경우, 매년 보호관찰 병과사건이 더 많았지만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2017년 72.7%에서 2021년 57.0%를 나타냈다. 성인사건에서도 보호관찰 병과사건의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소년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쳤다,

표 4-2-2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전체			소년			성인		
	계	보호관찰병과	단독명령	계	보호관찰병과	단독명령	계	보호관찰병과	단독명령
2017	36,657	12,621	24,036	4,888	3,554	1,334	31,769	9,067	22,702
	100%	34.4%	65.6%	100%	72.7%	27.3%	100%	28.5%	71.5%
2018	33,306	10,586	22,720	4,623	3,160	1,463	28,683	7,426	21,257
	100%	31.8%	68.2%	100%	68.4%	31.6%	100%	25.9%	74.1%
2019	34,518	10,505	24,013	4,125	2,644	1,481	30,393	7,861	22,532
	100%	30.4%	69.6%	100%	64.1%	35.9%	100%	25.9%	74.1%
2020	41,672	11,585	30,087	5,426	3,236	2,190	36,246	8,349	27,897
	100%	27.8%	72.2%	100%	59.6%	40.4%	100%	23.0%	77.0%
2021	40,453	9,842	30,611	4,569	2,606	1,963	35,884	7,236	28,648
	100%	24.3%	75.7%	100%	57.0%	43.0%	100%	20.2%	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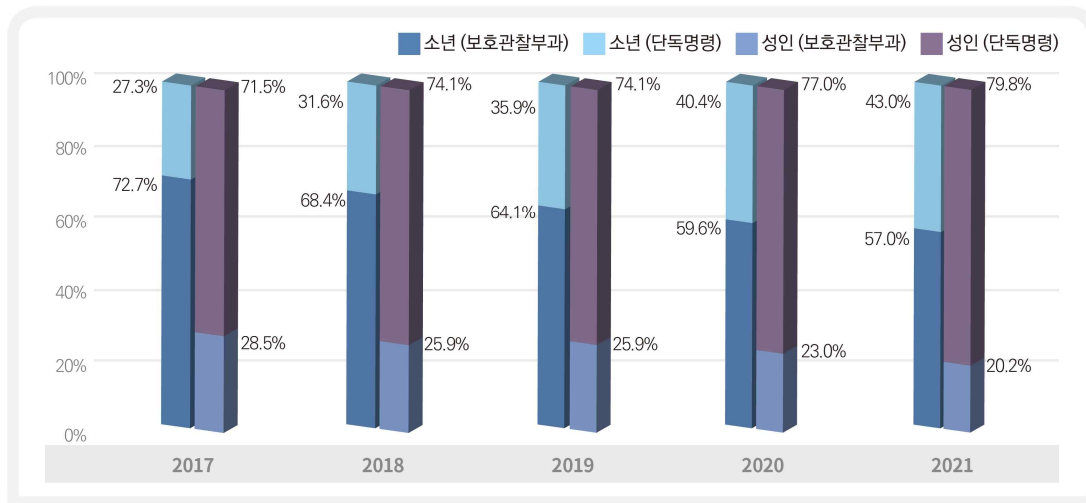


그림 4-2-2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2) 이수명령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의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

지표정의

- 당해연도 이수명령의 접수사건을 처분유형별(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유예) 사건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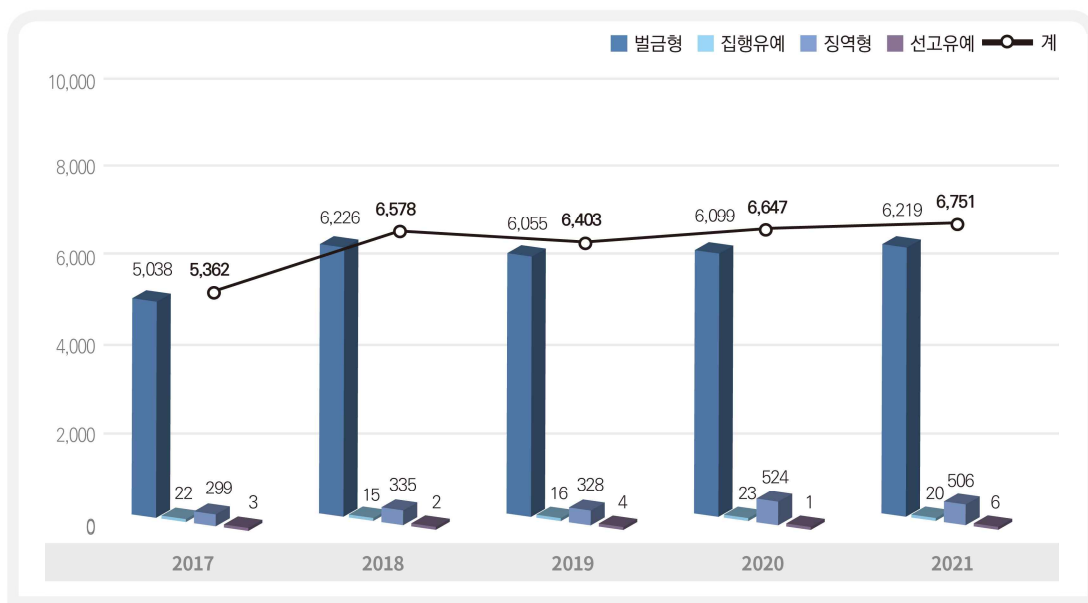
- 2021년에 접수된 이수명령사건을 처분유형별로 구분하면, 벌금형 병과사건이 6,219건(92.1%)으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어서 징역형 병과가 506건(7.5%), 집행유예 병과가 20건(0.3%), 선고유예 병과가 6건(0.1%)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벌금형 병과사건은 2017년(5,038건) 이후 매년 6,000건 이상을 유지하면서 전체 이수명령의 91% 이상을 차지하였고, 징역형 병과사건은 전체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7년(299건) 이후 계속 사건 수가 증가하였다.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 등 집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보호관찰기관에서의 징역형 병과사건 접수사건이 증가하였다.

* 관련 근거 법률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에 병과되는 이수명령은 형기 내에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지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표 4-2-3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연도\형태	계	벌금형 병과	집행유예 병과	징역형 병과	선고유예 병과
2017	5,362	5,038	22	299	3
	100%	94.0%	0.4%	5.6%	0.1%
2018	6,578	6,226	15	335	2
	100%	94.6%	0.2%	5.1%	0.0%
2019	6,403	6,055	16	328	4
	100%	94.6%	0.2%	5.1%	0.1%
2020	6,647	6,099	23	524	1
	100%	91.8%	0.3%	7.9%	0.0%
2021	6,751	6,219	20	506	6
	100%	92.1%	0.3%	7.5%	0.1%



그래프 4-2-3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3) 근거 법률별 현황

(1) 수강명령

- 2021년의 수강명령 접수사건을 근거 법률에 따라 구분한 결과, 형법이 25,836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년법 4,412건(10.9%), 성폭력처벌법 4,311건(10.7%), 가정폭력처벌법 3,152건(7.8%), 청소년성보호법 1,283건(3.2%), 아동학대처벌법 1,277건(3.1%)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성매매처벌법(125건), 마약류관리법(56건), 산업안전보건법(1건) 등은 각각 1% 미만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형법은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2019년까지 59% 내외였다가 2020년 이후 65%에 근접하였다. 소년법의 경우, 2019년까지 사건수가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3.5%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다시 2018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성폭력처벌법은 2020년까지 3,700~3,900건 수준이었다가 2021년 4,30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06.7% 급증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2017년 573건(1.6%)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1,277건(3.1%)을 기록하였다. 성매매처벌법은 2017년(698건, 1.9%) 이후 사건수와 비율이 계속 감소하였다.

표 4-2-4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계	형법	소년법	성폭력 처벌법	가정폭력 처벌법	성매매 처벌법	청소년 성보호법	아동학대 처벌법	산업안전 보건법	마약류 관리법	스토킹 처벌법
2017	36,657	21,508	4,775	3,781	4,488	698	834	573	—	—	—
	100%	58.7%	13.0%	10.3%	12.2%	1.9%	2.3%	1.6%	—	—	—
2018	33,306	19,604	4,510	3,703	3,801	331	737	620	—	—	—
	100%	58.9%	13.5%	11.1%	11.4%	1.0%	2.2%	1.9%	—	—	—
2019	34,518	20,577	3,975	3,850	4,512	214	624	766	—	—	—
	100%	59.6%	11.5%	11.2%	13.1%	0.6%	1.8%	2.2%	—	—	—
2020	41,672	26,643	5,305	3,978	3,922	237	621	966	0	0	—
	100%	63.9%	12.7%	9.6%	9.4%	0.6%	1.5%	2.3%	0.0%	0.0%	—
2021	40,453	25,836	4,412	4,311	3,152	125	1,283	1,277	1	56	0
	100%	63.9%	10.9%	10.7%	7.8%	0.3%	3.2%	3.1%	0.0%	0.1%	0.0%

(2) 이수명령

- 2021년의 이수명령 접수사건을 근거 법률에 따라 구분하면, 성폭력처벌법이 6,361건으로 전체의 94.2%를 차지하였고 청소년성보호법이 390건(5.8%)이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마약류관리법 등은 없었다.
- 최근 5년간 매년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전체의 99.8%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아동학대처벌법은 5건 이하였다. 2020년부터 시행된 마약류관리법은 2020년에 2건이 접수되었을 뿐 2021년에는 접수사건이 없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도 2020년과 2021년에 접수 사건이 없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톱킹처벌법 역시 접수사건이 없었다.

➡ 이수명령은 2010년 4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최초 시행되었고, 이후 성폭력처벌법(2011년 10월), 아동학대처벌법(2017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2020년 1월), 마약류관리법(2020년 12월) 등에서 시행되었다. 2021년 1월부터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021년 10월부터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형벌과 병과할 수 있게 되었다.

표 4-2-5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처분법 연도	계	성폭력 처벌법	청소년 성보호법	아동학대 처벌법	산업안전 보건법	마약류 관리법	가정폭력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2017	5,362	5,105	253	4	—	—	—	—
	100%	95.2%	4.7%	0.1%	—	—	—	—
2018	6,578	6,301	272	5	—	—	—	—
	100%	95.8%	4.1%	0.1%	—	—	—	—
2019	6,403	6,145	256	2	—	—	—	—
	100%	96.0%	4.0%	0.0%	—	—	—	—
2020	6,647	6,385	255	5	0	2	—	—
	100%	96.1%	3.8%	0.1%	0.0%	0.0%	—	—
2021	6,751	6,361	390	0	0	0	0	0
	100%	94.2%	5.8%	0.0%	0.0%	0.0%	0.0%	0.0%

4) 연령별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이수명령, 기소유예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

지표정의

- 소년 :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미만(단, 소년법 대상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년으로 분류)
- 성인 :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이상

- 2021년의 전체 수강명령 접수사건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소년이 7,872건(13.4%), 성인이 50,824건(86.6%)이었다. 이를 수강명령, 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으로 세분하면, 수강명령의 경우 소년이 4,569건(11.3%), 성인이 35,884건(88.7%)이었고, 이수명령은 소년이 4건(0.1%), 성인이 6,747건(99.9%)이었으며, 기소유예 교육 등은 소년이 3,299건(28.7%), 성인이 8,193건(71.3%)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접수사건에서 성인의 비율이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수강명령은 86~88%를, 이수명령은 99% 이상을, 기소유예 교육 등은 64~73%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4-2-6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전체		수강명령		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	
	소년	성인	소년	성인	소년	성인	소년	성인
2017	10,880	51,435	4,888	31,769	2	5,360	5,990	14,306
	17.5%	82.5%	13.3%	86.7%	0.0%	100%	29.5%	70.5%
2018	10,441	45,850	4,623	28,683	0	6,578	5,818	10,589
	18.5%	81.5%	13.9%	86.1%	0.0%	100%	35.5%	64.5%
2019	8,032	47,729	4,125	30,393	2	6,401	3,905	10,935
	14.4%	85.6%	12.0%	88.0%	0.0%	100%	26.3%	73.7%
2020	9,144	51,330	5,426	36,246	0	6,647	3,718	8,437
	15.1%	84.9%	13.0%	87.0%	0.0%	100%	30.6%	69.4%
2021	7,872	50,824	4,569	35,884	4	6,747	3,299	8,193
	13.4%	86.6%	11.3%	88.7%	0.1%	99.9%	28.7%	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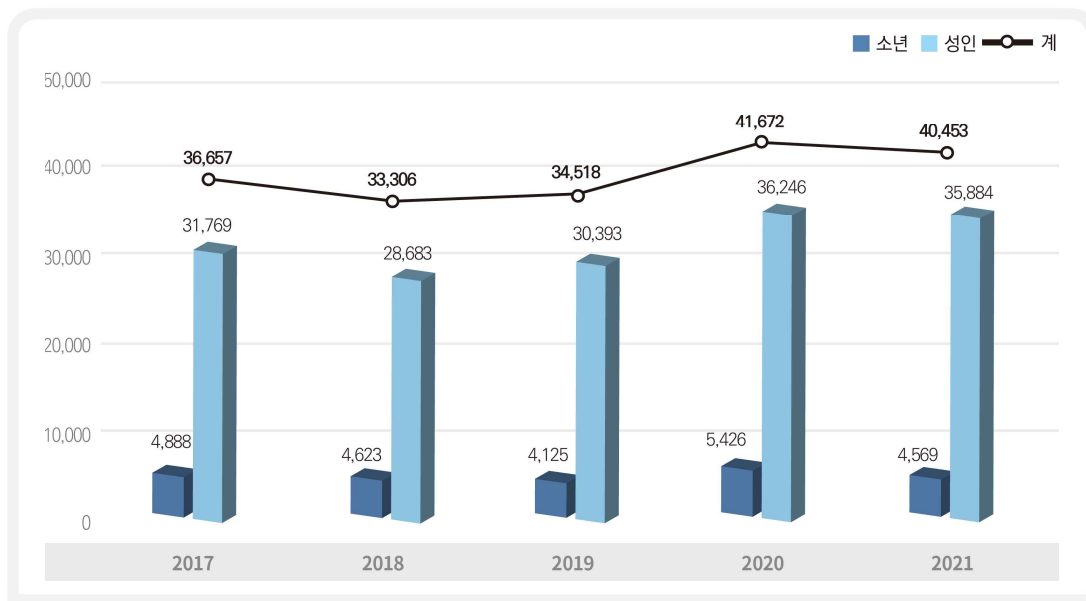


그림 4-2-4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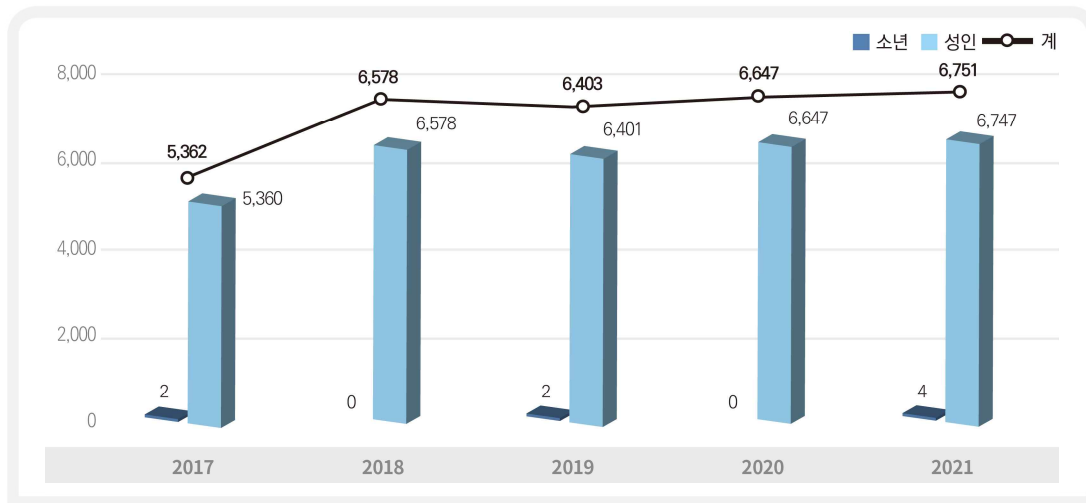


그림 4-2-5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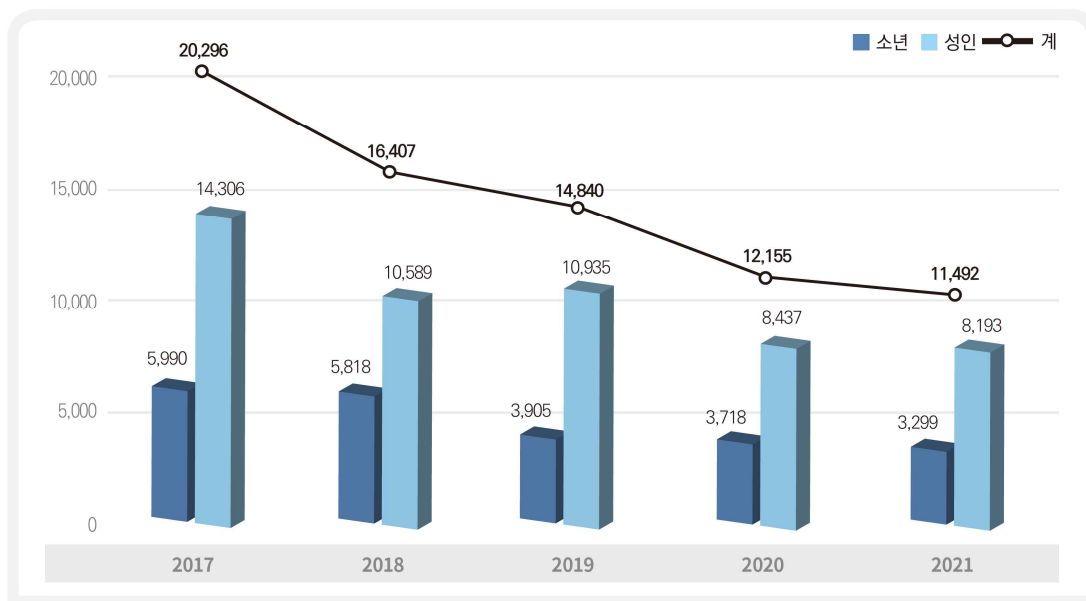


그림 4-2-6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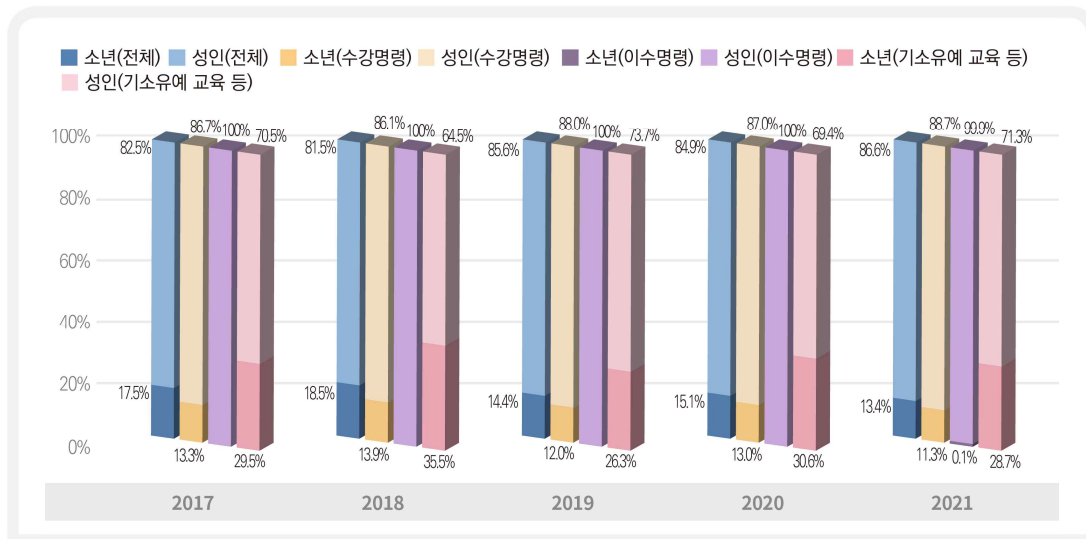


그림 4-2-7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 ➡ 2021년에 접수된 소년 수강명령 등 사건의 연령대를 세분하면, 17세가 1,829건(23.2%), 18세가 1,633건(20.8%), 16세가 1,554건(19.7%), 15세가 1,254건(15.9%) 등으로 15~18세가 79.6%를 차지하였다. 그 외 14세가 917건(11.7%), 14세 미만이 627건(8.0%), 19세 이상이 58건(0.7%) 등이었다.

* 소년 수강명령 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21)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이상
7,872	627	917	1,254	1,554	1,829	1,633	58
100%	8.0%	11.7%	15.9%	19.7%	23.2%	20.8%	0.7%

- ➡ 2021년에 접수된 성인 수강명령 등 접수사건의 연령대를 세분하면, 40대가 12,310건(24.2%), 30대가 10,941건(21.5%), 50대가 10,778건(21.2%)으로, 30~50대가 전체의 66.9%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20대가 10,364건(20.4%), 60대가 5,247건(10.3%), 70대가 1,052건(2.1%), 80대 이상이 132건(0.3%) 등이었다.

* 성인 수강명령 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21)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50,824	10,364	10,941	12,310	10,778	5,247	1,052	132
100%	20.4%	21.5%	24.2%	21.2%	10.3%	2.1%	0.3%

5) 성별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이수명령, 기소유예교육 등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

- 2021년 수강명령 등의 전체 접수사건은 남성이 53,180건(90.6%), 여성이 5,516건(9.4%) 이었다. 이를 수강·이수명령과 기소유예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강명령은 남성 36,684건(90.7%), 여성 3,769건(9.3%), 이수명령은 남성 6,580건(97.5%), 여성 171건(2.5%), 기소유예 교육 등은 남성 9,916건(86.3%), 여성 1,576건(13.7%) 등으로, 모든 분야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 최근 5년간 전체 접수사건 중 남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 사건이 점차 증가하면서 여성 비율이 2017년 7.7%에서 2021년 9.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성 비율의 증가추세는 수강명령, 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에서 모두 나타났다,

표 4-2-7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전체		수강명령		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57,509	4,806	33,368	3,289	5,304	58	18,837	1,459
		92.3%	7.7%	91.0%	9.0%	98.9%	1.1%	92.8%	7.2%
2018		51,899	4,392	30,425	2,881	6,492	86	14,982	1,425
		92.2%	7.8%	91.3%	8.7%	98.7%	1.3%	91.3%	8.7%
2019		50,578	5,183	31,230	3,288	6,273	130	13,075	1,765
		90.7%	9.3%	90.5%	9.5%	98.0%	2.0%	88.1%	11.9%
2020		54,637	5,837	37,717	3,955	6,510	137	10,410	1,745
		90.3%	9.7%	90.5%	9.5%	97.9%	2.1%	85.6%	14.4%
2021		53,180	5,516	36,684	3,769	6,580	171	9,916	1,576
		90.6%	9.4%	90.7%	9.3%	97.5%	2.5%	86.3%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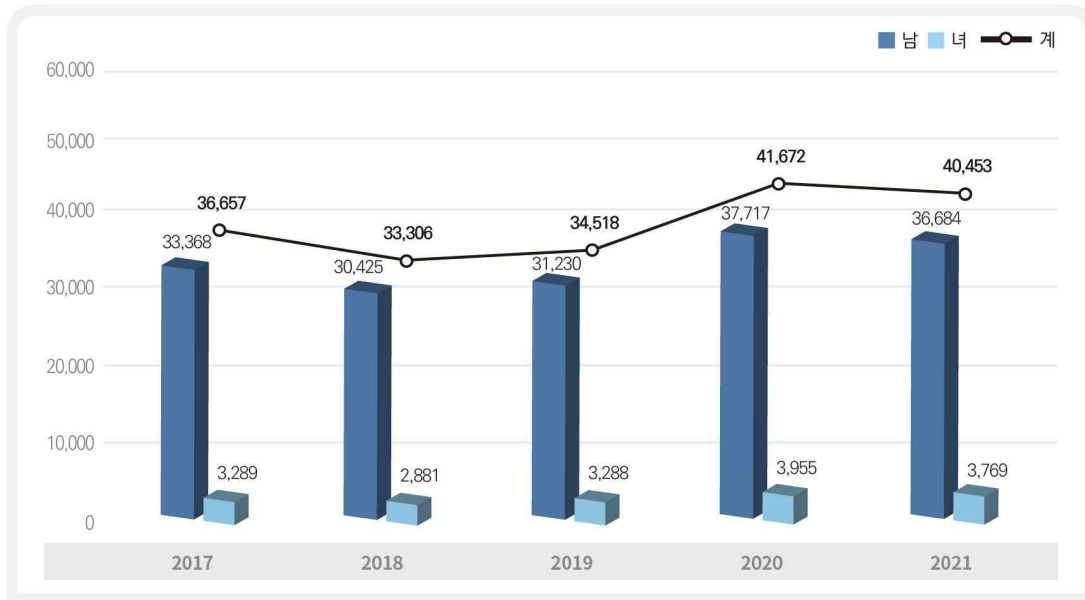


그림 4-2-8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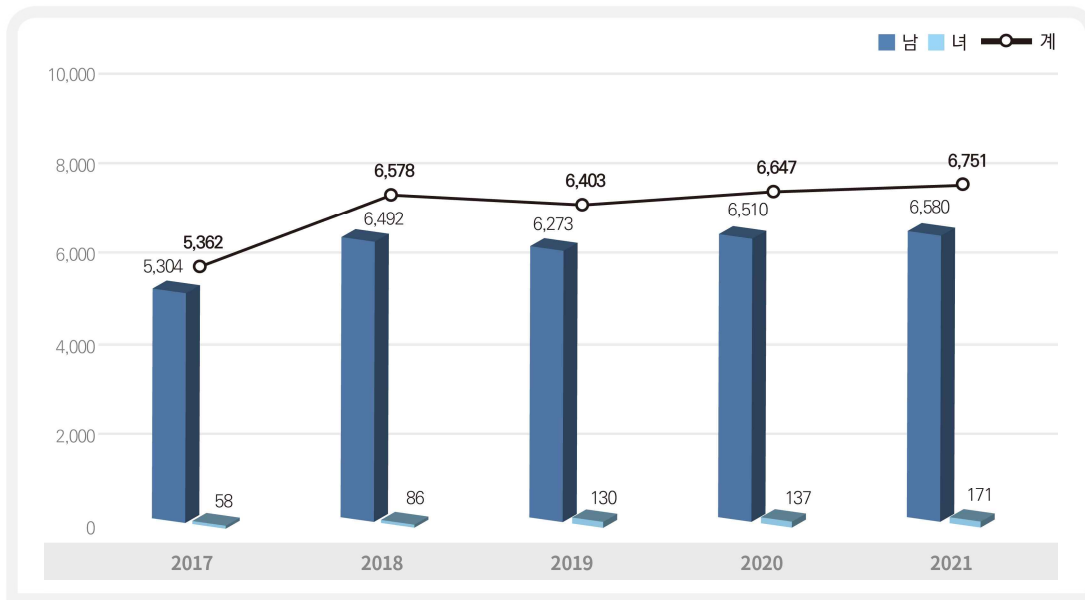


그림 4-2-9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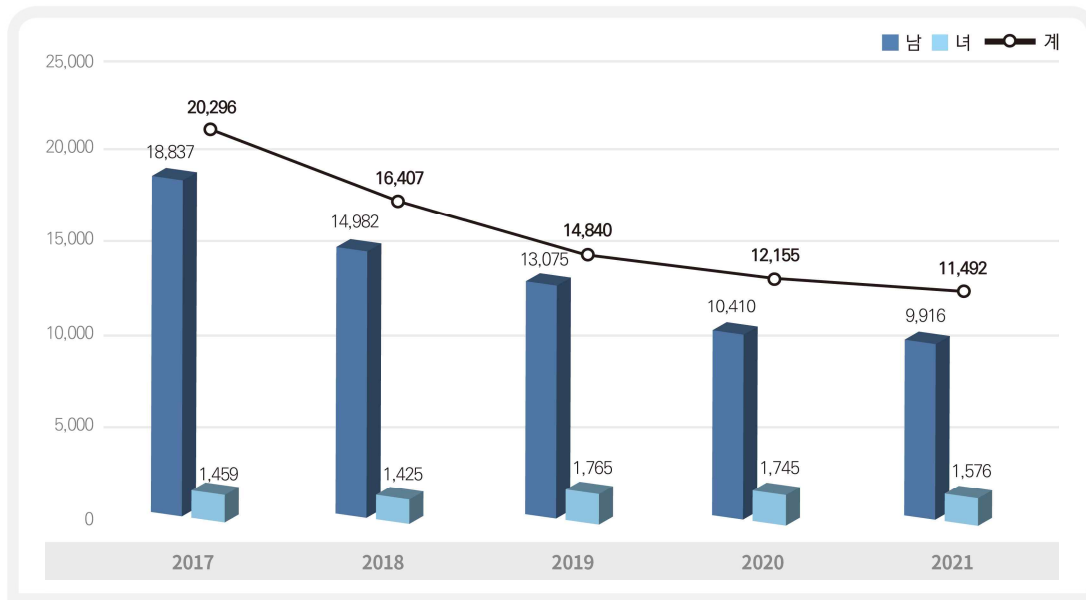


그림 4-2-10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7~2021)

6)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

(1) 수강명령

- 2021년의 수강명령 접수사건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결과, 성인 남성이 32,812건(8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년 남성이 3,872건(9.6%), 성인 여성이 3,072건(7.6%), 소년 여성이 697건(1.7%) 등이었다.

표 4-2-8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사범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36,657	4,172	716	29,196	2,573
		100%	11.4%	2.0%	79.6%	7.0%
2018		33,306	3,930	693	26,495	2,188
		100%	11.8%	2.1%	79.6%	6.6%
2019		34,518	3,375	750	27,855	2,538
		100%	9.8%	2.2%	80.7%	7.4%
2020		41,672	4,599	827	33,118	3,128
		100%	11.0%	2.0%	79.5%	7.5%
2021		40,453	3,872	697	32,812	3,072
		100%	9.6%	1.7%	81.1%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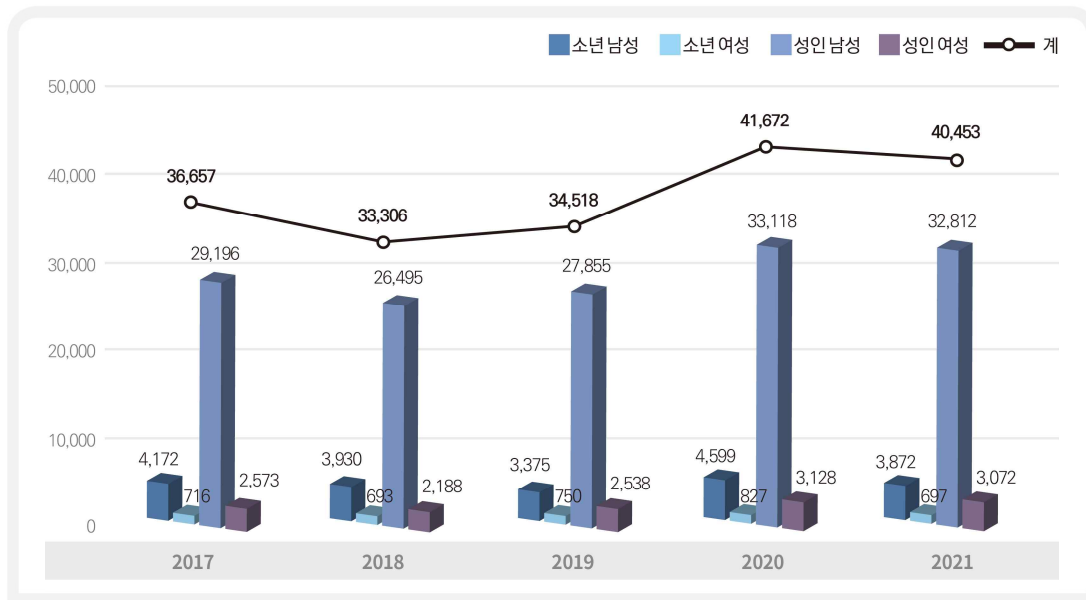


그림 4-2-11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2) 이수명령

- 2021년의 이수명령 접수사건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결과, 성인 남성이 6,576건(97.4%), 성인 여성이 171건(2.5%), 소년 남성이 4건(0.1%)이었고, 소년 여성은 없었다.
- 최근 5년간 매년 성인 남성이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하였고, 성인 여성은 그 수가 적어 최대 171건에 불과하지만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4-2-9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사범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5,362	2	0	5,302	58
		100%	0.0%	0.0%	98.9%	1.1%
2018		6,578	0	0	6,492	86
		100%	0.0%	0.0%	98.7%	1.3%
2019		6,403	2	0	6,271	130
		100%	0.0%	0.0%	97.9%	2.0%
2020		6,647	0	0	6,510	137
		100%	0.0%	0.0%	97.9%	2.1%
2021		6,751	4	0	6,576	171
		100%	0.1%	0.0%	97.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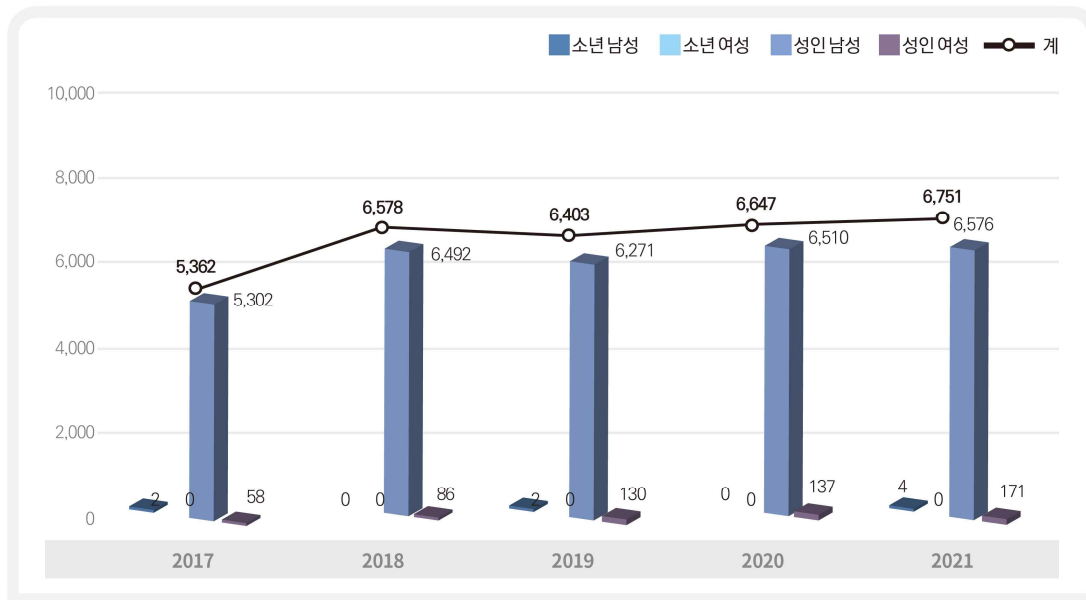


그림 4-2-12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3) 기소유예 교육 등

- 2021년의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결과, 성인 남성이 7,233건 (62.9%), 소년 남성이 2,683건(23.3%), 성인 여성이 960건(8.4%), 소년 여성이 616건(5.4%) 이었다.
- 지난 5년간 성인 사건의 경우 남성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여성은 증가추세를 보여 2021년의 남성 사건 수는 2017년에 비해 47.8% 감소하였고 여성 사건 수는 112.9% 증가하였다. 소년사건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접수사건 수가 감소하였다.

표 4-2-10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20,296	4,982	1,008	13,855	451
		100%	24.5%	5.0%	68.3%	2.2%
2018		16,407	4,863	955	10,119	470
		100%	29.6%	5.8%	61.7%	2.9%
2019		14,840	3,088	817	9,987	948
		100%	20.8%	5.5%	67.3%	6.4%
2020		12,155	2,962	756	7,448	989
		100%	24.4%	6.2%	61.3%	8.1%

연도	구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1		11,492	2,683	616	7,233	960
		100%	23.3%	5.4%	62.9%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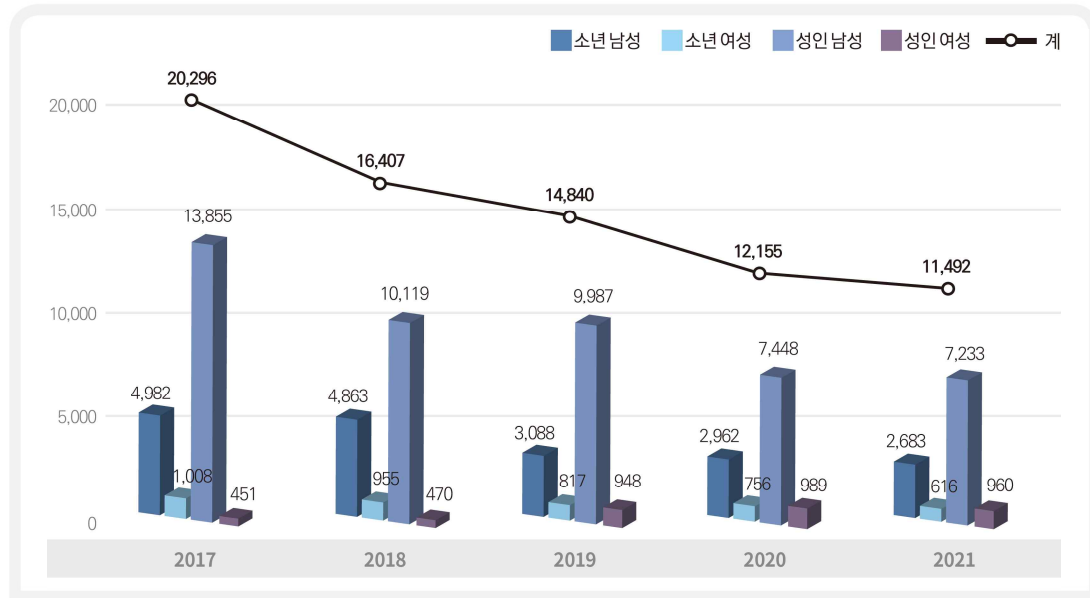


그림 4-2-13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7) 내외국인 현황

- 2021년의 수강명령 등 접수사건 총 58,696건 중 내국인이 58,192건(99.1%), 외국인이 504건(0.9%)이었다. 연령별로 구분하며, 소년사건의 경우 내국인이 7,836건(99.5%), 외국인이 36명(0.5%)이었고, 성인사건의 경우 내국인이 50,356건(99.1%), 외국인이 468건(0.9%)이었다.

표 4-2-11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전체			소년			성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2017		62,315	61,864	451	10,880	10,855	25	51,435	51,009	426
		100%	99.3%	0.7%	100%	99.8%	0.2%	100%	99.2%	0.8%
2018		56,291	55,802	489	10,441	10,413	28	45,850	45,389	461
		100%	99.1%	0.9%	100%	99.7%	0.3%	100%	99.0%	1.0%
2019		55,761	55,227	534	8,032	8,020	12	47,729	47,207	522
		100%	99.0%	1.0%	100%	99.9%	0.1%	100%	98.9%	1.1%

구분 연도	전체			소년			성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2020	60,474	59,953	521	9,141	9,118	23	51,333	50,835	498
	100%	99.1%	0.9%	100%	99.7%	0.3%	100%	99.0%	1.0%
2021	58,696	58,192	504	7,872	7,836	36	50,824	50,356	468
	100%	99.1%	0.9%	100%	99.5%	0.5%	100%	99.1%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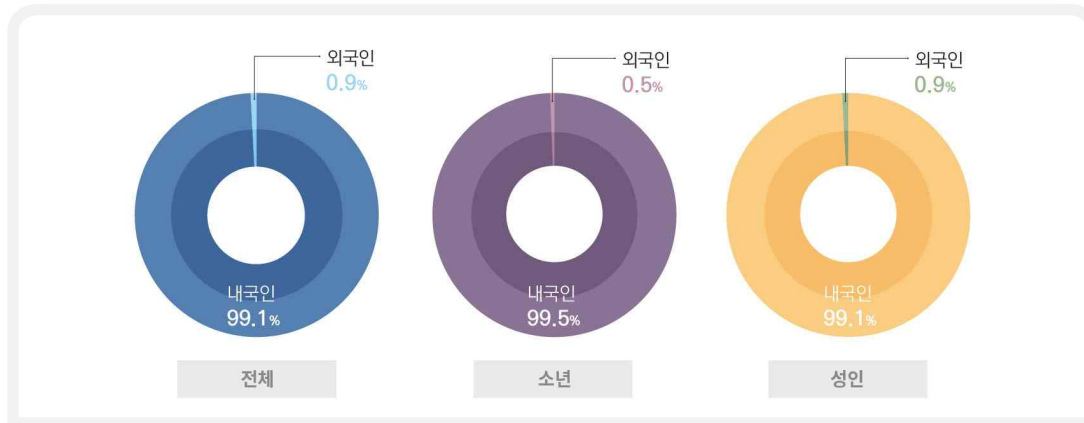


그림 4-2-14 전체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17~2021)

8) 사범별 현황

- 2021년에 접수된 수강명령을 사범에 따라 구분하면, 교통사범이 23,032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폭력사범 6,202건(15.3%), 폭력사범 5,446건(13.5%), 기타사범 2,470건(6.1%), 절도사범 979건(2.4%), 풍속사범 927건(2.3%), 마약사범 878건(2.2%) 등의 순이었다. 그밖에 사기횡령사범, 강력사범, 경제사범 등은 각 2%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의 사범별 추이를 살펴보면, 교통사범은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2019년까지 49~50%였다가 2020년 이후 57% 내외로 증가하였다. 반면 폭력사범은 2017년에 전체의 20%를 차지하였으나 사건 수가 줄면서 2020년 15.2%, 2021년 13.5%로 축소되었다.
- 성폭력사범의 비율은 매년 13~16%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였고, 사건 수는 2020년까지 5,000건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는 6,000건 이상을 기록하였다. 풍속사범은 2017년에 최고 사건 수(1,292건)를 기록한 후 2019년까지 감소하였고, 매년 전체의 1~2%를 차지하는 마약사범은 2017년 903건에서 2020년 616건까지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2.5% 증가하였다.

표 4-2-12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연도\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36,657	7,347	17,940	1,076	379	88	903	1,292	5,524	40	2,068
	100%	20.0%	49.0%	2.9%	1.0%	0.3%	2.5%	3.5%	15.1%	0.1%	5.6%
2018	33,306	6,466	16,620	1,054	347	66	698	772	5,379	36	1,868
	100%	19.4%	49.9%	3.2%	1.0%	0.2%	2.1%	2.3%	16.2%	0.1%	5.6%
2019	34,518	6,970	17,531	934	339	110	623	640	5,371	39	1,961
	100%	20.2%	50.8%	2.7%	1.0%	0.3%	1.8%	1.8%	15.6%	0.1%	5.7%
2020	41,672	6,343	24,211	1,288	467	114	616	683	5,550	34	2,366
	100%	15.2%	58.1%	3.1%	1.1%	0.3%	1.5%	1.6%	13.3%	0.1%	5.7%
2021	40,453	5,446	23,032	979	404	96	878	927	6,202	19	2,470
	100%	13.5%	56.9%	2.4%	1.0%	0.2%	2.2%	2.3%	15.3%	0.1%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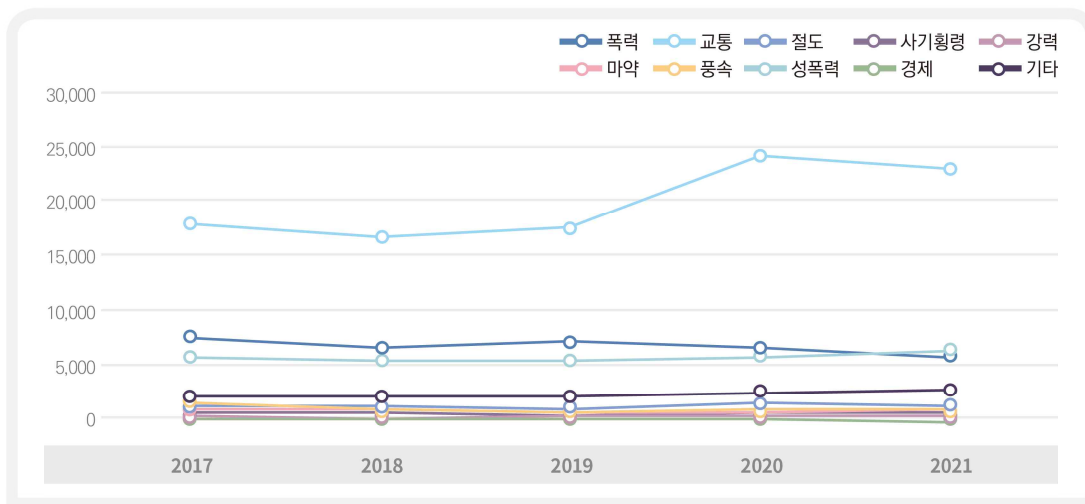


그림 4-2-15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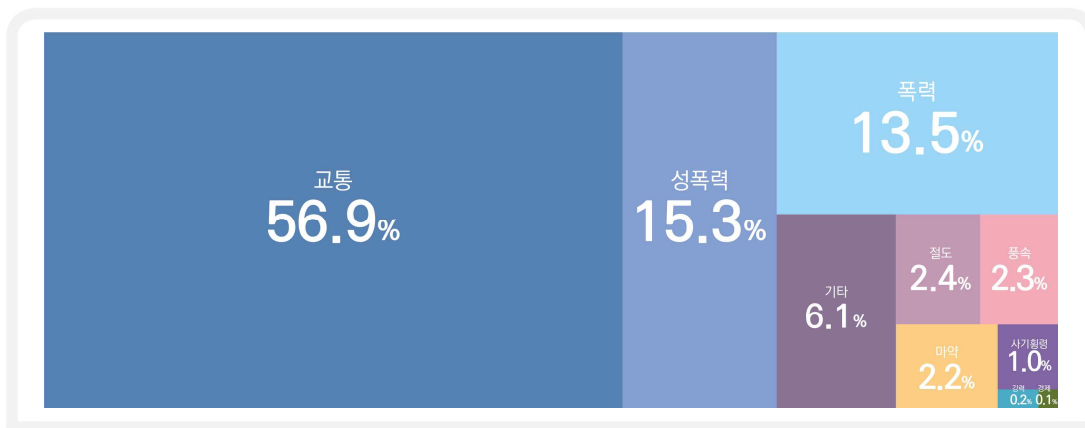


그림 4-2-16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1)

9) 명령시간별 현황

(1) 수강명령

- 2021년의 수강명령 접수사건을 부과시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 50시간 이하가 39,142건으로 96.8%를 차지하였고, 51~100시간이 1,253건(3.1%), 100시간 초과가 총 58건(0.1%)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50시간 이하의 비율은 소폭이지만 매년 증가한 반면 51~100시간은 2018년까지 5%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 이후 3%대로 떨어졌고, 101~200시간은 매년 0.5% 이하를 유지하였으며, 200시간 이상의 경우, 301~400시간이 2018년 1건, 2019년 2건, 201~300시간이 2021년에 1건 접수되었을 뿐이었다.

표 4-2-13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7~2021)

연도\시간	계	50시간 이하	51~100시간	101~200시간	201~300시간	301~400시간
2017	36,657	34,516	2,051	90	0	0
	100%	94.2%	5.6%	0.2%	0.0%	0.0%
2018	33,306	31,418	1,773	114	0	1
	100%	94.3%	5.3%	0.4%	0.0%	0.0%
2019	34,518	33,102	1,318	96	0	2
	100%	95.9%	3.8%	0.3%	0.0%	0.0%
2020	41,672	40,316	1,283	73	0	0
	100%	96.7%	3.1%	0.2%	0.0%	0.0%
2021	40,453	39,142	1,253	57	1	0
	100%	96.8%	3.1%	0.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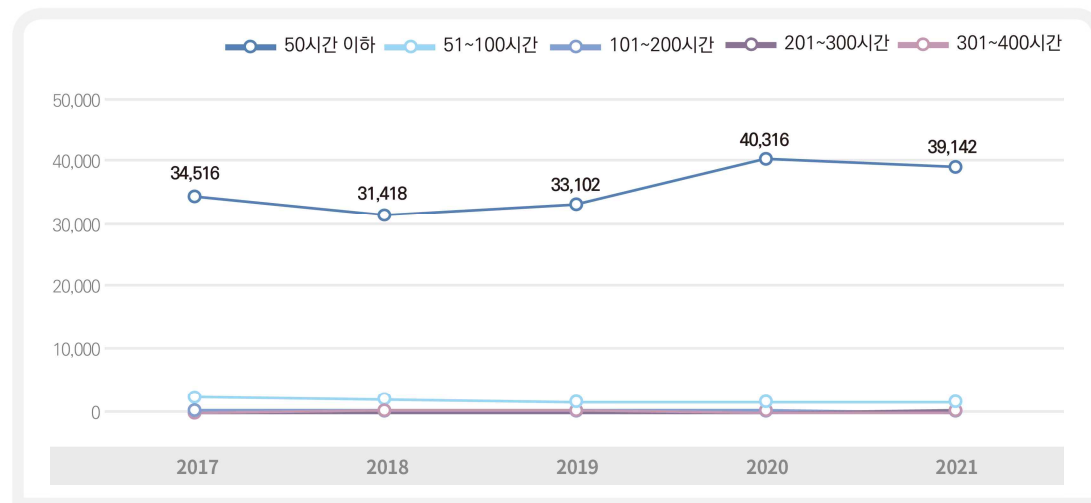


그림 4-2-17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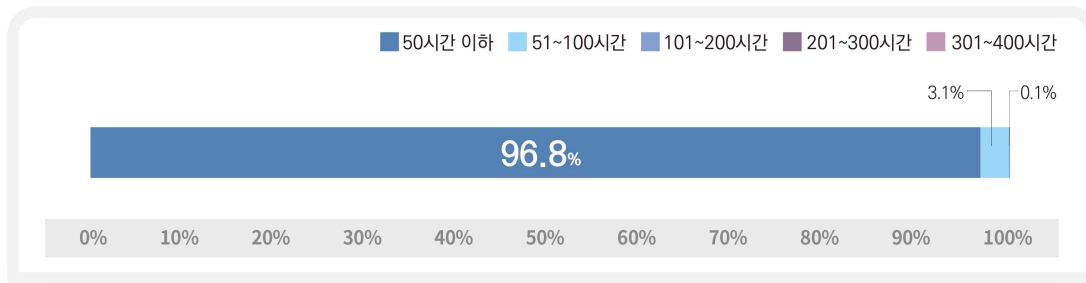


그림 4-2-18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점유율(2021)

(2) 이수명령

- 2021년의 이수명령 접수사건을 부과 시간에 따라 구분하면, 50시간 이하가 6,543건으로 96.9%를 차지하였고, 51~100시간이 194건(2.9%), 100시간 초과가 14건(0.2%)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50시간 이하의 사건 수는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대체로 증가추세이며 전체의 95~97%를 차지하였다. 51~100시간의 경우 2020년(4.0%)을 제외하고는 매년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4-2-14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7~2021)

연도\시간	계	50시간 이하	51~100시간	101~200시간	201~300시간	301~400시간
2017	5,362	5,226	122	14	0	0
	100%	97.4%	2.3%	0.3%	0.0%	0.0%
2018	6,578	6,423	139	16	0	0
	100%	97.7%	2.1%	0.2%	0.0%	0.0%
2019	6,403	6,253	132	16	2	0
	100%	97.7%	2.1%	0.2%	0.0%	0.0%
2020	6,647	6,363	261	20	2	1
	100%	95.7%	4.0%	0.3%	0.0%	0.0%
2021	6,751	6,543	194	14	0	0
	100%	96.9%	2.9%	0.2%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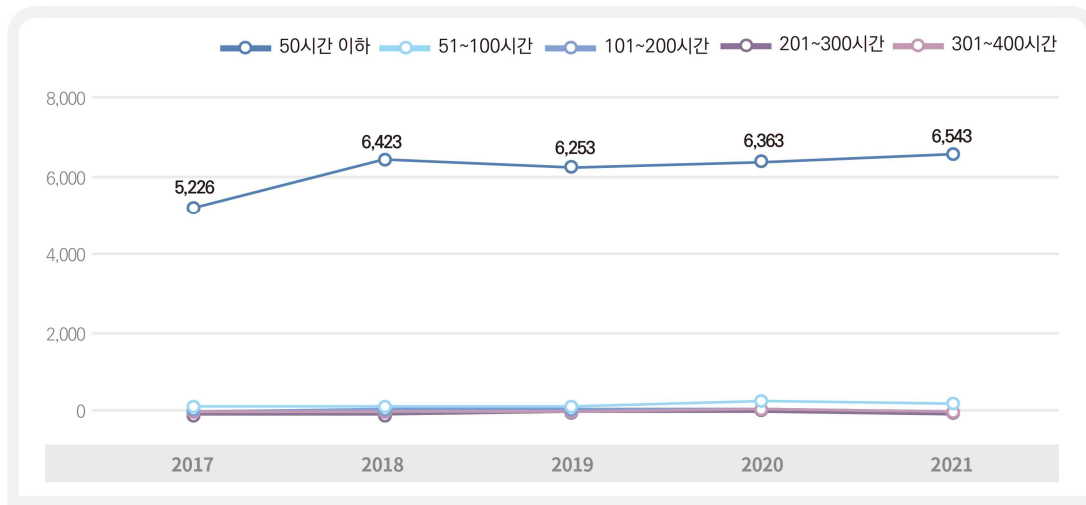


그림 4-2-19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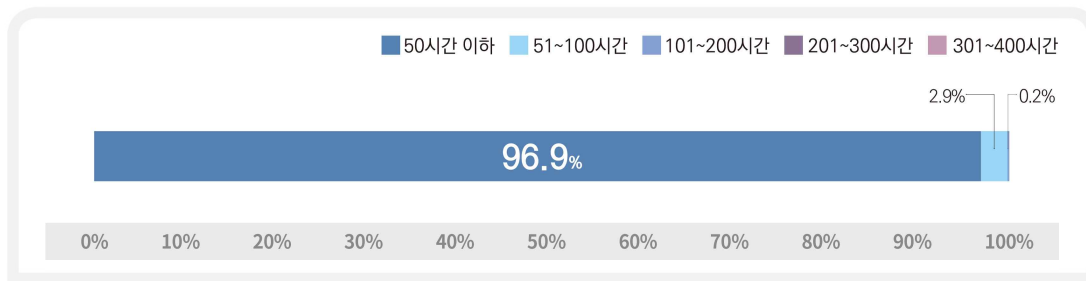


그림 4-2-20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점유율(2021)

2 실시 및 집행사건 현황

1) 실시사건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한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현황

지표정의

- 실시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접수사건) +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건 수)

- 2021년 수강·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의 실시사건을 살펴보면, 수강명령이 68,422건(71.2%), 이수명령이 9,200건(9.6%), 기소유예 교육 등이 18,471건(19.2%) 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실시사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강명령은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년대보다 증가하였고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의 57.3%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70%를 넘겼다, 이수명령의 경우, 매년 사건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7~11% 범위에서 변화하였다. 기소유예 교육 등의 사건은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021년 반등하였으나,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 ➡ 2021년에 이수명령을 제외하고 수강명령과 기소유예 교육 등의 접수사건이 감소하였음에도 수강명령, 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의 실시사건이 전년 대비 28.6% 증가한 것은 구수(2020년 이월사건)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표 4-2-15 수강 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실시사건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수강명령	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
2017		79,313	45,459	6,290	27,564
		100%	57.3%	7.9%	34.8%
2018		70,780	41,884	7,999	20,897
		100%	59.2%	11.3%	29.5%
2019		69,389	42,408	7,808	19,173
		100%	61.1%	11.3%	27.6%
2020		74,721	50,357	8,225	16,139
		100%	67.4%	11.0%	21.6%
2021		96,093	68,422	9,200	18,471
		100%	71.2%	9.6%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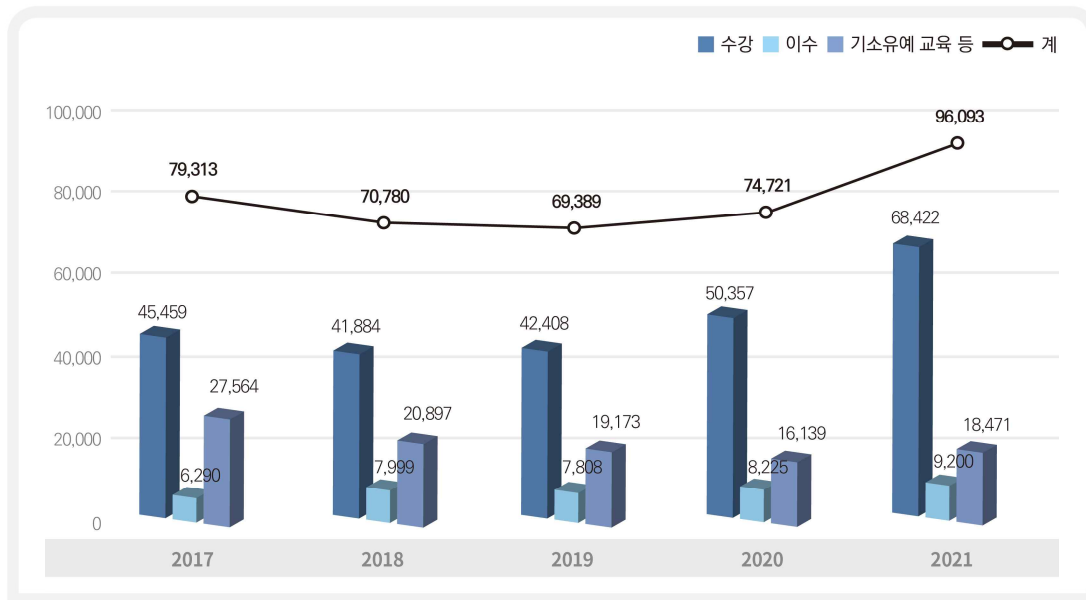


그림 4-2-21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실시사건 현황(2017~2021)

2) 집행 분야별 현황

(1) 수강명령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집행 종료한 수강명령 사건의 집행 분야별 현황

지표정의

- 분야 : 성폭력치료, 가정폭력치료, 준법운전, 알코올치료, 약물치료, 소년심리치료, 성매매방지, 기타* 등으로 구분
* 기타 : 도박, 폭력치료, 금융사기예방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년수강명령 프로그램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강명령 집행사건은 연간 31,400~35,000건을 유지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의 60% 수준인 19,373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33,338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 2021년에 집행한 수강명령사건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준법운전이 18,202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폭력치료 4,803건(14.4%), 기타 4,436건(13.3%), 가정폭력치료 2,922건(8.8%), 소년심리치료 1,078건(3.2%), 알코올치료 843건(2.5%) 등이었다. 그 외 약물치료, 성매매방지, 심리치료 등은 각각 500건 미만이었다. 최근 5년간 매년 준법운전 분야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폭력치료, 기타치료, 가정폭력치료 등의 집행이 많았다.

표 4-2-16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계	준법운전	성폭력	가정폭력	알코올	약물	성매매	소년심리	심리치료	기타
2017	34,411	16,545	5,251	4,120	1,537	581	890	591	462	4,434
	100%	48.1%	15.3%	12.0%	4.5%	1.7%	2.6%	1.7%	1.3%	12.9%
2018	31,646	15,292	5,046	3,482	1,094	586	537	772	532	4,305
	100%	48.3%	15.9%	11.0%	3.5%	1.9%	1.7%	2.4%	1.7%	13.6%
2019	31,472	16,129	4,857	3,676	1,005	534	354	714	299	3,904
	100%	51.2%	15.4%	11.7%	3.2%	1.7%	1.1%	2.3%	1.0%	12.4%
2020	19,373	8,744	2,848	2,701	552	310	174	457	269	3,318
	100%	45.1%	14.7%	13.9%	2.9%	1.6%	0.9%	2.4%	1.4%	17.1%
2021	33,338	18,202	4,803	2,922	843	493	241	1,078	320	4,436
	100%	54.6%	14.4%	8.8%	2.5%	1.5%	0.7%	3.2%	1.0%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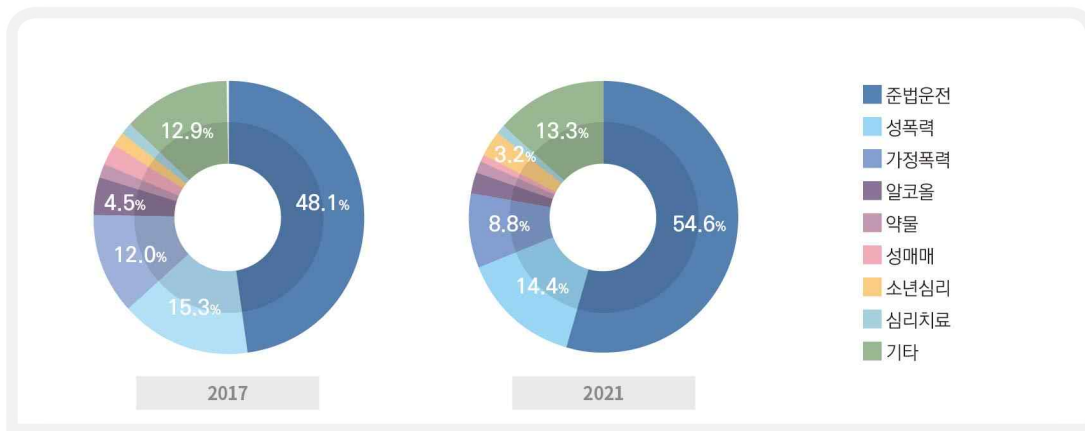


그림 4-2-22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 점유율(2017, 2021)

(2) 이수명령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집행 종료한 이수명령 사건의 집행 분야별 현황

지표정의

- 분야 : 성폭력치료, 가정폭력치료, 준법운전, 알코올치료, 약물치료, 소년심리치료, 성매매방지 등

- 2021년에 집행한 이수명령사건을 분야별로 구분한 결과, 성폭력치료가 5,988건으로 99.4%를 차지하였고, 성매매방지 21건(0.3%), 기타치료 16건(0.3%), 심리치료 1건(0.0%) 등이었다.

- 최근 5년 동안 매년 이수명령 집행사건의 약 99%가 성폭력치료이었으며, 성매매방지, 기타 분야 등은 각각 1% 내외에 그쳤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집행 제한이 있었던 2020년과는 달리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집행이 다시 증가하였다.

표 4-2-17 이수명령 분야별 집행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성폭력	알코올	성매매	소년심리	심리치료	기타
2017		4,393	4,355	6	17	1	0	14
		100%	99.1%	0.1%	0.4%	0.0%	0.0%	0.3%
2018		5,729	5,659	0	62	0	0	8
		100%	98.8%	0.0%	1.1%	0.0%	0.0%	0.1%
2019		5,448	5,397	1	26	1	0	23
		100%	99.1%	0.0%	0.5%	0.0%	0.0%	0.4%
2020		4,627	4,608	0	17	0	0	2
		100%	99.6%	0.0%	0.4%	0.0%	0.0%	0.0%
2021		6,026	5,988	0	21	0	1	16
		100%	99.4%	0.0%	0.3%	0.0%	0.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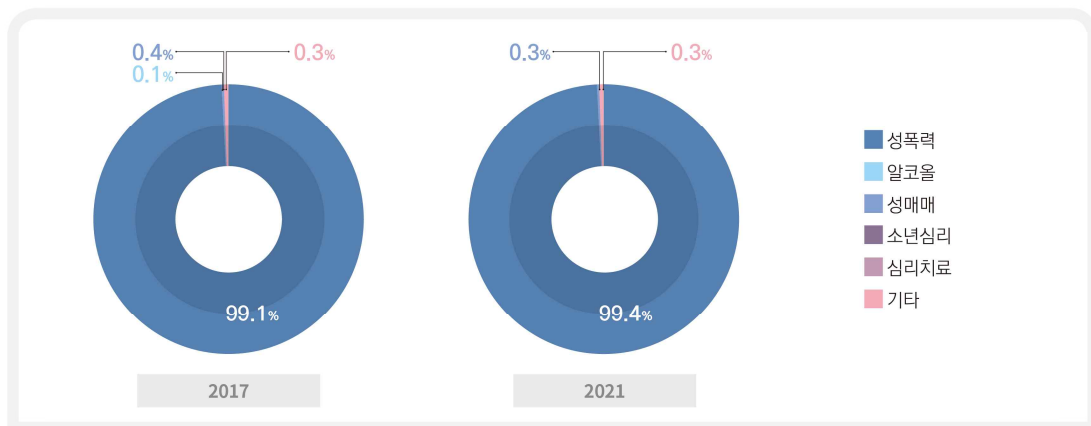


그림 4-2-23 이수명령 분야별 집행 점유율(2017, 2021)

(3) 기소유예 교육 등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집행 종료한 기소유예 교육 등의 분야별 현황

지표정의

- 분야 :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음란물사범 재범방지교육, 소년보호처분의 부가처분교육 등

- 2021년에 집행한 기소유예 교육 등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소년보호처분의 부가처분 교육이 2,905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 교육 2,618건(27.5%),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이 2,589건(27.1%),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이 1,061건(11.1%), 음란물사범 재범방지교육이 359건(3.8%)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여 음란물사범 재범방지교육은 39.1%,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은 27.9%, 기타 교육은 18.3%,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은 18.0%, 부가처분교육은 5.8% 등이 증가한 것이다.

표 4-2-18 기소유예 교육 등 분야별 집행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성구매자	성폭력	음란물	부가처분	기타
2017		21,572	7,974	4,412	851	5,308	3,027
		100%	37.0%	20.5%	3.9%	24.6%	14.0%
2018		15,154	3,051	4,078	529	5,466	2,030
		100%	20.1%	26.9%	3.5%	36.1%	13.4%
2019		14,069	2,487	3,977	878	3,733	2,994
		100%	17.7%	28.3%	6.2%	26.5%	21.3%
2020		8,141	899	2,025	258	2,746	2,213
		100%	11.0%	24.9%	3.2%	33.7%	27.2%
2021		9,532	1,061	2,589	359	2,905	2,618
		100%	11.1%	27.1%	3.8%	30.5%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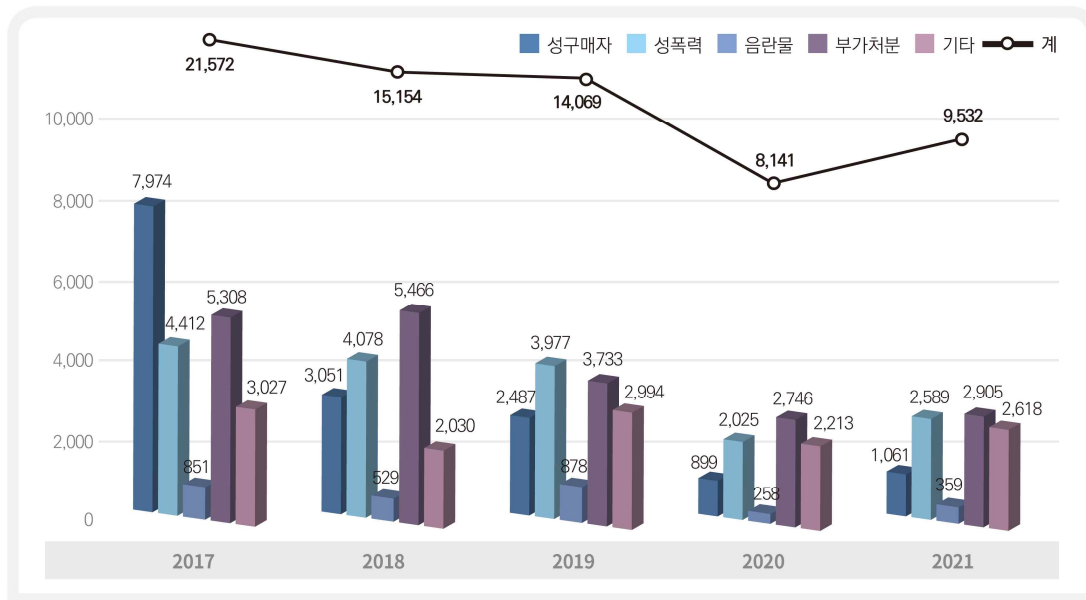


그림 4-2-24 기소유예 교육 등 분야별 집행 현황(2017~2021)

3) 집행 형태별 현황

- 2021년에 집행한 수강·이수명령사건을 직접집행과 협력집행으로 구분한 결과, 직접집행이 37,388건(95.0%), 협력집행이 1,976건(5.0%)으로 거의 대부분 직접집행이었다. 최근 5년간 직접집행 위주의 집행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표 4-2-19 수강·이수명령의 집행형태별 집행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전체			수강명령		이수명령	
		계	직접집행	협력집행	직접집행	협력집행	직접집행	협력집행
2017		38,804	38,173	631	33,845	566	4,328	65
		100%	98.4%	1.6%	98.4%	1.6%	98.5%	1.5%
2018		37,375	36,453	922	30,800	846	5,653	76
		100%	97.5%	2.5%	97.3%	2.7%	98.7%	1.3%
2019		36,920	35,380	1,540	29,977	1,495	5,403	45
		100%	95.8%	4.2%	95.2%	4.8%	99.2%	0.8%
2020		24,000	23,399	601	18,811	562	4,588	39
		100%	97.5%	2.5%	97.1%	2.9%	99.2%	0.8%
2021		39,364	37,388	1,976	31,483	1,855	5,905	121
		100%	95.0%	5.0%	94.4%	5.6%	98.0%	2.0%

4) 집행 분야별 집행 형태 현황

(1) 수강명령

- 2021년의 수강명령 집행사건을 집행 형태에 따라 분야를 구분하면, 직접집행에서는 준법운전 분야가 17,167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폭력 분야 4,602건(14.6%), 기타 분야 4,022건(12.8%), 가정폭력 분야 2,797건(8.9%) 등 이었다. 협력집행에서도 준법운전 분야가 1,035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414건(22.3%), 성폭력 201건(10.8%), 가정폭력 125건(6.8%) 등이었다.

표 4-2-20 수강명령 분야별 직접집행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계	준법운전	성폭력	가정폭력	알코올	약물	성매매	소년심리	심리치료	기타
2017	33,845	16,545	5,229	3,876	1,392	580	836	591	457	4,339
	100%	48.9%	15.4%	11.5%	4.1%	1.7%	2.5%	1.7%	1.4%	12.8%
2018	30,800	15,228	5,012	3,342	1,010	580	497	682	479	3,970
	100%	49.4%	16.3%	10.8%	3.3%	1.9%	1.6%	2.2%	1.6%	12.9%
2019	29,977	16,048	4,787	3,615	885	532	309	505	195	3,101
	100%	53.5%	16.0%	12.1%	2.9%	1.8%	1.0%	1.7%	0.7%	10.3%
2020	18,811	8,741	2,791	2,592	531	309	173	432	238	3,004
	100%	46.5%	14.8%	13.8%	2.8%	1.6%	0.9%	2.3%	1.3%	16.0%
2021	31,483	17,167	4,602	2,797	821	489	237	1,035	313	4,022
	100%	54.5%	14.6%	8.9%	2.6%	1.6%	0.7%	3.3%	1.0%	12.8%

표 4-2-21 수강명령 분야별 협력집행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계	준법운전	성폭력	가정폭력	알코올	약물	성매매	소년심리	심리치료	기타
2017	566	0	22	244	145	1	54	0	5	95
	100%	0.0%	3.9%	43.1%	25.6%	0.2%	9.5%	0.0%	0.9%	16.8%
2018	846	64	34	140	84	6	40	90	53	335
	100%	7.6%	4.0%	16.6%	9.9%	0.7%	4.7%	10.6%	6.3%	39.6%
2019	1,495	81	70	61	120	2	45	209	104	803
	100%	5.4%	4.7%	4.1%	8.0%	0.1%	3.0%	14.0%	7.0%	53.7%
2020	562	3	57	109	21	1	1	25	31	314
	100%	0.5%	10.1%	19.4%	3.7%	0.2%	0.2%	4.5%	5.5%	55.9%
2021	1,855	1,035	201	125	22	4	4	43	7	414
	100%	55.8%	10.8%	6.8%	1.2%	0.2%	0.2%	2.3%	0.4%	22.3%

(2) 이수명령

- 최근 5년간의 이수명령 집행 분야를 집행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매년 직접집행과 협력집행 모두 성폭력치료 분야가 99%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체 이수명령사건 중 성폭력사건의 높은 비율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4-2-22 이수명령 분야별 직접집행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심리치료	성폭력	알코올	성매매	소년심리	기타
2017	4,328	0	4,297	0	17	0	14
	100%	0.0%	99.3%	0.0%	0.4%	0.0%	0.3%
2018	5,653	0	5,585	0	62	0	6
	100%	0.0%	98.8%	0.0%	1.1%	0.0%	0.1%
2019	5,403	0	5,361	0	26	1	15
	100%	0.0%	99.2%	0.0%	0.5%	0.0%	0.3%
2020	4,588	0	4,570	0	16	0	2
	100%	0.0%	99.6%	0.0%	0.3%	0.0%	0.0%
2021	5,905	1	5,867	0	21	0	16
	100%	0.0%	99.4%	0.0%	0.3%	0.0%	0.3%

표 4-2-23 이수명령 분야별 협력집행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심리치료	성폭력	성매매	소년심리	기타
2017	65	0	58	6	0	1
	100%	0.0%	89.3%	9.2%	0.0%	1.5%
2018	76	0	74	0	0	2
	100%	0.0%	97.4%	0.0%	0.0%	2.6%
2019	45	0	36	1	0	8
	100%	0.0%	80.0%	2.2%	0.0%	17.8%
2020	39	0	38	1	0	0
	100%	0.0%	97.4%	2.6%	0.0%	0.0%
2021	121	0	121	0	0	0
	100%	0.0%	100%	0.0%	0.0%	0.0%

3 협력기관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강·이수명령 집행을 위하여 지정한 협력기관 현황

지표정의

- 협력기관 유형 : 수강·이수명령 집행 분야(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로 구분

- 수강·이수명령 집행을 위한 협력기관은 2017년 351개에서 2018년 356개, 2019년 317개 등으로 소폭의 변화를 보이다 2020년에는 1,197개 기관으로 급증하였고 2021년에도 1,185개 기관이 유지되었다.
- 이를 집행 분야별로 구분하면, 심리치료 분야의 기관이 2019년까지 전체의 30%대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 기타 분야 기관이 급증하면서 2021년에는 7.8%로 축소되었다. 반면 기타 분야 기관은 2019년까지 전체의 22~30%였으나 2020년 이후 80% 내외를 차지하였다.

- ➔ 기타 분야의 협력기관이 증가한 것은 2020년 보호관찰소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조정에 따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기타 분야의 협력기관으로 지정, 운영한 결과이다.

표 4-2-24 수강·이수명령 협력기관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17	351	23	20	115	60	53	80
	100%	6.5%	5.7%	32.8%	17.1%	15.1%	22.8%
2018	356	22	19	114	55	50	96
	100%	6.2%	5.3%	32.0%	15.5%	14.0%	27.0%
2019	317	19	15	97	47	43	96
	100%	6.0%	4.7%	30.6%	14.8%	13.6%	30.3%
2020	1,197	21	14	98	47	56	961
	100%	1.7%	1.2%	8.2%	3.9%	4.7%	80.3%
2021	1,185	21	38	93	51	65	917
	100%	1.8%	3.2%	7.8%	4.3%	5.5%	77.4%

4 종료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종료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사건 현황

지표정의

- 집행완료 : 수강·이수명령으로 부과된 시간을 모두 집행 후 종료한 경우
- 부분집행 : 수강·이수명령으로 부과된 시간의 일부를 집행 후 종료한 경우
- 이송 :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어 종료한 경우
- 처분변경 등 기타 : 처분변경 등으로 집행 할 수 없어 종료한 경우

- 2021년에 종료한 수강·이수명령 사건은 총 44,236건으로 전년 대비 57.3% 증가하였다. 종료 사유별로는 집행완료로 인한 종료가 38,965건(8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송에 의한 종료가 2,903건(6.6%), 처분변경 등에 의한 종료가 1,969건(4.4%), 부분집행에 의한 종료가 399건(0.9%)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완전집행에 의한 종료가 92%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사건이 감소하면서 80%대로 하락하였다. 2021년에는 완전집행 사건수가 전년보다 66.7%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
- 반면, 부분집행에 의한 종료사건은 2019년까지 연간 330건 내외에서 0.8%에 머물다가 2020년에 627건, 2.2%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사건 수와 비율이 2019년 수준을 나타냈다.

표 4-2-25 수강·이수명령 종료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완전집행	부분집행	이송	처분변경 등 기타
2017	41,693	38,465	339	1,627	1,262
	100%	92.3%	0.8%	3.9%	3.0%
2018	40,604	37,044	331	1,743	1,486
	100%	91.2%	0.8%	4.3%	3.7%
2019	39,796	36,595	325	1,522	1,354
	100%	92.0%	0.8%	3.8%	3.4%
2020	28,115	23,373	627	2,331	1,784
	100%	83.1%	2.2%	8.3%	6.4%
2021	44,236	38,965	399	2,903	1,969
	100%	88.1%	0.9%	6.6%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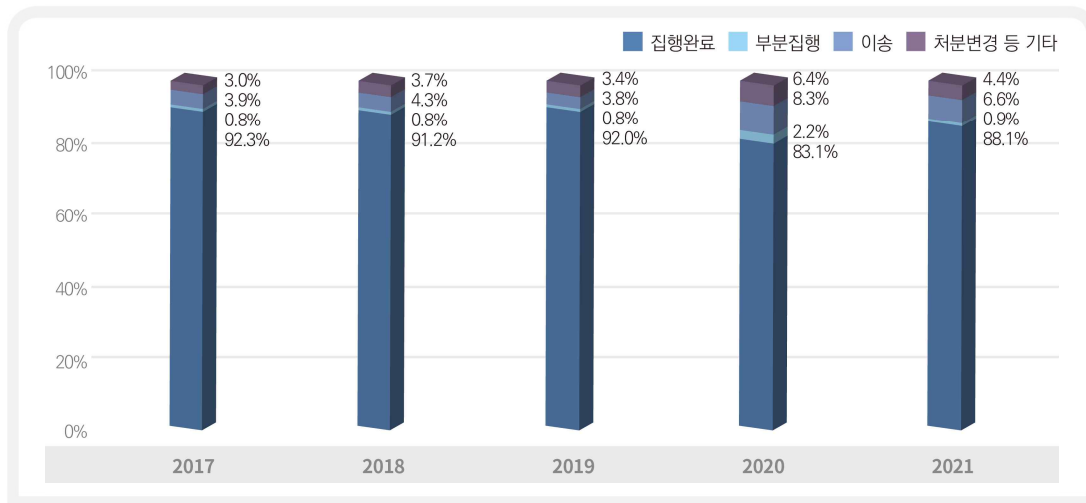


그림 4-2-25 수장·이수명령 종료 현황(2017~2021)



통계분석

2022 범죄예방정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Chapter 5

소년보호

제1절 수용 및 출원 현황

제2절 교육

제3절 사회정착지원

제4절 분류심사 및 보호자교육

제5절 재입원을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수용 세부 현황

1 신수용 보호소년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년원에 보호처분으로 신수용된 보호소년의 연령별, 처분별, 사범별, 정신질환자 등 현황

지표정의

- 보호소년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7·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 처분유형 : 7호(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 사범 : 강력, 교통, 폭력, 절도, 성폭력, 풍속, 사기횡령, 마약, 경제, 보호관찰법위반, 소년법위반, 우범, 기타의 13개로 구분
- 정신질환자 :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거나 정신과 진료 후 정신질환 소견이 있는 소년

1) 연령별 현황

- 2021년에 신수용된 보호소년을 연령에 따라 구분한 결과, 14~15세가 304명(22.3%), 16~17세가 597명(43.9%), 18세가 287명(21.1%), 19세 이상이 146명(10.7%)으로 14세 이상이 총 1,334명(98.0%)이었다. 반면 10세와 12세가 각각 2명(0.1%), 11세는 없었고, 13세가 23명(1.7%)으로 14세 미만은 총 27명(2.0%)이었다.
- 최근 5년간, 14세 이상의 보호소년이 연간 신수용 인원의 97~99%를, 14세 미만은 1~3%를 차지하였다. 연령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매년 16~17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2017년(49.5%)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18세도 2018년(25.5%) 이후 소폭이지만 감소하였다.
- 반면, 14~15세는 2017년 17.0%에서 2021년 22.3%로, 19세 이상은 7.6%에서 10.7%로 증가하였고, 13세는 2017년과 2018년 1% 초반에서 2019년과 2020년에는 2%대로 상승하였다가 2021년에는 다시 1%대로 감소하였다.

표 5-1-1 신수용 보호소년 연령별 현황(2017~2021)

연령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소계	10세	11세	12세	13세	소계	14~15세	16~17세	18세	19세 이상
2017	2,450	34	0	1	3	30	2,416	417	1,213	601	185
	100%	1.4%	0.0%	0.0%	0.1%	1.2%	98.6%	17.0%	49.5%	24.5%	7.6%
2018	2,199	29	0	0	5	24	2,170	413	998	561	198
	100%	1.3%	0.0%	0.0%	0.2%	1.1%	98.7%	18.8%	45.4%	25.5%	9.0%
2019	2,077	59	0	0	4	55	2,018	424	951	474	169
	100%	2.8%	0.0%	0.0%	0.2%	2.6%	97.2%	20.4%	45.8%	22.8%	8.2%
2020	1,637	51	1	4	7	39	1,586	310	746	373	157
	100%	3.1%	0.1%	0.2%	0.4%	2.4%	96.9%	18.9%	45.6%	22.8%	9.6%
2021	1,361	27	2	0	2	23	1,334	304	597	287	146
	100%	2.0%	0.1%	0.0%	0.1%	1.7%	98.0%	22.3%	43.9%	21.1%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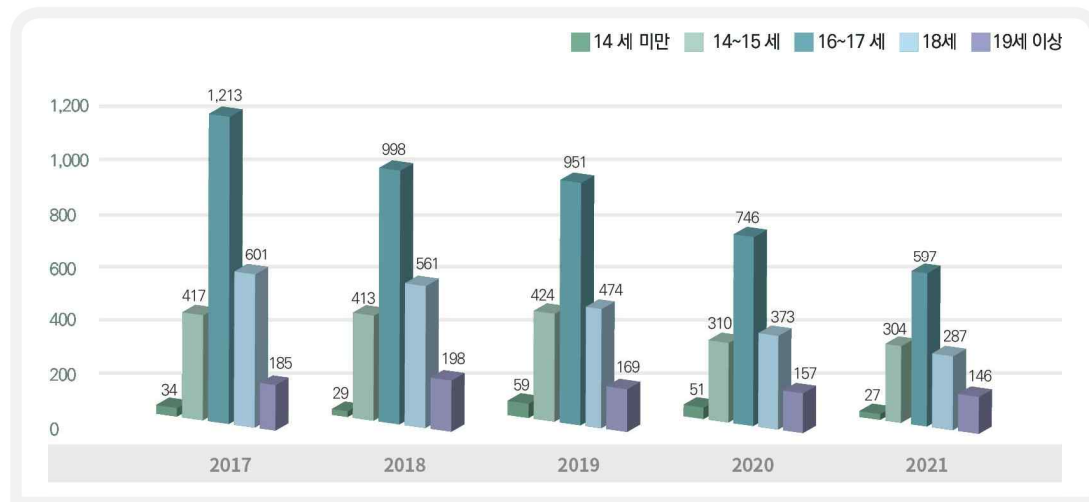


그림 5-1-1 신수용 보호소년의 연령별 현황(2017~2021)

2) 처분별 현황

- 2021년에 신수용된 보호소년을 처분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9호 처분이 584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호 처분 328명(24.1%), 8호 처분 326명(24.0%), 7호 처분 123명(9.0%) 등의 순이었다. 각 처분 모두 전년보다 인원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10호 처분의 감소 폭이 30.4% (143명)로 가장 컸고, 8호 처분 19.5%(79명), 7호 처분 11.5%(16명), 9호 처분 6.1%(38명) 등이었다,

- 최근 5년간 신수용 보호소년의 처분별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호와 9호 처분이 각각 전체의 35% 내외를 차지하였고 10호가 23~25%, 7호가 5~6%를 나타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8호 처분 인원이 가장 많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7호, 9호, 10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8호와 10호 처분의 감소로 9호 처분 비율이 가장 높았고, 10호와 8호는 각각 24% 수준을 보였다,

표 5-1-2 신수용 보호소년 처분별 현황(2017~2021)

연도	처분	계	7호	8호	9호	10호
2017		2,450	132	880	857	581
		100%	5.4%	35.9%	35.0%	23.7%
2018		2,199	141	801	741	516
		100%	6.4%	36.4%	33.7%	23.5%
2019		2,077	116	707	716	538
		100%	5.6%	34.0%	34.5%	25.9%
2020		1,637	139	405	622	471
		100%	8.5%	24.7%	38.0%	28.8%
2021		1,361	123	326	584	328
		100%	9.0%	24.0%	42.9%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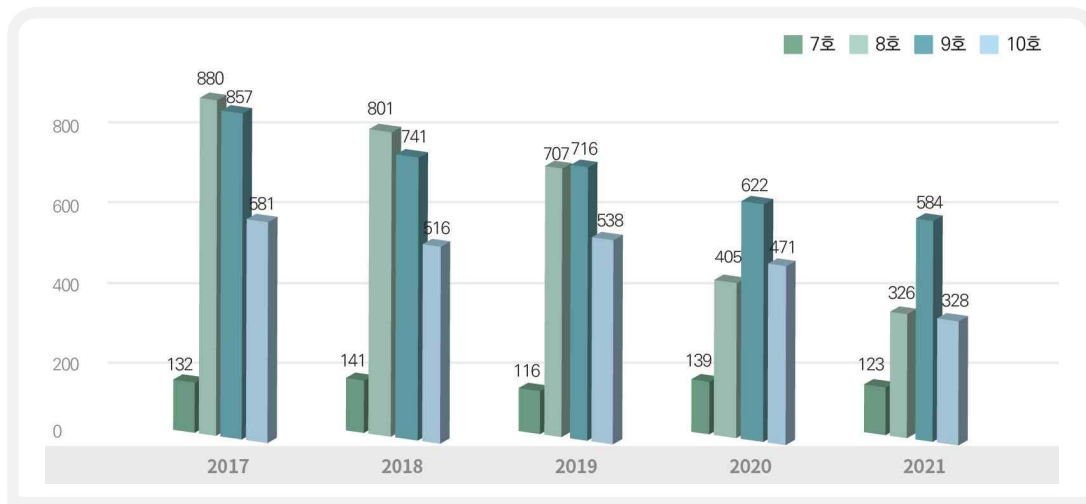


그림 5-1-2 신수용 보호소년 처분별 현황(2017~2021)

➡ 최근 4년간 8호 보호소년의 월별 신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신수용 인원이 변화하였고, 특히 2020년 3~5월, 12월, 2021년 1월, 6월 등에는 신수용 인원이 없었다.

※ 소년보호기관 8호 보호소년의 월별 신수용 현황(2018~2021)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801	82	65	34	31	56	73	62	84	85	78	72	79
2019	707	101	83	35	43	8	54	57	73	60	69	64	60
2020	405	64	67	0	0	0	59	45	50	43	44	33	0
2021	326	0	36	46	41	34	0	49	18	4	31	29	38

3) 연령별 처분 현황

- 2021년에 신수용된 보호소년의 연령별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세 이상의 경우 9호 처분이 578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8호 324명(24.3%), 10호 322명(24.1%), 7호 110명(8.2%) 등의 순이었다. 반면, 14세 미만의 경우 7호 처분이 13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9호와 10호가 각각 6명(22.2%), 8호가 2명(7.4%)이었다.

표 5-1-3 신수용 보호소년 연령에 따른 처분별 현황(2017~2021)

연령 연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7호	8호	9호	10호	계	7호	8호	9호	10호
2017	34	11	9	11	3	2,416	121	871	846	578
	100%	32.4%	26.5%	32.4%	8.8%	100%	5.0%	36.1%	35.0%	23.9%
2018	29	12	5	6	6	2,170	129	796	735	510
	100%	41.4%	17.2%	20.7%	20.7%	100%	5.9%	36.7%	33.9%	23.5%
2019	59	19	20	13	7	2,018	97	687	703	531
	100%	32.2%	33.9%	22.0%	11.9%	100%	4.8%	34.0%	34.8%	26.3%
2020	51	19	7	11	14	1,586	120	398	611	457
	100%	37.3%	13.7%	21.6%	27.5%	100%	7.6%	25.1%	38.5%	28.8%
2021	27	13	2	6	6	1,334	110	324	578	322
	100%	48.1%	7.4%	22.2%	22.2%	100%	8.2%	24.3%	43.3%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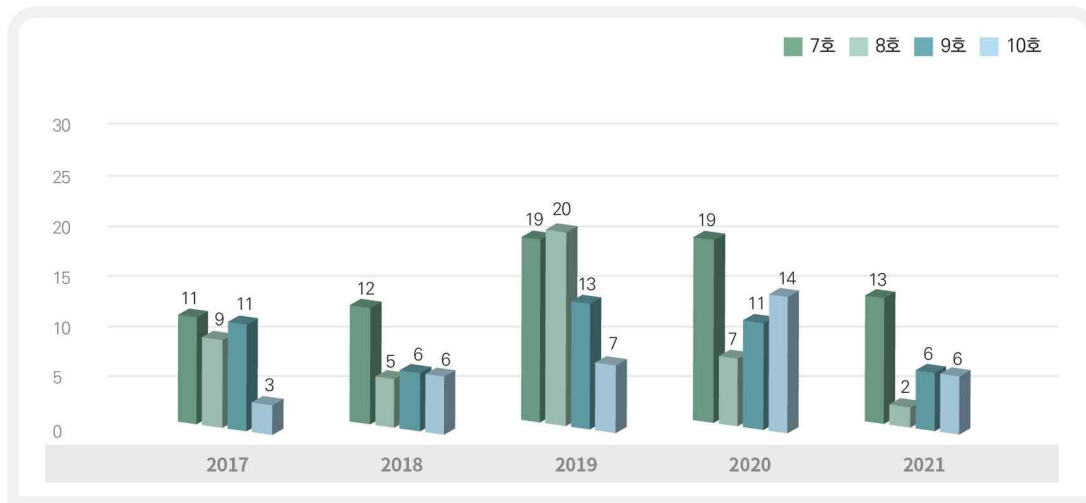


그림 5-1-3 신수용 보호소년(14세 미만) 처분별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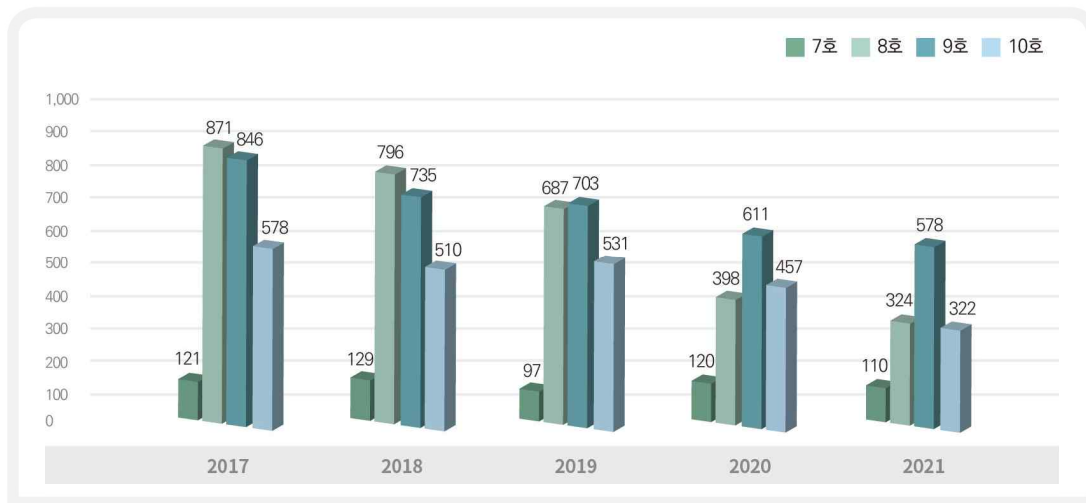


그림 5-1-4 신수용 보호소년(14세 이상) 처분별 현황(2017~2021)

4) 사범별²⁷⁾ 현황

- 2021년에 신수용된 보호소년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보호관찰법위반이 487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절도사범 189명(13.9%), 폭력사범 175명(12.9%), 소년법위반 126명(9.3%), 교통사범 104명(7.6%), 사기횡령사범 69명(5.1%) 등의 순이었다.

27) 2021 통계분석에서는 신수용 보호소년의 사범을 6개(강력, 약물, 우범, 재산, 특별, 기타)로 구분하였으나, 2022 통계분석에서는 13개의 사범으로 재분류

- 그 밖에 기타사범이 62명(4.6%), 성폭력사범이 49명(3.6%), 우범이 47명(3.4%), 풍속사범이 31명(2.3%), 강력사범이 18명(1.3%), 마약사범과 경제사범이 각 2명(0.1%)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사범별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보호관찰법위반이 32~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절도와 폭력사범이 각각 12~17%를 나타냈다. 소년법위반의 경우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2017년 0.6%에서 2021년에는 9.3%를 기록하였다. 반면, 성폭력사범은 2017년 7.5%에서 2021년 3.6%를 감소하였고, 강력사범은 2018년을 제외하고는 1%대를 유지하였다.

표 5-1-4 신수용 보호소년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유형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 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보호 관찰법 위반	소년법 위반	우범
2017	2,450	303	147	420	139	36	14	39	185	6	134	995	16	16
	100%	12.4%	6.0%	17.1%	5.7%	1.5%	0.6%	1.6%	7.5%	0.2%	5.5%	40.6%	0.6%	0.7%
2018	2,199	357	128	350	158	49	6	24	139	7	93	834	28	26
	100%	16.3%	5.8%	15.9%	7.2%	2.2%	0.3%	1.1%	6.3%	0.3%	4.2%	37.9%	1.3%	1.2%
2019	2,077	304	137	326	127	29	14	30	140	14	83	784	38	51
	100%	14.6%	6.6%	15.7%	6.1%	1.4%	0.7%	1.4%	6.7%	0.7%	4.0%	37.8%	1.8%	2.5%
2020	1,637	231	110	268	86	19	2	22	78	4	67	531	139	80
	100%	14.1%	6.7%	16.4%	5.3%	1.2%	0.1%	1.3%	4.8%	0.2%	4.1%	32.4%	8.5%	4.9%
2021	1,361	175	104	189	69	18	2	31	49	2	62	487	126	47
	100%	12.9%	7.6%	13.9%	5.1%	1.3%	0.1%	2.3%	3.6%	0.1%	4.6%	35.8%	9.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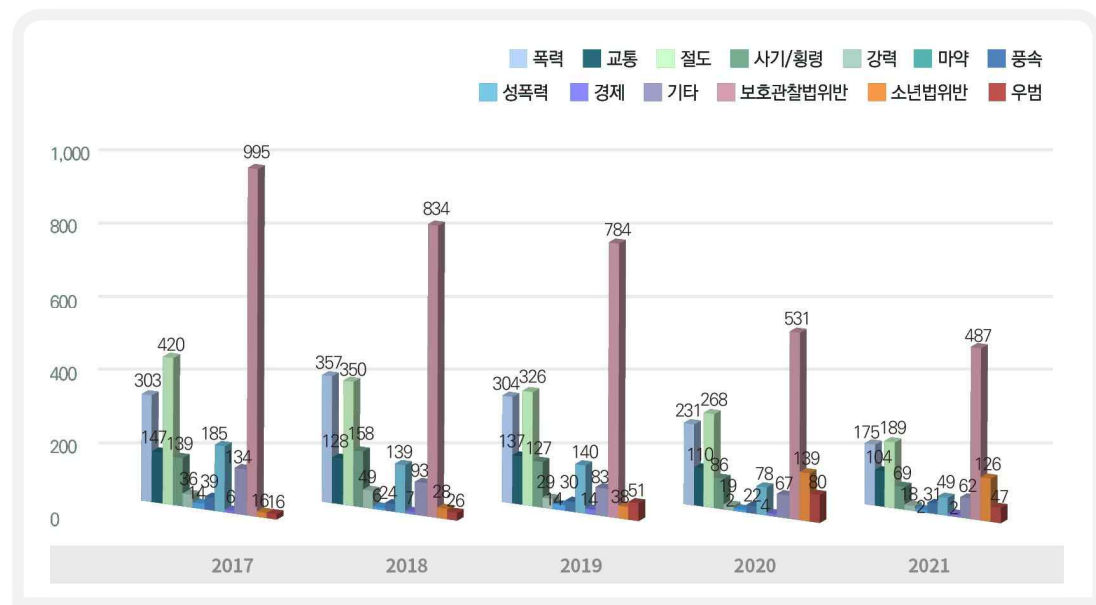


그림 5-1-5 신수용 보호소년의 사범별 현황(2017~2021)

➡ 최근 5년간 신수용된 보호소년 중 14세 미만의 사범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신수용 보호소년 중 14세 미만 소년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유형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 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보호 관찰법 위반	소년법 위반	우범
2017	34	1	0	5	1	0	0	0	10	0	7	7	1	2
	100%	2.9%	0.0%	14.7%	2.9%	0.0%	0.0%	0.0%	29.4%	0.0%	20.6%	20.6%	2.9%	5.9%
2018	29	4	0	6	3	2	0	0	1	0	2	5	2	4
	100%	13.8%	0.0%	20.7%	10.3%	6.9%	0.0%	0.0%	3.4%	0.0%	6.9%	17.2%	6.9%	13.8%
2019	59	7	0	11	1	0	1	0	11	1	1	12	8	6
	100%	11.9%	0.0%	18.6%	1.7%	0.0%	1.7%	0.0%	18.6%	1.7%	1.7%	20.3%	13.6%	10.2%
2020	51	4	1	10	0	3	0	1	6	0	0	8	6	12
	100%	7.8%	2.0%	19.6%	0.0%	5.9%	0.0%	2.0%	11.8%	0.0%	0.0%	15.7%	11.8%	23.5%
2021	27	0	0	1	0	2	0	1	1	0	1	8	9	4
	100%	0.0%	0.0%	3.7%	0.0%	7.4%	0.0%	3.7%	3.7%	0.0%	3.7%	29.6%	33.4%	14.8%

5) 성별 현황

- 2021년에 신수용된 보호소년 1,361명 중 남성이 1,070명(78.6%), 여성이 291명(21.4%) 이었다. 최근 5년간 매년 남성이 전체의 78%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여성의 비율이 소폭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5-1-5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남성	여성
2017		2,450	2,116	334
		100%	86.4%	13.6%
2018		2,199	1,846	353
		100%	83.9%	16.1%
2019		2,077	1,697	380
		100%	81.7%	18.3%
2020		1,637	1,343	294
		100%	82.0%	18.0%
2021		1,361	1,070	291
		100%	78.6%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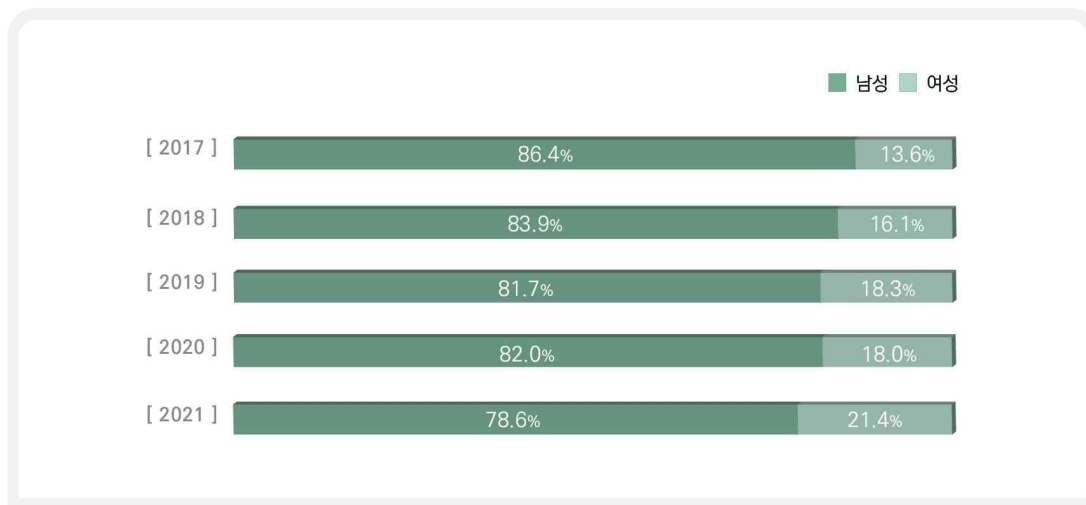


그림 5-1-6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2017~2021)

6) 정신질환 현황

- 2021년에 신수용된 보호소년 1,361명 중 정신질환 문제를 가진 보호소년은 415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하였다.
- 최근 5년간 신수용 보호소년 중 정신질환 문제를 가진 보호소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6~27%대에 머물다가 2020년 이후 30% 이상을 기록하였다.

표 5-1-6 신수용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신수용 인원	정신질환자	비율
2017		2,450	669	27.3%
2018		2,199	611	27.8%
2019		2,077	548	26.4%
2020		1,637	550	33.6%
2021		1,361	415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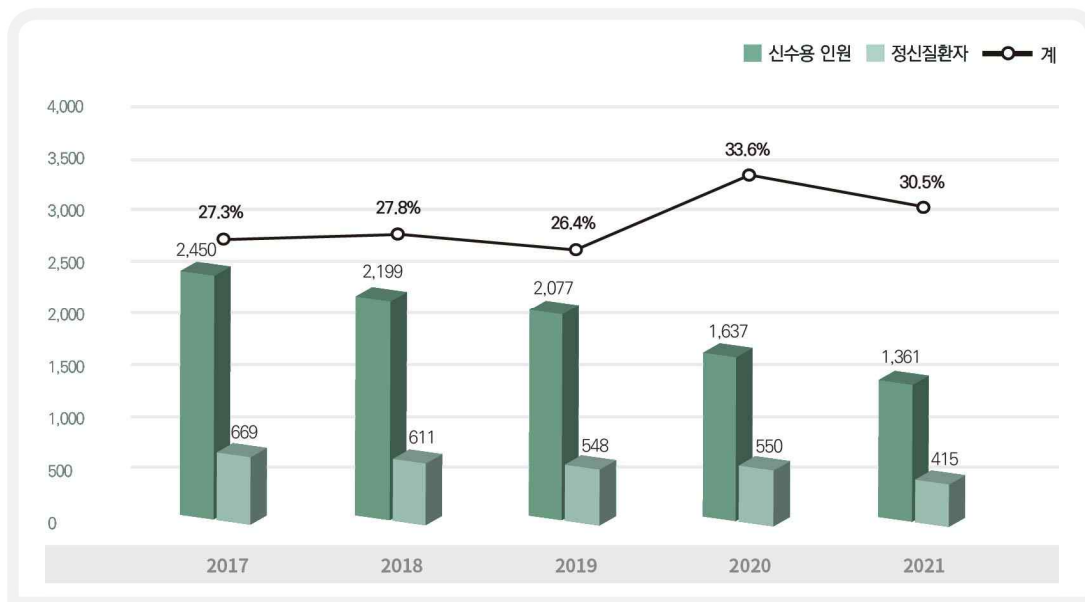


그림 5-1-7 신수용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2017~2021)

2 신수용 위탁소년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 위탁 또는 유치된 위탁소년 현황

지표정의

- 사범 : 강력, 교통, 폭력, 절도, 성폭력, 풍속, 사기횡령, 마약, 경제, 보호관찰, 소년법위반, 우범, 기타 등 13개로 구분

1) 연령별 현황

- 2021년에 신수용된 위탁소년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14세 이상이 총 3,509명(90.5%)으로 16~17세가 1,546명(39.9%), 14~15세가 1,325명(34.2%), 18세가 536명(13.8%), 19세 이상이 102명(2.6%)이었다. 14세 미만은 총 367명(9.5%)으로 13세가 308명(7.9%), 12세가 48명(1.2%), 11세가 10명(0.3%), 10세가 1(0.0%)명이었다.
- 최근 5년간 14세 이상이 전체 신수용 위탁소년의 90~95%를, 14세 미만이 5~10%를 차지하였는데, 14세 미만의 비율은 2017년 4.5%에서 매년 증가하였다. 연령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매년 16~17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2017년(47.7%)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18세와 19세 이상도 매년 감소하였다. 반면, 14~15세는 2017년 26.6%에서 2021년 34.2%로 증가하였고, 13세도 2017년 3.7%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8%에 육박하는 등, 15세 이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표 5-1-7 신수용 위탁소년 연령별 현황(2017~2021)

연령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소계	10세	11세	12세	13세	소계	14~15세	16~17세	18세	19세 이상
2017	5,909	266	0	7	43	216	5,643	1,572	2,817	1,016	238
	100%	4.5%	0.0%	0.1%	0.7%	3.7%	95.5%	26.6%	47.7%	17.2%	4.0%
2018	5,703	327	1	12	43	271	5,376	1,729	2,469	957	221
	100%	5.7%	0.0%	0.2%	0.8%	4.8%	94.3%	30.3%	43.3%	16.8%	3.9%
2019	4,955	362	1	4	40	317	4,593	1,609	2,052	749	183
	100%	7.3%	0.0%	0.1%	0.8%	6.4%	92.7%	32.5%	41.4%	15.1%	3.7%
2020	4,297	304	1	5	47	251	3,993	1,412	1,781	650	150
	100%	7.1%	0.0%	0.1%	1.1%	5.8%	92.9%	32.9%	41.4%	15.1%	3.5%
2021	3,876	367	1	10	48	308	3,509	1,325	1,546	536	102
	100%	9.5%	0.0%	0.3%	1.2%	7.9%	90.5%	34.2%	39.9%	13.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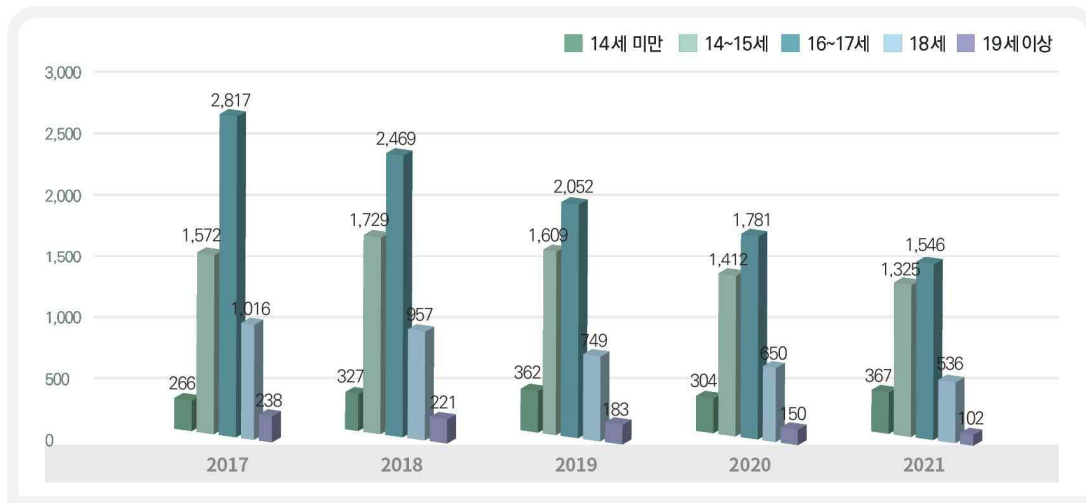


그림 5-1-8 신수용 위탁소년 연령별 현황(2017~2021)

2) 사범별²⁸⁾ 현황

- 2021년에 신수용된 위탁소년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보호관찰법위반이 871명(2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절도사범 629명(16.2%), 폭력사범 551명(14.2%), 우범 478명(12.3%), 교통사범 261명(6.7%), 성폭력사범 248명(6.4%) 등의 순이었다.
- 그밖에 사기횡령·기타 사범과 소년법위반이 각각 215명(5.5%), 풍속사범 125명(3.2%), 강력사범 54명(1.4%), 마약사범 10명(0.3%), 경제사범 4명(0.1%)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주요 사범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보호관찰법위반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2017년 30.2%에서 2021년에는 22.5%로 감소하였다. 절도와 폭력사범도 감소하여 2017년에는 19%대였으나 2021년에는 각각 16%와 14%대를 기록하였다. 반면, 우범은 2017년(2.3%)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12%를 넘겼다. 소년법위반도 2017년에는 1.3%였으나 2020년 7.4%까지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5%대를 기록하였다. 그밖에 매년 성폭력사범은 6~7%, 교통사범은 5~6%, 강력사범은 1% 수준을, 마약과 경제사범은 각 1% 미만을 유지하였다.

28) 2021 통계분석에서는 신수용 보호소년의 사범을 6개(강력, 약물, 우범, 재산, 특별, 기타)로 구분하였으나, 2022 통계분석에서는 13개의 사범으로 분류

표 5-1-8 신수용 위탁소년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유형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 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보호 관찰법 위반	소년법 위반	우범
2017	5,909	1,121	328	1,133	326	79	32	92	417	13	375	1,782	76	135
	100%	19.0%	5.6%	19.2%	5.5%	1.3%	0.5%	1.6%	7.1%	0.2%	6.3%	30.2%	1.3%	2.3%
2018	5,703	1,146	363	1,106	388	84	17	85	411	26	317	1,399	113	248
	100%	20.1%	6.4%	19.4%	6.8%	1.5%	0.3%	1.5%	7.2%	0.5%	5.6%	24.5%	2.0%	4.3%
2019	4,955	850	256	970	327	55	18	68	353	23	264	1,196	140	435
	100%	17.2%	5.2%	19.6%	6.6%	1.1%	0.4%	1.4%	7.1%	0.5%	5.3%	24.1%	2.8%	8.8%
2020	4,297	647	288	785	281	61	3	67	274	8	193	886	318	486
	100%	15.1%	6.7%	18.3%	6.5%	1.4%	0.1%	1.6%	6.4%	0.2%	4.5%	20.6%	7.4%	11.3%
2021	3,876	551	261	629	215	54	10	125	248	4	215	871	215	478
	100%	14.2%	6.7%	16.2%	5.5%	1.4%	0.3%	3.2%	6.4%	0.1%	5.5%	22.5%	5.5%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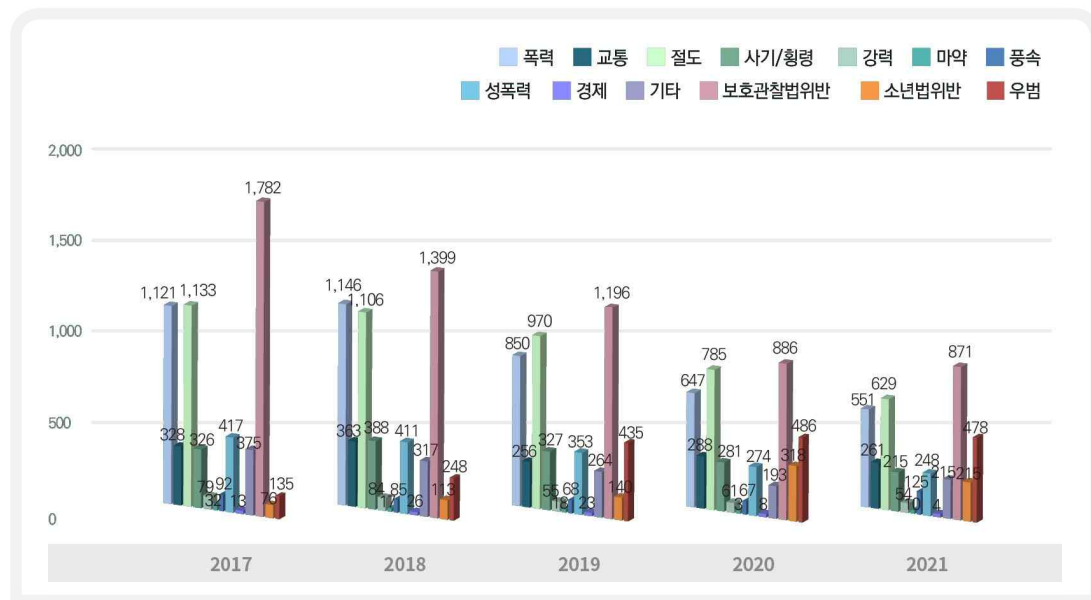


그림 5-1-9 신수용 위탁소년의 사범별 현황(2017~2021)

➡ 최근 5년간 신수용된 위탁소년 중 14세 미만의 사범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신수용 위탁소년 중 14세 미만 소년의 사범별 현황(2017~2021)

연도\유형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 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보호 관찰법 위반	소년법 위반	우범
2017	266	45	4	72	5	2	7	1	34	0	31	32	10	23
	100%	16.9%	1.5%	27.1%	1.9%	0.8%	2.6%	0.4%	12.8%	0.0%	11.7%	12.0%	3.8%	8.6%
2018	327	69	6	89	10	3	0	0	44	1	12	34	19	40
	100%	21.1%	1.8%	27.2%	3.1%	0.9%	0.0%	0.0%	13.5%	0.3%	3.7%	10.4%	5.8%	12.2%
2019	362	39	5	84	10	1	1	5	40	2	15	50	25	85
	100%	10.8%	1.4%	23.2%	2.8%	0.3%	0.3%	1.4%	11.0%	0.6%	4.1%	13.8%	6.9%	23.5%
2020	304	28	7	72	4	4	0	7	34	0	4	30	26	88
	100%	9.2%	2.3%	23.7%	1.3%	1.3%	0.0%	2.3%	11.2%	0.0%	1.3%	9.9%	8.6%	28.9%
2021	367	38	7	81	8	2	1	7	29	1	21	37	25	110
	100%	10.4%	1.9%	22.1%	2.2%	0.5%	0.3%	1.9%	7.9%	0.3%	5.7%	10.1%	6.8%	30.0%

3) 성별 현황

- 2021년에 신수용된 위탁소년 총 3,876명 중 남성이 2,852명(73.6%), 여성이 1,024명(26.4%)이었다. 최근 5년간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남성이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5-1-9 신수용 위탁소년 성별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남성	여성
2017	5,909	4,598	1,311
	100%	77.8%	22.2%
2018	5,703	4,407	1,296
	100%	77.3%	22.7%
2019	4,955	3,748	1,207
	100%	75.6%	24.4%
2020	4,297	3,258	1,039
	100%	75.8%	24.2%
2021	3,876	2,852	1,024
	100%	73.6%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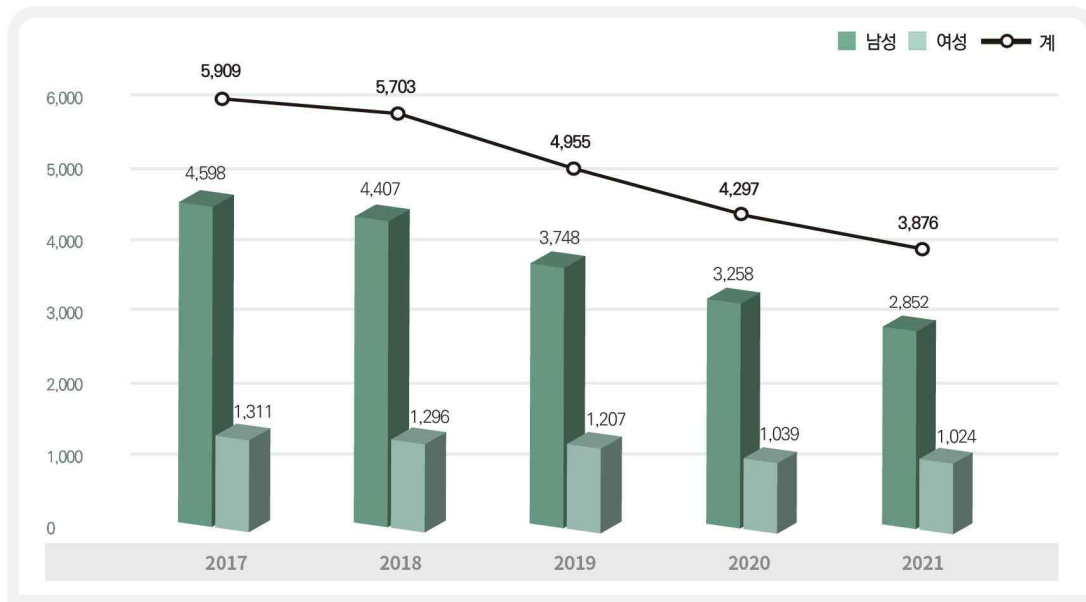


그림 5-1-10 신수용 위탁소년 성별 현황(2017~2021)

출원 세부 현황

1 보호소년 처분별 출원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년원에서 퇴원(임시퇴원) 등으로 출원한 인원의 처분별 현황

지표정의

- 보호소년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7·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 7호(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 퇴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
- 임시퇴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보호소년
- 기타 : 처분변경, 처분취소, 구속 등으로 출원한 보호소년
- 퇴원 연기 : 검정고시 응시, 직업훈련 자격 응시 등으로 출원을 연기한 보호소년

1) 7호 처분

- 최근 5년간 7호 처분 보호소년의 총 출원 인원은 2017년(105명)부터 2019년(142명)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130명)과 2021년(127명)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 출원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2017년에는 퇴원에 의한 출원이 94.3%, 기타 출원이 5.7%였으나, 이후 기타 출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8년 12.2%, 2019년 27.5%, 2020년 40.0%를 기록하였다. 2021년에도 기타 출원이 더욱 증가하여 45.7%를 차지하였고, 퇴원에 의한 출원은 54.3%였다.

- ➔ 7호 보호소년의 '기타 출원'은 '7호 처분의 취소' 또는 '단기 보호관찰로의 처분변경'에 의한 출원으로 구성된다. 최근 '기타 출원'이 증가한 것은 의료재활소년원 퇴원 후에도 보호관찰관을 통한 치료적 처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퇴원 전에 단기 보호관찰로 처분변경을 활성화한 결과이다.

표 5-2-1 7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퇴원	기타
2017	105	99	6
	100%	94.3%	5.7%
2018	123	108	15
	100%	87.8%	12.2%
2019	142	103	39
	100%	72.5%	27.5%
2020	130	78	52
	100%	60.0%	40.0%
2021	127	69	58
	100%	54.3%	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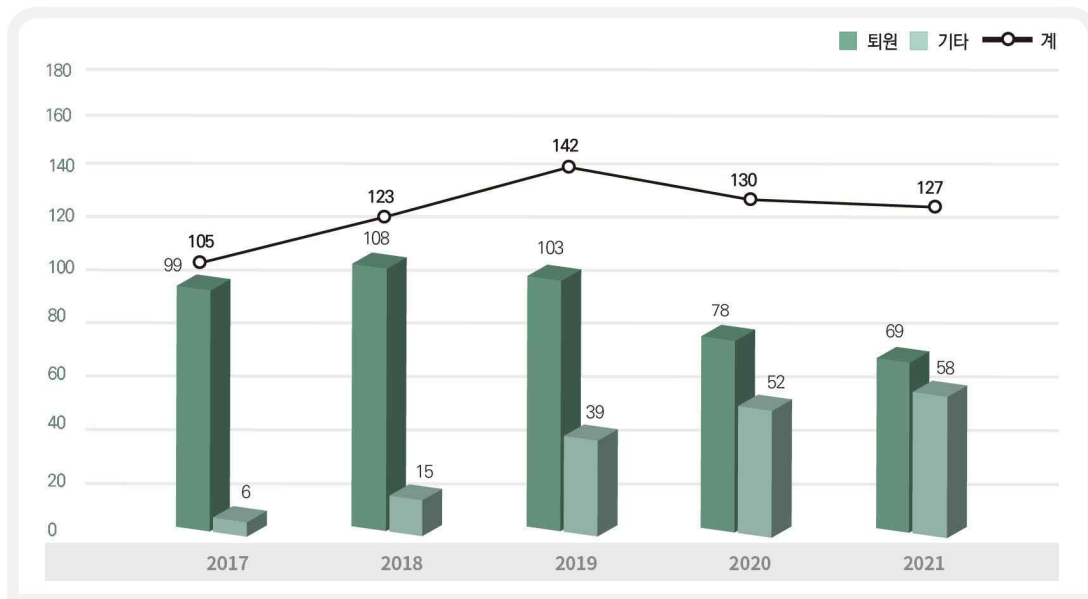


그림 5-2-1 7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2) 8호 처분

- 최근 5년간 8호 처분 보호소년의 총 출원 인원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2018년과 2019년은 전년 대비 10% 내외에서 감소한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405명)에는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고, 2021년(326명)에도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였다.
- 출원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임시퇴원이 없는 8호 처분의 특성에 따라 퇴원에 의한 출원이 매년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5-2-2 8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퇴원	기타
2017		880	876	4
		100%	99.5%	0.5%
2018		801	799	2
		100%	99.8%	0.2%
2019		708	701	7
		100%	99.0%	1.0%
2020		405	396	9
		100%	97.8%	2.2%
2021		326	324	2
		100%	99.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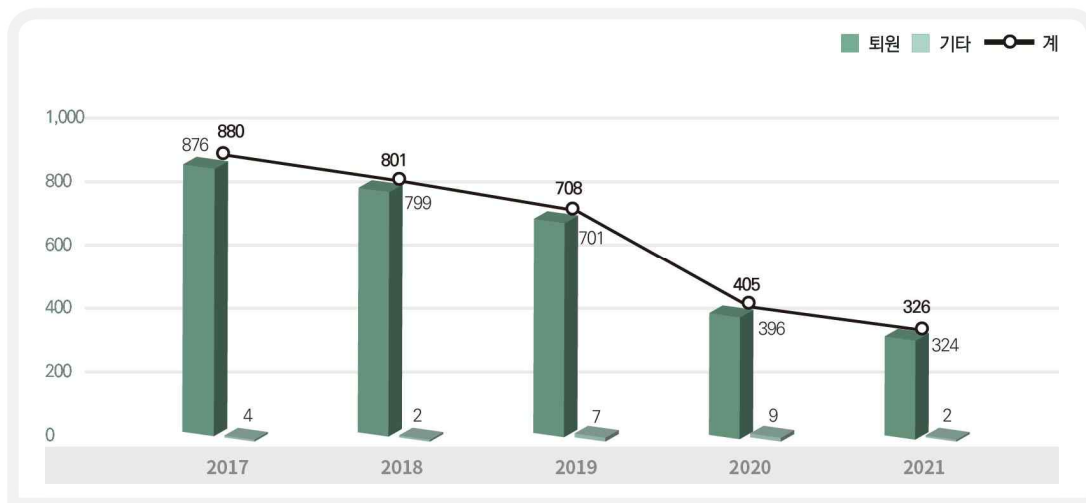


그림 5-2-2 8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3) 9호 처분

- 2021년에 출원한 9호 처분 보호소년은 총 580명으로, 임시퇴원이 423명(72.9%), 퇴원에 의한 출원 132명(22.8%), 기타 25명(4.3%)이었다.
- 최근 5년간 총 출원 인원은 2018년 839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지속하였으며, 출원 유형 중 임시퇴원의 비율이 매년 확대되어 2017년 61.3%에서 2019년 이후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5-2-3 9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퇴원	임시퇴원	기타
2017		834	296	511	27
		100%	35.5%	61.3%	3.2%
2018		839	282	527	30
		100%	33.6%	62.8%	3.6%
2019		697	188	489	20
		100%	27.0%	70.1%	2.9%
2020		643	164	458	21
		100%	25.5%	71.2%	3.3%
2021		580	132	423	25
		100%	22.8%	72.9%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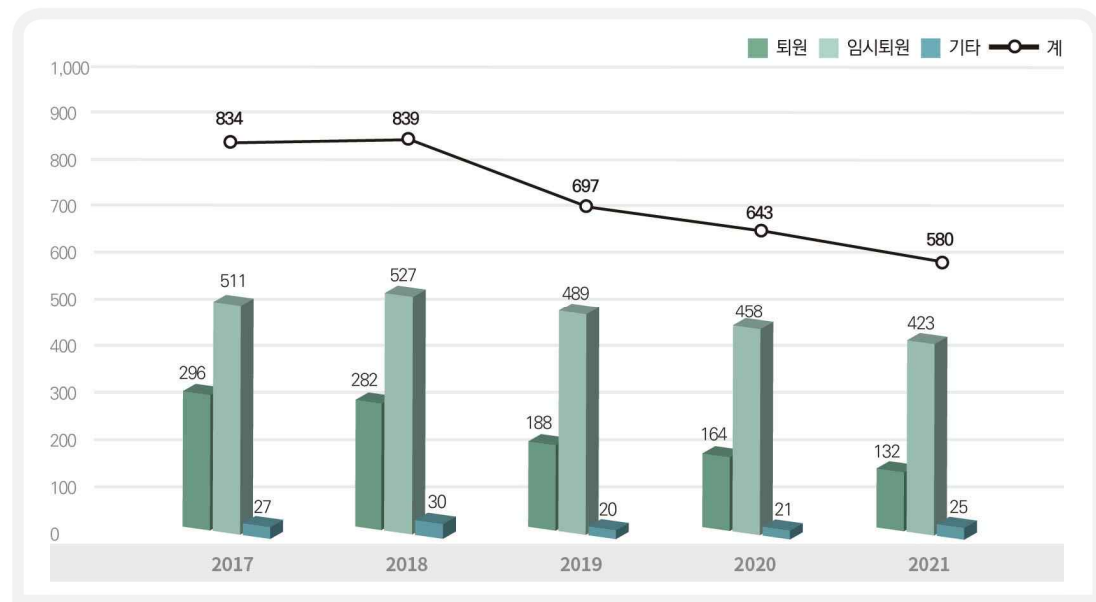


그림 5-2-3 9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4) 10호 처분

- 2021년에 출원한 10호 처분 보호소년은 총 491명으로, 그중 임시퇴원에 의한 출원이 412명(83.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출원이 43명(8.8%), 퇴원에 의한 출원이 36명(7.3%)이었다.
- 최근 5년간 총 출원 인원은 2018년 648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9년부터 490~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출원 유형으로는 임시퇴원에 의한 출원이 대부분으로 2019년(77.2%)을 제외하고는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5-2-4 10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퇴원	임시퇴원	기타
2017		530	56	437	37
		100%	10.6%	82.4%	7.0%
2018		648	70	542	36
		100%	10.8%	83.6%	5.6%
2019		501	68	387	46
		100%	13.6%	77.2%	9.2%
2020		493	49	401	43
		100%	10.0%	81.3%	8.7%
2021		491	36	412	43
		100%	7.3%	83.9%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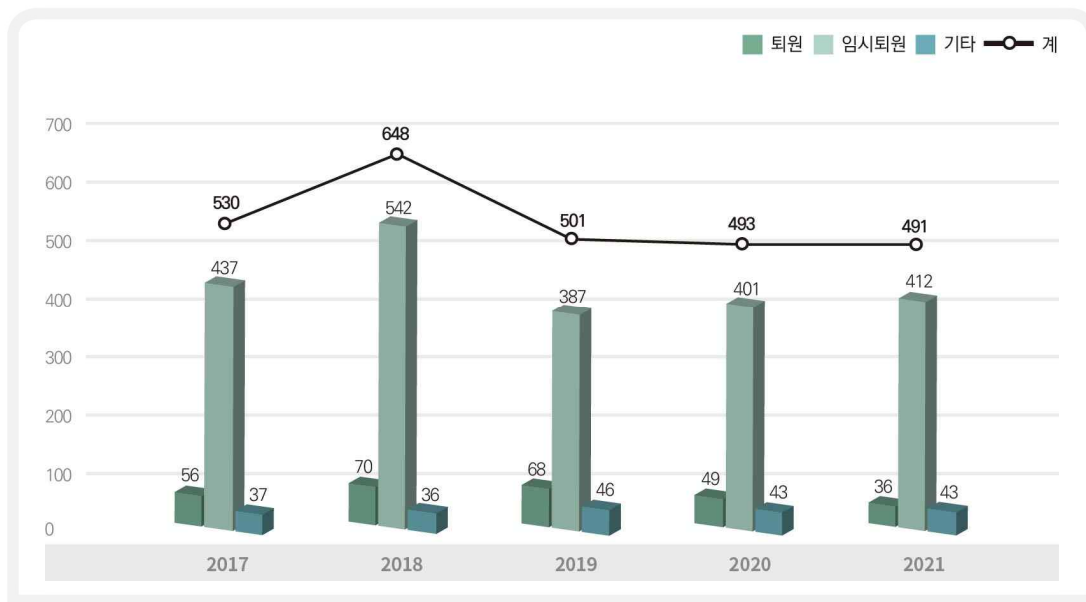


그림 5-2-4 10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2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년원에서 퇴원(임시퇴원) 등으로 출원한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현황

지표정의

- 보호소년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7·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 수용기간 :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한 날로부터 출원한 때까지의 기간

- 2021년에 퇴원 또는 임시퇴원한 보호소년의 출원 시까지의 수용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662명(4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개월 미만인 총 419명(27.5%),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인 301명(19.8%), 9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인 84명(5.5%), 6개월 이상~9개월 미만인 51명(3.3%), 18개월 이상이 7명(0.5%) 등이었다.

표 5-2-5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2017~2021)

수용기간 연도	계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017	2,275	902	47	777	143	36	155	179	36
	100%	39.6%	2.1%	34.1%	6.4%	1.6%	6.8%	7.9%	1.5%
2018	2,328	830	64	773	151	63	233	177	37
	100%	35.6%	2.7%	33.2%	6.4%	2.8%	10.1%	7.6%	1.6%
2019	1,944	713	74	680	105	80	206	67	19
	100%	36.7%	3.8%	35.0%	5.4%	4.1%	10.6%	3.4%	1.0%
2020	1,546	408	46	600	98	69	227	77	21
	100%	26.4%	3.0%	38.8%	6.3%	4.5%	14.7%	5.0%	1.3%
2021	1,524	355	64	662	51	84	204	97	7
	100%	23.3%	4.2%	43.4%	3.3%	5.5%	13.4%	6.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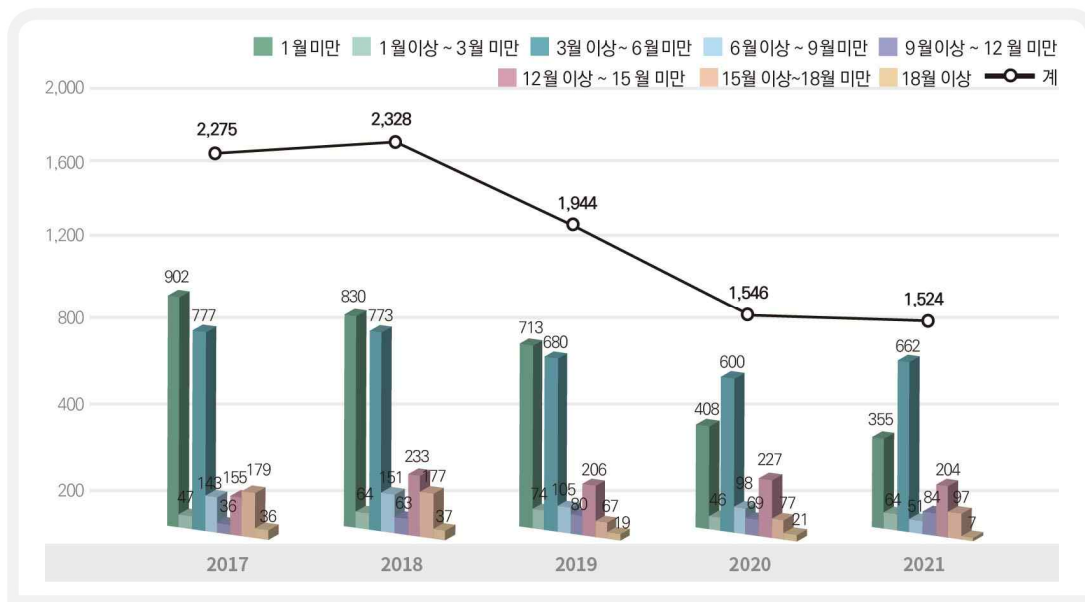


그림 5-2-5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2017~2021)

3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출원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위탁되었다가 출원한 위탁소년의 수용기간별 현황

지표정의

- 위탁소년 : 「소년법」 제18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 위탁 또는 유치된 소년
- 위탁기간 : 위탁소년이 소년보호기관에 위탁된 날로부터 출원한 때까지의 기간

- 2021년 출원한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21~30일이 2,407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1~40일이 630명(16.3%), 10~20일이 448명(11.6%), 41~50일이 199명(5.2%), 10일 미만인 145명(3.8%), 51~60일이 25명(0.6%)이었다.

표 5-2-6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출원 현황(2017~2021)

연도\기간	계	10일 미만	10~20일	21~30일	31~40일	41~50일	51~60일
2017	5,863	124	562	3,851	1,032	238	56
	100%	2.1%	9.6%	65.7%	17.6%	4.0%	1.0%
2018	5,739	144	616	3,573	1,001	291	114
	100%	2.5%	10.7%	62.3%	17.4%	5.1%	2.0%
2019	5,000	70	371	3,134	907	400	118
	100%	1.4%	7.4%	62.7%	18.1%	8.0%	2.4%
2020	4,435	67	393	2,862	812	242	59
	100%	1.5%	8.9%	64.5%	18.3%	5.5%	1.3%
2021	3,854	145	448	2,407	630	199	25
	100%	3.8%	11.6%	62.5%	16.3%	5.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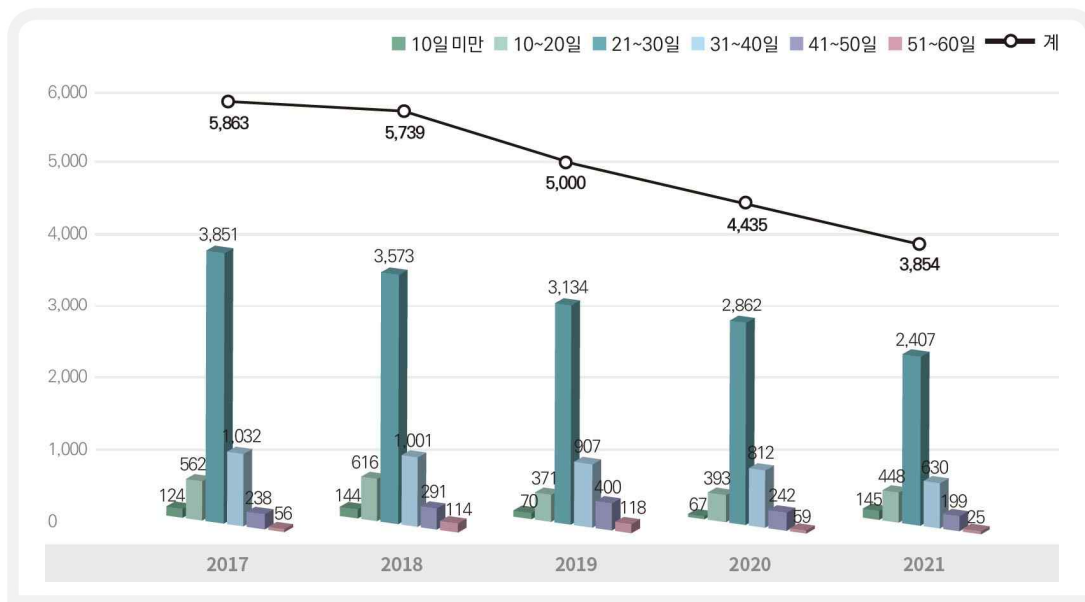


그림 5-2-6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출원 현황(2017~2021)

교육 실시 현황

1 보호소년 교육 수료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년원의 교육과정별 수료 인원 현황

지표정의

- 인성교육 : 전체 소년원생 대상의 교육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예체능교육,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 춘천소년원 등 인성교육 전문 소년원에서 실시
- 교과교육 : 초중고교 졸업장취득, 검정고시 합격, 상급학교 진학, 편입학 등을 위한 초·중등 교과교육과정으로, 서울소년원 등 교과교육 전문 소년원에서 실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총 16개 직종에 대한 직업 훈련과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문 소년원에서 실시
- 특수단기 인성교육 : 8호 처분 보호소년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학교폭력·강절도 예방 등의 전문교육, 체험활동, 교양교육,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등 8호 처분 전문 소년원에서 실시
- 의료·재활교육 : 7호 처분 보호소년에 대해 실시하는 집중치료와 특수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의료재활소년원에서 운영

- 2021년 소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보호소년 총 1,393명을 교육과정별로 구분하면, 인성교육이 317명(22.8%), 교과교육이 329명(23.6%), 직업능력개발훈련이 354명(25.4%), 8호 처분 보호소년에 대한 특수단기인성교육이 324명(23.3%), 7호 처분 보호소년에 대한 의료재활이 69명(4.9%)이었다.
- 최근 5년간의 교육 수료인원은 2018년까지 연간 2,000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수용인원 등의 감소에 따라 2019년에는 전년보다 16.4% 감소한 1,945명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보다 21% 감소한 1,536명이었고, 2021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2020년 이후의 교육 수료 인원 감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8호 처분 보호소년에 대한 특수단기 인성교육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 교육 종류별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8호 처분 보호소년에 대한 특수단기 인성교육(38.6%)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인성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각각 24% 수준인 반면 교과교육은 8%대에 머물렀으나, 이후로는 매년 교과교육의 인원과 비율이 모두 증가하여 2021년에는 23%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표 5-3-1 보호소년의 교육 수료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인성교육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특수단기인성교육 (8호 처분)	의료재활 (7호 처분)
2017		2,271	556	187	552	876	100
		100%	24.5%	8.2%	24.3%	38.6%	4.4%
2018		2,326	576	209	633	799	109
		100%	24.8%	9.0%	27.2%	34.4%	4.7%
2019		1,945	356	253	532	701	103
		100%	18.3%	13.0%	27.4%	36.0%	5.3%
2020		1,536	286	318	458	396	78
		100%	18.6%	20.7%	29.8%	25.8%	5.1%
2021		1,393	317	329	354	324	69
		100%	22.8%	23.6%	25.4%	23.3%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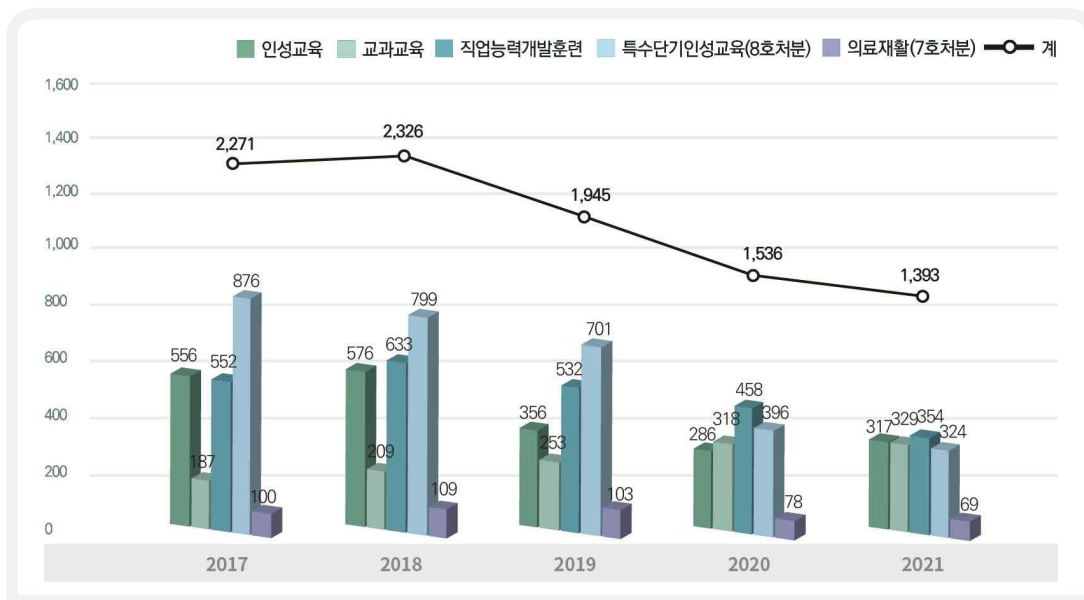


그림 5-3-1 보호소년의 교육 수료 현황(2017~2021)

➔ 교육교육의 확대

- » 기존에는 학업연계 대상을 일반고교 재학 중 소년원에 입원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2013년 12월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모든 일반 정규고교(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학업연계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교과교육의 비중이 높아졌다.
- » 또한,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편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안양소년원에서 여성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등 남성 소년원에서만 이루어지던 고등학교 교과교육을 여성 소년원으로 확대·실시하면서 교과교육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으며, 2021년 8월 17일부터는 교과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소년원학교가 기존의 서울·전주·안양소년원에서 대구소년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2015년 1월에 9호 처분 보호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전국 소년보호기관으로 확대하였고, 2016년 4월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비롯하여 기관 및 지역 사회 특성, 학생·교사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졌다.

➡ 2020년과 2021년의 교육 실시인원 감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강사로 참여하던 유급 강사, 유관 부처 지원 강사, 검정고시 자원봉사자 등 외부자원의 출입이 제한되었고, 8호 처분 보호소년의 신수용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함에 따른 결과이다.

2 보호소년 교과교육 세부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년원에서 교과교육을 실시한 인원 현황

지표정의

- 졸업장 취득 : 교과교육소년원에서 교과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인원
- 검정고시 합격 :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초/중/고등학교 졸업 동등의 자격을 취득한 인원
- 상급학교 진학 : 재원 중 또는 퇴원 후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진학에 합격한 인원
- 편입학 : 소년원 입원 전 전적학교와의 학업연계를 통해 퇴원 후 초/중/고등학교에 편입학한 인원

- 2021년 보호소년에 대한 교과교육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이 303명, 일반학교 편·입학이 290명, 상급학교 진학이 148명, 초·중·고교 졸업장 취득이 94명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검정고시합격이 가장 많았는데, 2017년에는 연간 600명 수준이었으나 2018년~2020년에는 400명 대로, 2021년에는 3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편입학은 2017년(200명)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8년 251명, 2020년 289명, 2021년에는 300명에 육박하였다. 상급학교 진학은 2017년 167명을 기록한 이후 2019년 104명까지 감소하였지만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였고, 졸업장 취득은 매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부터 90명 내외를 보였다.

표 5-3-2 보호소년 교과교육 세부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졸업장취득				검정고시합격				상급학교진학				편입학				
	계	초	중	고	계	초졸	중졸	고졸	계	중	고	대학	계	초	중	고	기타
2017	73	0	50	23	617	0	141	476	167	0	79	88	200	0	54	146	0
2018	104	0	66	38	447	0	76	371	165	0	79	86	251	0	69	182	0
2019	74	0	55	19	420	0	65	355	104	0	49	55	245	0	85	160	0
2020	89	0	64	25	409	0	45	364	130	0	66	64	289	1	90	198	0
2021	94	0	63	31	303	0	39	264	148	0	77	71	290	0	79	211	0

3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소년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보호소년 인원 현황

지표정의

- 일반자격 : 외국어, 컴퓨터, 한자 등 직업훈련관련 자격증 이외의 자격을 취득한 인원
- 직업훈련 : 용접기능사, 제과기능사 등 직업훈련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
- 기능대회입상 :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에서 입상한 인원

- 2021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보호소년 총 2,824명 중 기타(한자 등) 분야가 1,410명(49.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직업훈련 723명(25.6%), 컴퓨터 608명(21.5%), 기능대회입상 83명(3.0%) 등의 순이었다.

표 5-3-3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컴퓨터	기타(한자 등)	직업훈련	기능대회입상
2017	4,763	1,524	1,662	1,524	53
	100%	32.0%	34.9%	32.0%	1.1%
2018	4,876	1,341	1,787	1,634	114
	100%	27.5%	36.5%	33.5%	2.3%
2019	4,321	1,181	1,529	1,478	133
	100%	27.3%	35.4%	34.2%	3.1%
2020	3,131	793	1,394	838	106
	100%	25.3%	44.5%	26.8%	3.4%
2021	2,824	608	1,410	723	83
	100%	21.5%	49.9%	25.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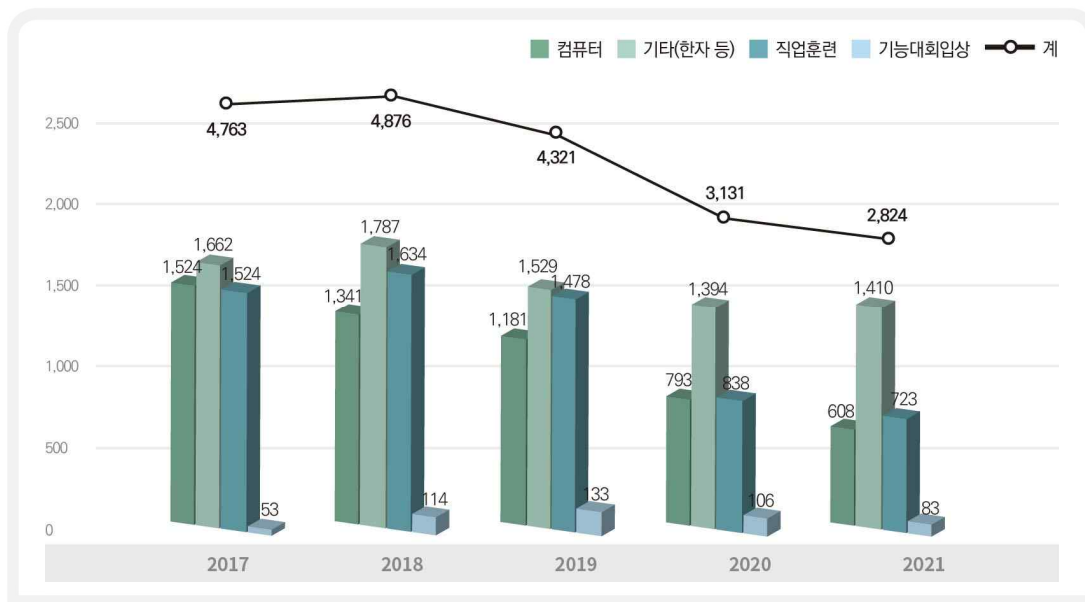


그림 5-3-2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2017~2021)

4 보호소년 경시대회 입상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인원 현황

지표정의

- 컴퓨터 : 컴퓨터 관련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인원
- 예·체능 : 예·체능 관련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인원
- 기타 : 문예 등 기타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인원

- 2021년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보호소년 총 165명이며, 모두 예체능 분야에서 입상하였다.
- 최근 5년간의 경시대회 입상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최소 138명이 입상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경시대회의 개최 또는 출전이 취소되면서 77명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경시대회 개최가 재개되면서 전년보다 114.3%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표 5-3-4 보호소년의 경시대회 입상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컴퓨터	예·체능	기타
2017		178	0	112	66
		100%	0.0%	62.9%	37.1%
2018		138	0	127	11
		100%	0.0%	92.0%	8.0%
2019		160	0	154	6
		100%	0.0%	96.3%	3.8%
2020		77	0	67	10
		100%	0.0%	87.0%	13.0%
2021		165	0	165	0
		100%	0.0%	1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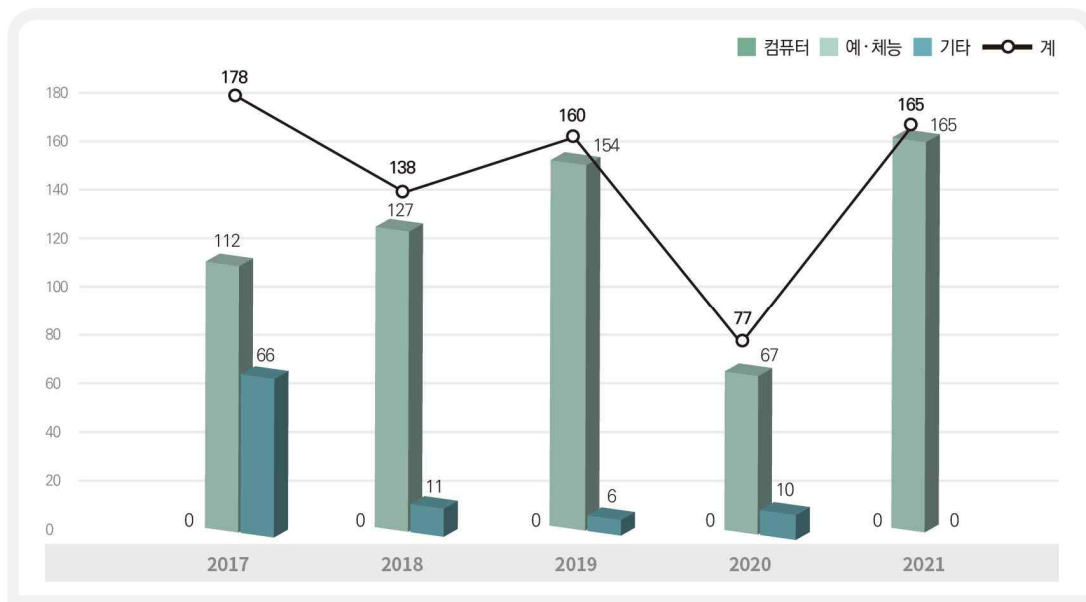


그림 5-3-3 보호소년의 경시대회 입상 현황(2017~2021)

제 4 절

사회정착지원 현황

1 개방처우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개방처우를 실시한 인원 현황

지표정의

- 통학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통학
- 통근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통근
- 가정학습 : 보호소년이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 외부체험학습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특별활동
- 사회봉사활동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에 의한 봉사활동

- 최근 5년간의 개방처우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300~2,500명 수준에서 실시되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203명으로 전년의 8.4% 수준에 머물렀고, 2021년에는 더욱 감소하여 가정학습 1명만이 실시되었다.

표 5-4-1 보호소년의 개방처우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통학	통근	가정학습	외부체험학습	사회봉사
2017	2,393	2	0	26	1,315	1,050
	100%	0.1%	0.0%	1.1%	55.0%	43.9%
2018	2,545	6	0	8	1,520	1,011
	100%	0.2%	0.0%	0.3%	59.7%	39.7%
2019	2,414	0	2	65	1,336	1,011
	100%	0.0%	0.1%	2.7%	55.3%	41.9%
2020	203	0	0	6	39	158
	100%	0.0%	0.0%	3.0%	19.2%	77.8%
2021	1	0	0	1	0	0
	100%	0.0%	0.0%	100%	0.0%	0.0%



그림 5-4-1 보호소년 개방처우 현황(2017~2021)

➡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이후 감염예방을 위해 소년원생의 외부 활동, 수용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 면회 및 종교 활동을 중단함에 따라 대부분의 개방처우가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다른 교육 등은 일부 정상화되었으나 개방처우는 정상 재개가 어려웠다.

※ 소년보호기관 보호소년의 월별 개방처우(가정학습) 현황(2018~2021)

단위: 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8	1	0	1	0	1	0	1	0	1	2	1	0
2019	65	0	1	4	7	6	8	6	6	7	13	0	7
2020	6	5	1	0	0	0	0	0	0	0	0	0	0
2021	1	0	0	0	0	1	0	0	0	0	0	0	0

2 가족관계 회복지원 프로그램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가정관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정착을 지원한 보호소년 인원 현황

지표정의

- 보호자좌담회 :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좌담회
- 가정관 운영 : 소년원 내 가정관에서 가족과 보호소년이 같이 생활하면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
- 가족합숙제 : 가정관에서 1박2일을 가족과 보호소년이 같이 생활하면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
- 1일생활제 : 가정관에서 가족과 보호소년이 1일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
- 가정관면회제 : 기존 면회의 경우 시간적 제약이 많아 기존 면회보다 심층적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관에서 면회 실시

- 최근 5년간의 가족관계 회복지원 프로그램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 4,41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8년 3,779명, 2019년 2,208명 등으로 감소하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76명을 기록, 전년의 8%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2021년에는 한 명도 실시하지 못하였다.

표 5-4-2 보호소년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보호자좌담회	가정관 운영			
				소계	가족합숙제	1일생활제	가정관면회제
2017		4,411	1,080	3,331	91	1,069	2,171
				100%	2.7%	32.1%	65.2%
2018		3,779	683	3,096	79	1,549	1,468
				100%	2.6%	50.0%	47.4%
2019		2,208	528	1,680	132	859	689
				100%	7.9%	51.1%	41.0%
2020		176	93	83	7	60	16
				100%	8.4%	72.3%	19.3%
2021		0	0	0	0	0	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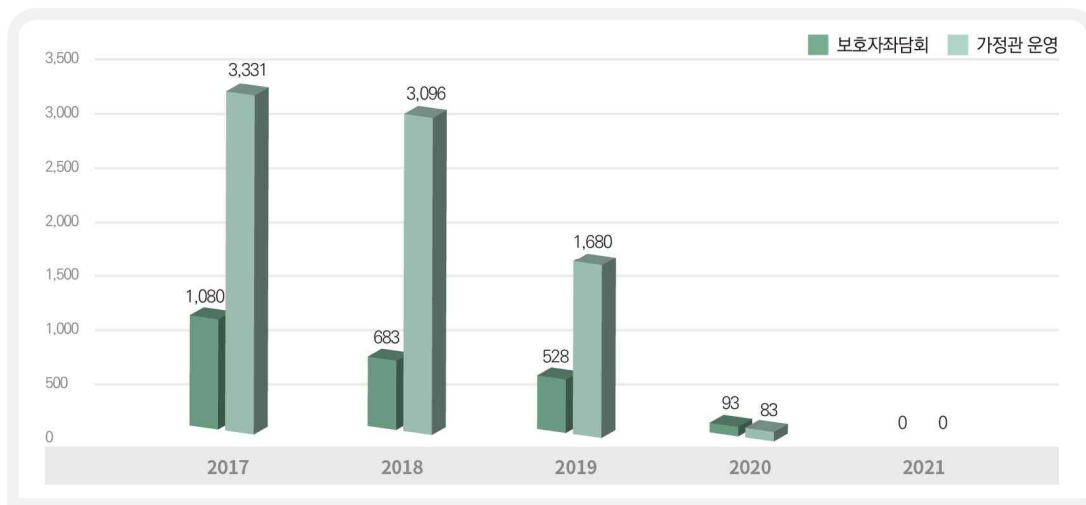


그림 5-4-2 보호소년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현황(2017~2021)

3 취업 지원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을 통하여 사회정착을 지원한 보호소년 인원 현황

지표정의

- 취업(알선) : 취업처를 알선하는 등 취업을 직접적으로 지원
- 구인업체 방문 : 구인업체 방문을 통하여 취업처를 모집하여 취업을 지원
- 취업 후견인 : 지도교사 또는 소년보호위원을 취업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취업을 지원
- 산업체 현장실습 :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하여 취업을 지원

- 취업 지원을 받은 보호소년은 2017년 997명에서 2018년에 934명, 2019년에 771명 등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등으로 감소 폭이 더욱 커져 2020년 217명, 2021년 215명을 기록하였다.
- 한편,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지원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취업(알선)은 2019년에 비해 30~40% 감소한 반면 2019년까지 전체 지원의 39~53% 범위를 차지하던 산업체 현장실습은 2019년의 0.5~3.4%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표 5-4-3 보호소년의 취업 지원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취업(알선)	구인업체 방문	취업 후견인	산업체 현장실습
2017		997	417	130	56	394
		100%	41.8%	13.1%	5.6%	39.5%
2018		934	352	75	74	433
		100%	37.7%	8.0%	7.9%	46.4%
2019		771	303	52	6	410
		100%	39.3%	6.7%	0.8%	53.2%
2020		217	187	12	4	14
		100%	86.2%	5.5%	1.8%	6.5%
2021		215	208	3	2	2
		100%	96.8%	1.4%	0.9%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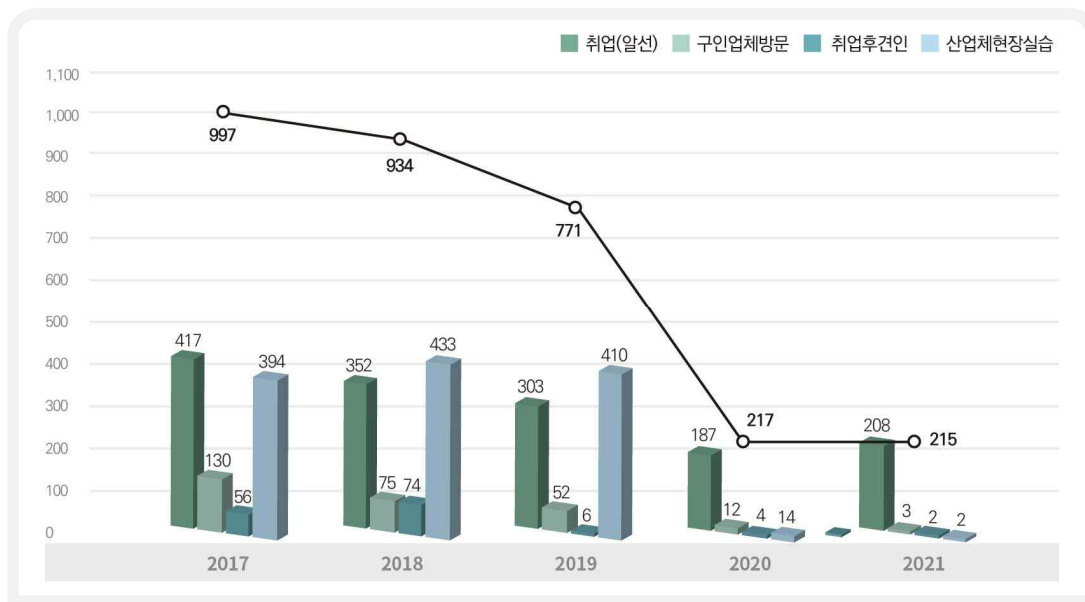


그림 5-4-3 보호소년의 취업 지원 현황(2017~2021)

4 자립 지원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학금 등 자립 지원을 통하여 사회정착을 지원한 인원 현황

지표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 :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도움 (2012년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사랑의 리퀘스트 : 사랑의 리퀘스트 연결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지원
- 장학금 : 상급학교 진학자에게 장학금 지원
- 가족찾기 : 무연고 보호소년 가족찾기로 소년의 단절된 가족관계를 지원
- 멘토결연 : 소년보호위원을 보호소년과 결연하여 취업, 상담 등을 지원

- 자립지원을 받은 보호소년은 2017년 2,754명, 2018년 3,254명, 2019년 2,581명 등이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7% 감소한 852명이었고, 2021년에도 다시 전년보다 32.3% 감소한 577명을 기록하였다.
- 자립 지원의 형태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멘토 결연이 전체의 77~86%를, 장학금 지원이 13~22%를 차지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2020년 이후 멘토 결연 인원이 급감하면서 멘토 결연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장학금 지원 비율은 상승하였다.

표 5-4-4 보호소년의 자립 지원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멘토 결연	장학금	가족찾기	사랑의리퀘스트
2017	2,754	2,146	608	0	0
	100%	77.9%	22.1%	0.0%	0.0%
2018	3,254	2,808	445	1	0
	100%	86.3%	13.7%	0.0%	0.0%
2019	2,581	2,188	393	0	0
	100%	84.8%	15.2%	0.0%	0.0%
2020	852	472	376	4	0
	100%	55.4%	44.1%	0.5%	0.0%
2021	577	208	368	1	0
	100%	36.0%	63.8%	0.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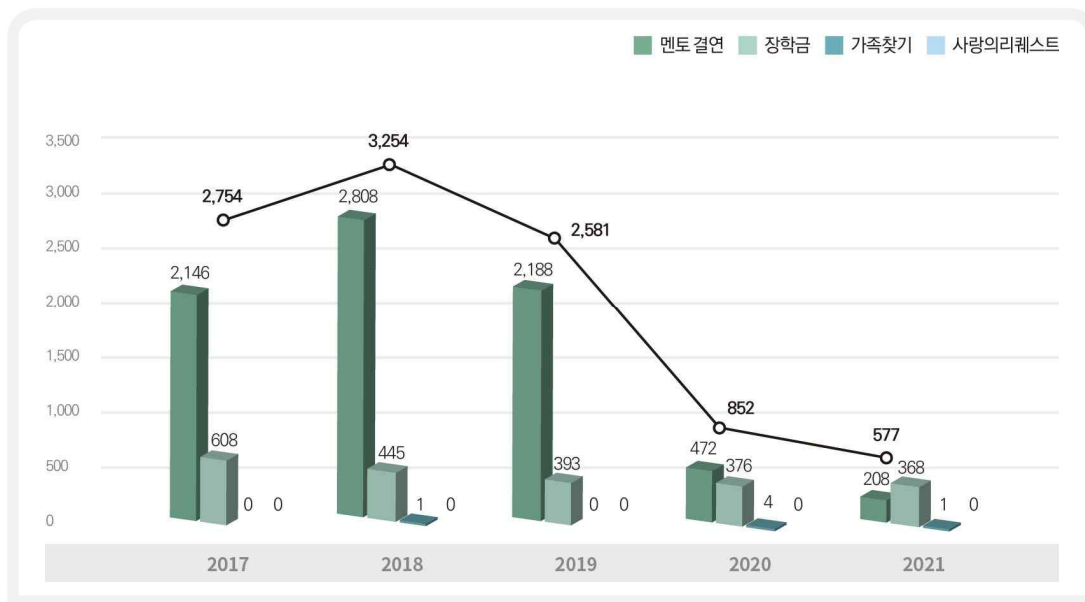


그림 5-4-4 보호소년의 자립 지원 현황(2017~2021)

분류심사 및 보호자교육 현황

1 분류심사 실시 현황

지표정의

- 분류심사 : 「소년법」 제12조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위탁소년, 유치소년 등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하고 법원 소년부의 조사와 심리를 도움. 분류심사 기능 대행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실시.
 - 일반분류심사 : 특수를 제외한 분류심사
 - 특수분류심사 : 상습비행자, 성격·행동이상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 검사 외의 MMPI, BGT 등의 추가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심층적인 분류심사

- 최근 5년간의 분류심사 실시인원이 계속 감소하여 2017년과 2018년에는 연간 5,500명 내외였다가 2019년 4,755명, 2020년 4,267명 등이었고, 2021년에는 전년보다 15.2% 감소한 3,620명을 기록하였다.
- 분류심사를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하면, 일반 분류심사는 최근 5년간 매년 전체의 66~71% 수준을, 특수 분류심사는 28~33% 수준을 차지하였다.

표 5-5-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일반 분류심사	특수 분류심사
2017		5,614	3,905	1,709
		100%	69.6%	30.4%
2018		5,385	3,853	1,532
		100%	71.6%	28.4%
2019		4,755	3,235	1,520
		100%	68.0%	32.0%
2020		4,267	2,853	1,414
		100%	66.9%	33.1%
2021		3,620	2,514	1,106
		100%	69.4%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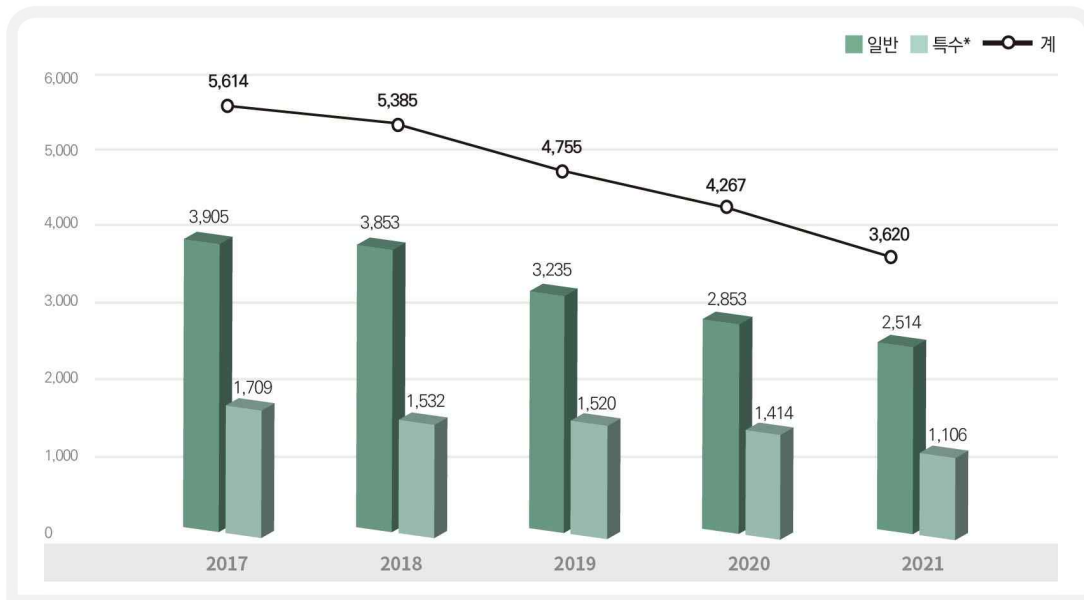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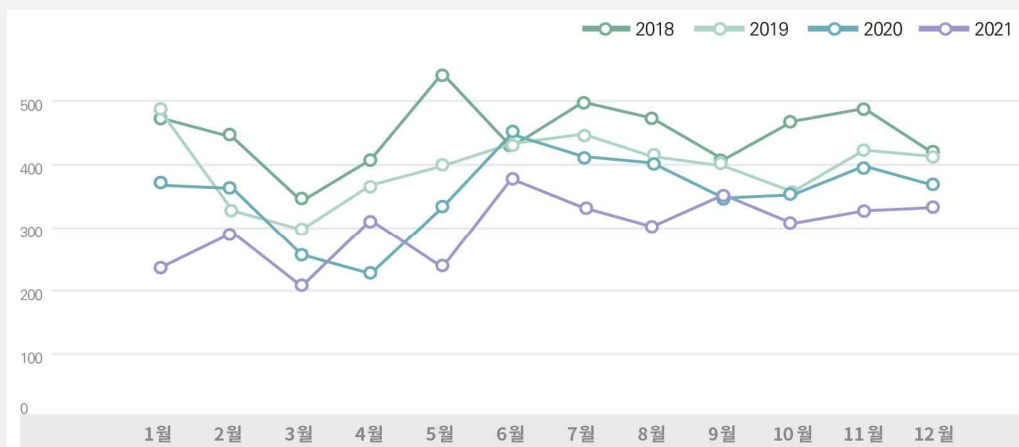


그림 5-5-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7~2021)

➡ 코로나19 이후의 월별 분류심사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법원이 한시적으로 심리를 중지하였던 2020년 3~5월을 비롯하여 2020년 대부분의 월에서 전년 동월에 비해 실시인원이 감소하였고, 2021년에도 4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월에서 전년 동월보다 실시인원이 감소하였다.

※ 소년보호기관 월별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8~2021)

월연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5,385	473	444	343	407	542	426	497	473	405	467	489	419
2019	4,755	484	328	296	366	399	431	447	414	399	355	422	414
2020	4,267	368	361	257	228	330	450	412	400	346	350	396	369
2021	3,620	237	292	207	314	236	378	330	302	354	308	328	334



2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자교육을 실시한 인원 현황

지표정의

- 보호자교육 :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 등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에 의한 보호자교육과정을 운영
- 자원 : 보호소년 등의 보호자가 자원으로 보호자교육에 참여한 인원
- 의무(부가처분) :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가 보호자교육에 참여한 인원

- 2021년 전국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 인원은 총 495명이었다. 그중 자원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336명(67.9%)이었고,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부가처분으로 실시한 의무교육이 159명(32.1%)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6,337명에 대해 보호자교육이 실시된 이후 2018년 4,978명, 2019년 3,053명 등으로 감소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703명으로 급감하였고 2021년에도 다시 전년보다 29.6% 감소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자원 보호자 교육의 감소 폭이 의무 교육보다 컸다.

표 5-5-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자원	의무(부가처분)
2017		6,337	5,614	723
		100%	88.6%	11.4%
2018		4,978	4,289	689
		100%	86.2%	13.8%
2019		3,053	2,668	385
		100%	87.4%	12.6%
2020		703	458	245
		100%	65.1%	34.9%
2021		495	336	159
		100%	67.9%	32.1%

※ 2017년부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 인원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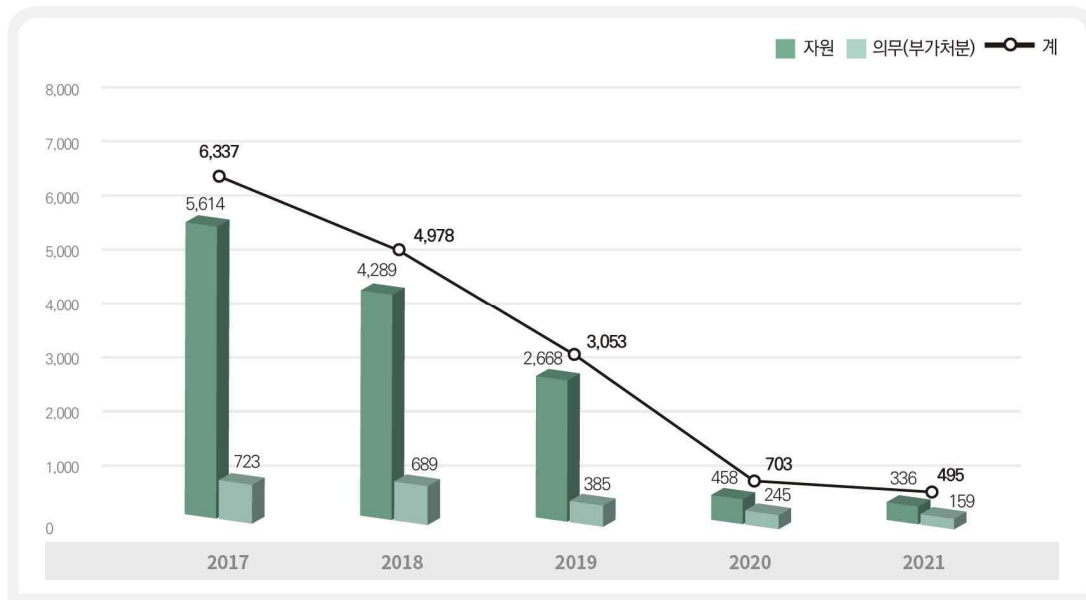


그림 5-5-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17~2021)

- ➔ 2017년 이후 보호자교육 실시인원이 감소한 것은 그동안 합산되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자교육 실시인원이 별도 집계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원 보호자교육이 축소되고 의무 보호자교육이 중단되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라 일부 교육이 재개되었지만 교육인원이 많지 않았다. 2021년의 경우, 자원 보호자 교육은 2020년 수준에서 진행되었고, 의무 교육은 12월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 소년보호기관 월별 보호자교육(자원) 운영 현황(2018~2021)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4,289	529	396	326	305	384	455	384	315	325	323	265	282
2019	2,668	303	263	181	289	204	219	257	206	197	199	197	153
2020	458	148	42	35	19	25	25	41	21	25	28	30	19
2021	336	38	31	35	32	30	27	10	27	31	31	26	18

※ 소년보호기관 월별 보호자교육(의무) 운영 현황(2018~2021)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689	31	47	81	16	51	75	38	54	50	59	102	85
2019	385	68	53	15	70	20	34	40	39	33	0	11	2
2020	245	13	0	0	0	21	86	59	24	8	0	34	0
2021	159	0	1	8	0	0	3	0	0	0	0	41	106

제 6 절

재입원율 현황

개 요

- 전국 소년원에서 퇴원(임시퇴원) 등으로 출원한 이후 3년 이내 재입원한 인원 현황

지표정의

- 재입원 : 전국 소년원에서 퇴원(임시퇴원) 등으로 출원한 이후 3년 이내 다시 보호처분으로 입원한 소년
* 2회 이상의 재입원생은 중복 처리하였으며, 임시퇴원취소자·처분변경자·처분취소자·재처분자는 재입원에서 제외

- 소년원에서 출원한 보호소년이 1년 이내에 소년원에 재입원한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출원생이 14.9%, 2012년 11.2%, 2013년 10.1%, 2014년 9.5%, 2015년 12.0%, 2016년 14.0% 등으로, 2014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10~15% 범위에 머물렀다. 이후 재입원율이 점차 낮아져 2017년 8.3%, 2018년 6.7%이었고,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6.2%를 기록하였다.
- 출원 후 2년 이내 누적 재입원율은 2011년에 22.7%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 17.7%, 2013년에 16.8%, 2014년에 16.2%, 2015년에 19.8%, 2016년에 18.7%, 2017년에 17.0%이었고,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5.5%와 15.4%이었다.
- 출원 후 3년 이내 누적 재입원율은 2011년 24.3%에서 2012년 19.5%, 2013년 18.7%, 2014년 18.4% 등으로 낮아지다가 2015년에는 21.2%, 2016년에는 21.5% 등으로 상승하였고 2017년에는 19.1%, 2018년에는 18.0% 등으로 다시 낮아졌다.

표 5-6-1 보호소년의 출원 이후 기간별 재입원율 현황(2011~2020)

연도	출원 후 기간	출원	1년 이내		1년~2년		2년~3년	
			재입원	비율	재입원	비율	재입원	비율
2011		2,559	381	14.9%	200	7.8%	40	1.6%
2012		3,212	361	11.2%	208	6.5%	57	1.8%
2013		2,867	289	10.1%	191	6.7%	54	1.9%
2014		2,398	228	9.5%	161	6.7%	52	2.2%
2015		2,037	245	12.0%	158	7.8%	29	1.4%
2016		2,045	287	14.0%	97	4.7%	58	2.8%
2017		2,174	181	8.3%	189	8.7%	46	2.1%

연도 \ 출원 후 기간	출원	1년 이내		1년~2년		2년~3년	
		재입원	비율	재입원	비율	재입원	비율
2018	2,225	148	6.7%	196	8.8%	56	2.5%
2019	1,832	113	6.2%	168	9.2%	—	—
2020	1,468	91	6.2%	—	—	—	—

표 5-6-2 보호소년의 출원 이후 누적 기간별 재입원을 현황(2011~2020)

출원 후 기간 (누적) 출원 연도	출원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재입원	비율	재입원	비율	재입원	비율
2011	2,559	381	14.9%	581	22.7%	621	24.3%
2012	3,212	361	11.2%	569	17.7%	626	19.5%
2013	2,867	289	10.1%	480	16.7%	534	18.7%
2014	2,398	228	9.5%	389	16.2%	441	18.4%
2015	2,037	245	12.0%	403	19.8%	432	21.2%
2016	2,045	287	14.0%	384	18.7%	442	21.5%
2017	2,174	181	8.3%	370	17.0%	416	19.1%
2018	2,225	148	6.7%	344	15.5%	400	18.0%
2019	1,832	113	6.2%	281	15.4%	—	—
2020	1,468	91	6.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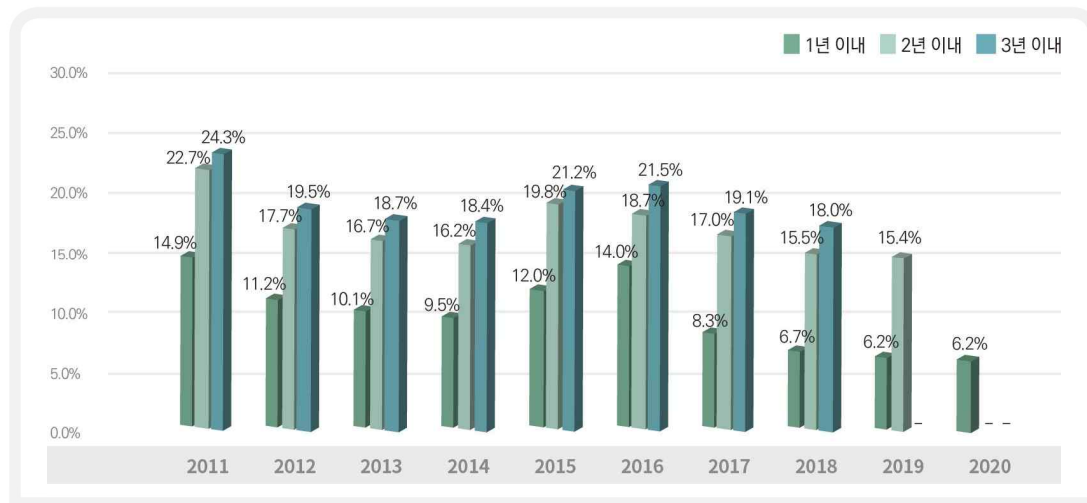


그림 5-6-1 보호소년의 출원 이후 누적 기간별 재입원을 현황(2011~2020)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numerous concentric, dotted arcs that form a circular shape, centered behind the title text.

통계분석

2022 범죄예방정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Chapter 6

청소년 비행예방

제1절 비행예방교육

제2절 비행진단

제3절 자립지원시설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비행예방교육

- ➔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자 등 위기 청소년과 기소유예자 등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비행예방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7월 부산·창원·광주 등 6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전국 19개(비직제 1개 기관 포함) 기관이 설치되었다.
-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개발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른 법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희망찬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 대안교육

1) 의뢰기관별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현황

지표정의

- 대안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등에 따라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한 비행초기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문제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 의뢰기관 : 학교, 검찰, 법원, 기타 기관 등으로 구분
 - 학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학교장 등이 의뢰(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선도처분 특별교육)
 - 검찰 :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에 따라 검사가 의뢰(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 법원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대안교육명령)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2호(수강명령)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의뢰
 - 기타 :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소년 특별교육)

- 2021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대안교육 인원 총 5,809명 중 검찰 의뢰가 2,504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의뢰가 1,579명(27.2%), 법원 의뢰가 1,462명(25.2%), 기타 기관 의뢰가 264명(4.5%)이었다.

- 최근 5년간의 대안교육 실시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13,000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7.8% 감소하였다. 2021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5.8%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비해서는 55.3% 감소하였다.
- 또한 의뢰기관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학교 의뢰가 전체 인원의 약 절반이었으나, 2019년에는 검찰과 법원의 의뢰가 증가하여 학교 의뢰가 37.9%, 검찰 의뢰가 35.4%, 법원 의뢰가 19.5%를 차지하였다. 전체 인원이 크게 감소한 2020년에는 특히 학교 의뢰가 급감하여 전년의 24.0%에 머물렀고, 법원 의뢰는 30.6%, 검찰 의뢰는 64.6% 수준에 머물렀다. 2021년에는 전년보다 검찰 의뢰는 소폭 감소한 반면 법원 의뢰는 88.9%, 학교 의뢰는 33.4% 증가하였다.

표 6-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학교	검찰	법원	기타
2017		13,578	6,623	5,416	193	1,346
		100%	48.8%	39.9%	1.4%	9.9%
2018		13,801	7,028	4,365	1,090	1,318
		100%	50.9%	31.6%	7.9%	9.6%
2019		13,002	4,930	4,608	2,533	931
		100%	37.9%	35.4%	19.5%	7.2%
2020		5,491	1,184	2,975	774	558
		100%	21.6%	54.2%	14.1%	10.1%
2021		5,809	1,579	2,504	1,462	264
		100%	27.2%	43.1%	25.2%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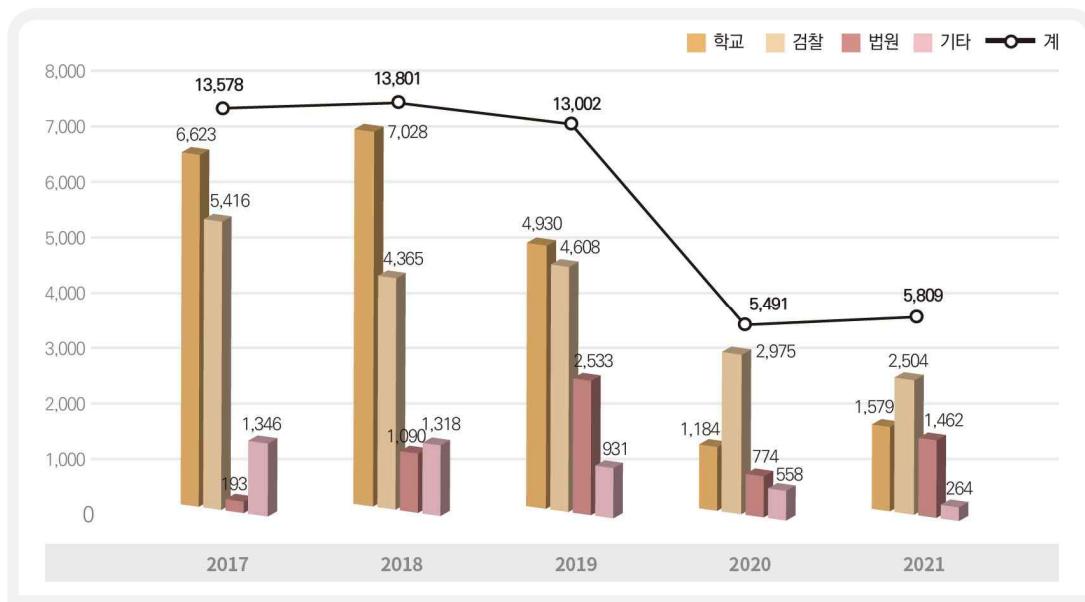


그림 6-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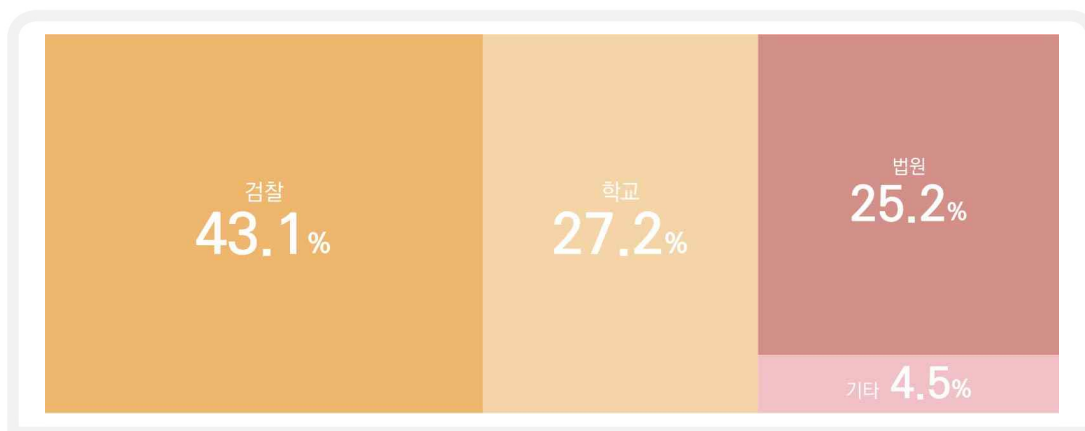


그림 6-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점유율(2021)

2) 교육기간별 현황

- 2021년에 실시한 대안교육을 교육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3일 교육이 2,055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일 교육 1,887명(32.5%), 1일 교육 1,135명(19.5%) 등의 순이었다.

표 6-1-2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4시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기타
2017	13,578	1,917	1,160	263	3,585	436	6,177	5	35
	100%	14.1%	8.5%	1.9%	26.4%	3.2%	45.5%	0.1%	0.3%
2018	13,801	2,243	773	345	4,156	453	5,813	3	15
	100%	16.3%	5.6%	2.5%	30.1%	3.3%	42.1%	0.0%	0.1%
2019	13,002	856	755	320	4,007	496	6,513	0	55
	100%	6.6%	5.8%	2.5%	30.8%	3.8%	50.1%	0.0%	0.4%
2020	5,491	687	485	125	1,959	300	1,914	1	20
	100%	12.5%	8.8%	2.3%	35.7%	5.5%	34.8%	0.0%	0.4%
2021	5,809	157	1,135	214	2,055	333	1,887	0	28
	100%	2.7%	19.5%	3.7%	35.4%	5.7%	32.5%	0.0%	0.5%

※ 2017년부터 절도, 학교폭력, 교통안전, 사이버범죄 등 청소년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4대 비행유형별 단기전문과정 (4시간, 1일)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시작

3) 의뢰기관에 따른 교육기간별 현황

(1) 학교 의뢰

- 2021년에 학교 의뢰로 실시한 대안교육을 교육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5일 교육이 682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일 교육 392명(24.8%), 1일 교육 175명(11.1%) 등의 순이었다.

표 6-1-3 학교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계	4시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기타
2017	6,623	914	611	172	1,322	46	3,522	4	32
	100%	13.8%	9.2%	2.6%	19.9%	0.7%	53.2%	0.1%	0.5%
2018	7,028	1,039	239	291	1,774	77	3,600	3	5
	100%	14.8%	3.4%	4.2%	25.2%	1.1%	51.2%	0.0%	0.1%
2019	4,930	40	200	124	1,315	34	3,171	0	46
	100%	0.8%	4.1%	2.5%	26.7%	0.7%	64.3%	0.0%	0.9%
2020	1,184	115	70	58	289	48	589	0	15
	100%	9.7%	5.9%	4.9%	24.4%	4.1%	49.7%	0.0%	1.3%
2021	1,579	108	175	83	392	128	682	0	11
	100%	6.8%	11.1%	5.3%	24.8%	8.1%	43.2%	0.0%	0.7%

(2) 검찰 의뢰

- 2021년에 검찰 의뢰로 실시한 대안교육을 교육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3일 교육이 1,264명(5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일 교육 541명(21.6%), 5일 교육 471명(18.8%), 4일 교육 116명(4.6%), 2일 교육 84명(3.4%) 등의 순이었다.

표 6-1-4 검찰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계	4시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기타
2017	5,416	189	267	0	2,095	381	2,483	0	1
	100%	3.5%	4.9%	0.0%	38.7%	7.0%	45.9%	0.0%	0.0%
2018	4,365	219	306	4	1,890	359	1,578	0	9
	100%	5.0%	7.0%	0.1%	43.3%	8.2%	36.2%	0.0%	0.2%
2019	4,608	200	273	21	2,083	399	1,631	0	1
	100%	4.3%	5.9%	0.5%	45.2%	8.7%	35.4%	0.0%	0.0%
2020	2,975	218	321	30	1,350	219	833	0	4
	100%	7.3%	10.8%	1.0%	45.4%	7.4%	28.0%	0.0%	0.1%
2021	2,504	28	541	84	1,264	116	471	0	0
	100%	1.1%	21.6%	3.4%	50.5%	4.6%	18.8%	0.0%	0.0%

(3) 법원 의뢰

- 2021년에 법원 의뢰로 실시한 대안교육을 교육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5일 교육이 708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일 교육 406명(27.8%), 3일 교육 239명(16.3%), 4일 교육 89명(6.1%) 등의 순이었다.

표 6-1-5 법원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계	4시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기타
2017	193	3	5	0	22	9	151	1	2
	100%	1.6%	2.6%	0.0%	11.4%	4.7%	78.2%	0.5%	1.0%
2018	1,090	57	112	22	355	17	526	0	1
	100%	5.2%	10.3%	2.0%	32.6%	1.6%	48.2%	0.0%	0.1%
2019	2,533	134	136	38	559	62	1,597	0	7
	100%	5.2%	5.3%	1.5%	22.1%	2.5%	63.1%	0.0%	0.3%
2020	774	1	88	15	179	33	456	1	1
	100%	0.1%	11.4%	2.0%	23.1%	4.3%	58.9%	0.1%	0.1%
2021	1,462	0	406	13	239	89	708	0	7
	100%	0.0%	27.8%	0.9%	16.3%	6.1%	48.4%	0.0%	0.5%

(4) 기타 기관 의뢰

- 2021년에 기타기관 의뢰로 실시한 대안교육을 교육시간에 따라 구분하면, 3일 교육이 160명(6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일 교육이 34명(12.9%), 5일 교육이 26명(9.8%), 4시간 교육이 21명(8.0%) 등의 순이었다.

표 6-1-6 기타 기관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계	4시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기타
2017	1,346	811	277	91	146	0	21	0	0
	100%	60.2%	20.6%	6.8%	10.8%	0.0%	1.6%	0.0%	0.0%
2018	1,318	928	116	28	137	0	109	0	0
	100%	70.4%	8.8%	2.1%	10.4%	0.0%	8.3%	0.0%	0.0%
2019	931	482	146	137	50	1	114	0	1
	100%	51.8%	15.7%	14.7%	5.4%	0.1%	12.2%	0.0%	0.1%
2020	558	353	6	22	141	0	36	0	0
	100%	63.3%	1.1%	3.9%	25.3%	0.0%	6.4%	0.0%	0.0%
2021	264	21	13	34	160	0	26	0	10
	100%	8.0%	4.9%	12.9%	60.6%	0.0%	9.8%	0.0%	3.8%

4) 비행유형별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대안교육의 비행유형 등 현황

지표정의

- 대안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년법」 제49조의3 제2호,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등에 따라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한 비행초기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문제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 비행유형 : 교칙위반 등(지시불이행, 흡연, 출결, 학교 교칙 위반 등), 절도, 폭력, 교통, 성비행, 중독, 사기, 재교육, 기타(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혹은 보호관찰소 의뢰 등 특정 비행유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의 9개로 구분

- 2021년에 실시한 대안교육을 교육 대상의 비행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교칙위반 등이 1,673명(28.8%), 절도가 1,404명(24.2%), 교통 관련 비행이 710명(12.2%), 폭력이 378명(6.5%), 성비행이 321명(5.5%), 사기가 316명(5.4%)이었으며,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의뢰되어 비행유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기타)가 1,004명(17.3%)이었다.

표 6-1-7 대안교육의 비행유형별 실시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계	교칙위반 등	절도	폭력	교통	성비행	중독	재교육	사기	기타
2017	13,578	2,717	2,483	1,056	795	284	478	145	0	5,620
	100%	20.0%	18.3%	7.8%	5.8%	2.1%	3.5%	1.1%	0.0%	41.4%
2018	13,801	3,578	2,093	1,164	859	323	793	171	0	4,820
	100%	25.8%	15.2%	8.4%	6.2%	2.4%	5.8%	1.2%	0.0%	35%
2019	13,002	3,296	2,601	1,479	1,046	628	431	47	31	3,443
	100%	25.4%	20.0%	11.4%	8.0%	4.8%	3.3%	0.4%	0.2%	26.5%
2020	5,491	1,166	1,393	486	591	219	20	0	227	1,389
	100%	21.2%	25.4%	8.8%	10.8%	4.0%	0.4%	0.0%	4.1%	25.3%
2021	5,809	1,673	1,404	378	710	321	3	0	316	1,004
	100%	28.8%	24.2%	6.5%	12.2%	5.5%	0.1%	0.0%	5.4%	17.3%

5) 기관별 대안교육 실시 현황

- 2021년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5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552명,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485명,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459명,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439명,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378명,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334명,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331명,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303명 등의 순이었다.

표 6-1-8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대안교육 현황(2021)

구분	직원 수	총계	학교	검찰	법원	기타
총계	136	5,809	1,579	2,504	1,462	264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285	80	119	86	0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378	23	213	142	0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81	133	25	22	1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331	28	178	125	0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334	151	162	12	9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8	459	223	236	0	0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288	49	95	0	144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297	68	105	124	0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5	203	2	201	0	0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59	22	137	0	0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8	162	5	71	55	31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80	11	33	0	36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15	485	293	53	131	8

구분	직원 수	총계	학교	검찰	법원	기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	439	76	196	162	5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	572	185	183	178	26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8	303	88	197	18	0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229	38	144	45	2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552	48	140	362	2
제주소년원**	3	72	56	16	0	0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수(부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솔로몬로파크 업무 병행)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수(제주소년원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병행)

2 보호자교육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 인원 및 교육시간별 현황

지표정의

- 보호자교육 : 학교, 법원, 검찰청에서 의뢰한 보호자(의무 보호자교육)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교육생(자원 보호자교육)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 교육
- 보호자교육(의무)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년법」 제32조2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보호자교육과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자교육

1) 개요

- 2021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 인원은 총 4,071명이며, 이를 의무교육과 자원교육으로 구분하면 의무교육(부가처분)이 1,777명(43.7%), 자원교육이 2,294명(56.3%)이었다.
- 최근 5년간의 보호자교육 실시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4.4%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1.8%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 한편, 보호자교육 중 의무교육(부가처분)과 자원교육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의무교육이 19.9%, 자원교육이 80.1%로 자원교육의 비율이 높았으나, 이후 의무교육은 증가 추세를, 자원교육은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20년부터 의무교육이 43% 내외, 자원교육이 57% 내외를 차지하여 그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9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자교육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의무교육	자원교육
2017		6,977	1,388	5,589
		100%	19.9%	80.1%
2018		7,046	2,497	4,549
		100%	35.4%	64.6%
2019		7,320	3,455	3,865
		100%	47.2%	52.8%
2020		3,341	1,398	1,943
		100%	41.8%	58.2%
2021		4,071	1,777	2,294
		100%	43.7%	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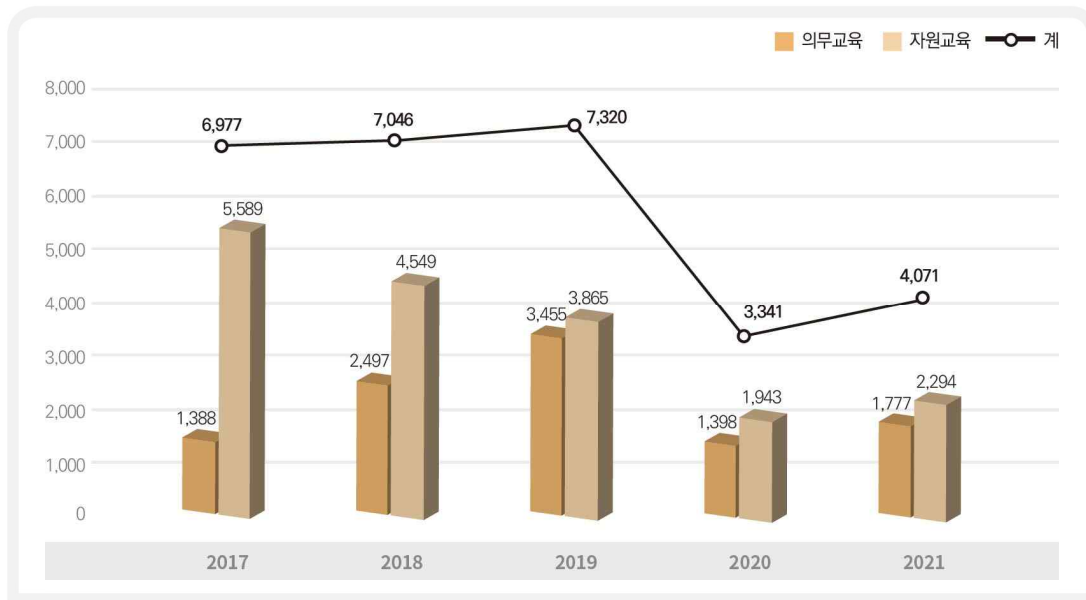


그림 6-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자교육 현황(2017~2021)

2) 보호자교육(의무교육) 교육시간별 현황

- 2021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의무교육)을 교육시간별로 구분하면, 5시간 이하가 991명(55.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6~10시간이 721명(40.6%), 10시간 초과가 65명(3.7%)이었다.

표 6-1-10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자교육(의무교육) 교육시간별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5시간 이하	6~10시간	10시간 초과
2017	1,388	1,220	151	17
	100%	87.9%	10.9%	1.2%
2018	2,497	1,749	714	34
	100%	70.0%	28.6%	1.4%
2019	3,455	1,910	1,479	66
	100%	55.3%	42.8%	1.9%
2020	1,398	718	662	18
	100%	51.4%	47.3%	1.3%
2021	1,777	991	721	65
	100%	55.8%	40.6%	3.6%

※ 보호자교육(자원)의 경우 단일과정으로 운영

※ 보호자교육(의무)의 경우 법원 등 의뢰기관에서 정한 의무 교육이수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이수

※ 2017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분리

3) 기관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 인원 현황

지표정의

- 보호자교육 : 학교, 법원, 검찰청에서 의뢰한 보호자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교육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 교육

- 2021년의 보호자교육 실시현황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로 구분하면,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4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370명,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309명,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299명,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271명,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70명 등의 순이었다.

표 6-1-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21)

구분	직원수	계	보호자교육(의무)	보호자교육(자원)
총계	136	4,071	1,777	2,294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70	101	69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93	113	80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49	33	116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309	195	114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370	57	313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8	474	467	7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74	10	164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228	139	89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5	172	0	172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17	14	103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8	184	23	161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90	0	190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15	270	182	88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	299	6	293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	271	156	115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8	207	114	93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197	92	105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97	75	22
제주소년원**	3	0	0	0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수(부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솔로몬로파크 업무 병행)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수(제주소년원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병행)

비행진단

1 상담조사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또는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상담조사 현황

지표정의

- 상담조사 : 「소년법」 제12조에 의하여 법원 등에서 의뢰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심리검사, 상담 실시
 - 일반조사 :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의뢰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소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 출장조사 :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의뢰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소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1) 개요

- 2021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총 2,968명에 대해 상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중 일반 상담조사가 2,902명(97.8%), 출장 상담조사가 66명(2.2%)이었다.
- 일반 상담조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2020년부터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5.1% 증가하였다. 반면 출장 상담조사는 2018년 88명에서 2019년 4명으로 급감하였다가 2020년 이후 6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6-2-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 등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일반	출장
2017		4,179	4,044	135
		100%	96.8%	3.2%
2018		3,224	3,136	88
		100%	97.3%	2.7%
2019		2,421	2,417	4
		100%	99.8%	0.2%
2020		2,589	2,521	68
		100%	97.4%	2.6%
2021		2,968	2,902	66
		100%	97.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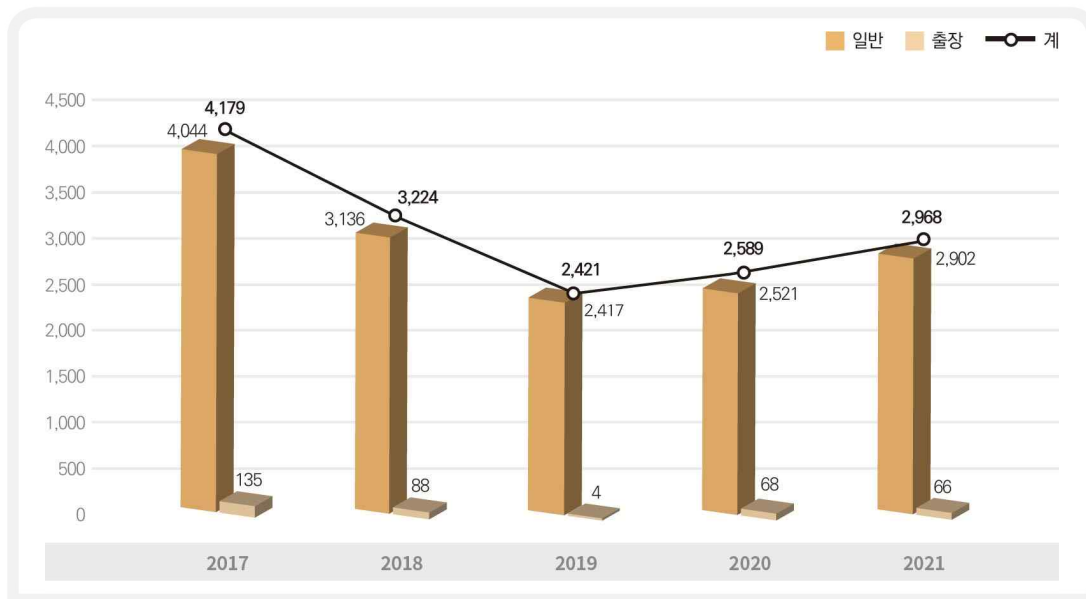


그림 6-2-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 실시 현황(2017~2021)

2) 기관별 상담조사 실시 현황

- 2021년 법원에 통보한 상담조사(결정전조사 포함) 실시 인원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남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2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56명, 수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221명,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217명,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210명 등의 순이었다.

표 6-2-2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상담조사 실시 현황(2021)

구분	완료		
	의뢰	불참	법원통보
총계	3,250	169	2,968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83	0	83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18	3	125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149	19	128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172	3	144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157	4	142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1	12	204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83	2	80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168	12	156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139	4	127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138	5	101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182	2	168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229	28	210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56	9	256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315	25	285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233	10	217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193	15	165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253	4	221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1	4	91
제주소년원	80	8	65

2 청소년 심리상담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청소년 심리상담 현황

지표정의

- 청소년 심리상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학교, 검찰, 법원, 기타 기관 등에서 의뢰)

1)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

- 2021년에 실시한 청소년 심리상담 인원을 의뢰기관에 따라 구분하면, 학교 의뢰가 1,686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의뢰가 1,491명(33.2%), 법원 의뢰가 721명(16.1%), 기타 기관 의뢰가 590명(13.1%)이었다.

표 6-2-3 청소년 심리상담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학교의뢰	검찰의뢰	법원의뢰	기타
2017		12,933	7,251	4,181	395	1,106
		100%	56.1%	32.3%	3.0%	8.6%
2018		10,868	6,537	2,928	471	932
		100%	60.2%	26.9%	4.3%	8.6%
2019		12,322	6,140	3,711	910	1,561
		100%	49.8%	30.1%	7.4%	12.7%
2020		3,871	1,020	1,925	533	393
		100%	26.3%	49.7%	13.8%	10.2%
2021		4,488	1,686	1,491	721	590
		100%	37.6%	33.2%	16.1%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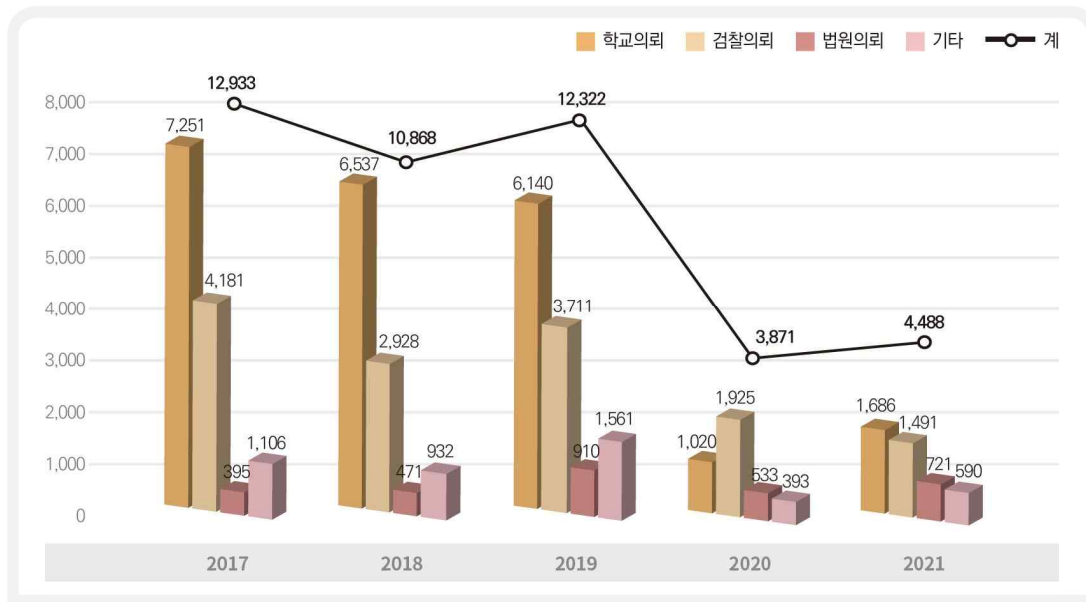


그림 6-2-2 청소년 심리상담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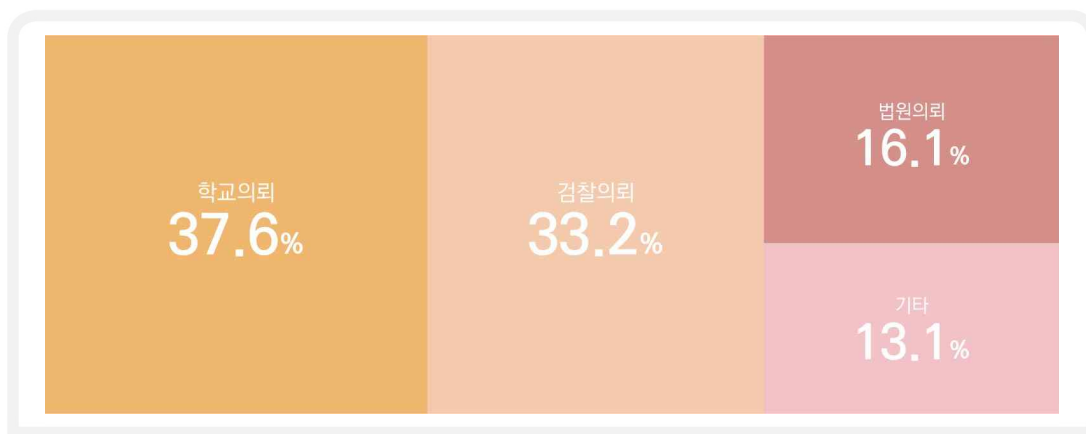


그림 6-2-3 청소년 심리상담의 의뢰기관별 점유율(2021)

2) 검사종류별 실시 현황

- 2021년에 실시한 청소년 심리상담에서 활용한 검사로는 성격검사가 2,237명(4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특수검사 1,888명(42.1%), 진로검사 200명(4.5%), 능력검사 122명(2.7%), 종합검사 41명(0.9%) 순이었다.

표 6-2-4 청소년 심리상담의 검사종류별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능력검사	성격검사	특수검사	종합검사	진로검사
2017		12,933	1,596	10,365	120	852	0
		100%	12.3%	80.2%	0.9%	6.6%	0.0%
2018		10,868	994	8,554	481	807	32
		100%	9.2%	78.7%	4.4%	7.4%	0.3%
2019		12,322	78	8,471	207	679	2,887
		100%	0.6%	68.8%	1.7%	5.5%	23.4%
2020		3,871	74	3,266	36	202	293
		100%	1.9%	84.4%	0.9%	5.2%	7.6%
2021		4,488	122	2,237	1,888	41	200
		100%	2.7%	49.8%	42.1%	0.9%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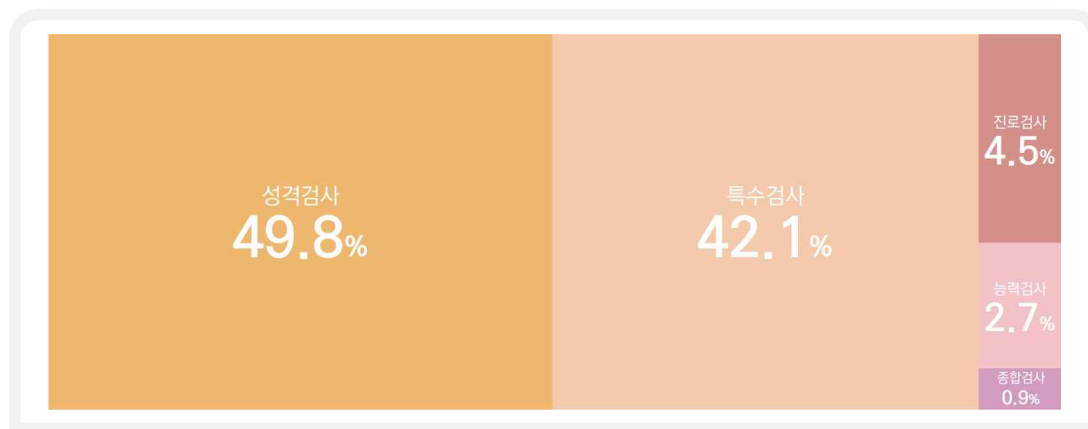


그림 6-2-4 청소년 심리검사의 검사종류별 점유율(2021)

3) 기관별 청소년 심리상담 실시 현황

- 2021년의 청소년 심리상담 실시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4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381명,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340명,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322명 등의 순이었다.

표 6-2-5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청소년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현황(2021)

구분	총계	능력검사	성격검사	특수검사	진로검사	종합검사
총계	4,488	122	2,237	1,888	200	4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35	0	95	140	0	0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81	0	125	56	0	0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82	0	68	161	53	0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224	0	136	88	0	0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229	1	135	93	0	0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222	0	148	74	0	0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8	52	27	56	61	12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252	0	135	117	0	0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183	1	119	0	43	20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216	0	169	47	0	0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340	0	31	296	13	0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68	31	1	0	30	6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322	0	188	134	0	0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406	0	151	255	0	0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381	0	157	224	0	0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277	0	200	77	0	0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6	0	148	58	0	0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80	0	168	12	0	0
제주소년원	76	37	36	0	0	3

자립지원기관 현황

1 개요

-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관에는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있다.
- 청소년자립생활관은 경기도 의왕, 안양,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전국 8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자립생활관의 직원 정원은 모두 각 4명이며, 강원과 안양에서 현원이 각 3명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4명씩 근무하고 있다.
-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경기도 화성과 안산에 설치·운영 중으로,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0명이며,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6-3-1 자립지원기관 개요(2021)

기 관		직원 수	
		정원	현원
자립생활관	의왕	4	4
	대전	4	4
	광주	4	4
	부산	4	4
	대구	4	4
	안양	4	3
	전북	4	4
	강원	4	3
	계	32	30
청소년창업비전센터	화성	20	10
	안산	3	3

2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청소년자립생활관의 1일 평균 입주 인원 및 신 입주인원 현황

지표정의

- 1일 평균 입주 인원 : 연인원을 해당연도 일수로 나눈 비율
- 신 입주인원 : 해당연도 새로 입소한 인원

- 2021년 전국 청소년자립생활관의 1일 평균 입주 인원은 79.2명, 신 입주 인원은 78명이었고, 12월 31일 기준의 입주 인원은 총 81명(정원 130명)이었다. 최근 5년간 전국 청소년자립생활관의 1일 평균 입주 인원과 신 입주 인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표 6-3-2 청소년자립생활관 정원 및 현원(2021)

정원	현원
130	81

표 6-3-3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현황(2017~2021)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1일 평균 입주인원	111	108	93	83	79.2
신 입주 인원	120	111	110	96	78

3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화성 및 안산 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1일평균 입주(교육) 인원 및 신 입주(교육) 인원 현황

지표정의

- 1일 평균 입주(교육) 인원 : 연인원을 해당연도 일수로 나눈 비율
- 신 입주(교육) 인원 : 해당연도 새로 입주(교육)한 인원

- 2021년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1일 평균 입주인원은 10.5명, 신 입주인원은 22명이었고, 12월 31일 기준의 입주 인원은 6명(입주 정원 40명)이었다. 최근 5년간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평균 입주 인원과 신 입주 인원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2020년 1월 개소하여 정원 20명이고,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교육 인원은 8명(정원 20명), 1일 평균 교육 인원은 8.5명, 신 교육 인원은 23명이다.

표 6-3-4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정원 및 현원(2021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정원	현원
화성	40	6
안산	20	8

표 6-3-5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현황(2017~2021)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화성	1일 평균 입주 인원	32	27	16	14	10.5
	신 입주 인원	82	72	41	25	22
안산	1일 평균 교육 인원	—	—	—	9	8.5
	신 교육 인원	—	—	—	27	23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numerous concentric, dotted arcs that form a circular shape, centered behind the title text.

통계분석

2022 범죄예방정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Chapter 7

치료감호

- 제1절 피치료감호자 특성
- 제2절 치료감호 처우 프로그램
- 제3절 치료감호 종료 · 가종료 현황
- 제4절 피치료감호자 재입원 현황
- 제5절 정신감정 유치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피치료감호자 특성

1 치료감호 유형별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원인 유형별 현황

지표정의

- 심신장애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처분을 받은 심신장애자로, 수용 기간은 최대 15년
- 약물중독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처분을 받은 사람(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으로, 수용 기간은 최대 2년
- 정신성적장애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처분을 받은 사람(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혹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으로, 수용 기간은 최대 15년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립법무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심신장애가 전체의 87~92%를 차지하였고, 약물중독이 2~5%, 정신성적장애가 5~7% 등이었다.
- 이는 2021년에도 일관되게 나타나,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립법무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 863명 중 심신장애가 92.4%(797명), 약물중독이 2.5%(22명), 정신성적장애가 5.1%(44명) 등이었다.

표 7-1-1 피치료감호자의 유형별 수용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심신장애	약물중독	정신성적장애
2017		1,096	969	41	86
		100%	88.5%	3.7%	7.8%
2018		1,038	910	59	69
		100%	87.7%	5.7%	6.6%
2019		1,012	916	43	53
		100%	90.5%	4.3%	5.2%
2020		1,016	935	25	56
		100%	92.0%	2.5%	5.5%

연도\구분	계	심신장애	약물중독	정신성적장애
2021	863	797	22	44
	100%	92.4%	2.5%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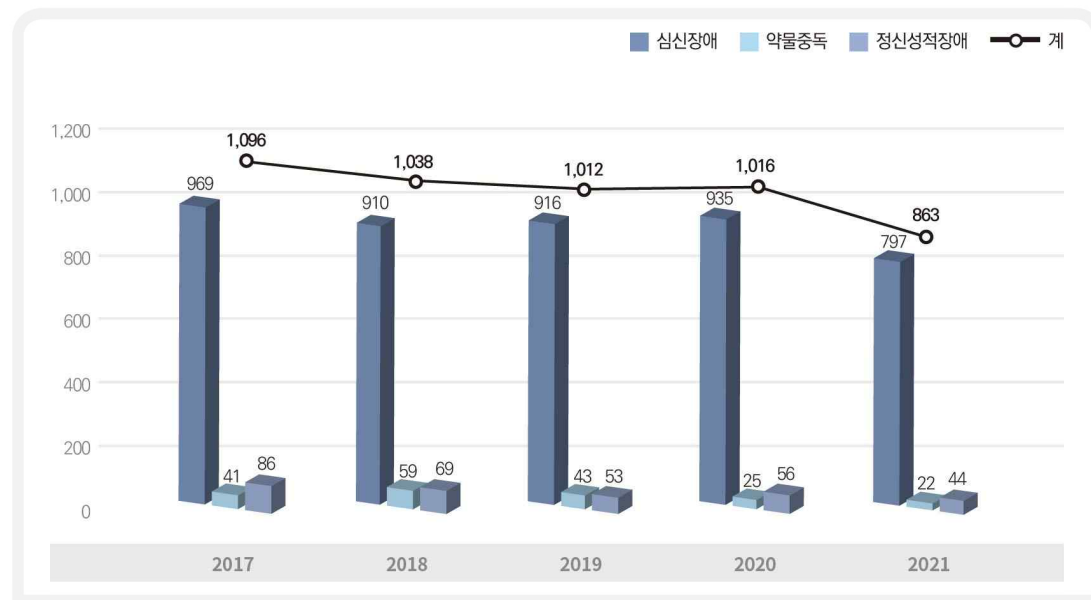


그림 7-1-1 피치료감호자의 유형별 수용 현황(2017~2021)

➡ 최근 5년간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원인 유형에 따른 성별 수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치료감호자의 유형에 따른 성별 수용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심신장애		약물중독		정신성적장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970	126	844	125	40	1	86	0
	88.5%	11.5%	77.0%	11.4%	3.7%	0.1%	7.8%	0.0%
2018	928	110	802	108	57	2	69	0
	89.4%	10.6%	77.3%	10.4%	5.5%	0.2%	6.6%	0.0%
2019	897	115	805	111	39	4	53	0
	88.6%	11.4%	79.5%	11.0%	3.9%	0.4%	5.2%	0.0%
2020	907	109	827	108	24	1	56	0
	89.3%	10.7%	81.4%	10.6%	2.4%	0.1%	5.5%	0.0%
2021	777	86	711	86	22	0	44	0
	90.0%	10.0%	82.4%	10.0%	2.5%	0.0%	5.1%	0.0%

2 병명별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명별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를 병명에 따라 구분한 결과, 조현병이 509명(58.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조울증 68명(7.9%), 정신지체 62명(7.2%), 기타 55명(6.4%), 망상장애 51명(5.9%), 정신성적장애 43명(5.0%), 알코올사용장애 38명(4.4%)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의 병명별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조현병이 가장 많은 인원과 비율을 차지할 뿐 아니라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17년 47.3%에서 2021년 58.9%를 나타냈다.
- 정신지체는 매년 7~8% 내외, 조울증은 7% 내외, 기타는 5~7% 수준을 유지하였고, 망상장애는 2017년 7.2%에서 2019년 8.4%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5%대로 감소하였다. 알코올사용장애는 2017년 7.5%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에는 4%대로 떨어졌다. 정신성적장애는 2017년에 92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 이후 50명 수준을 보이며 5%대를 나타냈다.

표 7-1-2 피치료감호자의 병명별 수용 현황(2017~2021)

병명 연도	계	조현병	성격 장애	정신 지체	조울증	망상	간질	알코올	약물	정신성적 장애	기타
2017	1,096	518	27	92	84	79	10	82	35	92	77
	100%	47.3%	2.5%	8.4%	7.6%	7.2%	0.9%	7.5%	3.2%	8.4%	7.0%
2018	1,038	528	23	84	71	70	10	72	46	76	58
	100%	51.0%	2.2%	8.1%	6.8%	6.7%	0.9%	6.9%	4.4%	7.3%	5.7%
2019	1,012	543	13	77	76	85	9	63	35	53	58
	100%	53.7%	1.3%	7.6%	7.5%	8.4%	0.9%	6.2%	3.5%	5.2%	5.7%
2020	1,016	575	10	84	79	53	10	61	19	54	71
	100%	56.6%	1.0%	8.3%	7.8%	5.2%	1.0%	6.0%	1.9%	5.3%	7.0%
2021	863	509	5	62	68	51	6	38	26	43	55
	100%	58.9%	0.6%	7.2%	7.9%	5.9%	0.7%	4.4%	3.0%	5.0%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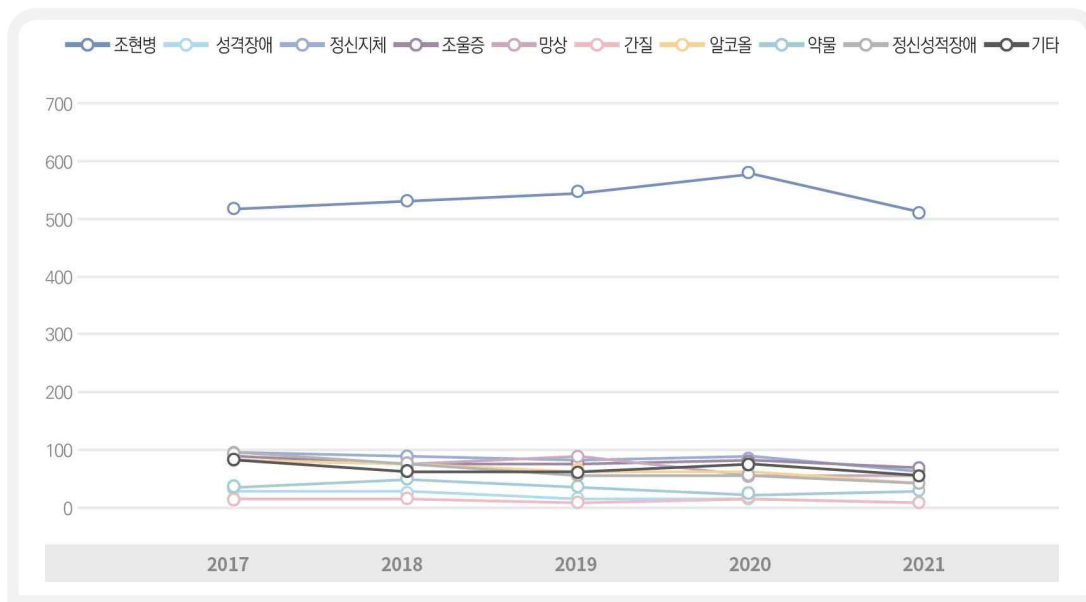


그림 7-1-2 피치료감호자의 병명별 수용 현황(2017~2021)

3 죄명별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중인 피치료감호자의 죄명별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를 죄명별로 구분한 결과, 살인 310명(35.9%), 성폭력 144명(16.7%), 폭력 141명(16.3%) 등으로 살인·성폭력·폭력 범죄가 전체의 68.9%를 차지하였다. 그 외 기타가 94명(11.0%), 절도 51명(5.9%), 방화 49명(5.7%), 강도 31명(3.6%), 치사 22명(2.5%), 약물 21명(2.4%)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각 죄명의 인원수와 비율이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매년 살인이 전체의 30%대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성폭력범죄는 20% 내외를, 폭력범죄는 14~16%를 유지하였다. 기타범죄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는 전체의 9%대였으나 2019년 이후 11~12%를 차지하였다.

표 7-1-3 피치료감호자의 죄명별 수용 현황(2017~2021)

연도\죄명	계	살인	폭력	치사	절도	방화	강도	성폭력	약물	기타
2017	1,096	338	156	38	59	80	48	242	35	100
	100%	31.0%	14.1%	3.5%	5.4%	7.3%	4.4%	22.0%	3.2%	9.1%
2018	1,038	328	149	30	58	76	48	208	41	100
	100%	31.6%	14.5%	2.9%	5.6%	7.3%	4.6%	20.0%	3.9%	9.6%
2019	1,012	336	140	30	62	74	44	184	31	111
	100%	33.2%	13.8%	3.0%	6.1%	7.3%	4.3%	18.2%	3.1%	11.0%
2020	1,016	321	171	28	58	64	44	184	17	129
	100%	31.6%	16.8%	2.8%	5.7%	6.3%	4.3%	18.1%	1.7%	12.7%
2021	863	310	141	22	51	49	31	144	21	94
	100%	35.9%	16.3%	2.5%	5.9%	5.7%	3.6%	16.7%	2.4%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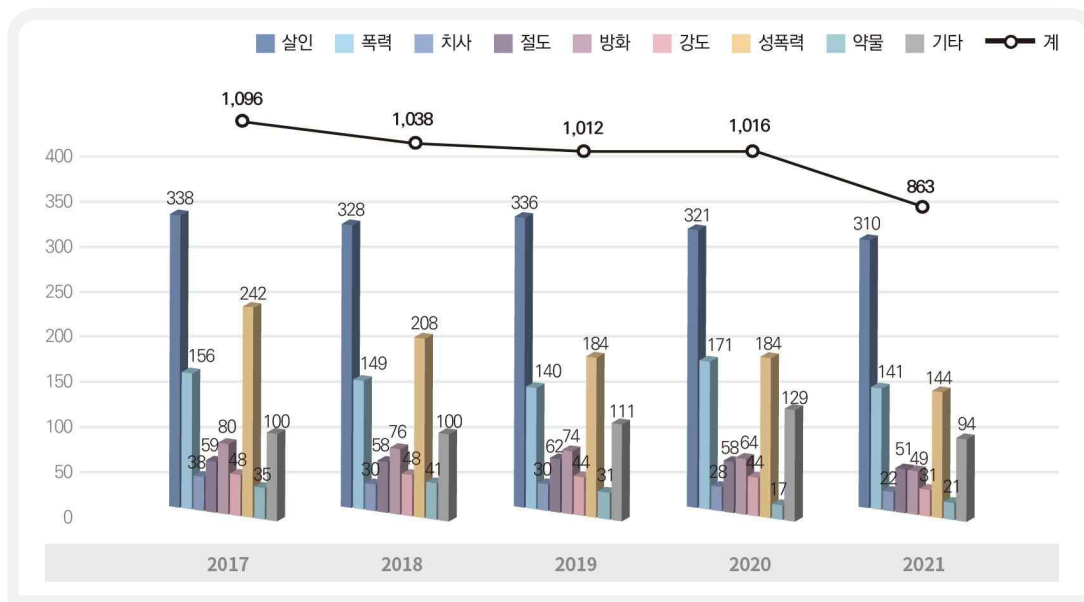


그림 7-1-3 피치료감호자의 죄명별 수용 현황(2017~2021)

4 범죄 횟수별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 총 863명을 범죄 횟수에 따라 구분한 결과, 초범이 577명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5범 이상이 101명(11.7%), 2범이 97명(11.2%), 3범이 57명(6.6%), 4범이 31명(3.6%)이었다.
- 이러한 범죄 횟수별 현황은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어, 매년 초범이 전체의 65% 내외를 차지하였고, 2범과 5범 이상이 각각 10%를 상회하였다.

표 7-1-4 피치료감호자의 범죄횟수별 현황(2017~2021)

연도	횟수	계	초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2017		1,096	721	129	65	35	146
		100%	65.8%	11.8%	5.9%	3.2%	13.3%
2018		1,038	671	126	57	38	146
		100%	64.6%	12.1%	5.5%	3.7%	14.1%
2019		1,012	657	132	60	37	126
		100%	64.9%	13.0%	5.9%	3.7%	12.5%
2020		1,016	663	135	61	35	122
		100%	65.3%	13.3%	6.0%	3.4%	12.0%
2021		863	577	97	57	31	101
		100%	66.9%	11.2%	6.6%	3.6%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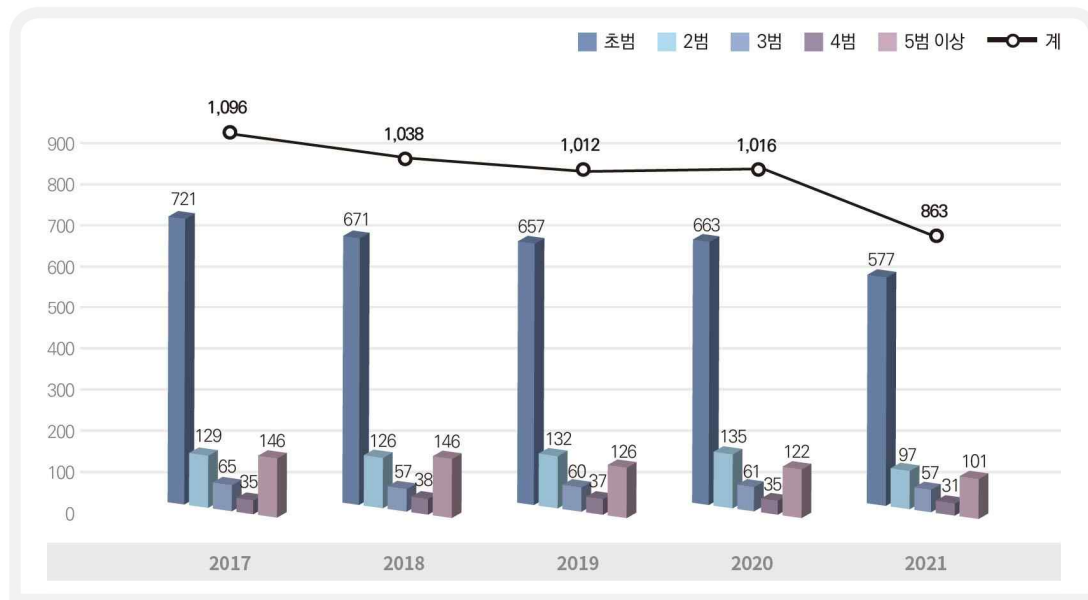


그림 7-1-4 피치료감호자의 범죄횟수별 현황(2017~2021)

5 치료감호 집행기간별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 총 863명을 치료감호 집행 기간에 따라 구분한 결과, 5년 이상~10년 미만이 251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년 이상~2년 미만이 147명(17.0%), 2년 이상~3년 미만이 126명(14.6%), 1년 미만이 108명(12.5%), 3년 이상~4년 미만이 81명(9.4%), 4년 이상~5년 미만이 77명(8.9%), 10년 이상이 73명(8.5%)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집행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이상~10년 미만의 피치료감호자는 2017년 231명(21.1%), 2018년과 2019년 240명대(23~24%), 2020년과 2021년에는 250명대(25~29%)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10년 이상도 2017년 대비 2021년에 37.7% 증가하여, 집행기간이 장기인 경우의 비율이 높아졌다.
- 반면, 1년 미만인 피치료감호자는 2017년(220명, 20.1%)부터 2020년(193명, 19.0%)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인원이 44.0% 감소하여 비율도 12.5%로 하락하였다. 1년 이상~2년 미만도 2017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7년에는 21.0%였다가 2018년 이후 13~17%이었다.

➡ 국립법무병원 입원 이후의 집행기간이 1년 미만인 피치료감호자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수용기간 상한이 2년인 2호 대상자(약물·알코올 중독자)의 감소, 신규입소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표 7-1-5 피치료감호자의 집행기간별 현황(2017~2021)

연도\기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17	1,096	220	230	156	103	98	231	58
	100%	20.1%	21.0%	14.2%	9.4%	8.9%	21.1%	5.3%
2018	1,038	195	167	178	116	86	247	49
	100%	18.8%	16.1%	17.1%	11.2%	8.3%	23.8%	4.7%
2019	1,012	210	136	123	144	89	246	64
	100%	20.8%	13.4%	12.2%	14.2%	8.8%	24.3%	6.3%
2020	1,016	193	153	112	103	122	259	74
	100%	19.0%	15.1%	11.0%	10.1%	12.0%	25.5%	7.3%
2021	863	108	147	126	81	77	251	73
	100%	12.5%	17.0%	14.6%	9.4%	8.9%	29.1%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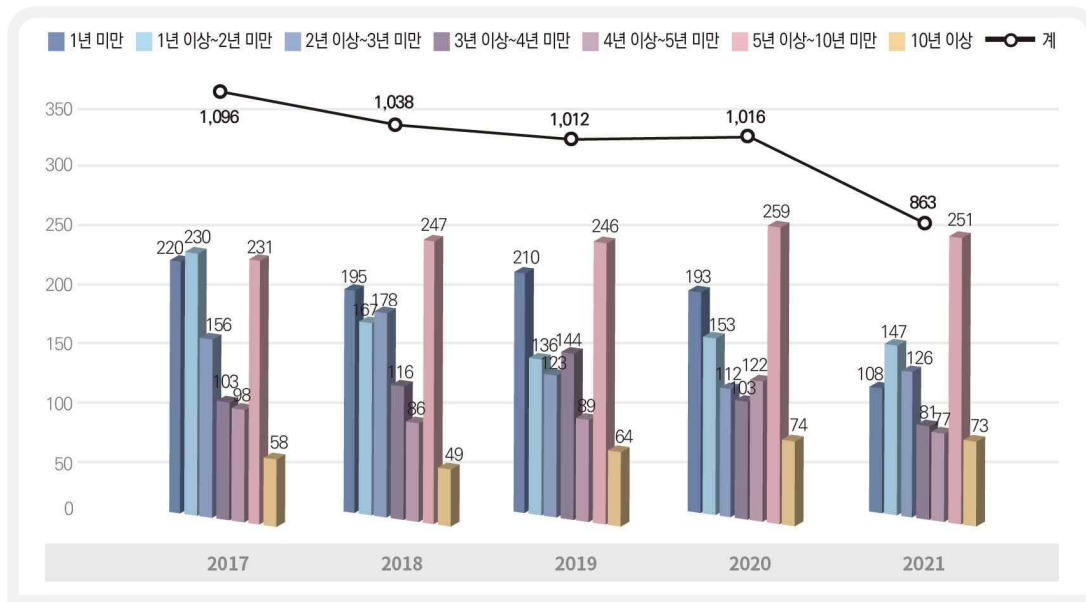


그림 7-1-5 피치료감호자의 집행기간별 현황(2017~2021)

6 연령별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를 연령에 따라 구분한 결과, 50대 263명(30.5%), 40대 254명(29.4%), 30대 152명(17.6%), 60대 109명(12.6%) 등이었으며, 70세 이상은 24명(2.8%), 20세 미만은 3명(0.4%)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가 매년 전체의 30% 내외를 차지하며 2019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50대의 비중이 매년 상승하여 2020년부터는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 대상자 중 50세 이상의 장노년층 비율은 2017년에는 36.8%였다가 2018년 38.6%, 2019년 41.9%, 2020년 44.3%, 2021년 45.9%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표 7-1-6 피치료감호자의 연령별 현황(2017~2021)

연령	연도	계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2017		1,096	2	112	235	344	286	94	23
		100%	0.2%	10.2%	21.4%	31.4%	26.1%	8.6%	2.1%
2018		1,038	0	101	215	321	282	98	21
		100%	0.0%	9.7%	20.7%	31.0%	27.2%	9.4%	2.0%
2019		1,012	1	94	194	299	294	110	20
		100%	0.1%	9.3%	19.2%	29.5%	29.1%	10.8%	2.0%
2020		1,016	1	73	193	299	305	82	63
		100%	0.1%	7.2%	19.0%	29.4%	30.0%	8.1%	6.2%
2021		863	3	58	152	254	263	109	24
		100%	0.4%	6.7%	17.6%	29.4%	30.5%	12.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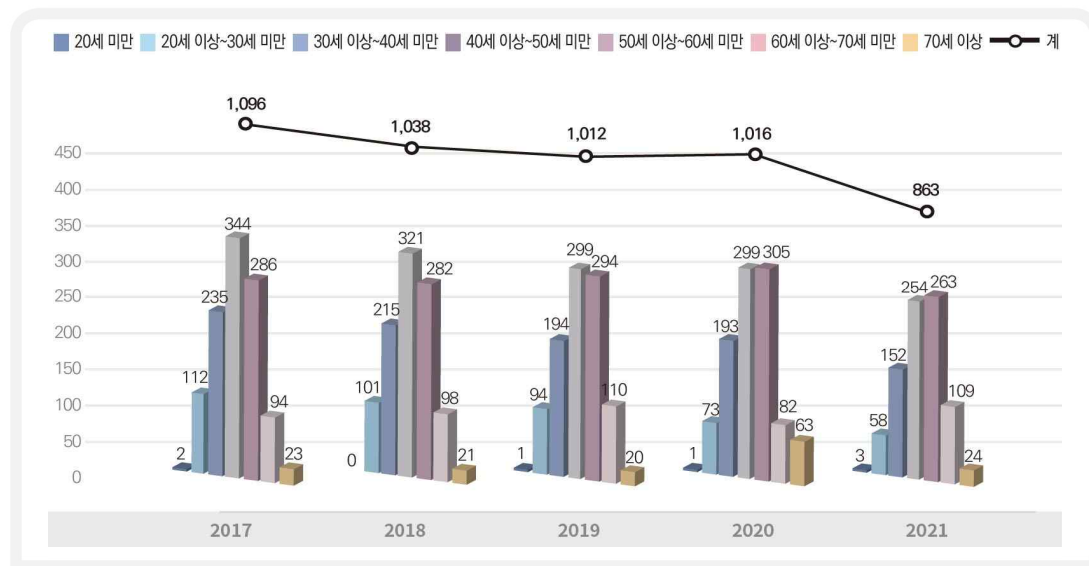


그림 7-1-6 피치료감호자의 연령별 현황(2017~2021)

7 학력별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의 학력 현황을 살펴보면, 고졸이 385명(44.6%), 대졸 이상이 229명(26.5%), 중졸이 130명(15.0%), 초졸이 99명(11.6%), 무학이 20명(2.3%)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학력별 현황을 보면, 매년 고졸의 비율은 전체의 45% 내외에서, 중졸은 15~17% 범위에서 유지되는 반면 대졸 이상은 2017년 15.5%에서 2020년 이후 26% 이상으로 상승하였고, 무학과 초졸은 2017년 6.7%와 17.2%에서 각각 2.3%와 11.6%로 감소하였다.

표 7-1-7 피치료감호자의 학력별 현황(2017~2021)

연도	학력	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7		1,096	73	189	186	478	170
		100%	6.7%	17.2%	17.0%	43.6%	15.5%
2018		1,038	70	163	173	475	157
		100%	6.7%	15.7%	16.7%	45.8%	15.1%
2019		1,012	54	153	156	499	150
		100%	5.3%	15.1%	15.4%	49.4%	14.8%
2020		1,016	20	125	154	447	270
		100%	2.0%	12.3%	15.1%	44.0%	26.6%
2021		863	20	99	130	385	229
		100%	2.3%	11.6%	15.0%	44.6%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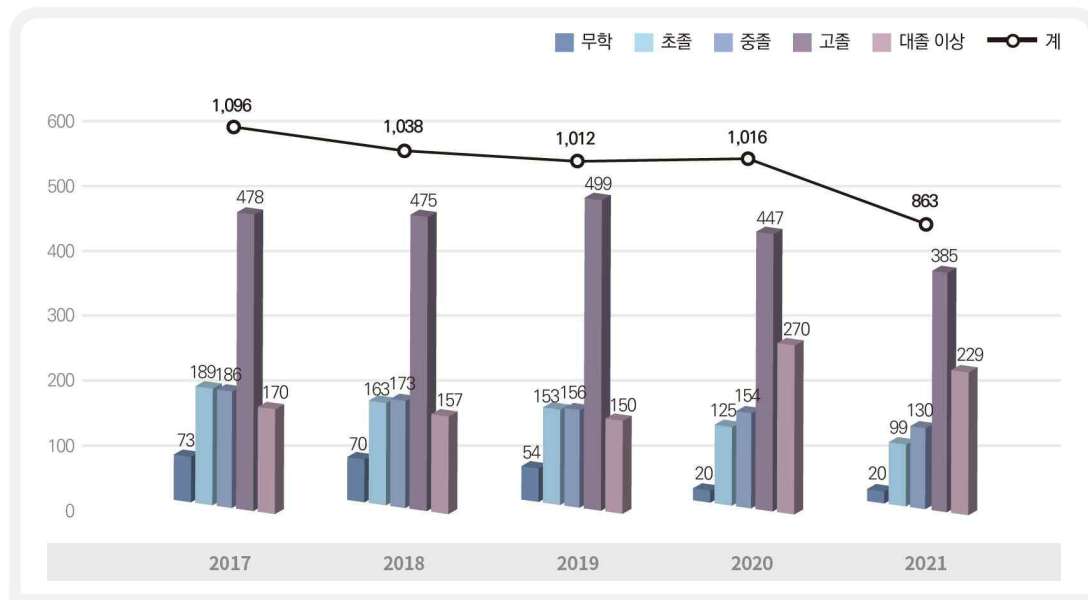


그림 7-1-7 피치료감호자의 학력별 현황(2017~2021)

8 직업별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의 입원 전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599명으로 69.4%를 차지하였고, 기타가 143명(16.6%), 노동이 73명(8.5%), 종업원이 26명(3.0%), 농업이 21명(2.4%), 상업 1명(0.1%) 등이었다.
- 최근 5년간 매년 무직이 전체의 6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2017년 63.2%에서 2021년 69.4%로 증가하였다.

표 7-1-8 피치료감호자의 직업별 현황(2017~2021)

연도	직업	계	노동	종업원	농업	상업	무직	기타
2017		1,096	94	46	27	22	693	214
		100%	8.6%	4.2%	2.5%	2.0%	63.2%	19.5%
2018		1,038	93	40	31	17	658	199
		100%	9.0%	3.9%	3.0%	1.6%	63.3%	19.2%
2019		1,012	81	30	28	4	664	205
		100%	8.0%	3.0%	2.8%	0.4%	65.6%	20.2%
2020		1,016	89	33	25	3	692	174
		100%	8.8%	3.2%	2.5%	0.3%	68.1%	17.1%
2021		863	73	26	21	1	599	143
		100%	8.5%	3.0%	2.4%	0.1%	69.4%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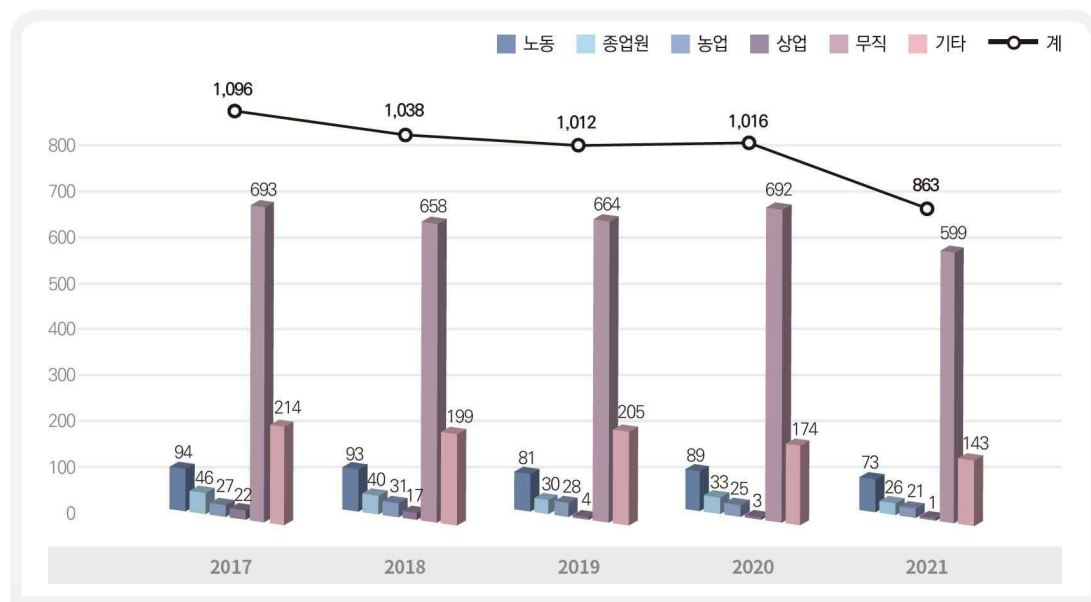


그림 7-1-8 피치료감호자의 직업별 현황(2017~2021)

9 피치료감호자(2호) 중독물질별 현황

개 요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의 중독물질별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피치료감호자(2호) 22명을 중독물질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필로폰이 11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본드 4명(18.2%), 니스 3명(13.7%), 부탄 2명(9.1%), 알코올과 톨루엔이 각각 1명이었다.

표 7-1-9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물질별 현황(2017~2021)

연도	물질	계	필로폰	대마초	본드	부탄	니스	솔벤트	톨루엔	알코올
2017		48	13	0	13	6	1	0	1	14
		100%	27.1%	0.0%	27.1%	12.5%	2.1%	0.0%	2.1%	29.1%
2018		62	20	0	12	7	2	0	3	18
		100%	32.3%	0.0%	19.4%	11.3%	3.2%	0.0%	4.8%	29.0%
2019		43	20	0	8	3	0	0	1	11
		100%	46.5%	0.0%	18.6%	7.0%	0.0%	0.0%	2.3%	25.6%
2020		26	8	0	6	2	0	0	0	10
		100%	30.8%	0.0%	23.1%	7.7%	0.0%	0.0%	0.0%	38.4%
2021		22	11	0	4	2	3	0	1	1
		100%	50.0%	0.0%	18.2%	9.1%	13.7%	0.0%	4.5%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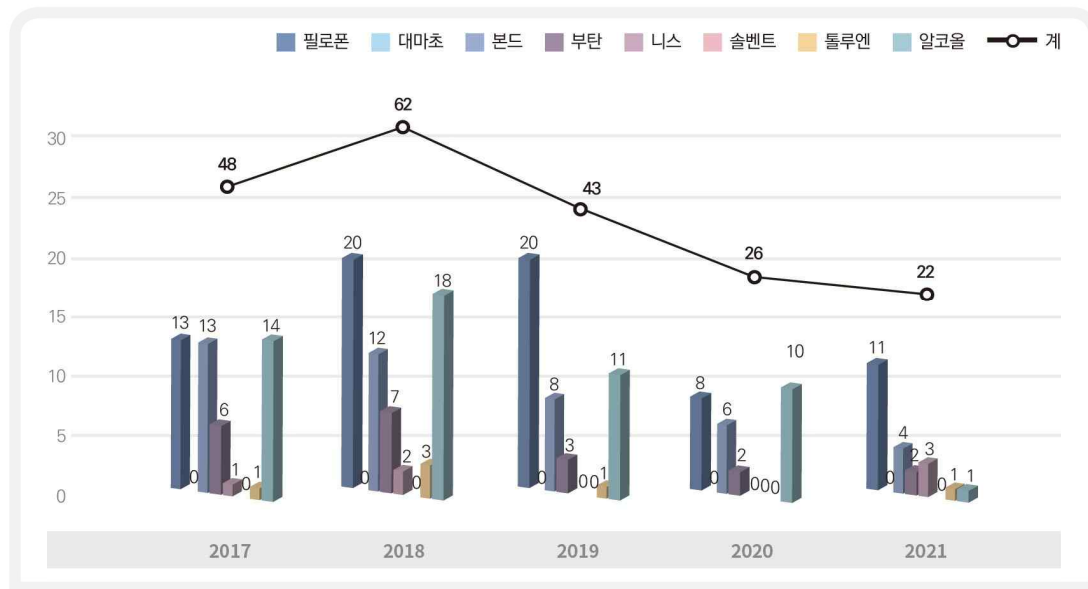


그림 7-1-9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물질별 현황(2017~2021)

치료감호 처우 프로그램

1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

-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치료감호자는 2017년 5,944명, 2018년 4,747명, 2019년 4,141명 등으로 감소하던 중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4.9% 감소한 2,694명이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5.1%가 증가한 3,369명을 기록하였다.
- 2021년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치료감호자 3,369명 중 정신건강교육이 1,452명(43.1%), 단주교육이 1,036명(30.8%), 직업훈련이 881명(26.1%) 등이었다.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재활치료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중단, 재개를 반복함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자가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교육이 재개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및 교육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 인원을 축소하면서 전체 참여인원이 2019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표 7-2-1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재활치료		직업훈련
			단주교육	정신건강교육	
2017		5,944	2,952	1,530	1,462
		100%	49.7%	25.7%	24.6%
2018		4,747	1,911	1,309	1,527
		100%	40.2%	27.6%	32.2%
2019		4,141	1,675	1,129	1,337
		100%	40.4%	27.3%	32.3%
2020		2,694	1,309	585	800
		100%	48.6%	21.7%	29.7%
2021		3,369	1,036	1,452	881
		100%	30.8%	43.1%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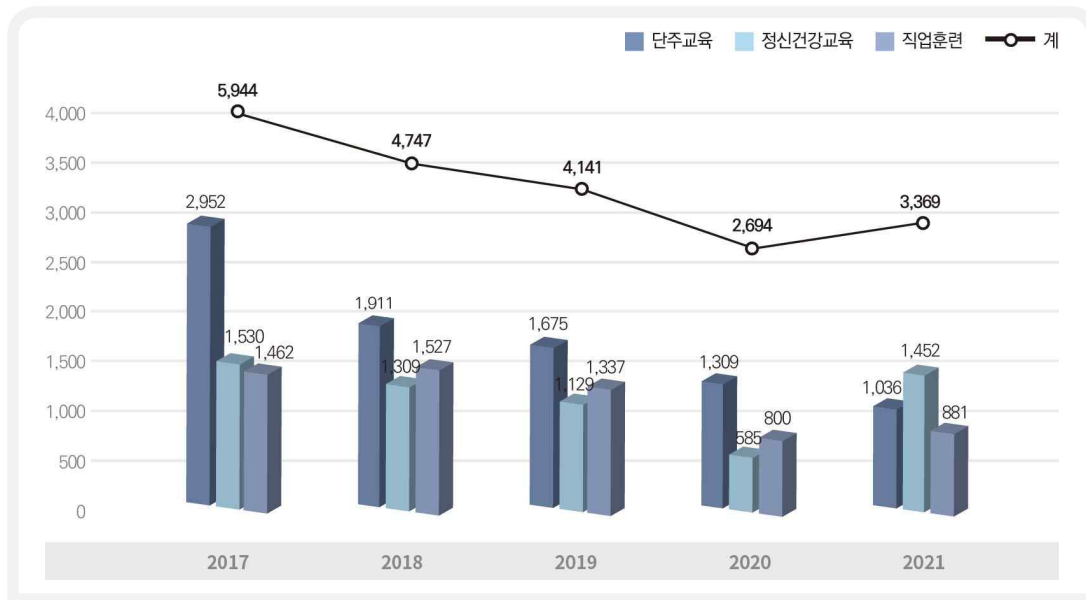


그림 7-2-1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2017~2021)

2 직업훈련²⁹⁾ 세부 현황

- 2021년 피치료감호자의 직업훈련 세부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바리스타 교육과정 참여인원이 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제과제빵이 200명, 정보화가 178명, PC 정비가 134명, 건축시공이 116명 등이었다.

➡ 2020년과 2021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피치료감호자가 없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에 교육이 중단되었고, 2021년에는 자격증 취득시험이 시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표 7-2-2 피치료감호자의 직업훈련 세부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건축시공	정보화	PC정비	건축도장	제과·제빵	바리스타
2017	참여	1,530	133	316	340	167	574	—
	수료	224	20	44	52	23	85	—
	자격취득	89	14	2	20	14	39	—
2018	참여	1,309	98	316	321	64	510	—
	수료	191	11	45	50	10	75	—
	자격취득	45	8	0	14	6	17	—
2019	참여	1,129	—	315	281	—	533	—
	수료	171	—	48	39	—	84	—
	자격취득	80	—	38	18	—	24	—
2020	참여	800	10	336	127	—	215	112
	수료	176	10	86	21	—	38	24
	자격취득	—	—	—	—	—	—	—
2021	참여	881	116	178	134	—	200	253
	수료	137	20	25	19	—	32	41
	자격취득	—	—	—	—	—	—	—

* 2020년 바리스타 직업훈련 교육과정 신설

29)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총 8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다가, 2019년 정보화, PC정비, 제과제빵 등 3개 과정으로 축소하였으나 2020년 바리스타 직업훈련 교육과정 신설 및 건축시공 교육과정 재운영으로 5개 과정으로 확대

3 피치료감호자(2호) 중독치료 프로그램³⁰⁾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법무병원에서 실시한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치료 프로그램 실시 현황

지표정의

- 신입교육 : 입원 시 치료절차, 교육과정, 주의사항 등 전반적인 수용생활 안내 교육
- 치료재활교육 : 치료교육(단약단주교육으로 주 2회, 6개월 과정) 및 재활교육(정보화,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으로 구성

- 2021년 중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치료감호자(2호)는 총 295명으로, 재활치료교육이 258명(87.5%), 신입교육이 37명(12.5%)이었다.

표 7-2-3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치료 프로그램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신입교육	치료재활교육
2017		586	57	529
		100%	9.7%	90.3%
2018		605	76	529
		100%	12.6%	87.4%
2019		544	57	487
		100%	10.5%	89.5%
2020		426	34	392
		100%	8.0%	92.0%
2021		295	37	258
		100%	12.5%	87.5%

30) 피치료감호자(2호)에 대한 중독치료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신입교육, 치료교육, 재활교육 등으로 운영되다가 2017년 부터 치료, 재활교육을 '치료재활교육'으로 통합하였다. 이에, 피치료감호자의 초기적응과 재활을 위한 '신입교육'과 치료재활을 위한 '치료재활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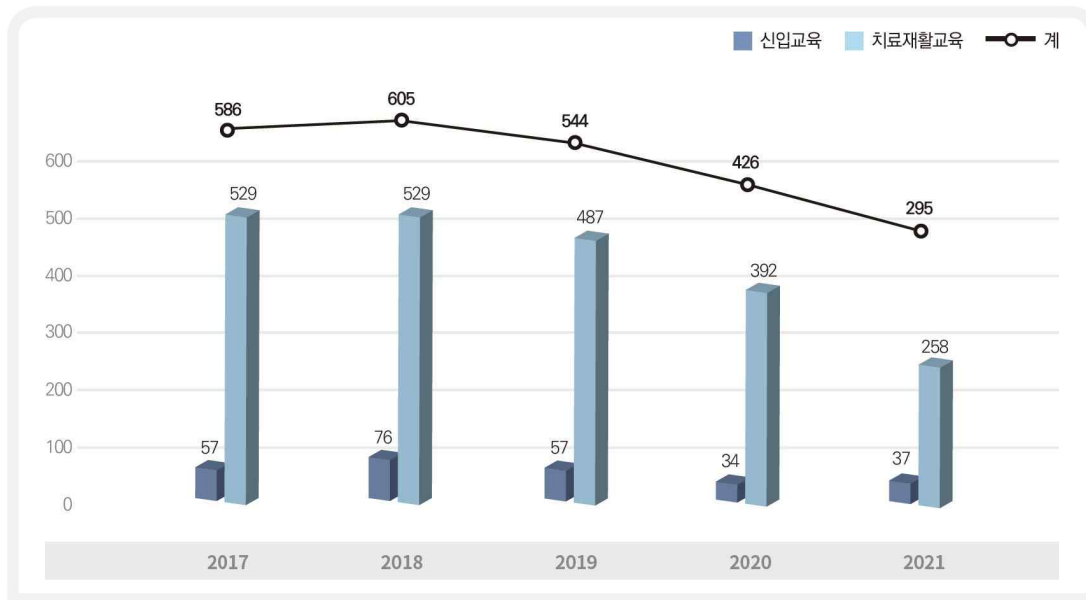


그림 7-2-2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치료 프로그램 현황(2017~2021)

4 진단검사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법무병원에서 실시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진단검사(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내·외과처방 뇌파검사) 건수

- 2021년 피치료감호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는 총 192,277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다. 진단검사 유형으로는 병리검사가 114,779건(59.7%), 방사선검사 20,342건(10.6%), 내·외과처방 55,944건(29.1%), 뇌파검사 1,212건(0.6%) 등이었다.

표 7-2-4 피치료감호자의 진단검사 실시 현황(2017~2021)

단위: 건

연도	구분	계	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내·외과처방	뇌파검사
2017		203,794	127,618	18,659	56,249	1,268
		100%	62.6%	9.2%	27.6%	0.6%
2018		204,292	121,713	24,564	56,040	1,975
		100%	59.6%	12.0%	27.4%	1.0%
2019		189,256	112,197	22,770	52,493	1,796
		100%	59.3%	12.0%	27.7%	1.0%
2020		197,912	115,650	22,013	58,969	1,280
		100%	58.4%	11.1%	29.8%	0.7%
2021		192,277	114,779	20,342	55,944	1,212
		100%	59.7%	10.6%	29.1%	0.6%

5 치료감호 출원자 무상 외래진료³¹⁾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법무병원 출원자에 대한 무상 외래진료 제공 현황
- 무상 외래진료 제공 병원 : 국립법무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부곡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 국립법무병원 출원자에 대한 무상 외래진료는 2017년 이후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2,263명, 2018년 2,098명, 2019년 1,894명, 2020년 1,828명이었고, 2021년에는 1,751명을 기록하였다.
- 치료기관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무상 외래진료를 받은 출원자의 71.2%가 국립법무병원을 이용하였으나, 점차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진료 비율이 낮아지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비율이 증가하여, 2021년에는 국립법무병원 진료가 61.2%(1,072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가 34.0%(596명), 국립부곡병원 진료가 2.5%(44명)이었다,

표 7-2-5 국립법무병원 출원자의 무상 외래진료 현황(2017~2021)

기관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263	2,098	1,894	1,828	1,751
	100%	100%	100%	100%	100%
국립법무병원	1,611	1,195	1,027	964	1,072
	71.2%	57.0%	54.2%	52.7%	61.2%
국립정신건강센터	491	745	723	725	596
	21.7%	35.5%	38.2%	39.7%	34.0%
국립부곡병원	102	115	90	68	44
	4.5%	5.5%	4.8%	3.7%	2.5%
국립나주병원	42	41	48	60	22
	1.9%	2.0%	2.5%	3.3%	1.3%
국립춘천병원	0	0	1	3	12
	0.0%	0.0%	0.1%	0.2%	0.7%
국립공주병원	17	2	5	8	5
	0.8%	0.1%	0.3%	0.4%	0.3%

31) 국립법무병원 출원자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을 위해 2015년 6월 전국 5개 국립정신의료기관을 법무병원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국립법무병원과 5개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국립법무병원 출원자에게 무상으로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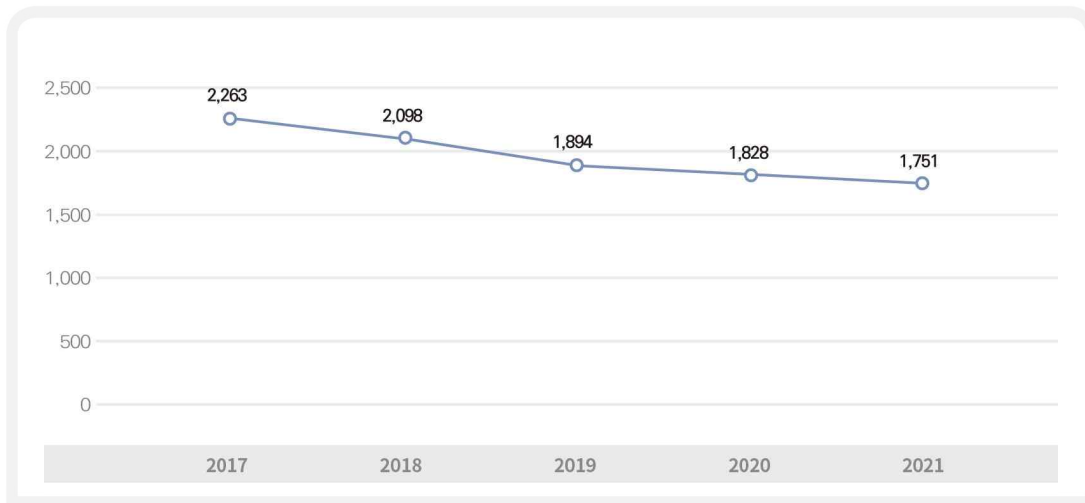


그림 7-2-3 국립법무병원 출원자의 무상 외래진료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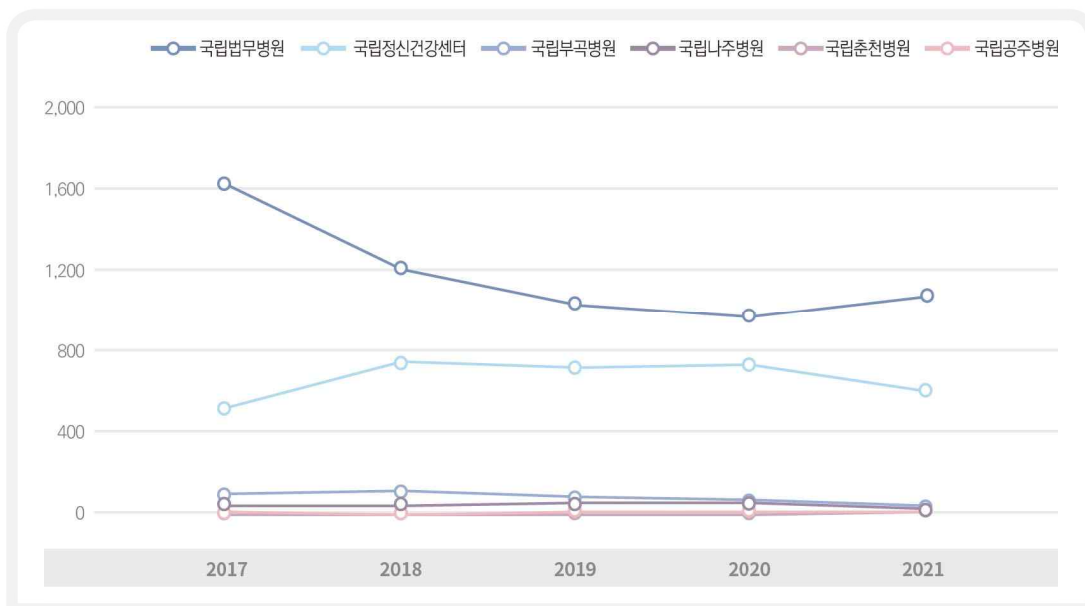


그림 7-2-4 치료기관별 무상 외래진료 현황(2017~2021)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현황

1 치료감호 기간별 현황

개 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별 현황

- 2021년 치료감호 종료자는 총 2명이었고, 가종료자가 총 263명이었다. 각각을 치료감호 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종료자의 경우 1년 미만과 2년 이상~3년 미만이 각각 1명이었고, 가종료자의 경우 3년 이상이 170명(64.6%), 2년 이상~3년 미만이 43명(16.4%), 1년 이상~2년 미만이 30명(11.4%), 1년 미만이 20명(7.6%) 등이었다.

표 7-3-1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현황(2017~2021)

연도	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2017	3	226	0	11	2	51	1	26	0	138
2018	0	252	0	40	0	39	0	41	0	132
2019	0	235	0	55	0	30	0	33	0	117
2020	0	172	0	32	0	12	0	16	0	112
2021	2	263	1	20	0	30	1	43	0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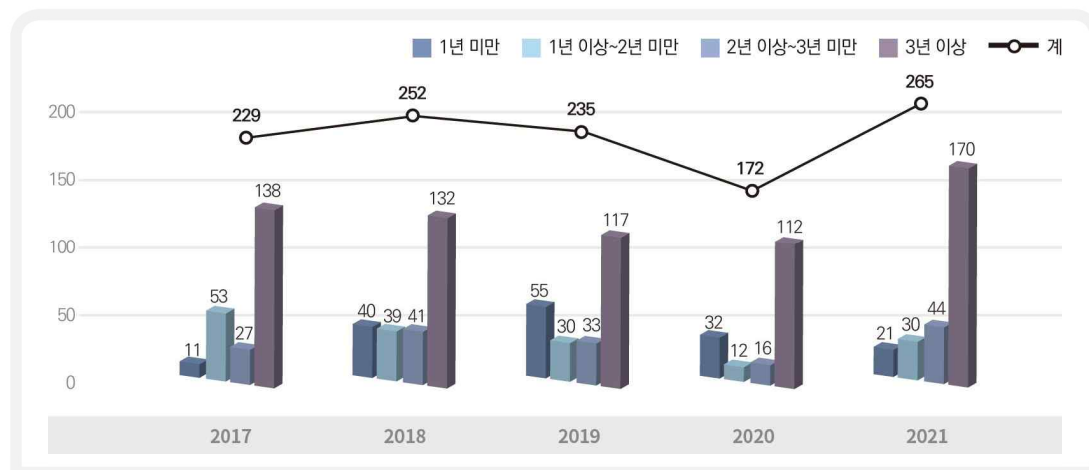


그림 7-3-1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현황(2017~2021)

2 죄명별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의 죄명별 현황

- 2021년의 치료감호 종료자와 가종료자를 죄명에 따라 구분한 결과, 종료자 2명은 모두 기타 죄명이었고, 가종료자는 기타범죄 129명(49.0%), 살인과 강간이 각각 31명(11.8%), 강도와 절도가 각각 17명(6.5%), 방화·실화와 폭력행위 등이 각각 16명(6.1%) 등이었다. 그 밖에 상해(폭행)치사가 6명(2.3%)이었다.

표 7-3-2 치료감호 죄명별 종료·가종료 현황(2017~2021)

죄명 연도	계		살인		상해(폭행)치사		폭력행위 등		강간		강도		절도		방화·실화		기타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2017	3	226	0	48	0	2	2	26	0	56	0	12	0	16	0	11	1	55
2018	0	252	0	35	0	8	0	38	0	54	0	7	0	19	0	19	0	72
2019	0	235	0	23	0	3	0	45	0	50	0	9	0	17	0	16	0	72
2020	0	172	0	44	0	4	0	15	0	23	0	6	0	14	0	16	0	50
2021	2	263	0	31	0	6	0	16	0	31	0	17	0	17	0	16	2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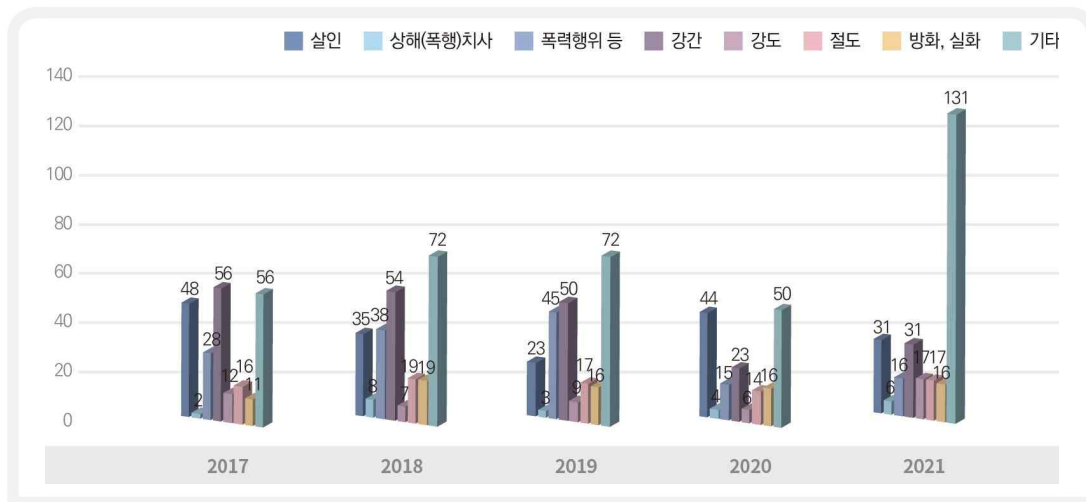


그림 7-3-2 치료감호 죄명별 종료·가종료 현황(2017~2021)

3 병명별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의 병명별 현황

- 2021년의 치료감호 종료자와 가종료자를 병명에 따라 구분한 결과, 종료자는 조현병과 약물중독이 각각 1명이었고, 가종료자는 조현병 128명(48.7%), 약물중독 48명(18.3%), 기타 26명(9.9%), 정신지체 23명(8.7%), 조울증 21명(8.0%), 성격(인격)장애 13명(4.9%), 간질 4명(1.5%) 등이었다.

표 7-3-3 치료감호 병명별 종료·가종료현황(2017~2021)

병명 연도	계		조현병		정신지체		조울증		성격(인격)장애		간질		약물중독		기타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2017	3	226	2	80	0	19	0	14	1	1	0	2	0	37	0	73
2018	0	252	0	84	0	16	0	23	0	5	0	0	0	35	0	89
2019	0	235	0	63	0	16	0	16	0	8	0	1	0	41	0	90
2020	0	172	0	61	0	17	0	10	0	5	0	1	0	50	0	28
2021	2	263	1	128	0	23	0	21	0	13	0	4	1	48	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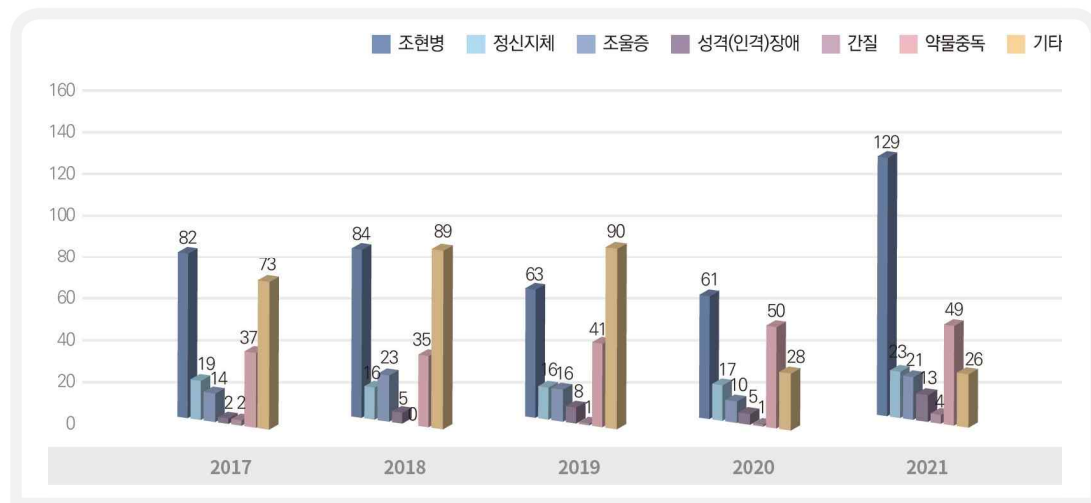


그림 7-3-3 치료감호 병명별 종료·가종료현황(2017~2021)

피치료감호자 재입원 현황

1 총 출원자 대비 재입원 현황

개 요

- 1987년 국립법무병원 개청 이후부터 2020년까지의 전체 출원자 중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 재입원자 현황

지표정의

- 재입원율 = 총 재입원자 / 총 출원자 × 100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서 출원한 피치료감호자는 총 8,094명이고 재입원자는 총 1,349명으로, 총 출원자 대비 재입원율은 16.7%이었다.

표 7-4-1 총 출원자 대비 재입원율 현황(2021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총 출원자	총 재입원자	비율
인원	8,094	1,349	16.7%

2 출원자의 3년 내 재입원 현황

개 요

- 국립법무병원 출원 연도로부터 3년 내 국립법무병원에 재입원하는 인원 및 비율

지표정의

- 출원자의 3년 내 재입원율 : 해당 연도 3년 전 출원자 중 3년 내 재입원자 수 / 해당 연도 3년 전 출원자 수 × 100

- 국립법무병원 출원자(피치료감호자)의 3년 내 재입원율을 분석한 결과, 2014년(2011년 출원자) 11.1%, 2015년(2012년 출원자) 14.6%, 2016년(2013년 출원자) 8.4%, 2017년(2014년 출원자)

9.3% 등을 기록하였다. 이후 출원자의 재입원율이 낮아지는 추세로, 2018년(2015년 출원자) 6.1%, 2019년(2016년 출원자) 3.3%, 2020년(2017년 출원자) 2.5% 등이었고, 2021년(2018년 출원자) 3.2%를 나타냈다.

- 한편, 2008년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된 정신성적 장애자(3호)는 2009년 6명이 최초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한 이후 2018년 12월까지 총 53명이 출원하였으나 재입원자는 없었다.

표 7-4-2 국립법무병원 출원자(피치료감호자)의 3년 내 재입원율 현황(2014~2021)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입원율(%)	11.1	14.6	8.4	9.3	6.1	3.3	2.5	3.2
출원자 수 (출원 연도)	287 (2011)	246 (2012)	263 (2013)	281 (2014)	277 (2015)	399 (2016)	238 (2017)	282 (2018)
3년 내 재입원자 수	32	36	22	26	17	13	6	9
피치료 감호 유형	1호	9	8	6	4	3	6	2
	2호	23	28	16	22	14	7	4
	3호	0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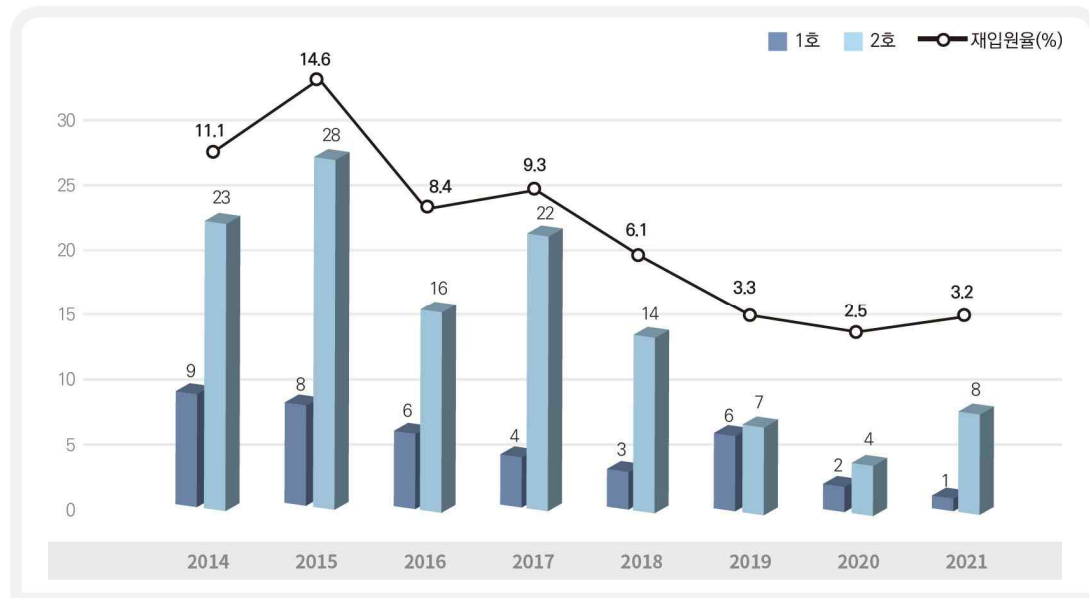


그림 7-4-1 출원자 대비 3년 내 재입원율 현황(2014~2021)

3 피치료감호 유형별 3년 내 재입원 현황

개요

- 1호(심신장애자), 2호(마약알코올 중독자), 3호(정신성적장애자) 출원자가 출원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재입원하는 현황

※ 해당 연도 입원자 중 재입원자에 대한 통계

지표정의

- 3년 내 재입원을
 - － 국립법무병원 출원자(피치료 감호자 1호)의 3년 내 재입원을 : 해당 연도 3년전 1호 출원자 중 3년 내 재입원자 수 / 해당 연도 3년전 1호 출원자수×100
 - － 국립법무병원 출원자(피치료 감호자 2호)의 3년 내 재입원을 : 해당 연도 3년전 2호 출원자 중 3년 내 재입원자 수 / 해당 연도 3년전 2호 출원자수×100

- 국립법무병원 출원자의 3년 내 재입원율을 치료감호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1호 피치료감호자의 경우, 2014년(2011년 출원자) 5.5%, 2015년(2012년 출원자) 5.7%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로 2016년(2013년 출원자) 3.8%, 2017년(2014년 출원자) 2.6%, 2018년(2015년 출원자) 1.6%, 2019년(2016년 출원자) 2.0%, 2020년(2017년 출원자) 1.2% 등이었다. 2021년에는 2018년 출원자가 195명 재입원하면서 1.5%를 기록하였다.

표 7-4-3 국립법무병원 출원자(피치료감호자 1호)의 3년 내 재입원율 현황(2014~2021)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입원율(%)	5.5	5.7	3.8	2.6	1.6	2.0	1.2	1.5
출원자 수 (출원 연도)	165 (2011)	140 (2012)	158 (2013)	154 (2014)	185 (2015)	299 (2016)	167 (2017)	195 (2018)
3년 내 재입원자 수	9	8	6	4	3	6	2	3

- 2호 피치료감호자의 출원 후 3년내 재입원율은 2014년(2011년 출원자) 18.9%, 2015년(2012년 출원자) 26.4%, 2016년(2013년 출원자) 15.4%, 2017년(2014년 출원자) 17.9%, 2018년(2015년 출원자) 15.7% 등이었으나 2019년(2016년 출원자)에는 8.0%, 2020년(2017년 출원자)에는 6.5%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2018년 출원자가 63명 재입원하면서 12.7%를 기록하였다.

표 7-4-4 국립법무병원 출원자(피치료감호자 2호)의 3년 내 재입원율 현황(2014~2021)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입원율(%)	18.9	26.4	15.4	17.9	15.7	8.0	6.5	12.7
출원자 수 (출원 연도)	122 (2011)	106 (2012)	104 (2013)	123 (2014)	89 (2015)	87 (2016)	61 (2017)	63 (2018)
3년 내 재입원자 수	23	28	16	22	14	7	4	8

4 죄명별 재입원 현황

- 최근 5년간의 국립법무병원 재입원자 전체를 죄명에 따라 구분한 결과, 재입원자 142명 중 약물이 53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 35명(24.7%), 폭력 20명(14.1%), 성폭력 9명(6.4%), 절도 8명(5.6%), 살인 7명(4.9%) 등의 순이었다. 그 외 방화 5명, 강도 3명, 치사 2명 등이었다.

표 7-4-5 해당 연도 입원자 중 재입원자의 죄명별 현황(2017~2021)

연도\죄명	계	살인	폭력	치사	절도	방화	강도	성폭력	약물	기타
2017	28	3	3	1	2	2	0	1	11	5
	100%	10.7%	10.7%	3.6%	7.1%	7.1%	0.0%	3.6%	39.3%	17.9%
2018	28	2	3	0	3	2	1	1	11	5
	100%	7.1%	10.7%	0.0%	10.7%	7.1%	3.6%	3.6%	39.3%	17.9%
2019	17	0	5	0	1	1	2	2	3	3
	100%	0.0%	29.4%	0.0%	5.9%	5.9%	11.8%	11.8%	17.6%	17.6%
2020	20	0	6	0	1	0	0	2	8	3
	100%	0.0%	30.0%	0.0%	5.0%	0.0%	0.0%	10.0%	40.0%	15.0%
2021	49	2	3	1	1	0	0	3	20	19
	100%	4.1%	6.1%	2.0%	2.0%	0.0%	0.0%	6.1%	40.8%	38.9%
계	142	7	20	2	8	5	3	9	53	35
	100%	4.9%	14.1%	1.4%	5.6%	3.5%	2.1%	6.4%	37.3%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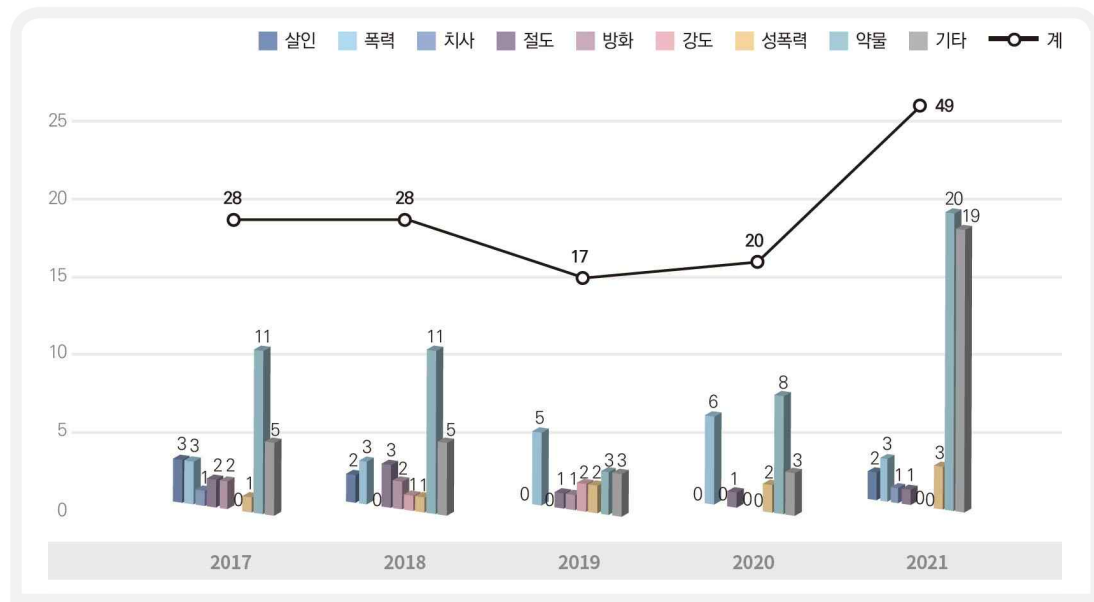


그림 7-4-2 해당 연도 입원자 중 재입원자의 죄명별 현황(2017~2021)

5 병명별 재입원 현황

- 최근 5년간의 국립법무병원 재입원자 전체를 병명에 따라 구분한 결과, 재입원자 142명 중 약물중독이 56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조현병 42명(29.6%), 알코올중독 16명(11.3%), 망상장애 8명(5.6%) 등의 순이었다.

표 7-4-6 병명별 재입원 현황(2017~2021)

연도\병명	계	조현병	간질	정신지체	성격장애	망상	조울증	알코올	약물	기타
2017	28	12	0	1	0	0	0	2	10	3
	100%	42.9%	0.0%	3.6%	0.0%	0.0%	0.0%	7.1%	35.7%	10.7%
2018	28	8	0	2	0	0	1	4	12	1
	100%	28.6%	0.0%	7.1%	0.0%	0.0%	3.6%	14.2%	42.9%	3.6%
2019	17	9	0	0	0	3	1	1	3	0
	100%	53.0%	0.0%	0.0%	0.0%	17.6%	5.9%	5.9%	17.6%	0.0%
2020	20	5	0	1	0	2	1	2	8	1
	100%	25.0%	0.0%	5.0%	0.0%	10.0%	5.0%	10.0%	40.0%	5.0%
2021	49	8	0	2	1	3	3	7	23	2
	100%	16.3%	0.0%	4.1%	2.0%	6.1%	6.1%	14.4%	46.9%	4.1%
계	142	42	0	6	1	8	6	16	56	7
	100%	29.6%	0.0%	4.2%	0.7%	5.6%	4.2%	11.3%	39.5%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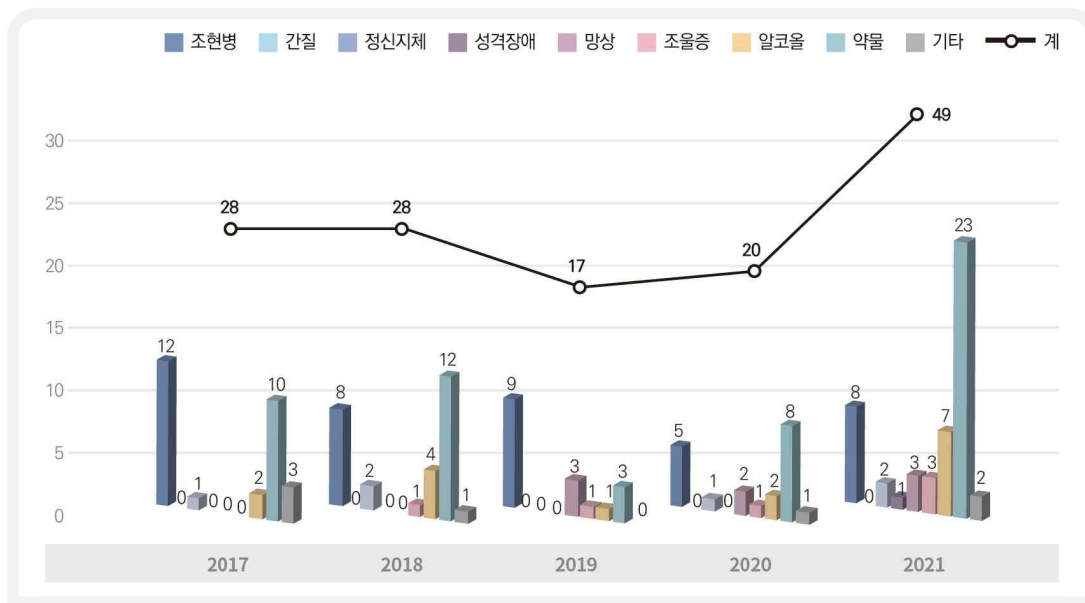


그림 7-4-3 해당 연도 입원자 중 재입원자의 병명별 현황(2017~2021)

6 감호집 행정지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감호집행이 정지된 인원 현황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 집행이 정지된 사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없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명이 있었다.

표 7-4-7 감호집행정지자 현황(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감호집행정지자	0	0	0	1	1

➡ 치료감호법 제24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같은 조항에 따라 검사가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제1항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정신감정 유치

1 정신감정 유치자 입·출원 현황

- 정신감정이 의뢰되어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한 인원은 2017년 464명, 2018년 444명, 2019년 362명, 2020년 129명, 2021년 98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감정유치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입원 인원이 전년보다 64.4% 감소하였고, 2021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입원 인원이 전년보다 24.0% 감소하였다.
- 정신감정 후 출원한 인원은 입원 인원과 연동되어, 2017년 468명, 2018년 434명, 2019년 383명, 2020년 143명, 2021년 98명 등이 정신감정 후 출원하였다.

표 7-5-1 정신감정 유치자의 입·출원 현황(2017~2021)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입원자	464	444	362	129	98
출원자	468	434	383	143	98

※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기간은 평균 30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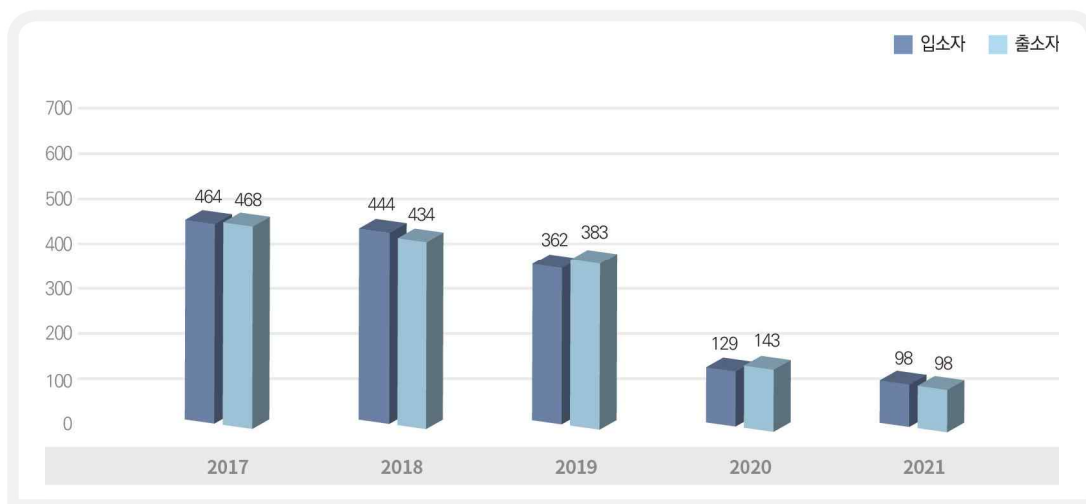


그림 7-5-1 정신감정 유치자의 입·출소 현황(2017~2021)

2 정신감정 의뢰기관별 현황

- 2021년의 피감정유치자를 정신감정 의뢰기관에 따라 구분한 결과, 법원 의뢰가 92명(93.9%), 검찰 의뢰가 6명(6.1%)이었고 경찰 의뢰는 없었다. 최근 5년간 법원에서 의뢰한 사례가 매년 88~93%로 전체 피감정유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7-5-2 정신감정 의뢰기관별 현황(2017~2021)

연도	기관	계	법원	검찰	경찰
2017		464	413	42	9
		100%	89.0%	9.1%	1.9%
2018		444	394	28	22
		100%	88.7%	6.3%	5.0%
2019		362	321	28	13
		100%	88.7%	7.7%	3.6%
2020		129	120	8	1
		100%	93.0%	6.2%	0.8%
2021		98	92	6	0
		100%	93.9%	6.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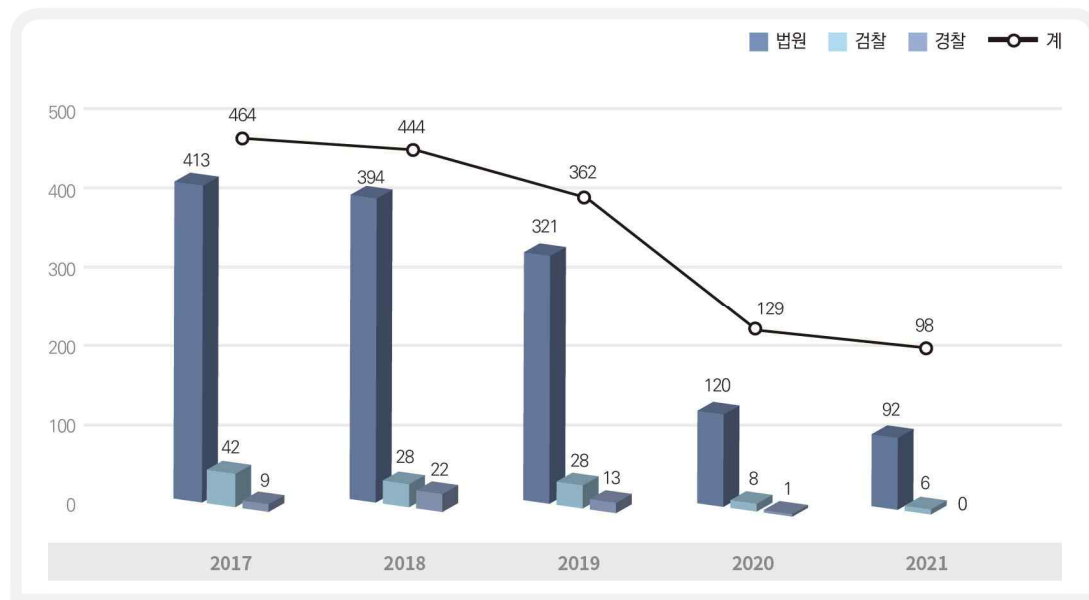


그림 7-5-2 정신감정 의뢰기관별 현황(2017~2021)

3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현황

개 요

■ 각 기관에서 의뢰된 정신감정 유치자 중 성폭력범죄자 현황

- 전체 피감정유치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정신감정이 의뢰된 성폭력 범죄자의 수도 감소하여 2017년에는 92명, 2018년에는 89명, 2019년에는 84명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폭이 커져 2020년에는 30명, 2021년에는 16명이었다. 그럼에도 전체 정신감정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까지 매년 20~23%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1년에는 16.3%를 나타냈다.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신감정도 대부분 법원에서 의뢰되어, 2020년까지 전체의 95% 내외를 차지하였고, 2021년에는 전원이 법원에서 의뢰되었다.

표 7-5-3 성폭력 범죄자의 정신감정 의뢰 현황(2017~2021)

연도 \ 기관	계	법원	검찰	경찰
2017	92	88	4	0
	100%	95.7%	4.3%	0.0%
2018	89	84	5	0
	100%	94.4%	5.6%	0.0%
2019	84	80	4	0
	100%	95.2%	4.8%	0.0%
2020	30	29	1	0
	100%	96.7%	3.3%	0.0%
2021	16	16	0	0
	100%	100%	0.0%	0.0%

표 7-5-4 정신감정 의뢰자 중 성폭력 범죄자의 비율(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율	19.8%	20.0%	23.2%	23.3%	16.3%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numerous concentric, dotted arcs that form a circular shape, centered behind the title text.

통계분석

2022 범죄예방정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Chapter 8

갱생보호

제1절 개요

제2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

제3절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개요

1 갱생보호사업 연혁

- 갱생보호사업은 1961년 9월 30일 갱생보호법 제정(법률 제730호)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공법인체인 갱생보호회가 설립되어 사범보호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중앙 1곳, 지방 25곳이 개별 법인으로 설치되었다가 1963년 2월 26일 갱생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별 법인을 단일 특수 공법인으로 개편하여 오늘날의 갱생보호사업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을 통합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933호)」을 제정함으로써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 이후, ‘갱생보호’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기 위해 2009년 3월 27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민간 갱생보호법인 8개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2 갱생보호의 방법 및 지원 절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갱생보호법인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 창업지원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보호사업을 제공하여 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및 멘토링 등의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갱생보호는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이 신청하거나 갱생보호 대상자가 직접 서면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민간갱생보호법인에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각 기관에서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적절한 갱생보호 방법을 결정한 후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혁 및 임직원 현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은 1961년 9월 30일에 갱생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어 중앙갱생보호지도회 및 지방갱생보호회(8개소)를 설립하였으며, 1963년 2월 26일 갱생보호법 개정(법률 제1276호)으로 갱생보호회 및 지부(8개지부)를 설립하였다.
- 2012년부터 전국의 8개 기술교육원을 설립하였고, 2016년 3월 21일 공단 본부가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인력증원 및 인적 구성 등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표 8-2-1 공단 정원 현황(2017~2021)

연도	계	임원(이사장)	일반직	사무직	기타(취업직 등)
2017	286	1	199	5	81
2018	383	1	218	5	159
2019	402	1	237	5	159
2020	424	1	249	5	169
2021	433	1	263	5	164

2 공단 갱생보호사업 개요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공단 갱생보호사업을 이용한 대상자 현황

지표정의

- 대상자 : 전국 공단에서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갱생보호 지원을 받은 인원

- 공단에서 실시하는 갱생보호사업을 이용한 대상자가 2017년 93,459명, 2018년 97,432명, 2019년 105,490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던 중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3.6% 감소한 101,663명이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전년보다 17.6% 증가하여 119,589명을 기록하였다.

- ➡ 코로나19의 최초 발생, 확산하였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비대면 사전상담, ‘작은 결혼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상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8-2-2 공단 갱생보호사업 대상자 현황(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자 수	93,459	97,432	105,490	101,663	119,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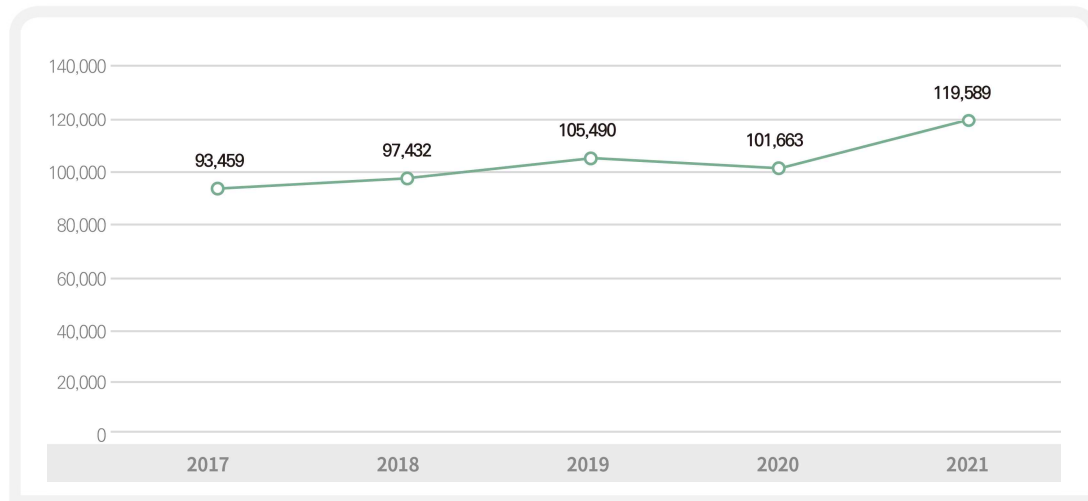


그림 8-2-1 공단 갱생보호사업 대상자 현황(2017~2021)

3 공단 갱생보호사업 분야별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공단 갱생보호사업의 분야별 이용자 현황

1) 생활지원

지표정의

- 생활지원 : 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자립 지원 등 연간 갱생보호사업 지원 인원
 - 숙식제공 : 각 지역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 무료제공
 - 긴급지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금품 지원
 - 기타자립 지원 :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알선,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입양 및 의료지원 등 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1) 개요

- 최근 5년간 전체 생활지원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20,341명, 2018년 21,243명, 2019년 23,129명, 2020년 26,554명이었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29,560명이었다.

➡ 생활지원은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로 숙식 제공, 원호지원, 기타자립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생활지원 중 긴급지원과 기타 자립지원 이용 대상자는 계속 증가한 반면 숙식제공 대상자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 2017년 이후 숙식제공 대상자가 감소하는 원인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욕구가 높아져 다인실 생활보다 개인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자율형 생활관 제도'³²⁾ 및 '1인 1실 생활관'³³⁾ 리모델링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인권개선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32) 자율형 생활관 : 공단직원의 감시·감독 시스템에서 벗어나 생활관 입소자들이 자발적으로 지킴이 역할을 하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

33) 1인 1실 생활관 : 시설환경개선을 통하여 기존의 다인실 생활관에서 1인 1실 생활관으로 전환(서울, 서울동부, 경기남부, 강원, 강원동부, 대전, 충북, 전북, 광주남부 운영 중)

표 8-2-3 공단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자립 지원
2017		20,341	2,167	5,659	12,515
2018		21,243	1,846	6,139	13,258
2019		23,129	1,568	7,033	14,528
2020		26,554	1,634	7,619	17,301
2021		29,560	1,494	8,457	19,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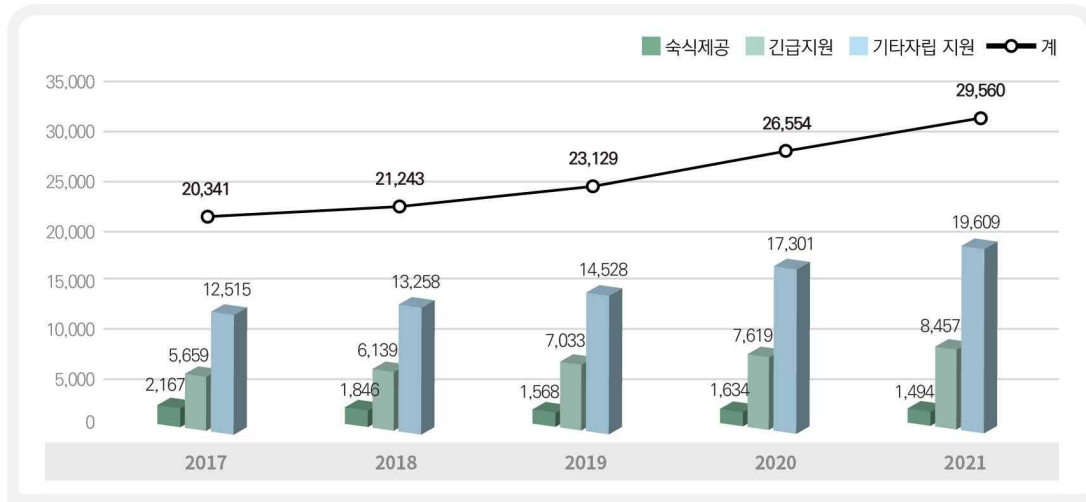


그림 8-2-2 공단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2) 숙식제공 개시율 및 평균 숙식 인원

- 최근 5년간 숙식제공 대상자의 감소와 함께 평균 숙식 인원도 감소하여 2017년 586명, 2018년 548명, 2019년 475명, 2020년 464명, 2021년 379명 등이었다.

표 8-2-4 공단 숙식제공 개시율 및 평균 숙식 인원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획인원	개시인원	개시율	평균 숙식 인원
2017		2,618	2,167	82.8	586
2018		2,676	1,846	69.0	548
2019		2,676	1,568	58.6	475
2020		2,412	1,634	67.7	464
2021		2,412	1,494	61.9	379

※ 개시인원은 전년도 이월 인원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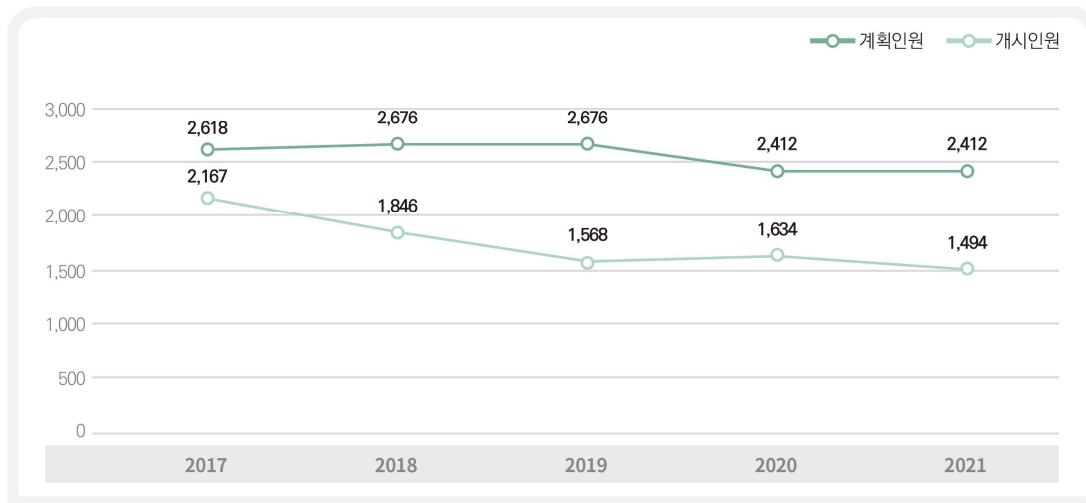


그림 8-2-3 공단 숙식제공 세부 현황(2017~2021)

(3) 숙식제공 지원기간별 현황

- 2021년 공단에서 숙식을 제공받은 대상자의 지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1월 이상~ 3월 미만인 245명(24.9%), 1월 미만이 239명(24.3%), 3월 이상~6월 미만인 199명(20.2%) 등으로, 전체 숙식제공 대상자의 69.4%가 6월 미만이었다. 그밖에 1년 이상~2년 이하가 119명(12.1%), 6월 이상~9월 미만인 109명(11.1%), 9월 이상~1년 이하가 73명(7.4%) 등이었다.

표 8-2-5 공단 숙식제공 지원기간별 현황(2017~2021)

연도	기간	계	1월 미만	1월 이상 ~ 3월 미만	3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9월 미만	9월 이상 ~ 1년 이하	1년 이상 ~ 2년 이하
2017		1,527	393	402	368	148	91	125
		100%	25.7%	26.3%	24.1%	9.7%	6.0%	8.2%
2018		1,318	286	317	330	175	82	128
		100%	21.7%	24.1%	25.0%	13.3%	6.2%	9.7%
2019		1,077	244	237	255	126	90	125
		100%	22.7%	22.0%	23.7%	11.7%	8.3%	11.6%
2020		1,141	270	309	243	130	78	111
		100%	23.7%	27.1%	21.3%	11.4%	6.8%	9.7%
2021		984	239	245	199	109	73	119
		100%	24.3%	24.9%	20.2%	11.1%	7.4%	12.1%

※ 숙식제공 수혜자는 숙식제공 종료자를 기준으로 산정

※ 숙식제공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이고, 6개월 단위로 연장심사 실시

2) 취업지원

지표정의

- 직업훈련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술 훈련 및 자격취득 교육 실시
- 창업지원 :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5천만원)
- 취업알선 : 직업능력(적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 취업이후 필요시 신원보증 실시
- 허그일자리 : 2015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법무부(공단)로 이관 받은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동행면접,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하는 종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즉, 미취업상태에서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단계 “취업설계” ⇒ 2단계 “직업능력개발” ⇒ 3단계 “취업성공” ⇒ 4단계 “사후관리”에 이르는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

(1)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

- 취업지원 대상자는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여, 2017년 13,043명, 2018년 13,018명, 2019년 14,291명, 2020년 15,546명, 2021년 16,190명 등이었다.
- 2021년 공단에서 취업을 지원한 대상자 총 16,190명의 분야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참여가 7,019명(43.4%), 취업알선이 5,122명(31.6%), 직업훈련이 4,044명(25.0%), 창업지원이 5명 등이었다.
- 최근 5년간의 분야별 취업지원 실시 비율을 살펴보면, 허그일자리 지원이 전체의 43% 내외를, 취업알선이 27~33%를, 직업훈련이 23~30%를 차지하였다.

표 8-2-6 공단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알선	허그일자리
2017		13,043	3,003	3	4,382	5,655
		100%	23.0%	0.0%	33.6%	43.4%
2018		13,018	3,602	3	3,687	5,726
		100%	27.7%	0.0%	28.3%	44.0%
2019		14,291	4,305	5	3,864	6,117
		100%	30.1%	0.0%	27.0%	42.8%
2020		15,546	4,280	2	4,659	6,605
		100%	27.5%	0.0%	30.0%	42.5%
2021		16,190	4,044	5	5,122	7,019
		100%	25.0%	0.0%	31.6%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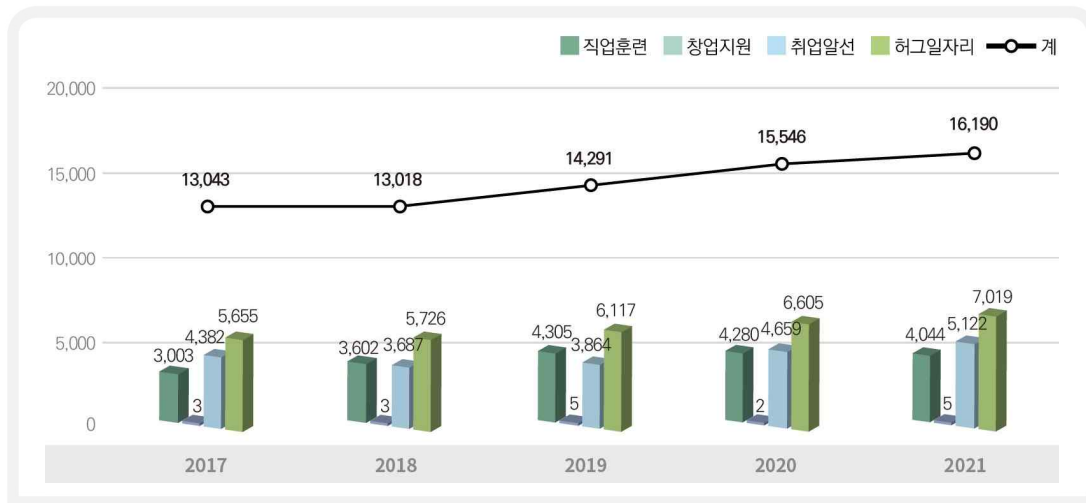


그림 8-2-4 공단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2)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수료율 및 취업 등 현황

지표정의

- 수료율 : 수료인원 / 참여인원×100
- 고용보험가입률 : 고용보험가입취업자 / 취업인원×100
- 3개월 이상 근속률 : 3개월 이상 근속 / 취업인원×100

- 2021년 공단의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7,019명 중 수료자가 총 2,480명으로 수료율은 35.3%이었다. 또한 취업 인원은 2,032명이었고 그중 3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은 1,087명으로 3개월 이상 근속률은 53.5%이었다.
- 최근 5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수료 인원은 증감을 반복하면서 수료율이 낮아지는 양상으로, 2017년 92.7%에서 2018년에는 85.8%, 2019년에는 80.2%, 2020년에는 75.9%이었다.

➡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1~2년간 진행되는바, 2019년 참여자 중 일부와 2020년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프로그램 진행 중이어서 2021년 수료인원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에, 2019년과 2020년 참여자의 프로그램이 완료되면서 향후 2021년의 수료인원, 취업인원, 근속인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20년 참여자 중 2,480명 진행 중)

표 8-2-7 공단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수료율 및 취업 등 현황(2017~2021)

구분 연도	참여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취업인원	고용보험 가입취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3개월 이상 근속	3개월 이상 근속률
2017	5,655	5,241	92.7%	3,021	1,959	64.8	2,171	71.9%
2018	5,726	4,915	85.8%	2,630	1,608	61.1	2,093	79.6%
2019	6,117	4,904	80.2%	3,144	1,773	56.4	2,435	77.4%
2020	6,605	5,011	75.9%	3,338	1,868	56.0	2,437	73.0%
2021	7,019	2,480	35.3%	2,032	1,133	55.8	1,087	53.5%

※ 허그일자리 사업은 2년간 진행되며, 최장 3년까지 수료인원 및 취업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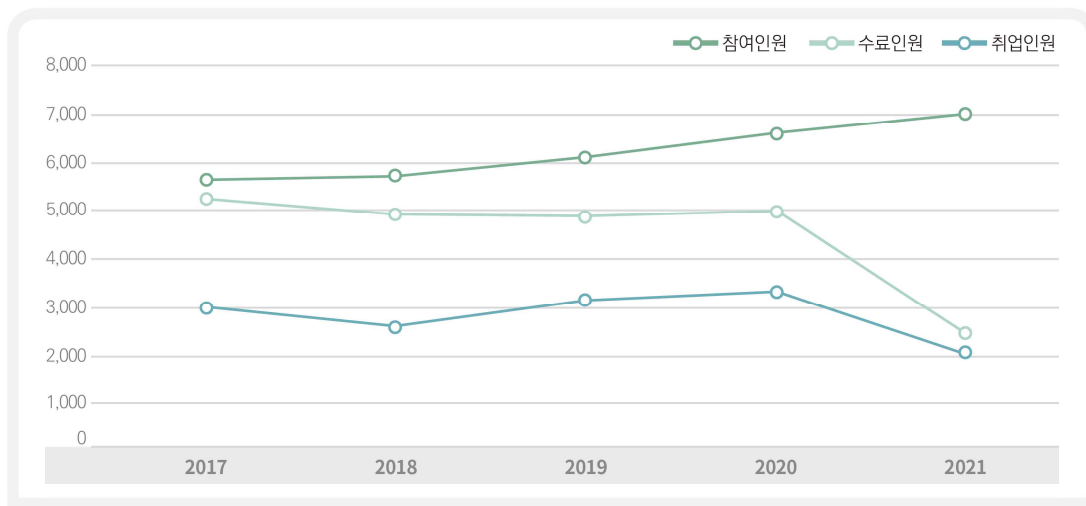


그림 8-2-5 공단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세부 현황(2017~2021)

3) 가족지원

지표정의

- 주거지원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대상자에게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공급(최장 10년 거주), 임차보증금 일정액 지원
- 가족희망 : 보호대상자 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가족교육, 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학업지원 : 청소년 보호대상자 및 보호대상자 미성년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학습교재, 학용품 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 및 학습지도 실시
- 결혼지원 : 사실혼 관계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위해 무료 결혼식 및 각종 후원물품 지원

(1) 가족지원 대상자 현황

- 최근 5년간 가족지원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1,860명, 2018년 2,066명, 2019년 2,605명, 2020년 2,774명, 2021년 3,542명 등이었다. 특히 2021년의 대상자는 2017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2021년 가족지원 대상자 3,542명의 세부 유형은 학업지원이 2,287명, 가족희망 프로그램 참여가 974명, 주거지원이 169명, 결혼지원이 112명이었다.
- 학업지원 대상자는 2017년 1,163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2,300명에 근접하였고 매년 전체의 54~64%를 차지하였다. 가족희망 프로그램 대상자도 증가하였는데, 특히 2019년 법무보호교육원에서만 실시하던 가족희망 사업을 전국 지부·지소로 확대하면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주거지원은 2017년 152명에서 2019년에는 278명으로 늘었지만 2021년에는 169명으로 줄었다.

표 8-2-8 공단 가족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연도 \ 구분	계	주거지원	가족희망	학업지원	결혼지원 (합동결혼식)
2017	1,860	152	437	1,163	108
	100%	8.2%	23.5%	62.5%	5.8%
2018	2,066	220	467	1,280	99
	100%	10.6%	22.6%	62.0%	4.8%
2019	2,605	278	806	1,418	103
	100%	10.7%	30.9%	54.4%	4.0%
2020	2,774	235	788	1,651	100
	100%	8.5%	28.4%	59.5%	3.6%
2021	3,542	169	974	2,287	112
	100%	4.8%	27.5%	64.6%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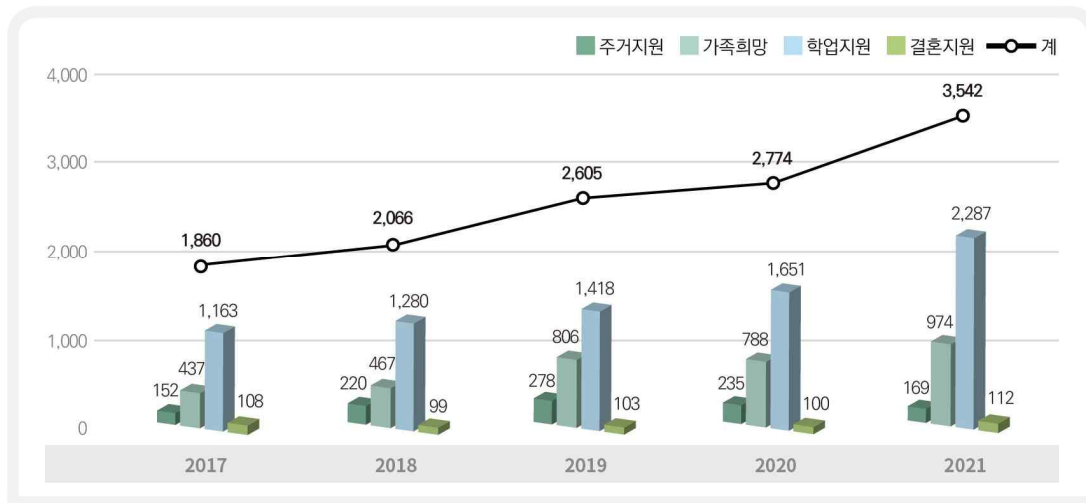


그림 8-2-6 공단 가족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2) 주거지원 세부 현황

-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공단에서 주거지원을 위해 공급한 주택은 총 2,534호이며 그중 1,664호에 대해 입주 완료되었고, 누적 수혜 인원은 총 3,472명이었다.

표 8-2-9 공단지부별 주거지원 실시 현황(2017~2021)

구분 지부	공급 주택 호수(주택공사)						공급주택 입주현황			누적수혜 인원
	2006~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입주	미입주	
서울지부	130	14	17	17	6	9	193	134	59	342
서울동부	40	0	0	0	0	3	43	42	1	43
인천지부	183	13	27	27	9	13	272	172	100	459
경기지부	208	15	27	22	9	14	295	210	85	426
경기남부	40	6	9	12	6	7	80	63	17	103
경기북부	119	12	14	16	8	12	181	135	46	254
강원지부	50	8	9	9	6	8	90	73	17	124
강원동부	4	0	0	0	0	0	4	4	0	4
대전지부	123	8	15	15	8	11	180	109	71	279
충남지부	10	6	5	5	4	4	34	25	9	37
충북지부	46	7	7	7	5	7	79	55	24	71
대구지부	151	14	18	17	6	11	217	133	84	302
경북지부	7	0	3	5	4	4	23	16	7	22
부산지부	95	7	11	10	5	8	136	79	57	173
울산지부	64	10	13	13	7	9	116	63	53	135

구분 지부	공급 주택 호수(주택공사)						공급주택 입주현황			누적수혜 인원
	2006~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입주	미입주	
경남지부	88	12	12	12	7	10	141	89	52	175
광주전남	126	11	14	14	8	10	183	84	99	206
전북지부	76	6	7	7	5	7	108	57	51	136
제주지부	22	3	3	3	2	2	35	35	0	46
서울북부	94	0	9	9	5	7	124	86	38	135
계	1,676	152	220	220	110	156	2,534	1,664	870	3,472

※ 누적수혜인원은 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수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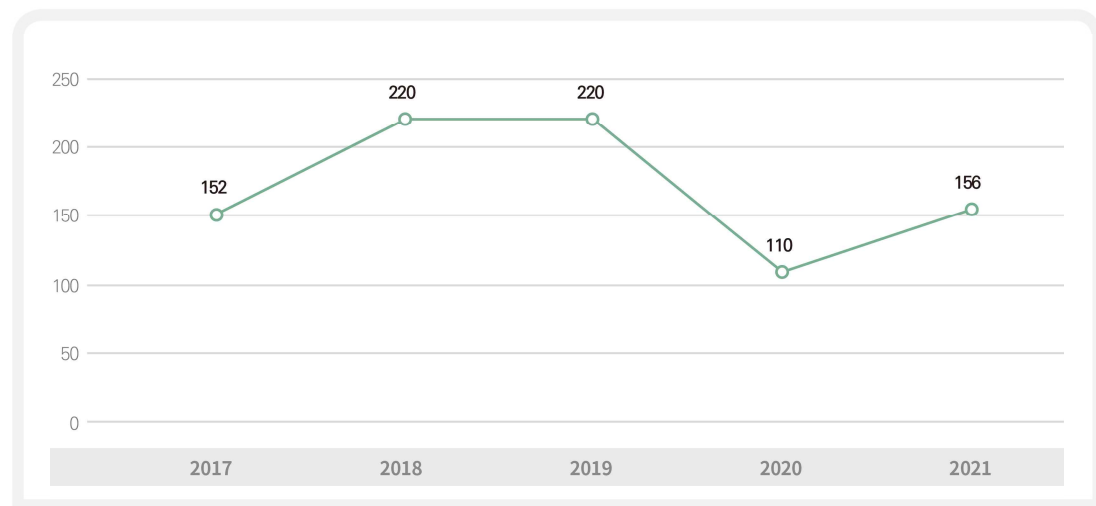


그림 8-2-7 공단 주거지원 - 공급 주택 호수(2017~2021)

4) 상담지원

지표정의

- 심리상담 : 심리적 고통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
- 사전상담 : 출소예정자 등 갇혀보호대상자에게 지원 가능한 사업안내 및 자립대책 마련을 위한 상담
- 사회성 향상 : 기초소양, 심리치료, 적성검사,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사후관리 : 보호사업 수혜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지도 및 관리

(1)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

- 2021년 공단의 상담지원 대상자는 총 70,297명으로, 전년보다 23.6% 증가하였다. 상담지원의 세부 현황으로는, 심리상담 13,816명, 사전상담 29,467명,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4,202명, 사후관리 22,812명 등이었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도소 출소예정자에 대한 사전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사전상담의 감소폭이 컸으며, 2021년에는 비대면 사전상담 실시, 유선상담 강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지원을 실시하여 전년도에 비해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8-2-10 공단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연도\구분	계	심리상담	사전상담	사회성향상	사후관리
2017	58,323	9,322	30,795	3,863	14,343
	100%	16.0%	52.8%	6.6%	24.6%
2018	61,204	11,759	30,630	3,671	15,144
	100%	19.2%	50.0%	6.0%	24.7%
2019	65,568	12,694	32,052	3,674	17,148
	100%	19.4%	48.9%	5.6%	26.2%
2020	56,889	12,669	21,332	3,716	19,172
	100%	22.3%	37.5%	6.5%	33.7%
2021	70,297	13,816	29,467	4,202	22,812
	100%	19.7%	41.9%	6.0%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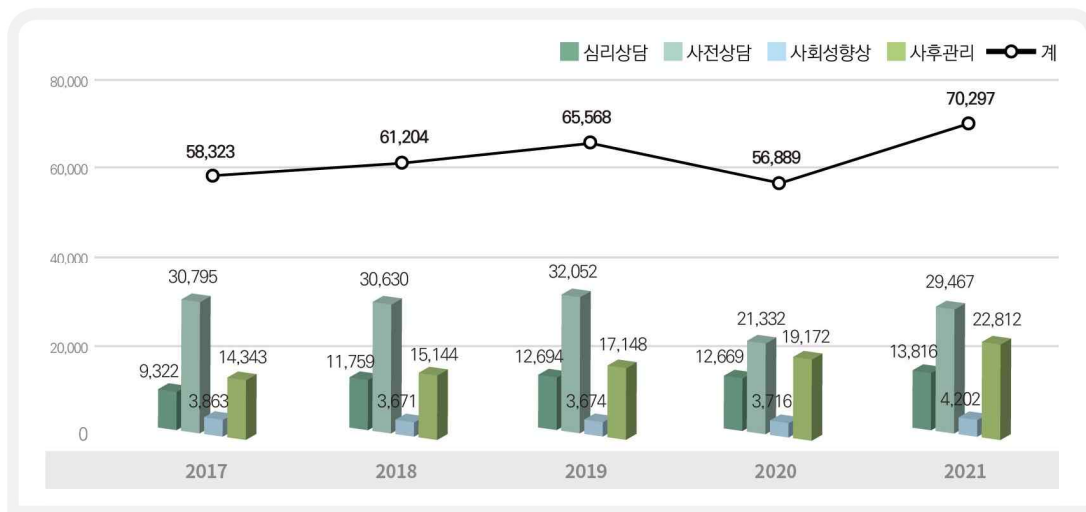


그림 8-2-8 공단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1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개요

개요

- 전국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의 이용자 현황

지표정의

- 대상자 : 전국 민간법인에서 생활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 갱생보호 지원을 받은 인원

- 민간법인 갱생보호 지원 대상자는 2017년 9,867명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10,765명과 10,55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5,131명으로 전년 대비 51.4%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10,223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표 8-3-1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대상자 현황(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자 수	9,867	10,765	10,550	5,131	1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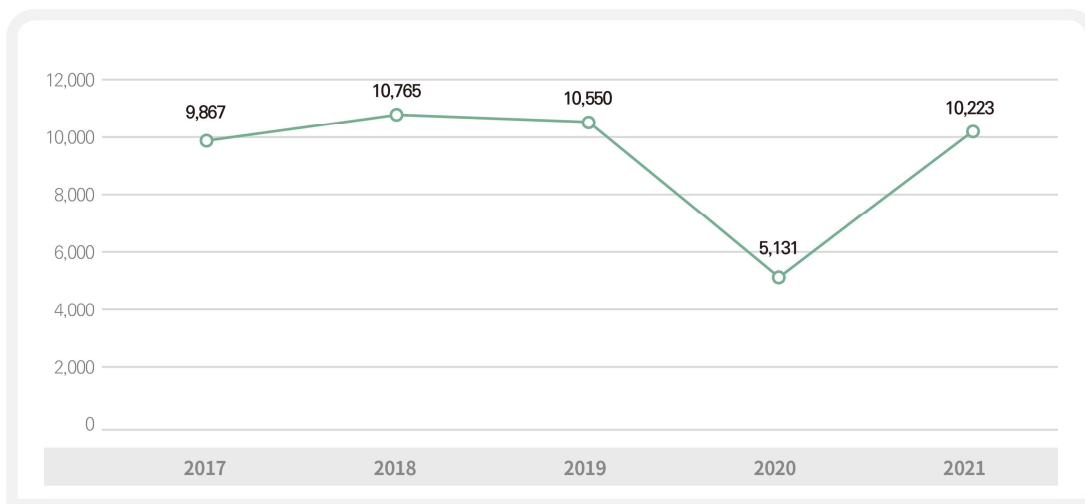


그림 8-3-1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연도별 대상자 현황(2017~2021)

2 분야별 현황

1) 생활지원

지표정의

- **숙식제공** : 각 지역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숙소, 음식물, 의복 등 무료제공
- **원호지원** : 질병,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에게 치료비, 교통비, 양곡 등 지원
- **기타자립** :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알선,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입양 및 의료지원 등 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1)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

- 2021년 민간법인의 생활지원 대상자 총 1,944명 중 기타자립 지원이 1,316명(67.7%)으로 가장 많았고, 숙식제공이 383명(19.7%), 원호지원이 245명(12.6%)이었다.
- 최근 5년간의 생활지원 대상자는 2017년 1,485명에서 2018년에 1,847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1,600명 밑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3% 증가하였다.
- 세부 유형별로는, 기타자립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884~1,152명의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전체의 60% 내외를 차지하였는데, 2021년에는 그 비율이 65%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숙식제공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22.2%에서 최대 27.3%를 기록하다가 2021년에는 20% 이하를 기록하였다.

표 8-3-2 민간법인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숙식제공	원호지원	기타자립
2017		1,485	406	195	884
		100%	27.3%	13.1%	59.5%
2018		1,847	410	285	1,152
		100%	22.2%	15.4%	62.4%
2019		1,590	425	233	932
		100%	26.7%	14.7%	58.6%
2020		1,564	347	204	1,013
		100%	22.2%	13.0%	64.8%
2021		1,944	383	245	1,316
		100%	19.7%	12.6%	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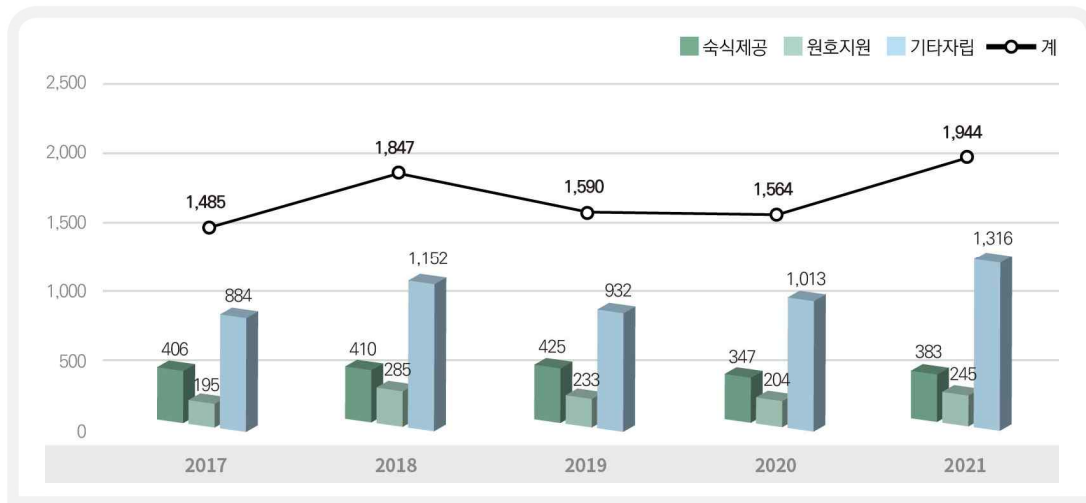


그림 8-3-2 민간법인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2) 민간법인별 숙식제공 대상자 현황

- 2021년 각 민간법인의 숙식제공 대상자는 담안선교회자활원이 239명, 세계교화갱보협회가 37명, 열린낙원이 24명, 뷰티플라이프와 한국교화복지재단이 각각 21명, 빠스카교화복지회가 18명, 양지뜸이 17명, 굿라이프가 6명 등이었다.

표 8-3-3 민간법인별 숙식제공 대상자 현황(2017~2021)

연도 \ 법인	계	한국교화복지재단	세계교화갱보협회	담안선교회자활원	빠스카교화복지회	양지뜸	뷰티플라이프	열린낙원	굿라이프
2017	406	25	33	238	15	20	35	40	—
	100%	6.2%	8.1%	58.6%	3.7%	4.9%	8.6%	9.9%	—
2018	469	10	50	250	15	24	50	70	—
	100%	2.1%	10.7%	53.3%	3.2%	5.1%	10.7%	14.9%	—
2019	470	12	55	254	15	24	40	70	—
	100%	2.6%	11.7%	54.0%	3.2%	5.1%	8.5%	14.9%	—
2020	347	18	33	215	12	15	27	27	—
	100%	5.2%	9.5%	61.9%	3.5%	4.3%	7.8%	7.8%	—
2021	383	21	37	239	18	17	21	24	6
	100%	5.5%	9.6%	62.4%	4.7%	4.4%	5.5%	6.3%	1.6%

※ 굿라이프는 2020년 법무부로부터 설립허가 받았으며, 2022년부터 국고보조금 지급

2) 취업지원

지표정의

- 직업훈련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술 훈련 및 자격취득 교육 실시
- 창업지원 :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원자재, 도구 등의 물품을 지원
- 취업알선 : 직업능력(적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 취업이후 필요시 신원보증 실시

- 민간법인의 전체 취업지원 대상자는 2017년 228명, 2018년 174명, 2019년 195명, 2020년 143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였고, 2021년에는 227명으로 2017년 수준을 보였다.
- 취업지원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직업훈련 대상자는 2017년 98명에서 2018년 74명, 2019년 92명, 2020년 73명, 2021년 107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였고, 취업알선 역시 증감을 반복하여 2017년 121명, 2018년 97명, 2019년 99명, 2020년 68명이었고 2021년에는 112명을 기록하였다.

표 8-3-4 민간법인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연도 \ 구분	계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알선
2017	228	98	9	121
	100%	43.0%	3.9%	53.1%
2018	174	74	3	97
	100%	42.5%	1.7%	55.7%
2019	195	92	4	99
	100%	47.2%	2.1%	50.8%
2020	143	73	2	68
	100%	51.0%	1.4%	47.6%
2021	227	107	8	112
	100%	47.1%	3.5%	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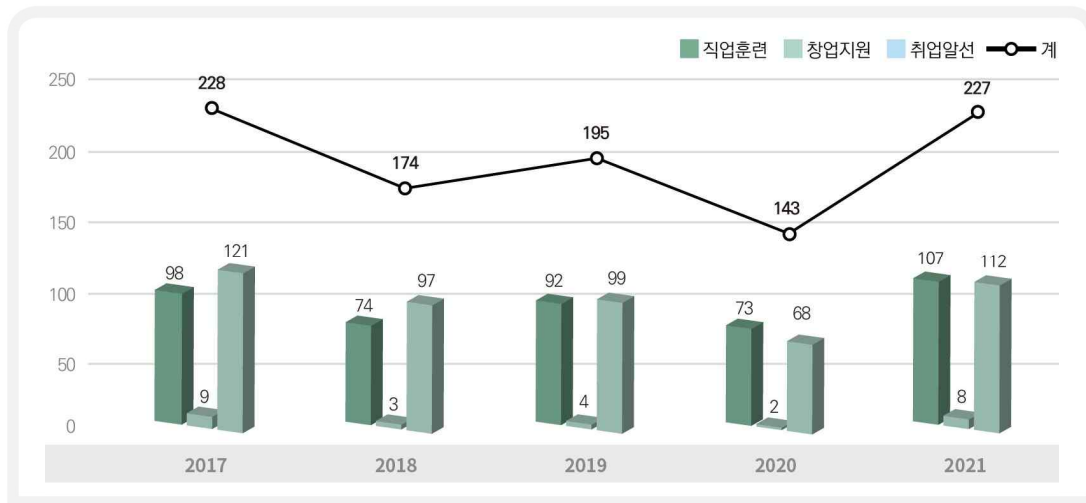


그림 8-3-3 민간법인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3) 주거지원

- 민간법인의 주거지원 대상자는 2017년 8명, 2018년 11명, 2019년 6명,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5명 등이었다.

표 8-3-5 민간법인 주거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주거지원	8	11	6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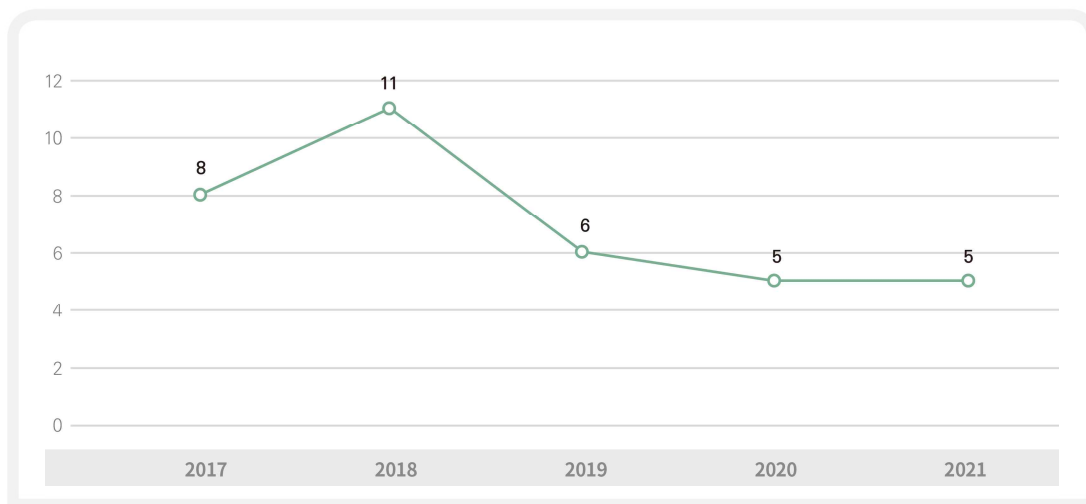


그림 8-3-4 민간법인 주거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4) 심리상담

지표정의

- 심리상담 : 심리적 고통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
- 사전상담 : 출소예정자 등 갇혀있는 보호대상자에게 지원 가능한 사업안내 및 자립대책 마련을 위한 상담
- 사회성 향상 : 기초소양, 심리치료, 적성검사,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사후관리 : 보호사업 수혜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지도 및 관리

- 민간법인의 심리상담 대상자는 2017년 8,163명에서 2019년 8,759명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확산한 2020년에는 3,419명으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5.4% 증가하며 8,047명을 기록하였다.
- 2021년 심리상담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5,507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심리상담이 1,908명(23.7%), 사전상담이 360명(4.5%), 사후관리가 272명(3.4%) 등이었다.

표 8-3-6 민간법인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연도	구분	계	심리상담	사전상담	사회성향상	사후관리
2017		8,163	1,850	2,893	3,276	144
		100%	22.7%	35.4%	40.1%	1.8%
2018		8,733	1,168	3,718	3,661	186
		100%	13.4%	42.6%	41.9%	2.1%
2019		8,759	1,431	4,054	3,039	235
		100%	16.3%	46.3%	34.7%	2.7%
2020		3,419	500	495	2,156	268
		100%	14.6%	14.5%	63.1%	7.8%
2021		8,047	1,908	360	5,507	272
		100%	23.7%	4.5%	68.4%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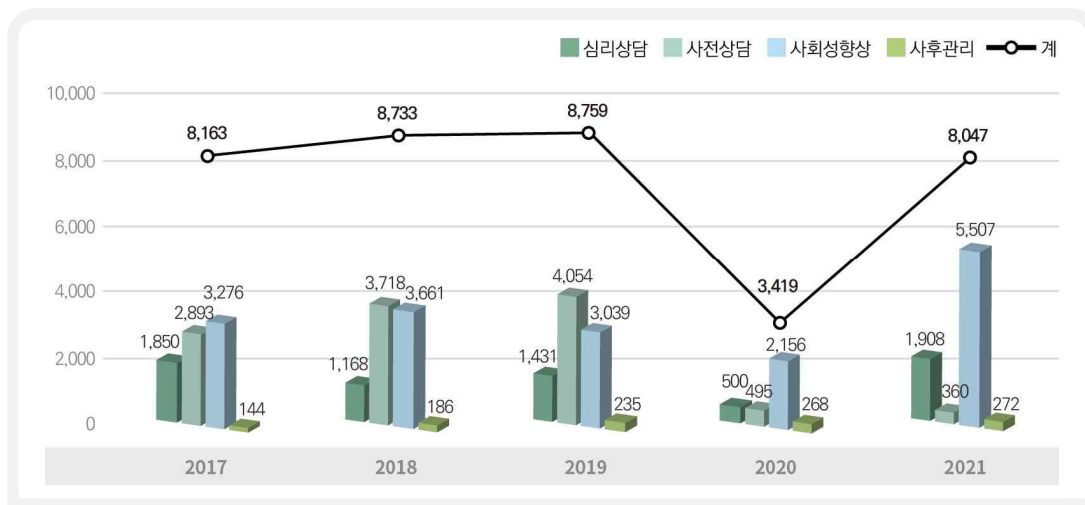


그림 8-3-5 민간법인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numerous concentric, dotted arcs that form a circular shape, centered behind the title text.

통계분석

2022 범죄예방정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Chapter 9

법교육

제1절 법교육 프로그램

제2절 법교육 출장강연

제3절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법교육 프로그램

1 개요

- 법무부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유용한 기초적 법률 소양을 키워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법교육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부터 학교법교육 출장강연 등 일반 국민에 대한 법교육을 시작하였다.
- 2008년에는 「법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법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등을 통해 실천적 차원에서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법교육지원법」에서 법교육은 ‘청소년 및 일반 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 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할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의미한다.
- 현재 법교육 프로그램에는 1)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2) 어린이로스쿨, 3) 모두가 행복한 교실, 4) 탈북청소년 법교육, 5) 학생자치법교육, 6) 시민법교육, 7) 이민자법교육 등이 있다.

2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 최근 5년간의 전체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9,386명에서 2018년에는 15,104명으로 감소하였지만, 2019년 이후 증가하여 2019년 16,382명, 2020년 30,951명이었고, 2021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18.0% 증가한 36,526명을 기록하였다.

➡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에도 전체 법교육 실시 인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 인원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온라인을 통한 영상교육의 적극적인 도입과 확대에 따른 것이다.

표 9-1-1 전체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원					
계	19,386	15,104	16,382	30,951	36,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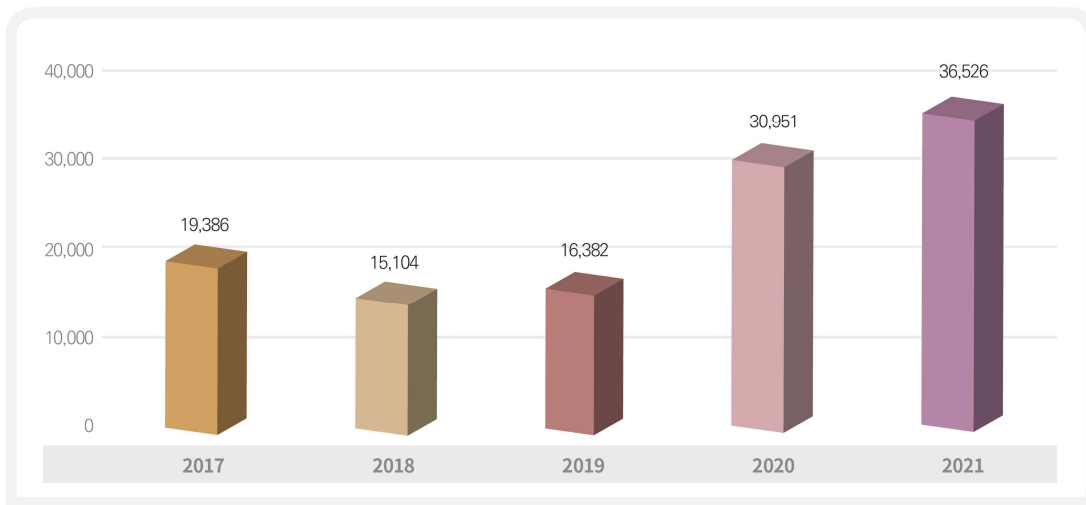


그림 9-1-1 전체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2017~2021)

3 법교육 프로그램별 세부 실시 현황

1)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실시 현황

지표정의

-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 아동양육시설,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로 배우는 유아(5~7세)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시행
- 실시 인원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프로그램 참여 인원

-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프로그램의 실시 인원은 2017년 733명(109회 실시), 2018년 1,347명(82회 실시), 2019년 3,626명(252회 실시) 등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2,312명(158회 실시)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3,301명으로 전년보다 42.8% 증가하였고 실시 횟수도 218회로 전년보다 38.0% 증가하였다.

표 9-1-2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실시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횟수	109	82	252	158	218
인원	733	1,347	3,626	2,312	3,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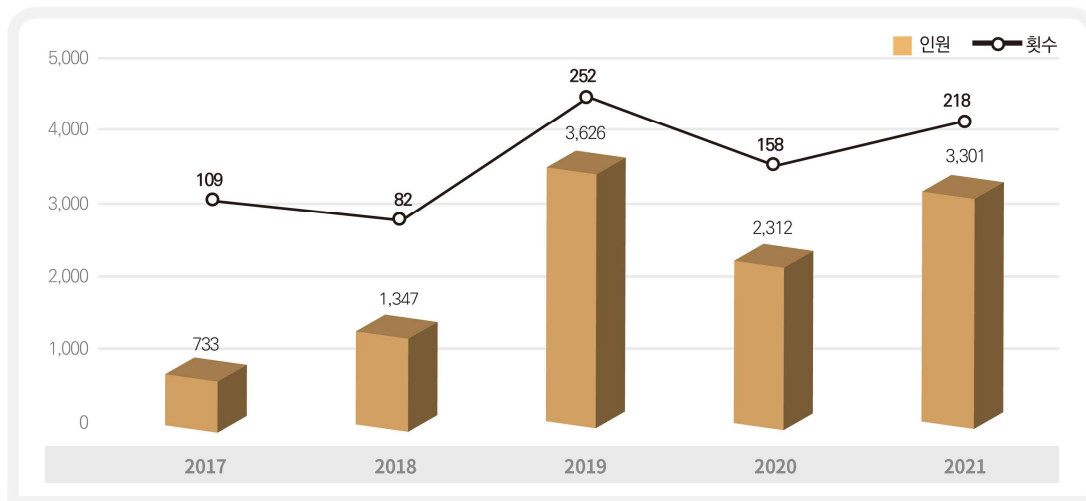


그림 9-1-2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실시 현황(2017~2021)

2) ‘어린이로스쿨’ 실시 현황

지표정의

- 어린이로스쿨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법률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한 6차시 구성의 어린이 법 탐험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시행
- 실시 인원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프로그램 참여 인원

- ‘어린이 로스쿨’ 프로그램의 실시 인원은 2017년 1,561명, 2018년 811명, 2019년 1,168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6% 감소한 1,114명, 2021년에는 다시 11.1% 감소한 990명이었다.

표 9-1-3 ‘어린이로스쿨’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시현황					
기관수	120	70	70	81	80
인원	1,561	811	1,168	1,114	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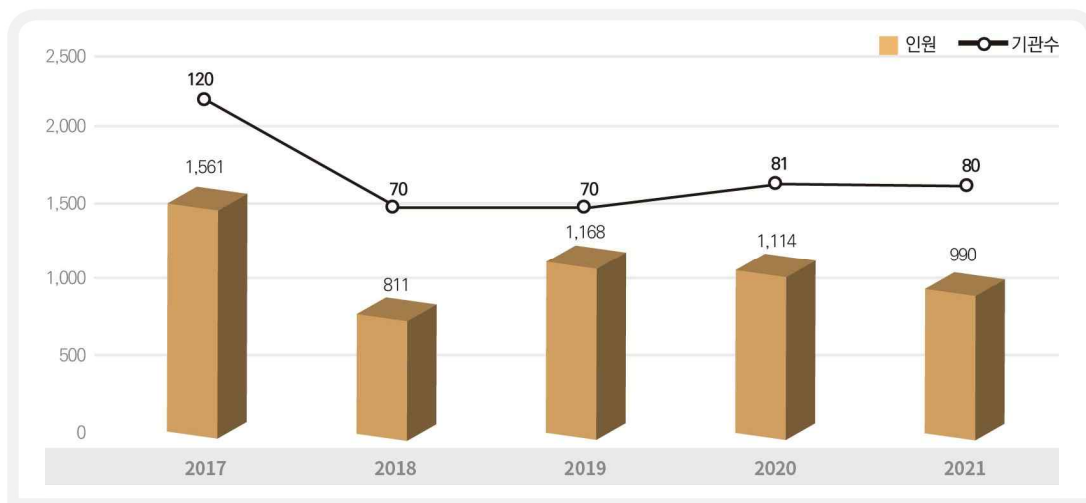


그림 9-1-3 ‘어린이로스쿨’ 실시 현황(2017~2021)

3) ‘탈북청소년 법교육’ 실시 현황

지표정의

- 탈북청소년 법교육 :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2006년부터 실시됨.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 정착을 위한 헌법(자유·권리의무 등) 교육, ‘우리 법 바로 알기’ 정규 법교육 프로그램이며, 탈북청소년 대상 교육시설에서 진행
- 실시 인원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프로그램 참여 인원

- ‘탈북청소년 법교육’의 실시 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068명(244회 실시), 2018년 2,103명(224회 실시), 2019년 2,114명(231회 실시) 등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 실시 인원이 1,741명, 실시 횟수가 183회 등으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실시 인원과 실시 횟수가 각각 2,058명과 235회로 전년 대비 18.2%와 28.4% 증가하였다.

표 9-1-4 ‘탈북청소년 법교육’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횟수	244	224	231	183	235
인원	2,068	2,103	2,114	1,741	2,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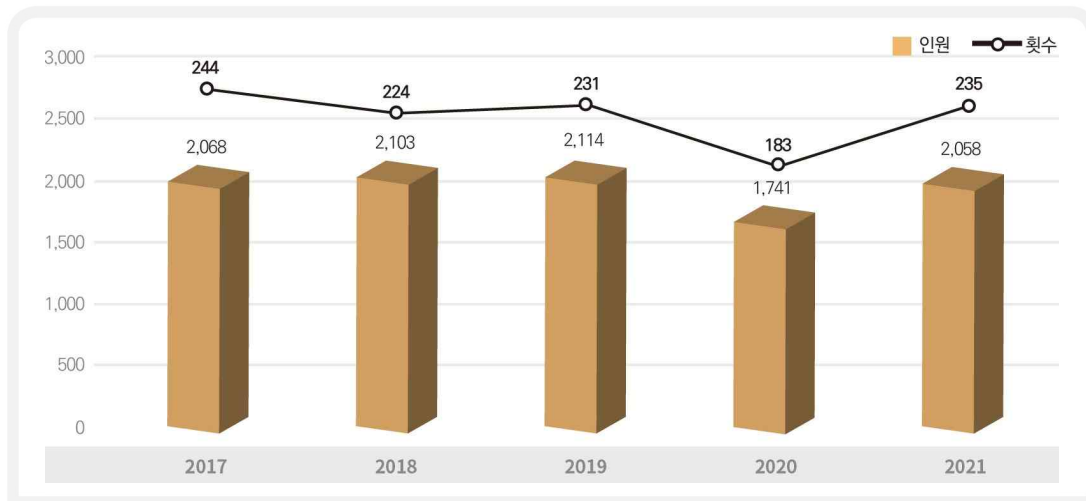


그림 9-1-4 ‘탈북청소년 법교육’ 실시 현황(2017~2021)

4) ‘시민법교육’ 실시 현황

지표정의

- 시민법교육 :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법률서비스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법률 강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강연 형식의 시민로스쿨, 강연과 문화공연을 결합한 시민 법률 콘서트 등으로 구성
- 실시 인원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프로그램 참여 인원

- ‘시민법교육’의 실시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0,813명(317회 실시)을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실시 인원과 횟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영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실시 인원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하였고, 2021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실시 인원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27,887명(111회 실시)이었다.

표 9-1-5 ‘시민법교육’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횟수	317	265	47	60	111
인원	10,813	9,021	6,080	25,345	27,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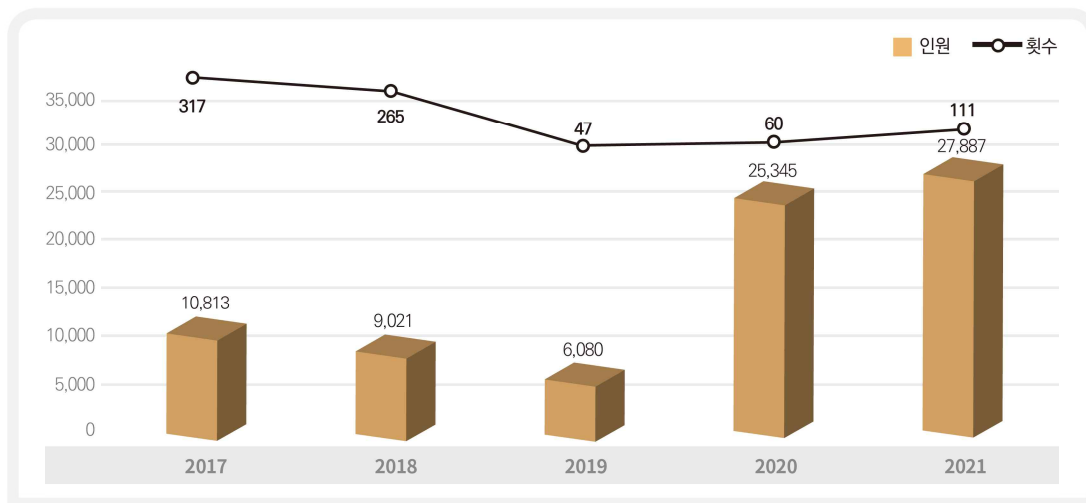


그림 9-1-5 ‘시민 법교육’ 실시 현황(2017~2021)

5) ‘이민자 법교육’ 실시 현황

지표정의

- 이민자 법교육 : 재한 외국인(결혼, 취업 이민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기초 생활법률 및 혼인과 법 등을 주제로 한 법교육으로 2015년도부터 실시
- 실시 인원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프로그램 참여 인원

- ‘이민자 법교육’의 실시 인원은 2017년 4,211명에서 2018년 1,822명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3,394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시기에 따라 편차가 컸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필수 대상자에 대한 교육만이 제한적으로 실시되면서 실시 인원이 급감하여 439명에 그쳤다. 그러나 2021년에는 실시 인원과 실시 횟수가 전년 대비 각각 421.6%와 303.5% 증가하여 2,290명과 117회를 나타냈다.

표 9-1-6 ‘이민자 법교육’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시현황					
횟수	224	88	163	29	117
인원	4,211	1,822	3,394	439	2,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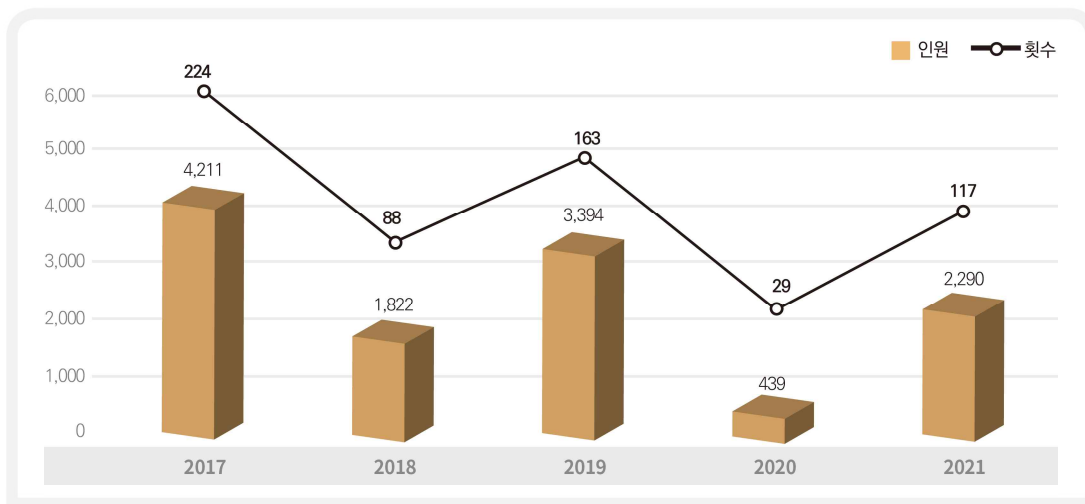


그림 9-1-6 ‘이민자 법교육’ 실시 현황(2017~2021)

6) ‘모두가 행복한 교실’ 및 ‘학생 자치 법교육’ 실시 현황

지표정의

- 모두가 행복한 교실 :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신청 학교에 대해 실시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타인·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과 역량 개발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인권 등 법무부가 개발하고 교육부가 인증한 기초 인성 교육 프로그램
- 학생 자치 법교육 : 교내의 자치규약을 제·개정하고 자치법정을 구성하며,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를 인권친화적·민주적 절차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 참여 학교 수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수

- ‘모두가 행복한 교실’에 참여한 학교 수는 2017년에 165개에서 2018년에는 152개, 2019년에는 118개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 178개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175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학생 자치 법교육’의 경우, 참여 학교 수가 2017년 1,030개에서 2018년에는 965개로 소폭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466개로 전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2020년 이후 참여 학교 수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2020년에는 755개, 2021년에는 870개이었다.

표 9-1-7 ‘모두가 행복한 교실’, ‘학생자치법교육’ 현황(2017~2021)

프로그램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모두가 행복한 교실(학교 수)	165	152	118	178	175
학생 자치 법교육(학교 수)	1,030	965	466	755	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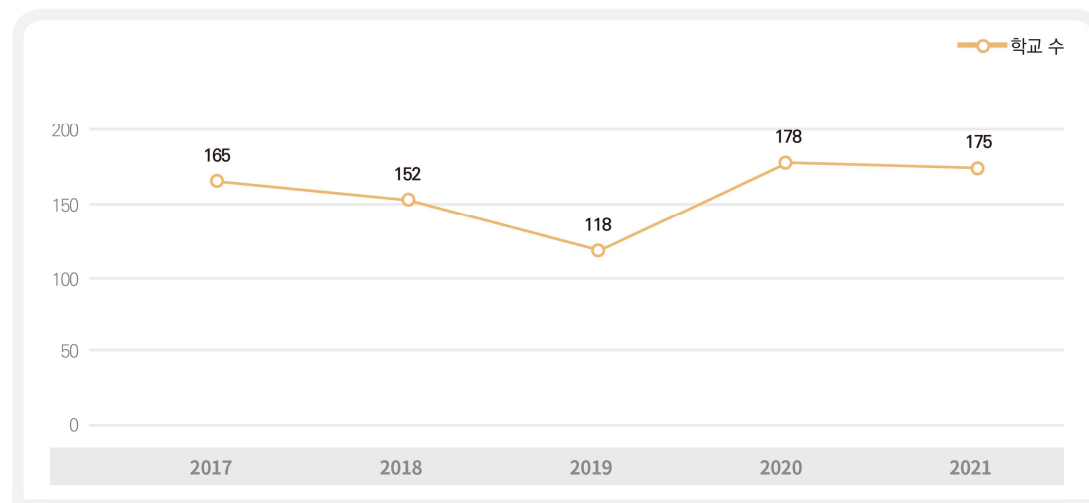


그림 9-1-7 ‘모두가 행복한 교실’ 실시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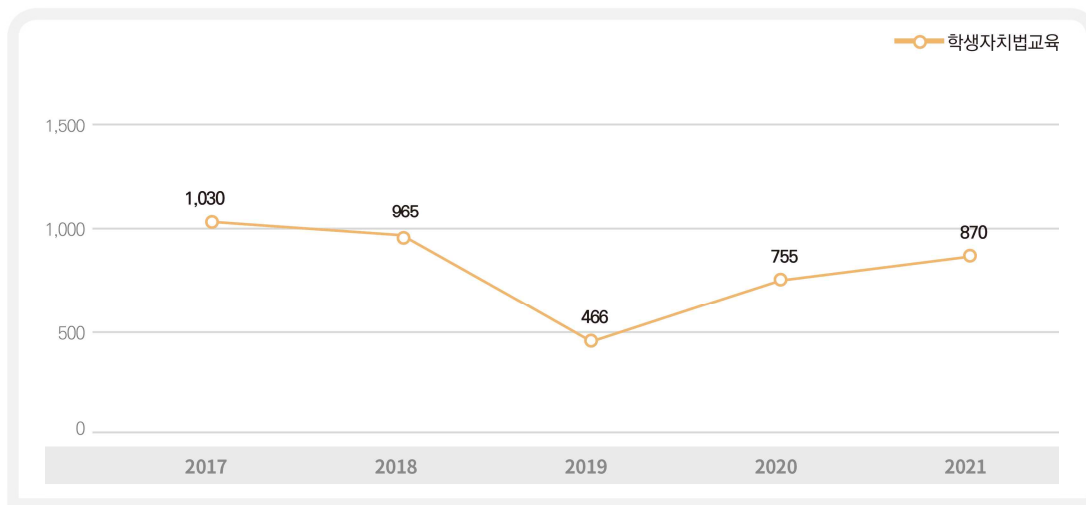


그림 9-1-8 '학생자치법교육' 실시 현황(2017~2021)

제 2 절

법교육 출장강연

1 개요

- 법교육 출장강연은 법교육 전문강사가 학교 등 강의를 신청한 현장에 직접 출강하여 학교폭력예방, 아동인권보장, 사이버범죄예방 등을 주제로 교육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그 교육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현장에서 직접 강연한다는 점에서 제1절의 법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다.
- 한편, 법교육 전문강사는 「법교육전문강사 운영 규정」에 따라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필기·시연 평가를 거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에 의해 위촉되며, 변호사, 교수,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현황

개 요

- 법교육 전문강사가 강의 신청 현장에 직접 출강하여 학교폭력예방, 아동인권보장, 사이버범죄예방 등의 주제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횟수 및 인원 현황
- 실시 인원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프로그램 참여 인원

-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인원와 횟수는 2017년(1,175,705명, 10,301회)을 정점으로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실시 인원와 횟수 모두 전년보다 늘어 실시 인원은 28.0% 증가한 316,640명이었고, 실시 횟수는 47.4% 증가한 4,119회이었다.

- ➔ 2019년 이후 법교육 출장강연의 대상 인원와 실시 횟수의 급감한 것은 법교육 출장강연 대상을 시민에서 초·중고 학생과 교사 위주로 집중·내실화하였고 시민에게는 법률콘서트·시민로스쿨 등을 중심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었다.
-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강연을 실시하였는데, 2021년에도 이러한 강연방식을 유지하면서 실시 인원와 횟수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표 9-2-1 법교육 출장강연 현황(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횟수	10,301	7,362	3,475	2,795	4,119
인원	1,175,705	519,257	275,625	247,377	316,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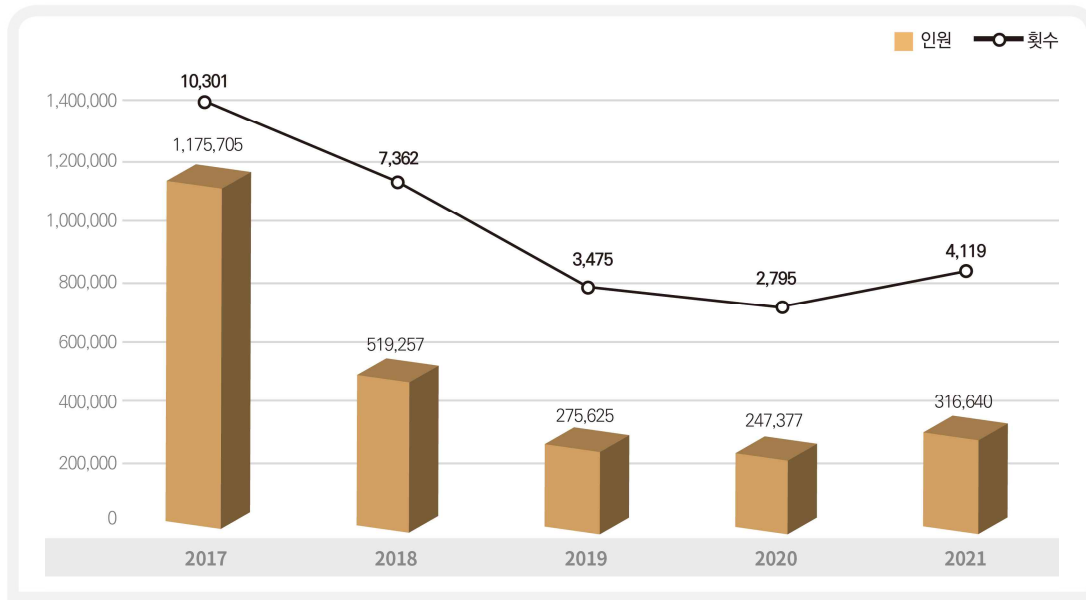


그림 9-2-1 법교육 출장강연 현황(2017~2021)

제 3 절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1 솔로몬로파크 개요

- 솔로몬로파크는 효과적인 법체험과 법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성된 법교육 테마파크로, 법체험관과 법연수관으로 구성된다. 법체험관은 모의법정, 모의국회, 과학수사 등 법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법체험 및 법진로 체험을 운영하며, 법연수관은 청소년 법연수, 시민 법연수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법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법체험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현재 ‘대전솔로몬로파크’(2008년 1월 개관, 대전광역시 소재)와 ‘부산솔로몬로파크’(2016년 7월 개관, 부산광역시 소재)가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솔로몬로파크’(광주광역시 소재)도 건립 중으로 2023년 1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다.

2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개 요

- 솔로몬로파크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횟수 및 인원 현황

지표정의

- 기획 법체험 : 법페스티벌, 제한절 특별 프로그램, 찾아가는 법체험 등 지역주민을 위한 법 축제 및 기획 행사 운영
- 법진로 체험 :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법관련 직업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법연수 : 초·중·고·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재판, 법률적 쟁점에 대한 토론, 법체험 및 법강연 프로그램 등 운영
- 시민 법연수 : 주부·시니어·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상식을 법률전문가가 강연 형식으로 전달
- 실시 인원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프로그램 참여 인원

- 2021년 대전솔로몬로파크의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인원은 총 5,173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다. 이는 2021년 신설된 기획 법체험과 법진로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 및 연수 프로그램을 다변화한 결과이다.

표 9-3-1 대전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연간인원	직무연수		주부로스쿨		어린이캠프		청소년캠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7	2,201	4	146	3	117	25	1,012	23	926
2018	1,906	4	140	3	144	24	916	20	706
2019	1,753	6	164	2	82	23	881	18	626
2020	175	3	97	0	0	1	10	2	68

연도	연간인원	기획 법체험		법진로체험		청소년 법연수		시민 법연수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21	5,173	27	2,212	39	2,556	12	165	8	240

※ 2021년 솔로몬로파크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직무연수는 꿈키움센터의 업무로 이관, 조정하였고, 주부로스쿨은 시민법연수로 확대함. 또한 어린이 캠프 및 청소년 캠프는 청소년 법연수로 통합하였고, 기획 법 체험 및 법진로체험을 신설함

- 부산솔로몬로파크의 경우에도, 2021년의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인원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역시 2021년 신설된 기획 법체험과 법진로체험 등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을 다변화한 결과이다.

표 9-3-2 부산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2017~2021)

연도	연간인원	직무연수		주부로스쿨		어린이캠프		청소년캠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7	1,334	8	268	2	42	8	345	19	679
2018	1,419	12	320	1	26	7	230	22	843
2019	1,179	8	203	3	88	12	358	14	530
2020	158	4	128	1	5	1	25	0	0

연도	연간인원	기획 법체험		법진로체험		청소년 법연수		시민 법연수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21	6,375	70	4,131	44	2,053	3	65	6	126

※ 2021년 솔로몬로파크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직무연수는 꿈키움센터의 업무로 이관, 조정하였고, 주부로스쿨은 시민 법연수로 확대함. 또한 어린이 캠프 및 청소년 캠프는 청소년 법연수로 통합하였고, 기획 법 체험 및 법진로체험을 신설함

3 솔로몬로파크 방문 인원 현황

개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솔로몬로파크의 방문 인원 현황

- 최근 5년간 전국 솔로몬로파크의 전체 방문 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493,75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8년에는 전년 대비 31% 감소한 478,629명을,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6% 감소한 375,065명을 나타내는 등 감소추세가 이어졌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전년도의 19.9% 수준인 74,593명에 그쳤고, 2021년에는 86,803명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표 9-3-3 솔로몬로파크 방문 인원 현황(2017~2021)

연도	계	대전솔로몬로파크	부산솔로몬로파크
2017	493,751	269,573	224,178
	100%	54.6%	45.4%
2018	478,629	254,687	223,942
	100%	53.2%	46.8%
2019	375,065	156,529	218,536
	100%	41.7%	58.3%
2020	74,593	29,372	45,221
	100%	39.4%	60.6%
2021	86,803	48,453	38,350
	100%	55.8%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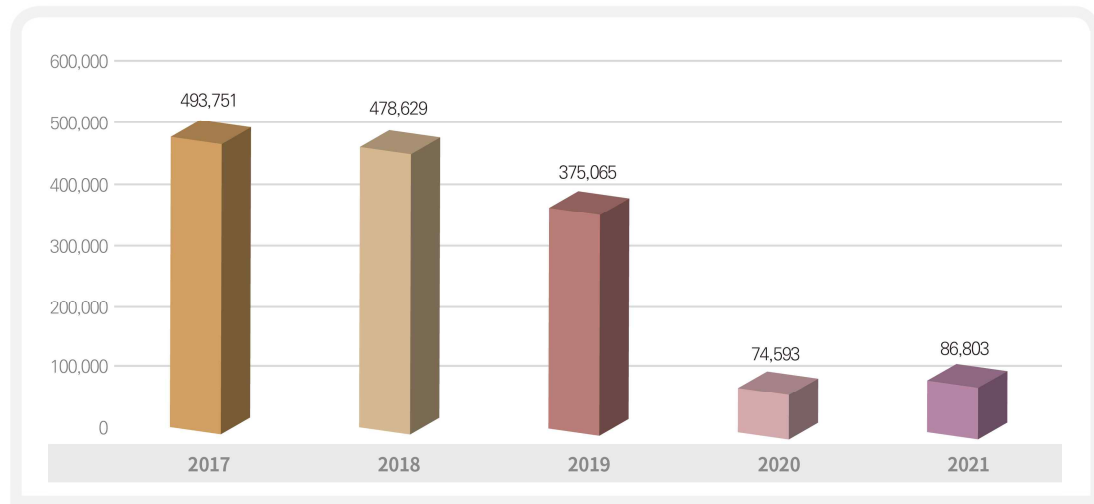


그림 9-3-1 솔로몬로파크 방문 인원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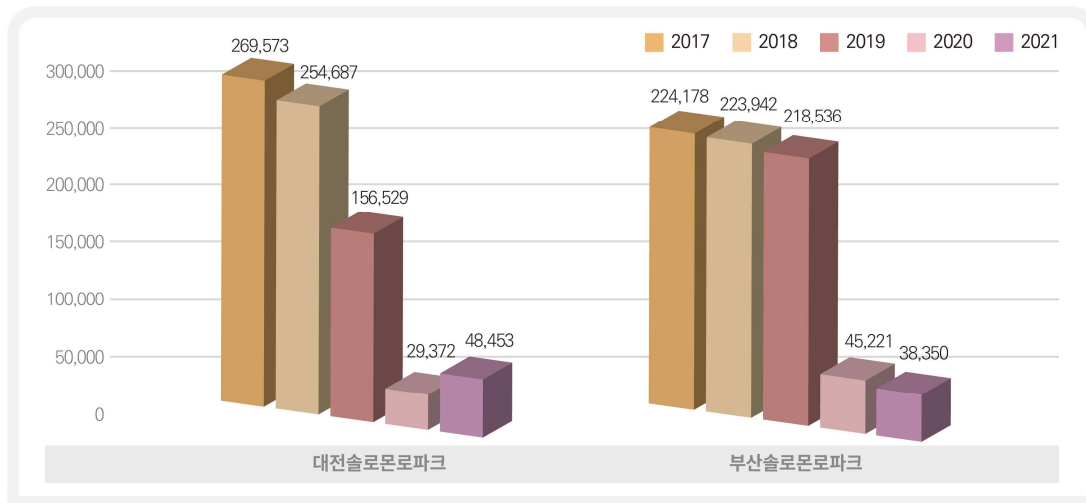


그림 9-3-2 기관별 솔로몬로파크 방문 인원 현황(2017~2021)



통계분석

2022 범죄예방정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부록 1.

범죄예방정책국 정원 및 인력 증원 현황

1.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정원 현황
2. 보호관찰기관 업무별 보호직 정원 현황
3. 제도 도입 관련 인력증원 현황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1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정원 현황

연도	기관	계	보호직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전문경력관
2014	보호관찰기관	1,538	1,441	70	27	—
	소년보호기관	801	592	128	61	20
	국립법무병원	368	34	288	29	17
	계	2,707	2,067	486	117	37
2015	보호관찰기관	1,537	1,442	74	21	—
	소년보호기관	802	596	137	49	20
	국립법무병원	379	37	303	22	17
	계	2,718	2,075	514	92	37
2016	보호관찰기관	1,525	1,431	75	19	—
	소년보호기관	807	602	148	37	20
	국립법무병원	389	37	314	21	17
	계	2,721	2,070	537	77	37
2017	보호관찰기관	1,573	1,479	75	19	—
	소년보호기관	822	617	148	37	20
	국립법무병원	416	37	341	21	17
	계	2,811	2,133	564	77	37
2018	보호관찰기관	1,579	1,484	76	19	—
	소년보호기관	872	659	154	37	22
	국립법무병원	419	37	344	21	17
	계	2,870	2,180	574	77	39
2019	보호관찰기관	1,711	1,615	77	19	—
	소년보호기관	920	688	162	35	35
	국립법무병원	419	36	345	21	17
	계	3,050	2,339	584	75	52
2020	보호관찰기관	1,767	1,671	77	19	—
	소년보호기관	974	742	163	34	35
	국립법무병원	443	37	368	21	17
	계	3,184	2,450	608	74	52
2021	보호관찰기관	1,955	1,859	77	19	—
	소년보호기관	982	742	171	32	37
	국립법무병원	443	37	369	20	17
	계	3,380	2,638	617	71	54
2022	보호관찰기관	2,044	1,948	77	19	—
	소년보호기관	992	748	176	31	37
	국립법무병원	456	37	383	19	17
	계	3,492	2,733	636	69	54

※ <직군, 직렬 구분 참고자료>

1. 기술직군 : 전산, 시설, 의무, 약무, 간호,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공업, 운전, 조리, 간호조무, 방송통신
2. 관리운영직군 : 방호, 관리운영

2 보호관찰기관 업무별 보호직 정원 현황

연번	업 무	정원	비 고
1	전자감독	418	
2	성인보호관찰	398	
3	소년보호관찰	228	
4	사회봉사명령	138	
5	수감명령	117	
6	조사	174	
7	위치추적 관제 업무	70	

3 제도 도입 관련 인력증원 현황

연번	제도연도(도입연도)	인력증원				비고
		연도	인원	직급	인원	
1	치료명령제도(2016년)	2017년	13	7급	13	
2	벌금형 집행유예제도(2018년)	2020년	52	6급	10	
				7급	14	
				8급	14	
				9급	14	
3	교육수용전담제(2018년)	2018년	38	6급	10	
				7급	10	
				8급	10	
				9급	8	
		2019년	47	6급	4	
				7급	6	
				8급	10	
				9급	14	
				전문경력관나군	13	
		2020년	42	6급	6	
				7급	12	
				8급	13	
				9급	11	
4	전자감독 확대 • 1:1 전자감독 제도(2019년) • 전자보석 제도(2020년) • 전자감독 가석방 확대(2020년)	2021년	101	6급	19	
				8급	32	
				7급	33	
				9급	17	
		2022년	88	6급	17	
				8급	29	
				7급	29	
				9급	13	



부록 2.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1.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2. 검찰 처분 현황
3. 형사공판사건 처리 현황
4.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등 처분 현황
5. 소년보호사건 처분 현황
6. 가정보호사건 처분 현황
7. 성매매보호사건 처분 현황
8. 아동보호사건 처분 현황
9. 가석방 현황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1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1) 범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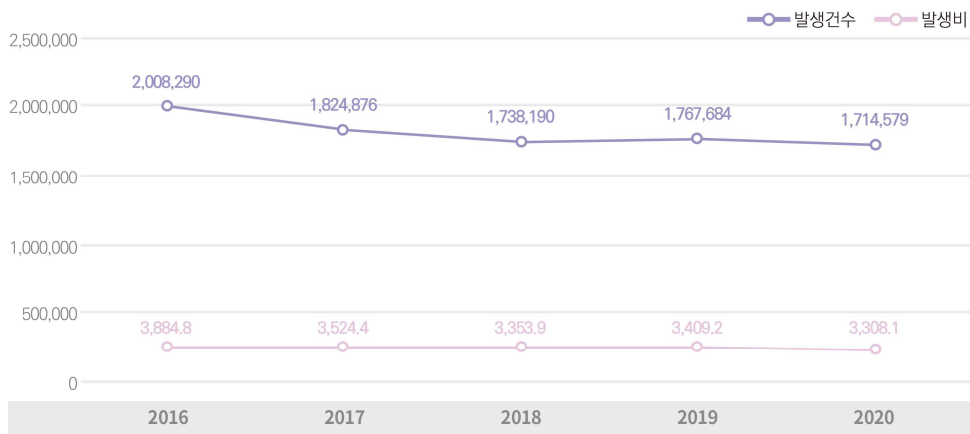
(1) 개요

-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2,008,290건에서 2017년 1,824,876건, 2018년 1,738,190건, 2019년 1,767,684건, 2020년 1,714,579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2,008,290	1,824,876	1,738,190	1,767,684	1,714,579
발생비*	3,884.8	3,524.4	3,353.9	3,409.2	3,308.1

*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2021년 재구성



| 범죄 발생 현황(2016~2020) |

(2) 주요 범죄별 발생 현황

연도 \ 구분	살인		성폭력		강도		방화	
	건수	발생비*	건수	발생비*	건수	발생비*	건수	발생비*
2016	948	1.8	29,357	56.8	1,181	2.3	1,477	2.9
2017	858	1.7	32,824	63.4	990	1.9	1,358	2.6
2018	849	1.6	32,104	61.9	841	1.6	1,478	2.9
2019	847	1.6	32,029	61.8	845	1.6	1,345	2.6
2020	805	1.6	30,105	58.1	692	1.3	1,210	2.3

연도	구분	폭행/상해**		교통***		절도		사기	
		건수	발생비*	건수	발생비*	건수	발생비	건수	발생비*
2016		228,710	442.4	600,970	1,162.5	203,573	393.8	250,600	484.8
2017		215,717	416.6	529,950	1,023.5	184,355	356.0	241,642	466.7
2018		208,935	403.1	433,350	836.2	177,458	342.4	278,566	537.5
2019		203,074	391.7	406,023	783.1	187,629	361.9	313,593	604.8
2020		180,604	348.5	377,417	728.2	173,650	335.0	354,154	683.3

*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

** 폭행/상해범죄는 형법범죄 중 폭행과 상해범죄 이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죄 중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은 제외

*** 교통범죄는 교통사고 범죄와 교통사고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로 구분, 교통사고 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이 포함되며, 기타 교통범죄에는 '교통방해의죄',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이 포함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2021년 재구성

2) 검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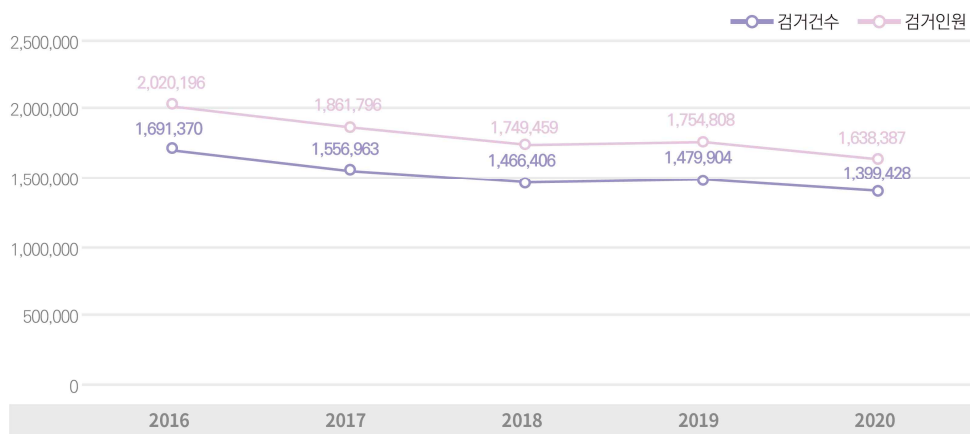
(1) 개요

- 최근 5년간(2016~2020년) 범죄 검거 인원은 2016년 2,020,196명에서 2017년 1,861,796명, 2018년 1,749,459명, 2019년 1,754,808명, 2020년 1,638,387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검거건수		1,691,370	1,556,963	1,466,406	1,479,904	1,399,428
검거인원*		2,020,196	1,861,796	1,749,459	1,754,808	1,638,387

* 검거 대상 중 법인 제외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2021년 재구성



| 범죄 검거 현황(2016~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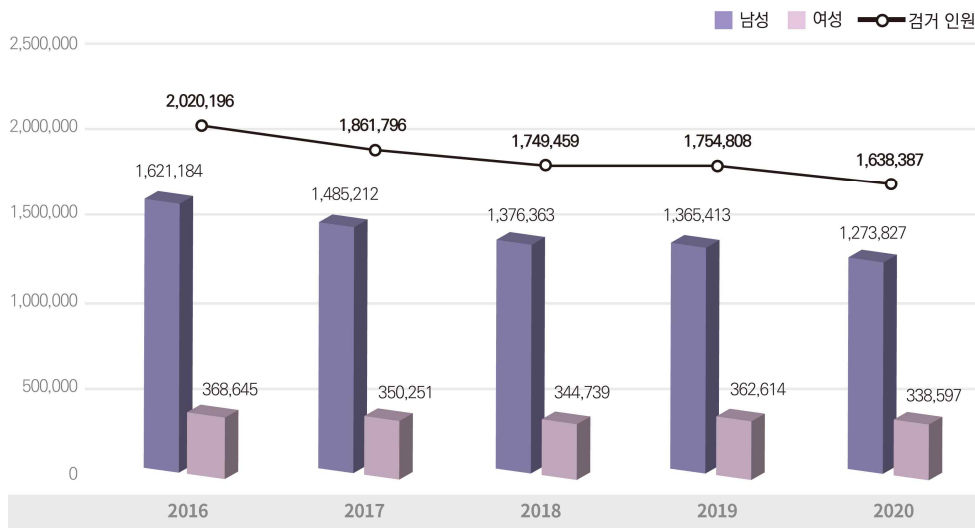
(2) 성별 현황

- 최근 5년간(2016~2020년) 검거된 범죄자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남성이 77~80%, 여성이 18~21%이었다.

연도	구분	계	남성	여성	미상
2016		2,020,196	1,621,184	368,645	30,367
		100%	80.2%	18.2%	1.5%
2017		1,861,796	1,485,212	350,251	26,333
		100%	79.8%	18.8%	1.4%
2018		1,749,459	1,376,363	344,739	28,357
		100%	78.7%	19.7%	1.6%
2019		1,754,808	1,365,413	362,614	26,781
		100%	77.8%	20.7%	1.5%
2020		1,638,387	1,273,827	338,597	25,963
		100%	77.7%	20.7%	1.6%

※ 검거 인원(법인, 미상 제외) 기준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2021년 재구성



| 검거 인원의 성별 현황(2016~2020) |

(3)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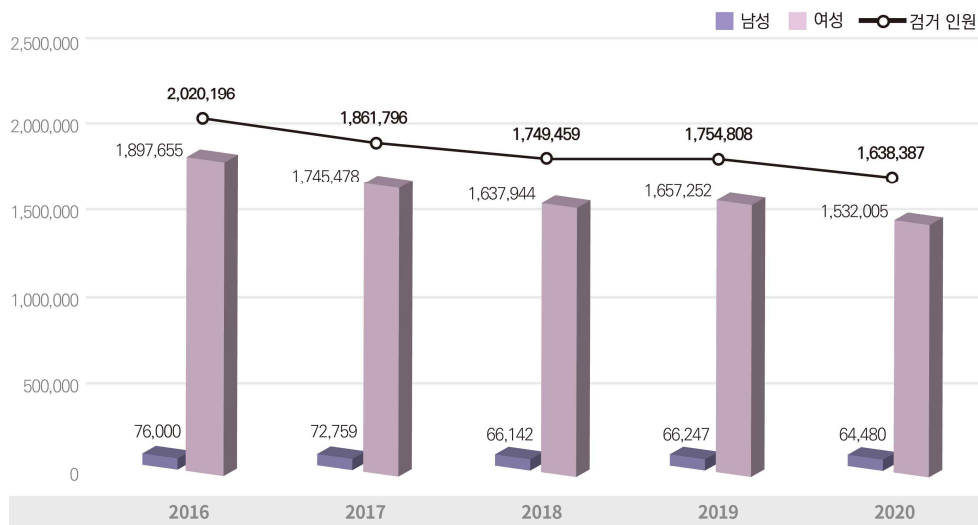
□ 개요

- 최근 5년간(2016~2020년) 검거된 범죄자를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성인이 약 94%, 소년이 약 4%이었다.

연도	구분	계	소년	성인	미상
2016		2,020,196	76,000	1,897,655	46,541
		100%	3.8%	93.9%	2.3%
2017		1,861,796	72,759	1,745,478	43,559
		100%	3.9%	93.8%	2.3%
2018		1,749,459	66,142	1,637,944	45,373
		100%	3.8%	93.6%	2.6%
2019		1,754,808	66,247	1,657,252	31,309
		100%	3.8%	94.4%	1.8%
2020		1,638,387	64,480	1,532,005	41,902
		100%	3.9%	93.5%	2.6%

※ 검거 인원(법인, 미상 제외) 기준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2021년 재구성



| 검거 인원의 연령별 현황(2016~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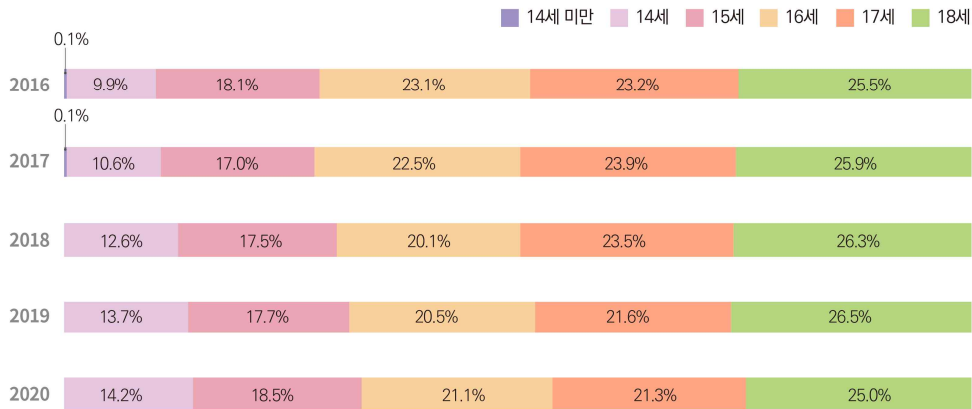
□ 소년의 연령별 세부 현황

연도 \ 연령	14세 미만*	14	15	16	17	18
2016	84	7,530	13,789	17,589	17,607	19,401
2017	93	7,703	12,376	16,391	17,358	18,838
2018	—	8,321	11,595	13,306	15,513	17,407
2019	—	9,053	11,730	13,548	14,338	17,578
2020	—	9,124	11,956	13,578	13,725	16,097

*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범행 당시의 연령을 만 나이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결측치 및 이상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대체, 「2018 범죄분석」부터 '14세 미만' 제외 작성

※ 검거 인원(범인, 미상 제외) 기준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2021년 재구성



| 소년 범죄자의 연령별 점유율(2016~2020) |

□ 성인의 연령별 세부 현황

연도 \ 연령	19	20~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70	71 이상
2016	22,963	160,396	158,537	194,990	198,261	236,612	262,341	256,499	197,955	159,803	49,298
2017	20,882	153,403	144,360	164,623	180,967	203,467	237,828	227,841	196,968	165,006	50,133
2018	19,414	141,051	133,269	140,005	168,897	180,180	220,190	212,241	195,107	173,427	54,163
2019	20,511	139,885	137,049	131,076	169,713	172,082	216,817	210,138	203,731	193,466	62,784
2020	19,858	134,996	129,654	116,195	151,650	151,885	190,437	195,650	185,680	192,688	63,312

※ 검거 인원(범인, 미상 제외) 기준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2021년 재구성

(4) 외국인 범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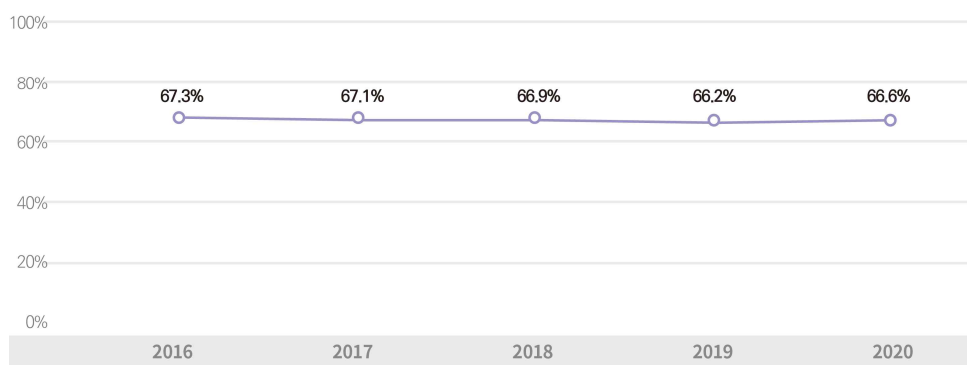
연도	구분	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소년	성인	미상
2016		2,020,196	1,976,733	43,463	328	41,669	1,466
		100%	97.8%	2.2%	0.0%	2.1%	0.1%
2017		1,861,796	1,825,519	36,277	423	34,475	1,379
		100%	98.1%	1.9%	0.0%	1.8%	0.1%
2018		1,749,459	1,714,629	34,830	368	32,837	1,625
		100%	98.0%	2.0%	0.0%	1.9%	0.1%
2019		1,754,808	1,715,439	39,369	481	38,481	407
		100%	97.8%	2.2%	0.0%	2.2%	0.0%
2020		1,638,387	1,600,232	38,155	530	36,606	1,019
		100%	97.7%	2.3%	0.0%	2.2%	0.1%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2021년 재구성

(5) 범죄자의 전과 현황

연도	구분	계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2016		2,020,196	437,154	897,996	202,982	140,792	103,323	78,001	62,230	48,508	37,991	30,401	193,768	685,046
2017		1,861,796	398,684	811,653	182,989	127,597	93,621	70,358	55,108	43,763	33,553	27,214	177,450	651,459
2018		1,749,459	362,702	731,911	162,430	112,024	82,789	62,412	49,327	38,595	31,313	24,314	168,707	654,846
2019		1,754,808	366,305	717,603	157,761	108,353	80,646	60,317	48,576	37,424	30,453	23,862	170,211	670,900
2020		1,638,387	336,625	672,276	144,700	99,188	75,328	56,037	44,917	34,913	28,840	22,554	165,799	629,486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2021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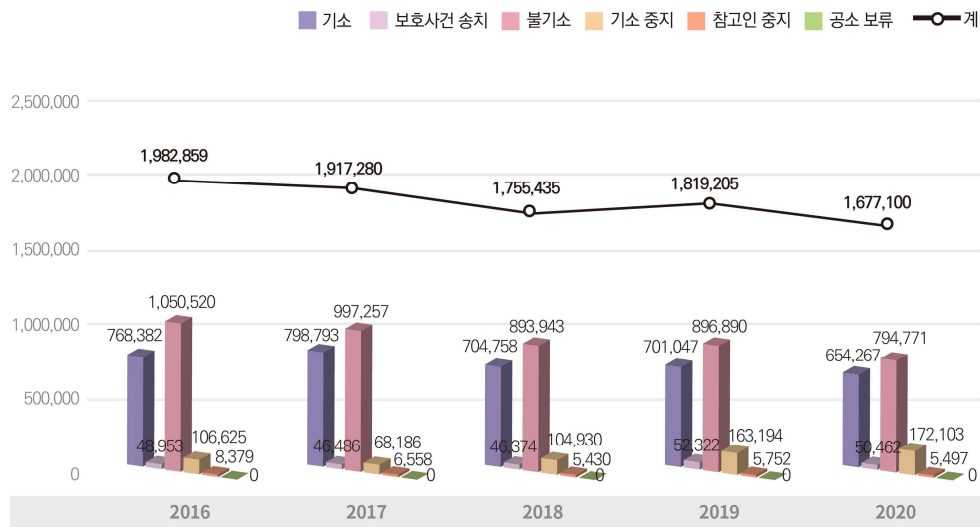
| 범죄자의 전과자 비율 추이(2016~2020) |

2 검찰 처분 현황

1) 개요

구분 연도	계	기소	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 보류
2016	1,982,859	768,382	48,953	1,050,520	106,625	8,379	0
	100%	38.8%	2.5%	53.0%	5.4%	0.4%	0.0%
2017	1,917,280	798,793	46,486	997,257	68,186	6,558	0
	100%	41.7%	2.4%	52.0%	3.6%	0.3%	0.0%
2018	1,755,435	704,758	46,374	893,943	104,930	5,430	0
	100%	40.1%	2.6%	50.9%	6.0%	0.3%	0.0%
2019	1,819,205	701,047	52,322	896,890	163,194	5,752	0
	100%	38.5%	2.9%	49.3%	9.0%	0.3%	0.0%
2020	1,677,100	654,267	50,462	794,771	172,103	5,497	0
	100%	39.0%	3.0%	47.4%	10.3%	0.3%	0.0%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2021년 재구성



| 검찰 처분 현황 개요(2016~2020) |

2) 기소 및 보호사건 송치 세부 현황

연도\구분	기소				보호사건 송치			
	계	구공판		구약식	소년보호	가정보호	성매매보호	아동보호
		구속	불구속					
2016	768,382	33,433	156,094	578,855	23,953	21,613	1,343	2,044
	38.8%	1.7%	7.9%	29.2%	1.2%	1.1%	0.1%	0.1%
2017	798,793	30,419	164,174	604,200	24,521	18,609	846	2,510
	41.7%	1.6%	8.6%	31.5%	1.3%	1.0%	0.0%	0.1%
2018	704,758	26,021	160,150	518,587	23,544	19,589	459	2,782
	40.1%	1.5%	9.1%	29.5%	1.3%	1.1%	0.0%	0.2%
2019	701,047	25,845	176,730	498,472	24,728	23,401	257	3,936
	38.5%	1.4%	9.7%	27.4%	1.4%	1.3%	0.0%	0.2%
2020	654,267	23,079	196,576	434,612	25,945	19,609	217	4,691
	39.0%	1.4%	11.7%	25.9%	1.5%	1.2%	0.0%	0.3%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2021년 재구성

3) 불기소 세부 현황

연도	구분	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16		1,050,520	357,185	350,457	3,287	339,591
		53.0%	18.0%	17.7%	0.2%	17.1%
2017		997,257	330,793	326,457	3,440	336,567
		52.0%	17.3%	17.0%	0.2%	17.6%
2018		893,943	268,731	293,558	3,666	327,988
		50.9%	15.3%	16.7%	0.2%	18.7%
2019		896,890	241,923	324,231	3,734	327,002
		49.3%	13.3%	17.8%	0.2%	18.0%
2020		794,771	213,541	319,731	3,643	257,856
		47.4%	12.7%	19.1%	0.2%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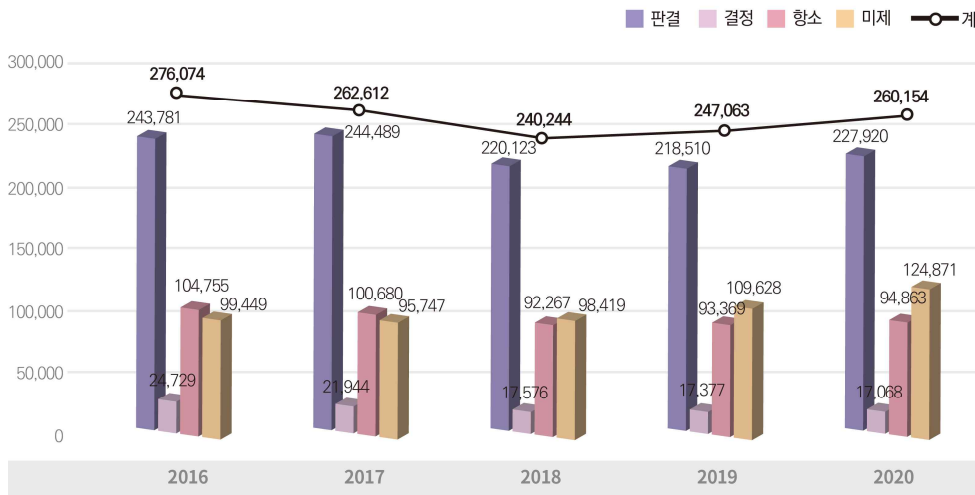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2021년 재구성

3 형사공판사건 처리 현황

1) 형사공판사건 처리결과 개요(1심 기준)

연도	접수사건	처 리			항소	미제
		계	판 결	결 정		
2016	276,074	268,510	243,781	24,729	104,755	99,449
2017	262,612	266,433	244,489	21,944	100,680	95,747
2018	240,244	237,699	220,123	17,576	92,267	98,419
2019	247,063	235,887	218,510	17,377	93,369	109,628
2020	260,154	244,988	227,920	17,068	94,863	124,871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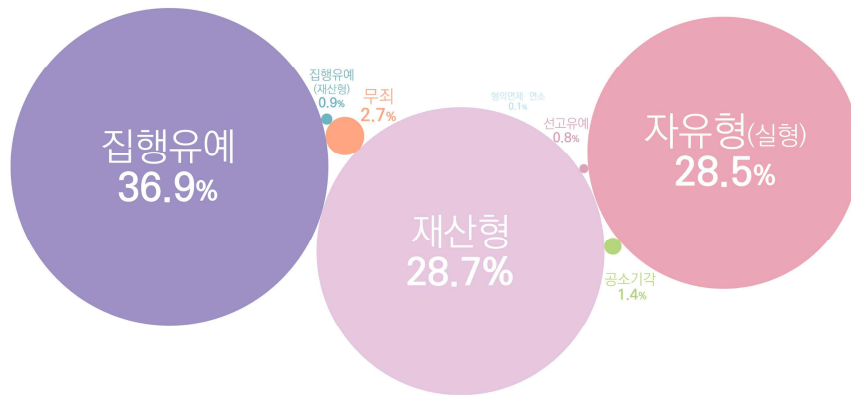


| 형사공판사건 처리결과 개요(1심 기준)(2016~2020) |

2) 형사공판사건의 처리결과(1심 판결 기준)

연도	구분	계	생명형	자유형 (실형)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집행유예 (재산형)	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관할위반	공소기각
2016		243,781	0	61,519	86,675	11	79,488	—	3,186	9,080	316	4	3,502
		100%	0.0%	25.2%	35.6%	0.0%	32.6%	—	1.3%	3.7%	0.1%	0.0%	1.4%
2017		244,489	0	60,279	89,716	2	78,591	—	3,369	8,916	348	2	3,266
		100%	0.0%	24.7%	36.7%	0.0%	32.1%	—	1.4%	3.6%	0.1%	0.0%	1.3%
2018		220,123	5	59,835	80,070	0	65,985	913	2,335	7,496	355	3	3,126
		100%	0.0%	27.2%	36.4%	0.0%	30.0%	0.4%	1.1%	3.4%	0.2%	0.0%	1.4%
2019		218,510	3	63,131	81,565	2	59,780	1,695	1,856	6,868	373	4	3,233
		100%	0.0%	28.9%	37.3%	0.0%	27.4%	0.8%	0.8%	3.1%	0.2%	0.0%	1.5%
2020		227,920	0	64,886	84,046	2	65,313	2,010	1,817	6,267	298	7	3,274
		100%	0.0%	28.5%	36.9%	0.0%	28.7%	0.9%	0.8%	2.7%	0.1%	0.0%	1.4%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 형사공판사건의 처리결과(1심 판결 기준)(2020) |

3) 형사공판사건의 처리 결과(1심 결정 기준)

연도 \ 구분	계	공소기각	소년부송치	기타
2016	24,729	1,929	1,721	21,079
	100%	7.8%	7.0%	85.2%
2017	21,944	2,344	1,428	18,172
	100%	10.7%	6.5%	82.8%
2018	17,576	2,081	1,419	14,076
	100%	11.8%	8.1%	80.1%
2019	17,377	2,168	1,386	13,823
	100%	12.5%	8.0%	79.5%
2020	17,068	2,140	1,325	13,603
	100%	12.5%	7.8%	79.7%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4)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 형기별 인원(1심 기준)

연도 \ 기간	계	무기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집행유예	부정기
2016	148,194	43	505	2,272	5,742	27,416	24,844	86,675	697
2017	149,995	32	466	2,247	5,721	26,627	24,684	89,716	502
2018	139,905	29	506	2,227	5,324	27,493	23,630	80,070	626
2019	144,696	16	487	2,148	5,834	30,671	23,263	81,565	712
2020	148,932	37	476	2,583	6,862	34,414	19,606	84,046	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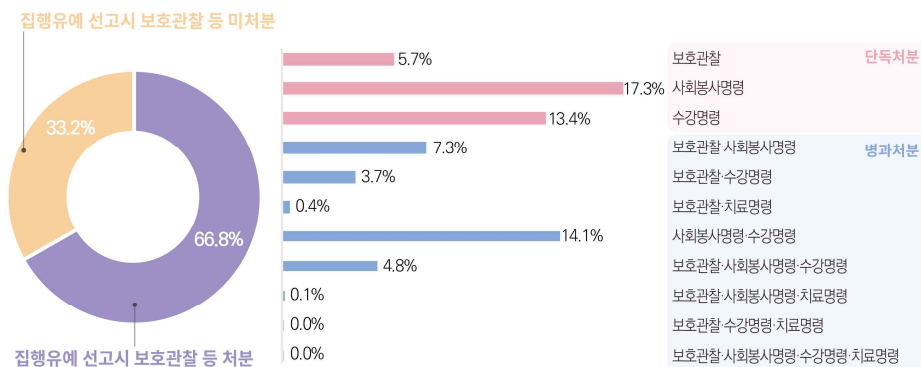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4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등 처분 현황

-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함께 선고되는 비율이 2016년 60.7%, 2017년 61.8%, 2018년 63.5%이었고, 2019년에는 64.6%, 2020년에는 66.8%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집행유예		86,675	89,716	80,983	83,260	86,056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등 처분(계)		52,592	55,465	51,341	53,762	57,451
		60.7%	61.8%	63.5%	64.6%	66.8%
단독 처분	보호관찰	5,093	5,439	4,332	5,353	4,867
		5.9%	6.1%	5.3%	6.4%	5.7%
	사회봉사명령	16,566	17,245	16,999	16,540	14,854
		19.1%	19.2%	21.0%	19.9%	17.3%
	수강명령	8,891	10,208	8,859	9,718	11,581
		10.3%	11.4%	10.9%	11.7%	13.4%
병과 처분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7,922	7,428	6,236	6,383	6,259
		9.1%	8.3%	7.7%	7.7%	7.3%
	보호관찰·수강명령	3,711	3,529	2,503	3,287	3,220
		4.3%	3.9%	3.1%	3.9%	3.7%
	보호관찰·치료명령	0	0	371	420	355
		0.0%	0.0%	0.5%	0.5%	0.4%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6,856	7,997	8,625	8,801	12,118
		7.9%	8.9%	10.7%	10.6%	14.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3,553	3,619	3,328	3,157	4,106
		4.1%	4.0%	4.1%	3.8%	4.8%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치료명령	0	0	39	27	53
		0.0%	0.0%	0.1%	0.0%	0.1%
	보호관찰·수강명령·치료명령	0	0	47	58	28
		0.0%	0.0%	0.1%	0.1%	0.0%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치료명령	0	0	2	18	10
		0.0%	0.0%	0.0%	0.0%	0.0%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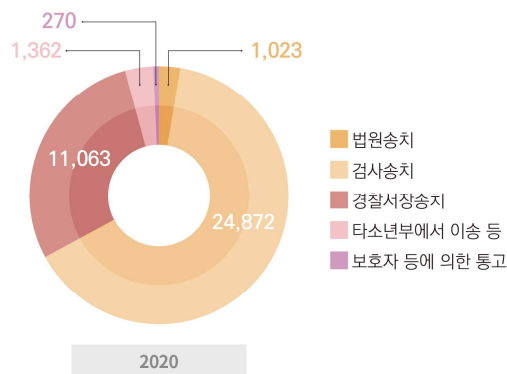
|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등 처분 현황(2020) |

5 소년보호사건 처분 현황

1) 소년보호사건 접수 현황

구분 연도	계	법원송치	검사송치	경찰서장송치	타소년부에서 이송 등	보호자 등에 의한 통고 (소년법 제4조제3항)
2016	33,738	1,357	24,319	6,788	915	359
2017	34,110	1,124	24,014	7,743	876	353
2018	33,301	954	22,578	8,335	1,027	407
2019	36,576	876	23,511	10,460	1,285	444
2020	38,590	1,023	24,872	11,063	1,362	270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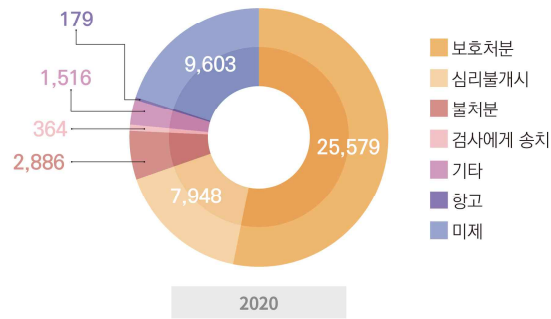


| 소년보호사건 접수 현황(2020) |

2) 소년보호사건 처리 현황 개요

구분 연도	계	처리					항고	미제
		보호처분	심리불개시	불처분	검사에게 송치	기타		
2016	33,142	23,526	5,547	2,650	313	1,106	143	8,845
2017	34,474	24,383	5,676	2,985	370	1,060	163	8,522
2018	34,276	24,494	5,590	2,805	305	1,082	191	7,576
2019	34,890	24,131	6,556	2,557	351	1,295	224	9,298
2020	38,293	25,579	7,948	2,886	364	1,516	179	9,603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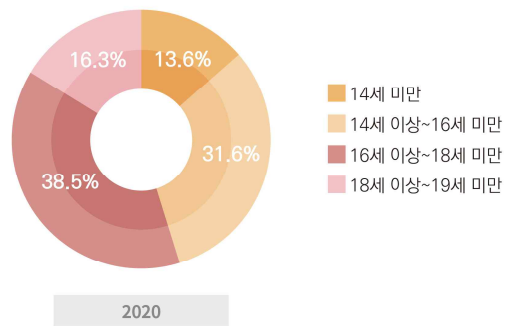


| 소년보호사건 처리 현황(2020) |

3) 보호소년 연령별 현황(2020)

연령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16세 미만	16세 이상~18세 미만	18세 이상~19세 미만
인원	25,579	3,465	8,088	9,852	4,174
	100%	13.6%	31.6%	38.5%	16.3%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1



| 보호소년 연령별 현황(2020) |

4) 소년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23,526 (100)	24,383 (100)	24,494 (100)	24,131 (100)	25,579 (100)
1호	3,142 (13.4)	3,135 (12.9)	3,104 (12.7)	3,103 (12.9)	3,054 (11.9)
1,2호	2,554 (10.9)	2,504 (10.3)	2,963 (12.1)	3,143 (13.0)	3,531 (13.8)
1,2,3호	557 (2.4)	727 (3.0)	776 (3.2)	574 (2.4)	776 (3.0)
1,2,4호	3,255 (13.8)	3,025 (12.4)	3,022 (12.3)	2,844 (11.8)	3,361 (13.1)
1,2,5호	1,009 (4.3)	969 (4.0)	886 (3.6)	1,048 (4.3)	1,293 (5.1)
1,2,3,4호	1,272 (5.4)	1,393 (5.7)	1,262 (5.2)	838 (3.5)	940 (3.7)
1,2,3,5호	1,413 (6.0)	1,519 (6.2)	1,238 (5.1)	1,269 (5.3)	1,432 (5.6)
1,3호	851 (3.6)	851 (3.5)	754 (3.1)	759 (3.1)	743 (2.9)
1,3,4호	1,194 (5.1)	1,086 (4.4)	958 (3.9)	915 (3.8)	940 (3.7)
1,3,5호	891 (3.8)	802 (3.3)	754 (3.1)	847 (3.5)	859 (3.4)
1,4호	1,923 (8.2)	1,508 (6.2)	1,447 (5.9)	1,517 (6.3)	1,769 (6.9)
1,5호	522 (2.2)	505 (2.1)	443 (1.8)	627 (2.6)	467 (1.8)
2호	59 (0.3)	159 (0.7)	274 (1.1)	187 (0.8)	294 (1.1)
3호	87 (0.4)	67 (0.3)	175 (0.7)	200 (0.8)	208 (0.8)
4호	154 (0.7)	270 (1.1)	279 (1.1)	231 (1.0)	264 (1.0)
4,6호	33 (0.1)	41 (0.2)	32 (0.1)	52 (0.2)	102 (0.4)
5호	27 (0.1)	80 (0.3)	81 (0.3)	109 (0.4)	81 (0.3)
5,6호	1,063 (4.5)	986 (4.0)	1,229 (5.0)	1,440 (6.0)	1,508 (5.9)
5,8호	1,012 (4.3)	1,099 (4.5)	1,194 (4.9)	1,036 (4.3)	1,005 (3.9)
6호	5 (0.0)	7 (0.0)	5 (0.0)	5 (0.0)	4 (0.0)
7호	105 (0.4)	198 (0.8)	230 (0.9)	269 (1.1)	189 (0.7)
8호	3 (0.0)	—	9 (0.0)	25 (0.1)	6 (0.0)
9호	770 (3.3)	972 (4.0)	842 (3.4)	821 (3.4)	750 (2.9)
10호	770 (3.3)	756 (3.1)	779 (3.2)	780 (3.2)	823 (3.2)
병과처분기타	855 (3.6)	1,724 (7.1)	1,758 (7.2)	1,492 (6.2)	1,180 (4.6)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2020. 12. 20. 개정, 2021. 4. 21. 시행)

-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처분 : 수강명령
-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1호 처분]

연도\구분	계	1호	1·2호	1·2·3호	1·2·4호	1·2·5호	1·2·3·4호	1·2·3·5호	1·3호	1·3·4호	1·3·5호	1·4호	1·5호
2016	18,583	3,142	2,554	557	3,255	1,009	1,272	1,413	851	1,194	891	1,923	522
	79.1%	13.4%	10.9%	2.4%	13.8%	4.3%	5.4%	6.0%	3.6%	5.1%	3.8%	8.2%	2.2%
2017	18,024	3,135	2,504	727	3,025	969	1,393	1,519	851	1,086	802	1,508	505
	74.1%	12.9%	10.3%	3.0%	12.4%	4.0%	5.7%	6.2%	3.5%	4.5%	3.3%	6.2%	2.1%
2018	17,607	3,104	2,963	776	3,022	886	1,262	1,238	754	958	754	1,447	443
	72.0%	12.7%	12.1%	3.2%	12.3%	3.6%	5.2%	5.1%	3.1%	3.9%	3.1%	5.9%	1.8%
2019	17,484	3,103	3,143	574	2,844	1,048	838	1,269	759	915	847	1,517	627
	72.5%	12.9%	13.0%	2.4%	11.8%	4.3%	3.5%	5.3%	3.1%	3.8%	3.5%	6.3%	2.6%
2020	19,165	3,054	3,531	776	3,361	1,293	940	1,432	743	940	859	1,769	467
	74.9%	11.9%	13.8%	3.0%	13.1%	5.1%	3.7%	5.6%	2.9%	3.7%	3.4%	6.9%	1.8%

* %는 해당 연도의 전체 보호처분 중 비율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2호 처분]

연도\구분	계	2호	1·2호	1·2·3호	1·2·4호	1·2·5호	1·2·3·4호	1·2·3·5호
2016	10,119	59	2,554	557	3,255	1,009	1,272	1,413
	43.1%	0.3%	10.9%	2.4%	13.8%	4.3%	5.4%	6.0%
2017	10,296	159	2,504	727	3,025	969	1,393	1,519
	42.3%	0.7%	10.3%	3.0%	12.4%	4.0%	5.7%	6.2%
2018	10,421	274	2,963	776	3,022	886	1,262	1,238
	42.6%	1.1%	12.1%	3.2%	12.3%	3.6%	5.2%	5.1%
2019	9,903	187	3,143	574	2,844	1,048	838	1,269
	41.1%	0.8%	13.0%	2.4%	11.8%	4.3%	3.5%	5.3%
2020	11,627	294	3,531	776	3,361	1,293	940	1,432
	45.4%	1.1%	13.8%	3.0%	13.1%	5.1%	3.7%	5.6%

* %는 해당 연도의 전체 보호처분 중 비율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3호 처분]

연도\구분	계	3호	1·2·3호	1·2·3·4호	1·2·3·5호	1·3호	1·3·4호	1·3·5호
2016	6,265	87	557	1,272	1,413	851	1,194	891
	26.6%	1.4%	8.9%	20.3%	22.6%	13.6%	19.1%	14.2%
2017	6,445	67	727	1,393	1,519	851	1,086	802
	26.4%	1.0%	11.3%	21.6%	23.6%	13.2%	16.9%	12.4%
2018	5,917	175	776	1,262	1,238	754	958	754
	24.2%	3.0%	13.1%	21.3%	20.9%	12.7%	16.2%	12.7%
2019	5,402	200	574	838	1,269	759	915	847
	22.4%	3.7%	10.6%	15.5%	23.5%	14.1%	16.9%	15.7%
2020	5,898	208	776	940	1,432	743	940	859
	23.1%	0.8%	3.0%	3.7%	5.6%	2.9%	3.7%	3.4%

* %는 해당 연도의 전체 보호처분 중 비율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4호 처분]

연도\구분	계	4호	1·2·4호	1·2·3·4호	1·3·4호	1·4호	4·6호
2016	7,831	154	3,255	1,272	1,194	1,923	33
	33.3%	2.0%	41.6%	16.2%	15.2%	24.6%	0.4%
2017	7,323	270	3,025	1,393	1,086	1,508	41
	30.0%	3.7%	41.3%	19.0%	14.8%	20.6%	0.6%
2018	7,000	279	3,022	1,262	958	1,447	32
	28.6%	4.0%	43.2%	18.0%	13.7%	20.7%	0.5%
2019	6,397	231	2,844	838	915	1,517	52
	26.5%	3.6%	44.5%	13.1%	14.3%	23.7%	0.8%
2020	7,376	264	3,361	940	940	1,769	102
	28.8%	1.0%	13.1%	3.7%	3.7%	6.9%	0.4%

* %는 해당 연도의 전체 보호처분 중 비율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5호 처분]

연도\구분	계	5호	1·2·5호	1·2·3·5호	1·3·5호	1·5호	5·6호	5·8호
2016	5,937	27	1,009	1,413	891	522	1,063	1,012
	25.2%	0.5%	17.0%	23.8%	15.0%	8.8%	17.9%	17.0%
2017	5,960	80	969	1,519	802	505	986	1,099
	24.4%	1.3%	16.3%	25.5%	13.5%	8.5%	16.5%	18.4%
2018	5,825	81	886	1,238	754	443	1,229	1,194
	23.8%	1.4%	15.2%	21.3%	12.9%	7.6%	21.1%	20.5%
2019	6,376	109	1,048	1,269	847	627	1,440	1,036
	26.4%	1.7%	16.4%	19.9%	13.3%	9.8%	22.6%	16.2%
2020	6,645	81	1,293	1,432	859	467	1,508	1,005
	26.0%	0.3%	5.1%	5.6%	3.4%	1.8%	5.9%	3.9%

* %는 해당 연도의 전체 보호처분 중 비율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6호 처분]

연도\구분	계	6호	4·6호	5·6호
2016	1,101	5	33	1,063
	4.7%	0.0%	0.1%	4.6%
2017	1,034	7	41	986
	4.2%	0.0%	0.2%	4.0%
2018	1,266	5	32	1,229
	5.2%	0.0%	0.1%	5.1%
2019	1,497	5	52	1,440
	6.2%	0.0%	0.2%	6.0%
2020	1,614	4	102	1,508
	6.3%	0.0%	0.4%	5.9%

* %는 해당 연도의 전체 보호처분 중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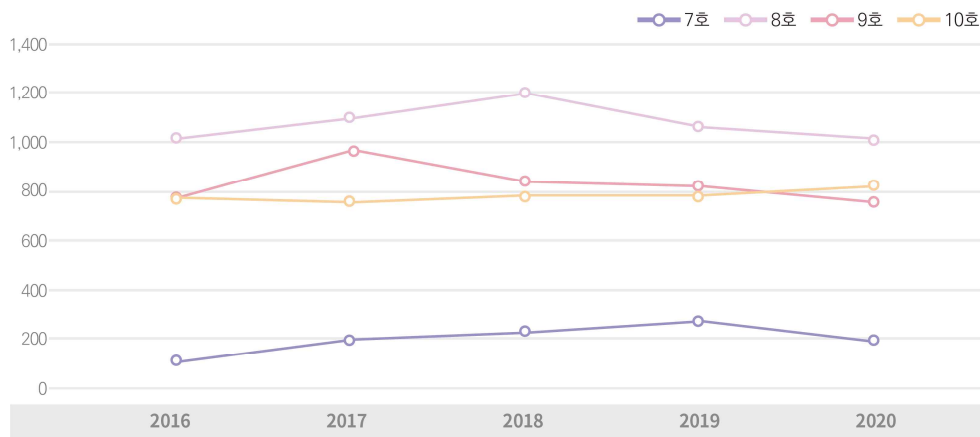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7·8·9·10호 처분]

연도	구분	계	7호	8호		9호	10호
				계	5·8호		
2016		1,101	105	1,015	1,012	3	770
		4.7%	0.4%	4.3%	4.3%	0.0%	3.3%
2017		1,034	198	1,099	1,099	0	972
		4.2%	0.8%	4.5%	4.5%	0.0%	4.0%
2018		1,266	230	1,203	1,194	9	842
		5.2%	0.9%	4.9%	4.9%	0.0%	3.4%
2019		1,497	269	1,061	1,036	25	821
		6.2%	1.1%	4.4%	4.3%	0.1%	3.4%
2020		1,614	189	1,011	1,005	6	750
		6.3%	0.7%	3.9%	3.9%	0.0%	2.9%

* %는 해당 연도의 전체 보호처분 중 비율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6 가정보호사건 처분 현황

1) 가정보호사건 처분 현황

연도	접수				처리					미제
	계	검사송치	법원송치	타법원에서 이송	계	보호처분	불처분	타법원으로 이송	기타	
2016	22,482	22,336	47	99	21,802	11,368	9,792	—	642	6,603
2017	18,971	18,803	28	140	20,622	11,562	8,802	—	258	4,910
2018	19,739	19,566	37	136	18,448	10,936	7,310	—	202	6,196
2019	23,698	23,486	56	156	23,139	13,360	9,578	177	24	6,748
2020	20,042	19,813	44	185	19,715	11,355	8,128	206	26	7,073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2) 가정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연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1·5호	3·5호	4·5호	5·8호	기타
2016	78	2	—	2,614	1,622	—	104	4,393	63	—	1,356	455	681
2017	45	1	—	3,202	1,504	—	78	4,431	44	—	1,273	478	506
2018	37	0	0	2,337	1,117	0	117	4,984	26	—	1,093	537	688
2019	58	3	0	3,056	1,843	0	103	5,751	31	—	1,287	605	623
2020	39	1	0	2,890	1,610	0	168	4,719	28	—	923	520	457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2020. 10. 20. 개정, 2021. 1. 21. 시행)
- 1호 처분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호 처분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처분 :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4호 처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5호 처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6호 처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7호 처분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8호 처분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7 성매매보호사건 처분 현황

1) 성매매보호사건 처분 현황

연도	처분	접수	처리				미제
			계	보호처분	불처분	기타	
2016		1,349	958	796	72	90	496
2017		1,006	1,326	992	74	260	176
2018		460	561	351	33	177	75
2019		263	259	184	21	54	79
2020		221	235	166	14	55	64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2) 성매매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연도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1·2호	1·3호	1·4호	1·2·3호	1·2·4호	1·2·5호	1·2·3·4호	2·3호	2·4호	2·5호	2·3·4호	2·3·5호	3·4호	3·5호
2016	796	4	135	395	13	—	4	28	—	1	—	—	—	215	1	—	—	—	—	—
2017	992	—	189	389	25	—	6	10	—	—	1	—	—	343	27	1	—	—	1	—
2018	351	1	53	102	37	—	3	6	1	1	1	—	—	130	16	—	—	—	—	—
2019	184	—	34	70	26	—	—	2	2	—	—	—	—	42	8	—	—	—	—	—
2020	166	2	29	89	8	—	1	2	—	5	—	—	—	25	2	1	—	—	2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2021. 3. 16. 개정, 2021. 3. 16. 시행)

- 1호 처분 :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서의 출입금지
- 2호 처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3호 처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4호 처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5호 처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8 아동보호사건 처분 현황

1) 아동보호사건 처분 현황

구분 연도	접수				처리					미제
	계	검사송치	법원송치	타법원에서 이송	계	보호처분	불처분	타법원으로 이송	기타	
2016	22,482	22,336	47	99	21,802	11,368	9,792	—	642	6,603
2017	18,971	18,803	28	140	20,622	11,562	8,802	—	258	4,910
2018	19,739	19,566	37	136	18,448	10,936	7,310	—	202	6,196
2019	23,698	23,486	56	156	23,139	13,360	9,578	177	24	6,748
2020	20,042	19,813	44	185	19,715	11,355	8,128	206	26	7,073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2) 아동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처분 연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1·5호	3·5호	4·5호	5·8호	기타
2016	78	2	—	2,614	1,622	—	104	4,393	63	—	1,356	455	681
2017	45	1	—	3,202	1,504	—	78	4,431	44	—	1,273	478	506
2018	37	0	0	2,337	1,117	0	117	4,984	26	—	1,093	537	688
2019	58	3	0	3,056	1,843	0	103	5,751	31	—	1,287	605	623
2020	39	1	0	2,890	1,610	0	168	4,719	28	—	923	520	45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2021. 1. 26. 개정, 2022. 1. 27. 시행)

- 1호 처분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호 처분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처분 :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4호 처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5호 처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6호 처분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7호 처분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8호 처분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2021년 재구성

9 가석방 현황

1)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현황

- 최근 5년간 성인수에 대한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16년 7,126명, 2017년 8,247명에서 2018년에는 8,66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 8,139명, 2020년 7,876명 등으로 감소하였다.

연도	구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2016		7,126	6,322	804	1,347	1,452	1,856	1,827	644
2017		8,247	7,280	967	1,465	1,734	2,130	2,024	894
2018		8,667	7,700	967	1,612	1,791	2,078	2,165	1,021
2019		8,139	7,150	989	1,380	1,701	1,957	2,053	1,048
2020		7,876	6,854	1,022	1,415	1,757	1,787	1,845	1,072

※ 출처 :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2021

2)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별 현황

연도	구분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90% 이상
2016		0	5	926	3,849	2,346
2017		0	18	1,493	4,795	1,941
2018		50	67	1,496	4,976	2,078
2019		3	74	1,630	4,380	2,052
2020		0	50	1,323	4,449	2,054

※ 출처 :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2021

3)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형기별 현황

연도	구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무기
2016		1,367	3,420	1,020	564	244	267	242	2
2017		1,810	3,840	1,282	614	238	294	158	11
2018		1,891	3,750	1,430	740	300	315	201	40
2019		1,997	3,415	1,300	672	317	316	108	14
2020		1,788	3,530	1,266	618	283	249	124	18

※ 출처 :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2021

4) 가석방 인원과 보호관찰 부과 현황(접수사건 기준)

- 성인수 가석방 허가 인원 대비 보호관찰 부과 비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2~75% 수준이었다
2019년 이후 90% 이상을 기록하였다.

연도	구분 가석방 인원*	보호관찰 부과 사건**			가석방 인원 대비 보호관찰 부과율		
		계	보호관찰	전자감독	계	보호관찰	전자감독
2016	7,126	5,181	4,587	594	72.7%	64.4%	8.3%
2017	8,247	6,243	5,742	501	75.7%	69.6%	6.1%
2018	8,667	6,486	5,953	533	74.8%	68.7%	6.1%
2019	8,139	7,729	7,347	382	95.0%	90.3%	4.7%
2020	7,876	7,183	5,327	1,856	91.2%	67.6%	23.6%

* 출처 :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2021

** 보호관찰 접수사건에서 보호관찰소 간 이송사건을 제외한 신규 접수사건 중 처분유형이 가석방인 사건 수



표 1-1-1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2017~2021)	5	2
표 1-1-2	보호관찰기관별 보호관찰 접수사건 현황(2021)	7	2
표 1-1-3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2017~2021)	9	2
표 1-1-4	보호관찰 등 종료 현황(2017~2021)	1	3
표 1-2-1	소년보호기관의 신수용 현황(2017~2021)	3	3
표 1-2-3	소년보호기관의 일일평균 수용 현황(2017~2021)	6	3
표 1-2-4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8	3
표 1-3-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예방교육 현황(2017~2021)	1	4
표 1-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진단 현황(2017~2021)	2	4
표 1-4-1	국립법무병원의 입원 현황(2017~2021)	5	4
표 1-4-2	국립법무병원의 수용 현황(2017~2021)	7	4
표 1-4-3	국립법무병원의 연평균 수용 현황(2017~2021)	9	4
표 1-4-4	국립법무병원의 출원 현황(2017~2021)	1	5
표 1-4-5	국립법무병원 의사 충원율(2017~2021)	3	5
표 1-5-1	보호관찰위원 위촉 현황(2017~2021)	6	5
표 1-5-2	보호관찰위원 활동 현황(2017~2021)	8	5
표 1-5-3	소년보호위원 위촉 현황(2017~2021)	9	5
표 1-5-4	법무보호위원 위촉 현황(2017~2021)	1	6
표 1-5-5	법무보호위원 활동 현황(2017~2021)	3	6

표

표 2-1-1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7	6
표 2-1-2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8	6
표 2-1-3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0	7
표 2-1-4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2	7
표 2-1-5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3	7
표 2-1-6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5	7
표 2-1-7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학생 등 현황(2017~2021)	7	7
표 2-1-8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7~2021)	8	7
표 2-1-9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9	7
표 2-1-10	전체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7~2021)	1	8
표 2-1-11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7~2021)	1	8
표 2-1-12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7~2021)	2	8
표 2-1-13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17~2021)	3	8
표 2-1-14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4	8
표 2-1-15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5	8
표 2-1-16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7	8
표 2-1-17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9	8
표 2-1-18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9	8
표 2-1-19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0	9
표 2-1-20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1	9



표 2-1-21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2	9
표 2-1-22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3	9
표 2-1-23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5	9
표 2-1-24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6	9
표 2-1-25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7	9
표 2-1-26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8	9
표 2-1-27	보호관찰 현재원의 연령별 현황(2017~2021)	0	0 1
표 2-1-28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1	0 1
표 2-1-29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2	0 1
표 2-1-30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4	0 1
표 2-1-31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현황((2017~2021)	5	0 1
표 2-1-32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현황((2017~2021)	6	0 1
표 2-1-33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현황((2017~2021)	7	0 1
표 2-1-34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분류등급 현황(2021)	8	0 1
표 2-1-35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분류등급 현황(2021)	9	0 1
표 2-1-36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분류등급 현황(2021)	0	1 1
표 2-1-37	보호관찰의 지도감독 유형(2017~2021)	1	1 1
표 2-1-38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연령별 유형(2017~2021)	2	1 1
표 2-1-39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지도감독 유형(2021)	3	1 1
표 2-1-40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지도감독 유형(2021)	3	1 1

표

표 2-1-41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지도감독 유형(2021)	4	1	1
표 2-1-42	보호관찰 출장 지도감독의 지도대상 현황(2017~2021)	5	1	1
표 2-1-43	비대면 지도감독의 지도 대상 현황(2017~2021)	6	1	1
표 2-1-44	전체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및 인용 현황(2017~2021)	1		1
표 2-1-45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및 인용 현황(2017~2021)	1		1
표 2-1-46	성인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및 인용 현황(2017~2021)	1		1
표 2-1-47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 현황(2017~2021)	9	1	1
표 2-1-48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 현황(2017~2021)	1	2	1
표 2-1-49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 현황(2017~2021)	1	2	1
표 2-1-50	보호관찰 성적양호자 조치 현황(2017~2021)	2	2	1
표 2-1-51	보호관찰 실시사건 대비 성적양호자 조치율(2017~2021)	2	2	1
표 2-1-52	근거 법률별 보호관찰 임시해제 현황(2017~2021)	3	2	1
표 2-1-53	근거 법률별 보호관찰명령 가해제 현황(2017~2021)	4	2	1
표 2-1-54	서면경고 현황(2017~2021)	5	2	1
표 2-1-55	지명수배 활용 현황(2017~2021)	6	2	1
표 2-1-56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지명수배 활용 현황(2017~2021)	6	2	1
표 2-1-57	성인 보호관찰사건의 지명수배 활용 현황(2017~2021)	7	2	1
표 2-1-58	보호관찰 사건 구인 및 유치 현황(2017~2021)	8	2	1
표 2-1-59	처분취소 및 변경 현황(2017~2021)	8	2	1
표 2-1-60	집행유예 취소 신청 현황(2017~2021)	9	2	1



표 2-1-61	집행유예 취소 신청 결과 현황(2017~2021)	0	3	1
표 2-1-62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률(2017~2021)	1	3	1
표 2-1-63	소년 보호관찰사건 중 재범자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2017~2021)	2	3	1
표 2-1-64	성인 보호관찰 사건의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률(2017~2021)	3	3	1
표 2-1-65	성인 보호관찰사건 중 재범자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2017~2021)	4	3	1
표 2-1-66	보호관찰 종료 현황(2017~2021)	5	3	1
표 2-2-1	치료명령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접수사건 현황(2017~2021)	7	3	1
표 2-2-2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9	3	1
표 2-2-3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0	4	1
표 2-2-4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1	4	1
표 2-2-5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2	4	1
표 2-2-6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3	4	1
표 2-2-7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3	4	1
표 2-2-8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기간별 현황(2017~2021)	4	4	1
표 2-2-9	치료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7~2021)	5	4	1
표 2-2-10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집행사건 현황(2017~2021)	6	4	1
표 2-2-11	치료명령 현재원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7	4	1
표 2-2-1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재원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8	4	1
표 2-2-13	치료명령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9	4	1
표 2-2-14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0	5	1

표

표 2-2-15	치료명령의 치료기관 현황(2017~2021)	1	5	1
표 2-3-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등 현황(2017~2021)	3	5	1
표 2-3-2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기관 현황(2017~2021)	4	5	1
표 2-4-1	보호관찰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7~2021)	6	5	1
표 2-4-2	보호관찰기관별 보호관찰조사 접수사건 현황(2021)	9	5	1
표 2-4-3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1	6	1
표 2-4-4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2	6	1
표 2-4-5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4	6	1
표 2-4-6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7~2021)	5	6	1
표 2-4-7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7	6	1
표 2-4-8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8	6	1
표 2-4-9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8	6	1
표 2-4-10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9	6	1
표 2-4-11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9	6	1
표 2-4-12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0	7	1
표 2-4-13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0	7	1
표 2-4-14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1	7	1
표 2-4-15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1	7	1
표 2-4-16	청구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7~2021)	2	7	1
표 2-4-1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7~2021)	7		1



표 2-4-1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의 연령에 따른 성별 접수 현황(2017~2021)	7	1
표 2-4-19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일반) 접수사건의 범죄유형별 현황(2018~2021)	1	
표 2-4-20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8~2021)	5	7 1
표 2-4-21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6	7 1
표 2-4-22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7	7 1
표 2-4-23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7	7 1
표 2-4-24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8	7 1
표 2-4-25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7~2021)	9	7 1
표 2-4-26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0	8 1
표 3-1-1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범죄유형별 현황(2017~2021)	6	8 1
표 3-1-2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7	8 1
표 3-1-3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처분유형 및 범죄유형 현황(2017~2021)	9	8 1
표 3-1-4	전자장치 접수사건의 부착기간별 현황(2017~2021)	0	9 1
표 3-1-5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7~2021)	1	9 1
표 3-1-6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범죄유형별 현황(2017~2021)	1	9 1
표 3-1-7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2	9 1
표 3-1-8	전자감독 현재원의 전년 대비 증감률(2017~2021)	3	9 1
표 3-1-9	전자감독 현재원 현황(2017~2021)	4	9 1
표 3-1-10	전자감독 현재원의 연령별 현황(2017~2021)	6	9 1

표

표 3-1-11 전자감독 대상자의 치우프로그램 실시 현황(2017~2021)	7	9	1
표 3-1-12 전자감독 대상자의 원호 현황(2017~2021)	0	0	2
표 3-1-13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제구호 금액 현황(2017~2021)	0	0	2
표 3-1-14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재범률 현황(2017~2021)	1	0	2
표 3-1-15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재범 현황(2017~2021)	1	0	2
표 3-1-16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현황(2020~2021)	2	0	2
표 3-2-1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 및 누적등록사건 등 현황(2017~2021)	4	0	2
표 3-2-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사건의 유형별 현황(2017~2021)	5	0	2
표 3-2-3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사건의 죄명별 현황(2017~2021)	7	0	2
표 3-2-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사건 현황(2017~2021)	8	0	2
표 3-2-5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종료 현황(2017~2021)	0	1	2
표 4-1-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5	1	2
표 4-1-2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7	1	2
표 4-1-3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9	1	2
표 4-1-4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2		2
표 4-1-5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2		2
표 4-1-6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2	2	2
표 4-1-7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7~2021)	2		2
표 4-1-8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7~2021)			2



표 4-1-9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7~2021)	2
표 4-1-10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7~2021)	6 2 2
표 4-1-1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17~2021)	7 2 2
표 4-1-12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8 2 2
표 4-1-13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0 3 2
표 4-1-14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실시사건의 부과형태별 현황(2017~2021)	3 2
표 4-1-15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7~2021)	2 3 2
표 4-1-16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형태별 현황(2017~2021)	4 3 2
표 4-1-17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5 3 2
표 4-1-18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6 3 2
표 4-1-19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7 3 2
표 4-1-20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9 3 2
표 4-1-21	사회봉사명령 협력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0 4 2
표 4-1-22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현황(2017~2021)	1 4 2
표 4-1-23	사회봉사명령 종료 현황(2017~2021)	3 4 2
표 4-1-24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종료 현황(2017~2021)	5 4 2
표 4-1-25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종료 현황(2017~2021)	6 4 2
표 4-1-26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부분집행 및 처분변경 종료 세부 현황(2017~2021)	7 4 2
표 4-2-1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의 접수사건 현황(2017~2021)	0 5 2
표 4-2-2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1 5 2

표

표 4-2-3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3	5	2
표 4-2-4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4	5	2
표 4-2-5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5	5	2
표 4-2-6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6	5	2
표 4-2-7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7~2021)	9	5	2
표 4-2-8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1	6	2
표 4-2-9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2	6	2
표 4-2-10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3	6	2
표 4-2-11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17~2021)	4	6	2
표 4-2-12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6	6	2
표 4-2-13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7~2021)	7	6	2
표 4-2-14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7~2021)	8	6	2
표 4-2-15	수강 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실시사건 현황(2017~2021)	0	7	2
표 4-2-16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 현황(2017~2021)	2	7	2
표 4-2-17	이수명령 분야별 집행 현황(2017~2021)	3	7	2
표 4-2-18	기소유예 교육 등 분야별 집행 현황(2017~2021)	4	7	2
표 4-2-19	수강·이수명령의 집행형태별 집행 현황(2017~2021)	5	7	2
표 4-2-20	수강명령 분야별 직접집행 현황(2017~2021)	6	7	2
표 4-2-21	수강명령 분야별 협력집행 현황(2017~2021)	6	7	2
표 4-2-22	이수명령 분야별 직접집행 현황(2017~2021)	7	7	2



표 4-2-23	이수명령 분야별 협력집행 현황(2017~2021)	7	7	2
표 4-2-24	수강·이수명령 협력기관 현황(2017~2021)	8	7	2
표 4-2-25	수강·이수명령 종료 현황(2017~2021)	9	7	2
표 5-1-1	신수용 보호소년 연령별 현황(2017~2021)	5	8	2
표 5-1-2	신수용 보호소년 처분별 현황(2017~2021)	6	8	2
표 5-1-3	신수용 보호소년 연령에 따른 처분별 현황(2017~2021)	7	8	2
표 5-1-4	신수용 보호소년의 사범별 현황(2017~2021)	9	8	2
표 5-1-5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2017~2021)	0	9	2
표 5-1-6	신수용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2017~2021)	1	9	2
표 5-1-7	신수용 위탁소년 연령별 현황(2017~2021)	3	9	2
표 5-1-8	신수용 위탁소년의 사범별 현황(2017~2021)	5	9	2
표 5-1-9	신수용 위탁소년 성별 현황(2017~2021)	6	9	2
표 5-2-1	7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8	8	1
표 5-2-2	8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0	0	3
표 5-2-3	9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1	0	3
표 5-2-4	10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2	0	3
표 5-2-5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2017~2021)	3	0	3
표 5-2-6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출원 현황(2017~2021)	5	0	3
표 5-3-1	보호소년의 교육 수료 현황(2017~2021)	8	0	3

표

표 5-3-2	보호소년 교과교육 세부 현황(2017~2021)	0	1	3
표 5-3-3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2017~2021)	1	1	3
표 5-3-4	보호소년의 경시대회 입상 현황(2017~2021)	3	1	3
표 5-4-1	보호소년의 개방처우 현황(2017~2021)	5	1	3
표 5-4-2	보호소년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현황(2017~2021)	7	1	3
표 5-4-3	보호소년의 취업 지원 현황(2017~2021)	9	1	3
표 5-4-4	보호소년의 자립 지원 현황(2017~2021)	1	2	3
표 5-5-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7~2021)	3	2	3
표 5-5-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17~2021)	5	2	3
표 5-6-1	보호소년의 출원 이후 기간별 재입원율 현황(2011~2020)	7	2	3
표 5-6-2	보호소년의 출원 이후 누적 기간별 재입원율 현황(2011~2020)	8	2	3
표 6-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7~2021)	3	3	3
표 6-1-2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7~2021)	5	3	3
표 6-1-3	학교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7~2021)	5	3	3
표 6-1-4	검찰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7~2021)	6	3	3
표 6-1-5	법원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7~2021)	6	3	3
표 6-1-6	기타 기관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7~2021)	7	3	3
표 6-1-7	대안교육의 비행유형별 실시 현황(2017~2021)	8	3	3
표 6-1-8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대안교육 현황(2021)	8	3	3



표 6-1-9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자교육 현황(2017~2021)	0	4	3
표 6-1-10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자교육(의무교육) 교육시간별 현황(2017~2021)	1	4	3
표 6-1-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21)	2	4	3
표 6-2-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 등 실시 현황(2017~2021)	4	4	3
표 6-2-2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상담조사 실시 현황(2021)	5	4	3
표 6-2-3	청소년 심리상담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7~2021)	6	4	3
표 6-2-4	청소년 심리상담의 검사종류별 현황(2017~2021)	8	4	3
표 6-2-5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청소년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현황(2021)	9	4	3
표 6-3-1	자립지원기관 개요(2021)	0	5	3
표 6-3-2	청소년자립생활관 정원 및 현원(2021)	1	5	3
표 6-3-3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현황(2017~2021)	1	5	3
표 6-3-4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정원 및 현원(2021년 12월 31일 기준)	2	5	3
표 6-3-5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현황(2017~2021)	2	5	3
표 7-1-1	피치료감호자의 유형별 수용 현황(2017~2021)	6	5	3
표 7-1-2	피치료감호자의 병명별 수용 현황(2017~2021)	8	5	3
표 7-1-3	피치료감호자의 죄명별 수용 현황(2017~2021)	0	6	3
표 7-1-4	피치료감호자의 범죄횟수별 현황(2017~2021)	2	6	3
표 7-1-5	피치료감호자의 집행기간별 현황(2017~2021)	3	6	3
표 7-1-6	피치료감호자의 연령별 현황(2017~2021)	5	6	3

표

표 7-1-7	피치료감호자의 학력별 현황(2017~2021)	6	6	3
표 7-1-8	피치료감호자의 직업별 현황(2017~2021)	7	6	3
표 7-1-9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물질별 현황(2017~2021)	8	6	3
표 7-2-1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2017~2021)	9	6	3
표 7-2-2	피치료감호자의 직업훈련 세부 현황(2017~2021)	1	7	3
표 7-2-3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치료 프로그램 현황(2017~2021)	2	7	3
표 7-2-4	피치료감호자의 진단검사 실시 현황(2017~2021) (단위: 건)	4	7	3
표 7-2-5	국립법무병원 출원자의 무상 외래진료 현황(2017~2021)	5	7	3
표 7-3-1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현황(2017~2021)	7	7	3
표 7-3-2	치료감호 죄명별 종료·가종료 현황(2017~2021)	8	7	3
표 7-3-3	치료감호 병명별 종료·가종료현황(2017~2021)	9	7	3
표 7-4-1	총 출원자 대비 재입원율 현황(2021년 12월 31일 기준)	0	8	3
표 7-4-2	국립법무병원 출원자(피치료감호자)의 3년 내 재입원율 현황(2014~2021)	1	8	3
표 7-4-3	국립법무병원 출원자(피치료감호자 1호)의 3년 내 재입원율 현황(2014~2021)	2	8	3
표 7-4-4	국립법무병원 출원자(피치료감호자 2호)의 3년 내 재입원율 현황(2014~2021)	2	8	3
표 7-4-5	해당 연도 입원자 중 재입원자의 죄명별 현황(2017~2021)	3	8	3
표 7-4-6	병명별 재입원 현황(2017~2021)	4	8	3
표 7-4-7	감호집행정지자 현황(2017~2021)	5	8	3
표 7-5-1	정신감정 유치자의 입·출원 현황(2017~2021)	6	8	3
표 7-5-2	정신감정 의뢰기관별 현황(2017~2021)	7	8	3



표 7-5-3	성폭력 범죄자의 정신감정 의뢰 현황(2017~2021)	8	8	3
표 7-5-4	정신감정 의뢰자 중 성폭력 범죄자의 비율(2017~2021)	8	8	3
표 8-2-1	공단 정원 현황(2017~2021)	3	9	3
표 8-2-2	공단 갱생보호사업 대상자 현황(2017~2021)	4	9	3
표 8-2-3	공단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6	9	3
표 8-2-4	공단 숙식제공 개시율 및 평균 숙식 인원 현황(2017~2021)	6	9	3
표 8-2-5	공단 숙식제공 지원기간별 현황(2017~2021)	7	9	3
표 8-2-6	공단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8	9	3
표 8-2-7	공단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수료율 및 취업 등 현황(2017~2021)	0	0	4
표 8-2-8	공단 가족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1	0	4
표 8-2-9	공단지부별 주거지원 실시 현황(2017~2021)	2	0	4
표 8-2-10	공단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4	0	4
표 8-3-1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대상자 현황(2017~2021)	6	0	4
표 8-3-2	민간법인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7	0	4
표 8-3-3	민간법인별 숙식제공 대상자 현황(2017~2021)	8	0	4
표 8-3-4	민간법인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9	0	4
표 8-3-5	민간법인 주거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0	1	4
표 8-3-6	민간법인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1	1	4

표

표 9-1-1	전체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2017~2021)	7 1 4
표 9-1-2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실시 현황(2017~2021)	8 1 4
표 9-1-3	‘어린이로스쿨’ 실시 현황(2017~2021)	9 1 4
표 9-1-4	‘탈북청소년 법교육’ 실시 현황(2017~2021)	0 2 4
표 9-1-5	‘시민법교육’ 실시 현황(2017~2021)	1 2 4
표 9-1-6	‘이민자 법교육’ 실시 현황(2017~2021)	2 2 4
표 9-1-7	‘모두가 행복한 교실’, ‘학생자치법교육’ 현황(2017~2021)	3 2 4
표 9-2-1	법교육 출장강연 현황(2017~2021)	6 2 4
표 9-3-1	대전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2017~2021)	8 2 4
표 9-3-2	부산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2017~2021)	8 2 4
표 9-3-3	솔로몬로파크 방문 인원 현황(2017~2021)	9 2 4



그림 1-1-1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2017~2021)	5	2
그림 1-1-2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의 분야별 점유율 현황(2017~2021)	6	2
그림 1-1-3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2017~2021)	0	3
그림 1-1-4	보호관찰 등 현재원의 분야별 점유율 현황(2017~2021)	0	3
그림 1-1-5	보호관찰 종료 현황(2017~2021)	2	3
그림 1-1-6	보호관찰 종료사건의 분야별 점유율 현황(2017~2021)	2	3
그림 1-2-1	소년보호기관의 신수용 현황(2017~2021)	4	3
그림 1-2-2	소년보호기관의 일일평균 수용 현황(2017~2021)	7	3
그림 1-2-3	소년보호기관 일일평균 수용인원의 유형별 점유율(2021)	7	3
그림 1-2-4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9	3
그림 1-3-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예방교육 현황(2017~2021)	1	4
그림 1-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진단 현황(2017~2021)	3	4
그림 1-4-1	국립법무병원의 입원 현황(2017~2021)	5	4
그림 1-4-2	국립법무병원의 수용 현황(2017~2021)	8	4
그림 1-4-3	국립법무병원의 연평균 수용 현황(2017~2021)	0	5
그림 1-4-4	국립법무병원의 출원 현황(2017~2021)	2	5
그림 1-4-5	국립법무병원 의사 충원율(2017~2021)	4	5
그림 1-4-6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2017~2021)	4	5
그림 1-5-1	보호관찰위원 위촉 현황(2017~2021)	7	5
그림 1-5-2	보호관찰위원 활동 현황(2017~2021)	8	5

그림

그림 1-5-3	소년보호위원 위촉 현황(2017~2021)	0	6
그림 1-5-4	법무보호위원 위촉 현황(2017~2021)	2	6
그림 1-5-5	법무보호위원 활동 현황(2017~2021)	3	6
그림 2-1-1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7	6
그림 2-1-2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1)	8	6
그림 2-1-3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9	6
그림 2-1-4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1)	9	6
그림 2-1-5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0	7
그림 2-1-6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1)	1	7
그림 2-1-7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3	7
그림 2-1-8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4	7
그림 2-1-9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5	7
그림 2-1-10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학생 등 현황(2017~2021)	7	7
그림 2-1-11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7~2021)	8	7
그림 2-1-12	보호관찰 접수사건(소년)의 성별 현황(2017~2021)	9	7
그림 2-1-13	보호관찰 접수사건(성인)의 성별 현황(2017~2021)	0	8
그림 2-1-14	전체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7~2021)	1	8
그림 2-1-15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7~2021)	2	8
그림 2-1-16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7~2021)	2	8



그림 2-1-17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17~2021)	3	8
그림 2-1-18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5	8
그림 2-1-19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6	8
그림 2-1-20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6	8
그림 2-1-21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7	8
그림 2-1-22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8	8
그림 2-1-23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9	8
그림 2-1-24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주요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0	9
그림 2-1-25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1	9
그림 2-1-26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주요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1	9
그림 2-1-27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7~2021)	2	9
그림 2-1-28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주요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7~2021)	3	9
그림 2-1-29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5	9
그림 2-1-30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1)	5	9
그림 2-1-31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7	8
그림 2-1-32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9	9
그림 2-1-33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1 0 1	
그림 2-1-34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점유율(2021)	2 0 1	
그림 2-1-35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3 0 1	
그림 2-1-36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점유율(2021)	3 0 1	

그림

그림 2-1-37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7~2021)	4	0	1
그림 2-1-38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점유율(2021)	5	0	1
그림 2-1-39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점유율(2017~2021)	6	0	1
그림 2-1-40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점유율(2017~2021)	7	0	1
그림 2-1-41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분류등급별 점유율(2017~2021)	8	0	1
그림 2-1-42 보호관찰의 지도감독 유형(2017~2021)	2	1	1
그림 2-1-43 보호관찰 출장 지도감독의 지도대상 현황(2017~2021)	5	1	1
그림 2-1-44 비대면 지도감독의 지도 대상 현황 :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2017~2021)	6	1	1
그림 2-1-45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 현황(2017~2021)	0	2	1
그림 2-1-46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및 결과 현황(2017~2021)	0	3	1
그림 2-2-1 치료명령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접수사건 현황(2017~2021)	3		1
그림 2-2-2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9	3	1
그림 2-2-3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4		1
그림 2-2-4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1	4	1
그림 2-2-5 치료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7~2021)	6	4	1
그림 2-2-6 치료명령 현재원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8	4	1
그림 2-2-7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재원의 문제유형별 현황(2017~2021)	9	4	1
그림 2-2-8 치료명령의 치료기관 현황(2017~2021)	1	5	1
그림 2-3-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등 현황(2017~2021)	3	5	1
그림 2-3-2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기관 현황(2017~2021)	4	5	1



그림 2-4-1	보호관찰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7~2021)	7	5	1
그림 2-4-2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2	6	1
그림 2-4-3	판결전조사 연령별 접수 현황(2017~2021)	3	6	1
그림 2-4-4	판결전조사 성별 접수 현황(2017~2021)	3	6	1
그림 2-4-5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6	6	1
그림 2-4-6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17, 2021)	6	6	1
그림 2-4-7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 현황(2017~2021)	7	6	1
그림 2-4-8	청구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점유율(2017, 2021)	2	7	1
그림 2-4-9	검사 결정전조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7~2021)	6	7	1
그림 2-4-10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9	7	1
그림 3-1-1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범죄유형별 현황(2017~2021)	6	8	1
그림 3-1-2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8	8	1
그림 3-1-3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부착기간별 현황(2017~2021)	0	9	1
그림 3-1-4	전자감독 현재원의 전년 대비 증감률(2017~2021)	3	9	1
그림 3-1-5	전자감독 현재원 현황(2017~2021)	4	9	1
그림 3-1-6	전자감독 현재원의 연령별 현황(2017~2021)	6	9	1
그림 3-1-7	전자감독 대상자의 처우프로그램 실시 현황(2017~2021)	8	9	1
그림 3-1-8	전자감독 대상자의 원호 실시 현황(2017~2021)	0	0	2
그림 3-1-9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현황(2020~2021)	2	0	2

그림

그림 3-2-1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 및 누적 등록사건 등 현황(2017~2021)	4	0	2
그림 3-2-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사건의 유형별 현황(2017~2021)	6	0	2
그림 3-2-3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사건 현황(2017~2021)	9	0	2
그림 3-2-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종료 현황(2017~2021)	1	1	2
그림 4-1-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6	1	2
그림 4-1-2	사회봉사명령의 근거 법률별 점유율(2021)	6	1	2
그림 4-1-3	전체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7	1	2
그림 4-1-4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9	1	2
그림 4-1-5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2	2	2
그림 4-1-6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2	2	2
그림 4-1-7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2	2	2
그림 4-1-8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7~2021)	2	2	2
그림 4-1-9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7~2021)	2	2	2
그림 4-1-10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7~2021)	2	2	2
그림 4-1-11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7~2021)	6	2	2
그림 4-1-12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21)	7	2	2
그림 4-1-13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7~2021)	9	2	2
그림 4-1-14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근거법률별 점유율(2021)	9	2	2
그림 4-1-15	전체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0	3	2



그림 4-1-16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실시사건의 부과형태별 현황(2017~2021)	3	2
그림 4-1-17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7~2021)	3	3 2
그림 4-1-18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집행형태별 현황(2017~2021)	4	3 2
그림 4-1-19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6	3 2
그림 4-1-20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7	3 2
그림 4-1-21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8	3 2
그림 4-1-22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9	3 2
그림 4-1-23	사회봉사명령 협력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7~2021)	0	4 2
그림 4-1-24	사회봉사명령의 협력기관 현황(2017~2021)	2	4 2
그림 4-1-25	사회봉사명령 종료 현황(2017~2021)	4	4 2
그림 4-1-26	사회봉사명령 종료 현황(2017~2021)	4	4 2
그림 4-1-27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종료 현황(2017~2021)	5	4 2
그림 4-1-28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종료 현황(2017~2021)	6	4 2
그림 4-1-29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부분집행 및 처분변경 종료 세부 현황(2017~2021)	8	4 2
그림 4-2-1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의 접수사건 현황(2017~2021)	0	5 2
그림 4-2-2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2	5 2
그림 4-2-3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7~2021)	3	5 2
그림 4-2-4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6	5 2
그림 4-2-5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7	5 2
그림 4-2-6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7	5 2

그림

그림 4-2-7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7~2021)	8	5	2
그림 4-2-8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7~2021)	0	6	2
그림 4-2-9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7~2021)	0	6	2
그림 4-2-10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7~2021)	1	6	2
그림 4-2-11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2	6	2
그림 4-2-12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3	6	2
그림 4-2-13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7~2021)	4	6	2
그림 4-2-14	전체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17~2021)	6	6	2
그림 4-2-15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7~2021)	6	6	2
그림 4-2-16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1)	6	6	2
그림 4-2-17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7~2021)	7	6	2
그림 4-2-18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점유율(2021)	8	6	2
그림 4-2-19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7~2021)	9	6	2
그림 4-2-20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점유율(2021)	9	6	2
그림 4-2-21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실시사건 현황(2017~2021)	1	7	2
그림 4-2-22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 점유율(2017, 2021)	2	7	2
그림 4-2-23	이수명령 분야별 집행 점유율(2017, 2021)	3	7	2
그림 4-2-24	기소유예 교육 등 분야별 집행 현황(2017~2021)	5	7	2
그림 4-2-25	수강·이수명령 종료 현황(2017~2021)	0	8	2



그림 5-1-1	신수용 보호소년의 연령별 현황(2017~2021)	5	8	2
그림 5-1-2	신수용 보호소년 처분별 현황(2017~2021)	6	8	2
그림 5-1-3	신수용 보호소년(14세 미만) 처분별 현황(2017~2021)	8	8	2
그림 5-1-4	신수용 보호소년(14세 이상) 처분별 현황(2017~2021)	8	8	2
그림 5-1-5	신수용 보호소년의 사범별 현황(2017~2021)	9	8	2
그림 5-1-6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2017~2021)	1	9	2
그림 5-1-7	신수용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2017~2021)	2	9	2
그림 5-1-8	신수용 위탁소년 연령별 현황(2017~2021)	4	9	2
그림 5-1-9	신수용 위탁소년의 사범별 현황(2017~2021)	5	9	2
그림 5-1-10	신수용 위탁소년 성별 현황(2017~2021)	7	9	2
그림 5-2-1	7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9	9	2
그림 5-2-2	8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0	0	3
그림 5-2-3	9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1	0	3
그림 5-2-4	10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7~2021)	2	0	3
그림 5-2-5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2017~2021)	4	0	3
그림 5-2-6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출원 현황(2017~2021)	6	0	3
그림 5-3-1	보호소년의 교육 수료 현황(2017~2021)	8	0	3
그림 5-3-2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2017~2021)	2	1	3
그림 5-3-3	보호소년의 경시대회 입상 현황(2017~2021)	4	1	3
그림 5-4-1	보호소년 개방처우 현황(2017~2021)	6	1	3

그림

그림 5-4-2	보호소년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현황(2017~2021)	8	1	3
그림 5-4-3	보호소년의 취업 지원 현황(2017~2021)	0	2	3
그림 5-4-4	보호소년의 자립 지원 현황(2017~2021)	2	2	3
그림 5-5-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7~2021)	4	2	3
그림 5-5-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17~2021)	6	2	3
그림 5-6-1	보호소년의 출원 이후 누적 기간별 재입원을 현황(2011~2020)	8	2	3
그림 6-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7~2021)	4	3	3
그림 6-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점유율(2021)	4	3	3
그림 6-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자교육 현황(2017~2021)	1	4	3
그림 6-2-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 실시 현황(2017~2021)	4	4	3
그림 6-2-2	청소년 심리상담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7~2021)	7	4	3
그림 6-2-3	청소년 심리상담의 의뢰기관별 점유율(2021)	7	4	3
그림 6-2-4	청소년 심리검사의 검사종류별 점유율(2021)	8	4	3
그림 7-1-1	피치료감호자의 유형별 수용 현황(2017~2021)	7	5	3
그림 7-1-2	피치료감호자의 병명별 수용 현황(2017~2021)	9	5	3
그림 7-1-3	피치료감호자의 죄명별 수용 현황(2017~2021)	1	6	3
그림 7-1-4	피치료감호자의 범죄횟수별 현황(2017~2021)	2	6	3
그림 7-1-5	피치료감호자의 집행기간별 현황(2017~2021)	4	6	3



그림 7-1-6	피치료감호자의 연령별 현황(2017~2021)	5	6	3
그림 7-1-7	피치료감호자의 학력별 현황(2017~2021)	6	6	3
그림 7-1-8	피치료감호자의 직업별 현황(2017~2021)	7	6	3
그림 7-1-9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물질별 현황(2017~2021)	8	6	3
그림 7-2-1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2017~2021)	0	7	3
그림 7-2-2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치료 프로그램 현황(2017~2021)	3	7	3
그림 7-2-3	국립법무병원 출원자의 무상 외래진료 현황(2017~2021)	6	7	3
그림 7-2-4	치료기관별 무상 외래진료 현황(2017~2021)	6	7	3
그림 7-3-1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현황(2017~2021)	7	7	3
그림 7-3-2	치료감호 죄명별 종료·가종료 현황(2017~2021)	8	7	3
그림 7-3-3	치료감호 병명별 종료·가종료현황(2017~2021)	9	7	3
그림 7-4-1	출원자 대비 3년 내 재입원율 현황(2014~2021)	1	8	3
그림 7-4-2	해당 연도 입원자 중 재입원자의 죄명별 현황(2017~2021)	3	8	3
그림 7-4-3	해당 연도 입원자 중 재입원자의 병명별 현황(2017~2021)	4	8	3
그림 7-5-1	정신감정 유치자의 입·출소 현황(2017~2021)	6	8	3
그림 7-5-2	정신감정 의뢰기관별 현황(2017~2021)	7	8	3
그림 8-2-1	공단 갱생보호사업 대상자 현황(2017~2021)	4	9	3
그림 8-2-2	공단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6	9	3
그림 8-2-3	공단 숙식제공 세부 현황(2017~2021)	7	9	3

그림

그림 8-2-4	공단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9 9 3
그림 8-2-5	공단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세부 현황(2017~2021)	0 0 4
그림 8-2-6	공단 가족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2 0 4
그림 8-2-7	공단 주거지원 - 공급 주택 호수(2017~2021)	3 0 4
그림 8-2-8	공단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5 0 4
그림 8-3-1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연도별 대상자 현황(2017~2021)	6 0 4
그림 8-3-2	민간법인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8 0 4
그림 8-3-3	민간법인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0 1 4
그림 8-3-4	민간법인 주거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0 1 4
그림 8-3-5	민간법인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2017~2021)	2 1 4
그림 9-1-1	전체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2017~2021)	7 1 4
그림 9-1-2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실시 현황(2017~2021)	8 1 4
그림 9-1-3	‘어린이로스쿨’ 실시 현황(2017~2021)	9 1 4
그림 9-1-4	‘탈북청소년 법교육’ 실시 현황(2017~2021)	0 2 4
그림 9-1-5	‘시민 법교육’ 실시 현황(2017~2021)	1 2 4
그림 9-1-6	‘이민자 법교육’ 실시 현황(2017~2021)	2 2 4
그림 9-1-7	‘모두가 행복한 교실’ 실시 현황(2017~2021)	3 2 4
그림 9-1-8	‘학생자치법교육’ 실시 현황(2017~2021)	4 2 4
그림 9-2-1	법교육 출장강연 현황(2017~2021)	6 2 4



그림 9-3-1 솔로몬로파크 방문 인원 현황(2017~2021)

9 2 4

그림 9-3-2 기관별 솔로몬로파크 방문 인원 현황(2017~2021)

0 3 4



통계분석

2022 범죄예방정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2

총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용장
기획·편집	범죄예방데이터과장 노일석 보호사무관 정진경 책임관 김재덕 책임관 우소연
감수	범죄예방기획과장 이범호 보호정책과장 오상섭 치료처우과장 민덕희 보호관찰과장 권기한 소년보호과장 이용호 전자감독과장 심선옥 소년범죄예방팀장 조연호

통계분석

2022 범죄예방정책

발행	2022년 9월
발행처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	02-2110-3335
디자인·인쇄	디자인페이지플러스(주) 02-2285-5278